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06-14



THE HISTORY OF ANYANG CITY

01

지리와 환경

안양시는 수도권 남서부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와 인접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등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 유역을 따라 평야 지대가 발달하여, 도시 전체가 타원형의 분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하천 주변에 놓인 도로 및 철도를 따라 도시가 대상형(帶狀型)으로 발달하였다.



제1권
지리와 환경

발 간 사

안양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 소중한 기록, 『안양시사』의 발간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1992년과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다시 펴내는 이번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도시의 성장과 변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 모두의 삶을 온전히 담아낸 공동의 기록입니다.

1960~70년대 소박하고 정겨웠던 안양은 1990년대 평촌신도시 조성과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왔습니다. 2010년 전후 만안구와 동안구를 중심으로 재개발이 급진전한 안양시는, 현재 평촌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또 한 번의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차분히 되짚어 미래 세대의 지혜와 자산으로 남기고자, 4년에 걸친 면밀한 조사와 집필을 통해 『안양시사』 총 20권을 완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양시사』는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안양 시민 모두의 발자취를 담은 공동의 기억이자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입니다. 과거를 통해 오늘을 성찰하며, 현재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하는 이 노력이, 시민 여러분께서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키우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시사에서는 도시계획, 지역상권, 건축 및 권역별 마을의 역사 등 정치·경제·문화·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는 물론,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 크고 작은 이야기를 풍성히 담았습니다. 자료 수집과 집필에 헌신해 주신 연구진과 전문가, 그리고 귀중한 자료 제공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도시의 기록을 소중히 여기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안양시사』가 모든 시민께 자긍심과 울림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안양시장

발간에 즈음하여

안양의 과거를 성실히 기록하고 오늘의 삶을 담아내며 미래의 길잡이가 될 『안양시사』가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완간되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안양의 어제와 오늘을 잇고 내일을 비추는 이정표로서,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자 후대에 전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본 사업은 4년에 걸친 대규모 기록 사업으로, 안양문화원이 안양시로부터 편찬사업을 수탁받아 총괄 수행하고, 연구자·시민·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화했습니다. 그 결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변천과 발전을 총 20권에 담았으며, 행정·경제·사회·교육·문화·생활을 아우른 도시사의 결실입니다.

안양은 자연 속 농경사회에서 근대 산업화를 거쳐 첨단 도시로 성장해 왔고, 그 궤적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흐름 속 안양의 정체성과 시민이 만들어 온 도시의 이야기를 생생히 담고자 했습니다.

이번 발간은 과거 기록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 기반이자 시민 정체성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축적된 자료와 연구 성과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지역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사업에 함께해 주신 편찬위원회, 집필·연구진, 자료 제공과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양시사』가 안양의 뿌리를 기억하고 오늘을 돌아보며 내일의 비전을 그려 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의 의미와 역사적 자부심을 함께 나누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안양문화원장 김 용 곤

축 간 사

1992년과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안양의 소중한 역사를 다룬 안양시사의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웅장한 사업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오신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연구진과 전문가, 그리고 안양시사를 위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는 1973년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한 이래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현재는 약 56만 명의 시민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안양의 역사를 담은 안양시사는 안양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이 될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안양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살아온 시민들의 삶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안양시사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안양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안양시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안양시사편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중한 기록을 통해 우리 안양이 더욱 발전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안양시의회 의장

안양시사 총목차

제1권 지리와 환경

제1부 자연환경

- 제1장 위치와 지형
- 제2장 기후
- 제3장 식생
- 제4장 생물상

제2부 인문환경

- 제1장 토지이용의 유형과 변화
- 제2장 교통망과 생활환경
- 제3장 안양의 진산과 안산
- 제4장 안양의 젖줄 안양천
- 제5장 옛 1번국도 만안로

제3부 역사환경

- 제1장 국가유산
- 제2장 지역유산
- 제3장 기록유산
- 제4장 안양의 전통사찰
- 제5장 전통사찰의 사원 배치와 건축특성
- 제6장 『삼성기유첩』을 통해 본 19세기 초 삼성산 유람

제2권 역사와 지역사회

제1부 고대사회와 안양의 형성

- 제1장 매장유산으로 보는 선사문화
- 제2장 고대인의 세력 진출

제2부 고려의 성립과 안양 세계

- 제1장 나말여초 지역 동향과 고려의 후삼국통일
- 제2장 지방행정과 사회·경제
- 제3장 불교의 극락정토 세계 ‘안양’

제3부 조선시대 통치체제와 지역사회

- 제1장 지방통치제도와 군제 개편
- 제2장 안양지역의 사회와 경제
- 제3장 정조의 원행과 만안교
- 제4장 기독교의 전래와 확산

제4부 한말 및 일제강점기 안양의 사회경제적 변화

- 제1장 지방제도와 지방행정의 변화
- 제2장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본 토지 소유구조
- 제3장 안양지역의 민족운동
- 제4장 일제강점기 전시체제하 사회경제적 수탈
- 제5장 일제 말기 시흥군민이 경험한 강제동원

제5부 해방 후 현대 안양의 지역사회

- 제1장 안양사람들의 해방과 한국전쟁
- 제2장 농지개혁과 농촌사회의 변화
- 제3장 안양시의 성립과 사회변동

제6부 안양의 인물과 민속

- 제1장 역사시대 인물
- 제2장 근현대 인물
- 제3장 세시풍속과 마을신앙
- 제4장 두레와 구비전승

제03권 지방자치

제1부 안양시 자치행정의 발전

- 제1장 지방자치제의 변천
- 제2장 행정구역과 행정조직의 변화
- 제3장 안양의 행정 현황
- 제4장 안양권 행정구역의 통합 논의
- 제5장 안양시 지방재정 운영

제2부 안양시의회의 성립과 활동

- 제1장 안양시의회 조직과 활동
- 제2장 안양시의회 구성과 의정 활동
- 제3장 안양의 자치법규

제3부 선거와 정치

- 제1장 안양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 제2장 안양의 지방선거
- 제3장 안양시민의 정치참여와 주민자치활동

제4부 안양시 자치행정의 주요 시책

- 제1장 민선 30년의 주요 시책
- 제2장 안양시의 복지정책
- 제3장 안양시의 보건정책
- 제4장 주요 시정내용에 대한 정책 분석
- 제5장 안양! 성장하는 50년, 비상하는 100년을 위한 준비

제04권 도시의 형성과 성장

제1부 교통 발달에 따른 안양의 도시 형성

- 제1장 경부선의 개통과 공업도시로의 성장
- 제2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안양의 변화
- 제3장 시승격 이후 안양 도시계획의 재정비

제2부 동안권 개발과 안양시역市域의 확장

- 제1장 안양의 산업화와 수도권정비계획
- 제2장 수도권 위성도시로의 성장과 택지개발사업
- 제3장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과 평촌신도시 개발
- 제4장 평촌생활권의 형성과 도시구조의 변화

제3부 안양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 제1장 안양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
- 제2장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 정비
- 제3장 안양 도시경관계획의 변화

제05권 건축과 주거의 변화

제1부 안양의 공공시설과 도시건축

- 제1장 안양의 근대시설 등장과 도시시설의 확충
- 제2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간의 기억
- 제3장 김중업건축박물관: 건축, 예술의 문을 열다
- 제4장 안양건축문화제와 건축프로젝트

제2부 안양의 도시화와 주거 양식의 변화

- 제1장 안양 자연마을의 전통민가
- 제2장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 보급의 확대
- 제3장 대단지 아파트 조성과 도시 주거의 변화

제3부 안양의 가구 변동과 주거 복지

- 제1장 인구의 변동과 도시 주거 분화
- 제2장 안양의 주거복지 정책

제06권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제1부 안양 산업의 형성과 변화

- 제1장 안양의 경제구조와 산업화
- 제2장 안양의 섬유산업과 제지산업
- 제3장 안양의 제약산업과 식품산업
- 제4장 안양의 중화학공업과 전기·전자산업
- 제5장 안양상의보를 통해 본
1970~1980년대 안양 산업계의 모습

제2부 안양 산업환경과 공업지역의 공간분포

- 제1장 산업대분류별 현황과 특성
- 제2장 안양 공업지역 내 산업의 공간분포
- 제3장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현황과 운영

제3부 안양 산업생태계의 변화와 산업육성 정책

- 제1장 신도시 개발과 산업구조의 변화
- 제2장 안양 산업의 진흥을 위한 육성 정책
- 제3장 벤처기업의 지역 정착과 유형별 경영환경

제07권 시장과 지역상권

제1부 안양의 상권 형성과 변화

- 제1장 안양 상권의 형성과 안양장의 재편
- 제2장 안양 상권의 성장과 다변화
- 제3장 사진으로 본 안양 상권의 풍경

제2부 안양의 지역상권 현황과 활성화

- 제1장 안양 상권의 유형별 현황
- 제2장 소상공인 점포 실태
- 제3장 안양시의 지역상권 육성 방안

제3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과 유통구조의 변화

- 제1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공간구조
- 제2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통시장의 변화
- 제3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제4부 평촌신도시 상권과 소비 생태계

- 제1장 평촌신도시 상권의 특성과 공간구조
- 제2장 평촌 상권의 유흥업과 유흥문화
- 제3장 평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제08권 교육과 문화

제1부 안양 교육의 역사와 지역사회 교육

- 제1장 안양 교육의 발전사
- 제2장 교육정책과 지역사회교육
- 제3장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정책과 이용현황
- 제4장 학적부로 본 안양공립보통학교의 학생생활

제2부 문화예술의 현황과 지역축제

- 제1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단체
- 제2장 문화행사와 지역축제
- 제3장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제3부 안양 문화예술의 지역 활동

- 제1장 안양의 문학
- 제2장 안양의 시각예술
- 제3장 안양의 공연예술
- 제4장 안양의 영화 산업

제4부 안양의 체육·종교·언론

- 제1장 안양 체육사
- 제2장 안양 체육의 현재와 지역사회
- 제3장 안양의 종교
- 제4장 안양의 언론

제09권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제1부 산업화 전후 안양의 공장노동과 노동운동

- 제1장 안양 100년의 노동과 노동운동
- 제2장 식민지시기 안양의 공장노동과 노동운동
- 제3장 해방 후~1960년대 안양의 공업 성장과 노동운동
- 제4장 1970년대 안양 공업지대의 확산과 산업화의 그늘
- 제5장 1960~1970년대 안양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노동자 문화
- 제6장 1970년대 안양 노동운동의 태동

제2부 1980년대 안양의 노동세계와 노동운동

- 제1장 1980년대 안양 도시화의 심화와 노동자 일상의 재구성
- 제2장 1980년대 안양 노동자들의 임금소득과 소비·여가 생활
- 제3장 1980~1986년 안양 노동운동의 새로운 경향
- 제4장 1987년 안양의 노동자대투쟁과 노동운동의 확산
- 제5장 전노협·민주노총의 결성과 안양 노동운동의 분화
- 제6장 안양 노동운동 지원 단체의 결성과 활동

제3부 신자유주의와 탈산업화 속 안양의 노동과 노동운동

- 제1장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에 따른 안양 노동의 변화
- 제2장 안양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의 분화
- 제3장 안양의 노동 형태 변화와 새로운 갈등
- 제4장 외환위기 이후 안양 노동운동의 변화와 전망
- 제5장 안양 노동의 역사적 궤적과 21세기 노동의 전망

제10권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제1부 안양 시민사회의 형성과 전개

- 제1장 안양 지역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의 태동
- 제2장 안양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 제3장 안양 지역 시민사회단체 현황

제2부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실천

- 제1장 아름다운 노동 :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
- 제2장 장애인 인권 지킴이 : 최승민 안양시장장애인인권센터장
- 제3장 장애인 돌봄 : 문경식 (사)난치병아동돌봄기운동본부 상임대표
- 제4장 희망 연대 : 노윤희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장
- 제5장 나눔과 돌봄 : 안승영 (사)유쾌한 공동체 이사장
- 제6장 환경 지킴이 : 노훈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제7장 여성 인권 : 이미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
- 제8장 행복한 교육 : 이효순 안양시민학교 교사
- 제9장 건강 주권 : 김중성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이사
- 제10장 민주 평화 : 장재근 6·15공동선언 경기중부본부 상임대표
- 제11장 마을공동체 :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 제12장 주민자치 : 김정아 안전한안양시민연합 대표

제3부 안양 사람들의 생애 경험

- 제1장 내 고향 안양
- 제2장 안양, 삶의 터전이 되다
- 제3장 이주민의 안양 정착기
- 제4장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

제4부 안양 사람들의 생애주기별 생활세계

- 제1장 아동기의 생활세계
- 제2장 청소년기의 생활세계
- 제3장 청년기의 생활세계
- 제4장 노년기의 생활세계

제11권 안양동

제1부 안양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제1장 안양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 제2장 안양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2부 안양동 마을의 변화와 주민 생활

- 제1장 햇볕 드는 양지말, 배움터가 되다
- 제2장 시민의 휴식처가 된 병목안
- 제3장 벌터의 기억 위에 아파트 도시를 건설하다 :
덕천마을 재개발사업의 기록
- 제4장 마을공동체가 만든 변화 : 명학마을 도시재생 이야기
- 제5장 사라지는 냉천마을을 기록하다

제3부 안양동의 교육과 돌봄 공간

- 제1장 안양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 안양초등학교
- 제2장 안양기독보육원, '좋은집'이 되다
- 제3장 안양 중등교육의 초석, 안양중학교와 안양여자중학교
- 제4장 만안구 북부권 교육의 기틀을 세운 만안초등학교
- 제5장 안양 유아교육의 출발지, 안양유치원

제4부 다채로운 삶의 결로 읽는 안양동의 도시 풍경

- 제1장 안양 최고(最古) 안양병원의 자리매김
- 제2장 어쩌다 주상복합, 명학시장 아파트
- 제3장 삼덕제지 공장 터에서 열리는 종이축제
- 제4장 '6동 밭데리 골목'을 아시나요
- 제5장 생태 힐링 공간을 꿈꾸는 수암천을 따라 걷다

제12권 박달동

제1부 박달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제1장 박달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 제2장 박달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2부 함께 만드는 박달동 공동체

- 제1장 박달생활권의 중심, 안양박달종합시장
- 제2장 박달동 아파트에서 살기
- 제3장 박달 우성어울림 공동체의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 제4장 박달교회가 만든 지역공동체
- 제5장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지킴이 활동

제3부 지역개발에 대한 박달동의 기대와 한계

- 제1장 박달동 군용지의 조성과 운영
- 제2장 박달동 군용지 이주민이 만든 삼봉마을
- 제3장 안양천과 박달로를 따라 형성된 박달동의 공업지역
- 제4장 필수산업이 된 박달동의 도축장 협신식품

제4부 호현마을을 기록하다

- 제1장 호현마을의 삶과 공간
- 제2장 지도와 항공사진으로 보는 호현마을의 변화
- 제3장 호현마을의 의례 생활
- 제4장 호현마을 사람들

제13권 석수동

제1부 석수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제1장 석수동의 지리와 생활 터전
- 제2장 석수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2부 전통과 변화 속에 이어지는 석수동의 마을 이야기

- 제1장 세월을 담은 골짜기 마을, 삼막골
- 제2장 삼성천과 안양천 물길을 안고 형성된 마을,
석수동과 충훈부
- 제3장 피난민의 정착지, 석수동 구룡마을
- 제4장 미군 날 미살로프의 사진으로 남은
석수동 미군 부대 마을
- 제5장 안양의 최북단 마을, 석수동 연현
- 제6장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석수력키아파트

제3부 마을의 안녕과 주민 화합을 지원하는 석수동의 제의와 축제

- 제1장 마을의 안녕을 비는 석수동의 마을제사
- 제2장 석수동 사람들의 축제

제4부 석수동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육과 돌봄

- 제1장 석수동 아이들의 배움터, 삼성초등학교
- 제2장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교육공동체, 안양발도르프학교
- 제3장 석수동에 핀 코스모스, 안양의집
- 제4장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제5부 석수시장 프로젝트

- 제1장 석수시장의 개설, 그리고 변화
- 제2장 석수시장에서 예술하기

제14권 비산동

제1부 비산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제1장 비산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 제2장 비산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2부 비산동의 마을과 전통문화

- 제1장 관악산 자락에 터 잡은 내비산과 외비산
- 제2장 문중자료를 통해 본 근대 비산동의 생활문화
- 제3장 매봉산산신제의 전승

제3부 비산동 아파트 공간의 탄생과 변천

- 제1장 비산동 아파트지구의 형성과 변화
- 제2장 비산동 아파트 단지의 분포와 특성
- 제3장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의 생애
- 제4장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의 주민생활

제4부 비산동을 다채롭게 만드는 시설들

- 제1장 아이들을 위한 평화의 터전, 평화보육원
- 제2장 도시와 함께 성장한 학교, 안양동초등학교

- 제3장 비산동 교육의 요람, 대림대학교
- 제4장 안양종합운동장의 조성과 운영

제5부 주민이 만들어가는 비산동의 문화

- 제1장 '산마을'에서 시작한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
- 제2장 마을을 움직이는 사람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제15권 관양동

제1부 관양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제1장 관양동의 지리와 생활 터전
- 제2장 관양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2부 전통과 공동체가 살아 있는 관양동 이야기

- 제1장 관양동의 자연마을과 자연마을연합회
- 제2장 마을의 안녕을 비는 관양동 수춘마을 도당제
- 제3장 부림교회에서 동은교회까지,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다
- 제4장 관양초등학교의 시간을 꺼내 보다

제3부 산업에서 상권까지, 관양동 경제의 흐름

- 제1장 인덕원동 공업지역의 자동차 산업
- 제2장 이웃과 정이 머무는 곳, 관양시장
- 제3장 교통중심지에서 도심 상권으로 변화하는 인덕원

제4부 주민들이 채워가는 관양동의 삶터

- 제1장 관양동의 주거 명당, 관양현대아파트
- 제2장 인덕원동의 '올래마을' 만들기
- 제3장 인덕원동 '새마을'의 시작과 의미
- 제4장 안양의 명소, 관양동 동편마을 카페거리

제5부 관양동에서 이어지는 삶의 기억과 공동체의 미래

- 제1장 대한전선 안양공장 사택촌의 기억
- 제2장 안양의 정서와 풍경을 빚어낸 포도 이야기
- 제3장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여는 관양동 해밀지역아동센터

제16권 호계동

제1부 호계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제1장 호계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 제2장 호계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2부 호계동의 마을과 생활문화

- 제1장 호계동의 자연마을
- 제2장 마을을 잇는 호계동의 의례와 놀이
- 제3장 호계동에 등장한 도시 중산층의 주거, 경향맨션아파트
- 제4장 금성마을에서 어바인퍼스트까지, 호계1동 주거의 변화

제3부 호계동 공업지역의 형성과 변화

- 제1장 굴뚝산업에서 IT까지, 호계동 공업지역의 변천
- 제2장 산업용품 유통의 허브, 안양국제유통단지
- 제3장 제조의 시대에서 유통의 시대로, 안양가구단지의 변화

제4부 변화하는 호계동 주거환경

- 제1장 군포장의 역사를 이어받은 구군포 이야기
- 제2장 호랭이가 맞이하는 안양호계종합시장
- 제3장 외곽의 교도소에서 도심의 쟁점으로 : 안양교도소의 변화와 이전 운동

제5부 배우고 실천해온 호계동의 공동체

- 제1장 안양 남부 지역 교육의 산실, 안양남초등학교
- 제2장 호계동의 사회단체
- 제3장 군포공소에서 성장한 호계동성당

제17권 평촌동&평촌신도시

제1부 평촌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제1장 평촌동의 지리와 생활 터전
- 제2장 평촌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2부 평촌의 개발과 변화

- 제1장 평촌동의 자연마을
- 제2장 평촌신도시 조성 and 공간구성
- 제3장 1기 신도시 노후화와 평촌의 재정비

제3부 평촌신도시의 생활환경과 주민 삶

- 제1장 범계역세권 목련마을 주민생활
- 제2장 셋별마을 한양아파트 주민생활
- 제3장 샘마을 쌍용아파트부녀회가 싹틔운 안양여성의전화
- 제4장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인동 주민자치회
- 제5장 평촌신도시와 환경시설의 공존

제4부 평촌신도시의 ‘핫(hot) 플레이스’

- 제1장 배움과 만남의 공간, 평촌학원과 평촌먹거리촌
- 제2장 젊음과 문화의 거리, 평촌로데오거리
- 제3장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평촌중앙공원
- 제4장 주민들의 힐링공간, 평촌자유공원

제5부 평촌 사람들의 삶과 경험

- 제1장 이동리 사람들
- 제2장 평촌신도시 원주민 이야기
- 제3장 교육을 위해 평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 제4장 평촌신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들 : 평촌, 성장과 추억의 도시

제18권 안양역&안양1번가

제1부 안양역세권의 형성과 성장

- 제1장 경부선 안양역 설치와 역세권의 형성
- 제2장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안양 이주와 일본인 사회의 형성
- 제3장 시흥군청의 안양 이전과 행정 중심지의 형성
- 제4장 안양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안양역 일대 공간 변천

제2부 안양역과 안양1번가 상업지역의 변천

- 제1장 해방 후~1980년대 안양역과 안양1번가 상업지역의 활성화
- 제2장 안양역과 안양1번가 상권의 쇠퇴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제3장 안양역과 안양1번가 상권의 공간 구성과 특성

제3부 안양역과 안양1번가 상업지역의 소비공간과 소비문화

- 제1장 워든지 다 있는 시장, 안양중앙시장
- 제2장 안양의 첫 도매시장, 안양남부시장
- 제3장 안양1번가, 유흥 상권에서 쇼핑문화타운으로
- 제4장 안양의 지하 상권, 일번가몰
- 제5장 안양 패션1번가 : 안양1번가와 안양지하상가 의류 상권
- 제6장 대농단지에서 새롭게 탄생한 거리, 덩리단길

제4부 안양역세권의 공간구조 재편

- 제1장 안양역세권 입지 활용의 변화
- 제2장 구시장 마을에서 주공뜨란채아파트로
- 제3장 태평방직과 진흥아파트 그리고 안양역푸르지오더샵
- 제4장 안양역전 공구거리의 사라진 쇠소리와 기름 냄새

제19권 안양유원지&안양예술공원

제1부 삼성산과 삼성천에서 마주한 시간과 공간의 교직(交織)

- 제1장 삼성산과 삼성천 공간 읽기
- 제2장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 : 중초사에서 안양예술공원까지

제2부 안양유원지 연대기

- 제1장 경성 근교 관광지로 부상한 관악산과 안양골
- 제2장 안양유원지 전성시대
- 제3장 1970년대 안양유원지 운영계획과 개발계획
- 제4장 안양의 산업화·도시화와 안양유원지의 쇠락

제3부 안양유원지에 남겨진 추억과 삶

- 제1장 그 여름, 우리는 안양유원지에 갔다
- 제2장 안양유원지, 그곳에 사람이 살아요!

제4부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공간, 안양예술공원

- 제1장 자연 위에 펼쳐진 예술의 무대, 안양예술공원
- 제2장 안양예술공원 APAP 작품 아카이브

제5부 삼성천 계곡 따라 문화와 생태 읽기

- 제1장 역사와 건축예술을 담다 :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
- 제2장 안양예술공원 숲길 따라 만나는 맛의 풍경
- 제3장 한국 최초의 수목원,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둘러보기

제20권 금천지

제1편 개관

제2편 사회

제3편 교육

제4편 산업

제5편 행정·치안·재정

제6편 인문·풍토

제7편 고적·명승

제8편 부록

안양시사 제작진

편찬위원회

위원장

최대호 안양시장

부위원장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전임 공준원 전통문화연구소 대표)

위원

김영연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김용곤 안양문화원 원장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전임 최병일)

박인옥 전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박희은 안양시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서경숙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전임 이계철, 남궁규미, 이정순)

송규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이지원 전 대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현희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동민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조인주 안양문화원 부원장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간사

정금주 안양시 문화관광과장(전임 민규섭, 한용호, 이봉철)

편찬실

선임연구원

김지석

연구원

김현미, 구본태

교정·편집

박소영, 백민정, 성명선, 손예은, 윤유석, 이승연,
이우석, 이윤진, 이화정, 조항인, 최인경, 허부동

자료조사원

김정서, 설혜영

사진촬영

이정범

행정지원


안양문화원

한길열 사무국장, 김기태 과장(전임 이재선),

최정원 학예행정팀장(전임 강혜영 학예연구사)

집필위원

강병학	재한양문화재연구원 이사장/원장	김은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강신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김은진	시인, 안양문인협회 회원
강혜영	전 안양문화원 학예연구사	김재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고문수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김재정	(주)건축사사무소 다보건축 대표이사
고제경	수원도시재단 차장	김정환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구본태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김종혁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권보형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무관	김종훈	명지대학교 건축공학박사
권오현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김지석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교수	김진주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예술학 박사과정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소장	김창현	전 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의교수
김경환	위스테인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충배	허준박물관 관장
김균연	시시한연구소 건축사사무소 소장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박사 수료
김근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김기영	위례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김형아	설날 대표
김기영	동국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연구교수	김형준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명숙	전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미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박동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
김산옥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회원	박성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박사 과정
김선화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회원	박영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김성균	공간사회학자, 전략경영연구원 전환사회센터장	박위준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김수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차장	박정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인류학전공 박사
김순기	안양 동안구보건소장	박찬응	지역기반예술연구소 소장, 화가
김연수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박천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영숙	시인,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회원	박철하	지역사 아카이브 연구소장
김영재	한양대학교 프랑스학과 겸임교수	박향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김예승	대림대학교 사무행정학과 교수	박형만	안양예총 사무국장
김왕직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홍규	수원도시재단 차장
김용환	수원도시재단차장	박희은	안양시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김우태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백민정	전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학예사



안양시사 제작진

- 서인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학술헌장
서현정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이사
설명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손예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 과정
송중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과정
송지영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강사
송효진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신수임 주생활연구소 수석연구원
신은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안정순 안양문인협회 회원
안종수 신한대학교 연구교수
엄기표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 교수
오문선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연구관
오보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원
오숙경 (주)에이엔오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윤정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인문학연구소전임연구원
오은열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우승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우은주 인왕마을네트워크 대표
유경애 미래경영컨설팅연구원 대표
유옥환 전 안양시 동안구도서관장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유희숙 대림대학교 사무행정학과 교수
윤경숙 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소장
윤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과정
윤유석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객원연구원
윤정인 아주대학교 응용사회학과 박사 수료
이경덕 한양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연구교수

이규송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정아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석사 수료
이동아	그려보다 대표	정연학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선도문화학과특임교수
이동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정요근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이명종	전 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사	정재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선임학예연구사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정재형	화성시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정한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석사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정해득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이승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이영수	인하대학교 강사	조석곤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이우석	전 건국대학교 강사	조아현	서울대학교박물관 연구원
이은선	백석대학교 초빙교수(안양대학교 명예교수)	조항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
이재욱	안양예총 회장	차선헬	화성시연구원 화성학센터장(직무대행)
이재진	(주)이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채진기	안양시의회 의원
이주희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최덕목	성결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진희	작가	최미경	자유기고가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음 대표	최순규	야생동물어류연구보전센터 연구원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최승빈	용산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현희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정규	한신대학교 중국어문화콘텐츠학과겸임교수
임근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박사 과정	최혁규	(사)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임동민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허홍범	추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장지섭	안양문인협회 부회장	현진오	(주)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연구소장
전은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연구원	홍미숙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명예회장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홍수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정동희	안양상권활성화센터 본부장	홍은영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정명림	작가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정미경	시인, 안양문인협회 이사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정미아	성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황의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박사 수료
정성권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황주성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정수빈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 수료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발간사
발간에 즈음하여(간행사)
축간사

1 자연환경

제1장 위치와 지형/024

1. 행정구역/025
2. 지형/029

제2장 기후/036

1. 안양의 기후/037
2. 안양의 기후변화 및 환경/050

제3장 식생/076

1. 한반도 식생의 역사/077
2. 한반도 식생대 구분/080
3. 안양시의 잠재자연식생/083
4. 안양시의 현존 식생도/083
5. 안양의 주유 식생과 숲 구조의 특성/100
6. 기후변화와 식생전이에 따른 안양의 미래식생/121

제4장 생물상/124

1. 개관/125
2. 동물상/135
3. 식물상/164



2 인문환경

제1장 토지이용의 유형과 변화 / 188

1. 안양의 지목별 토지이용 / 189
2. 안양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 193

제2장 교통망과 생활환경 / 202

1. 전근대시기 안양시 교통망 / 203
2. 일제시기 안양시의 교통망 / 206
3. 철도시대의 개막 / 210
4. 산업화시대 이후 안양시의 교통망 확산과 도시화 전개 / 212

제3장 안양의 진산과 안산 / 220

1. 한 고을을 안위하는 진산과 안산 / 221
2. 안양시를 품고 있는 네개의 산 / 225
3.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으로 본 안양시의 진산 / 234
4. 진산과 안산, 그 상대적이고 현재적인 의미 / 239

제4장 안양의 젖줄 안양천 / 244

1. 안양을 품고 천년을 흘러온 생명의 하천, 안양천 / 245
2. 협치가 낳은 기적, 회복된 안양천 / 254
3.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단위 하천센터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 265
4. 안양시의 미래비전, 지속가능한 안양천 가꾸기 / 267

제5장 옛 1번국도 만안로 / 270

1. 안양의 주변 환경과 교통 / 271
2. 만안로의 역사적 변천 / 273
3. 만안로의 흔적 / 295



3 역사환경

제1장 국가유산 / 302

1. 국가지정유산 / 308
2. 도지정 유산 / 311
3. 향토유산 / 331

제2장 지역유산 / 342

1. 관방유적 / 343
2. 분묘 유적 / 344
3. 불교 유적 / 348
4. 유교 유적 / 353
5. 유적지 / 357
6. 기타 유적 / 359
7. 비지정 자연유산 / 362

제3장 기록유산 / 368

1. 금석문 / 370
2. 시문 / 379
3. 산문 / 384

제4장 안양의 전통사찰 / 398

1. 안양의 전통사찰 / 399
2. 망해암 / 400
3. 삼막사 / 403
4. 안양사 / 409
5. 염불사 / 416
6. 그 외 주요사찰 / 420

제5장 전통사찰의 사원배치와 건축특성 / 426

1. 안양사와 안양사지 / 427
2. 삼막사 / 441
3. 망해암 / 456
4. 염불사 / 463
5. 안양 전통사찰의 배치 및 건축특성 / 476

제6장 『삼성기유첩』을 통해 본 19세기초 삼성산 유람 / 480

1. 머리말 / 481
2. 삼성산의 역사적 배경 / 482
3. 『삼성기유첩』의 제작배경과 관련인물 고찰 / 485
4. 『삼성기유첩』의 구성과 문화사적 가치 / 491
5. 『삼성기유첩』의 활용방안 / 505

01 자연환경

제1장 위치와 지형

제2장 기후

제3장 식생

제4장 생물상



경기도 남서부에 위치한 안양시는 동쪽으로는 과천시·의왕시, 서쪽으로는 광명시·시흥시에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군포시·안산시, 북쪽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금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형적으로 산지, 구릉, 평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관악산·삼성산·수리산 등의 산지 지형이 존재하나, 안양천 및 학의천 유역을 따라 평야 지대가 발달하여 도시 전체가 타원형의 분지 형태를 띠고 있다.

1장 위치와 지형



서현정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이사



1. 행정구역

1) 행정구역 개요

경기도에 위치한 안양시는 수도권 남동부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와 인접하여 수도권의 주요 산업 및 주거 지역으로 성장해 왔다. 안양시는 1973년 7월 시로 승격된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현재 만안구, 동안구의 2개 구로 나뉘어 있다.

만안구는 안양시의 원도심 지역으로 전통적인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과거 공업 도시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수리산과 안양천이 만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동안구는 1980년대 이후 개발된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원가와 상업시설이 발달하였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 주변 도시와의 관계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해 있는 안양시는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남으로 약 25km 지점, 도청소재지가 있는 수원특례시에서 북으로 약 19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광역시와는 동남방 약 44km 지점에 위치한다.

안양시는 행정구역상으로 1개 특별시, 6개 시와 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내 안양시 위치도(안양시, 『2024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동쪽은 과천시와 의왕시, 서쪽은 광명시와 시흥시, 남쪽은 안산시와 군포시, 북쪽은 서울특별시의 금천구와 관악구가 접하여 행정 경계를 이루고 있다.

관내에는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연천에서 시작되어 충청남도 아산까지 연결되는 전철 1호선과 남양주시 진접에서 경기도 안산을 지나 오이도에 이르는 전철 4호선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따라서 연천·동두천·의정부 등 경기도 북부와 서울의 모든 지역을 비롯하여, 경기도 남부의 광명·안산·군포·의왕·수원·오산·평택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아산까지 철도를 통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안양시 서쪽 끝에는 남북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함으로써 서울의 남서쪽 지역부터 목포에 이르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유리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관통하여 서울과 주변 지역에 접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시발점이 위치함으로써 인천까지의 접근이 쉽고 중·소 규모의 상공업에 관련된 물류 수송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안양시 위성지도

3) 지리적 위치

안양시의 동쪽 끝은 동경 126°59'07", 북위 37°23'49"로 이는 안양시 관양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부이고, 서쪽 끝은 동경 126°52'22", 북위 37°24'18"로서 안양시 박달동과 광명시 가학동이 경계를 이루는 청덕산 능선에 해당한다.

또한 남쪽 끝은 수리산 능선인 동경 126°54'15", 북위 37°21'16"로 이는 안양시 안양9동과 군포시 대야동의 경계를 이루며, 북쪽 끝은 동경 126°55'56", 북위 37°26'52"로 안양시 석수1동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이 경계를 이루는 삼성산의 능선이 된다.

4) 면적

2022년 12월 31일 기준, 안양시 전체 면적은 58.50km²으로 전 국토면적(10만 443.55 km²)의 0.058%, 경기도 면적(1만 199.54km²)의 0.57%를 차지한다. 구별로는 만안구가 36.56km², 동안구가 21.94km²로 만안구가 약 15km² 정도 더 넓다. 이를 행정동 단위로 살펴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형 농장, 목장, 공원이 있는 만안구 석수1동(9.23km²)이 시의 15.78%를 차지하여 면적이 가장 넓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있지만 주로 단독주택이 밀집된 만안구 안양4동(0.31km²)은 전체 면적의 0.53%를 차지하여 가장 좁다.

2. 지형

1) 지형과 지세

안양시는 산지·구릉·평야 등 다양한 지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인데, 안양시의 두드러진 지형적 특징은 관악산·삼성산·수리산 등의 산지지형과 안양천변에 발달한 하천 퇴적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산지지형과 하천퇴적지형 사이 기복의 차이는 비교적 큰 편으로 최고점인 관악산 정상과 최저점인 안양천 하상과는 고도 차가 600여 m 이상에 이른다. 안양시는 산지지형을 뺀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경사 또한 대체로 완만하나 산악 경계 위주로 급경사 지형이 산재해 있다.

(1) 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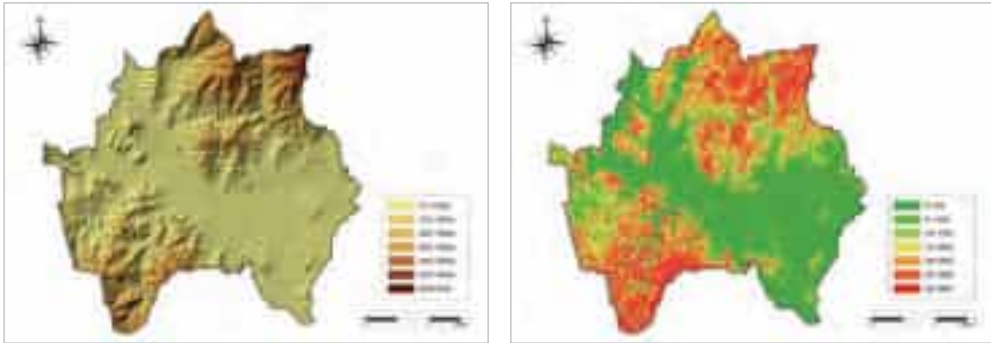
안양시의 표고를 살펴보면 표고 100m 미만인 지역이 전 지역의 63.7%, 표고 300m 미만 지역은 93.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다.

〈표 1〉 안양시 표고 현황

(단위: km², %)

구분	계	100m 미만	100~200m	200~300m	300~400m	400~500m	500m 이상
면적	58.5	37.3	11.7	6.0	2.6	0.7	0.2
구성비	100.0	63.7	19.9	10.3	4.4	1.3	0.3

출처: 안양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안양시 표고분석도(좌)와 경사분석도(우)

(2) 경사

안양의 평야 지역은 대부분 5° 미만의 경사도를 보이고 있어 도시가 발달하기 좋은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사 25° 미만인 지역이 전 지역의 8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안양천 주변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산지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높게 나타나는데, 경사 25° 이상인 지역은 안양시의 북측 관악산 및 삼성산, 남서측의 수리산 부근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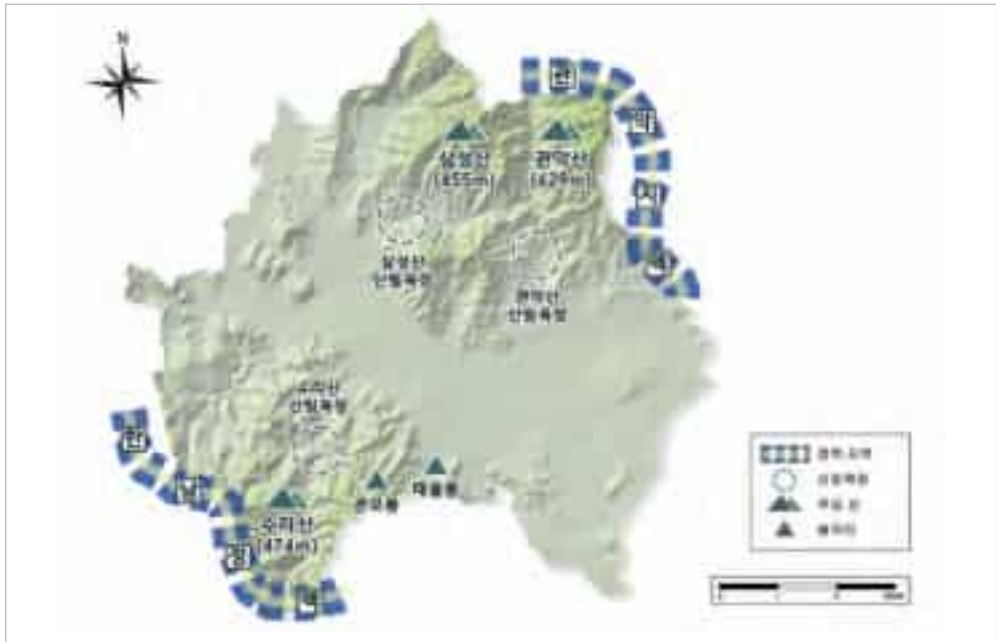
2) 산지와 구릉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한 안양시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관악산·삼성산이 솟아 있고, 서남쪽에 수리산이 자리 잡고 있다. 북쪽과 서남쪽에 산지가 있으나, 대체로 준평원¹의 잔구²지역으로 그 중앙에 평야지대가 발달하여 타원형의 분지를 이루고 있다.

관악산의 최고봉은 해발고도 629m이며 산계와 수계의 발달은 전역에 걸쳐 대체로 불규칙한 편으로 서울시 측 사면과 안양시 측 사면에 각각 3곳의 계곡이 발달해 있다. 관악산에는 빼어난 봉우리와 바위가 많은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연주봉이다.

삼성산은 관악산과 산자락이 나란히 연결된 관악산 서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고도는 455m에 이르며, 크게 보아서는 관악산의 한 봉우리라고도 할 수 있다. 정상 오른쪽에 높이 477m의 국기봉이 위치한다.

수리산은 안양시의 안양동과 군포시 산본동·속달동 및 안산시 반월동·장상동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한강 남쪽 방향에서 서울을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위치하며 능선이 남



안양시 산지현황도

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다. 견불산이라고도 불리고, 수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태을봉(474m)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슬기봉(469m), 북쪽에 관모봉(426m), 북서쪽에 수암봉(395m)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3) 하천과 평야

수계의 발달은 불규칙한 편이나 북사면에는 비교적 깊은 하곡이 형성되어 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평야 지대는 안양시의 주요 생산 기지이자 도시 중심 지역으로 농경 및 공업 활동에 적합하여 과거에 논밭이 많았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상업 시설·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도시 기능이 집중되었다. 대표적인 하천퇴적 지형으로는 학의천과 안양천이 합류하는 달안들(옛지명) 부근의 충적지형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범람원의 저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 자연제방·배후습지 등이 발달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인공적으로 변형, 평촌신도시가 들어서 있다.

학의천은 시의 동단부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비산동에서 안양천과 합류하고, 시의 중앙부를 관통하면서 북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든다.



안양시 수계현황도(안양시, 『2024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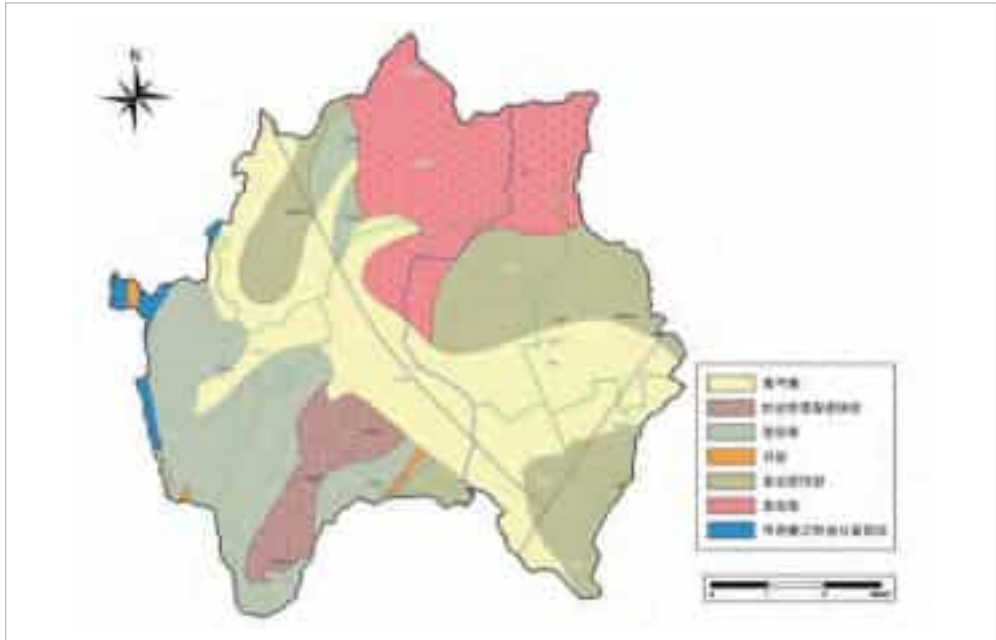


안양천(좌)과 학의천(우)

4) 지질

경기도 지층은 시생대의 연천계 漣川系, 회색화강편마암과 중생대의 대동계 大同系·경상계 慶尙系 지질로 대부분 화강암류이다. 관악산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경기도 북부는 북부 화강암지대로 부천계 변질 수성암류로 이루어진다.

안양시의 지질은 경기변성암복합체 京畿變成巖複合體, 중생대 말기의 불국사통에 속하는



안양시 지질현황도(안양시, 『2024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화강암과 제4기 충적층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캄브리아기 편암류 및 편마암류(안상편마암·흑운모호상편마암·백운모편암·흑운모편암)가 안양시 대부분 지역에 나타난다. 중생대 쥐라기(대보화강암) 지질은 안양시의 가장 높은 산인 관악산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신생대 제4기 지질인 충적층은 안양천과 학의천(鶴儀川)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여기에는 주거지·상업지·공업지가 고루 발달해 있다.

안양시의 산지는 북부 일부 지역과 중부·남부에 걸쳐 발달하며, 관악산을 제외하고는 편마암 등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악산의 기반암은 중생대 쥐라기 대보화강암으로 색깔은 흰색이나 약한 분홍색이며, 입자 크기가 중간 정도인 흑운모화강암이 대부분이지만 곳에 따라 세립질도 나타난다. 관악산은 주변이 편마암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앙에 화강암이 노출되어 있고 면적은 32km² 정도이다. 침식과 풍화에 의해 낮아진 편마암지대는 높은 산에서 운반된 흙으로 덮여 충적평야를 이루었다.

관악산 기반암의 생성 시기를 살펴보면, 편마암은 약 30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화강암은 운모를 분석한 결과 1억 7300만 년 전쯤의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산 남동 산기슭에 분포하는 편마암은 풍화와 침식에 약하여 평야로 바뀌었고, 풍화와 침식에 강한 화강암은 기둥과 같이 높이 솟아올라 관악산을 이루었다. 관악산의 화강암은 칼바위·연주대

등 바위가 곧게 쪼개지면서 만들어진 절리(節理)에 의해 독특한 경관을 이루었다.

수리산은 만안구 안양동과 군포시·안산시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기반암은 주로 흑운 모호상편마암·백운모편마암이 주를 이루며 곳곳에 규장암이 관입하고 있다. 수리산의 산계는 주로 태을봉·관모봉 등 북동 방향으로 발달하고 북서쪽에는 수암봉이 있으며, 수계의 발달은 불규칙한 편이나 북사면에는 비교적 깊은 하곡이 형성되어 있다. 안양시에서 시가지·주거지·상가가 발달한 곳은 신생대 제4기 충적층이 분포한 곳으로, 주로 안양천·학의천 등 하천 주변이다.

5) 토양

안양시의 토양은 임지의 암쇄토와 적황색토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는 수리산과 관악산의 대부분이 화강편마암의 사질토양으로서 비옥도가 높다.

안양시의 토양을 이루는 모재(母材)는 산성암·변성암·제4기층·퇴적암 등이다. 그중 산성암이 가장 많은데, 지역에 따라 주요 모재는 차이를 보인다. 안양시의 토양은 화강편마암 기원의 사질토양으로서 비옥도가 높다. 서북쪽에 위치한 만안구에서는 산성암과 변성암이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만안구의 매우 좁은 구역에는 석회석 및 석회규산염암 등 선캄브리아기 퇴적암을 모재로 한 토양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안구는 퇴적암이 나타나지 않고 산성암과 제4기층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변성암도 나타난다.

안양시의 토양은 발달하는 지형조건에 따라 하천 범람원의 토양, 내륙 평탄지의 토양, 구릉 및 산악계곡의 토양, 낮은 구릉계곡의 토양, 낮은 구릉의 토양, 산록의 토양, 구릉의 토양, 산악의 토양 등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안양시의 토양은 만들어진 조건에 따라 4가지 토양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충적토는 안양천 주변과 안양천 작은 지류 주변에 나타난다. 토층의 발달은 약하고, 토성은 사양질·미사양질·식양질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주택지로 바뀌었고 달안이들 등에서는 논으로 이용한다. 둘째, 적황색토는 안양시 주변 산록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물 빠짐이 좋고, 토성은 식질이나 식양질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거나 택지로 바뀌었고, 임야나 초지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셋째, 퇴적토는 무너져 흘러내린 토양과 충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안양시 주변의 산록에 좁게 나타난다. 토양의 물빠짐이 좋고, 토성은 사양질이나 식양질로 비옥도가 높다. 넷째, 암설토는 안양시 주변의 구릉이나 산악지에 나타나는 토양으로 배수가 매우 좋고, 토성은 사양질이나 식양질이



안양시 토양유형도(안양시, 『2024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다. 토층이 잘 발달하지 못하고 두께도 얇으며 임야에 많다.

관악산은 지형과 지세가 험하고 큰 암석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암반의 노출이 심하여 토양의 토심이 얇고 보수력도 낮다. 토성은 갈색의 자갈이나 황갈색의 바위가 많은 사양토가 많고 부분적으로 양토와 양질사토가 나타난다. 토양의 색깔은 암갈색이나 갈색을 띠며, 산도는 4.8 정도이다.

안양천 유역의 토양은 사질토양이 17.5km², 하천 주변은 식질토양이 54.9km², 산록에는 식양질토양이 126.66km², 산정에는 사양질토양이 83.2km² 각각 분포되어 있다. 안양천 상류에는 사질양토가 많고, 하류에는 식질양토가 주로 분포한다.

註

- 1 준평원準平原: 일련의 수계를 가진 하천에서 처음에는 연대가 오래된 층부터 침식되고, 이어 하천 사이의 산정부가 거의 평탄하게 될 때까지 침식되어 생기는 비교적 평탄하고 특징이 없는 평원(『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2 잔구殘丘: 준평원에서 아직 준평원화되지 않은 언덕. 화강암이나 규암과 같이 견고한 암석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한국해양학회, 『해양과학용어사전』, 2005).

2장 기후



정재형 화성시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1. 안양의 기후

1) 기후 특성

안양시는 경기도 남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과천시와 의왕시, 서쪽은 광명시와 시흥시와 접한다. 또한 남쪽으로는 군포시와 안산시, 북쪽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금천구에 접한다. 지형적 특성은 남서쪽에 관모봉(426m)·수리산(489m)·수암봉(398m), 북쪽에 관악산(629m)·삼성산(481m)·학우봉(368m) 등의 산이 존재하나, 중앙에 평야 지대가 발달하여 타원형의 분지를 이루고 있다. 학의천이 동단부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비산동에서 안양천과 합류하고, 중앙부를 관통하면서 북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든다. 안양천 변에 발달한 하천퇴적지형과 산지지형 사이의 기복은 비교적 큰 편으로 최고점인 관악산 정상과 최저점인 안양천 하상과는 고도 차가 600m에 이른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안양시는 겨울철의 건계와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형성되는 여름철의 우계와의 구별이 뚜렷하다. 특히, 북태평양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거나 열대지방에서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장마전선으로 유입될 때에는 1일 강수량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안양시의 기후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2024년 현재 안양시에는 기상대가 없어 종관기상관측장비로 측정된 자료가 부재하다. 따라서 안양시의 장기 기후(30년) 특성 분석을 위해서 행정구역상 가장 인접한 관측 지점인 수원(119)기상대의 1994~2023년(30년) 종관기상관측(ASOS)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관기상관측장비 자료를 통해



안양시 행정구역

1994~2023년 30년간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 일평균기온은 12.7℃, 일최대평균기온 17.9℃, 일최저평균기온 8.2℃, 연평균강수량 1338.6mm, 평균풍속 1.8m/s, 풍향 181.9, 평균상대습도 68.1%, 평균해면기압 1016.6hPa로 나타났다.

〈표 1〉 1994~2023년(30년) 안양시 기후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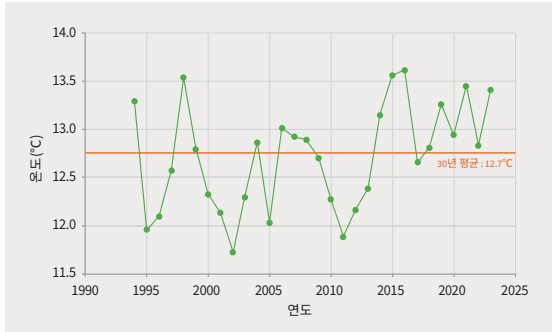
구분	일평균 기온	일최대평균 기온	일최저평균 기온	연 강수량	평균 풍속	풍향	평균 상대 습도	평균 해면 기압
단위	℃			mm	m/s	16방위	RH%	hPa
1994	13.3	18.6	8.4	1,045.6	1.5	182.3	65.6	1,016.8
1995	12.0	17.2	7.1	1,653.3	1.5	178.3	67.6	1,016.6
1996	12.1	17.5	7.5	952.1	1.5	167.5	71.1	1,016.9
1997	12.6	17.9	7.8	1,394.3	1.7	173.2	66.1	1,016.7
1998	13.5	18.7	9.1	1,626.9	1.9	164.7	66.1	1,016.8
1999	12.8	18.0	8.4	1,556.1	1.7	189.8	71.8	1,016.9

구분	일평균 기온	일최대평균 기온	일최저평균 기온	연 강수량	평균 풍속	풍향	평균 상대 습도	평균 해면 기압
단위	℃			mm	m/s	16방위	RH%	hPa
2000	12.3	17.3	7.8	1,328.8	1.7	185.6	65.4	1,016.2
2001	12.1	17.2	7.8	1,067.2	1.9	180.6	63.4	1,016.5
2002	11.7	16.6	7.3	1,231.7	2.0	191.6	64.3	1,016.0
2003	12.3	17.0	8.0	1,514.8	1.8	178.0	66.2	1,016.7
2004	12.9	18.0	8.3	1,217.0	2.1	201.6	62.4	1,016.6
2005	12.0	16.9	7.8	1,427.7	2.0	193.8	61.3	1,016.4
2006	13.0	18.0	8.7	1,362.7	2.1	172.5	62.1	1,016.3
2007	12.9	17.9	8.7	1,325.0	1.7	166.9	71.3	1,015.8
2008	12.9	18.1	8.3	1,342.9	1.7	168.1	69.7	1,016.4
2009	12.7	17.9	8.1	1,342.9	1.7	177.3	70.9	1,015.9
2010	12.3	17.1	7.9	1,470.6	1.8	176.6	73.5	1,016.3
2011	11.9	16.9	7.5	1,975.9	1.7	178.3	70.0	1,017.0
2012	12.2	17.2	7.7	1,748.3	1.8	173.5	69.0	1,016.0
2013	12.4	17.5	7.9	1,240.1	1.7	186.7	71.6	1,016.1
2014	13.1	18.6	8.5	1,029.1	1.8	184.7	67.9	1,016.7
2015	13.6	19.1	8.9	751.1	1.8	180.1	67.7	1,016.6
2016	13.6	19.1	9.0	1,023.4	1.8	187.0	67.6	1,016.7
2017	12.7	18.4	7.8	1,328.6	1.8	192.4	67.5	1,016.9
2018	12.8	18.6	8.0	1,293.1	1.8	179.6	67.5	1,017.2
2019	13.3	18.9	8.3	915.8	1.8	187.9	69.5	1,016.7
2020	12.9	18.0	8.5	1,635.5	1.9	194.5	75.7	1,016.8
2021	13.4	18.7	8.8	1,084.4	1.9	182.1	72.2	1,016.7
2022	12.8	18.1	8.2	1,864.0	1.9	198.6	68.4	1,017.0
2023	13.4	18.7	8.8	1,409.4	1.9	183.5	69.4	1,016.5
합계 평균	12.7	17.9	8.2	1,338.6	1.8	181.9	68.1	1,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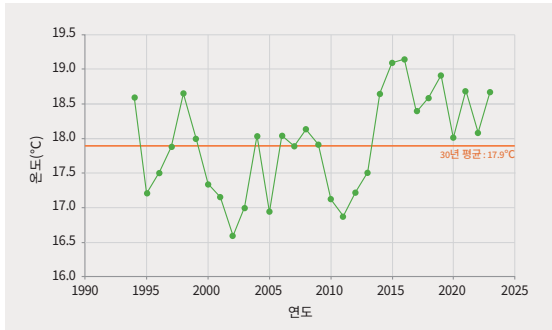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1994~2023), 종관기상관측(ASOS) 자료.

2)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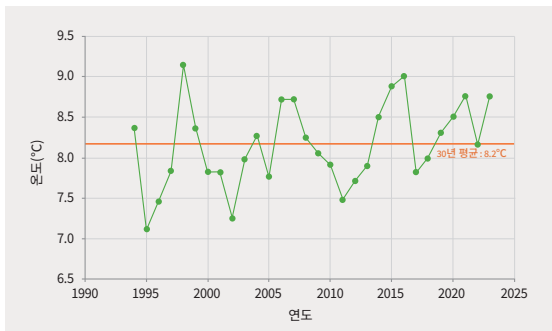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의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일평균기온은 12.7℃로, 경기도(11.8℃) 대비 0.9℃ 높게 나타났다. 일평균최대기온은 17.9℃로, 경기도 일평균최대기온(17.9℃)과 동일한 온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평균최저기온은 8.2℃로, 경기도 일



1994~2023년(30년) 안양시 일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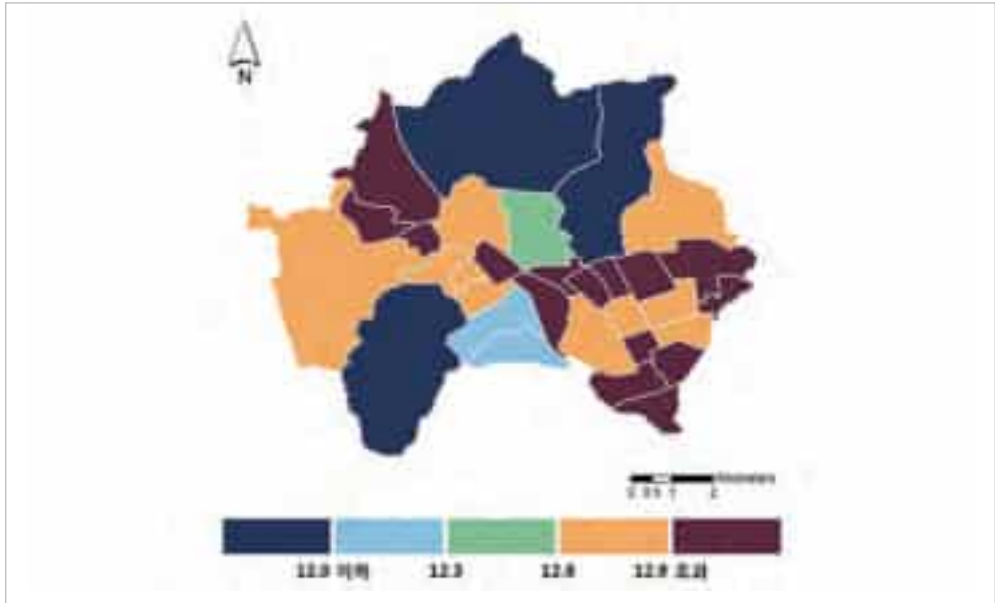
1994~2023년(30년) 안양시 일평균최대기온



1994~2023년(30년) 안양시 일평균최저기온

평균최저기온(6.7℃) 대비 1.5℃ 높게 나타났다. 안양시 기온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년간 시간에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안양시 일평균기온은 2020년 이후부터 30년 평년값(12.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평균최대기온은 2014년 이후부터 30년 평년값(17.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평균최저기온은 1995년 이후부터 증감을 반복하지만, 평년값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10년 10년 사이 안양시 동별 기온 관측자료를 보면 일평균기온은 12.5℃로 경기도(11.2℃)보다 1.3℃ 높게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일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갈산동·관양2동·석수2동·평촌동·호계3동(13.1℃)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9동(11.8℃)이며, 그 차이는 1.3℃로 나타났다. 안양시의 일최고기온은 17.3℃, 일최저기온은 8.4℃로 나타났고, 평균 일교차는 8.9℃이다. 이러한 기온의 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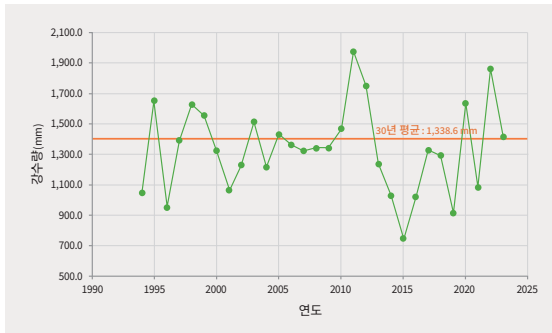


2001~2010년(10년) 안양시 동별 연평균기온(℃) 상세분포도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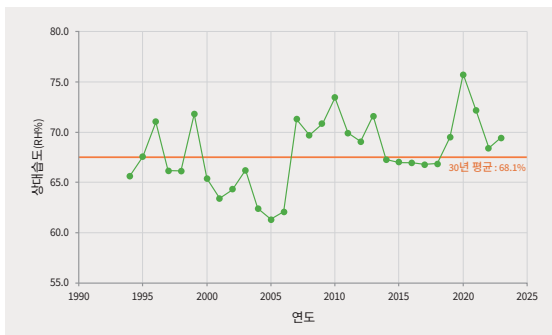
한값으로 열대야일수*와 폭염일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001~2010년 사이 안양시 열대야일수는 4.2일, 폭염일수는 6.6일로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 열대야 일수는 호계 3동이 7.8일로 가장 많은 일수가 관측되었으며, 폭염일수는 관양 2동이 11.2일로 가장 많은 일수가 관측되었다.

3) 강우와 습도

1994~2023년까지 30년간 안양시의 강우와 습도를 살펴보면 연평균 강수량은 1338.6mm로 경기도(1370.7mm) 대비 32.1mm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중 연강수량 최댓값은 2011년 1975.9mm, 최솟값은 2015년 751.1mm로 나타났으며, 연강수량은 2011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평균상대습도는 68.1%로 경기도 평균상대습도(68.4%) 대비 0.3% 낮게 나타났다. 1994~2023년 30년간 평균상대습도 최댓값은 2020년에 75.7%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30년 평균값(68.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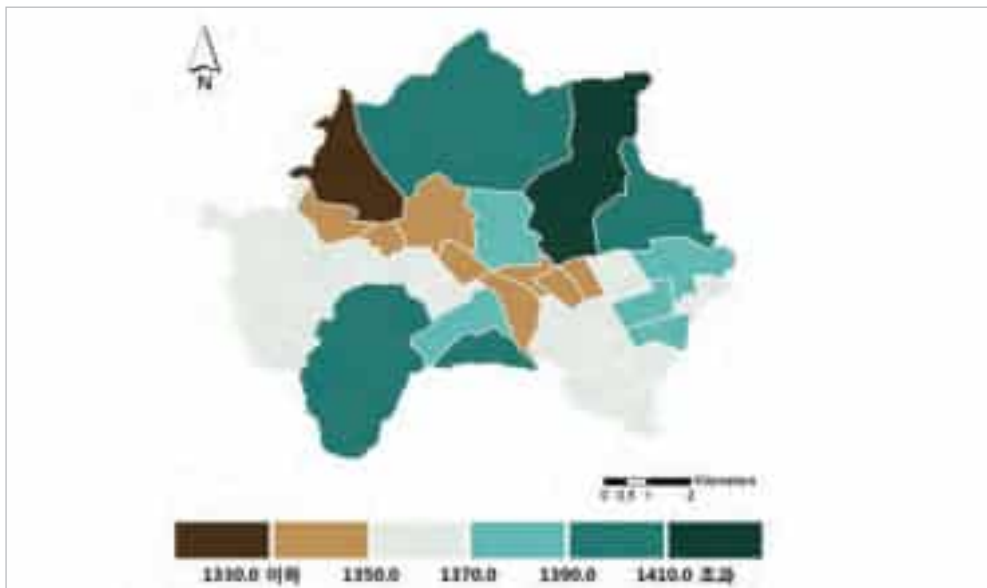


1994~2023년(30년) 안양시 연평균 강수량



1994~2023년(30년) 안양시 평균상대습도

2001~2010년 10년간 안양시 동별 연강수량은 1379.5mm로 경기도 평균인 1437.3mm보다 적다. 안양시 내에서는 비산3동이 1418.4mm로 가장 많고, 석수2동은 1328.6mm로 가장 적어서 그 차이가 89.8mm로 나타났다. 이러한 10년간 강수량 분포는 30년 장기 연평균 강수량 분포와 비슷한 양상이다. 안양시 관내에서도 석수2동·석수3동·비산2동·박달1동은 연강수량 1340mm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 분포를 보이고, 안양8동·안양9동·석수1동·비산3동은 연강수량 1400mm 이상으로 안양시에서도 상대적으로



2001~2010(10년) 안양시 동별 연강수량(mm) 상세분포도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인다. 계절별 강수량 평균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강수량 특징과 유사하게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안양시 겨울철 강수량은 54.7mm로 경기도(103.4mm) 대비 약 52.9%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 2001~2010년(10년) 안양시 단위 계절 및 연강수량

(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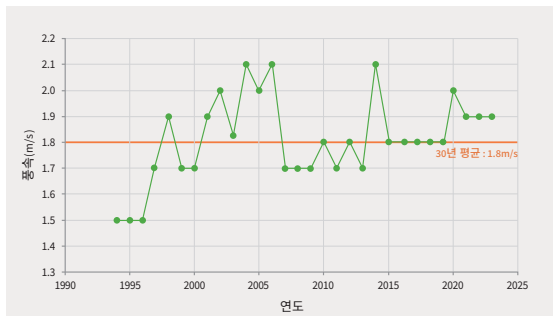
구분	연강수량				연강수량
	봄	여름	가을	겨울	
경기도	215.4	908.0	252.7	103.4	1,437.3
안양시	204.5	868.4	249.9	54.7	1,379.5
안양1동	198.8	851.3	245.7	52.1	1,349.6
안양2동	200.7	844.1	245.3	53.9	1,346.4
안양3동	204.6	850.3	247.0	55.1	1,359.4
안양4동	204.2	850.9	246.9	54.8	1,359.1
안양5동	199.4	857.8	247.9	52.7	1,359.8
안양6동	203.8	876.5	251.7	54.1	1,387.7
안양7동	199.0	850.8	245.8	52.1	1,349.4
안양8동	206.3	884.8	253.5	54.5	1,400.6
안양9동	208.6	884.0	254.4	56.5	1,405.5
석수1동	210.0	883.7	254.2	56.9	1,407.3
석수2동	201.4	828.2	242.8	53.6	1,328.6
층훈동	201.3	833.4	243.7	53.9	1,334.8
박달동	201.8	834.3	243.6	54.2	1,336.4
호현동	203.8	843.7	246.1	55.1	1,351.2
비산1동	201.0	868.5	249.5	53.3	1,374.1
비산2동	197.7	840.3	243.7	51.5	1,334.9
비산3동	207.1	898.4	255.7	55.6	1,418.4
부흥동	198.8	848.4	245.3	52.4	1,346.7
달안동	198.8	849.7	245.5	52.5	1,348.4
관양동	204.0	885.8	250.4	53.5	1,394.6
인덕원동	199.9	871.4	246.6	52.6	1,371.9
부림동	199.5	865.6	246.3	52.7	1,365.8
평촌동	199.3	869.2	246.2	52.7	1,368.8
평안동	201.2	879.5	248.7	53.2	1,383.9

구분	연강수량				
	봄	여름	가을	겨울	연강수량
귀인동	200.3	874.5	247.7	53.1	1,377.1
호계1동	199.4	855.3	246.3	52.4	1,355.1
호계2동	201.0	858.7	247.7	52.8	1,361.9
호계3동	199.1	860.5	246.1	52.5	1,359.8
범계동	200.4	861.0	247.4	53.0	1,363.6
신촌동	199.4	866.2	246.8	52.7	1,366.6
갈산동	199.1	868.1	246.5	52.7	1,3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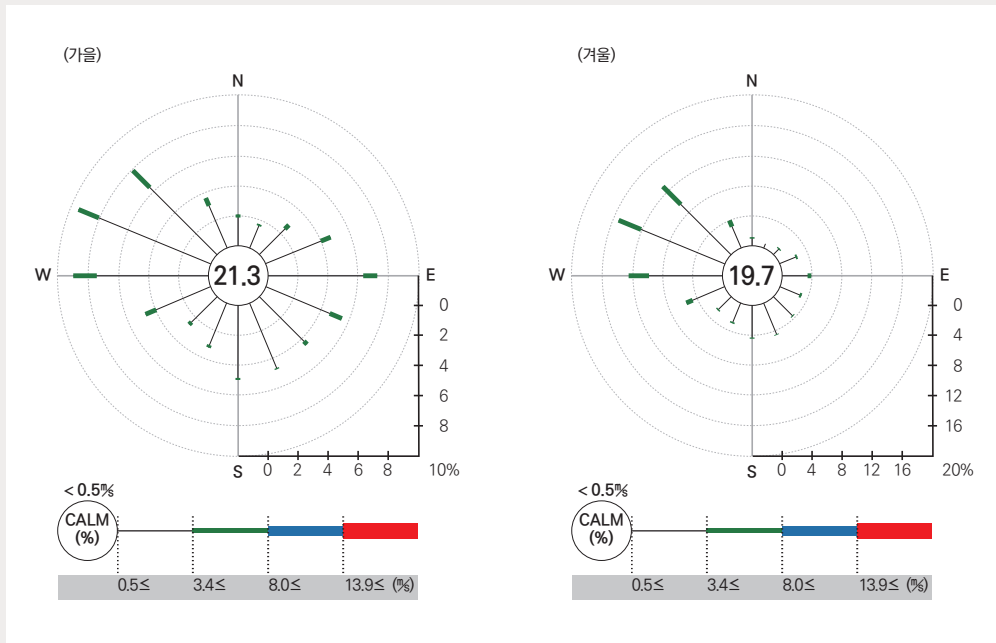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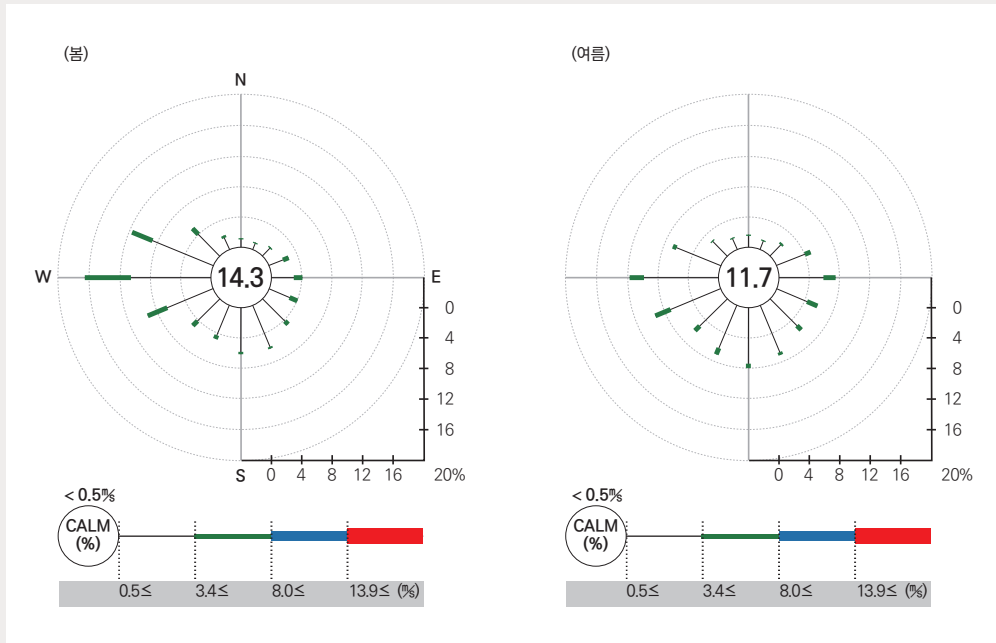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4)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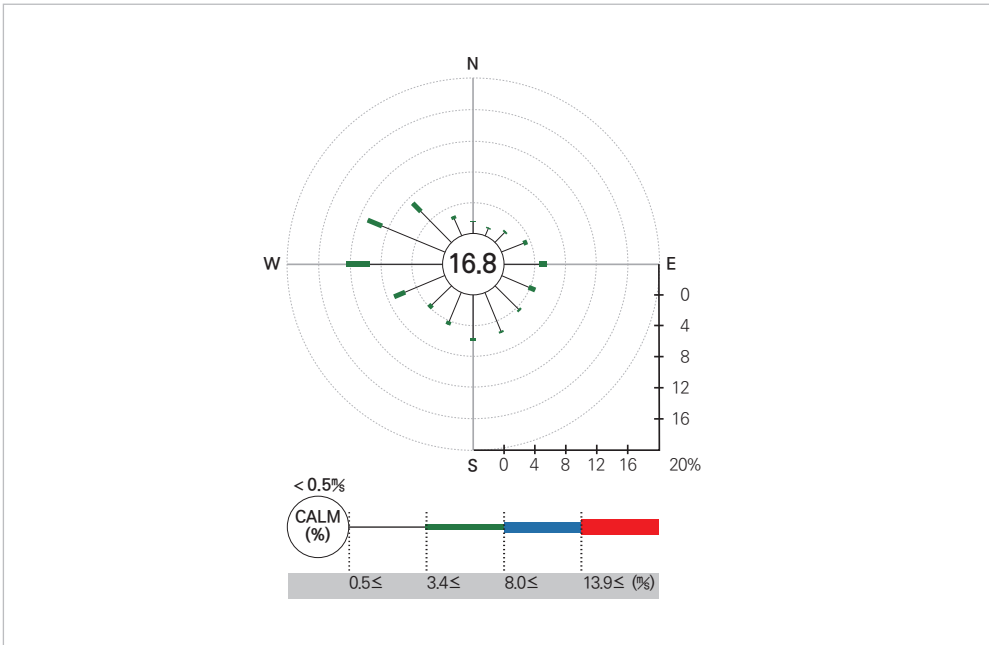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의 연평균 풍속은 1.8m/s로 약한 편이고 연중 무풍(기상청 기준 풍속 0.4m/s 이하)에 속하는 정온(일정한 온도) 비율은 16.8%로 나타났다. 연중 주풍향은 서풍과 서북서풍이 각각 12.4%, 10.8%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안양시의 계절별 풍속 특성을 살펴보면, 봄철에는 정온 비율이 14.3%로 낮고, 서풍·서북서풍이 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정온 비율이 11.7%까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서남서풍·서풍이 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을철 정온 비율은 21.3%로 사계절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풍향은 서북서·북서풍이 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정온 비율은 가을철보다 낮아졌지만 봄·여름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풍향은 가을철과 유사하게 서풍·서북서풍·북서풍이 주로 나타났다.



1994~2023년(30년) 안양시 연평균 풍속



1994~2023년(30년) 안양시 계절별 바람장미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2024), 중관기상관측 수원(119)지점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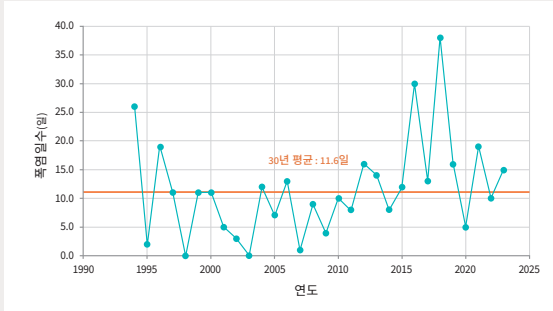
1994~2023년(30년) 안양시 바람장미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2024), 중관기상관측 수원(119)지점 바람장미.

5) 현상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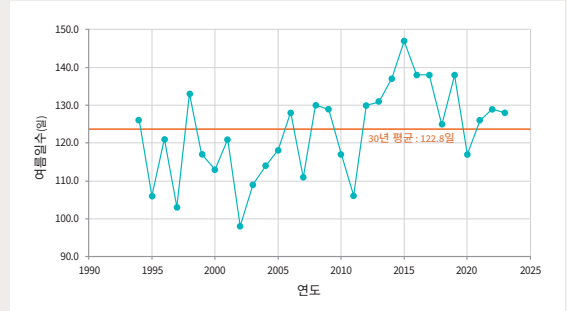
현상일수란 일정 기간 중 맑음·흐림·부조(날씨가 고르지 못함)·폭풍·강수·눈·뇌전(천둥과 번개)·안개·서리·결빙 등의 기상 현상을 관측한 일수를 말한다.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극한기후는 고온, 저온, 강수 관련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고온 관련 극한기후는 폭염일수 11.6일, 열대야일수 9일, 여름일수 122.8일, 식물성장가능기간 261.6일로 나타났다. 저온 관련 극한기후는 서리일수 103.6일, 결빙일수 15.6일로 나타났다. 강수 관련 극한기후는 습윤일수 78.1일, 호우일수 3.1일, 강수강도 17.3mm/일로 나타났다.

1994~2023(30년) 화성시 폭염일수(일최고기온 33℃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는 11.6일로 경기도 폭염일수(2000~2019년 기준 12.4일) 대비 0.8일 낮게 나타났다. 일평균기온 최댓값은 2018년 38.0일, 최솟값은 1998년과 2003년에 0.0일로 나타났으며, 안양시는 2012년 이후부터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의 폭염일수가 30년 평년값(11.6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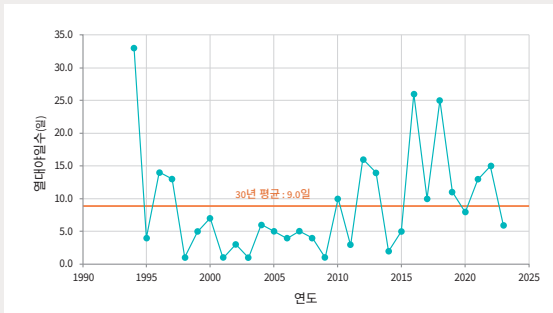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열대야일수(일최저기온 25℃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는 9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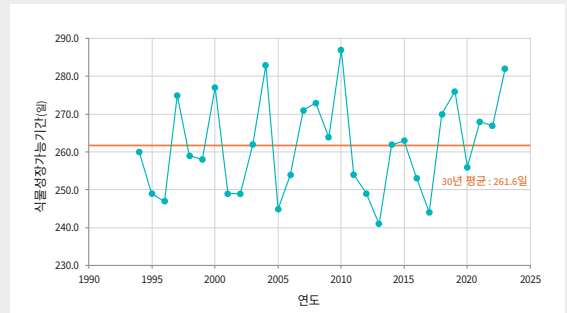
1994~2023년(30년) 안양시 폭염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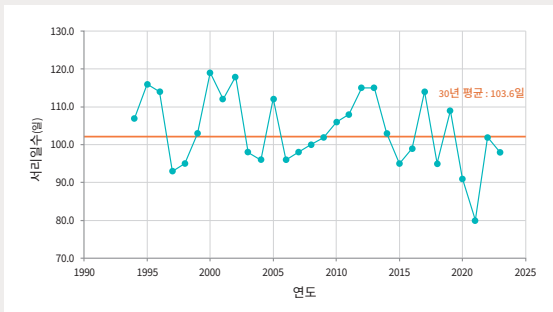
1994~2023년(30년) 안양시 여름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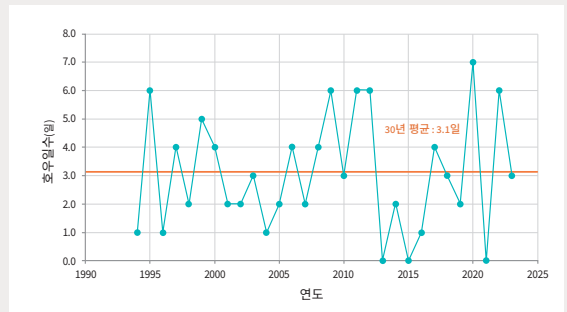
1994~2023년(30년) 안양시 열대야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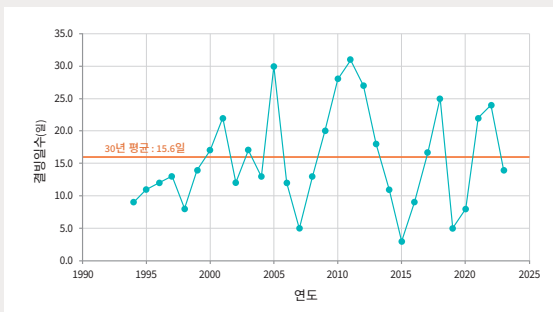
1994~2023년(30년) 안양시 식물성장가능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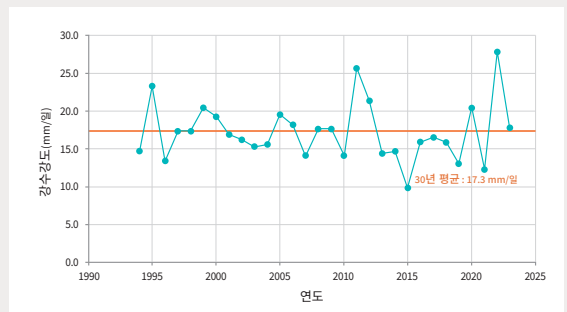
1994~2023년(30년) 안양시 서리일수



1994~2023년(30년) 안양시 호우일수



1994~2023년(30년) 안양시 결빙일수



1994~2023년(30년) 안양시 강수강도

경기도 열대야일수(2000~2019년 기준 5.5일) 대비 3.5일 높게 나타났다. 열대야일수 최댓값은 1994년 33일, 최솟값은 1998·2001·2003·2009년 1일로 나타났다.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여름일수(일최고기온 25℃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는 122.8일로 경기도 여름일수(2000~2019년 기준 123.7일) 대비 0.9일 낮게 나타났다. 여름일수 최댓값은 2015년 147일, 최솟값은 2002년 98일로 나타났으며, 안양시는 2012~2019년에 30년 평년값(122.8일) 대비 높은 여름일수를 나타내고 있다.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식물성장가능기간(일평균기온이 5℃ 보다 높은 날이 6일 이상 지속된 첫 날부터 5℃ 미만인 날이 6일 이상 지속된 첫 날까지 사이의 연중일수)은 261.6일로 경기도 식물성장가능기간(2000~2019년 기준 254.6일) 대비 6.5일 높게 나타났다. 식물성장가능기간 최댓값은 2010년 287일, 최솟값은 2013년 241일로 나타났다.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서리일수(일최저기온 0℃ 미만인 날의 연중일수)는 103.6일로 경기도 서리일수(2000~2019년 기준 108.3일) 대비 4.7일 낮게 나타났다. 서리일수 최댓값은 2000년 119일, 최솟값은 2021년 80일로 나타났다.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결빙일수(일최고기온 0℃ 미만인 날의 연중일수)는 15.6일로 경기도 결빙일수(2000~2019년 기준 19.2일)보다 3.6일 낮게 나타났다. 결빙일수 최댓값은 2011년 31일, 최솟값은 2015년 3일로 나타났다.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호우일수(일강수량 80mm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는 3.1일로 경기도 호우일수(2000~2019년 기준 2.5일) 대비 0.6일 높게 나타났다. 호우일수 최댓값은 2020년 7일, 최솟값은 2013·2015·2020년 0일로 나타났다.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강수강도(연중 습윤일수(일강수량이 1.0mm 이상인 날)로 나누어진 연 총강수량)는 17.3mm/일로 경기도 강수강도(2000~2019년 기준 16.4mm/일)보다 0.9mm/일 높게 나타났다. 30년간 강수강도 추세분석은 기울기가 -0.0027의 감소 폭을 보이고 있으며, 강수강도 최댓값은 2022년 27.8mm/일, 최솟값은 2015년 9.9mm/일로 나타났다.

2001~2010년 10년간 안양시의 서리일수와 결빙일수는 각각 93.9일과 19.5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의 서리일수 123.7일과 결빙일수 22.9일보다 적은 수준으로 경기도의 연평균 일최저기온과 연평균 일최고기온보다 안양시가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서리일수와 결빙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식물성장가능기간이 길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안양시에서 농사 가능일수가 길다는 것을 뜻한다. 안양시 관내에서 서리일수는 비산3동이 102.8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석수2동이 83.3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결빙일수는 안양9동이 24.2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석수2동이 16.1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일수는 113.9일로 경기도 평균보다 0.2일 많고, 식물성장가능기간은 261.8일로 11.6일 길게 나타났다. 식물성장가능기간은 석수2동이 268.4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여름일수는 관양2동에서 124.6일로 가장 많고, 안양9동에서 103.2일로 가장 적으며 그 차이가 21.4일로 나타났다.

〈표 3〉 2001~2010(10년) 안양시 기온 관련 극한기후지수

(단위: 일)

구분	서리일수	결빙일수	여름일수	식물성장 가능기간
경기도	123.7	22.9	113.7	250.2
안양시	93.9	19.5	113.9	261.8
안양1동	88.6	17.3	120.9	263.9
안양2동	89.7	17.8	117.2	263.2
안양3동	89.7	18.1	118.5	263.6
안양4동	89.4	17.9	119.5	263.9
안양5동	89.9	18.2	119.0	263.2
안양6동	94.8	21.0	111.6	260.7
안양7동	87.7	17.1	121.7	264.0
안양8동	96.9	20.6	112.5	259.1
안양9동	99.6	24.2	103.2	258.1
석수1동	98.7	21.2	106.2	258.8
석수2동	83.3	16.1	119.8	268.4
충훈동	86.9	16.5	121.1	265.9
박달동	87.3	16.8	120.5	265.3
호현동	90.7	18.4	117.0	262.9
비산1동	95.5	19.4	114.2	261.1
비산2동	89.6	16.9	122.2	263.7
비산3동	102.8	21.6	107.2	257.9
부흥동	87.5	16.9	119.8	264.1
달안동	86.0	16.7	119.1	264.3
관양동	94.9	17.7	120.2	264.0
인덕원동	88.6	17.1	124.6	266.2
부림동	87.7	17.1	123.0	265.8
평촌동	88.1	17.3	124.0	265.0

구분	서리일수	결빙일수	여름일수	식물성장 가능기간
평안동	89.3	17.5	123.0	265.6
귀인동	89.1	17.6	122.6	264.8
호계1동	88.7	17.4	122.7	264.7
호계2동	91.0	17.8	118.9	262.7
호계3동	87.0	17.4	123.1	265.9
범계동	88.6	17.3	119.4	264.3
신촌동	88.4	17.5	122.7	265.2
갈산동	87.6	17.4	123.3	265.8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2. 안양의 기후변화 및 환경

기후변화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단위 변화 양상을 구분하여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온과 강수량 등 주요 기후요소에 대한 과거 장기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전문가 그룹이 연구-제안한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장기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안양시의 최근 30년간(1994~2023년)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 기후전망은 기상청의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 보고서(2015)』의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1) 기온변화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일평균기온은 12.7℃, 일최대평균기온은 17.9℃, 일최저평균기온은 8.2℃로 나타났다. 안양시의 장기간 연평균 기온변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10년(1994~2003)과 최근 10년(2014~2023년)을 비교하였을 때, 일평균기온·일최대평균기온·일최저평균기온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1994~2003)

대비 최근 10년(2014~2023년) 안양시 평균기온은 일평균기온은 12.5℃에서 13.2℃, 일 최대평균기온은 17.6℃에서 18.6℃, 일최저평균기온은 7.9℃에서 8.5℃로 각각 0.7℃, 1.0℃,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994~2023년(30년) 안양시 10년 단위 기후요소 (단위: °C)

구분	일평균기온	일최대평균기온	일최저평균기온
(1994~2003) 평균	12.5	17.6	7.9
(2004~2013) 평균	12.5	17.6	8.1
(2014~2023) 평균	13.2	18.6	8.5
합계 평균	12.7	17.9	8.2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1994~2023), 종관기상관측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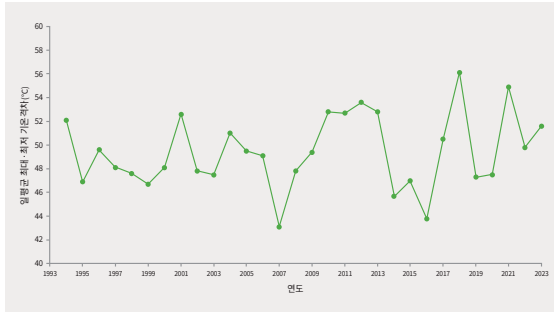
1994~2023(30년) 안양시 일별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최대기온극값과 최저기온극값의 기온격차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대기온극값은 34.9℃, 최저기온극값은 -14.6℃, 기온격차는 49.4℃로 나타났다. 30년간 최대기온극값과 최저기온극값의 증가폭은 최대기온극값의 기온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대기온의 증가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기온극값을 과거 10년(1994~2003)과 최근 10년(2014~2023)으로 비교하였을 때, 기온격차(48.7℃→49.4℃)는 30년간 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간 연도별 최대기온극값은 0.9℃(34.3℃→35.2℃) 상승, 최저기온극값기온은 0.1℃(-14.4℃→-14.3℃) 상승하여 최대기온극값 증가 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2013년 기온극값은 30년(1994~2023), 과거 10년(1994~2003), 최근 10년(2014~2023) 대비 최대기온극값, 최저기온극값, 기온격차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5〉 1994~2023년(30년) 안양시 최대·최저 기온극값 및 기온격차 (단위: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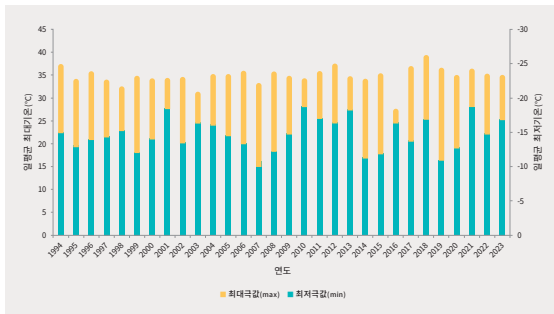
구분	최대기온극값	최저기온극값	기온격차
(1994~2003) 평균	34.3	-14.4	48.7
(2004~2013) 평균	35.2	-15.0	50.2
(2014~2023) 평균	35.2	-14.3	49.4
합계 평균	34.9	-14.6	49.4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1994~2023), 종관기상관측자료 분석.

기상청이 제시한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시의 미래 장기 기후변화 예측 결과는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대표농도경로, 8.5)¹ 시나리오에서 연평균기온이 2000년대에 비해 2040년대에는 2.1℃, 2090년대에는 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양시 연평균기온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RCP 8.5에서 안양시의 미래 기온상승 정도는 2071~2100년 기준 안양시와 경기도가 4.8℃로 동일하다. 안양시와 경기도의 기



1994~2023년(30년) 안양시 기온격차



1994~2023년(30년) 안양시 여름일수

후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상승 폭은 1981~2010년 기준 12.5℃에서 2071~2100년 기준 17.8℃로 우리나라 전체 상승 폭보다 0.5℃ 낮지만, 안양시 내 평균기온의 변화량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2090년 안양시 RCP 8.5 기준 5.5℃ 상승, RCP 4.5 기준 2.3℃ 상승으로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현재 추세대로 유지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기온상승 폭은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2040년대부터 아열대기후에 속하고,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대부터 아열대기

〈표 6〉 안양시 평균기온 전망 및 현재 기후값 대비 편차(℃)(RCP 8.5)

(단위:℃)

구분	2001~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2061~2070	2071~2080	2081~2090	2091~2100
경기도	11.2	+0.0	+1.1	+1.3	+2.1	+2.5	+3.4	+4.2	+4.7	+5.4
			+0.8			+2.7			+4.8	
안양시	12.5	+0.0	+1.1	+1.2	+2.1	+2.5	+3.3	+4.2	+4.7	+5.5
			+0.8			+2.6			+4.8	

구분	2001~ 2010	2011~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90	2091~ 2100
안양1동	13.0	+0.0	+1.1	+1.3	+2.1	+2.5	+3.3	+4.2	+4.8	+5.5
안양2동	12.8	+0.0	+1.1	+1.3	+2.1	+2.5	+3.3	+4.2	+4.7	+5.5
안양3동	12.8	+0.1	+1.1	+1.3	+2.1	+2.5	+3.4	+4.2	+4.8	+5.5
안양4동	12.9	+0.0	+1.1	+1.3	+2.1	+2.5	+3.3	+4.2	+4.7	+5.5
안양5동	12.8	+0.1	+1.2	+1.3	+2.1	+2.5	+3.4	+4.2	+4.8	+5.5
안양6동	12.3	+0.1	+1.2	+1.3	+2.2	+2.5	+3.4	+4.3	+4.8	+5.5
안양7동	13.0	+0.1	+1.2	+1.3	+2.2	+2.5	+3.4	+4.3	+4.8	+5.5
안양8동	12.3	+0.1	+1.2	+1.3	+2.1	+2.5	+3.4	+4.2	+4.8	+5.5
안양9동	11.8	+0.1	+1.2	+1.3	+2.2	+2.6	+3.4	+4.3	+4.8	+5.6
석수1동	11.9	+0.1	+1.1	+1.3	+2.1	+2.5	+3.4	+4.2	+4.8	+5.5
석수2동	13.1	+0.1	+1.2	+1.3	+2.2	+2.6	+3.4	+4.3	+4.8	+5.6
충훈동	13.0	+0.1	+1.2	+1.3	+2.2	+2.5	+3.4	+4.3	+4.8	+5.6
박달동	13.0	+0.1	+1.1	+1.3	+2.1	+2.5	+3.4	+4.2	+4.8	+5.5
호현동	12.7	+0.1	+1.1	+1.3	+2.1	+2.5	+3.4	+4.2	+4.8	+5.5
비산1동	12.4	+0.1	+1.2	+1.3	+2.1	+2.5	+3.4	+4.2	+4.8	+5.5
비산2동	13.0	+0.1	+1.2	+1.3	+2.1	+2.5	+3.4	+4.3	+4.8	+5.5
비산3동	11.9	+0.0	+1.1	+1.2	+2.1	+2.5	+3.3	+4.2	+4.7	+5.5
부흥동	13.0	+0.0	+1.1	+1.3	+2.1	+2.5	+3.3	+4.2	+4.7	+5.5
달안동	13.0	+0.1	+1.1	+1.3	+2.1	+2.5	+3.4	+4.2	+4.8	+5.5
관양동	12.7	+0.0	+1.1	+1.3	+2.1	+2.5	+3.3	+4.2	+4.7	+5.5
인덕원동	13.1	+0.0	+1.1	+1.3	+2.1	+2.5	+3.3	+4.2	+4.7	+5.5
부림동	13.0	+0.1	+1.2	+1.3	+2.2	+2.5	+3.4	+4.3	+4.8	+5.5
평촌동	13.1	+0.0	+1.1	+1.2	+2.1	+2.5	+3.3	+4.2	+4.7	+5.5
평안동	12.9	+0.1	+1.2	+1.3	+2.2	+2.5	+3.4	+4.3	+4.8	+5.5
귀인동	12.9	+0.1	+1.2	+1.3	+2.2	+2.6	+3.4	+4.3	+4.8	+5.5
호계1동	13.0	+0.1	+1.2	+1.3	+2.1	+2.5	+3.4	+4.2	+4.8	+5.5
호계2동	12.8	+0.1	+1.2	+1.3	+2.1	+2.5	+3.4	+4.2	+4.8	+5.5
호계3동	13.1	+0.0	+1.1	+1.3	+2.1	+2.5	+3.3	+4.2	+4.7	+5.5
범계동	12.9	+0.0	+1.1	+1.2	+2.1	+2.5	+3.3	+4.2	+4.7	+5.4
신촌동	13.0	+0.1	+1.2	+1.3	+2.2	+2.5	+3.4	+4.3	+4.8	+5.5
갈산동	13.1	+0.0	+1.1	+1.3	+2.1	+2.5	+3.3	+4.2	+4.7	+5.4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 비교: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시조례 제3562호에 의거 일부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었다.(석수3동→충훈동, 관양1동→관양동, 관양2동→인

〈표 7〉 안양시 평균기온 전망 및 현재 기후값 대비 편차(RC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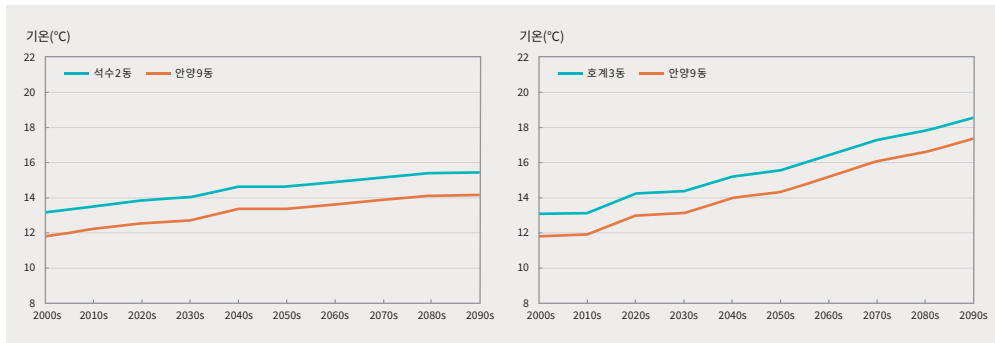
(단위: °C)

구분	2001~ 2010	2011~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90	2091~ 2100
경기도	11.2	+0.4	+0.7	+0.8	+1.5	+1.5	+1.7	+2.0	+2.2	+2.2
			+0.6			+1.6			+2.2	
안양시	12.5	+0.3	+0.7	+0.8	+1.4	+1.5	+1.7	+2.0	+2.2	+2.3
			+0.6			+1.5			+2.2	
안양1동	13.0	+0.4	+0.7	+0.9	+1.5	+1.5	+1.8	+2.0	+2.3	+2.3
안양2동	12.8	+0.3	+0.7	+0.8	+1.5	+1.4	+1.7	+2.0	+2.2	+2.3
안양3동	12.8	+0.4	+0.7	+0.9	+1.5	+1.5	+1.8	+2.0	+2.3	+2.3
안양4동	12.9	+0.3	+0.7	+0.8	+1.5	+1.5	+1.7	+2.0	+2.2	+2.3
안양5동	12.8	+0.4	+0.7	+0.9	+1.5	+1.5	+1.8	+2.0	+2.3	+2.3
안양6동	12.3	+0.4	+0.7	+0.9	+1.5	+1.5	+1.8	+2.1	+2.3	+2.3
안양7동	13.0	+0.4	+0.7	+0.9	+1.5	+1.5	+1.8	+2.1	+2.3	+2.3
안양8동	12.3	+0.4	+0.7	+0.9	+1.5	+1.5	+1.8	+2.0	+2.3	+2.3
안양9동	11.8	+0.4	+0.8	+0.9	+1.6	+1.5	+1.8	+2.1	+2.3	+2.4
석수1동	11.9	+0.4	+0.7	+0.9	+1.5	+1.5	+1.8	+2.0	+2.3	+2.3
석수2동	13.1	+0.4	+0.7	+0.9	+1.5	+1.5	+1.8	+2.1	+2.3	+2.4
충훈동	13.0	+0.4	+0.7	+0.9	+1.5	+1.5	+1.8	+2.1	+2.3	+2.3
박달동	13.0	+0.4	+0.7	+0.9	+1.5	+1.5	+1.8	+2.0	+2.3	+2.3
호현동	12.7	+0.4	+0.7	+0.9	+1.5	+1.5	+1.8	+2.0	+2.3	+2.3
비산1동	12.4	+0.4	+0.7	+0.9	+1.5	+1.5	+1.8	+2.1	+2.3	+2.3
비산2동	13.0	+0.4	+0.7	+0.9	+1.5	+1.5	+1.8	+2.1	+2.3	+2.3
비산3동	11.9	+0.3	+0.7	+0.8	+1.4	+1.4	+1.7	+2.0	+2.2	+2.2
부흥동	13.0	+0.3	+0.7	+0.8	+1.5	+1.4	+1.7	+2.0	+2.2	+2.3
달안동	13.0	+0.4	+0.7	+0.9	+1.5	+1.5	+1.8	+2.0	+2.3	+2.3
관양동	12.7	+0.3	+0.7	+0.8	+1.5	+1.5	+1.7	+2.0	+2.2	+2.3
인덕원동	13.1	+0.3	+0.7	+0.8	+1.5	+1.4	+1.7	+2.0	+2.2	+2.3
부림동	13.0	+0.4	+0.7	+0.9	+1.5	+1.5	+1.8	+2.1	+2.3	+2.3
평촌동	13.1	+0.3	+0.7	+0.8	+1.5	+1.4	+1.7	+2.0	+2.2	+2.2
평안동	12.9	+0.4	+0.8	+0.9	+1.5	+1.5	+1.8	+2.1	+2.3	+2.3
귀인동	12.9	+0.4	+0.8	+0.9	+1.5	+1.5	+1.8	+2.1	+2.3	+2.3
호계1동	13.0	+0.4	+0.7	+0.9	+1.5	+1.5	+1.8	+2.1	+2.3	+2.3
호계2동	12.8	+0.4	+0.7	+0.9	+1.5	+1.5	+1.8	+2.0	+2.3	+2.3
호계3동	13.1	+0.4	+0.7	+0.9	+1.5	+1.5	+1.7	+2.0	+2.3	+2.3
범계동	12.9	+0.3	+0.7	+0.8	+1.5	+1.4	+1.7	+2.0	+2.2	+2.3
신촌동	13.0	+0.4	+0.7	+0.9	+1.5	+1.5	+1.8	+2.1	+2.3	+2.3
갈산동	13.1	+0.3	+0.7	+0.8	+1.5	+1.4	+1.7	+2.0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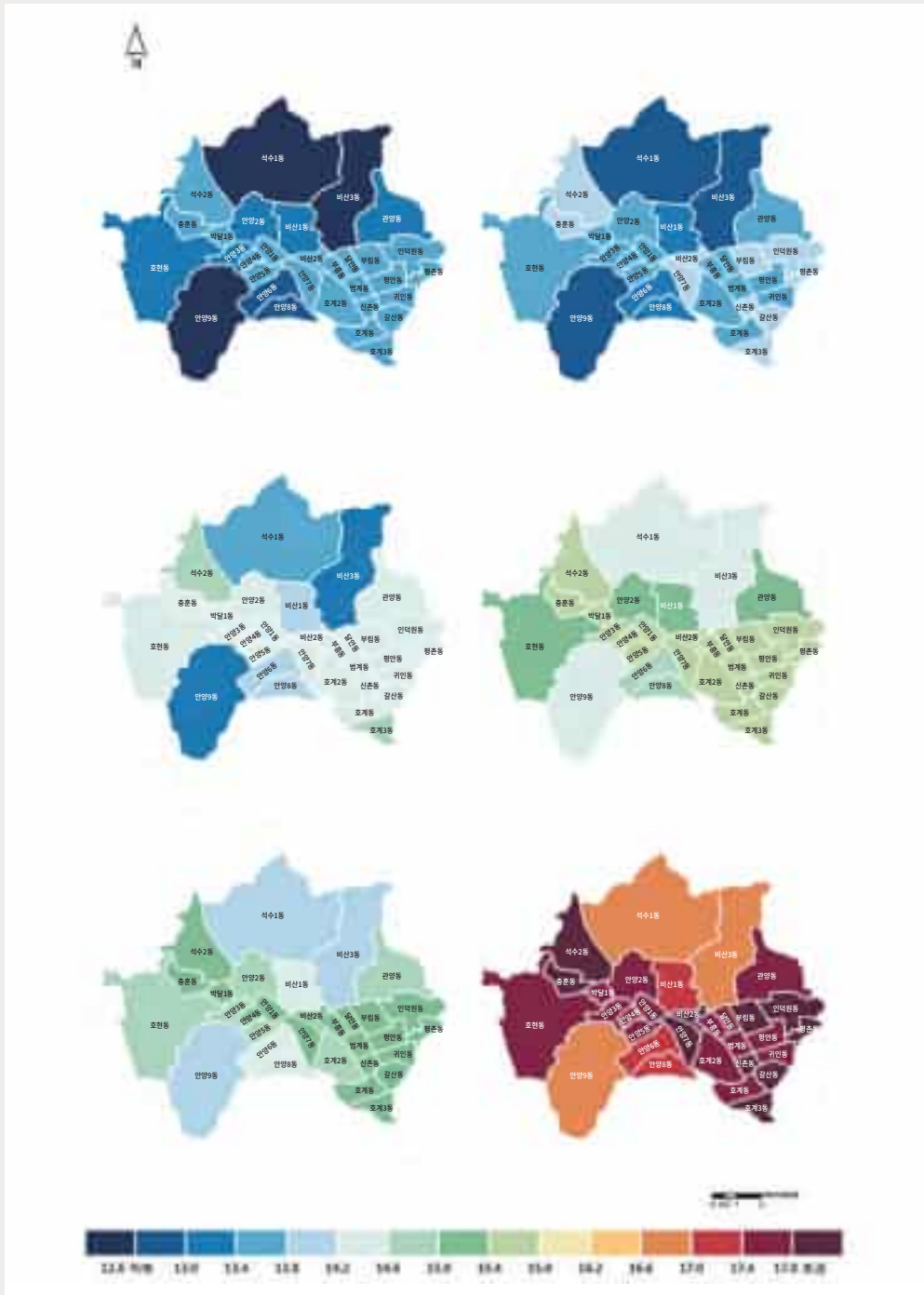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경기도와 안양시의 평균기온 시계열(RCP 4.5(좌), RCP 8.5(우))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평균기온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안양9동)과 작은 지역(석수2동·호계3동)의 시계열(RCP 4.5(좌), RCP 8.5(우))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안양시 동별 평균기온 분포도(RCP 4.5(좌)/RCP 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 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2) 강수량 변화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연강수량은 1338.6mm, 평균 상대습도는 68.1%로 나타났다. 안양시의 장기간 연평균 기온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10년(1994~2003)과 최근 10년(2014~2023)으로 비교하였을 때, 연강수량은 1337.1mm에서 1233.4mm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평균 상대습도는 67.2%에서 69.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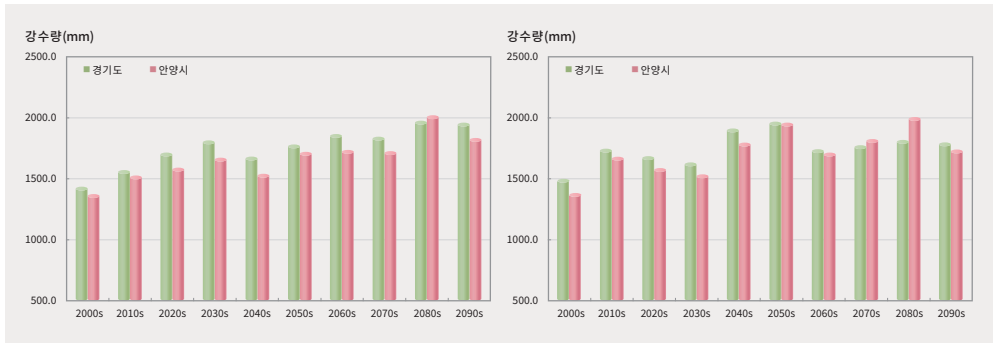
〈표 8〉 1994~2023년(30년) 안양시 10년 단위 기후요소

(단위: mm·R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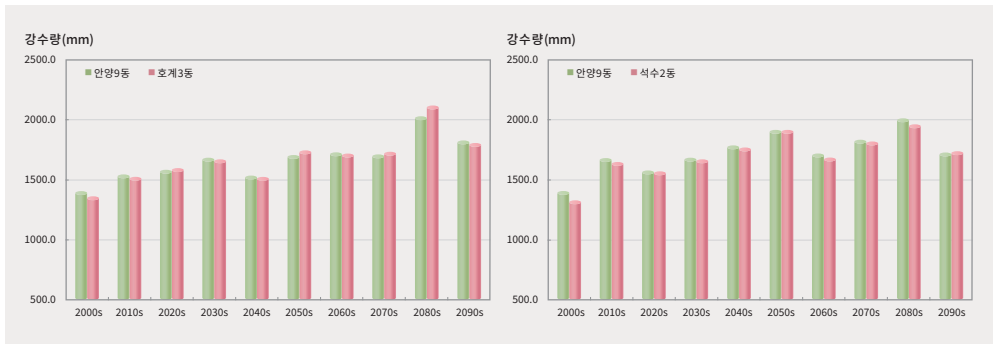
구분	연강수량	평균 상대습도
(1994~2003) 평균	1,337.1	67.2
(2004~2013) 평균	1,465.1	68.2
(2014~2023) 평균	1,233.4	69.4
합계 평균	1,338.6	68.1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1994~2023), 종관기상관측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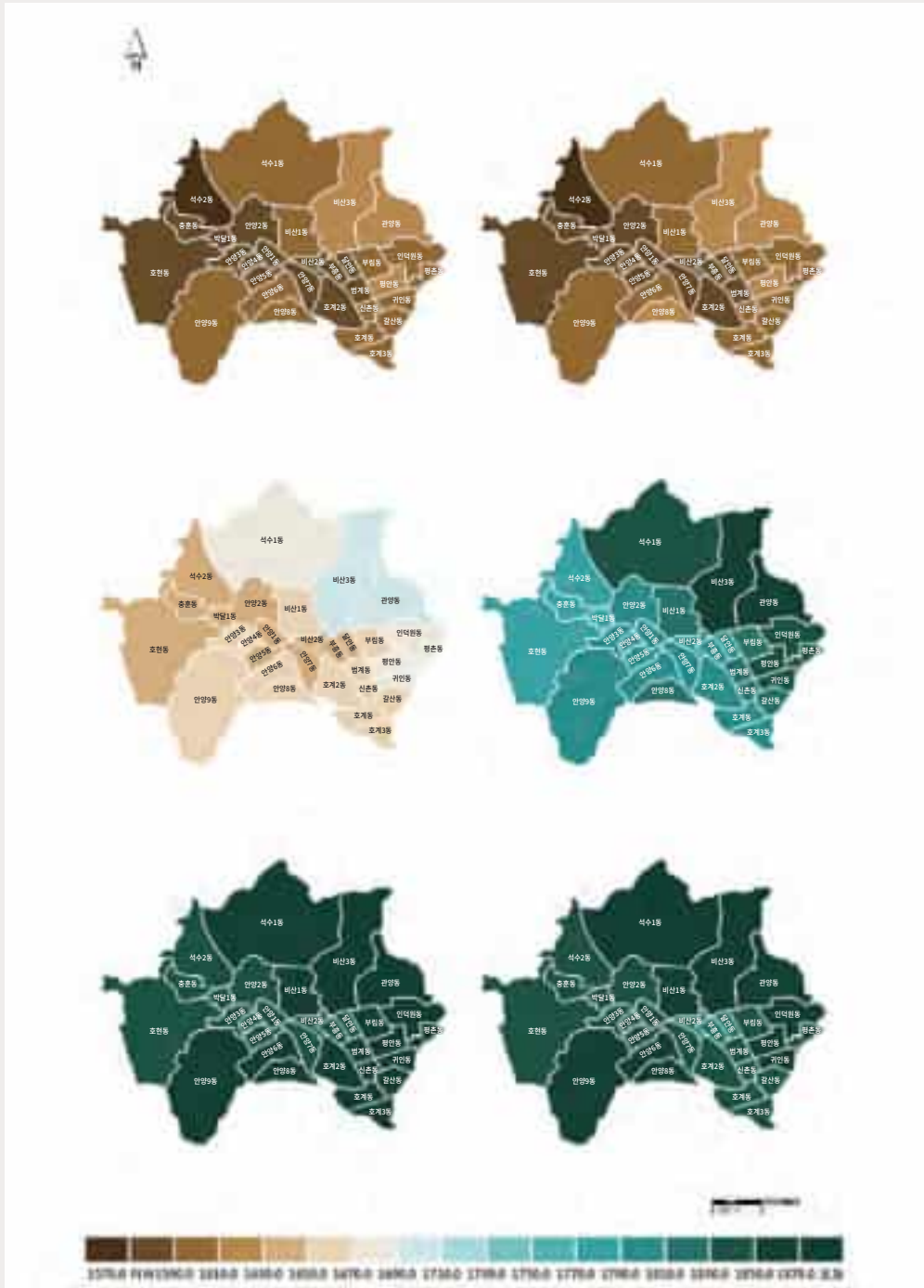
안양시 미래 장기 기후변화 예측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안양시는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 기준 석수2동 38.3% 증가, 비산3동·안양9동은 3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1~2010년 대비 2071~2100년 안양시 강수량 증가율은 34.4%로 경기도(30.9%)와 우리나라(18.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석수2동에서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비산3동·안양9동의 강수량 증가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차이는 6.2%이다.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34.7%)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현재 추세로 유지하였을 경우(34.4%)를 비교해 보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강수량이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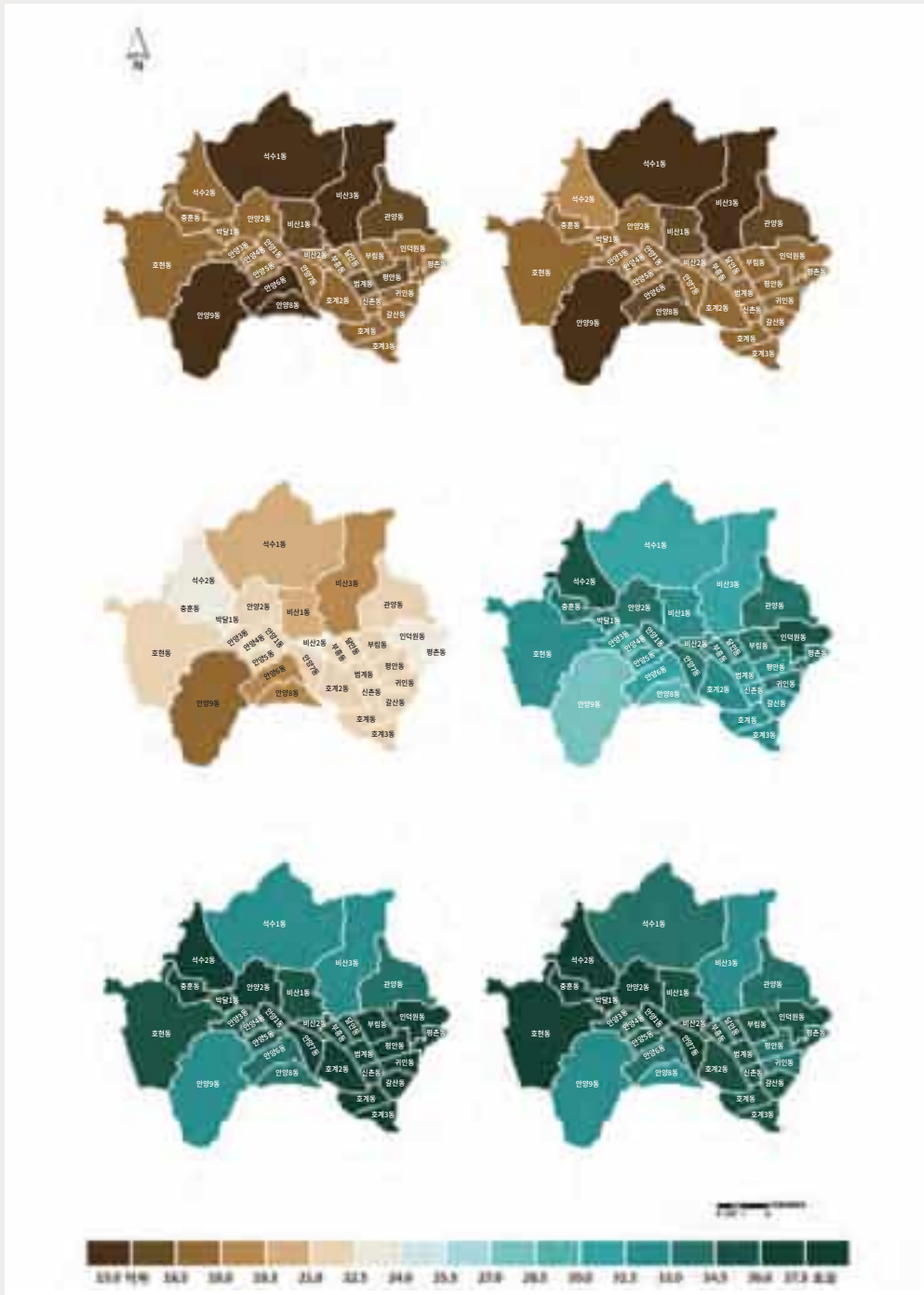
경기도와 안양시의 연강수량 시계열(RCP 4.5(좌)/8.5(우))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연강수량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호계3동·석수2동)과 작은 지역(안양9동)의 시계열(RCP 4.5(좌)/8.5(우))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안양시 동별 연강수량(mm) 분포도(RCP 4.5(좌)/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안양시 동별 강수량 증가율(%)(2001~2010년 대비)분포도(RCP 4.5(좌)/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3) 현상일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는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강수강도, 호우일수 등 기후지수에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기후지수가 극한값을 보일 때 시민의 생활과 보전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극한 기후지수 전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적절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의 이행이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제공한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극한 기후지수에도 변화가 예상되었다.

안양시의 장기간 연평균 극한기후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1994~2023년 30년간 안양시 극한기후 분석결과를 과거 10년(1994~2003)과 최근 10년(2014~2023년)으로 비교하였을 때, 고온 관련 극한기후의 증가 폭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온 관련 극한기후는 폭염일수 8.8일→16.6일, 열대야일수 8.2일→12.1일, 여름일수 114.7일→132.3일, 식물성장가능기간 258.5일→264.1일로 각각 7.8일, 3.9일, 17.6일, 5.6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 관련 극한기후는 서리일수는 8.9일(107.5일→98.6일) 감소하는 반면, 결빙일수는 0.2일(13.5일→13.7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수 관련 극한기후는 습윤일수 77.1일→75.2일, 호우일수 3일→2.8일, 강수강도 17.4mm/일→16.5mm/일로 각각 1.9일, 0.2일, 0.9 mm/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1994~2023년(30년) 안양시 극한기후

(단위: 일 mm/일)

구분	고온				저온		강수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여름 일수	식물 성장 가능 기간	서리 일수	결빙 일수	습윤 일수	호우 일수	강수 강도
(1994~2003) 평균	8.8	8.2	114.7	258.5	107.5	13.5	77.1	3.0	17.4
(2004~2013) 평균	9.4	6.8	121.4	262.1	104.8	19.7	80.9	3.4	18.5
(2014~2023) 평균	16.6	12.1	132.3	264.1	98.6	13.7	75.2	2.8	16.5
합계 평균	11.6	9.0	122.8	261.6	103.6	15.6	78.1	3.1	17.3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1994~2023), 종관기상관측자료 분석.

안양시 기후전망은 『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기상청, 2023)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름일수·열대야일수·폭염일수 등 여름지수와 관련한 지수가 높게 증가하는 반면, 서리일수·결빙일수 등 겨울지수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연평균기온의 기후전망은 RCP 4.5 시나리오 기준 2091~2100년 16.1℃로 전망되며, RCP 8.5 시나리오 기준 19.4℃로 시나리오별 연간평균 3.3℃의 온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강우량의 기후전망은 RCP 4.5 시나리오 기준 2091~2100년 1451.0mm로 전망되며, RCP 8.5 시나리오 기준 1415.4mm로 시나리오별 연간평균 35.6℃의 강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름지수로 여름일수·열대야일수·폭염일수 기후전망은 RCP 4.5 시나리오 기준 2091~2100년 각각 158.9일, 54.6일, 58.2일로 전망되며, RCP 8.5 시나리오 기준 195.8일, 88.6일, 109일로 시나리오별 연간 일수 36.9일, 34일, 50.8일의 일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겨울지수로 서리일수·결빙일수 기후전망은 RCP 4.5 시나리오 기준 2091~2100년 각각 70.8일, 4.1일로 전망되며, RCP 8.5 시나리오 기준 42.6일, 0.2일로 시나리오별 각각 28.2일, 3.9일의 일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10〉 2011~2100년 안양시 기후변화 전망

(단위: °C·mm·일/mm/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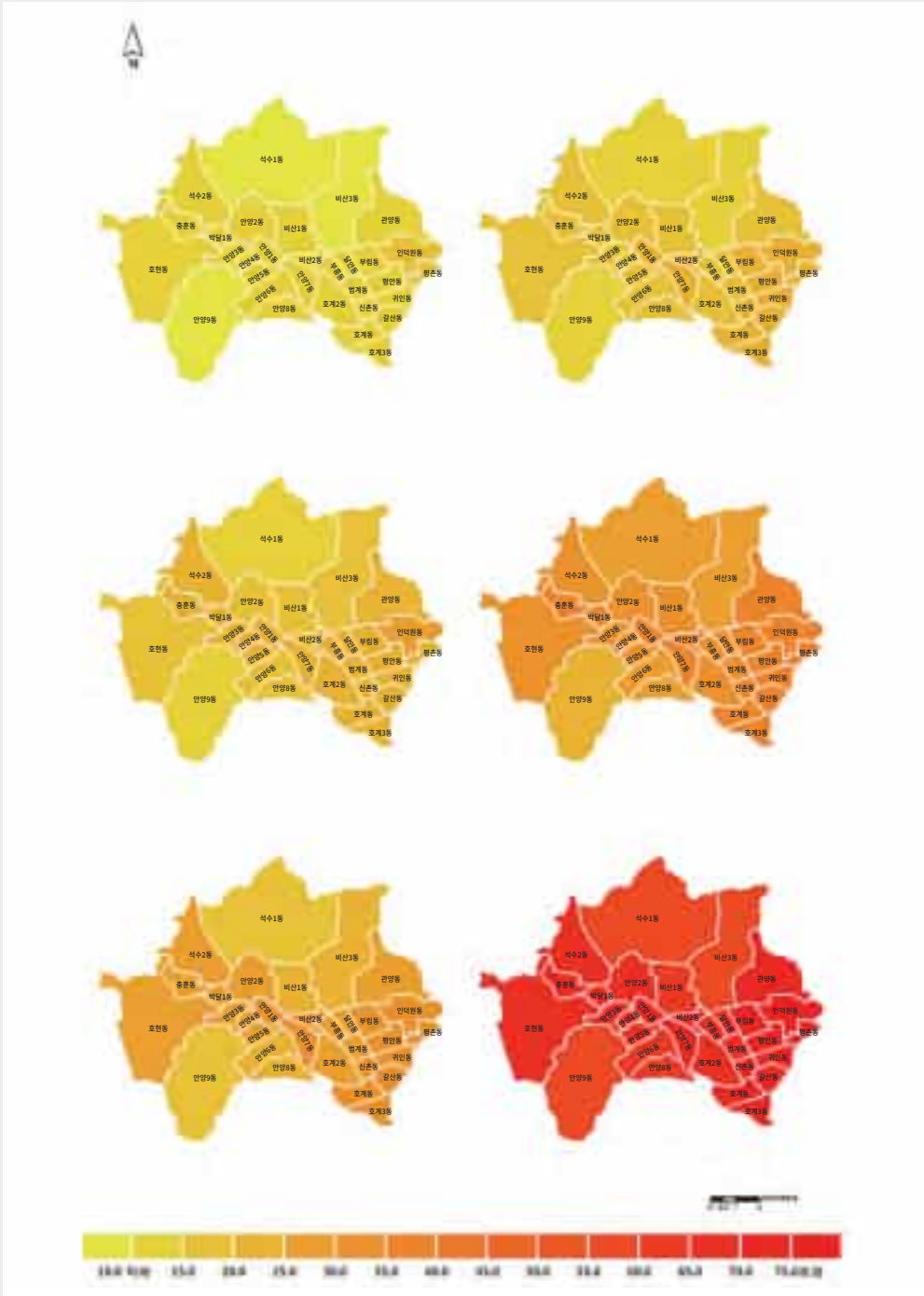
구분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90	2091~ 2100
연평균 기온	RCP 4.5	13.7	13.6	14.5	14.8	15.5	15.4	16.0	16.1
	RCP 8.5	13.7	14.2	15.2	15.6	16.8	17.5	18.5	19.4
연평균 최고기온	RCP 4.5	19.0	19.0	19.8	20.2	20.8	20.7	21.3	21.5
	RCP 8.5	19.1	19.6	20.6	21.0	22.2	22.8	24.0	24.8
연평균 최저기온	RCP 4.5	9.0	9.0	9.9	10.1	10.8	10.8	11.4	11.5
	RCP 8.5	8.9	9.5	10.5	11.0	12.1	12.8	13.9	14.7
연평균 강수량	RCP 4.5	1,315.3	1,297.7	1,357.8	1,312.3	1,381.1	1,422.8	1,371.0	1,451.0
	RCP 8.5	1,227.2	1,179.7	1,192.9	1,339.5	1,307.6	1,402.4	1,356.4	1,415.4
호우일수	RCP 4.5	3.0	2.8	2.8	3.0	3.1	3.4	2.8	3.1
	RCP 8.5	2.4	2.1	2.1	2.7	2.7	2.8	2.6	3.3
강수강도	RCP 4.5	18.2	17.4	18.0	17.9	18.3	18.9	18.1	18.9
	RCP 8.5	17.1	16.5	16.8	17.9	18.1	18.7	18.5	19.1
여름일수	RCP 4.5	135.0	137.0	144.0	149.6	153.4	151.1	160.0	158.9
	RCP 8.5	135.7	141.5	151.3	156.2	167.9	177.9	186.5	195.8
열대야일수	RCP 4.5	21.6	29.7	35.2	37.2	44.1	44.3	47.5	54.6
	RCP 8.5	23.9	26.6	42.3	42.5	58.0	67.4	78.6	88.6

구분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90	2091~ 2100
폭염일수	RCP 4.5	24.5	30.3	33.7	39.0	49.1	47.5	48.9	58.2
	RCP 8.5	25.6	29.5	47.5	48.8	68.9	81.7	97.8	109.0
서리일수	RCP 4.5	91.6	94.8	83.6	81.8	73.4	74.7	67.6	70.8
	RCP 8.5	93.3	85.9	79.4	71.6	61.1	58.3	48.5	42.6
결빙일수	RCP 4.5	14.0	17.9	10.2	9.5	7.0	8.0	3.3	4.1
	RCP 8.5	12.5	8.0	8.1	7.4	2.9	2.8	0.6	0.2
식물성장기간	RCP 4.5	270.2	269.4	278.3	279.9	291.9	287.7	292.7	291.8
	RCP 8.5	271.7	276.8	287.6	287.1	302.8	307.6	315.6	3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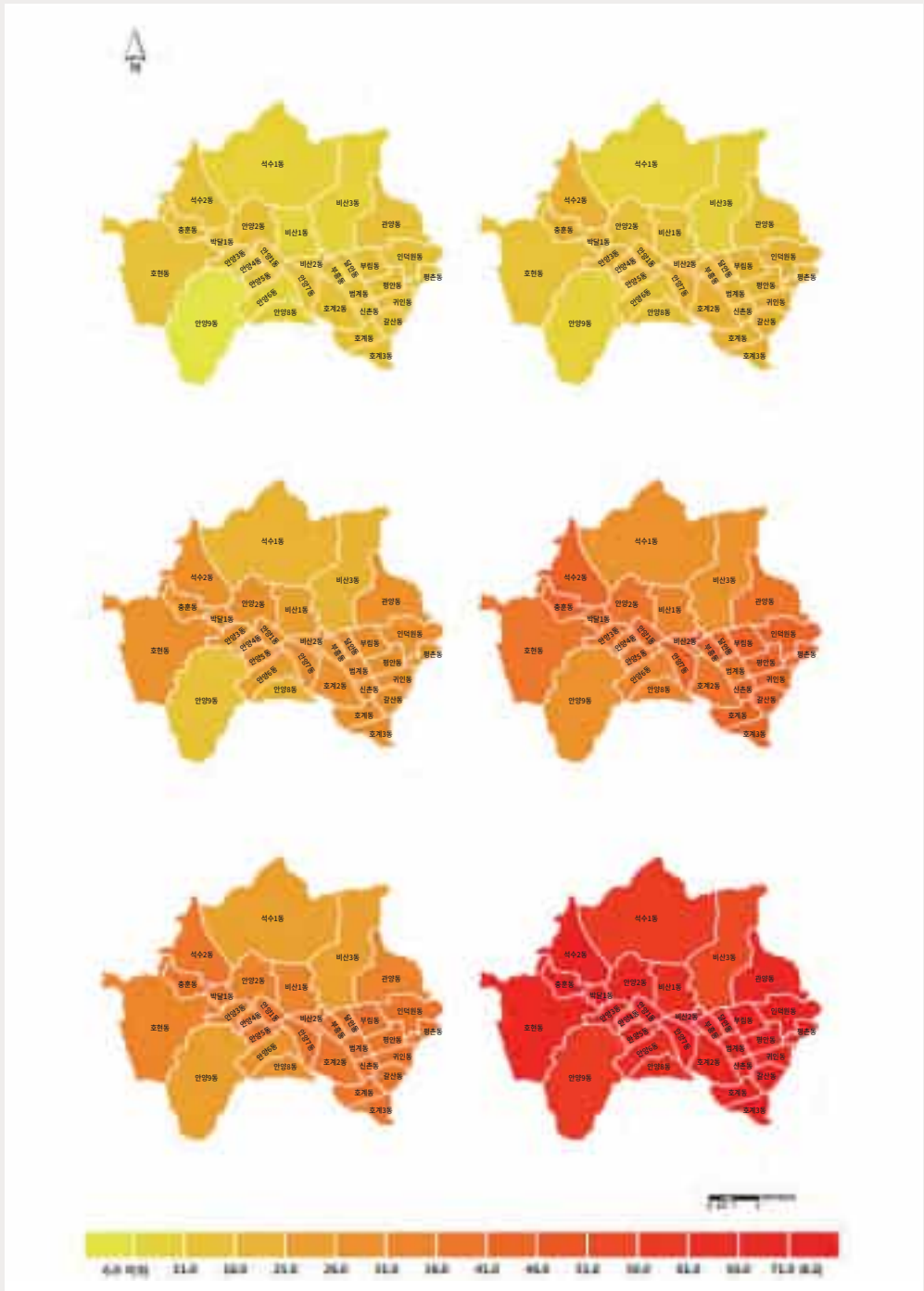
출처: 기상청, 『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3;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2100년까지 안양시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변화를 보면 경기도와 비교하여 폭염일수의 발생은 적거나 비슷하고, 열대야일수의 발생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는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발생이 모두 경기도보다 많다.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는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안양시의 폭염일수가 2001~2010년 6.6일에서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64.7일로 9.8배 증가하고, 열대야일수는 4.2일에서 64.4일로 15.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폭염일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관양2동, 열대야일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석수2동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내 각 동의 기온 상승 폭이 서로 비슷하여 현재 발생일수가 많은 지역이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도 동일 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기온 상승 폭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발생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CP 4.5의 경우, 안양시의 폭염일수는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25일이 나타나 3.8배 증가에 그쳐, RCP 8.5의 9.8배 증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며, 열대야일수도 31.7일로 RCP 8.5의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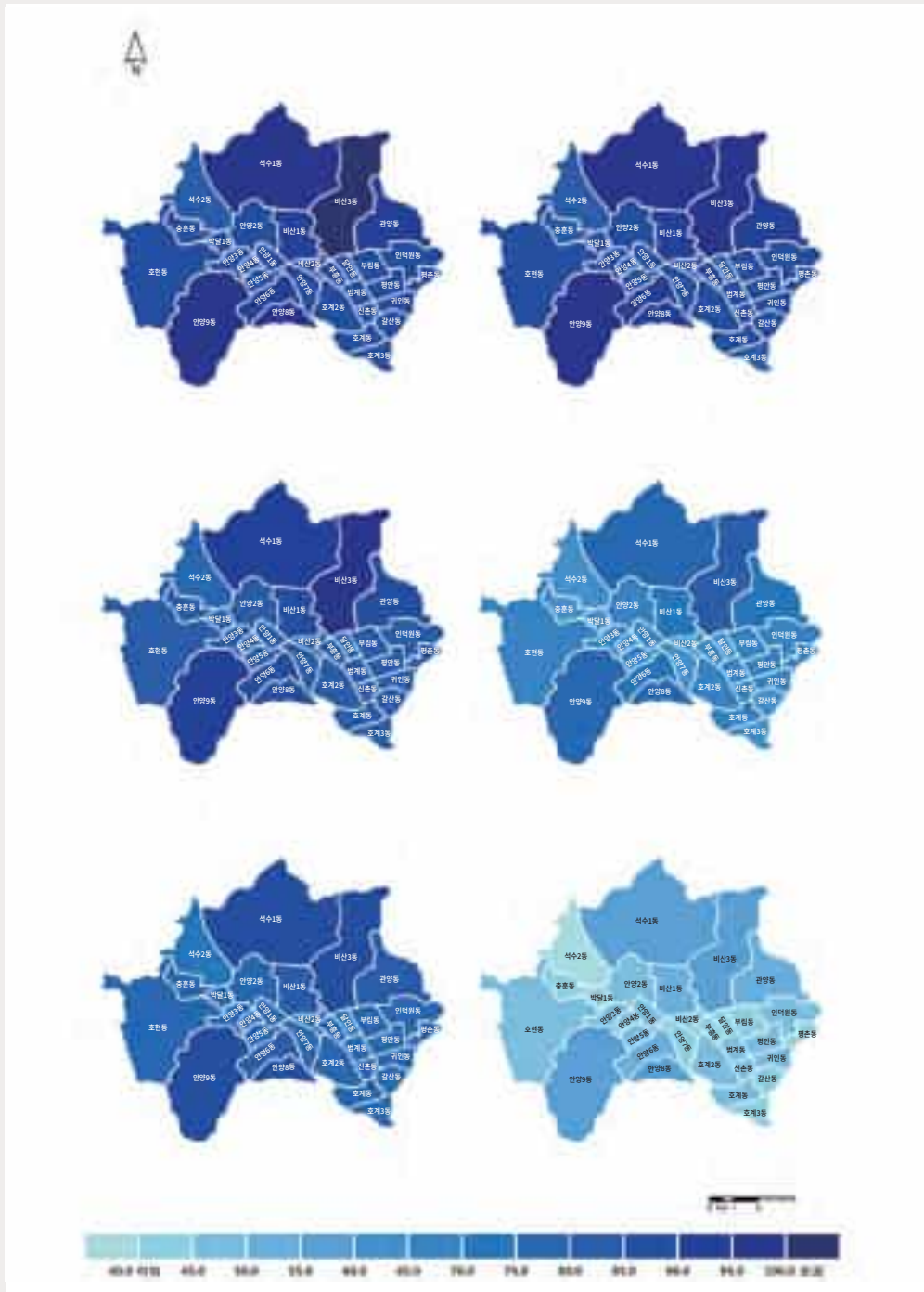
안양시 동별 폭염일수(일) 분포도(RCP 4.5(좌)/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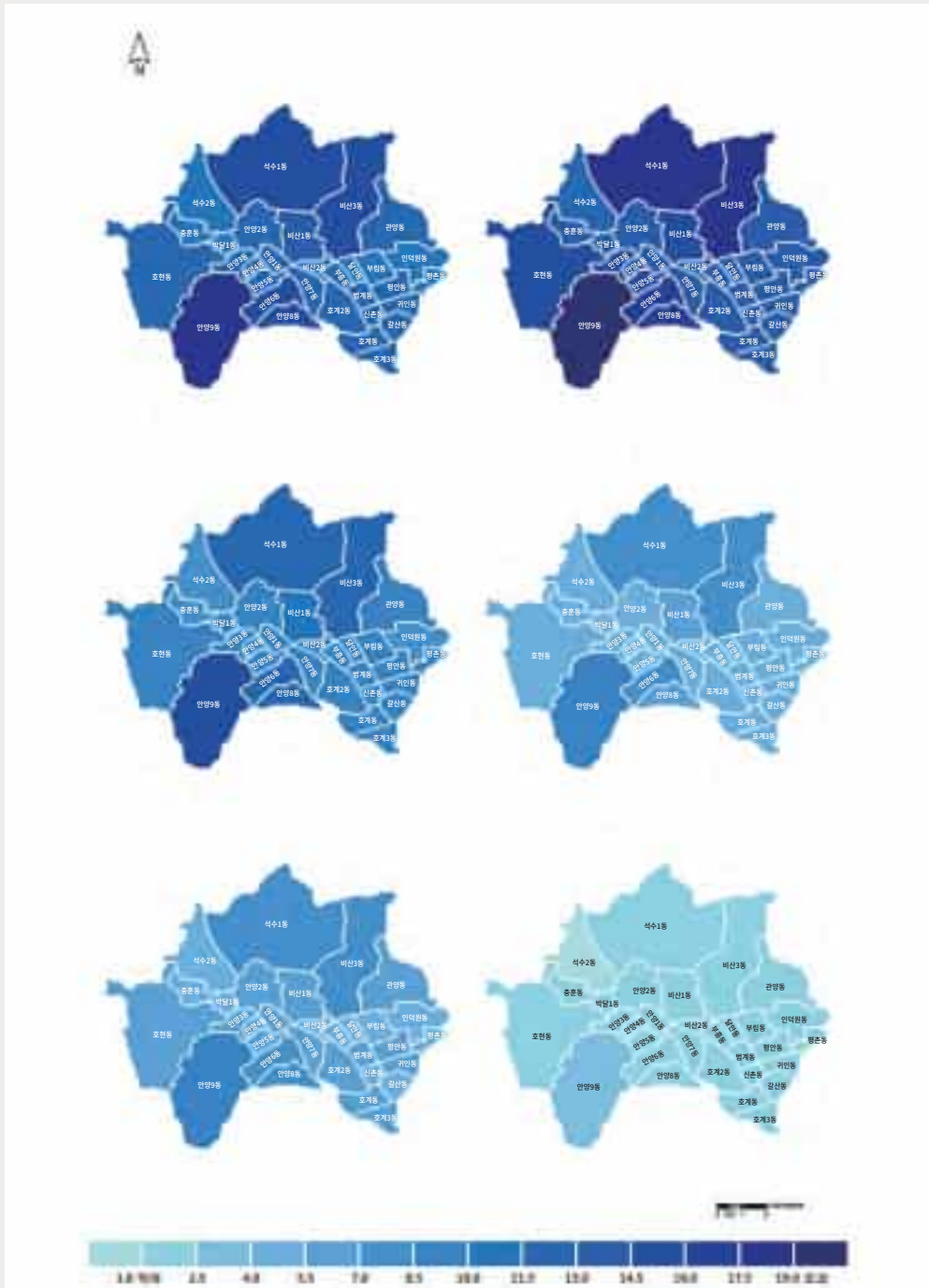
안양시 동별 열대야일수(일) 분포도(RCP 4,5(좌)/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2100년까지 안양시 30년 단위 서리일수와 결빙일수 변화를 보면 경기도와 비교하여 서리일수와 결빙일수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현재 추세로 유지하였을 경우(RCP 8.5),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안양시의 서리일수는 2001~2010년보다 42.8일 적게 나타나며, 결빙일수는 17.7일 적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RCP 4.5의 경우,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안양시의 서리일수는 2001~2010년보다 12일 감소하고, 결빙일수는 12.5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RCP 8.5보다 감소폭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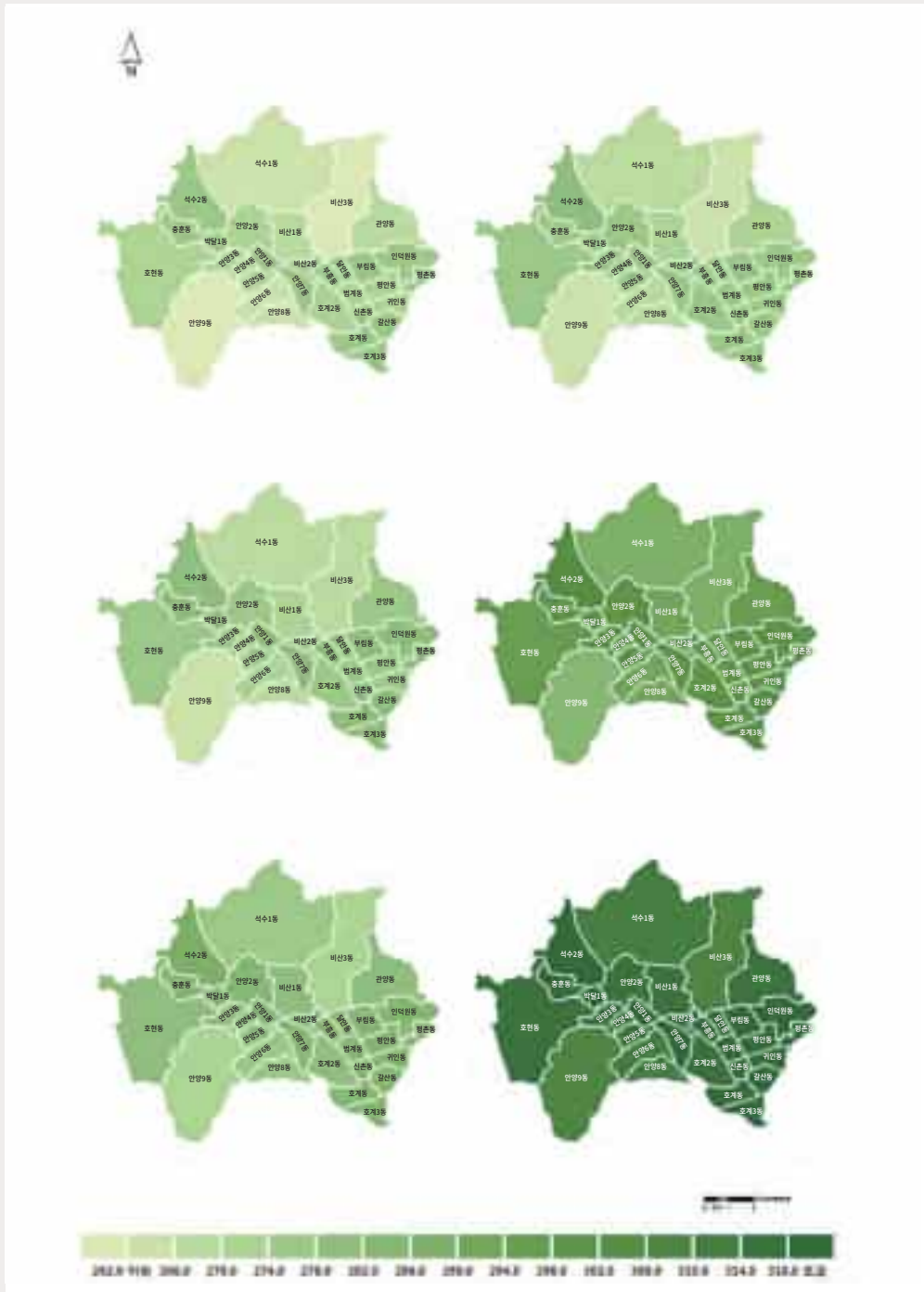
2100년까지 30년 단위 식물성장가능기간과 여름일수 변화를 보면 안양시는 경기도보다 일평균기온과 일최고기온이 모두 높아 식물성장가능기간은 더 길고, 여름일수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현재 추세대로 유지하는 RCP 8.5의 경우 안양시의 식물성장가능기간은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20.2% 증가하여 1년에 50.4일을 제외하고는 식물성장이 가능하며, 여름일수도 2001~2010년 113.9일에서 164.1일로 많아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RCP 4.5),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의 식물성장가능기간과 여름일수는 각각 17일, 26.2일 증가(각각 RCP 8.5의 32.2%, 52.2%)하여 극한기후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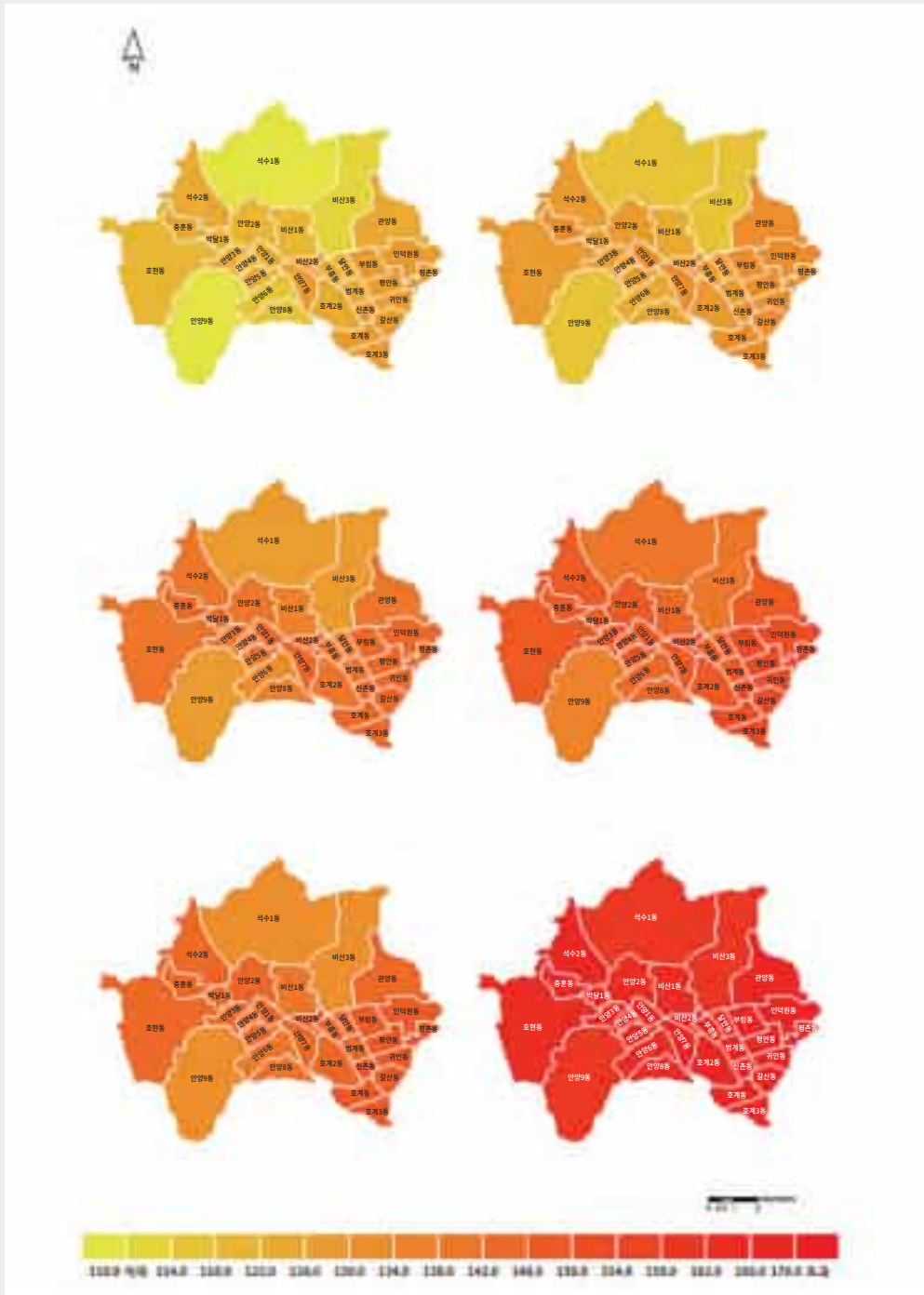
안양시 동별 서리일수(일) 분포도(RCP 4.5(좌)/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안양시 동별 결빙일수(일) 분포도(RCP 4.5(좌)/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 · 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안양시 동별 식물성장가능기간(일) 분포도(RCP 4.5(좌)/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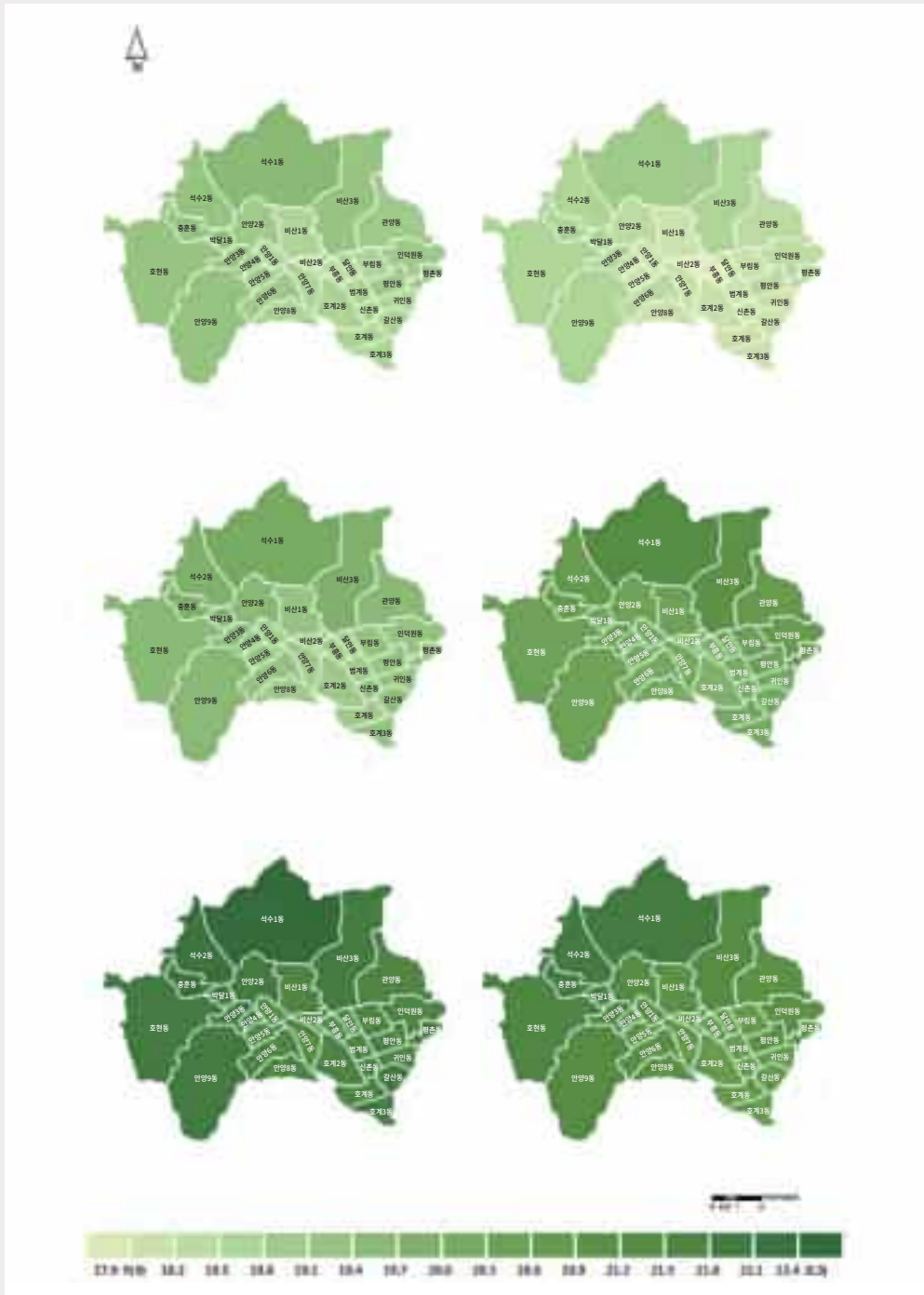
안양시 동별 여름일수(일) 분포도(RCP 4.5(좌)/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 · 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2100년까지 30년 단위 안양시의 강수강도와 호우일수 변화는 극한기온지수에 비하여 변동성이 크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현재 추세로 유지하였을 경우, 안양시는 경기도에 비해 강수강도와 호우일수의 증가가 모두 클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의 경우, 안양시의 강수강도는 2001~2010년 17.7mm/일에서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21.4mm/일로 20.9% 증가하고, 호우일수는 2001~2010년 3.3일에서 6.3일로 90.9% 증가한다. 강수량 변화(34.4%)에 비해 강수강도의 변화는 작게, 호우일수의 변화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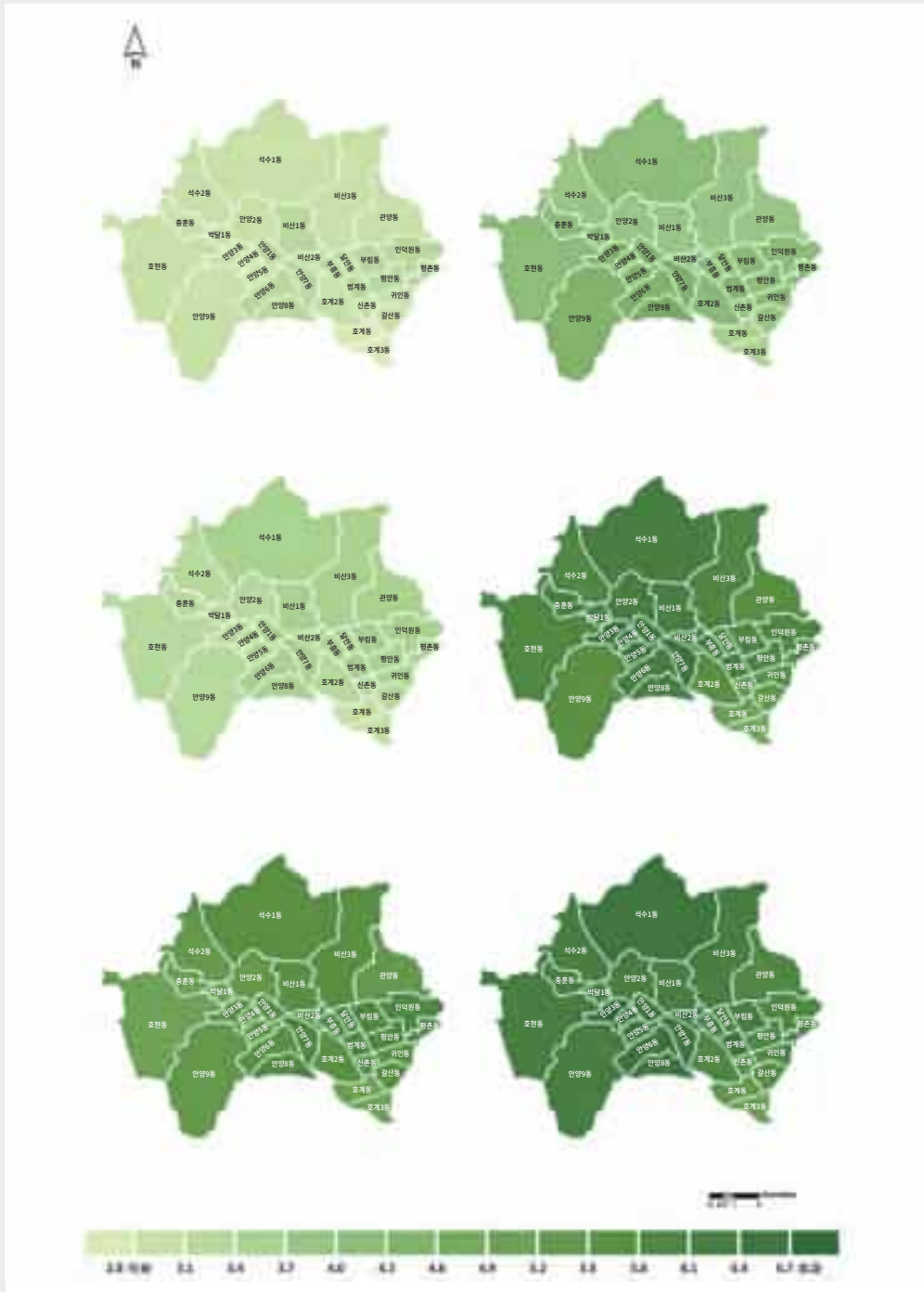
안양시는 경기도보다 일평균·일최고·일최저 기온이 모두 높고 미래 기온의 증가 폭이 동일하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의 증가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시 내 각 동별 기온 차이는 최대 1.3℃이고,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경기도와 비슷한 정도(+4.7~+4.9℃)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시 내 각 동별 일최고기온 차이는 최대 1.3℃, 일최저기온 차이는 최대 1.6℃로 나타나고, 현재 관양2동은 폭염 발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폭염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9동은 일최고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폭염일수가 적게 나타나며 미래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시 강수량 증가율은 경기도와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아, 미래에 강수량으로 인한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석수2동이 안양시 내에서 가장 큰 강수량 증가율을 나타낸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강수강도와 호우일수는 현재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으나 미래에는 강수강도의 증가는 석수2동·석수3동, 호우일수의 증가는 비산2동·안양3동·안양4동에서 가장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행할 경우, 안양시의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 기온상승(+2.2℃)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현재 추세(RCP 8.5)로 유지하였을 경우(+4.8℃)에 비해 기온상승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친다. 강수량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행할 경우(RCP 4.5) 0.3% 증가한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효과는 폭염과 열대야 같은 극한기후에서 더욱 두드러져, 폭염일수는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 58.1일 증가에서 18.4일 증가로 줄어들며, 열대야일수도 60.2일 증가에서 27.5일 증가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난다. 온실가스 감축은 안양시 내에서 강수강도의 변화율은 모두 증가시키고, 호우일수의 변화율은 모두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변동성이 크다.



안양시 동별 강수량(mm/day) 분포도(RCP 4.5(좌)/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안양시 동별 호우일수(일) 분포도(RCP 4.5(좌)/8.5(우): 2011~2040년(상), 2041~2070년(중), 2071~2100년(하))
출처: 기상청 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안양시 동별 기후변화 전망

출처: 기상청 · 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참고문헌

- 기상청, 『경기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3.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1994~2023), 종관기상관측(ASOS)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2024), 종관기상관측 수원(119)지점 바람장미.
- 기상청·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안양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2015.
-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註

- 1 RCP 4.5와 8.5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숫자가 클수록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 지구에 더 많은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행된 중간 시나리오고, RCP 8.5는 온실가스가 저감없이 현재 추세로 배출되는 경우이다.

3장 식생



이규송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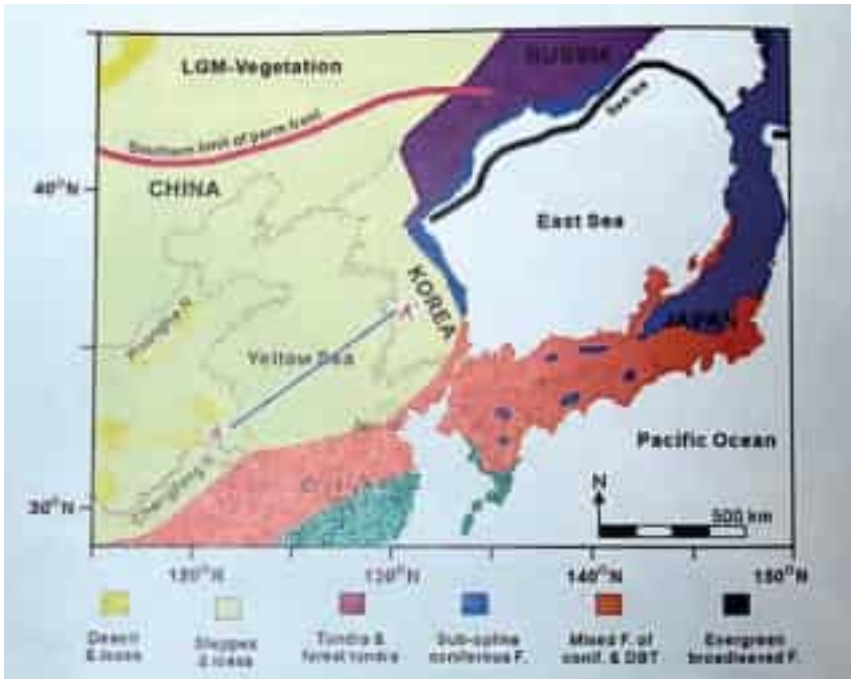


1. 한반도 식생의 역사

한반도의 식생은 주로 산지와 구릉지에 분포한다. 한반도에서 지질시대마다 달라지는 기후변화에 따라 주요 우점식생이 바뀌어 왔다. 역사시대에 진입하면서 지속적이고 집약적으로 인간의 간섭이 행해지면서 또 다른 식생변화가 있었다.¹ 한반도에서 일어난 식생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식물은 고생대에 처음 출현하였다. 고생대에는 고사리처럼 포자를 만드는 식물이 번성하였다.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겉씨식물)는 중생대(약 2억 500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중생대 내내 번성하였고, 초식공룡을 먹여 살렸다. 꽃을 피우는 속씨식물은 중생대 백악기(약 900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신생대에 폭발적인 종 분화를 이루어 냈다. 꽃을 피우는 식물은 오늘날 생존하는 식물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지질시대 동안 많은 식물이 출현했다가 멸종했다. 살아남은 식물들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조건이 맞는 곳으로 이동과 정착을 반복하였다.²

빙하기라 불리는 신생대 4기의 플라이토세(약 258만 년 전)에 기후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수없이 반복하였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의 최종빙기최성기(LGM, LAST Glacial Maximum)는 2만 5000~1만 8000년 전으로 지금보다 6~9℃ 이상 더 추웠다. 이때 지구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125~130m 이상 낮아졌다. 이 시기 한반도는 얽혔던 서해가 육지라서 반도가 아닌 대륙이었다. 이 시기 한반도 식생 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해의 북쪽에는 빙붕이 떠다녔고, 개마고원과 연해주 지역의 내륙은 툰드라 식생이었으며, 경상북도 이상의 동해안에는 길게 아한대 침엽수림이 분포하였고, 경상북도 이남의 해안지형은 침엽수-낙엽활엽수 혼합림으로 중국 남부지역 및 일본



최종빙기 최성기 동안 동아시아의 고해안선과 식생도(김과 문화연구회, 『우리숲의 역사』, 2014)

과 연속식생대를 형성하였다. 백두대간 서쪽의 내륙지대와 서해바다 권역은 드넓은 스텝 초원지대로서 오늘날의 몽고와 비슷한 식생을 구성하였다.³

경기도 하남의 습지대에서 이루어진 화분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은 최종빙기(2만 1580~1만 4930년 전) 동안에 아한대(아고산대) 침엽수림이 발달하였고, 주요 수종은 소나무·주목과·측백나무과 및 가문비나무 등이었다. 또한 내한성이 강한 자작나무·냉온대성 참나무·느릅나무·느티나무 등도 함께 자랐다. 저지대 초원지대에는 썩과 벼과 식물들이 자랐다. 전이시기인 1만 7710~1만 6800년 전에 온난화로 침엽수-활엽수 혼합림이 아한대성 침엽수림을 대체하였다. 구릉지대의 주요 수종은 참나무·소귀나무·느릅나무·소나무 등이었고, 초원지대에는 썩과 벼과 식물이 우점하였다. 1만 6800~1만 4930년 전에 아한대 침엽수림이 다시 확장하면서 참나무림은 작은 군반 형태로 축소하였다. 최종빙기 동안 한랭한 온도가 지속되었지만 습윤도의 변화에 따라 산지에서 식생의 수직이동이 반복되었다.⁴

후빙기, 즉 간빙기인 홀로세(1만년 전)에 접어들면서 기후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침으로 많은 습지가 만들어졌다. 전기 후빙기 동안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몬순

의 강화로 기후가 온난 습윤하게 바뀌었다. 전기 홀로세(1만년 전~7000년 전)에 중부지방의 식생 변천은 천리포수목원에서 채취한 이탄(泥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 9000~8500년 전의 기간에는 한랭한 기후로 아한대성 침엽수-낙엽수 혼합림이 우세하였다. 8500~6000년 전의 기간에는 기후가 온난 습윤해지면서 참나무를 중심으로 한 낙엽활엽수림이 번성하였는데, 6500년 전이 최대 번성기이었다. 천리포수목원 주변에 소나무가 해안과 건조한 산지에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5700년 전이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8000년 전에 참나무림이 우세했고, 8000~6000년 전에 침엽수와 자작나무류의 축소가 있었다. 몬순과 해양의 영향으로 습윤성 오리나무도 이 시기에 번성하였다.

중기 후빙기에 접어들면서 습윤한 난온대 식생이 한반도에서 확장하였다. 참나무, 서어나무, 굴피나무, 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와 같은 난온대 수종들이 경기지역에서도 나타났다. 6000~4500년 전에는 한랭해진 기후로 인해 침엽수-활엽수 혼합림이 산록지대에 번성하였다. 4700년 전 이후에는 기존의 따뜻한 기후가 한랭화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소나무가 우점하는 침엽-활엽수 혼합림이 우세한 냉온대림이 형성되었다. 저지대는 벼과, 사초과, 쑥이 우점하는 초지로 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농경 활동은 3500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보편화된 것은 2000년 전 전후이며 밭농사가 본격화한 것도 2000년 전 전후이다. 현재의 한반도 해안선은 약 6000년 전에 완성되었다. 후빙기에 만들어진 습지대 주변은 선사인들의 주거지와 농경지로 이용되었고, 습지대 주변을 중심으로 농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0년 전 이후의 식생 변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냉온대 산지형 낙엽활엽수림의 완전한 파괴이다. 참나무·오리나무를 중심으로 한 낙엽활엽수림과 가시나무림을 비롯한 상록활엽수림은 축소되고, 쓰임새가 많아 한국인의 사랑을 독차지한 소나무림의 분포역은 확장되었다.⁵

한반도에 인류가 정착하여 수렵과 채집을 하던 구석기시대에는 인구가 적고, 정착민이 없었으므로 식생에 대한 간섭이 적었다. 숲에 대한 간섭은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한 신석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벌목과 숲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숲에 대한 파괴 속도가 빨라졌다. 숲에 대한 훼손 범위는 인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커졌다. 삼국시대·고려시대 및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경작지가 확대되고, 목재와 땔감 수요의 증가에 따라 숲에 대한 파괴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조선 후기의 정치적 혼란과 화전의 성행은 산림의 벌채 규모와 훼손을 더욱 부추겼다.

일제강점기에 농지를 빼앗긴 사람들이 화전민으로 변했고, 임산물과 목재에 대한 수

탈로 많은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다. 1950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산지 식생에 대한 훼손이 더욱 커졌다. 땀감에 대한 수요는 산지 식생에 대한 주요 간접 요인이었다. 국토의 상당수가 산지인 한반도의 산에서 숲이 사라지면서 산사태, 홍수 및 가뭄이 흔해졌다. 많은 토사 유출은 강바닥에 모래를 쌓아서 범람이 잦았고, 하천 주변의 풍경을 바꾸었다. 1970년대까지 험벗은 산은 우리 주변의 흔한 풍경이었다.⁶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화전민들의 소개, 입산금지, 연료원의 전환 및 조림과 육림을 진행하는 강력한 산림녹화정책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숲은 다시 푸르게 변하기 시작했고, 50~60년생의 장령림(壯齡林)으로 자란 곳들이 많아졌다. 이제 우리 숲의 미래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이다.

2. 한반도 식생대 구분

우리나라의 식생대 구분은 1975년 연구된 임양재와 Kira가 세운 기준에 따라 작성한 도면을 많이 활용해 왔다.⁷ 한국에서 사용되는 식생 기후 지역의 구분 기준은 1991년 발표된 Kira의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식생 기후 지역의 설정을 따라 바꿀 필요가 있었다.

조용찬 등(2020)은 Kira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최근의 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1980년부터 2010까지의 30년간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식생기후분포도를 재작성하였다. 식생 기후 구분은 30년간 기후자료(월평균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온량지수(WI, Warmth Index)와 한랭지수(CI, Coldness Index)를 구하여 작성하였다. 식생대 구분은 기후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후변화가 많이 진행되는 지금 주기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 온량지수(WI)는 월평균기온에서 5도 이상의 온도를 모두 합한 지수로 커질수록 따뜻한 기후를 나타낸다. 한랭지수(CI)는 월평균 온도에서 5도 이하의 온도를 합한 것을 의미하고, 낮을수록 추운 기후를 나타낸다. 한랭지수 -10보다 큰 온도 조건에서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형성지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text{온량지수(WI)} = \sum (T_i - 5) \quad \text{단 } T_i \geq 5^\circ\text{C}$$

$$\text{한랭지수(CI)} = - \sum (5 - T_i) \quad \text{단 } T_i < 5^\circ\text{C}$$

여기에서 T_i 는 월평균기온을 의미함.

한국의 식생대는 아한대, 온대 북부, 온대 중부 및 온대 남부로 구분할 수 있다(조용찬 등, 2020). 아한대 식생은 침엽수림대로 위도와 고도가 높은 지역이고, 온대 북부와 중부 지역은 낙엽활엽수림으로 대변되며, 남부 지역의 일부는 낙엽활엽수림이고 한랭지수 -10보다 작은 지역은 상록활엽수림대로 구분한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30년 자료의 평균기후값을 이용한 안양시의 온량지수(112)와 한랭지수(-14.9)로 판단하면 안양시의 식생대는 온대 남부 낙엽활엽수림대에 속한다. 안양의 가장 높은 산지는 관악산의 632m이다. 100m마다 온도가 0.55~0.65℃가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안양의 식생대는 온대 남부 낙엽활엽수림과 온대 중부의 낙엽활엽수림대에 속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안양의 온도가 점차 올라가고, 한랭지수 -10보다 작아지는 시기가 오면 온대 남부 난온대 상록활엽수림도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나아가 아열대 기후를 보이는 곳도 나타날 것이다.

〈표 1〉 1991~2020년(30년간) 안양시의 월별 평균온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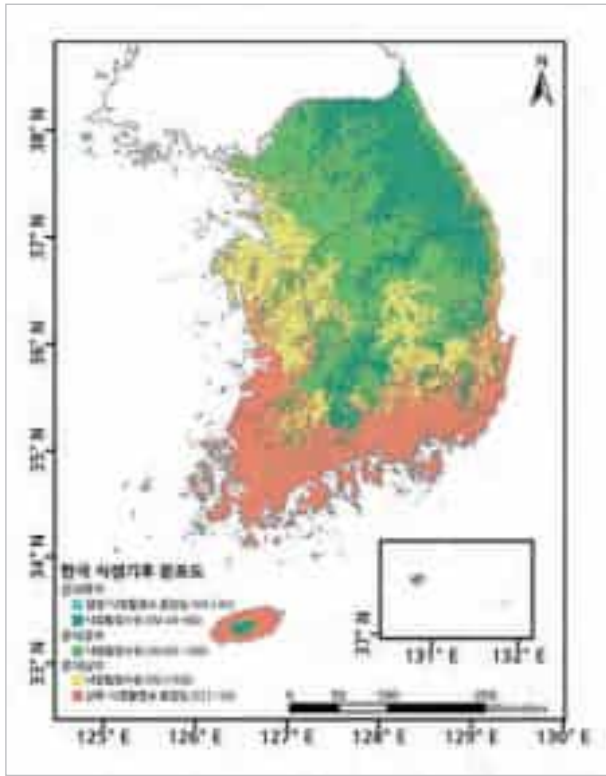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온도	-1.4	1.1	6.3	12.3	18.4	22.9	25.4	26.4	21.8	15.5	8.0	0.4

출처: 기상청(<https://www.weather.go.kr>).

〈표 2〉 한국의 식생기후 구분·기준 및 각 식생대별 주요 출현 목본

구분	기후요인의 범위 및 식생의 겉모습	주요 교목 수종
온대북부 식생기후	WK<45	침엽·낙엽활엽수 혼합림 분비나무,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잣나무, 사스래나무, 신갈나무, 벗나무류, 부계꽃나무, 산겨릅나무
	45<WK<85	신갈나무, 벗나무류, 서어나무, 피나무, 물푸레나무, 함박꽃나무, 쪽동백나무, 당단풍나무, 청시닥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 너도밤나무, 울릉솔송나무, 섬잣나무
온대중부 식생기후	85<WK<100	낙엽활엽수림 졸참나무, 신갈나무, 벗나무류, 물푸레나무, 서어나무, 함박꽃나무, 당단풍나무, 소나무, 곰솔, 전나무, 때죽나무
온대남부 식생기후	100<WI	졸참나무, 벗나무류, 물푸레나무,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단풍나무, 대팻집나무, 때죽나무, 소나무, 곰솔, 굴거리나무, 동백나무
	CI>-10	상록·낙엽활엽수 혼합림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굴거리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 졸참나무, 벗나무류, 개서어나무, 때죽나무

출처: 조용찬·정성희·이동혁·김한결·김재현, 『한국의 식물상 지역과 식생기후』, 국립수목원, 2020.



한국의 식생기후 분포도(조용찬 · 정성희 · 이동혁 · 김한결 · 김재현, 『한국의 식물상 지역과 식생기후』, 국립수목원, 2020)



우리나라에서 2071~2100년 아열대 기후구의 전망 (고재경, 『경기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연구』, 2009)

3. 안양시의 잠재자연식생

잠재자연식생은 인간의 간섭이 없을 경우 그 지역의 기후에 의해 형성되는 식생을 말한다. 따라서 잠재자연식생은 그 지역의 기후에 맞는 식생대를 반영하고, 특수한 입지환경 조건들을 반영하여 추정할 수 있다.

안양시의 저지대 토양이 발달한 온량지수 100 이상의 지역은 대부분 온대남부 낙엽활엽수림을 대표하는 졸참나무-서어나무림이 잠재자연식생이다. 유사한 식생은 경기도 광릉수목원 주변의 400년 된 졸참나무-서어나무 성숙림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발고도가 높아 온량지수가 100 이하로 낮아지는 지역은 온대중부 낙엽활엽수림을 대표하는 신갈나무림이 잠재자연식생이다.⁸

안양시에 분포하는 관악산과 수리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악산으로 토심이 얇고 건조하며 암반이 노출된 지역이 넓게 발달한다. 이러한 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은 낙엽활엽수림대이지만, 토지극상 유형인 암반지대 노출지역(새와 노간주나무 분포)과 소나무·신갈나무 및 노간주나무가 어우러진 암반지대 고유의 식생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천변과 습지대는 온대지역 습지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림이나 오리나무림이 잠재자연식생이라고 판단된다.

4. 안양시의 현존식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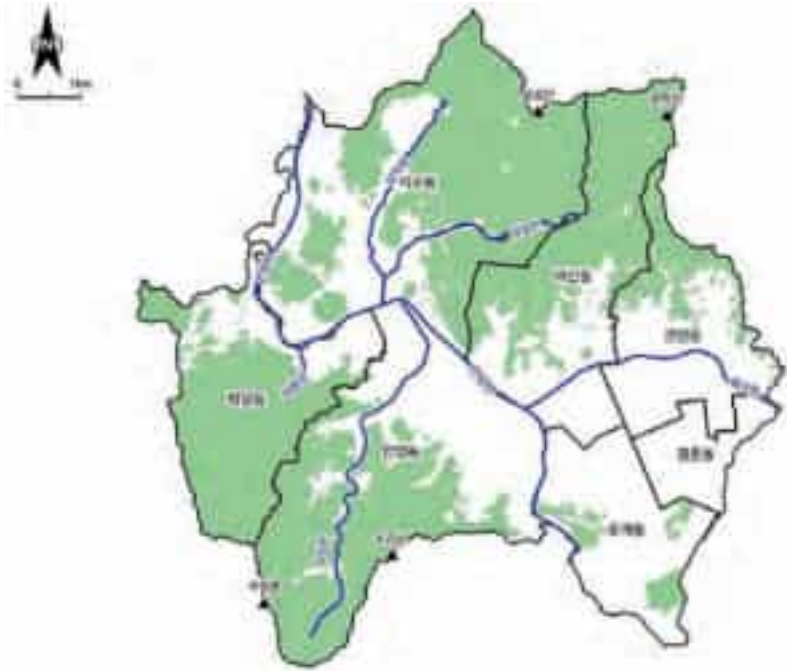
안양시는 산림자원과 하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식생은 산림과 하천변 식생 그리고 도시공원림으로 구성된다. 광주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북쪽에 관악산(629m)이 그리고 서남쪽에 수리산(475m)이 솟아 있다. 주요 하천은 안양천으로 한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이다. 안양시의 저지대는 집중적으로 개발된 도심지역으로 인간에 의한 간섭이 많은 공원이나 식생들이 분포하고 있다.⁹

안양시는 2021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상세한 동식물 분포도와 현존식생도가 제시되었고, 대표 비오톱과 우수 비오톱을 선정하였다. 안양시의 현존식생 구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의 토지이용현황, 현존식생 유형의 구분 기준과 그에 따른 현존식생도 현황, 상세 비오톱 유형분포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상세한 내용은 안양시(2021)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간략히 소개한다.

안양시의 전체 면적은 5852ha이고 이 중 산림면적은 2866ha로, 안양시 전체 면적의 48.98%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지역 외에 식생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은 초지·습지·자연 나지 및 수역이다.¹⁰ 여기서는 주요 산림식생에 집중하여 안양시의 산지 현존식생에 대하여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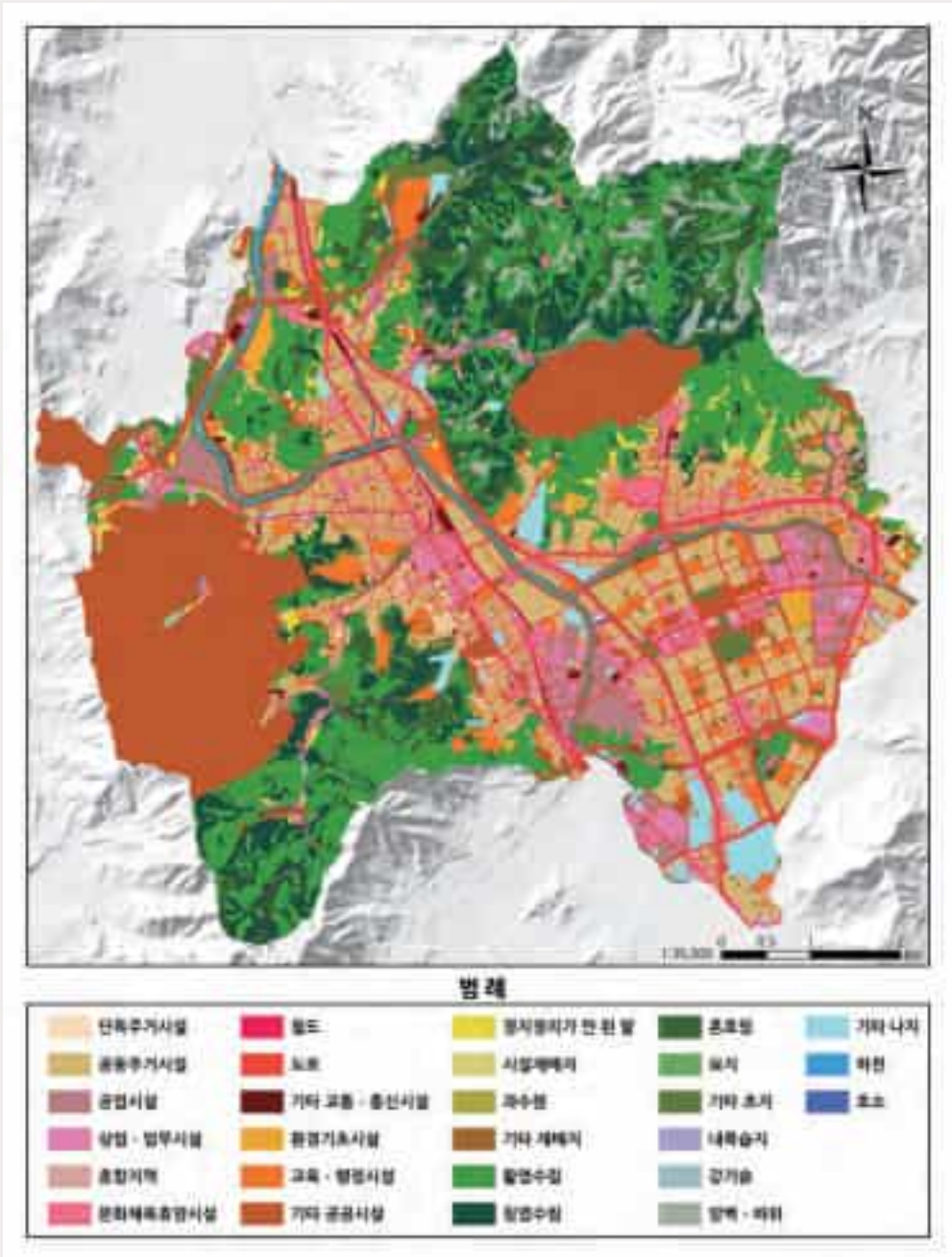
안양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2021)에 제시된 식생도 분포를 보면, 군사시설지역이라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북동방향의 관악산 지역과 남서방향의 수리산 지역이 대표적인 산림식생 분포지역이다. 안양시의 북서방향에 흩어져 있는 구릉성 산지에도 산지식생이 분포한다. 관악산과 수리산의 저지대에는 조림지와 이차림이 모자이크상으로 넓게 분포하고, 일정고도 이상은 자연림이 분포한다. 또한 관악산을 중심으로 암반 노출지가 산재하고 있다. 산림지역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은 안양시 전체 면적의 14.5%에 이르는데, 이들 지역이 모두 나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산림지역과 유사한 식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암반 노출지는 117.4ha로 안양시 면적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암석 노출지나 식생으로 덮힌 암반 식생은 안양시의 대표적인 식생유형 중 하나이다. 조림지는 안양시의 6.22%를 차지하는데, 주로 저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차림은 안양시 전체 면적의 4.93%를, 자연림은 안양시 전체 면적의 23.3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조림지와 이차림도 자연림만큼 중요한 식생이라 할 수 있다.

안양시(2021)의 비오톱 지도에서 산림지역은 크게 자연림, 자연-인공림 및 인공림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연림과 자연-인공림은 참나무림, 소나무림, 기타활엽수림, 침엽-활엽수 혼효림으로 구분하였다. 인공림은 기타활엽수림, 기타침엽수림, 침엽-활엽수 혼효림으로 구분하여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산림지역에서 가장 넓은 비오톱 유형은 자연림인 참나무림으로 안양시 전체 면적의 16.42%이었다. 안양시에서 자연림으로 구분되는 참나무림은 신갈나무, 굴참나무 및 졸참나무가 우점하는 숲이다. 자연 소나무림은 안양시 면적의 2.65%에 불과하고, 침엽-활엽수 혼효림은 안양시 면적의 4.12%이다. 따라서 자연림은 과거 소나무림 우점에서 참나무림이 우점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인공림은 반자연림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수리나무군락지와 조림지에서 천이가 진행되어 자연림에 우점하는 나무들이 혼합되어 형성된 숲이다. 인공림은 주로 아까시나무림(활엽수림)과 리기다소나무림(침엽수림) 지역이다. 리기다소나무는 과거 매우 광범위하게 안양 지역에 식재된 것으로 판단되고, 많은 리기다소나무림이 자연림으로 전환 중이다. 안양시의 매우 독특한 식생유형인 암반 노출지는 자연림에 속한다.



안양시 자연환경 현황도(안양시,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비오톱 평가유형도를 살펴보면, 산지지역은 대부분 절대보전이 필요한 1등급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일부 지역은 보전이 우선되는 비오톱인 2등급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생태적 가치로 평가하는 개별비오톱 평가도에서도 자연림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1등급이나 중간 정도인 2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인공림 지역도 생태적 가치가 중간 정도인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안양시 지역은 도심지역과 식생이 분포할 수 있는 산림지역이 명백하게 잘 분리되어 있는 도시이다. 도시민의 휴양과 안양시의 전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산림은 잘 보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록 교란지 식생이 분포하기는 하지만 하천 식생도 보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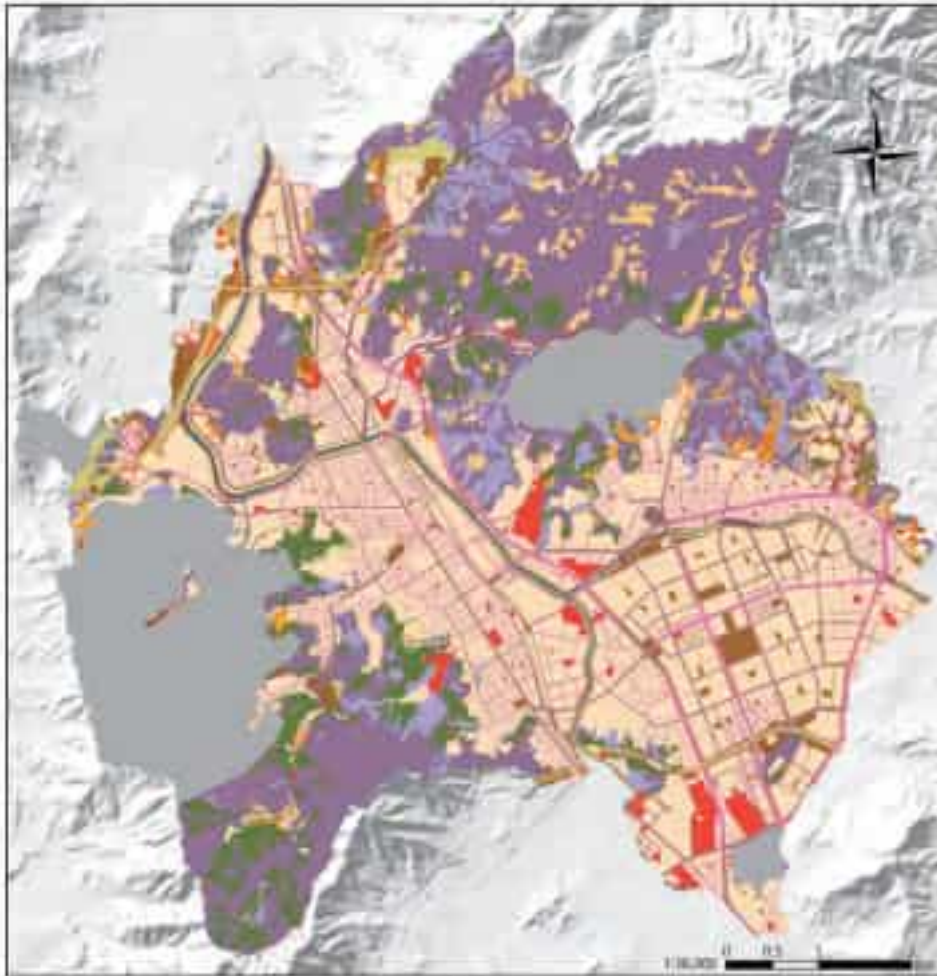
안양시 토지이용현황도(안양시,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표 3〉 안양시 토지이용유형별 면적

(단위: m²·%)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합계	면적비	
시가화 건조 지역	주거지역	단독주거시설	321,714.936	0.55	
		공동주거시설	7,541,705.536	12.89	
	공업지역	공업시설	1,317,315.214	2.25	
	상업지역	상업·업무시설	3,095,155.910	5.29	
		혼합지역	259,596.865	0.44	
	문화체육휴양지역	문화·체육·휴양시설	500,025.593	0.85	
	교통지역	철도	철도	182,562.543	0.31
			도로	6,188,653.924	10.58
		기타 교통·통신시설	300,935.395	0.51	
		환경기초시설	431,228.930	0.74	
		공공지역	교육·행정시설	1,799,977.878	3.08
			기타 공공시설	9,011,747.103	15.40
	농업 지역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723,244.172	1.24
시설재배지		시설재배지	153,761.461	0.26	
과수원		과수원	16,537.846	0.03	
기타 재배지		기타 재배지	115,632.638	0.20	
산림 지역	활엽수림	활엽수림	11,811,995.982	20.19	
	침엽수림	침엽수림	5,045,549.150	8.62	
	혼효림	혼효림	3,325,751.077	5.68	
초지	자연초지	자연초지	89,798,342	0.15	
	인공초지	묘지	117,978.579	0.20	
		기타 초지	2,803,813.698	4.79	
습지	내륙습지	내륙습지	4,534.092	0.01	
나지	자연나지	강기슭	25,164.061	0.04	
		암벽바위	1,174,831.768	2.01	
	인공나지	기타 나지	1,440,853.172	2.46	
수역	내륙수	하천	705,904.795	1.21	
		호소	12,016.177	0.02	
총계			58,517,986.837	100.00	

출처: 안양시,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범례

서가지	강가림	보포장	말채노동지	습지자연보호지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도로	인공나지	기타 재배지	조사불가능지역	학원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밭	원예용 조지	취락지	호수
가로녹지 및 중앙분리녹지 조성 도로	시설경관지	전초자연보호지	초원지	
식생이 없는 절토	과수원	벌채지	자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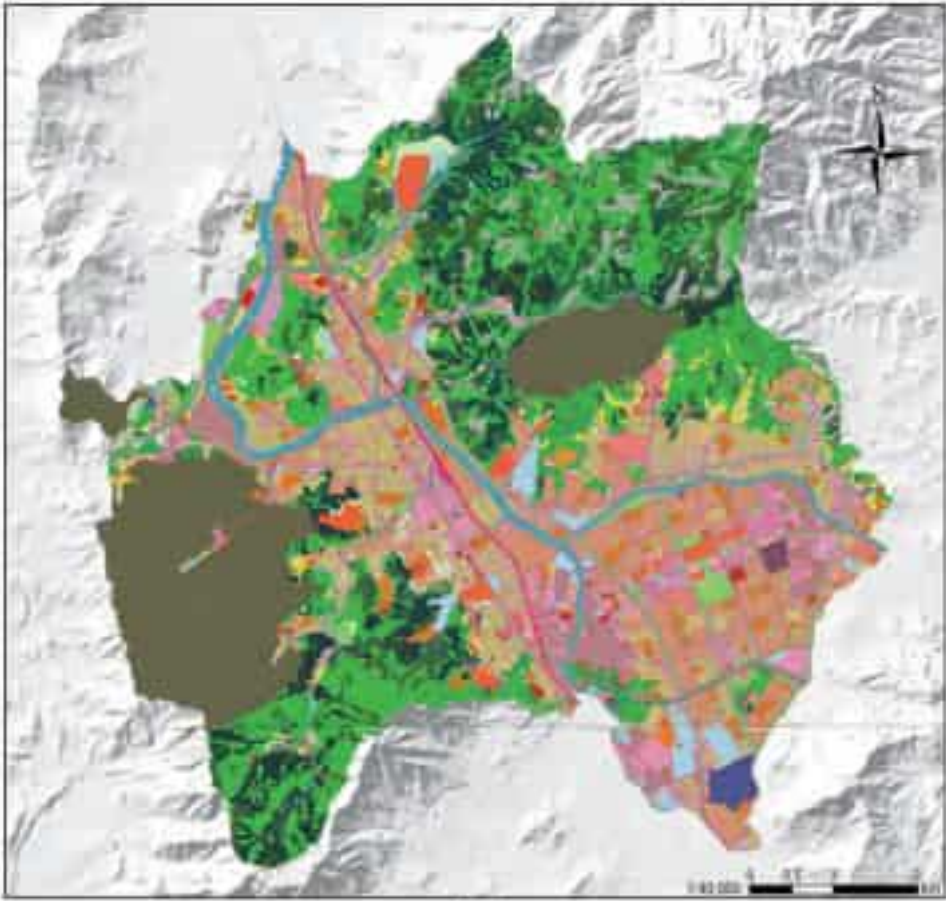
안양시 식생현황도(안양시,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표 4〉 안양시 식생유형별 면적과 구성비율

(단위: m²%)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합계	면적비
시가화 건조 지역	시가지	시가지	16,431,410	28.08
	도로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도로	780,840	1.3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2,617,026	4.47
		가로녹지 및 중앙분리녹지 조성 도로	2,790,788	4.77
	철도	식생이 없는 도로	182,563	0.31
나지	자연나지	강기슭	25,164	0.04
	인공나지	인공나지	1,004,319	1.72
농업지역	농경지	밭	723,244	1.24
		시설경작지	153,761	0.26
		과수원	16,538	0.03
		묘포장	115,633	0.20
초지	인공초지	원예종 초지	1,275,475	2.18
	자연초지	건조 자생초지	1,837,926	3.14
산림지역	산림지역	암석노출지	1,174,832	2.01
		조사불가능지역	8,482,717	14.50
		조림지	3,638,562	6.22
		이차림	2,885,076	4.93
		자연림	13,659,658	23.34
습지	내륙습지	습지자생초지	167,966	0.29
수역	내륙수	하천	542,473	0.93
		호소	12,016	0.02
총계			58,517,98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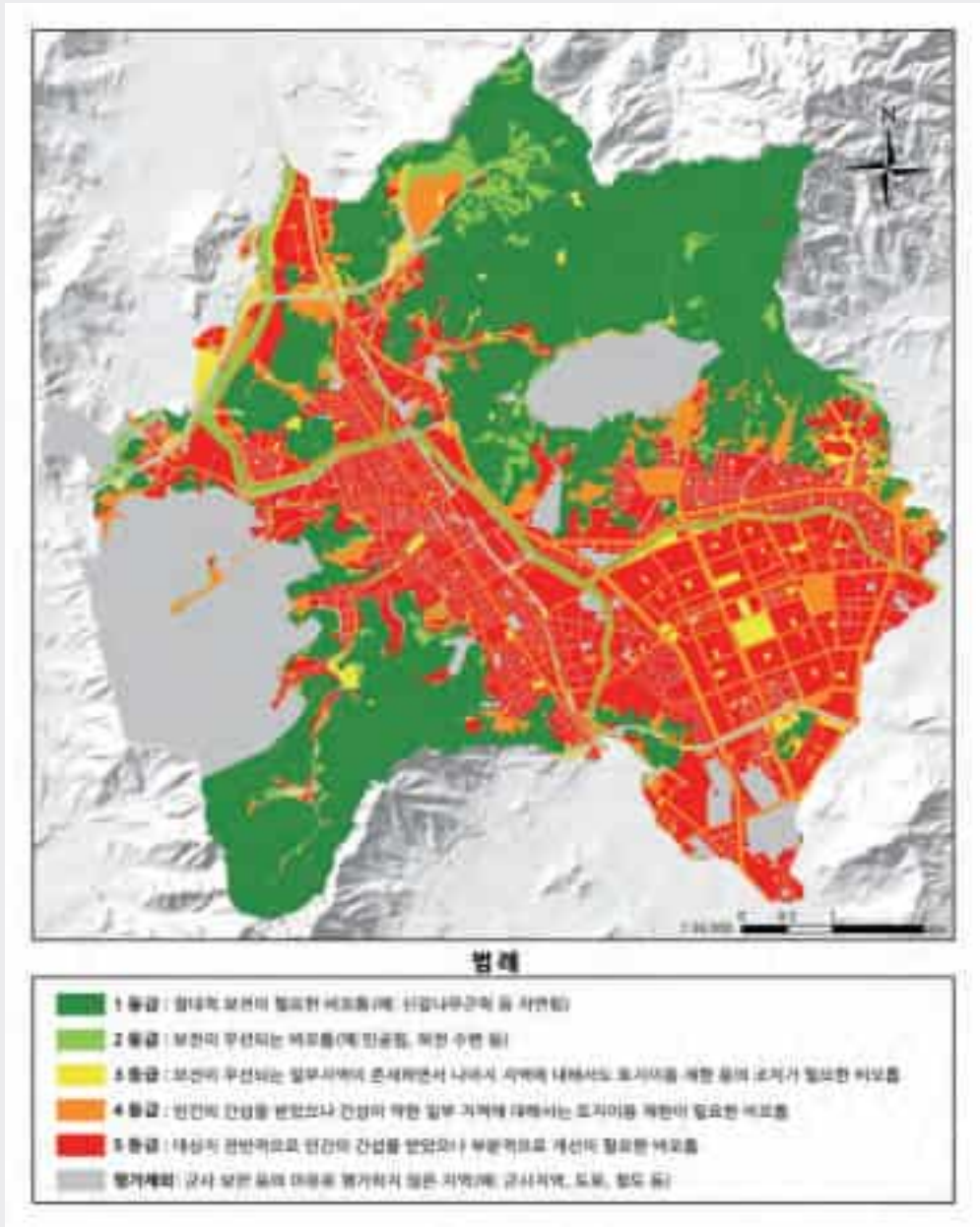
출처: 안양시,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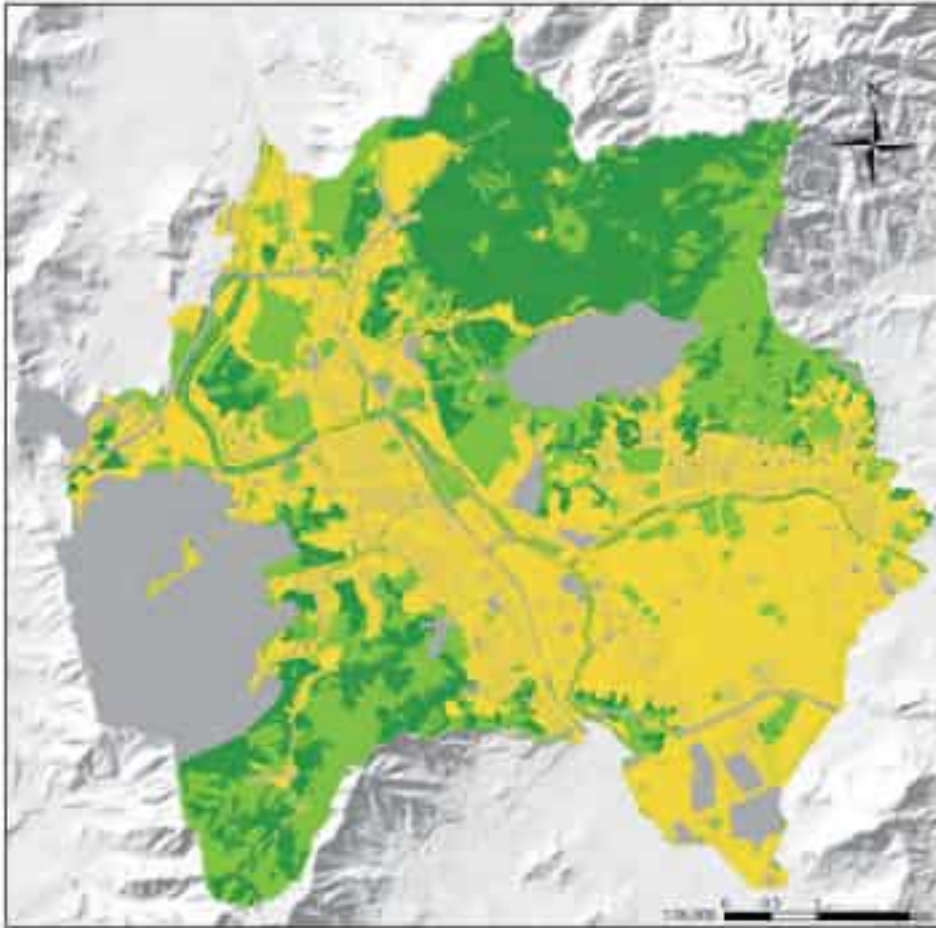
범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00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01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02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03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04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05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06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07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08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09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10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11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12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13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14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15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16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17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18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19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20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21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22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23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24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25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26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27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28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29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30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31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32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33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34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35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36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37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38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39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40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41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42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43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44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45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46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47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48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490년기준)	농지용 지능 지형지수(2500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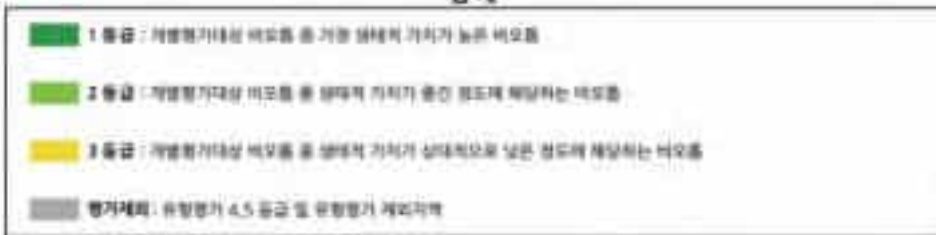
안양시 비오름유형도(안양시,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안양시 비오톱유형평가도(안양시,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별표



안양시 개별비오름평가도(안양시,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표 5〉 산림지 비오톱 평가등급 분포표

(단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등급 비율	2등급 비율	3등급 비율
산림	자연림	자연림으로 참나무림	16.42		
		자연림으로 소나무림	2.65		
		자연림으로서 기타 활엽수림	0.16		
		자연림으로서 침엽·활엽수 혼효림	4.12		
	자연-인공림	자연-인공림으로서 참나무림	1.05		
		자연-인공림으로서 소나무림	0.35		
		자연-인공림으로서 기타 활엽수림	0.68		
		자연-인공림으로서 기타 침엽수림		1.44	
	인공림	자연-인공림으로서 침엽·활엽수 혼효림	1.41		
		인공림으로서 기타 활엽수림	1.88		
		인공림으로서 기타 침엽수림	4.18		
	암석노출지	인공림으로서 침엽·활엽수 혼효림		0.15	
		녹지비율 30% 이상의 암석 노출지	2.00		
		녹지비율 30% 미만의 암석 노출지	0.01		
벌채 및 훼손지	산불 지역			0.01	

주) 안양시 전체면적에 대비한 비율을 나타냄

구체적으로 안양시의 식생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가기관에서 안양시의 식생 분포 및 식생 발달과 관련된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안양시의 식생과 관련된 요소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먼저 농촌진흥청의 토양정보에 따르면 안양시 산림지역은 특히 토심이 얇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식생 발달에 중요한 제한 요소이다. 특히 저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토심이 매우 얇음이나 얇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악산 지역은 수리산 지역보다 토심이 더 얇아서 식생 발달이 많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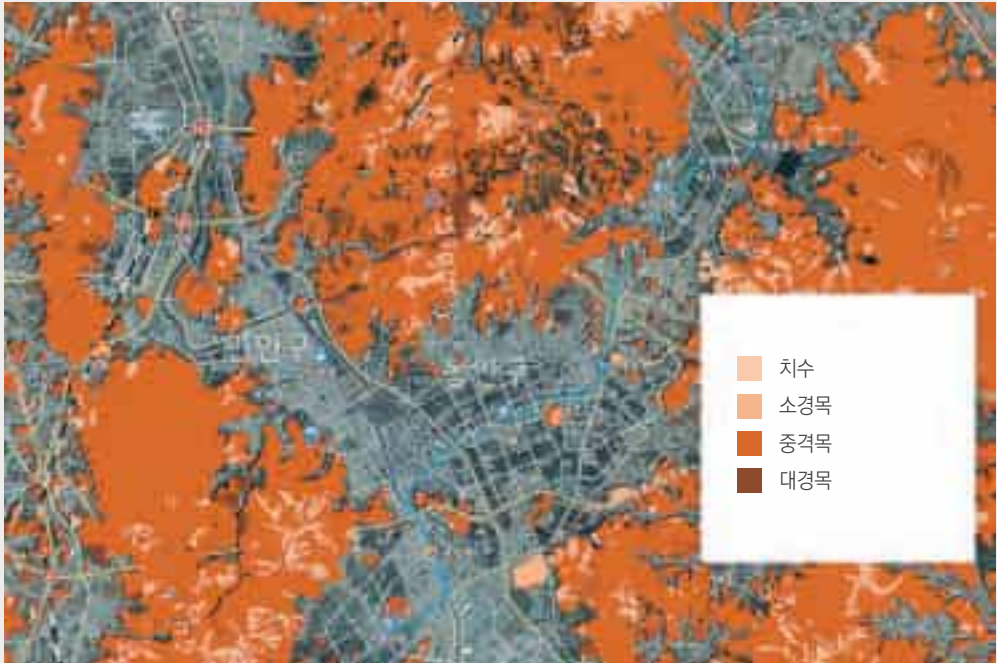
산림청은 전국 규모의 임상도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도에는 임상의 종류, 경급, 영급, 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² 이것은 국립생태원에서 시행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나 각 지자체에서 산림관리의 기본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양시와 주변지역의 산림은 관악산과 수리산 지역의 저지대와 능선부를 중심으로 침엽수림이 분포하고 있고, 매우 넓은 지역이 활엽수림으로 구분되고 있다. 저지대의 활엽수림은 인공림이 많



안양시와 주변지역의 토심분포도(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휴토람)



안양시와 주변지역의 임상별 임상도(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안양시와 주변지역의 경급별 분포도(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안양시와 주변지역의 목본 밀도 분포도(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안양시와 주변지역의 영급별 분포도(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고, 사면 중부 이상은 대부분 참나무 계열의 자연림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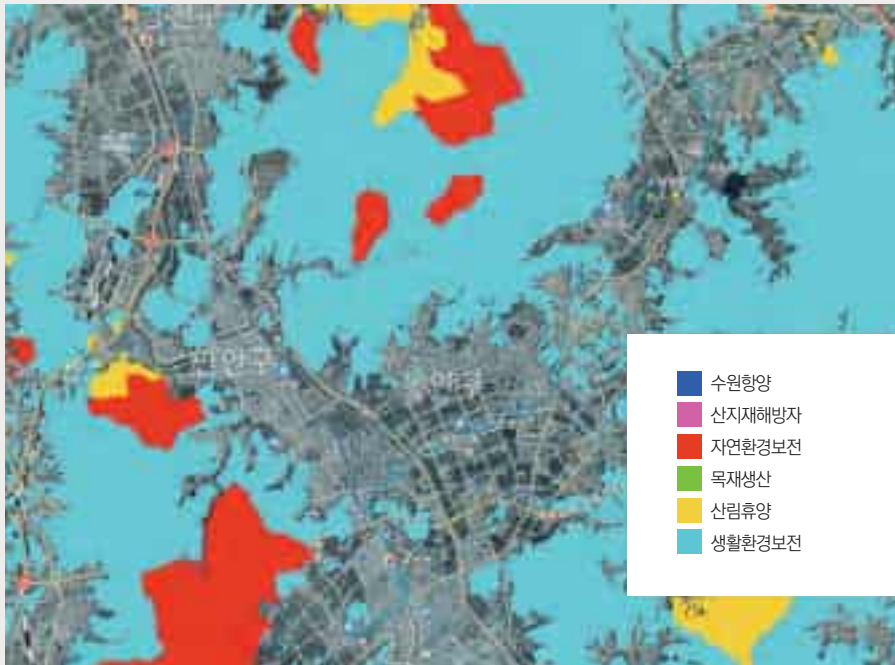
안양시와 주변지역의 영급별 분포도는 대경목은 계곡부나 저지대를 중심으로 아주 적은 면적이 분포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중경목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식생의 목본 밀도도 일부 암반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중 이상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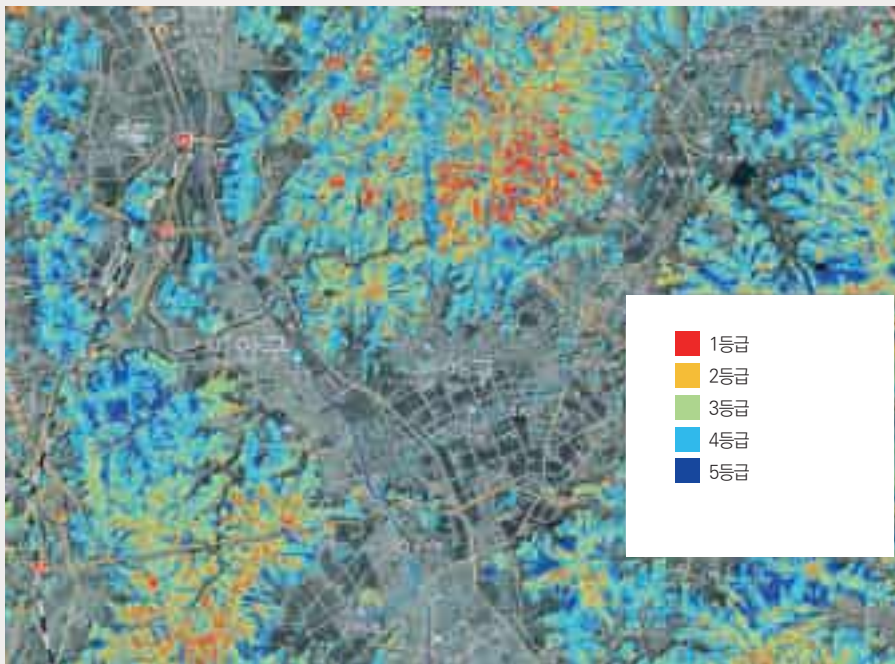
영급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 지역이 4~6등급(40~70년생)에 해당한다.¹³ 이것은 발달 중인 이차림이 넓게 발달하고, 토심이 식물생장에 제한되는 곳이 넓은 이 지역 지형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다.

안양시와 주변지역 산림기능구분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이 생활환경보전림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지역이 자연환경보전림이나 산림휴양림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주로 안양시 주변의 산림은 도시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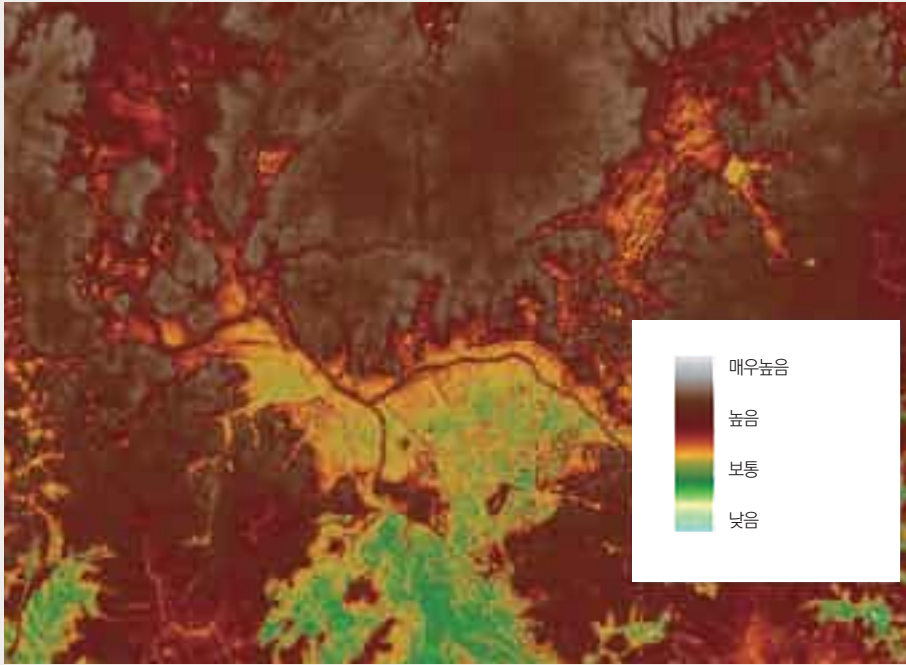
산사태 위험지도에 따르면, 안양시와 주변지역의 산지는 경사가 급하고 암반지대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서 사면 중상부 지역의 대부분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1등급과



안양시와 주변지역 산림기능구분도(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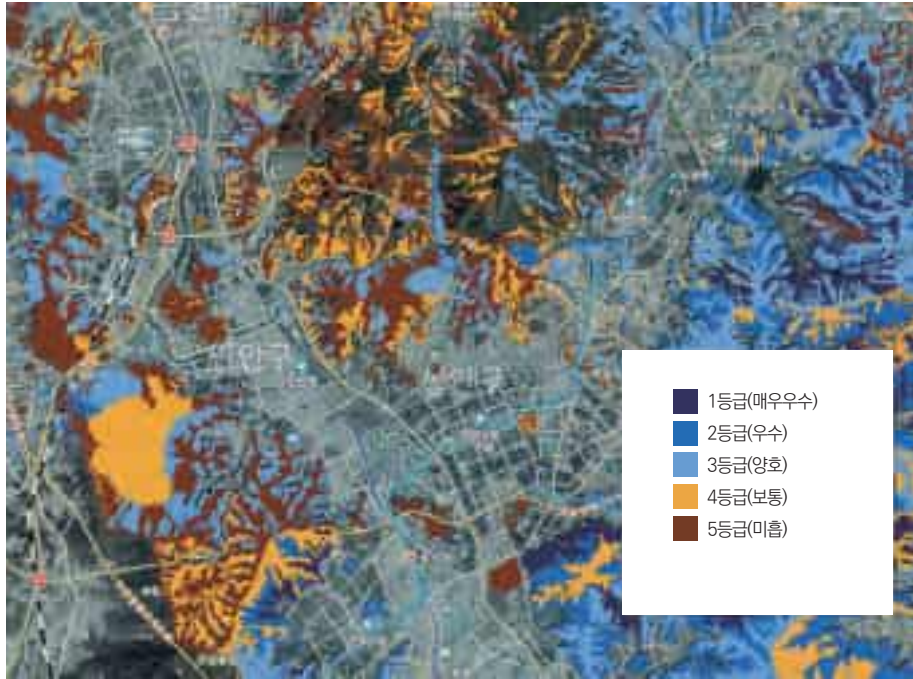
안양시와 주변지역 산사태위험지도(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안양시 주변지역 산불위험지도(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안양시와 주변지역 산불발생지점 분포도(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안양시와 주변지역 수원함양기능분포도(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¹⁵ 최근 우면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립 주변에서의 산사태는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한다. 안양시의 산림관리에서 산사태를 예방하는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후변화 환경에서 산사태에 대한 대비는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산불위험지도에 따르면 안양시의 산림지대 거의 모든 지역이 높음 이상 지역으로 평가된다.¹⁶ 특히 소나무림과 리기다소나무림이 우점하는 침엽수림 지대는 산불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나무림으로 구성된 자연림 지역은 상대적으로 내화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산불에 덜 취약하다. 산불 이후에 거의 모든 산림은 산불 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 특히 참나무림은 맹아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고, 숲의 구성원 대부분이 산불 이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나무림이나 리기다소나무림도 산불 이후에 소나무나 리기다소나무 재생은 어려워도 구성종들의 재생능력이 높아서 스스로 복원할 수 있다. 특히 숲가꾸기를 한 장소보다 숲가꾸기를 진행하지 않은 지소들이 산불 이후의 회복 탄력성이 높다. 과거에 산불이 발생했던 장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 근처이거나 등산로에서 등산객

의 실수로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안양시의 산림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산 불에 대한 경각심을 더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수원함양기능 분포도를 살펴보면 사면 중하부의 참나무림으로 구성된 자연림에서 상대적으로 수원함양기능이 크고 사면 중상부와 능선부의 수원함양기능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¹⁷ 관악산 지역이 상대적으로 수리산 지역보다 수원함양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악산과 수리산에 넓게 발달하고 있는 암반지대는 수원함양기능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이유이다.

5. 안양의 주요 식생과 숲 구조의 특성

국립생태원에서는 매 5년마다 전국자연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안양시와 주변지역 산림의 식생유형을 살펴보면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소나무-굴참나무 군락, 굴참나무군락, 곰솔군락, 소나무-신갈나무군락, 신갈나무-소나무군락, 굴참나무-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 기타 식생군락으로 구분하고 있다.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정밀 조사(안양시, 2021)에 따르면, 안양시 산림지역은 크게 활엽수림, 침엽수림 및 혼합림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다른 분류 방식으로 자연림, 이차림 및 인공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분류 방식에서는 두 가지를 조합하여 자연림으로서 참나무림, 자연림으로서 소나무림, 자연림으로서 기타활엽수림, 자연림으로서 침엽-활엽수 혼효림, 자연-인공림으로서 침엽-활엽수 혼효림, 자연-인공림으로서 참나무림, 자연-인공림으로서 소나무림, 자연-인공림으로서 기타활엽수림, 자연-인공림으로서 기타 침엽수림, 자연-인공림으로서 침엽-활엽수 혼효림, 인공림으로서 기타활엽수림, 인공림으로서 기타 침엽수림, 인공림으로서 침엽-활엽수 혼효림, 녹지비율 30% 이상의 암석노출지, 녹지비율 30% 미만의 암석노출지 그리고 산불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포도가 제시되었다.

안양시의 산림지역에서 교목으로 숲을 구성하는 수종 중 활엽수는 굴참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졸참나무·갈참나무·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은사시나무·잔털벚나무 등이다. 침엽수는 소나무·리기다소나무·잣나무·일본잎갈나무 등이다. 암반 지역에서 숲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수종은 노간주나무·소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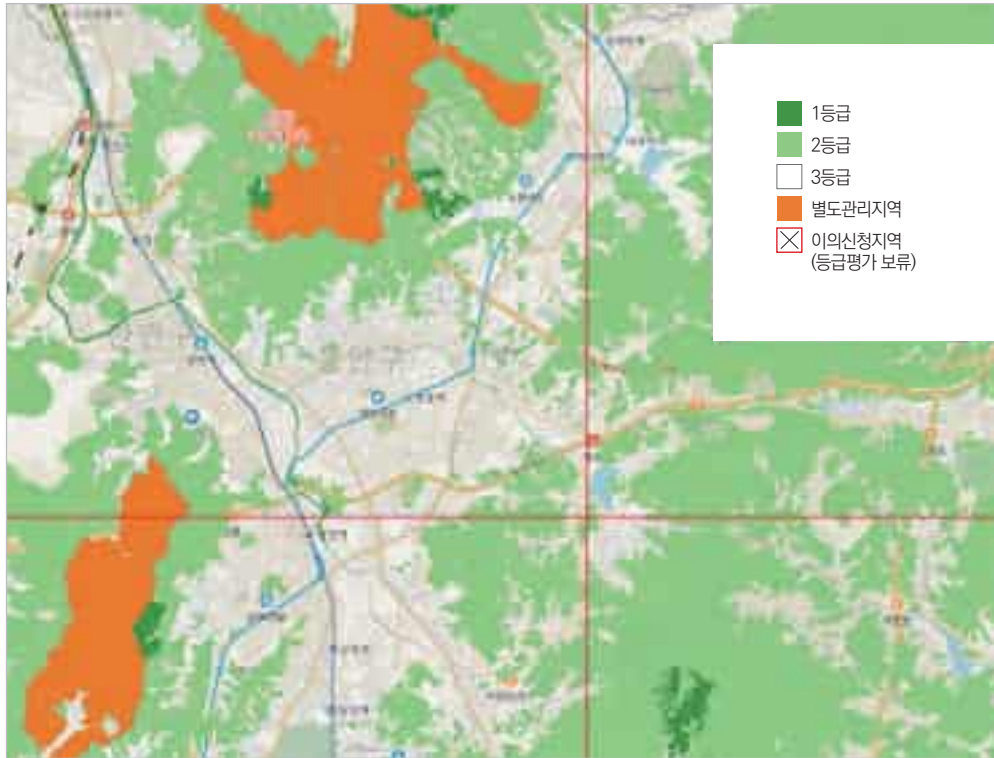
식생군락

- 소나무군락
- 신갈나무군락
- 소나무-굴참나무군락
- 굴참나무군락
- 곰솔군락
- 소나무-신갈나무군락
- 신갈나무-소나무군락
- 굴참나무-소나무군락
- 상수리나무군락
-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
- 기타 식생군락

국립생태원에서 전국자연환경 조사를 통해 제시한 안양시와 주변지역의 현존식생도¹⁸⁾

안양시의 산림지역에서 자연림을 구성하는 수종은 소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줄참나무·갈참나무·노간주나무이다. 상수리나무는 조선시대부터 구황식물로 많이 식재한 참나무로서 반자연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공적으로 식재하여 인공림을 구성하는 식물은 소나무·일본잎갈나무·잣나무·아까시나무·은사시나무·밤나무·잔털벚나무 등이다. 소나무는 자연림의 구성요소이지만 산림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주요 조림수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안양시의 산림식생은 자연림 구성 수종과 인공림 구성 수종의 분포에 따라 자연림, 자연-인공림, 인공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양시에서 대부분의 인공림은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고, 자연림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중간 고도에는 자연-인공림이 분포하고 있다. 산지의 경사가 급한 지역과 암반 지대는 자연림이 분포하고 있고, 저지대의 토심이 깊고 경사가 완만하여 사람의 접근이 쉬운 곳은 인공림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과거 민둥산 시절 산림녹화를 위해



안양시와 주변지역 생태자연도(환경공간정보서비스, EGIS)

물오리나무·아까시나무·소나무·리기다소나무를 조림한 인공조림지의 많은 지역에서 자연림의 구성종들이 조림지에 침투해서 자연림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저지대 대부분의 지역은 인공림으로 유지되고 있다.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등급분포도를 살펴보면, 자연림으로 구성된 고지대의 대부분은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구간이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면 중하부 이하에 형성된 자연-인공림과 인공림은 대부분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¹⁹

이 글에서는 크게 자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하여 주요 식생 유형별 분포와 숲의 구조 및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자연림

(1) 암반지대의 식생

안양 지역의 관악산과 수리산 지역은 화강암 지대로 암반이 노출된 곳이 많다. 산지에서 암반지대의 분포는 등산객들에게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는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암반지대는 크게 식물이 30% 이상 덮고 있는 지역과 30% 미만의 식생이 덮여 있는 암석노출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은 암석노출지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 암석이 쪼개진 틈새로 물이 흐르고 일부 토양이 얇게 쌓이는 곳이 길게 발달한 암반지대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다.

암반지대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초본은 새·구절초·솔새·참산부추·역새·큰기름새 등이다. 점차적으로 암반 틈새가 벌어져 약간의 유기물과 토양이 있을 때 처음으로 들어오는 식물은 노간주나무와 소나무이다. 안양시 지역의 산지에서 노간주나무와 새는 식생이 적은 암반지대 식생의 지표종이라 할 수 있다. 암반지대의 틈새에 토양이 쌓이고 암반 틈새에 정착한 나무와 초본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새가 우점하는 초본층으로 구성된 식생이 형성된 후 점차적으로 관목층과 초본층으로 구성된 2층 구조의 관목림 혹은 아교목층·관목층·초본층으로 구성된 3층 구조의 숲으로 발달한다. 암반지대의 식생은 대체적으로 키가 작는데, 아교목층을 형성한 숲의 경우에 평균수고가 3~4m가 많고, 흉고직경은 10cm 내외이며, 식피율은 30~50% 수준이다. 관목층의 키는 1m 내외이고, 식피율은 30% 내외이다. 초본층의 키는 40cm 내외이고, 식피율은 10% 내외이다.

암반지대에 발달한 식생에서 관목층을 구성하는 수종은 노간주나무·소나무·참싸리·잔털벚나무·팔배나무·굴참나무·산초나무·진달래·줄참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을 형성하는 나무는 소나무·리기다소나무·노간주나무·신갈나무 등이다. 암반지대에 리기다소나무가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 높은 산지까지 산림녹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암반지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생유형은 새군락, 노간주나무군락, 소나무-노간주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노간주나무군락, 소나무-신갈나무군락이다.



관악산 지역 암반지대 위의 노간주나무군락



암반지대 위의 새와 노간주나무



암반지대 위의 소나무-노간주나무군락



암반 위의 소나무군락

(2) 소나무림

안양시에서 소나무림으로 구분되는 식생은 교목층에 우점하는 목본에 의해 소나무군락, 소나무-굴참나무군락, 소나무-노간주나무군락, 소나무-신갈나무군락, 소나무-졸참나무군락, 소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이다. 소나무군락은 능선부나 사면상부의 토심이 얇은 곳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소나무-노간주나무군락은 암반지대에 형성된 군락이며, 소나무-굴참나무군락은 사면부의 경사가 급한 건조한 곳에서 굴참나무가 침투해서 굴참나무림으로 발달하는 군락이다. 소나무-신갈나무군락은 사면의 습하고 토심이 발달한 곳이나 계곡부에 형성되어 신갈나무림으로 발달 중인 군락이다. 소나무-졸참나무군락은 주로 계곡부에 형성되는 군락이다. 소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은 과거에 리기다소나무를 대규모로 식재하였으나 소나무가 침투해서 자연림으로 변해 가고 있는 군락이다. 따라서 소나무군락은 다양한 입지마다 약간씩 다른 유형의 군집구조를 갖는 군락들

이 발달한다.

소나무군락은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70% 이상의 식피율을 점유하는 군락이다. 교목층의 수고는 9~18m로 입지 조건에 따라 다양하고, 교목층의 식피율은 70~95%로 다양하다. 소나무의 평균 흉고직경은 15~30cm까지 다양하다. 아교목층의 수고는 4~6m이고, 피도는 5~70%까지 다양하다. 관목층의 수고와 피도被度는 각각 1m 내외와 15~50%이다. 초본층의 키와 피도는 각각 0.3~0.5m와 10~20%이다. 한 장소에서 출현하는 교목층의 출현종은 1~5종이고, 아교목층의 출현종은 2~5종이며, 관목층의 출현종은 5~11종이고, 초본층의 출현종은 3~10종이다.

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소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졸참나무·잔털벚나무·리기다소나무·물오리나무·팔배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소나무·신갈나무·노간주나무·잔털벚나무·팔배나무·당단풍·졸참나무·굴참나무·아까시나무·물푸레나무 등이다. 관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진달래·난티잎개암나무·산초나무·노간주나무·참싸리·잔털벚나무·개웃나무·쥐똥나무·팔배나무·소영도리나무·회양목·물오리나무 등이다. 초본층의 주요 출현종은 새·억새·큰기름새·가는잎그늘사초·맹맹이덩굴·주름조개풀·산딸기·뱀고사리·각시붓꽃·맑은대쑥·돌양지꽃·청미래덩굴·큰원추리·큰까치수영·대사초 등이다.

소나무-굴참나무군락은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다소 우세하지만 굴참나무의 피도가 높은 군락이다. 토심이 얇고, 경사가 급한 곳이나 암반이 많이 노출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수고는 8m 내외이고, 식피율도 60~85% 정도로 다소 영성한 구조를 가진다. 교목층은 없는 경우가 많다. 관목층의 수고는 1m 내외이고, 식피율은 40% 내외이다. 초본층은 0.2m 정도이고 식피율도 5~10%이다. 대체적으로 식물상이 빈약한 군락이다. 관목층에서 출현하는 식물은 진달래·굴참나무·졸참나무·노간주나무 등이다. 초본층의 우점종은 신갈나무·굴참나무·진달래·노간주나무 등으로 초본 종류가 거의 출현하지 못하는 입지에 형성된다.

소나무-신갈나무군락은 소나무군락이 신갈나무군락으로 전이되는 과정의 숲으로 안양지역에 넓게 발달하고 있다.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우세하지만 신갈나무가 30% 이상 우점하는 군락이다. 상대적으로 토양이 발달하고 습한 환경에 분포한다. 교목층의 수고는 입지조건과 숲의 발달 상태에 따라 8~17m까지 다양하고, 출현 목본의 흉고직경은 10~20cm이다. 교목층의 식피율은 80~95%로 높은 편이다. 교목층의 출현종수는 2~4종이고, 주요 출현종은 소나무·신갈나무·리기다소나무·굴참나무·졸참나무·아까시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의 수고는 4m 내외이고, 식피율은 20~40%이다. 아교목층의 출현종



사면 상부의 소나무군락



소나무림의 수관층 모습



소나무림의 임상 모습(좌·우)



사면 상부의 소나무-신갈나무 군락 모습



사면 상부의 소나무-신갈나무 군락 모습

수는 2~7종이고, 주요 출현종은 때죽나무·물푸레나무·잔털벗나무·팔배나무·리기다소나무 등이다. 관목층의 수고는 1.5m 내외이고, 식피율은 15~40%이다. 관목층의 출현종수는 5~9종이고, 주요출현종은 진달래·철쭉꽃·회양목·잔털벗나무·회양목·소영도리나무·산초나무·팔배나무·노간주나무 등이다. 초본층의 키는 0.4m 정도이고, 식피율은 5~10%이다. 초본층의 출현종수는 5~10종이고, 주요 출현종은 큰기름새·가는잎그늘사초·참싸리·역새·청가시덩굴·큰원추리·쌀새·돌양지꽃·땅비싸리 등이다.

소나무-졸참나무군락은 졸참나무의 입지조건에서 졸참나무림으로 발달중인 군락이다. 졸참나무군락이 계곡부의 습한 지역에 형성되기 때문에 안양지역에서 넓게 분포하지는 않는다. 주요 군락 출현종은 소나무·졸참나무·신갈나무·때죽나무·노간주나무·진달래·철쭉꽃·가는잎그늘사초·맑은대쭉·상수리나무 등이다.

소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은 과거에 인공림인 리기다소나무 식재지에서 자연적으로 침투한 소나무가 리기다소나무보다 우세해져서 자연림으로 바뀌어 가는 반자연림의 성격을 가진 숲이다. 교목층의 평균 수고는 9~15m이고, 평균 흉고직경은 10~15cm로 성숙한 숲은 아니다. 교목층의 식피율은 70~90%로 빼곡한 편이다. 교목층은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아교목층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소실된 지역이 많다. 숲가꾸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아교목층은 수고 5~7m이고, 식피율 25~80%까지 다양하다. 아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소나무·리기다소나무·신갈나무·노간주나무·잔털벗나무·굴참나무 등이다. 관목층은 수고 1.5m 내외이고, 식피율은 40~50%로 잘 발달되어 있다. 관목층의 출현종수는 5~11종으로 다양하고, 주요 출현종은 신갈나무·졸참나무·진달래·철쭉꽃·상수리나무·때죽나무·노간주나무·회양목·아까시나무 등이다. 초본층의 식피율은 5~30%로 관목층에 비해 빈약한 편이고, 주요 출현종은 가는잎그늘사초·큰기름새·국수나무·산초나무·청미래덩굴·청가시덩굴·꽃머느리밥풀·참싸리·맹맹이덩굴 등이다.

(3) 신갈나무림

신갈나무림은 신갈나무 순군락,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 신갈나무-졸참나무군락, 신갈나무-소나무군락, 신갈나무-상수리나무군락, 신갈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등으로 분포한다. 이 중에서 신갈나무 순군락, 신갈나무-소나무군락, 신갈나무-졸참나무군락, 신갈나무-굴참나무 군락은 자연군락으로 자연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천이가 진행 중인 숲

이다. 신갈나무림은 분포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계곡부나 북사면부의 토심이 다소 깊고 습한 곳에 분포하고 있다. 신갈나무-상수리나무군락과 신갈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은 인공림에서 자연림으로 변해 가는 입지에서 발달 중인 군락이고, 대체적으로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신갈나무 순군락은 안양시에서 넓게 분포하는 주요 식생유형이다. 교목층의 평균 수고는 10~18m로 다양하고, 평균 흉고직경은 15~20cm가 대부분이며, 식피율은 90~95%로 아주 높은 편이다. 교목층의 출현종수는 2~5종이고, 주요 출현종은 신갈나무·소나무·당단풍·졸참나무·물오리나무·잔털벗나무·팔배나무·굴참나무·상수리나무·리기다소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의 수고는 4~7m이고, 식피율은 20~60%이고, 출현종수는 3~7종이다. 아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잔털벗나무·개웃나무·팔배나무·노간주나무·개암나무·떡갈나무·쪽동백나무·졸참나무 등이다. 관목층의 수고는 1.5m 내외이고, 식피율은 30% 내외이다. 주요 출현종은 때죽나무·회양목·진달래·철쭉꽃·개웃나무·생강나무·국수나무·산초나무·덜꿩나무·당단풍·쥐똥나무 등이다. 초본층의 키는 0.1~0.4m로 다양하고, 식피율도 입지조건에 따라 5~60%까지 다양하였다. 초본층의 출현종수는 8~19종으로 풍부한 편이었다. 초본층의 주요 출현종은 실새풀·억새·백운산원추리·넉줄고사리·가는잎그늘사초·노린재나무·개웃나무·선밀나무·노루발·닭의장풀·고비·댕댕이덩굴·뱀고사리·대사초·쌀새·노랑제비꽃·구절초·새며느리밥풀·맑은대쭉·비비추 등이다.

신갈나무-소나무군락은 두 가지 유형이 분포한다. 첫 번째 유형은 비교적 토양이 발달하고 습해서 나무가 자라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소나무군락이 점차 신갈나무군락으로 천이가 진행 중인 군락이다. 따라서 비교적 나무들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교목층의 수고는 12~20m로 큰 편이고, 식피율도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교목층을 구성하는 종수도 많은 편으로 5~7종이 분포하고, 주요 출현종은 신갈나무·소나무·졸참나무·갈참나무·굴참나무·상수리나무·리기다소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은 4~6m이고, 식피율은 40% 내외이다. 아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때죽나무·철쭉꽃·진달래·팔배나무·당단풍·물오리나무 등이다. 관목층은 1.5m 내외로 식피율은 10~30%이다. 주요 출현종은 철쭉꽃·진달래·때죽나무·회양목·팔배나무·당단풍·졸참나무·신갈나무 등이다. 초본층은 키가 0.3m이고, 식피율은 10% 미만으로 빈약한 편이다. 초본층의 주요 출현종은 주름조개풀·선밀나무·가는잎그늘사초·댕댕이덩굴·쌀새·뱀고사리 등이다.

신갈나무-소나무군락의 두 번째 유형은 아교목층·관목층·초본층의 3층 구조를 이루는 숲으로, 사면 상부나 암반지대 주변에 형성되는 군락이다. 아교목층의 수고가 4~6m

로 키가 작고 식피율이 60~90%로 다양하다. 암반지대에 가까울수록, 능선에 가까울수록 아교목층의 식피율은 낮아진다. 아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신갈나무·소나무·리기다소나무·노간주나무·팔배나무 등이다. 관목층은 1.5m 내외이고, 식피율은 20~30%이다. 주요 출현종은 진달래, 참싸리, 노간주나무, 철쭉꽃, 팔배나무 등으로 관목층의 종수가 풍부한 편이다. 초본층의 식피율은 10% 미만으로 빈약한 편이다. 초본층의 주요 출현종은 바랭이·새·큰기름새·큰원추리·진달래·강아지풀 등이다.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은 참나무 혼합림군락으로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은 경사가 급하고 토양이 적고 건조한 입지에 분포한다. 흉고직경 20cm 내외이고, 수고 12m 내외이며, 식피율은 80% 내외이다. 교목층의 출현종은 신갈나무·굴참나무·소나무·물박달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은 4m 내외이고, 식피율은 30% 정도로 때죽나무·아까시나무·졸참나무·노간주나무 등이 출현한다. 관목층은 1.7m의 키에 40% 내외의 식피율을 나타낸다. 다른 군락에 비해 목본 종류가 다양하게 출현하는 편이다. 관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조록싸리·국수나무·회양목·아까시나무·상수리나무 등이다. 초본층은 식피율 5% 미만으로 빈약한 편이다. 주요 출현종은 주름조개풀·담쟁이덩굴·닭의장풀·큰기름새·가는잎그늘사초 등이다.

신갈나무·졸참나무군락은 계곡부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평균 흉고직경이 20~30cm 이고, 수고도 15~19m로 큰 편이다. 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신갈나무·졸참나무·잔털벚나무·굴참나무·당단풍·소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은 4m 내외이고, 식피율은 30% 정도로 빈약한 편이다. 아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잔털벚나무와 때죽나무이다. 관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때죽나무·노린재나무·국수나무·철쭉꽃·회양목·노간주나무·칭미래덩굴 등이다. 초본층은 5% 미만의 식피율로 빈약한 편이다. 주요 출현종은 가는잎그늘사초·맹맹이덩굴·담쟁이덩굴·닭의장풀·등골나물·맑은대쭉·큰기름새·산딸기·개고사리 등이다.

신갈나무·상수리나무군락은 저지대 구릉지에 식재된 상수리나무군락이 신갈나무군락으로 천이가 진행 중인 군락이다. 흉고직경이 20cm 내외이고, 수고 12~18m로 큰 나무들로 구성된 숲이고, 식피율도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신갈나무·상수리나무·졸참나무·아까시나무·갈참나무·물박달나무·잔털벚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은 수고 4~6m, 식피율은 20~50%로 다양하다. 주요 출현종은 팔배나무·상수리나무·일본목련·밤나무·잔털벚나무·개웃나무·물푸레나무·때죽나무 등으로, 자연요소와 교란요소가 섞여 있다. 관목층의 수고는 1.2m 내외이고, 다양한 식피율의 범위를 나타낸다. 주요 출현종은 진달래·산초나무·팔배나무·노간주나무·털팽나무·신갈나무·개웃나무·



신갈나무림의 수관층 모습



신갈나무림의 임상 모습



신갈나무림의 임상 모습

산철쭉·철쭉꽃·밤나무 등이다. 초본층은 20% 미만의 식피율을 나타내고, 주요 출현종은 애기나리·가는잎그늘사초·뽕고사리·맹맹이덩굴·주름조개풀·청미래덩굴·산딸기·노루발·맑은대쭉·큰기름새 등이다.

신갈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은 리기다소나무 조림지가 신갈나무군락으로 천이가 진행 중인 군락으로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군락 중에서 가장 많은 교란 요소들이 출현하는 군락이다. 교목층의 수고는 8~13m이고, 흉고직경은 10~20cm이며, 식피율은 80~90%이다. 교목층의 출현종은 신갈나무·리기다소나무·아까시나무·졸참나무·상수리나무·소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은 빈약한 편이고, 주요 출현종은 아까시나무·갈참나무·소나무·물오리나무·팔배나무 등이다. 관목층은 1.5m 내외이고, 식피율은 20~60%이다. 주요 출현종은 신갈나무·졸참나무·참싸리·진달래·때죽나무·철쭉꽃·노간주나무 등이다. 초본층은 키 0.2~0.7m이고, 식피율은 2~30%이다. 주요 출현종은 큰기름새·가는잎그늘사초·진달래·

신갈나무·소나무·맹맹이덩굴·쌀새·애기나리·각시붓꽃 등이다. 교란요소가 많고, 숲가꾸기 사업 여부에 따라 관목층과 초본층의 피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4) 졸참나무림

졸참나무군락은 졸참나무 순군락과 졸참나무-신갈나무 혼합군락으로 분포한다. 비교적 저지대의 계곡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교목층의 수고는 15~24m로 큰 편이고, 흉고직경은 20~35cm로 굵은 편이며, 식피율은 90% 이상이다. 교목을 구성하는 수종도 4~6종으로 많은 편이며 주요 출현종은 졸참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상수리나무·갈참나무·고로쇠나무·잔털벚나무·소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의 수고는 3~7m 이고, 식피율은 30~50%이며, 주요 출현종은 철쭉꽃·매죽나무·비목나무·버드나무·오리나무·당단풍·밤나무 등이다. 관목층의 수고는 1.5~2m이고, 식피율은 10~40%이다. 관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진달래·철쭉꽃·생강나무·당단풍·국수나무·회양목·찔레꽃·작살나무·말발도리·털팽나무·개암나무 등이다. 초본층의 키는 0.2~0.5m이고, 식피율은 3~65%로 다양하며, 초본층의 구성 종수도 5~37종까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종 풍부도가 높은 편이다. 초본층의 주요 출현종은 애기나리·담쟁이덩굴·대사초·뱀고사리·선밀나물·주름조개풀·닭의장풀·큰기름새·가는잎그늘사초·맹덩이덩굴·천남성·참싸리·잔털벚나무·밤나무 등이다.



졸참나무군락의 수관층 모습



졸참나무군락의 임상 모습



졸참나무-신갈나무군락의 수관층 모습



굴참나무림의 수관층 모습



굴참나무림 임상 모습



굴참나무-신갈나무군락의 임상 모습

(5) 굴참나무림

굴참나무군락은 척박하고 경사진 사면 중하부에 분포하고 있다. 굴참나무-순군락, 굴참나무-신갈나무 군락, 굴참나무-소나무군락, 굴참나무-리기다소나무 혼합군락의 식생형으로 분포하고 있다. 굴참나무-순군락은 입지조건이 가장 건조한 능선부나 사면 하부 암반이 분포하는 곳에 형성된다. 사면 중상부의 토심이 발달하고 다소 습한 조건인 곳에 굴참나무-신갈나무군락이 발달하고, 사면 상부와 능선부의 척박한 곳에 형성된 소나무군락과 리기다소나무 조림지가 굴참나무군락으로 천이가 진행되는 지역에 굴참나무-소나무군락이나 굴참나무-리기다소나무 군락이 발달하고 있다.

굴참나무군락의 교목층 수고는 12~18m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15m 내외가 많다. 흉고직경은 15~25cm 범위에 분포하고 있고, 식피율은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신갈나무·소나무·갈참나무·잔털벚나무·리기다소나무·상수리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의 수고는 3~6m이고, 식피율은 20~40%이다. 주요 출현종은 굴참나무·신갈나무·졸참나무·매죽나무·아까시나무·밤나무 등이다. 관목층은 1.5m 내외로 20~40%의

식피율을 보이며 4~11종이 출현한다. 주요 출현종은 진달래·신갈나무·참싸리·때죽나무·잔털벚나무·국수나무·생강나무·졸참나무·개웃나무·개암나무 등이다. 초본층은 0.3m 내외의 키에 5~20%의 식피율을 보인다. 주요 출현종은 가는잎그늘사초·닭의장풀·노루발·큰기름새·청미래덩굴·새·산딸기·청가시덩굴·진달래·신갈나무·굴참나무·아까시나무 등이다.

2) 반자연인공림

(1) 상수리나무림

상수리나무군락은 저지대 구릉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상수리나무 순군락, 상수리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신갈나무군락, 상수리나무-졸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군락의 다양한 혼합림 형태로 분포한다. 따라서 자연성이 높은 상수리나무군락도 있고, 인간의 간섭이 많은 상수리나무군락도 있다. 저지대 구릉지 마을 주변에 구황작물로 심어 온 전통 있는 인공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수리나무군락도 점차 인공림에서 자연성을 확보해 가는 지역이 많이 있다.

교목층은 상수리나무가 우세하지만 대체적으로 4~6종이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교목층의 수고는 18~20m로 매우 큰 편이고, 식피율도 90% 이상이며, 흉고직경도 20~25cm로 큰 나무가 많다. 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상수리나무군락의 수관층 모습



상수리나무군락의 임상 모습



상수리나무군락-갈참나무군락의 임상 모습

상수리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졸참나무·팔배나무·소나무·잔털벗나무·갈참나무·밤나무·아까시나무·리기다소나무·일본잎갈나무·밤나무 등 매우 다양하다. 다른 유형의 숲보다 인간의 간섭이 많아서 4층 구조보다 3층 구조를 이루는 숲도 많다.

아교목층의 수고는 4~6m이고, 식피율은 30~40%이며, 주요 출현

종은 때죽나무·층층나무·쪽동백나무·팔배나무·갈참나무·아까시나무·잣나무·잔털벗나무·취·고욤나무 등이다. 관목층의 수고는 1.5m 내외이고 식피율은 10~30%이며, 주요 출현종은 취·밤나무·아까시나무·생강나무·개암나무·신갈나무·털팽나무·노린재나무·갈참나무·짚레꽃·작살나무·산초나무 등이다. 초본층은 20% 미만으로 빈약한 곳이 대부분이다. 주요 출현종은 취·닭의장풀·아까시나무·주름조개풀·땀고사리·애기나리·큰기름새·노루발·나도바랭이새·담쟁이덩굴·땡땡이덩굴·쌀새·산딸기·땅비싸리·맑은대쭉·꽃향유·새 등으로 교란요소와 자연요소가 섞여서 분포한다. 상수리나무군락은 인공성이 강한 곳에서 자연성이 강한 곳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인공림과 자연림을 연결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면 하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3) 인공림

(1) 아까시나무림

아까시나무군락은 과거 민둥산 시절 산림녹화 목적과 아까시나무가 밀원식물로서 가치가 높아서 전국적으로 많은 식재를 하였다. 현재는 주로 저지대 마을 주변 구릉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교목층의 수고는 11~12m이고, 흉고직경이 30cm 내외로 두꺼운 개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식피율은 80% 이상이다. 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아까시나무·상수리나무·신갈나무·졸참나무·밤나무 등이지만, 아까시나무 순군락 형태로 분포하는 지역이 많다. 아교목층의 수고는 6~7m이고, 식피율은 30% 내외이며, 주요 출현종

은 때죽나무·신갈나무·갈참나무·쪽동백나무·밤나무·줄참나무·잔털벗나무·당단풍·팔배나무 등으로 점차 자연적인 요소가 많이 침투해서 혼합림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관목층의 수고는 1.5~1.8m이고, 식피율은 30~40%로 높은 편이다. 주요 출현종은 때죽나무·털팽나무·국수나무·신갈나무·갈참나무·생강나무·쪽동백나무·팔배나무·회잎나무 등이다. 초본층은 대체로 빈약한 편이고, 주요 출현종은 주름조개풀·뱀고사리·가는잎그늘사초·산딸기·닭의장풀·미국자리공·담쟁이덩굴·밤나무 등이다.



아까시나무군락 임상 모습

(2) 은사시나무림

은사시나무군락은 아까시나무림이 많은 곳에 부분적으로 조립한 군락이다. 교목층의 수고는 16~18m로 크고, 흉고직경도 25cm 이상으로 굵다. 교목층의 식피율은 80% 이상이며, 주요 출현종은 은사시나무·감나무·아까시나무·갈참나무 등이다. 아교목층의 수고는 6m 내외이고, 피도는 20~30%이다. 주요 출현종은 아까시나무·당단풍·갈참나무·밤나무·잔털벗나무 등이다. 관목층의 키는 1.5m 내외이고, 피도는 20~40%이다. 주요 출현종은 갈참나무·국수나무·진달래·죽단화·난티잎개암나무·때죽나무·쥐똥나무·밤나무 등이다. 초본층의 키는 0.3m 내외이고, 피도는 15~30%이다. 주요 출현종은 주름조개풀·산딸기·감나무·오리방풀·선밀나무·청미래덩굴 등이다.

(3) 리기다소나무림

리기다소나무군락은 안양시에서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고, 과거에는 더 넓은 면적으로 분포했던 인공림이다. 안양시 지역의 산들은 양분이 적고 수분함량이 낮으며,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서 저지대부터 고지대 능선부까지 심을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리기다소나무가 식재되었었다. 따라서 현재 리기다소나무 순군락도 넓게 분포하지만 식생천이에 의하여 리기다소나무-소나무군락으로 전환된 곳이 많다. 지형적으로 척박한 암반지대나 능선부에서는 리기다소나무-노간주나무군락이 분포하고, 토양이 발달한 곳에서는 입지조건에 따라 리기다소나무-신갈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졸참나무 및 리기다소나무-굴참나무군락이 발달하고 있다. 리기다소나무군락은 다른 군락과 달리 척박한 지역에 식재된 곳도 많아서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3층 구조나 관목층과 초본층의 2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다. 사면지역의 토심이 발달한 곳에서는 4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지만 혼합림의 형태로 분포하는 곳도 많다. 넓은 지역에 식재되었기 때문에 소나무군락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이 분포하고 있다.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및 초본층의 4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리기다소나무군락의 교목층 수고는 입지조건에 따라 9~18m까지 다양하다. 흉고직경도 15~25cm까지 다양하며, 식피율도 60~90%까지 다양하다. 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리기다소나무·상수리나무·신갈나무·소나무·잔털벚나무·일본잎갈나무·갈참나무·굴참나무·졸참나무 등이다. 주로 척박한 입지에 분포하는 아교목층, 관목층 및 초본층의 3층 구조를 이루는 숲의 아교목층 주요 출현종은 리기다소나무·소나무·신갈나무 등이다. 4층 구조를 이루는 숲의 아교목층 주요 출현종은 때죽나무·아까시나무·갈참나무·소나무·노간주나무·굴참나무·떡갈나무·팔배나무·잔털벚나무 등이다. 관목층의 식피율은 30~60%로 입지 조건에 따라 다양하며, 주요 출현종은 진달래·철쭉꽃·팔배나무·참싸리·노간주나무·신갈나무·소나무·굴참나무·산초나무·때죽나무 등이다. 초본층의 키는 0.2~0.5m로 다양하지만 식피율은 15% 미만으로 빈약한 편이다. 주요 출현종은 큰기름새·산딸기·맹맹이덩굴·남산제비꽃·가는잎그늘사초·주름조개풀·갯나무·새머느리밥풀·주름조개풀·대사초·구절초·무릇·새·솔새·역새 등으로 입지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리기다소나무 조림지 수관층 모습



리기다소나무 조림지 내부 모습



참나무림으로 변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 조림지의 모습



리기다소나무-신갈나무군락의 모습



리기다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 모습



상수리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모습



잣나무조림지의 수관층 모습



잣나무 조림지의 모습(잣나무 조림지는 특히 임상 식생이 빈약하다)



잣나무 조림지의 모습

(4) 잣나무림

잣나무군락은 대체적으로 종 다양성이 낮고, 층 구조가 3층 구조를 나타내는 곳이 많다. 교목층의 수고는 9~19m까지 다양하고, 흉고직경도 15~25cm까지 다양하며, 식피율은 대부분 95% 이상으로 밀폐되어 있고, 잣나무순군락으로 분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아교목층은 없는 곳이 많다.

관목층도 15% 미만으로 매우 빈약한 편이다, 주요 출현종은 아까시나무·잔털벗나무·느티나무·때죽나무·쪽동백나무·노린재나무 등이다. 초본층은 입지조건에 따라 식피율이 3~80%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10% 미만으로 빈약한 곳이 많다.

주요 출현종은 주름조개풀·서양등골나물·신갈나무·담쟁이덩굴·밤나무·산딸기·가는잎그늘사초 등이다.

(5) 일본잎갈나무림

일본잎갈나무군락은 계곡부에 식재한 숲으로 면적이 매우 적다. 교목층의 수고는 13m이고, 흉고 직경은 25cm 이상이며, 식피율은 90%이다, 주요 출현종은 일본잎갈나무·상수리나무·은사시나무·참이이다. 아교목층의 주요 출현종은 밤나무와 참이고, 식피율은 빈약하다. 관목층의 수고는 0.8m이고, 식피율은 30%이며, 주요 출현종은 참·싸리·은사시나무·매죽나무이다. 초본층의 키는 0.4m이고, 식피율은 30%이며, 주요 출현종은 환삼덩굴·참·쑥·닭의장풀·사위질빵 등이다.



일본잎갈나무 조림지의 수관층 모습



일본잎갈나무 조림지의 숲 하층 모습

4) 산불 피해 지역의 식생

산불은 주로 저지대나 등산로 주변에서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산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식생은 소나무림 계열의 군락들과 리기다소나무림 계열의 군락들이다. 신갈나무림·굴참나무림·줄참나무림·상수리나무림·아까시나무림 계열의 군락들은 산불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초기에 조치만 잘한다면 크게 번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나무나 리기다소나무 계열의 군락들은 사면부와 능선부까지 분포되어 있고, 소방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 복원이 가능하다. 참나무림이나 활엽수림에 산불이 발생하면 수관층을 구성하는 수종들이 피해를 덜 입는 편이고, 설사 피해를 입더라도 맹아를 통해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 복원으로 쉽게 숲이 재생된다. 소나무림이나 리기다소나무림에 산불이 발생하면 수관층이 모두 타는 수관화 피해지역이 되기 쉽다. 또한 바람이 불면 넓은 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관악산의 산불 피해 지역(산불 전 키 작은 소나무림이었음)



산불 피해 지역 풍경
산불 후 참싸리와 교란지 식물인 망초가 자라는 모습



산불 피해 지역 풍경
산불 후 맹아로 재생한 신갈나무와 참싸리가 우점하고 있다

키가 낮은 소나무림이나 리기다소나무림은 산불이 발생하면 대부분 수관화 피해로 죽게 된다. 키가 큰 소나무림이나 리기다소나무림은 수관화 혹은 지표화라도 열해 피해로 대부분의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가 죽게 된다. 그러나 소나무림과 리기다소나무림도 산불이 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 복원력이 크다. 그 이유는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는 죽어도 임상에 있는 신갈나무·굴참나무·졸참나무·상수리나무·팔배나무·잔털벗나무·아까시나무 등의 활엽수들은 지상부가 고사해도 지하부에서 곧 맹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숲이 쉽게 재생한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관목이나 초본도 대부분 맹아나 지하경(땅속줄기)을 이용한 재생이 가능하고, 참싸리 등은 매토종자 발아 능력이 있어서 쉽게 재생이 된다. 소나무림과 리기다소나무림의 임상에 있는 진달래·철쭉꽃·때죽나무·참싸리·아까시나무·조록싸리·생강나무·개웃나무·쥐똥나무·산초나무·국수나무·청미래덩굴·산딸기·새·가는잎그늘사초·억새·큰기름새 등 거의 모든 종이 산불 이후에 재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불 후 바로 식생 재생이 이루어지고, 15~20년이 경과하면 소나무나 리기다

소나무 임상에 있던 활엽수림으로 전환하여 재생된 숲이 형성된다. 따라서 토심이 얇고, 경사가 급하거나 암반지대에 위치하는 산불 피해 지역은 가급적 자연 복원으로 식생을 재생하는 것이 좋다. 토양이 깊고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일 경우 필요에 따라 조림으로 원하는 숲을 조성할 수도 있다.

6. 기후변화와 식생천이에 따른 안양의 미래 식생

지금까지 안양시 지역의 현존식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민둥산이었던 산림식생이 현재는 인간과 자연의 협력에 의해 천이 초중기의 자연림과 조림지로 구성되었다. 기후·지형·토양에 의한 제한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잠재자연식생, 인간에 의한 조림 여부 그리고 훼손된 시점부터 지나온 시점과 발달상태를 반영하는 식생천이에 의해 현재의 안양시의 다양한 식생을 형성해 왔다. 인간에 의한 조림과 자연에 의한 식생의 발달 모두 기후변화와 식생천이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식생 구성 요소들을 변화시킨다.

기후가 변화하면 도심지와 공원에 식재할 수 있는 조경수들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공원에 식재하는 요소들이 난온대와 아열대에 서식할 수 있는 많은 조경수와 외래 초본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도심지역은 열섬효과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다. 도심지역의 식생에 변화를 주는 것도 기후적응의 한 형태이므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온대지역보다 훼손되는 아열대지역에 더욱 많은 외래식물이 침투하고 번성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제주가 그 예이다. 안양시는 인천항과 가깝고 대규모 도시에 인접하고 있으며, 한강과 연결된 안양천이 있어서 외래식물의 침투와 확산에 유리한 지역이다. 기후변화는 안양시에 더욱 다양한 종류의 외래식물의 침투를 허용할 것이다.

안양시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조림지가 분포하고 있다. 산림의 척박한 사면 상부와 능선부까지 리기다소나무가 조림된 곳이 매우 넓다. 대체적으로 안양시의 조림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림의 요소들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경재 등²⁰과 정재훈 등²¹이 관악산에 대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관악산의 식생은 1973년부터 2010년까지 오염에 강한 수종(예: 팔배나무)의 개체 수가 증가했고, 식생천이에 따라 소나무군락이 신갈나무군락으로 그리고 저지대의 상수리나무군락이 졸참나무군락으로 천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조림할 수 있는 수종 그리고 조림한 수종의 활력과 병해충 발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 적응한 새로운 조림지가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잣나무와 같이 더운 기후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침엽수들의 조림지는 쇠퇴가 예상된다. 기후변화는 조림지에 더 따뜻한 곳을 선호하는 식물들로 그 내부 구성이 바뀌고, 결국에는 안양시 지역의 변하는 잠재자연식생으로 바뀔 것이다.

안양시의 식생천이와 기후변화는 안양시에서 소나무림과 리기다소나무림을 축소시키고, 참나무림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상수리나무림 계열의 군락은 인간의 필요에 따른 존속 여부 결정에 따라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수리나무군락도 인간의 간섭이 멈춘다면 졸참나무·굴참나무·신갈나무 계열 군집의 구성원과 혼합될 것이고, 중국에는 그 지역에 맞는 참나무림으로 변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따뜻해지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저지대에서 졸참나무 계열 군집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건조한 곳에 특화된 굴참나무군락이 있는 곳은 수분이 많아질수록 졸참나무 계열 인자들이 더 많이 침투할 것이다. 졸참나무보다 상대적으로 추운 곳에 적응한 신갈나무 계열의 군집들은 사면 중상부로 밀릴 것으로 판단한다. 기후가 변화한다 해도 지형과 토양의 제한은 암반지대의 식생의 변화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 현재 암반지대는 소나무·노간주나무·신갈나무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토양이 적은 이들 입지는 현존 식생이 더 오래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안양시 산림식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인간의 간섭과 관여 정도, 변화하는 기후요인(온도와 강수량)의 변화, 외래식물의 침입강도와 확산여부, 환경오염(특히 대기오염)의 관리현황과 식물의 적응여부, 병해충의 발생과 확산여부, 산불의 빈도와 강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양시의 잠재자연식생의 변화를 파악한다면 안양시 식생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공우석, 『우리나라와 숲의 이력서』, 청아출판사, 2019.
김종원, 『산림, 조경, 생태, 환경을 위한 식물사회학적 녹지생태학』, 월드사이언스, 2003.
숲과 문화연구회, 『우리 숲의 역사』, 2014.
조용찬·정성희·이동혁·김한결·김재현, 『한국의 식물상 지역과 식생기후』, 국립수목원, 2020.
고재경, 『경기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연구』, 2009.

논문

- 이경재·송준근·조우, 「관악산 삼림의 22년간(1973-1993)의 식물군집변화」, 한국조경학회지 22: 79-90, 1994.
정재훈·한봉호·이경재·최진우·노태환, 「관악산의 식생구조 특성과 변화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7: 344-356, 2013.

보고서

- 안양시,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작성, 2021.

홈페이지

- 기상청(<https://www.weather.go.kr/>)
흙토람(<http://soil.rda.go.kr/>)
산림청(<https://map.forest.go.kr/>)
대한민국 국가지도집(<http://nationalatlas.ngii.go.kr/>)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

註

- 1 공우석, 『우리나라와 숲의 이력서』, 청아출판사, 2019.
- 2 공우석, 『우리나라와 숲의 이력서』, 청아출판사, 2019; 김종원, 『산림-조경-생태-환경을 위한 식물사회학적 녹지생태학』, 월드사이언스, 2003; 숲과 문화연구회, 『우리 숲의 역사』, 2014.
- 3 위의 책.
- 4 위의 책.
- 5 위의 책.
- 6 위의 책.
- 7 조용찬·정성희·이동혁·김한결·김재현, 『한국의 식물상 지역과 식생기후』, 국립수목원, 2020.
- 8 김종원, 『산림-조경-생태-환경을 위한 식물사회학적 녹지생태학』, 월드사이언스, 2003.
- 9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 10 위의 책.
- 11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http://soil.rda.go.kr/>).
- 12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https://map.forest.go.kr/forest/>).
- 13 위 홈페이지.
- 14 위 홈페이지.
- 15 위 홈페이지.
- 16 위 홈페이지.
- 17 위 홈페이지.
- 18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I (<http://nationalatlas.ngii.go.kr/>).
- 19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 생태자연도.
- 20 이경재·송준근·조우, 「관악산 삼림의 22년간(1972-1993)의 식물군집구조 변화」, 『한국조경학회지』 22, 한국조경학회, 1994, 79-90쪽.
- 21 정재훈·한봉호·이경재·최진우·노태환, 「관악산의 식생구조 특성과 변화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7,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013, 344-356쪽.

4장 생물상



최순규 야생동물어류연구보전센터 연구원
현진오 (주)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연구소장



1. 개관

안양시에 서식, 생육하는 동물과 식물은 모두 2229종류로, 포유류 14, 조류 122, 파충류 13, 양서류 10, 어류 30, 곤충 888, 곤충을 제외한 무척추동물 89, 식물 1063종류 등을 포함한다. 버섯을 포함한 균류, 이끼류, 곤충을 제외한 무척추동물 등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생물들의 명세가 밝혀지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생물종 목록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환경부 국가생물종목록과 비교하면, 포유류 11.2%, 조류 22.1%, 파충류 36.1%, 양서류 35.7%, 곤충 4.3%, 관속식물 22.9%에 해당하는 생물들이 안양시에 서식 또는 생육하는 셈이다.

〈 표 1〉 안양시 생물다양성 현황

(단위: %)

대구분	분류군	안양시 생물종 수	국가생물종목록 종 수*	출현비율
동물계(Animalia)	포유류	14	125	11.2
	조류	122	552	22.1
	파충류	13	36	36.1
	양서류	10	28	35.7
	어류	30	1,349	2.2
	미삭동물류	-	139	-
	무척추동물(곤충 제외)	89	10,754	0.8
	곤충	888	20,710	4.3
식물계(Plantae)	관속식물	1,063	4,641	22.9
	선대류	-	1,118	-
	윤조류	-	1,001	-
	녹조류	-	854	-
	홍조류	-	670	-
	돌말류	-	2,323	-
유색조식물계(Chromista)	은편모조류	-	17	-
	착편모조류	-	13	-
	외편모조류	-	544	-
	황적조류	-	2	-
	대롱편모조류	-	417	-
	균계(Fungi)	균류	-	5,054
지의류		-	1,237	-
원생동물계(Protozoa)	원생동물류	-	2,575	-
	유글레나조류	-	398	-
세균계(Bacteria)	남조류	-	414	-
	세균류	-	4,989	-
고세균계(Archaea)	고세균류	-	50	-
계		2,229	60,010	3.7

출처: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2021,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 2023년 국가생물종목록(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1) 관리대상 생물

안양시에 서식·생육하는 국가 법정관리종 등 관리가 필요한 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 국가적색목록, 천연기념물, 한반도 고유종 등이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포유류 삶 1종, 조류 큰기러기·흰목물떼새·새호리 기 등 5종, 양서류 맹꽁이 1종, 파충류 남생이 1종으로 총 8종이다.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은 원앙, 황조롱이, 소쩍새 등 조류 5종이다. 세계적으로 한반도에만 사는 고유 종은 양서류 한국산개구리 1종, 육상곤충 개나리잎벌·묘향산거저리·야고뿔매미 등 10종, 어류 참갈겨니·미유기·얼룩동사리 등 5종, 저서무척추동물 참다슬기·좁주름다슬기 등 2종, 관속식물 구상나무(식)·변산바람꽃·산앵도나무·새며느리밥풀·왕벚나무(식) 등 27종으로 총 45종이다. 국가적색목록¹ 수록 종 중에서 준위협 이상 범주에 속하는 생물은 조류 큰기러기·흰목물떼새 등 4종, 양서파충류 맹꽁이·참개구리·자라 등 3종, 육상곤충 은점표범나비·조흰뺨나비 등 4종, 어류 버들매치·쌀미꾸리 등 2종, 저서무척추동물 재첩·참다슬기·좁주름다슬기 등 3종, 식물 승마·흑삼릉 등 9종으로 총 25종이다.

〈표 2〉 안양시 관리대상 생물종 현황

구분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무척추	관속식물	계
멸종위기 야생생물	1	5	2	-	-	-	-	8
국가적색목록	-	4	3	4	2	3	9	25
천연기념물	-	5	-	-	-	-	-	5
한반도 고유종	-	-	1	10	5	2	27	45
분류군 수	1	8	5	14	6	3	34	71

〈표 3〉 안양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연번	학명	국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1	<i>Prionailurus bengalensis</i> (Kerr, 1792)	삶	멸Ⅱ	
2	<i>Aix galericulata</i> (Linnaeus, 1758)	원앙		천 323-8
3	<i>Anser fabalis</i> (Latham, 1787)	큰기러기	멸Ⅱ	
4	<i>Charadrius placidus</i> J.E. Gray & G.R. Gray, 1863	흰목물떼새	멸Ⅱ	
5	<i>Accipiter gentilis</i> (Linnaeus, 1758)	참매	멸Ⅱ	천 323-1

연번	학명	국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6	<i>Accipiter nisus</i> (Linnaeus, 1758)	새매	멸 II	천 323-4
7	<i>Falco tinnunculus</i> Linnaeus, 1758	황조롱이		천 323-8
8	<i>Falco subbuteo</i> Linnaeus, 1758	새호리기	멸 II	
9	<i>Otus sunia</i> (Hodgson, 1836)	소쩍새		천 324-6
10	<i>Kaloula borealis</i> (Barbour, 1908)	맹꽁이	멸 II	
11	<i>Mauremys reevesii</i> (Gray, 1831)	남생이	멸 II	
분류군 수			8	5

안양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원앙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맹꽁이(유생)

〈표 4〉 안양시 주요 동물 현황

연번	분류군	학명	종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가 적색목록	천연 기념물	한반도 고유종
1	포유류	<i>Prionailurus bengalensis</i> (Kerr, 1792)	삿	멸 II			
2		<i>Accipiter gentilis</i> (Linnaeus, 1758)	참매	멸 II	VU(취약)	천	
3		<i>Accipiter nisus</i> (Linnaeus, 1758)	새매	멸 II	VU	천	
4		<i>Aix galericulata</i> (Linnaeus, 1758)	원앙			천	
5	조류	<i>Anser fabalis</i> (Latham, 1787)	큰기러기	멸 II			
6		<i>Charadrius placidus</i> J.E. Gray & G.R. Gray, 1863	흰목물떼새	멸 II	VU		
7		<i>Falco subbuteo</i> Linnaeus, 1758	새호리기	멸 II	VU		
8		<i>Falco tinnunculus</i> Linnaeus, 1758	황조롱이			천	
9		<i>Otus sunia</i> (Hodgson, 1836)	소쩍새			천	
10		<i>Kaloula borealis</i> (Barbour, 1908)	맹꽁이	멸 II	VU		
11		<i>Pelophylax nigromaculatus</i> (Hallowell, 1861)	참개구리		NT(준위협)		
12	양서· 파충류	<i>Rana coreana</i> (Okada, 1928)	한국산개구리				고
13		<i>Pelodiscus maackii</i> (Brandt, 1857)	자라		VU		
14		<i>Mauremys reevesii</i> (Gray, 1831)	남생이	멸 II			
15		<i>Anaedes mroczkowskii</i> Kaszab, 1968	묘향산거저리				고
16		<i>Apareophora forsythiae</i> Sato, 1928	개나리잎벌				고
17		<i>Argynnis niobe</i> (Linnaeus, 1758)	은점표범나비		VU		
18		<i>Asiopodabrus fragiliformis</i> (Kang & Kim, 2000)	연노랑목가는병대벌레				고
19		<i>Aulonocarabus semiopacus</i> (Reitter, 1895)	민줄딱정벌레				고
20		<i>Cantharis soeulensis</i> (Pic, 1922)	서울병대벌레				고
21	곤충류	<i>Ephemera separigata</i> Bae, 1995	가는무늬하루살이				고
22		<i>Gastroserica herzi</i> (Heyden, 1887)	줄우단풍명이				고
23		<i>Lycaena dispar</i> (Haworth, 1803)	큰주홍부전나비			NT	
24		<i>Macrophya kongosana</i> (Takeuchi, 1937)	금강산검정잎벌				고
25		<i>Melanargia epimede</i> (Staudinger, 1892)	조흰뺨나비		NT		
26		<i>Oxya sinuosa</i> Mishchenko, 1951	우리벼메뚜기				고
27		<i>Pyrgus maculatus</i> (Bremer & Grey, 1852)	흰점팔랑나비		VU		
28		<i>Tricentrus yagoi</i> Kato, 1940	야고불매미				고
29		<i>Abbottina rivularis</i> (Basilewsky, 1855)	버들매치		NT		
30	어류	<i>Squalidus gracilis majirae</i> (Jordan & Hubbs, 1925)	간물개				고
31		<i>Squalidus japonicus coreanus</i> (Berg, 1906)	물개				고

연번	분류군	학명	종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가 적색목록	천연 기념물	한반도 고유종
32		<i>Zacco koreanus</i> Kim, Oh & Hosoya, 2005	참갈겨니				고
33	어류	<i>Lefua costata</i> (Kessler, 1876)	삿미꾸리		NT		
34		<i>Silurus microdorsalis</i> (Mori, 1936)	미유기				고
35		<i>Odontobutis interrupta</i> Iwata & Jeon, 1985	얼룩동사리				고
36		<i>Corbicula fluminea</i> (Muller, 1774)	재첩		NT		
37	저서 무척추	<i>Semisulcospira coreana</i> (v. Martens, 1886)	참다슬기		NT		고
38		<i>Semisulcospira tegulata</i> (v. Martens, 1894)	좁주름다슬기		NT		고
분류군 수				8	16	5	18

〈표 5〉 안양시 주요 식물 현황

연번	학명	국명	국가 적색목록	한반도 고유종	비고
1	<i>Abies koreana</i> E.H. Wilson	구상나무	EN(위기)	고	식재
2	<i>Picea jezoensis</i> (Siebold & Zucc.) Carrière	가문비나무	VU		식재
3	<i>Juniperus chinensis</i> L.	향나무	VU		식재
4	<i>Cimicifuga heracleifolia</i> Kom.	승마	EN		
5	<i>Clematis brachyura</i> Maxim.	외대으아리		고	
6	<i>Clematis trichotoma</i> Nakai	할미밀망		고	
7	<i>Eranthis byunsanensis</i> B. Y. Sun	변산바람꽃		고	
8	<i>Thalictrum actaeofolium</i> Siebold & Zucc. var. <i>brevistylum</i> Nakai	은평의다리		고	
9	<i>Coreanomecon hylomeconoides</i> Nakai	매미꽃		고	식재
10	<i>Corydalis albipetala</i> B.U. Oh	흰현호색		고	
11	<i>Viola seoulensis</i> Nakai	서울제비꽃		고	
12	<i>Salix koriyanagi</i> Kimura ex Goerz	키버들		고	
13	<i>Rhododendron yedoense</i> Maxim. ex Regel	겹산철쭉		고	식재
14	<i>Rhododendron yedoense</i> Maxim. ex Regel for. <i>albiflora</i> H.T. Chang	흰산철쭉		고	식재
15	<i>Vaccinium hirtum</i> Thunb. var. <i>koreanum</i> (Nakai) Kitam.	산앵도나무		고	
16	<i>Sedum takesimense</i> Nakai	섬기린초		고	식재
17	<i>Lespedeza maximowiczii</i> C.K. Schneid. var. <i>tomentella</i> (Nakai) Nakai	털조록싸리		고	
18	<i>Geranium koreanum</i> Kom.	둥근이질풀		고	
19	<i>Forsythia koreana</i> (Rehder) Nakai	개나리		고	식재

연번	학명	국명	국가 적색목록	한반도 고유종	비고
20	<i>Forsythia saxatilis</i> (Nakai) Nakai	산개나리	VU	고	식재
21	<i>Syringa patula</i> (Palib.) Nakai var. <i>kamibayashii</i> (Nakai) M. Kim for. <i>lactea</i> (Nakai) M. Kim	흰정향나무		고	식재
22	<i>Melampyrum setaceum</i> (Maxim. ex Palib.) Nakai var. <i>nakaianum</i> (Tuyama) T. Yamaz.	새머느리밥풀		고	
23	<i>Paulownia coreana</i> Uyeki	오동나무		고	
24	<i>Scrophularia koraiensis</i> Nakai	토현삼		고	
25	<i>Campanula takesimana</i> Nakai	섬초롱꽃		고	식재
26	<i>Weigela subsessilis</i> (Nakai) L.H. Bailey	병꽃나무		고	
27	<i>Aster koraiensis</i> Nakai	벌개미취		고	식재
28	<i>Senecio argunensis</i> Turcz.	쑥방망이	NT		식재
29	<i>Sparganium erectum</i> L.	흑삼릉	NT		
30	<i>Allium microdictyon</i> Prokh.	산마늘	NT		식재
31	<i>Allium senescens</i> L.	두메부추	NT		식재
32	<i>Hemerocallis hakuunensis</i> Nakai	백운산원추리		고	
33	<i>Lilium amabile</i> Palib.	털종나리		고	
34	<i>Iris odaesanensis</i> Y.N. Lee	노랑무늬붓꽃		고	식재
분류군 수			9	27	

2) 생태계교란 생물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은 파충류 붉은귀거북·중국줄무늬목거북 등 3종, 어류 블루길·배스 등 2종, 곤충 꽃매미·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 등 3종, 식물 돼지풀·서양금혼초·애기수영 등 11종으로 총 19종이다.

생태계교란 어류 블루길은 안양천과 학의천 본류에 서식하며, 배스는 학의천에 서식하나 개체 수는 많지 않다. 생태계교란 파충류 중국줄무늬목거북과 붉은귀거북은 안양천과 학의천 합류 지점 등에 서식한다. 생태계교란 곤충 미국선녀벌레와 꽃매미는 산림 임연부와 녹지에 서식한다. 생태계교란 식물 환삼덩굴·미국쑥부쟁이·서양등골나물·단풍잎돼지풀·돼지풀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으며, 도깨비가지·서양금혼초는 침입 초기 상태이다.

안양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배스



붉은귀거북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단풍잎돼지풀



도깨비가지



서양등골나물

〈표 6〉 안양시 생태계교란 생물

연번	분류군	학명	국명
1		<i>Trachemys scripta</i> (Schoepff, 1792)	붉은귀거북
2	파충류	<i>Ocadia sinensis</i> (Gray, 1834)	중국줄무늬목거북
3		<i>Pseudemys nelsoni</i> (Carr, 1938)	플로리다붉은배거북
4	어류	<i>Lepomis macrochirus</i> (Rafinesque, 1819)	블루길
5		<i>Micropterus salmoides</i> (Lacepède, 1802)	배스
6		<i>Lycorma delicatula</i> (White, 1845)	꽃매미(주홍날개꽃매미)
7	곤충	<i>Ricania shantungensis</i> (Chou & Lu, 1977)	갈색날개매미충
8		<i>Metcalfa pruinosa</i> (Say, 1830)	미국선녀벌레
9		<i>Ambrosia artemisiifolia</i> L.	돼지풀
10		<i>Ambrosia trifida</i> L.	단풍잎돼지풀
11		<i>Ageratina altissima</i> L.R.M. King & H. Rob.	서양등골나물
12		<i>Solanum carolinense</i> L.	도깨비가지
13		<i>Rumex acetosella</i> L.	애기수영
14	관속식물	<i>Sicyos angulatus</i> L.	가시박
15		<i>Hypochaeris radicata</i> L.	서양금혼초
16		<i>Aster pilosus</i> Willd.	미국쑥부쟁이
17		<i>Solidago altissima</i> L.	양미역취
18		<i>Lactuca scariola</i> L.	가시상추
19		<i>Humulus japonicus</i> (Siebold & Zucc.)	환삼덩굴
분류군 수			19

3)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양시에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2개소가 있으며, 2008년 동안구와 만안구에 각각 1개소씩 일반야생동식물(쇠꼬리·삐꾸기·다람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동안구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에 있고,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만안구 보호구역은 수암봉 북동쪽 사면과 계곡부로 대부분 수리산도립공원에 해당한다.



안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표 7> 안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km)

연번	고시일	소재지	지정면적	서식 조수명
1	2008.11.2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3-1 외 1필지	4.32	피꼬리, 삻꾸기 등
2	2008.11.2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79-3	1	피꼬리, 다람쥐 등

<표 8> 안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 조사 현황

연번	조사사업명	주관기관	연도	조사지역	분류군별 현황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어류
1	안양시 야생동물 서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안양시	2014	관악산	고라니 등 8종	황조롱이 등 36종	도롱뇽 등 7종	-	-
				삼성산	너구리 등 8종	삻꾸기 등 20종	참개구리 등 8종	-	-
				수리산	맛쥐 등 12종	황조롱이 등 34종	두꺼비 등 6종	-	-
2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경기도	2009	수리산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두더지, 다람쥐, 멧토끼 등 9과 12속 12종	삻꾸기, 병어리삻꾸기, 파랑새, 뚝지삻꾸, 피꼬리 등 9목 26과 55종	옴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 유희목이, 맹꽁이, 누룩뱀(6종)	왕은점표범 나비, 고려집게벌레, 사슴풍뎅이 등 19목 182과 1,058종	버들치 (수암천) 1과 1종

2. 동물상

1) 포유류

안양시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4목 9과 14속에 속하는 14종류이다. 두더지·족제비·삿대구리·청설모·등줄쥐 등을 포함하며, 이 가운데 삶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애완동물인 고양이와 개는 야생화한 상태로 서식한다.

서식지 유형별로는 산림지역에서 다람쥐·두더지·등줄쥐·땃쥐·청설모 등이 주로 출현하고, 주거지와 시가지 인공지역에는 족제비·집쥐 등이 서식한다. 또한, 하천·계곡·호소 등 수환경에서는 고양이·두더지·족제비, 경작지에서는 고라니·두더지·족제비·땃쥐 등이 서식하며, 고양이는 대부분의 서식지 유형에서 출현한다. 다양한 포유류가 서식하는 지역은 순수 산림보다 산림과 농경지, 하천과 산림, 하천과 농경지 등 서로 다른 생태계가 인접한 환경 점이지대로서, 이러한 지역은 다양한 미소서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표 9〉 안양시 포유류 조사 문헌 및 결과

조사연도	조사지역	조사결과	문헌
2009	안양도엽	고라니·고양이·등줄쥐·족제비·청설모 등 10종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09: 안양(환경부, 2009)
2018	안양도엽	고라니·두더지·멧돼지·삿대구리·족제비 등 10종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17: 안양(환경부, 2018)
2021	안양시 전역	고라니·두더지·족제비·멧밭쥐·청설모 등 10종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동북아 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안양시 포유류



청설모



땃쥐

〈표 10〉 안양시 포유류 목록

연번	학명	종명	비고
	Order Soricomorpha 침서목		
	Family Soricidae 침서과		
1	<i>Crocidura lasiura</i> Dobson, 1890	땃쥐	
	Family Talpidae 두더지과		
2	<i>Mogera robusta</i> Nehring, 1891	두더지	
	Order Carnivora 식육목		
	Family Mustelidae 족제비과		
3	<i>Mustela sibirica</i> Pallas, 1773	족제비	
	Family Felidae 고양이과		
4	<i>Felis catus</i> Linnaeus, 1758	고양이	야생화종
5	<i>Prionailurus bengalensis</i> (Kerr, 1792)	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Family Canidae 개과		
6	<i>Canis lupus familiaris</i> Linnaeus, 1758	개	야생화종
7	<i>Nyctereutes procyonoides</i> (Gray, 1834)	너구리	
	Order Artiodactyla 우제목		
	Family Suidae 멧돼지과		
8	<i>Sus scrofa</i> Linnaeus, 1758	멧돼지	
	Family Cervidae 사슴과		
9	<i>Hydropotes inermis</i> Swinhoe, 1870	고라니	
	Order Rodentia 설치목		
	Family Sciuridae 청설모과		
10	<i>Eutamias sibiricus</i> (Laxmann, 1769)	다람쥐	
11	<i>Sciurus vulgaris</i> Linnaeus, 1758	청설모	
	Family Muridae 쥐과		
12	<i>Apodemus agrarius</i> (Pallas, 1771)	등줄쥐	
13	<i>Micromys minutus</i> (Pallas, 1771)	멧밭쥐	
14	<i>Rattus norvegicus</i> (Berkenhout, 1769)	집쥐	
	분류군 수		14

2) 조류

안양시의 북쪽에는 관악산(629m), 동쪽에는 청계산(618m), 남서쪽에는 수리산(475m)이 위치하고 있고 시의 중앙은 낮고 평편한 분지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청계산 계곡에서 발원한 안양천은 안양시의 중앙을 동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안양천은 도심형 하천이지만 자연제방과 배후습지가 발달한 구간이 있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하천이다.

야생 조류는 자연생태계에서 발견되는 길들여지지 않은 새들을 말한다. 조류는 생태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물로 어떤 새들이 발견되는지에 따라서 생태환경의 건강성을 반영하고 있고, 많은 새들을 환경 지표종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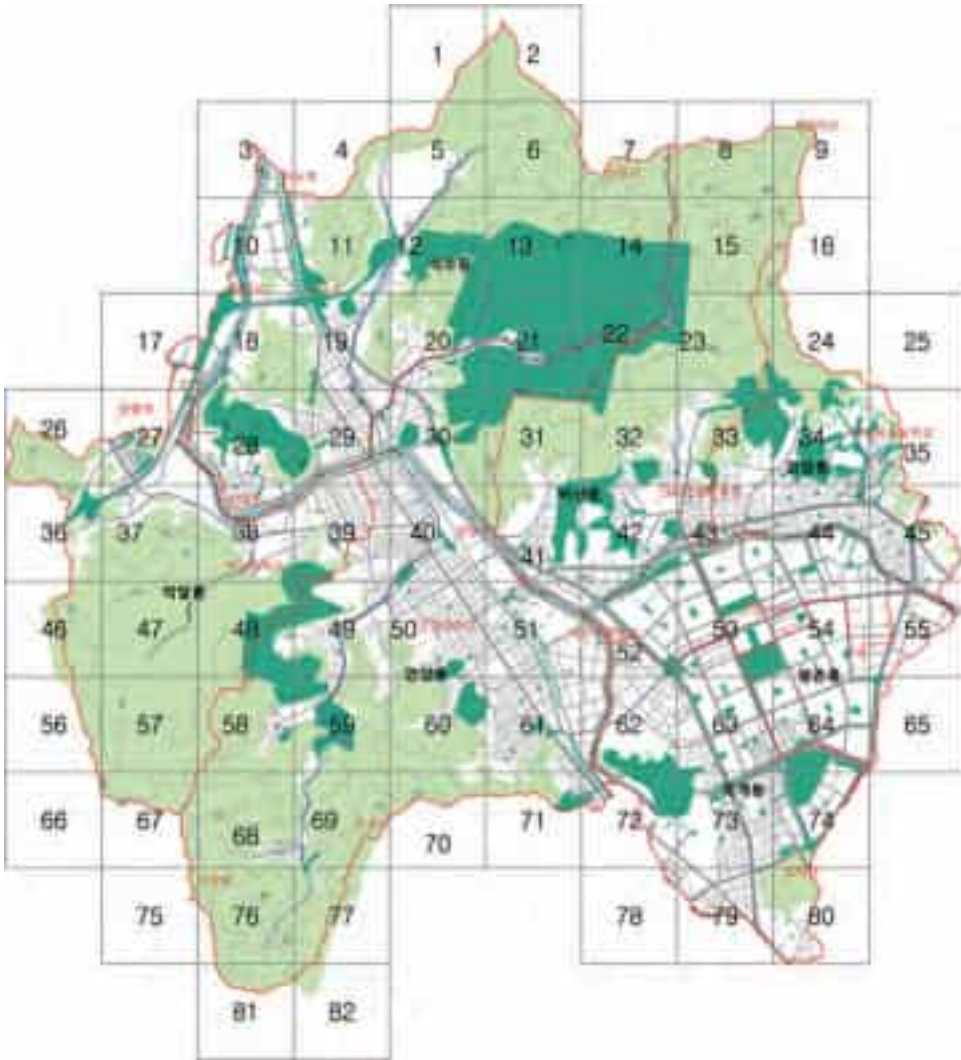
안양시의 조류는 2021년 안양시에서 시행된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여 안양시의 조류를 기술하였다. 또한, 안양시 조류에 대한 최근 연구자료인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안양의 조류(2017·2022)’와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2015~2023)’ 등의 문헌자료도 함께 분석하였다.

(1) 안양시의 조류상

2021년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조사는 안양시를 82개 격자로 구분하여 모든 격자에 대하여 1~10월까지 4계절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격자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및 문헌에서 확인된 주요 종의 서식 여부를 파악하였다. 가급적 다양한 종의 기록을 위해 종별 출현 및 번식 시기를 고려하여 조사 일정을 계획하였고, 각 격자에 대해 최대한 계절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2계절 이상 수행하였다. 조류상 조사는 기본적으로 각 격자별 정점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점당 최소 30분 이상을 머물며 반경 50m 이내에 목격 또는 울음소리가 확인된 종을 구분하였고, 비행하는 조류의 경우 이동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복 산정을 배제하였다.

2021년 안양시 조사에서 총 37과 95종의 조류가 출현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전국자연환경조사와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를 포함하면 41과 127종의 조류가 도래 및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종수는 우리나라 국립생물자원관에 기록된 조류종의 약 23%에 해당하는 종 수이다.

조사된 조류 중에서 가장 다양한 격자에서 출현하여 안양시에서 일반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종은 직박구리로 63개 격자에서 출현하였고, 다음으로 멧비둘기(43격자),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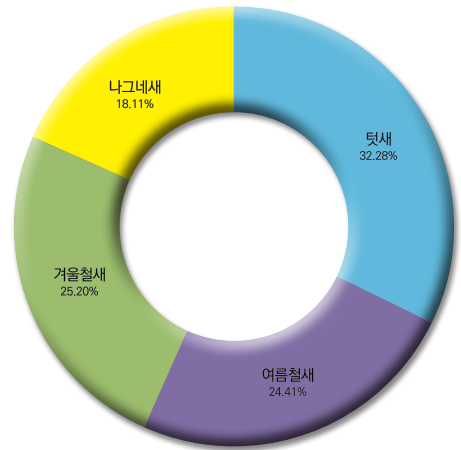


안양시 조류 조사 격자

새와 박새(40격자), 까치(33격자), 쇠박새(30격자), 딱새(29격자), 어치(28격자) 순으로 조사되어 안양시에서는 직박구리와 멧비둘기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로 분석되었다.

(2) 도래 유형에 따른 안양시의 조류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텃새가 있는 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여름·겨울 철새가 있고 봄과 가을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이동성 조류인 나그네새가 있다. 안양시에는 텃새가 전체 출현한 조류의 32.2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종들이 출현하였고, 다음으로 겨울철새 25.20%, 여름철새 24.41%, 나그네새 18.11%로 분석되었다.



도래 유형에 따른 안양시 조류 분포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이들 철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안양천의 경우 도심하천으로 도심의 열기로 겨울에도 얼지 않는 구간이 있어 여름 철새들이 관찰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가. 안양시의 텃새

4계절 안양시에서 만날 수 있는 텃새는 관악산, 청계산, 수리산 등의 산림에서는 직박구리·박새·곤줄박이·쇠딱다구리·오색딱다구리·큰부리까마귀·동고비·노랑턱멧새 등을 만날 수 있다. 안양천과 주거지 및 다른 환경에서는 논병아리·흰뺨검둥오리·민물가마우지·멧비둘기·까치·붉은머리오목눈이·참새·딱새 등을 만날 수 있다.

안양시의 텃새



딱새



흰뺨검둥오리



직박구리

나. 안양시의 여름철새

여름철 안양시 산림에서는 피꼬리·파랑새·산솔새·되지빠귀·흰배지빠귀·큰유리새·삐

꾸기·소쩍새 등을 만날 수 있고 안양천과 주거지 및 다른 환경에서는 왜가리·해오라기·중대백로·꼬마물떼새·물총새·제비·알락할미새 등을 만날 수 있다.

안양시의 여름철새



되지빠귀



왜가리



물총새

다. 안양시의 겨울철새

겨울철 안양시의 산림에서는 상모술새·되새·긴꼬리홍양진이·검은머리방울새 등을 만날 수 있고 안양천과 주거지 및 다른 환경에서는 넓적부리·알락오리·청머리오리·홍머리오리·청둥오리·고방오리·쇠오리·흰죽지·댕기흰죽지·비오리·대백로·한국재갈매기·괭이갈매기·새매·참매·노랑지빠귀·백할미새·쭈새·되새 등을 만날 수 있다.

안양시의 겨울철새



되새



쇠오리



백할미새

라. 안양시의 나그네새

봄과 가을 이동기에 안양시의 산림에서는 노랑눈썹술새·노랑허리술새·되솔새·쇠솔새·제비딱새·쇠솔딱새·울새·유리딱새·휘파람새 등을 만날 수 있고, 안양천과 주거지 및 다른 환경에서는 깍도요·노랑발도요·알락도요·뺨뺨도요·청다리도요·형등새·쇠솔딱새·흰배멧새·꼬까참새·축새 등을 만날 수 있다.

안양시의 나그네새



쇠솔딱새



백백도요



족새

(3) 생태 습성에 따른 안양시의 조류

새들은 생존에 필요한 먹이나 새끼를 키우기 위해 등지재료 및 등지 장소 등 필요한 자원이 있는 곳에 적응하여 여러 종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새마다 생태 습성에 따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새들의 공통된 습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관찰된 새들을 환경과 생태 습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가. 산에서 볼 수 있는 새(산새)

주로 살아가는 환경이 나무가 있는 숲으로, 일생의 대부분을 산림에서 생활하는 새를 말한다. 특히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시기를 숲속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하고 먹이를 찾아 저지대나 농경지 등으로 이동하기도 하는 새들을 말한다. 안양시의 대표적인 산새는 오목눈이·어치·동고비·오색딱다구리·되지빠귀·소쩍새·산솔새·큰유리새·노랑턱멧새 등이 있다.

나.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볼 수 있는 새(물새)

산새와 반대로 일생의 대부분을 물에서 보내거나 일부 시기에 물에서 생활하는 새를 말한다. 물갈퀴가 있어 물에 뜨거나 잠수할 수 있는 오리류·가마우지류·논병아리·갈매기류 등이 있고 물갈퀴는 없지만 물가에서 먹이를 찾거나 둥지를 만드는 백로류·저어새류·물떼새류·도요류·할미새류 등이 있다. 안양시의 대표적인 물새는 원앙·흰뺨검둥오·청둥오리·쇠오리·홍머리오리·맹기흰죽지·비오리·논병아리·해오라기·왜가리·중대백로·쇠백로·민물가마우지·물닭·흰목물떼새·백백도요·깍작도요·한국재갈매기·물총새·알락할미새·백할미새 등이 있다. 물새는 대부분 겨울철새가 많다.

다. 농경지나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새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천적을 피해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새를 말한다. 대부분 머리가 좋고 먹이에 대해 까다롭지 않아 도심 쓰레기도 잘 먹을 수 있는 새들이다. 안양시의 도심과 농경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새는 직박구리·멧비둘기·참새·박새·딱새·까치·물까치·큰부리까마귀, 집비둘기·제비 등이 있다.

라.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

날카로운 부리와 뾰족하고 튼튼한 발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새와 동물을 먹이로 하는 새를 말한다. 주로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어 대부분 법으로 보호받고 있고, 개체 수가 많지 않은 새들이다. 안양시에서 볼 수 있는 맹금류는 황조롱이·새호리기·매·새매·참매·흰꼬리수리·말뚝가리·소쩍새 등이 있다. 안양시에서 관찰되는 맹금류는 대부분 겨울철새로 안양시를 찾아오는 특징이 있다.

(4) 안양시의 법정 보호 조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서 안양시에서 확인된 법정 보호 조류는 큰기러기(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이하 멸Ⅱ), 원앙(천연기념물, 이하 천), 노랑부리저어새(멸Ⅱ·천), 황조롱이(천), 새호리기(멸Ⅱ), 매(멸Ⅱ·천), 새매(멸Ⅱ·천), 참매(멸Ⅱ·천), 흰꼬리수리(멸Ⅰ·천), 흰목물떼새(멸Ⅱ), 두견이(천), 소쩍새(천) 등 총 12종이 조사되었다.

큰기러기는 겨울철새로 안양천 상공에서 비행하는 개체가 확인된 기록이 있다. 원앙은 안양물새공원 주변 안양천에서 겨울이면 여러 마리가 관찰된다. 노랑부리저어새는 주로 서해안 간척지에서 관찰되는 종이나 안양천에서 다른 백로류와 함께 관찰된 기록이 있다. 황조롱이도 안양천 주변에서 먹이활동을 하거나 휴식하는 개체가 확인되었다. 새호리기는 안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서식하는 개체가 아니라 이동기에 일시적으로 안양시에서 관찰되는 종이 확인되었다. 매는 겨울철 안양천 조류 조사에서 주로 관찰되며, 안양천 하류 한강에서부터 이동해 온 개체가 확인된다. 새매는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종으로, 관악산 산림 구간 등에서 출현한다. 참매도 겨울철 안양천 주변에서 먹이활동을 하거나 휴식하는 개체들이 관찰된다. 흰꼬리수리는 겨울철 한강에서부터 이동하는 개체가 확인되었고, 내려앉거나 먹이활동하는 개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흰목물떼새는 겨울철 삼봉초등학교 인근 안양천에서 자주 관찰된다. 두견이는

안양시의 법정 보호 조류



흰꼬리수리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큰기러기



새매

관악산 산림에서 여름철 일시적으로 울음소리가 확인된 기록이 있다. 소쩍새는 여름철 관악산과 수리산에서 소리가 빈번하게 들린다.

이들 법정 보호 조류는 다른 조류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조류로, 주로 안양천 주변과 관악산 주변 산림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번식 가능성이 높은 황조롱이,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은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5) 안양시에서 새를 만나기 좋은 곳

안양시는 관악산 일부와 수리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도심지역이 넓은 도시로 다양한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따라서, 새를 만나려면 새들의 생태 습성을 공부하고 안양시에서 새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찾아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들을 만나기 쉬운 곳은 하천과 같은 물이 있는 환경이다. 물이 있는 환경은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주로 겨울철새가 많아 새를 보기 쉽다. 물새를 보기 위해서는 안양천을 찾아가야 하는데, 주로 새가 많이 관찰되는 지역은 충훈1교부터 안양천교 구간으로 주변에 주거지가 적고 다양한 수심이 있으며 물가에 적당하게 식물이 자라고 있어 물새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안전하게 쉬기 좋은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흰뺨검둥오리·청머리오리·원앙·홍머리오리·비오리 등 오리류가 보이고, 물총새·흰목물떼새·왜가리·증대백로 등도 관찰된다.

겨울이면 이들 물새를 사냥하기 위해 참매도 간혹 보이는 곳이다. 안양천 구간은 주변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매우 다양한 새가 보이는 곳으로 보호하고 자주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다.

안양시의 산림은 물이 적고 대부분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산새들이 안정적으로 살기에 좋은 곳이 많지 않다. 그래도 서울대학교 수목원 주변 산림, 관악산 산림욕장, 비봉산 계곡부 그리고 병목안 산림욕장 주변 계곡 등의 산림은 자연성이 높고 다양한 나무가 자라고 있어 계절에 따라 어치·곤줄박이·들평·박새·오목눈이·쇠박새·되지박귀·호랑지박귀·소쩍새·산솔새·큰유리새·고비·큰오색딱다구리·쇠딱다구리·유리딱새·상모솔새·속독새·삿꾸기·검은등삿꾸기 등 다양한 산새를 관찰할 수 있다.

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동물로, 우리가 작은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단지·공원·산책로 등에서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표 11〉 안양시에서 확인된 조류 목록

학명	국명	자료1	자료2	자료3	도래유형	비고
Phylum Chordata	척삭동물문					
Class Aves	조강					
Order Galliformes	닭목					
Family Phasianidae	평과					
<i>Tetrastes bonasia</i>	들평	◎		◎	Res	
<i>Phasianus colchicus</i>	평	◎	◎	◎	Res	
Order Anseriformes	기러기목					
Family Anatidae	오리과					
<i>Anser serrirostris</i>	큰기러기		◎		WV	멸 II
<i>Aix galericulata</i>	원앙	◎	◎	◎	Res	천
<i>Sibirionetta formosa</i>	가창오리		◎	◎	WV	
<i>Spatula clypeata</i>	넓적부리	◎	◎	◎	WV	
<i>Mareca strepera</i>	알락오리	◎	◎	◎	WV	
<i>Mareca falcata</i>	청머리오리	◎	◎	◎	WV	
<i>Mareca penelope</i>	홍머리오리	◎	◎	◎	WV	
<i>Anas zonorhyncha</i>	흰뺨검둥오리	◎	◎	◎	Res	
<i>Anas platyrhynchos</i>	청둥오리	◎	◎	◎	WV	
<i>Anas acuta</i>	고방오리		◎	◎	WV	

학명	국명	자료1	자료2	자료3	도래유형	비고
<i>Anas crecca</i>	쇠오리	◎	◎	◎	WV	
<i>Aythya ferina</i>	흰죽지	◎	◎		WV	
<i>Aythya fuligula</i>	댕기흰죽지	◎	◎		WV	
<i>Aythya marila</i>	검은머리흰죽지		◎		WV	
<i>Bucephala clangula</i>	흰뺨오리		◎		WV	
<i>Mergellus albellus</i>	흰비오리		◎		WV	
<i>Mergus merganser</i>	비오리	◎	◎	◎	WV	
Order Podicipediformes	논병아리목					
Family Podicipedidae	논병아리과					
<i>Tachybaptus ruficollis</i>	논병아리	◎	◎	◎	Res	
<i>Podiceps cristatus</i>	불논병아리		◎		Res	
Order Pelecaniformes	사다새목					
Family Threskiornithidae	저어새과					
<i>Platalea leucorodia</i>	노랑부리저어새		◎		WV	멸 II, 천
Family Ardeidae	백로과					
<i>Nycticorax nycticorax</i>	해오라기	◎	◎	◎	SV	
<i>Butorides striata</i>	검은댕기해오라기	◎		◎	SV	
<i>Bubulcus coromandus</i>	황로	◎		◎	SV	
<i>Ardea cinerea</i>	왜가리	◎	◎	◎	SV	
<i>Ardea alba alba</i>	대백로	◎		◎	WV	
<i>Ardea alba modesta</i>	중대백로	◎	◎	◎	SV	
<i>Ardea intermedia</i>	중백로			◎	SV	
<i>Egretta garzetta</i>	쇠백로	◎	◎	◎	SV	
Order Suliformes	얼가니새목					
Family Phalacrocoracidae	가마우지과					
<i>Phalacrocorax capillatus</i>	가마우지	◎			Res	
<i>Phalacrocorax carbo</i>	민물가마우지	◎	◎	◎	Res	
Order Falconiformes	매목					
Family Falconidae	매과					
<i>Falco tinnunculus</i>	황조롱이	◎	◎	◎	Res	천
<i>Falco subbuteo</i>	새호리기	◎			SV	멸 II
<i>Falco peregrinus</i>	매		◎		Res	멸 II

학명	국명	자료1	자료2	자료3	도래유형	비고
Order Accipitriformes	수리목					
Family Accipitridae	수리과					
<i>Accipiter nisus</i>	새매		◎	◎	WV	멸Ⅱ, 천
<i>Accipiter gentilis</i>	참매			◎	WV	멸Ⅱ, 천
<i>Haliaeetus albicilla</i>	흰꼬리수리		◎		WV	멸Ⅰ, 천
<i>Buteo japonicus</i>	말뚝가리		◎	◎	WV	
Order Gruiformes	두루미목					
Family Rallidae	뚝부기과					
<i>Gallinula chloropus</i>	쇠물닭		◎		SV	
<i>Fulica atra</i>	물닭	◎	◎	◎	Res	
Order Charadriiformes	도요목					
Family Charadriidae	물떼새과					
<i>Charadrius placidus</i>	흰목물떼새	◎	◎	◎	Res	멸Ⅱ
<i>Charadrius dubius</i>	꼬마물떼새	◎		◎	SV	
Family Scolopacidae	도요과					
<i>Gallinago gallinago</i>	깍도요	◎	◎	◎	PM	
<i>Actitis hypoleucos</i>	갸작도요	◎	◎	◎	SV	
<i>Tringa ochropus</i>	삿도요	◎		◎	PM	
<i>Tringa brevipes</i>	노랑발도요			◎	PM	
<i>Tringa glareola</i>	알락도요	◎		◎	PM	
<i>Tringa nebularia</i>	청다리도요	◎		◎	PM	
Family Laridae	갈매기과					
<i>Larus crassirostris</i>	괭이갈매기	◎		◎	Res	
<i>Larus vegae</i>	재갈매기		◎		WV	
<i>Larus vegae mongolicus</i>	한국재갈매기	◎	◎	◎	Res	
Order Columbiformes	비둘기목					
Family Columbidae	비둘기과					
<i>Columba livia</i>	집비둘기	◎	◎	◎	Res	
<i>Streptopelia orientalis</i>	멧비둘기	◎	◎	◎	Res	
Order Cuculiformes	두견목					
Family Cuculidae	두견이과					
<i>Cuculus poliocephalus</i>	두견이			◎	SV	천

학명	국명	자료1	자료2	자료3	도래유형	비고
<i>Cuculus micropterus</i>	검은등뺨꾸기			◎	SV	
<i>Cuculus optatus</i>	병어리뺨꾸기	◎		◎	SV	
<i>Cuculus canorus</i>	뺨꾸기	◎		◎	SV	
Order Strigiformes	올빼미목					
Family Strigidae	올빼미과					
<i>Otus sunia</i>	소쩍새	◎		◎	SV	천
Order Caprimulgiformes	쏙독새목					
Family Caprimulgidae	쏙독새과					
<i>Caprimulgus jotaka</i>	쏙독새	◎		◎	SV	
Order coraciiformes	파랑새목					
Family Coraciidae	파랑새과					
<i>Eurystomus orientalis</i>	파랑새	◎		◎	SV	
Family Alcedinidae	물총새과					
<i>Alcedo atthis</i>	물총새	◎		◎	SV	
Order Piciformes	딱다구리목					
Family Picidae	딱다구리과					
<i>Yungipicus kizuki</i>	쇠딱다구리	◎	◎	◎	Res	
<i>Dendrocopos major</i>	오색딱다구리	◎		◎	Res	
<i>Dendrocopos leucotos</i>	큰오색딱다구리	◎		◎	Res	
<i>Picus canus</i>	청딱다구리	◎		◎	Res	
Order Passeriformes	참새목					
Family Laniidae	때까치과					
<i>Lanius bucephalus</i>	때까치	◎	◎	◎	Res	
Family Oriolidae	꾀꼬리과					
<i>Oriolus chinensis</i>	꾀꼬리	◎		◎	SV	
Family Corvidae	까마귀과					
<i>Garrulus glandarius</i>	어치	◎		◎	Res	
<i>Cyanopica cyanus</i>	물까치	◎	◎	◎	Res	
<i>Pica serica</i>	까치	◎	◎	◎	Res	
<i>Corvus frugilegus</i>	떼까마귀		◎		WV	
<i>Corvus corone</i>	까마귀			◎	Res	
<i>Corvus macrorhynchos</i>	큰부리까마귀	◎	◎	◎	Res	

학명	국명	자료1	자료2	자료3	도래유형	비고
Family Paridae	박새과					
<i>Periparus ater</i>	진박새	◎		◎	Res	
<i>Sittiparus varius</i>	곤졸박이	◎		◎	Res	
<i>Poecile palustris</i>	쇠박새	◎	◎	◎	Res	
<i>Parus minor</i>	박새	◎	◎	◎	Res	
Family Alaudidae	종다리과					
<i>Alauda arvensis</i>	종다리		◎		PM	
Family Pycnonotidae	직박구리과					
<i>Hypsipetes amaurotis</i>	직박구리	◎	◎	◎	Res	
Family Hirundinidae	제비과					
<i>Hirundo rustica</i>	제비	◎		◎	SV	
<i>Cecropis daurica</i>	귀제비			◎	SV	
Family Cettiidae	휘파람새과					
<i>Horornis canturians</i>	휘파람새			◎	PM	
<i>Urosphena squameiceps</i>	숲새	◎		◎	SV	
Family Aegithalidae	오목눈이과					
<i>Aegithalos caudatus</i>	오목눈이	◎	◎	◎	Res	
Family Phylloscopidae	솔새과					
<i>Phylloscopus inornatus</i>	노랑눈썹솔새	◎		◎	PM	
<i>Phylloscopus proregulus</i>	노랑허리솔새	◎		◎	PM	
<i>Phylloscopus coronatus</i>	산솔새	◎		◎	SV	
<i>Phylloscopus tenellipes</i>	되솔새			◎	PM	
<i>Phylloscopus borealis</i>	쇠솔새	◎		◎	PM	
Family Paradoxornithidae	붉은머리오목눈이과					
<i>Sinosuthora webbiana</i>	붉은머리오목눈이	◎	◎	◎	Res	
Family Zosteropidae	동박새과					
<i>Zosterops japonicus</i>	동박새		◎		Res	
Family Regulidae	상모솔새과					
<i>Regulus regulus</i>	상모솔새	◎		◎	WV	
Family Troglodytidae	굴뚝새과					
<i>Troglodytes troglodytes</i>	굴뚝새	◎	◎	◎	Res	
Family Sittidae	동고비과					

학명	국명	자료1	자료2	자료3	도래유형	비고
<i>Sitta europaea</i>	동고비			◎	Res	
Family Sturnidae	찌르레기과					
<i>Spodiopsar cineraceus</i>	찌르레기	◎		◎	SV	
Family Turdidae	지빠귀과					
<i>Zoothera aurea</i>	호랑지빠귀	◎		◎	SV	
<i>Geokichla sibirica</i>	흰눈썹지빠귀			◎	PM	
<i>Turdus hortulorum</i>	되지빠귀	◎		◎	SV	
<i>Turdus pallidus</i>	흰배지빠귀	◎		◎	SV	
<i>Turdus naumanni</i>	노랑지빠귀	◎	◎	◎	WV	
Family Muscipidae	솔딱새과					
<i>Muscicapa griseisticta</i>	제비딱새			◎	PM	
<i>Muscicapa dauurica</i>	쇠솔딱새	◎		◎	PM	
<i>Cyanoptila cyanomelana</i>	큰유리새	◎		◎	SV	
<i>Larivora sibilans</i>	울새	◎		◎	PM	
<i>Tarsiger cyanurus</i>	유리딱새	◎		◎	PM	
<i>Ficedula mugimaki</i>	노랑딱새	◎		◎	PM	
<i>Phoenicurus aureus</i>	딱새	◎	◎	◎	Res	
Family Passeridae	참새과					
<i>Passer montanus</i>	참새	◎	◎	◎	Res	
Family Motacillidae	할미새과					
<i>Motacilla cinerea</i>	노랑할미새	◎		◎	SV	
<i>Motacilla alba leucopsis</i>	알락할미새	◎	◎	◎	SV	
<i>Motacilla alba lugens</i>	백할미새	◎		◎	WV	
<i>Motacilla grandis</i>	검은등할미새	◎		◎	Res	
<i>Anthus hodgsoni</i>	항동새	◎		◎	PM	
<i>Anthus rubescens</i>	발종다리	◎		◎	PM	
Family Fringillidae	되새과					
<i>Fringilla montifringilla</i>	되새	◎	◎	◎	WV	
<i>Eophona migratoria</i>	밀화부리		◎		PM	
<i>Carpodacus sibiricus</i>	긴꼬리홍양진이	◎		◎	WV	
<i>Chloris sinica</i>	방울새	◎	◎	◎	Res	
<i>Acanthis flammea</i>	홍방울새		◎		WV	

학명	국명	자료1	자료2	자료3	도래유형	비고
<i>Spinus spinus</i>	검은머리방울새	◎		◎	WV	
Family Emberizidae	멧새과					
<i>Emberiza cioides</i>	멧새			◎	Res	
<i>Emberiza tristrami</i>	흰배멧새	◎		◎	PM	
<i>Emberiza rustica</i>	속새	◎		◎	WV	
<i>Emberiza elegans</i>	노랑턱멧새	◎	◎	◎	Res	
<i>Emberiza rutila</i>	꼬까참새	◎		◎	PM	
<i>Emberiza spodocephala</i>	족새	◎	◎	◎	PM	

주1) 자료 1: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2021, 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자료 2: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환경부, 2015~2023),
 자료 3: 전국자연환경조사(환경부, 2017~2022)

주2) 천: 천연기념물, 멸 I: 멸종위기야생생물1급, 멸 II: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주3) Res: 텃새, WV: 겨울철새, SV: 여름철새, PM: 나그네새

3) 양서류·파충류

안양시에 서식하는 양서류와 파충류는 4목 14과에 속하는 24종이다. 양서류는 2목 6과 10종으로, 도롱뇽·무당개구리·두꺼비·청개구리·맹꽁이·북방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참개구리·옴개구리가 서식한다. 파충류는 2목 8과 14종으로, 자라·붉은귀거북·폐닌술라쿠터·플로리다붉은배거북·중국줄무늬목거북·늑대거북·아무르장지뱀·누룩뱀·살모사 등이다.

이 중에서 맹꽁이·남생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며, 붉은귀거북·중국줄무늬목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 3종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는 산림 저지대의 웅덩이와 인공수로에서 주로 관찰되고, 도심 아파트단지 주변에 설치한 하수도에서

안양시 양서류·파충류



두꺼비



아무르장지뱀

도 가끔 발견된다. 생태계교란 생물 붉은귀거북은 미꾸라지·붕어·양서류 알과 유생 등을 먹이원으로 하는 잡식성 동물로 수생태계 교란의 주범이며, 안양시 수계에 널리 퍼져 있다.

산림지역이 계곡·옹덩이·인공수로 등에 도롱뇽·무당개구리·계곡산개구리·아무르장지뱀·누룩뱀 등을 서식하며, 도심공원 등 저지대에는 옴개구리·청개구리·참개구리 등이 서식한다. 안양천·수암천·삼성천·학의천·삼막천 등 하천에는 남생이·자라를 비롯하여,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붉은귀거북·중국줄무늬목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3종과 페닌슐라쿠터·늑대거북 등이 서식한다.

〈표 12〉 안양시 양서·파충류 조사 주요 문헌 및 결과

조사연도	조사지역	조사결과	문헌
2009	안양도엽	양서류: 도롱뇽·청개구리·참개구리·한국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두꺼비 등 6종 파충류: 쇠살모사 등 1종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09: 안양 (376122)(환경부)
2017	안양도엽	양서류: 도롱뇽·무당개구리·옴개구리·참개구리·북방산개구리 등 5종 파충류: 붉은귀거북·누룩뱀·유혈목이·쇠살모사 등 4종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17: 안양 (376122)(환경부)
2019	안양천	양서류: 도롱뇽·맹꽁이·무당개구리·청개구리·옴개구리·참개구리·한국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 등 10종 파충류: 자라·붉은귀거북·아무르장지뱀·출장지뱀·누룩뱀·무자치·유혈목이 등 7종	2018 안양천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서(㈜청록환경생태연구소, 2019)
2021	안양시 전역	양서류: 도롱뇽, 맹꽁이, 무당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옴개구리·참개구리·북방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 등 9종 파충류: 자라·붉은귀거북·페닌슐라쿠터·플로리다붉은배거북(플로리다레드벨리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늑대거북·아무르장지뱀·누룩뱀·살모사 등 10종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표 13〉 안양시 양서류 목록

연번	학명	국명	비고
	Amphibia 양서강		
	Caudata 유미목		
	Hynobiidae 도롱뇽과		
1	<i>Hynobius leechii</i> Boulenger, 1887	도롱뇽	
	Salientia 무미목		
	Bombinatoridae 무당개구리과		
2	<i>Bombina orientalis</i> (Boulenger, 1890)	무당개구리	
	Bufoidea 두꺼비과		
3	<i>Bufo gargarizans</i> Cantor, 1842	두꺼비	

연번	학명	국명	비고
Hylidae 청개구리과			
4	<i>Hyla japonica</i> Günther, 1859	청개구리	
Microhylidae 맹꽁이과			
5	<i>Kaloula borealis</i> (Barbour, 1908)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국가적색목록 취약(VU)
Ranidae 개구리과			
6	<i>Glandirana rugosa</i> (Temminck & Schlegel, 1838)	옴개구리	
7	<i>Pelophylax nigromaculatus</i> (Hallowell, 1861)	참개구리	국가적색목록 준위협(NT)
8	<i>Rana coreana</i> (Okada, 1928)	한국산개구리	한반도 고유종
9	<i>Rana dybowskii</i> Günther, 1876	북방산개구리	
10	<i>Rana huanrenensis</i> Fei, Ye & Huang, 1991	계곡산개구리	
분류군 수			10

〈표 14〉 안양시 파충류 목록

연번	학명	국명	비고
Reptilia 파충강			
Testudines 거북목			
Trionychidae 자라과			
1	<i>Pelodiscus maackii</i> (Brandt, 1857)	자라	국가적색목록 취약(VU)
Geoemydidae 남생이과			
2	<i>Mauremys reevesii</i> (Gray, 1831)	남생이	
Emydidae 늪거북과			
3	<i>Pseudemys nelsoni</i> (Carr, 1938)	플로리다붉은배거북	생태계교란 생물
4	<i>Pseudemys peninsularis</i> (Carr, 1938)	페닌슐라쿠터	
5	<i>Trachemys scripta</i> (Schoepff, 1792)	붉은귀거북	생태계교란 생물
Chelydridae 늑대거북과			
6	<i>Chelydra serpentina</i> Linnaeus, 1758	늑대거북	
Geoemydidae 돌거북과			
7	<i>Ocadia sinensis</i> Gray, 1834	중국줄무늬목거북	생태계교란 생물
Squamata 유린목			
Lacertidae 장지뱀과			
8	<i>Takydromus amurensis</i> (Peters, 1881)	아무르장지뱀	
9	<i>Takydromus wolteri</i> (Fischer, 1885)	줄장지뱀	
Colubridae 뱀과			
10	<i>Elaphe dione</i> (Pallas, 1773)	누룩뱀	

연번	학명	국명	비고
11	<i>Oocatochus rufodorsatus</i> (Cantor, 1842)	무자치	
12	<i>Rhabdophis tigrinus</i> (Boie, 1826)	유혈목이	
Viperidae 살모사과			
13	<i>Gloydus brevicaudus</i> (Stejneger, 1907)	살모사	
14	<i>Gloydus ussuriensis</i> (Emelianov, 1929)	쇠살모사	
분류군 수			14

4) 어류

안양시에 서식하는 어류는 4목 9과에 속하는 30종류이다. 이 중에는 한반도 고유종 참갈겨니·얼룩동사리 등 5종류를 비롯하여, 국가적색목록 준위협 버들매치·쌀미꾸리 등 2종류가 포함된다.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은 배스·블루길 등 2종류가 서식한다.

삼봉천은 출현 종수와 개체 수 모두 빈약하며, 우점종은 버들치, 아우점종은 피라미·얼룩동사리이고, 쌀미꾸리가 서식한다. 수암천은 우점종 버들치, 아우점종 피라미이며, 고유종 얼룩동사리가 서식한다. 안양천으로 유입하는 소하천인 갈현천은 우점종 참붕어, 아우점종은 버들치이며, 쌀미꾸리가 서식한다.

〈표 15〉 안양시 어류 조사 문헌 및 결과

조사연도	조사지역	조사결과	문헌
2009	안양 일대	잉어·붕어·떡붕어·모래무지·버들매치·큰납지리·버들치·피라미·미꾸리·메기·밀어·배스 등 16종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어류: 안양 (환경부, 2009)
2018	안양천 상류	잉어·붕어·모래무지·돌고기·줄물개·참붕어·버들치·참갈겨니·얼룩동사리·민물검정망둑 등 12종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어류: 안양천 종류 (환경부, 2018)
2018	안양천 상류	잉어·붕어·모래무지·돌고기·피라미·미꾸리 등 6종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어류: 안양천 상류 (환경부, 2018)
2018	안양천	잉어·붕어·모래무지·누치·큰납지리·돌고기·줄물개·참붕어·참갈겨니·미꾸리·얼룩동사리·은어·배스·블루길 등 21종	안양천(2018)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서 (안양시, 2019)
2019	안양천	잉어·붕어·모래무지·누치·줄물개·버들치·피라미·참갈겨니·미꾸리·미유기·가물치·얼룩동사리·밀어·배스·블루길 등 21종	안양천(2019) 어류 모니터링 조사보고서 (안양시, 2019)
2021	안양시 전역	향어·비단잉어·강준치·누치·모래무지·참붕어·버들치·긴물개·참갈겨니·미꾸리·미유기·가물치·얼룩동사리·밀어 등 22종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안양시 어류



강준치



모래무지



얼룩동사리



참갈겨니

〈표 16〉 안양시 어류 목록

연번	학명 및 국명	비고
Order Cypriniformes 잉어목		
Family Cyprinidae 잉어과		
1	<i>Abbottina rivularis</i> (Basilewsky, 1855) 버들매치	국가적색목록 준위협(NT)
2	<i>Acheilognathus macropterus</i> (Bleeker, 1871) 큰납지리	
3	<i>Carassius auratus</i> (Linnaeus, 1758) 붕어	
4	<i>Carassius cuvieri</i> (Temminck & Schlegel, 1846) 떡붕어	
5	<i>Cyprinus carpio</i> Linnaeus, 1758 잉어	
6	<i>Cyprinus carpio nudus</i> (Bloch, 1784) 향어	외래생물
7	<i>Cyprinus rubrofuscus</i> Lacépède, 1803 비단잉어	외래생물
8	<i>Erythroculter erythropterus</i> (Basilewsky, 1855) 강준치	
9	<i>Gnathopogon strigatus</i> (Regan, 1980) 줄몰개	
10	<i>Hemibarbus labeo</i> (Pallas, 1776) 누치	

연번	학명 및 국명	비고
11	<i>Pseudogobio esocinus</i> (Temminck & Schlegel, 1846) 모래무지	
12	<i>Pseudorasbora parva</i> (Temminck & Schlegel, 1846) 참붕어	
13	<i>Pungtungia herzi</i> Herzenstein, 1892 돌고기	
14	<i>Rhynchocypris oxycephalus</i> (Sauvage & Dabry de Thiersant, 1874) 버들치	
15	<i>Squalidus gracilis majimae</i> (Jordan & Hubbs, 1925) 긴물개	한반도 고유종
16	<i>Squalidus japonicus coreanus</i> (Berg, 1906) 물개	한반도 고유종
17	<i>Zacco koreanus</i> Kim, Oh & Hosoya, 2005 참갈겨니	한반도 고유종
18	<i>Zacco platypus</i> (Temminck & Schlegel, 1846) 피라미	
Family Cobitidae 미꾸리과		
19	<i>Misgurnus anguillicaudatus</i> (Cantor, 1842) 미꾸리	
20	<i>Misgurnus mizolepis</i> Günther, 1888 미꾸라지	
Family Balitoridae 종개과		
21	<i>Lefua costata</i> (Kessler, 1876) 쌀미꾸리	국가적색목록 준위협(NT)
Order Siluriformes 메기목		
Family Siluridae 메기과		
22	<i>Silurus asotus</i> Linnaeus, 1758 메기	
23	<i>Silurus microdorsalis</i> (Mori, 1936) 미유기	한반도 고유종
Order Osmeriformes 바다빙어목		
Family Osmeridae 바다빙어과		
24	<i>Plecoglossus altivelis</i> (Temminck & Schlegel, 1846) 은어	
Order Perciformes 농어목		
Family Centrarchidae 검정우럭과		
25	<i>Lepomis macrochirus</i> Rafinesque, 1819 블루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26	<i>Micropterus salmoides</i> (Lacepède, 1802) 배스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Family Odontobutidae 동사리과		
27	<i>Odontobutis interrupta</i> Iwata & Jeon, 1985 얼룩동사리	한반도 고유종
Family Gobiidae 망둑어과		
28	<i>Rhinogobius brunneus</i> (Temminck & Schlegel, 1845) 밀어	
29	<i>Tridentiger brevispinis</i> Katsuyama, Arai & Nakamura, 1972 민물검정망둑	
Family Channidae 가물치과		
30	<i>Channa argus</i> (Cantor, 1842) 가물치	
분류군 수		30

5) 육상곤충

안양시에 서식하는 육상곤충은 16목 137과에 속하는 888종류이다. 목(order) 수준에서 나비목(421분류군)·노린재목·딱정벌레목·벌목·파리목·잠자리목·메뚜기목 순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과(family) 수준에서는 자나방과와 태극나방과가 각각 81분류군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밤나방과(45분류군)·장님노린재과(42분류군)·네발나비과(32분류군)·잎벌레과·풀명나방과(각각 31분류군) 순이다. 한반도 고유종은 묘향산거저리·서울병대벌레·애기물결자나방·연노랑목가는병대벌레·주홍버섯소바구미·줄우단풍뎅이·황색우단풍뎅이·우리벼메뚜기·야고뿔매미·개나리잎벌·금강산검정잎벌·민줄딱정벌레 등 국명이 없는 진딧물과 1분류군 포함 13분류군이다. 환경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은 넓적배사마귀 1종이며,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은 꽃매미(주홍날개꽃매미)·미국선녀벌레·갈색날개매미충 등 3종이 서식한다. 국가적색목록 수록종 중 취약(VU) 등급은 흰점팔랑나비·은점표범나비 등 2분류군이며, 준위협(NT) 등급은 큰주홍부전나비·조흰뺨눈나비 등 2분류군이다.

〈표 17〉 안양시 육상곤충 목 및 과 구성

구분	목(Order)		과(Family)	
	학명 / 국명	분류군 수	학명 / 국명	분류군 수
1	Lepidoptera 나비목	421	Geometridae 자나방과	81
2	Hemiptera 노린재목	158	Erebidae 태극나방과	81
3	Coleoptera 딱정벌레목	149	Noctuidae 밤나방과	45
4	Hymenoptera 벌목	79	Miridae 장님노린재과	42
5	Diptera 파리목	37	Nymphalidae 네발나비과	32
6	Odonata 잠자리목	21	Chrysomelidae 잎벌레과	31
7	Orthoptera 메뚜기목	10	Crambidae 풀명나방과	31
8	Mantodea 사마귀목	3	Pyrallidae 명나방과	27
9	Plecoptera 강도래목	3	Pentatomidae 노린재과	25
10	Ephemeroptera 하루살이목	1	Tenthredinidae 잎벌과	22
11	Blattodea 바퀴목	1	Tortricidae 잎말이나방과	21
12	Dermoptera 집게벌레목	1	Cerambycidae 하늘소과	20
13	Phasmida 대벌레목	1	Formicidae 개미과	17
14	Neuroptera 풀잠자리목	1	Coccinellidae 무당벌레과	16
15	Raphidioptera 약대벌레목	1	Notodontidae 제주나방과	16
16	Megaloptera 뱀잠자리목	1	기타(122과)	381
계	16	888	137	888

안양시 곤충류



고마로브집게벌레



남색초원하늘소



등검은실잠자리



말들이메뚜기



삼하늘소



작은주걱참나무노린재



배추흰나비



털왕개미

〈표 18〉 안양시 육상곤충 목록

연번	학명	국명	비고
	Ephemeroptera 하루살이목		
	Ephemeridae 하루살이과		
1	<i>Ephemera orientalis</i> McLachlan, 1875	동양하루살이	
	Odonata 잠자리목		
	Lestidae 청실잠자리과		
2	<i>Sympecma paedisca</i> (Brauer, 1877)	묵은실잠자리	
	Calopterygidae 물잠자리과		
3	<i>Calopteryx japonica</i> Selys, 1869	물잠자리	
	Platycnemididae 방울실잠자리과		
4	<i>Platycnemis phyllopoda</i> Djakonov, 1926	방울실잠자리	
	Coenagrionidae 실잠자리과		
5	<i>Ceriagrion auranticum</i> Fraser, 1922	새노란실잠자리	
6	<i>Coenagrion johanssoni</i> (Wallengren, 1894)	참실잠자리	
7	<i>Ischnura asiatica</i> (Brauer, 1865)	아시아실잠자리	
8	<i>Paracercion calamorum</i> (Ris, 1916)	등검은실잠자리	
	Aeshnidae 왕잠자리과		
9	<i>Anax nigrofasciatus</i> Oguma, 1915	먹출왕잠자리	
10	<i>Anax parthenope julius</i> Brauer, 1865	왕잠자리	
	Gomphidae 촉범잠자리과		
11	<i>Davidius lunatus</i> (Bartenev, 1914)	쇠촉범잠자리	
	Libellulidae 잠자리과		
12	<i>Crocothemis servilia mariannae</i> Kiauta, 1898	고추잠자리	
13	<i>Orthetrum albistylum</i> (Selys, 1848)	밀잠자리	
14	<i>Orthetrum japonicum</i> (Uhler, 1858)	중간밀잠자리	
15	<i>Orthetrum lineostigma</i> (Selys, 1886)	흙쪽밀잠자리	
16	<i>Orthetrum melania</i> (Selys, 1883)	큰밀잠자리	
17	<i>Pantala flavescens</i> (Fabricius, 1798)	똥장잠자리	
18	<i>Pseudothemis zonata</i> (Burmeister, 1839)	노란허리잠자리	
19	<i>Sympetrum eroticum</i> (Selys, 1883)	두점박이줄잠자리	
20	<i>Sympetrum frequens</i> (Selys, 1883)	고추줄잠자리	

연번	학명	국명	비고
21	<i>Sympetrum infuscatum</i> (Selys, 1883)	깃동잠자리	
22	<i>Sympetrum pedemontanum elatum</i> (Selys, 1872)	날개띠좀잠자리	
	Blattodea 바퀴목		
	Ectobiidae 바퀴과		
23	<i>Blattella nipponica</i> Asahina, 1963	산바퀴	
	Mantodea 사마귀목		
	Mantidae 사마귀과		
24	<i>Hierodula patellifera</i> Serville, 1839	넓적배사마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25	<i>Statilia maculata</i> Thunberg, 1784	좀사마귀	
26	<i>Tenodera sinensis</i> Saussure, 1871	왕사마귀	
	Dermaptera 집게벌레목		
	Forficulidae 집게벌레과		
27	<i>Timomenus komarowi</i> (Semenov, 1901)	고마로브집게벌레	
	Orthoptera 메뚜기목		
	Tettigoniidae 여치과		
28	<i>Phaneroptera nigroantennata</i> Brunner-Wattenwyl, 1878	검은다리실베짱이	
	Gryllotalpidae 땅강아지과		
29	<i>Gryllotalpa orientalis</i> Burmeister, 1839	땅강아지	
	Tetrigidae 모메뚜기과		
30	<i>Tetrix japonica</i> (Bolívar, 1887)	모메뚜기	
	Pyrgomorphidae 섬서구메뚜기과		
31	<i>Atractomorpha lata</i> (Motschulsky, 1866)	섬서구메뚜기	
	Acrididae 메뚜기과		
32	<i>Acrida cinerea</i> (Thunberg, 1815)	방아깨비	
33	<i>Anapodisma miramae</i> Dovnar-Zapolsky, 1933	밀들이메뚜기	
34	<i>Arcyptera coreana</i> Shiraki, 1930	참어리삼사리	
35	<i>Oedaleus infernalis</i> Saussure, 1884	팔중이	
36	<i>Oxya sinuosa</i> Mishchenko, 1951	우리벼메뚜기	한반도 고유종
37	<i>Trilophidia annulata</i> (Thunberg, 1815)	두꺼비메뚜기	
	Phasmida 대벌레목		
	Phasmatidae 대벌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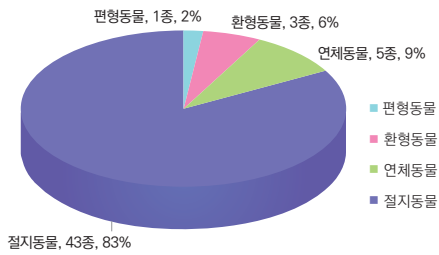
연번	학명	국명	비고
38	<i>Ramulus mikado</i> (Rehn, 1904)	대벌레	
	Plecoptera 강도래목		
	Leuctridae 꼬마강도래과		
39	<i>Rhopalopsale mahunkai</i> Zwick, 1973	꼬마강도래	
	Nemouridae 민강도래과		
40	<i>Amphinemura coreana</i> Zwick, 1973	총채민강도래	
41	<i>Nemoura brevicercia</i> Zhiltzova, 1982	민강도래	
	Hemiptera 노린재목		
	Cercopidae 좀매미과		
42	<i>Eoscartopsis assimilis</i> (Uhler, 1896)	쥐머리거품벌레	
	Cicadidae 매미과		
43	<i>Hyalessa maculaticollis</i> (Motschulsky, 1866)	참매미	
44	<i>Platypleura kaempferi</i> (Fabricius, 1794)	털매미	
	Cicadellidae 매미총과		
45	<i>Bothrogonia ferruginea</i> Fabricius, 1787	끝검은말매미총	
46	<i>Cicadella viridis</i> (Linnaeus, 1758)	말매미총	
47	<i>Ledra auditura</i> Walker, 1858	귀매미	
48	<i>Naratettix zini</i> Dworakowska, 1972	북쪽띠띠태매미총	
49	<i>Pagaronia continentalis</i> (Anufriev, 1970)	황백매미총	
50	<i>Podulmorinus vitticollis</i> (Matsumura, 1905)	등줄버들머리매미총	
	Membracidae 불매미과		
51	<i>Tricentrus yagoi</i> Kato, 1940	야고불매미	한반도 고유종
	Delphacidae 열구과		
52	<i>Stenocranus matsumurai</i> Metcalf, 1943	일본열구	
	Derbidae 긴날개열구과		
53	<i>Diestrombus politus</i> Uhler, 1896	주홍긴날개열구	
	Flatidae 선녀벌레과		
54	<i>Metcalfa pruinosa</i> (Say, 1830)	미국선녀벌레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Fulgoridae 꽃매미과		
55	<i>Lycorma delicatula</i> (White, 1845)	꽃매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Ricaniidae 큰날개매미총과		

연번	학명	국명	비고
56	<i>Euricania facialis</i> Melichar, 1898	부채날개매미충	
57	<i>Pochazia shantungensis</i> Chou & Lu, 1977	갈색날개매미충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58	<i>Ricania taeniata</i> Stål, 1870	남쪽날개매미충	
Anthocoridae 꽃노린재과			
59	<i>Anthocoris japonicus</i> Poppius, 1909	느티나무꽃노린재	
60	<i>Anthocoris miyamotoi</i> Hiura, 1959	맵시꽃노린재	
Miridae 장님노린재과			
61	<i>Adelphocoris demissus</i> Horváth, 1905	목도리장님노린재	
62	<i>Adelphocoris suturalis</i> (Jakovlev, 1882)	변색장님노린재	
63	<i>Adelphocoris triannulatus</i> (Stål, 1858)	설상무늬장님노린재	
64	<i>Alloeotomus chinensis</i> Reuter, 1903	소나무장님노린재	
65	<i>Alloeotomus simplus</i> (Uhler, 1896)	닭은소나무장님노린재	
66	<i>Apolygus hilaris</i> (Horváth, 1905)	두무늬장님노린재	
67	<i>Apolygus lucorum</i> (Meyer-Dür, 1843)	초록장님노린재	
68	<i>Apolygus pulchellus</i> (Reuter, 1906)	새무늬고리장님노린재	
69	<i>Apolygus spinolae</i> (Meyer-Dür, 1841)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70	<i>Atractotomoidea castanea</i> Yasunaga, 1999	주근깨장님노린재	
71	<i>Capsus pilifer</i> (Remane, 1950)	북방장님노린재	
72	<i>Castanopsides kerzhneri</i> (Josifov, 1985)	참고운고리장님노린재	
73	<i>Castanopsides potanini</i> (Reuter, 1906)	빛고운고리장님노린재	
74	<i>Charagochilus angusticollis</i> (Linnavuori, 1961)	흰송털검정장님노린재	
75	<i>Deraeocoris ater</i> (Jakovlev, 1889)	밀감무늬검정장님노린재	
76	<i>Deraeocoris claspericapilatus</i> (Kulik, 1965)	꼭지무늬장님노린재	
77	<i>Deraeocoris olivaceus</i> (Fabricius, 1777)	대륙무늬장님노린재	
78	<i>Deraeocoris ulmi</i> (Josifov, 1983)	새꼭지무늬장님노린재	
79	<i>Europiella artemisiae</i> (Becker, 1864)	밝은다리장님노린재	
80	<i>Eurystylus coelestialium</i> (Kirkaldy, 1902)	탈장님노린재	
81	<i>Harpocera koreana</i> Josifov, 1977	고려애장님노린재	
82	<i>Lygocoris pabulinus</i> (Linnaeus, 1761)	고리장님노린재	
83	<i>Lygus rugulipennis</i> Poppius, 1911	풀밭장님노린재	
84	<i>Nesidiocoris tenuis</i> (Reuter, 1895)	담배장님노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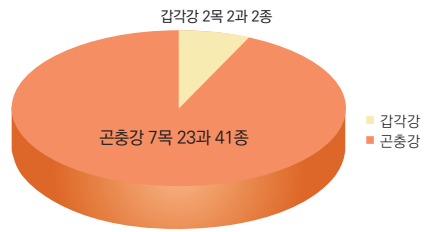
연번	학명	국명	비고
85	<i>Orthocephalus funestus</i> Jakovlev, 1881	암수다른장님노린재	
86	<i>Orthonotus bicoloripes</i> Kerzhner, 1988	코애장님노린재	
87	<i>Orthotylus flavosparsus</i> (Sahlberg, 1841)	명아주장님노린재	
종략			
Vespidae 말벌과			
874	<i>Oreumenes decoratus</i> (Smith, 1852)	큰호리병벌	
875	<i>Parapolybia indica</i> (Saussure, 1854)	큰뱀허물쌍살벌	
876	<i>Parapolybia varia</i> (Fabricius, 1787)	뱀허물쌍살벌	
877	<i>Polistes chinensis antennalis</i> Pérez, 1905	두눈박이쌍살벌	
878	<i>Polistes mandarinus</i> Saussure, 1853	어리별쌍살벌	
879	<i>Polistes snelleni</i> Saussure, 1862	별쌍살벌	
880	<i>Polistes yokahamae</i> Rodoszkowski, 1887	등검정쌍살벌	
881	<i>Rhynchium mandarineum</i> de Saussure, 1855	쌍띠감탕벌	
882	<i>Vespa crabro flavofasciata</i> Cameron, 1903	말벌	
883	<i>Vespa ducalis</i> Smith, 1852	꼬마장수말벌	
884	<i>Vespa mandarinia</i> (Smith, 1852)	장수말벌	
885	<i>Vespa simillima</i> Smith, 1868	털보말벌	
886	<i>Vespula flaviceps</i> Smith, 1870	땅벌	
887	<i>Vespula koreensis</i> Radoszkowski, 1887	참땅벌	
Braconidae 고치벌과			
888	<i>Zombrus bicolor</i> (Enderlein, 1912)	중국고치벌	
분류군 수			888

6) 저서무척추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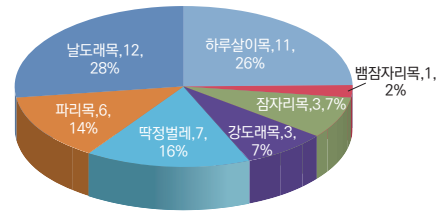
안양시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은 4문 6강 14목 33과 52종이다. 절지동물이 43종으로 가장 많고, 연체동물 5종, 환형동물 3종, 편형동물 1종 등이다. 절지동물은 곤충강 7목 23과 41종이며, 갑각강 2목 2과 2종이다. 곤충강은 하루살이목 5과 11종, 뱀잠자리목 1과 1종, 잠자리목 2과 3종, 강도래목 2과 3종, 딱정벌레목 4과 7종, 파리목 5과 6종, 날도래목이 5과 12종이다. 국외반출 승인대상종인 가는무늬하루살이·쇠측범잠자리·분포특이종 별날도래 등이 서식한다.



안양시 저서무척추동물의 문별 종 조성



안양시 저서무척추동물의 절지동물별 종 구성



안양시 저서무척추동물의 절지동물별 종 구성



계곡물날도래



네점하루살이



다슬기



물벌레

안양시 저서무척추동물

3. 식물상

안양시를 조사 대상지로 해서 관내에 분포하는 식물상을 조사 연구한 결과로는 김태욱과 전승훈(1989)이 관악산 일대에서 91과 243속에 속하는 334종 6아종 35변종 6품종 등 381분류군을 보고하였고,² 이웅빈과 황선민(2009)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안양시를 포함한 군포 도엽에서 42과 70속에 속하는 81종 1아종 8변종 등 90분류군을 보고하였으며,³ 고와 신(2009)은 안양 일대에서 72과 146속에 속하는 186종 3아종 15변종 1품종 등 205분류군을 보고하였다.⁴ 이후 심(2019)은 안양천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96과 276속에 속하는 381종 7아종 20변종 등 408분류군을 보고하였다.⁵

현 등(2021)은 안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의 일환으로 식물상 조사를 수행하였는데,⁶ 문헌 분석을 통해 얻은 식물목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2020년 이전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식물목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결과는 111과 365속에 속하는 585종 10아종 45변종 6품종 등 646분류군이었다.

〈표 19〉 2020년 이전 안양시 관속식물상 조사 결과

구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양치식물	7	12	19	-	1	-	20
나자식물	4	8	12	-	-	-	12
피자식물	100	345	554	10	44	6	614
쌍자엽식물	84	271	438	10	40	5	493
단자엽식물	16	74	116	-	4	1	121
계	111	365	585	10	45	6	646

출처: 현진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한편, 현장조사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34일에 걸쳐 도시녹지 식생조사와 병행하여 수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양치식물 10과 16속 25종 1변종의 26분류군, 나자식물 5과 18속 31종 2변종 1품종의 34분류군, 쌍자엽식물 110과 338속 607종 11아종 52변종 12품종의 682분류군, 단자엽식물 21과 92속 157종 12변종 2품종의 171분류군 등 146과 464속에 속하는 820종 11아종 67변종 15품종 등 913분류군이었다.

〈표 20〉 안양시 관속식물상 현장조사 결과

구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양치식물	10	16	25	-	1	-	26
나자식물	5	18	31	-	2	1	34
피자식물	131	430	764	11	64	14	853
쌍자엽식물	110	338	607	11	52	12	682
단자엽식물	21	92	157	-	12	2	171
계	146	464	820	11	67	15	913

출처: 현진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현장조사에서 과 수준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분류군은 국화과로 98분류군이며, 다음으로는 벼과가 77분류군, 장미과가 72분류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도시공원 내 녹지 등에 식재된 식물은 254분류군으로 이 중 64분류군은 외래종이며, 원예 및 농작물로 식재한 식물은 주로 1년생 초본류가 대부분으로 152분류군이었다.

최종적으로 이 조사에서는 문헌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안양시에 생육하고 있는 관속식물을 149과 514속에 속하는 954종 13아종 78변종 18품종 등 1063분류군으로 보고하였다.

〈표 21〉 안양시 관속식물 현황

구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양치식물	11	17	28	-	1	-	29
나자식물	5	18	31	-	2	1	34
피자식물	133	479	895	13	75	17	1,000
쌍자엽식물	112	378	705	13	62	15	795
단자엽식물	21	101	190	-	13	2	205
계	149	514	954	13	78	18	1,063

출처: 현진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안양시의 주요 식물 중에서 국가적색목록 주요 범주 중은 위기종(EN) 구상나무·승마왕벚나무 등 3분류군, 취약종(VU) 가문비나무·향나무·산개나리 등 3분류군 등의 멸종우려종 6분류군과 준위협종(NT) 쑥방망이·흑삼릉·산미늘·두메부추 등 4분류군이다. 이 중 승마·산개나리·쑥방망이 3분류군은 문헌에서 확인하였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흑삼릉을 제외한 모든 분류군은 식재한 것이었다.

〈표 22〉 안양시 국가적색목록 수록 식물

구분	학명	국명	문헌	현지	비고*
위기종 (EN)	<i>Abies koreana</i> E.H. Wilson	구상나무		●	고, 식
	<i>Cimicifuga heracleifolia</i> Kom.	승마	○		
	<i>Prunus × yedoensis</i> Matsum.	왕벚나무		●	고, 식
취약종 (VU)	<i>Forsythia saxatilis</i> (Nakai) Nakai	산개나리	○		고, 식
	<i>Juniperus chinensis</i> L.	-향나무	○	●	식
	<i>Picea jezoensis</i> (Siebold & Zucc.) Carrière	가문비나무		●	식
준위협종 (NT)	<i>Senecio argunensis</i> Turcz.	쑥방망이	○		식
	<i>Sparganium erectum</i> L.	흑삼릉		●	
	<i>Allium microdictyon</i> Prokh.	산마늘		●	식
	<i>Allium senescens</i> L.	두메부추		●	식

출처: 현진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주) * 고: 한반도 고유종, 식: 식재

국가적색목록은 우리나라 식물을 대상으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평가법에 따라 멸종위기에 놓인 정도를 평가한 목록으로서 멸종에 해당하는 절멸(EX)·야생절멸(EW)·지역절멸(RE), 멸종우려에 해당하는 위급(CR)·위기(EN)·취약(VU), 그 외의 준위협(NT)·관심대상(LC)·정보부족(DD)·미평가(NE)·미적용(NA) 등의 범주가 있다.

안양시의 한반도 특산식물은 구상나무·벌개미취·산개나리·털조록싸리 등 17과 24속에 속하는 21종 4변종 2품종 등 27분류군이다. 이들 특산식물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자생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귀중한 식물자원이라 할 수 있다.

안양시에 자생하는 한반도 특산식물 중에서 최신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분류군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개나리(*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물푸레나뭇과)

전국의 마을 근처에 자라는 낙엽 떨기나무이다. 줄기는 높이 2~5m, 가지가 늘어지며, 점차 회갈색으로 되고, 피목이 뚜렷하다. 줄기의 속은 흰색, 군데군데 비었거나 계단을 이룬다. 잎은 마주나며, 피침형 또는 난상 피침형, 길이 3~12cm, 너비 3cm쯤이며 끝이 길게 뾰족하다. 가장자리 중앙 이상에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길이 1~2cm이다. 꽃은 2~4월에 잎보다 먼저 암수딴그루에 피며, 잎겨드랑이에서 1~3개씩 달리고, 노란색이

다. 꽃부리는 긴 종 모양 또는 깔때기 모양이고, 끝이 4갈래로 깊게 갈라지며 수평으로 벌어진다. 열매는 삭과이다.

○ 변산바람꽃(*Eranthis byunsanensis* B.-Y. Sun 미나리아재빗과)

산지 숲 가장자리 전석지轉石地에 나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10~30cm이다. 땅속줄기는 구형이며 지름 1.5cm쯤이다. 뿌리잎은 오각상 원형에 길이 3~5cm, 3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옆쪽 갈래는 또다시 2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잎자루는 길다. 꽃은 2~4월에 꽃자루 끝에 1개씩 피며, 흰색, 지름 3cm쯤이다. 모인꽃싸개잎은 2장, 각각 불규칙하게 3~4개 갈래로 갈라져 선형으로 된다. 꽃받침잎은 5~7장, 난상 타원형이다. 꽃잎은 깔때기 모양, 4~11개, 황록색, 끝이 약간 파인다. 열매는 골돌과, 심피는 2~8개, 길이 1cm쯤, 3~5월에 익는다.

○ 백운산원추리(*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백합과)

전국의 산지 숲 가장자리나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 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뿌리는 끝부분이 부풀다. 잎은 선형, 길이 50~100cm, 너비 1.5~2cm, 끝이 뾰족하다. 꽃은 주황색, 6~7월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핀다. 꽃은 3~14개가 총상꽃차례에 달리며, 길이 10cm 이하, 향기가 없다. 꽃자루는 5.0cm 이상으로 길다. 꽃줄기는 3회 이상 가지가 갈라지며, 높이 55~100cm이다. 화피 통부는 길이 2~3cm이다. 꽃밥은 장타원형, 길이 5~9cm, 갈색이다. 암술은 길이 7.6~12cm이다. 열매는 삭과, 3릉형 타원체이다.

○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Nakai) L.H. Bailey 물푸레나무과)

전국의 산기슭에 자라는 낙엽활엽 떨기나무로 높이 2~3m이다. 줄기 밑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수피는 회흑색, 피목이 발달한다. 잎은 마주나며, 잎자루는 거의 없고, 도란형 또는 도란상 피침형, 길이 1~7cm, 너비 1~5cm, 끝이 길게 뾰족하다. 잎 양면에 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잔 거치가 있다. 꽃은 5~6월에 1~2개씩 잎겨드랑이에서 피고, 깔때기 모양이다. 꽃은 황록색이 돌지만 차츰 적색으로 변한다. 꽃받침은 기부까지 깊게 갈라지며, 꽃받침조각은 선형, 5개, 털이 백백하다. 열매는 삭과, 9~10월에 익는다.

- 새머느리밥풀(*Melampyrum setaceum* (Maxim. ex Palib.) Nakai var. *nakaianum* (Tuyama)
T. Yamaz. 현삼과)

중부 이북의 산지에 자라는 한해살이풀이다. 줄기는 곧추서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높이 50cm쯤이다. 잎은 마주나며, 피침형 또는 넓은 피침형으로, 길이 6~7cm, 너비 1~2cm, 끝이 길게 뾰족하다. 꽃은 8~9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서 총상꽃차례로 달리며, 자주색이다. 꽃자루는 매우 짧다. 꽃싸개잎은 난형, 꽃과 같은 색이고, 가장자리에 가지 모양 톱니가 있다. 꽃받침은 4갈래로 갈라지고, 끝이 뾰족하다. 꽃부리는 입술 모양, 길이 1.5cm쯤이다. 열매는 삭과, 납작한 난형, 끝은 뾰족하다.

- 서울제비꽃(*Viola seoulensis* Nakai 제비꽃과)

중부지방 들판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뿌리줄기는 굵다. 잎은 뿌리에서 모여나고, 장타원형 또는 난형, 밑은 수평 또는 심형이며 끝은 둔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잎 양면에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3.5mm, 윗부분에 날개가 있다. 턱잎은 잎자루 밑에 붙고, 끝이 떨어지며, 선형이고 톱니가 약간 있다. 꽃은 4~5월에 잎 사이에서 꽃자루가 나와 1개씩 달리며, 홍자색이다. 꽃은 좌우대칭, 5수성이다. 꽃받침은 가장자리가 흰색 막질이고, 꽃잎은 보라색 맥이 있으며 겹꽃잎에 털이 약간 있다. 열매는 삭과로 난상 타원형이며, 5~7월에 익는다.

〈표 23〉 안양시 한반도 특산식물 현황

학명	국명	문헌	2021	비고
<i>Abies koreana</i> E.H. Wilson	구상나무		●	식
<i>Aster koraiensis</i> Nakai	별개미취	○	●	식
<i>Campanula takesimana</i> Nakai	섬초롱꽃		●	식
<i>Clematis brachyura</i> Maxim.	외대으아리	○		
<i>Clematis trichotoma</i> Nakai	할미밀망	○		
<i>Coreanomecon hylomeconoides</i> Nakai	매미꽃		●	식
<i>Corydalis albipetala</i> B.U. Oh	흰현호색		●	
<i>Eranthis byunsanensis</i> B.-Y. Sun	변산바람꽃		●	

학명	국명	문헌	2021	비고
<i>Forsythia koreana</i> (Rehder) Nakai	개나리	○	●	식
<i>Forsythia saxatilis</i> (Nakai) Nakai	산개나리	○		
<i>Geranium koreanum</i> Kom.	동근이질풀		●	
<i>Hemerocallis hakuunensis</i> Nakai	백운산원추리		●	
<i>Iris odaesanensis</i> Y.N. Lee	노랑무늬붓꽃*	○		식
<i>Lespedeza maximowiczii</i> C.K. Schneid. var. <i>tomentella</i> (Nakai) Nakai	털조록싸리	○	●	
<i>Lilium amabile</i> Palib.	털종나리*		●	
<i>Melampyrum setaceum</i> (Maxim. ex Palib.) Nakai var. <i>nakaianum</i> (Tuyama) T. Yamaz.	새머느리밥풀		●	
<i>Paulownia coreana</i> Uyeki	오동나무	○	●	
<i>Rhododendron yedoense</i> Maxim. ex Regel	겹산철쭉*		●	식
<i>Rhododendron yedoense</i> Maxim. ex Regel for. <i>albiflora</i> H.T. Chang	흰산철쭉		●	식
<i>Salix koriyanagi</i> Kimura ex Goerz	키버들*		●	
<i>Scrophularia koraiensis</i> Nakai	토현삼	○		
<i>Sedum takesimense</i> Nakai	섬기린초		●	식
<i>Syringa Patula</i> (Palib.) Nakai var. <i>kamibayashii</i> (Nakai) M. Kim for. <i>lactea</i> (Nakai) M. Kim	흰정향나무	○		식
<i>Thalictrum actaeifolium</i> Siebold & Zucc. var. <i>brevistylum</i> Nakai	은평의다리	○		
<i>Vaccinium hirtum</i> Thunb. var. <i>koreanum</i> (Nakai) Kitam.	산앵도나무*	○	●	
<i>Viola seoulensis</i> Nakai	서울제비꽃	○	●	
<i>Weigela subsessilis</i> (Nakai) L.H. Bailey	병꽃나무	○	●	
분류군 수	27	14	20	

출처: 현진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주) * 이 분류군은 학계의 최신 연구에서 주변국 분포 등의 이유로 특산식물에서 제외되었다.

안양시의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68과 118속에 속하는 139종 16변종 1품종 등 156분류군이다. V등급은 눈향나무·목련·승마 등 3분류군, IV등급은 갈매나무·긴잎갈퀴·노랑무늬붓꽃 등 19분류군, III등급은 가문비나무·가침박달·거제수나무 등 49분류군, II등급은 꼬리조팝나무·꽃창포·핑고비 등 32분류군, I등급은 가래나무·개비자나무·거지덩굴 등 53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구상나무·가문비나무·눈향나무 등 식재한 식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분포 특이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안양시에 자생하는 한반도 특산식물



개나리



변산비람꽃



백운산원추리



병꽃나무



새머느리밥풀



서울제비꽃

이상 분포 특이성이 높은 식물들을 1~5등급으로 정한 것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희귀하게 분포하는 식물임을 뜻하며 널리 분포하는 종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24〉 안양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현황

구분	국명	분류군 수
V등급	눈향나무, 목련, 승마	3
IV등급	갈매나무, 긴잎갈퀴, 노랑무늬붓꽃, 등, 망개나무, 매미꽃, 비솔나무, 산개나리, 산매늘, 산목새, 산복사, 섬기린초, 섬초롱꽃, 송솔나무, 왕벚나무, 중나리, 촉백나무, 토현삼, 히어리	19
III등급	가문비나무, 가침박달, 거제수나무, 고광나무, 구상나무, 금낭화, 까치밥나무, 꽃황새냉이, 끈끈이장구채, 난티나무, 노루삼, 단풍나무, 당귀, 매발톱, 모감주나무, 무환자나무, 물박달나무, 변산바람꽃, 병아리꽃나무, 병조희풀, 복자기, 분비나무, 산벚나무, 산영도나무, 새며느리밥풀, 선갈퀴, 쉬땅나무, 식나무, 췌기풀, 애기며느리밥풀, 여로, 외대으아리, 옹머리, 이팝나무, 인가목조팝나무, 좀목형, 좀작살나무, 좀살풀, 종덩굴, 참조팝나무, 청시닥나무, 큰평의비름, 큰족제비고사리, 탕자나무, 팔손이, 향나무, 호랑가시나무, 흑삼릉, 흰현호색	49
II등급	곰취, 꼬리조팝나무, 꽃창포, 광고비, 노랑제비꽃, 돌단풍, 들양지꽃, 동자꽃, 동근이질풀, 마가목, 미역줄나무, 민둥갈퀴, 민둥외제비꽃, 붉은병꽃나무, 소영도리나무, 어리연, 오리나무, 왕쌔새, 잣나무, 전나무, 주목, 질경이택사, 참명아주, 창포, 큰개현삼, 택사, 톱풀, 피나무, 피나무, 함박꽃나무, 해당화, 황벽나무	32
I등급	가래나무, 개비자나무, 거지덩굴, 계요등, 괴불나무, 까치수염, 나리난초, 노랑물봉선, 노랑어리연, 노루귀, 느릅나무, 동백나무, 두루미천남성, 들메나무, 말발도리, 매화말발도리, 물참대, 백당나무, 백선, 버들화나무, 범부채, 보리밥나무, 봉의꼬리, 비목나무, 비자나무, 삻꼭채, 사철나무, 산괭이눈, 산돌배나무, 산물통이, 소사나무, 송악, 시무나무, 쑥방망이, 야광나무, 야산고비, 연복초, 오갈피나무, 울벚나무, 왕버들, 일월비비추, 자주괴불주머니, 좀사철나무, 쥐방울덩굴, 참느릅나무, 초롱꽃, 공배나무, 타래꽃, 터리풀, 투구꽃, 하늘나리, 헛개나무, 회나무, 회양목, 흰진범	53
156 분류군		

출처: 현진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주) 이 목록은 식재한 분류군을 포함하고 있음.

안양시에 자생하는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에서 최신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분류군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꼬리조팝나무(*Spiraea salicifolia* L. 장미과)

전국의 계곡 주변, 물기가 많은 초지에 자라는 떨기나무이다. 줄기는 모여나며, 높이 1~2m이다. 잎은 어긋나며 피침형이고, 길이 4~10cm, 너비 1~3cm에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 또는 겹톱니가 있다. 잎 앞면은 녹색, 뒷면은 연한 녹색이다. 잎자루는 2~4mm, 털이 없다. 꽃은 6~8월에 햇가지 끝에서 길이 6~13cm의 원추꽃차례에 피며, 연한 붉은색으로, 지름 5~7mm이다. 꽃차례와 꽃자루에 털이 많다. 꽃잎은 5장이며 둥글다. 수술은 많고, 붉은색이며 꽃잎보다 2배쯤 길다. 씨방은 4~7실이다. 열매는 골돌, 털이 있다.

○ 노랑제비꽃(*Viola orientalis* (Maxim.) W. Becker 제비꽃과)

전국의 높은 산 숲속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곧추서며, 높이 10~20cm이다. 뿌리에서 난 잎은 2~3장, 심장형, 길이와 너비가 각각 2.5~4cm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잎 뒷면은 갈색을 띠며, 뽕양게 된다. 줄기에 달린 잎은 맨 아래 1장을 제외하고는 잎자루가 짧다. 꽃은 4~5월에 잎겨드랑이에서 2~3개씩 피며, 노란색이다. 꽃잎은 5장이다. 열매는 삭과, 난상 타원형, 세모가 진다. 줄기가 있는 유경종 제비꽃이며, 노란 꽃이 피므로 다른 제비꽃 종류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동북아시아에 분포한다.

○ 미역줄나무(*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노박덩굴과)

전국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자라는 덩굴나무이다. 줄기는 길이 2~4m, 곁에 5~6개의 모난 줄이 있다. 가지는 붉은 갈색이며 돌기가 많다. 잎은 어긋나며, 넓은 난형 또는 타원형, 길이 5~15cm, 너비 4~10cm,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1.5~3cm이다. 꽃은 흰색, 6~7월에 잎겨드랑이와 가지 끝에서 난 길이 10~25cm의 원추꽃차례에 달리며, 지름 5~6mm이다. 꽃받침은 5갈래, 갈래는 삼각형이다. 꽃잎은 5장이며 타원형이고 꽃받침보다 길다. 수술은 5개이다. 열매는 시과, 9~10월에 익으며, 길이는 1.5cm 쯤 되며, 날개가 3개 있다.

○ 병조희풀(*Clematis heracleifolia* DC. var. *urticifolia* (Nakai ex Kitag.) U.C. La 미나리아재비과)

전국의 산지 숲속에 자라는 낙엽활엽 반떨기나무이다. 줄기는 높이 1~1.5m, 밑부분이 목질이다. 잎은 마주나며, 작은 잎 3장으로 된 겹잎이다. 작은 잎은 넓은 난형, 길이 6~15cm, 가장자리에 보통 결각은 없고 톱니가 있다. 꽃은 7~9월에 줄기 위쪽의 잎겨드랑이에 모여 달리고, 보라색 또는 하늘색이다. 꽃받침은 꽃잎 모양, 위쪽은 4갈래로 갈라져 거의 수평으로 퍼지며, 아래쪽은 관 모양으로 조금 볼록하다. 열매는 수과, 여러 개가 모여 달리며, 긴 털이 달린 길이 2cm 이상의 암술대가 남아 있다.

○ 산앵도나무(*Vaccinium hirtum* Thunb. var. *koreanum* (Nakai) Kitam. 진달래과)

전국의 높은 산에 자라는 낙엽활엽 떨기나무로 높이 1m쯤이다. 어린 가지에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며, 넓은 피침형 또는 난형, 길이 3~6cm, 양 끝이 뾰족하다. 잎 앞면은 털이 없으나 뒷면은 맥 위에 털이 있다. 잎 가장자리에 안으로 굽은 잔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짧다. 꽃은 5~6월에 지난해 가지 끝에서 나온 총상꽃차례에 2~3개씩 달리고, 밑으로 처지며, 연한 붉은빛이다. 꽃받침은 5갈래이다. 꽃부리는 종형, 길이 5~6mm이다. 수술은 5개이며 수술대에 털이 있다. 열매는 타원형 장과, 지름 7~8mm이고 9월에 붉게 익으며, 먹을 수 있다.

○ 어리연(*Nymphoides indica* (L.) Kuntze 조름나물과)

중부 이남의 연못과 강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수생식물이다. 뿌리줄기는 진흙 속에서 옆으로 길게 뻗어 물속에서 비스듬히 길이 1m 이상 자라며, 가늘다. 잎은 물 위에 뜨며, 둥근 심장형, 지름 7~20cm로 밑부분이 깊게 갈라진다. 잎자루는 길이 1~2cm이다. 꽃은 8~10월에 잎자루 밑부분에서 긴 꽃자루가 여러 개 물 위로 나와 끝에 1개씩 달리며, 흰색이지만 가운데는 노란색이다. 꽃받침조각은 넓은 피침형, 길이 4~6mm이다. 꽃부리는 지름 1.5cm쯤 되며, 안쪽에 흰색 긴 털이 있다. 열매는 삭과, 10~11월에 익는다.

○ 창포 (*Acorus calamus* L. 창포과)

전국의 연못과 강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수생식물이다.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뻗는다. 잎은 선형, 길이 60~90cm, 너비 5~15mm이며, 끝이 뾰족하고 가운데 잎줄이 도드라진다. 꽃줄기는 높이 30cm쯤이다. 꽃싸개잎은 길이 20~40cm, 너비 0.5~0.8cm이고, 위로 곧추선다. 꽃은 5~8월에 육수꽃차례로 피며, 녹색이 도는 노란색이다. 꽃차례는 둥근 모양, 길이 4~7cm, 지름 0.6~1.5cm이며 옆으로 비스듬히 선다. 화피는 6장, 넓은 선형, 길이 3mm쯤이다. 수술은 6개이고, 수술대는 흰색, 꽃밥은 노란색이다.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장과, 긴 타원형이며, 붉게 익는다.

○ 피나무(*Hylomecon vernalis* Maxim. 양귀비과)

중부 이북의 습기가 많은 산지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높이 20~30cm이다. 뿌리잎은 잎자루가 긴 깃꼴겹잎이며, 작은 잎 5~7장,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줄기잎은 어긋나며, 잎자루가 짧고, 작은 잎 3~5장이다. 꽃은 4~5월에 줄기 끝부분의 잎겨드랑이에 1~3개씩 피며, 노란색이고 지름 3cm쯤이다. 꽃받침잎은 2장, 녹색이며 일찍 떨어진다. 꽃잎은 보통 4장이며, 마주난 2장이 조금 더 크고, 윤이 조금 난다. 열매는 삭과, 기둥 모양이며 길이 3~5cm, 5~6월에 익는다.

○ 함박꽃나무(*Magnolia sieboldii* K. Koch 목련과)

전국의 산지 숲속에 자라는 낙엽 작은키나무로 높이 6~10m이다. 수피는 회백색, 오래되면 피목이 생긴다. 어린 가지는 회색빛을 띤 갈색, 누운 털이 있다. 꽃눈은 긴 타원 모양, 가죽질이다.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 또는 넓은 도란형이며, 길이 6~15cm, 너비 5~10cm 정도 되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잎 뒷면은 회색빛이 도는 녹색이며, 맥 위에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1~2cm이다. 꽃은 5~6월에 잎이 난 후에 옆이나 밑을 향해 피며, 흰색으로 향기가 난다. 꽃받침잎은 3장, 난형이며, 꽃잎보다 작다. 꽃잎은 6~9장이고 도란형이다. 열매는 골돌과, 9월에 익는다.

○ 회양목(*Buxus microphylla* Siebold & Zucc. var. *koreana* Nakai ex Rehder 회양목과)

산지 석회암지대에서 자라는 상록활엽 떨기나무이다. 줄기는 높이 1~3m이지만 7m까지 자란다. 어린 가지는 녹색이며, 네모지고 털이 있다. 잎은 마주나며, 가죽질에 난형 또는 긴 타원형이고 길이 1.5~2cm, 너비 0.7~1.0cm, 끝이 뾰족하고, 뒷면에 털이 난다. 꽃은 암수한 그루로 3~4월에 피며, 열은 노란색으로 가지 끝부분의 잎겨드랑이에 모여 달리는데, 가운데 암꽃이 1개 있고, 둘레에 몇 개의 수꽃이 달린다. 꽃받침조각은 4장이고 꽃잎은 없다. 수꽃은 수술이 1~4개 있고, 꽃밥은 노란색이다. 열매는 난형 삭과, 길이 1.0cm쯤 되며, 7~8월에 익는다.

안양시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대상종)은 신갈나무·잣나무 등 2분류군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

안양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꼬리조팝나무



노랑제비꽃



미역줄나무



병조희풀



산앵도나무



어리연



창포



피나물



함박꽃나무



회양목

해 국가 간 이동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이다.

안양시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식물은 가문비나무·가침박달·각시붓꽃 등 64과 135속에 속하는 157종 3아종 19변종 3품종 등 182분류군이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외로 반출할 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을 말한다.

안양시에 자생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식물 중에서 최신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분류군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각시붓꽃(*Iris rossii* Baker 붓꽃과)

전국의 숲속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곧추서며, 여러 대가 모여서 나고, 높이 10~30cm이다. 잎은 칼 모양이며, 길이 30cm, 너비 2~10mm, 끝이 매우 뾰족하다. 꽃은 4~5월에 5~15cm의 꽃줄기 끝에 1개씩 피며, 보통 보라색이지만 드물게 흰색이 있고, 지름 3.5~4cm이다. 꽃싸개잎은 2~3장, 선형이며 길이 4~6cm로 다소 크고, 꽃 바로 밑에 붙지 않는다. 바깥 화피는 3장으로, 좁은 도란형이며, 중앙 무늬는 변이가 심하다. 안쪽 화피는 3장, 주걱 모양이고, 비스듬히 선다. 암술대는 2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꽃밥은 노란색이다. 열매는 삭과이고, 둥글다.

○ 고평나무(*Philadelphus schrenkii* Rupr. 수국과)

전국의 산골짜기에 자라는 낙엽활엽 떨기나무이다. 줄기는 높이 2~4m에 수피는 회색이며, 잔가지에 털이 있고, 2년생 가지는 수피가 벗겨진다. 잎은 마주나고,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며, 길이 5~10cm, 너비 3~5cm이다. 잎 양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뚜렷하지 않은 톱니가 있다. 잎 뒷면은 맥 위에 잔털이 있다. 과지의 잎은 작다. 꽃은 4~5월에 가지 끝이나 잎겨드랑이에 총상꽃차례로 5~7개씩 달린다. 꽃자루는 6~13mm, 꽃받침통과 더불어 털이 있다. 꽃잎은 4장, 도란상 원형이다. 암술머리는 4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난형 삭과이며, 9월에 익는다.

○ 까치수염(*Lysimachia barystachys* Bunge 앵초과)

전국의 숲 가장자리나 들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 잎, 꽃자루에 털이 많다. 줄기는 높이 50~100cm, 붉은빛이 도는 원기둥 모양이고 가지를 친다. 잎은 어긋나며, 긴 타원형인데 길이 3~10cm, 너비 1~2cm로 백백하게 달린다.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차츰 좁아져서 잎밑이 잎자루처럼 된다. 꽃은 6~8월에 줄기 끝의 꼬리처럼 굽은 총상꽃차례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피며, 흰색, 지름 7~12mm이다. 꽃자루는 길이 4~7mm, 꽃싸개잎은 선형이다. 꽃차례는 길이 10~20cm이다. 열매는 삭과이며 둥글고, 9월에 붉은 갈색으로 익는다.

○ 꿀풀(*Prunella asiatica* Nakai 꿀풀과)

전국의 햇볕 잘 드는 곳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털이 많고, 높이 20~60cm이다. 잎은 마주나며,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 길이 3~5cm, 너비 1.0~1.5cm,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톱니가 조금 있다. 잎자루는 1~2cm이다. 꽃은 5~7월에 줄기 끝 수상꽃차례에 백백하게 달리며, 입술 모양의 보라색·분홍색, 길이 1.8~2.1cm이다. 꽃차례는 길이 3~8cm이다. 꽃받침은 입술 모양, 길이 7~10mm, 5갈래로 갈라진다. 꽃부리는 아랫입술이 3갈래로 갈라진다. 수술은 4개, 2개가 길다. 열매는 소견과이며, 4개로 갈라지고, 노란빛이 도는 갈색으로 익는다.

○ 노린재나무(*Symplocos sawafutagi* Nagam. 노린재나무과)

전국의 산지 숲속에 자라는 낙엽활엽 떨기나무로 높이 1~3m이다. 수피는 세로로 갈라진다. 잔가지는 옆으로 퍼지고,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며, 타원상 도란형, 길이 3~9cm, 너비 1.5~5cm, 양 끝이 뾰족하다. 잎 앞면은 짙은 녹색, 털이 없고, 뒷면은 털이 있거나 없다. 잎 가장자리에 긴 톱니가 있으나 때로는 뚜렷하지 않다. 꽃은 5월에 새 가지 끝에서 길이 4~8cm의 원추꽃차례에 피며, 지름 8~10mm, 흰색에 향기가 있다. 꽃대에 털이 있다. 꽃잎은 긴 타원형, 옆으로 퍼진다. 열매는 타원형 핵과, 길이 7mm쯤이며 9월에 짙은 빛으로 익는다.

○ 누리장나무(*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마편초과)

전국의 산록에 자라는 낙엽활엽 떨기나무로 높이가 2m쯤이다. 잎은 마주나며, 넓은 난형, 길이 8~20cm, 너비 5~13cm, 끝은 점차 뾰족하고, 밑은 뾰족하거나 반듯하다. 앞면은 녹색에 털이 없고, 뒷면은 맥 위에 털이 있고 희미한 선점이 흩어져 있다.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큰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길이 3~10cm, 털이 있다. 꽃은 7~9월에 새 가지 끝에서 나온 취산꽃차례에 피며, 지름 3cm, 5갈래로 갈라지며, 흰색이다. 꽃받침은 홍색, 5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열매는 핵과, 짙은 푸른색으로 익고, 홍색 꽃받침으로 싸여 있다.

○ 바위채송화(*Sedum polytrichoides* Hemsl. 돌나물과)

전국의 산지나 해변 바위 곁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높이 7~9cm이다. 잎은 어긋나며, 선형 또는 선상 도피침형이고 길이 6~15mm, 너비 1.2~2.5mm이며, 끝이 뾰족하다. 뒷면은 잎맥이 뚜렷하다. 꽃은 6~8월에 2~3갈래로 갈라진 안목상 취산꽃차례에 피며, 노란색으로 지름 10mm쯤이다. 꽃자루는 없다. 꽃싸개는 잎 모양이며 꽃보다 길다. 꽃은 4~6수성이다. 꽃받침은 깊게 갈라지며, 피침형, 녹색, 다육질이다. 수술은 2줄로 배열하며, 꽃잎에 마주난 수술이 꽃받침에 마주난 것보다 짧다. 꽃밥은 노란색, 수술대는 연한 노란색이다. 열매는 삭과이다.

○ 산수국(*Hydrangea serrata* (Thunb.) Ser. var. *acuminata* (Siebold & Zucc.) Nakai 수국과)

강원도 이남의 계곡이나 산기슭 바위지대에 자라는 낙엽활엽 떨기나무이다. 줄기는 높이 0.5~2m이다. 잎은 마주나며, 장타원형 또는 난형이고, 길이 5~15cm, 너비, 3~6cm,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다. 잎 양면에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 1~3cm이다. 꽃은 7~8월에 줄기 끝의 산방꽃차례에 달린다. 무성화는 꽃차례 주변부에 달리며, 분홍색 또는 파란색 꽃받침조각 3~8장이 마치 꽃잎 같다. 양성꽃은 꽃차례 중앙부에 달리며, 꽃받침조각은 5장, 삼각형, 꽃잎은 5장, 타원형, 수술은 1개, 암술은 2~3개이다. 열매는 삭과, 9~10월에 익는다.

○ 은방울꽃(*Convallaria keiskei* Miq. 백합과)

전국의 숲속 또는 양지바른 풀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잎은 2~3장이 아래쪽에서 나며, 긴 타원형 또는 넓은 타원형, 길이 12~18cm, 너비 3~7cm, 끝이 뾰족하다. 잎 앞면은 짙은 녹색, 뒷면은 흰빛이 도는 녹색이다. 꽃은 4~5월에 높이 25~35cm의 꽃줄기 위쪽에 10여 개가 총상꽃차례를 이루어 땅을 향해 피며, 지름 5mm쯤이고, 흰색이다. 꽃자루는 길이 6~12mm이다. 꽃부리는 넓은 종 모양, 끝이 6갈래로 갈라지고, 조금 뒤로 말린다. 수술은 6개, 꽃부리 밑부분에 붙는다. 열매는 둥근 장과, 지름 6mm쯤이며 5~6월에 붉게 익는다.

○ 참빗살나무(*Euonymus hamiltonianus* Wall. 노박덩굴과)

전국의 산기슭에서 자라는 낙엽활엽 떨기나무 또는 작은키나무이다. 줄기는 높이 8m 내외이다. 잎은 마주나며,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 길이 5~15cm, 너비 2~6cm, 가장자리에 둔한 잔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길이 0.8~3.5cm이다. 꽃은 5~6월에 지난해 가지의 잎겨드랑이에 취산꽃차례로 3~12개씩 달리며, 연한 녹색, 지름 8mm쯤이다. 꽃자루는 길이 2~2.5cm이다. 꽃받침은 4갈래로 갈라진다. 꽃잎은 4장, 긴 타원형, 꽃받침잎보다 3배쯤 길다. 수술은 4개,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 지름 0.8~1cm이고, 10~11월에 붉게 익는다.

〈표 25〉 안양시 CITES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 식물 현황

구분	국명	분류군수
CITES 대상종	신갈나무, 잣나무	2
국외 반출 승인 대상	가문비나무, 가침박달, 각시붓꽃, 감국, 개나리, 개비자나무, 겁산철쭉, 고광나무, 고로쇠나무, 굴치, 괴불나무, 구상나무, 귀룽나무, 금낭화, 기린초, 긴병꽃풀, 까치밥나무, 까치수염, 꼬리조팝나무, 꽃창포, 꾸지뽕나무, 꿀풀, 평의비름, 끈끈이장구채, 나비국수나무, 낙죽고사리, 노랑무늬붓꽃, 노랑어리연, 노랑제비꽃, 노루귀, 노루오줌, 노린재나무, 누리장나무, 눈향나무, 능수버들, 대래, 단풍나무, 덩굴, 대추나무, 더덕, 더위지기, 달팽나무, 도라지, 돌단풍, 돌양지꽃, 돌콩, 동백나무, 동자꽃, 두루미천남성, 두메부추, 동굴레, 둥근이질풀, 땃총나무, 때죽나무, 마가목, 마식풀, 말발도리, 망개나무, 매미꽃, 매발톱, 매화말발도리, 맥문동, 모감주나무, 목련, 물봉선, 물참대, 미나리, 미나리병이, 미역취, 바위채송화, 백당나무, 백선, 백운산원추리, 버들화나무, 벌개미취, 범부채, 변산바람꽃, 병꽃나무, 병아리꽃나무, 복분자딸기, 복자기, 분꽃나무, 붉은병꽃나무, 붓꽃, 비수리, 삿갓채, 사철나무, 산개나리, 산국, 산돌배나무, 산딸나무, 산마늘, 산비장이, 산사나무, 산수국, 산영도나무, 산자고, 산철쭉, 산초나무, 서어나무, 서울제비꽃, 섬기린초, 섬초롱꽃, 소영도리나무, 소태나무, 솔송나무, 송악, 솔매랭이꽃, 쉬땅나무, 신나무, 싸리, 쑥방망이, 야광나무, 약모밀, 어리연, 여우궁, 연복초, 오갈피나무, 오동나무, 왕머루, 왕벚나무, 외대아리, 용담, 용머리, 우산나물, 은꿩의다리, 은방울꽃, 은사시나무, 음나무, 이질풀, 이팝나무, 인가목조팝나무, 일월비비추, 잣나무, 조팝나무, 좁목형, 좁사철나무, 죽대, 중나리, 쥐방울덩굴, 쥐오줌풀, 쪽동백나무, 참개암나무, 참나리, 참나물, 참빗 살나무, 참조팝나무, 창포, 철쭉, 초피나무, 측백나무, 콩배나무, 큰애기나리, 키버들, 타래붓꽃, 터리풀, 털조록싸리, 털중나리, 토현삼, 파드득나물, 팔배나무, 패랭이꽃, 풀송대, 피나무, 피나무, 하늘나리, 할미꽃, 할미밀망, 함박꽃나무, 해당화, 향나무, 헛개나무, 호랑가시나무, 호장근, 화살나무, 회양목, 흑삼릉, 흰산철쭉, 흰정향나무, 흰진범, 흰현호색, 히어리	182
183분류군*		

주) 이 목록은 식재한 분류군을 포함하고 있음(* 잣나무 중복)

출처: 현진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안양시 국외반출 승인대상 식물



각시붓꽃



고광나무



까치수염



꿀풀



노린재나무



누리장나무



바위재송화



산수국



은방울꽃



참빗살나무

안양시에 침입해 자라는 생태계 교란식물은 돼지풀·단풍잎돼지풀·서양등골나물·도깨비가지·애기수영·가시박·서양금혼초·미국쑥부쟁이·양미역취·가시상추·환삼덩굴 등 11 종류이다. 환경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은 악성 귀화식물로서 생태계 및 인간 생활에 해를 주는 식물이며, 현재 17종류가 있다.

〈표 26〉 안양시 생태계 교란식물 현황

연번	학명	국명	2020년 이전	2021년
1	<i>Ambrosia artemisiifolia</i> L.	돼지풀	○	●
2	<i>Ambrosia trifida</i> L.	단풍잎돼지풀	○	●
3	<i>Ageratina altissima</i> L.R.M. King & H. Rob.	서양등골나물	○	●
4	<i>Solanum carolinense</i> L.	도깨비가지		●
5	<i>Rumex acetosella</i> L.	애기수영	○	●
6	<i>Sicyos angulatus</i> L.	가시박	○	●
7	<i>Hypochaeris radicata</i> L.	서양금혼초		●
8	<i>Aster pilosus</i> Willd.	미국쑥부쟁이	○	●
9	<i>Solidago altissima</i> L.	양미역취		●
10	<i>Lactuca scariola</i> L.	가시상추	○	●
11	<i>Humulus japonicus</i> (Siebold & Zucc.)	환삼덩굴	○	●
합계			8	11

출처: 현진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주)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고시 순 정렬

생태계 교란식물 출현빈도는 환삼덩굴·미국쑥부쟁이·서양등골나물·단풍잎돼지풀·돼지풀·가시상추의 순으로 높았으며, 도깨비가지와 서양금혼초는 몇몇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 그동안 안양시에 분포 기록이 없던 도깨비가지·서양금혼초·양미역취 등을 추가 발견하였는데, 생태계 교란식물이 확산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7〉 생육지 유형별 생태계교란식물 출현지점 수

연번	국명	시가지	나지	도로	녹지	농경지	인공 초지	초지	수변	습지	산림	계
1	돼지풀	-	1	-	3	-	-	-	5	-	5	14
2	단풍잎돼지풀	-	1	-	6	-	-	-	14	3	3	27
3	서양등골나물	4	-	1	6	1	3	1	2	1	14	33
4	도깨비가지	1	-	-	-	-	-	-	-	-	-	1
5	애기수영	1	-	-	2	-	3	-	1	-	2	9
6	가시박	-	-	-	2	-	-	-	-	-	1	3
7	서양금혼초	1	-	-	-	-	-	-	-	-	-	1
8	미국쑥부쟁이	13	-	-	3	-	1	-	17	4	3	41
9	양미역취	1	-	-	1	-	-	-	-	-	-	2
10	가시상추	3	-	-	7	-	-	1	3	-	-	14
11	환삼덩굴	13	4	1	21	7	3	1	24	6	20	100
	출현종 수	8	3	2	9	2	4	3	7	4	7	11
	출현지점 수	37	6	2	51	8	10	3	66	14	48	245

주) 녹지: 주거지 및 도로 주변의 경관녹지·완충녹지 포함, 습지: 하안습지 및 산지 계류 주변의 산지습지 포함, 인공초지: 묘지·잔디밭
출처: 현진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야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서식지 유형별로는 주거지·도로 주변의 조경녹지·완충녹지를 포함하는 녹지에서 9종이 출현하여 가장 많은 종이 생육하였고, 다음으로는 시가지에서 8종, 수변과 산림에서 각각 7종씩 출현하였다.

행정구역별로는 만안구 석수동이 10종으로 가장 많은 생태계 교란식물이 출현하였고, 다음으로 만안구 안양동과 동안구 관양동이 각각 8종이었다. 가장 적은 수의 생태계 교란식물이 출현한 지역은 동안구 평촌동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주택 및 상업지역으로 식물이 생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 28〉 안양시 행정동별 생태계 교란식물 출현지점 수

연번	국명	동안구				만안구			계
		관양동	비산동	평촌동	호계동	박달동	석수동	안양동	
1	돼지풀	2	1	-	1	-	8	2	14
2	단풍잎돼지풀	3	2	-	2	2	11	7	27
3	서양등골나물	5	4	-	6	3	8	7	33
4	도깨비가지	-	-	-	-	-	1	-	1
5	애기수영	2	1	-	-	2	3	1	9
6	가시박	1	-	-	-	-	2	-	3
7	서양금혼초	-	-	-	-	-	1	-	1
8	미국쑥부쟁이	8	3	1	4	5	11	9	41
9	양미역취	-	-	-	-	1	-	1	2
10	가시상추	3	1	-	1	-	6	3	14
11	환삼덩굴	18	12	3	8	14	21	24	100
	출현종 수	8	7	2	6	6	10	8	11
	출현지점 수	42	24	4	22	27	72	54	245

출처: 현진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안양시 생태계교란식물



서양금혼초



미국썩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註

- 1 적색목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는 야생동물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 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고, 이들 중의 분포 및 서식 현황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1966년 처음 발간한 자료집 표지가 위기를 나타내는 붉은색이어서 적색자료집(Red Date Book)이라고 부른다(국립생물자원관(www.nibr.go.kr),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참조).
- 2 김태욱·전승훈, 「관악산의 식물상」, 『서울대학교 수목원 연구보고』 9, 1989, 1~19쪽.
- 3 이웅빈·황선민, 「군포 일대의 식물」,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09, 군포(376124), 환경부, 2009, 1~3쪽.
- 4 고성철·신영화, 「경기도 중부지역의 식물상」,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2(1), 2009, 49~70쪽.
- 5 심중훈, 「안양천(2018년)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서」, 청록환경생태연구소, 2019.
- 6 현건오 등, 『안양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서』 동북아 생물 다양성연구소, 2021.

02 인문환경

제1장 토지이용의 유형과 변화

제2장 교통망과 생활환경

제3장 안양의 진산과 안산

제4장 안양의 젓줄 안양천

제5장 옛 1번국도 만안로



안양은 주변 환경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하천 주변에 놓인 도로 및 철도를 따라 대상형 帶狀型으로 도시가 발달하였다. 서북-동남 방향으로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와 경수산업도로가 조성됨에 따라 근대 이후 대규모 소비 지역과 물류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촌락에서 공업도시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안양시 승격 이후 시가지의 확장과 함께 이후 평촌 신도시 개발에 따라 안양 내외로 뻗는 교통망이 점차 다각화되었다.

1장

토지이용의 유형과 변화¹



서현정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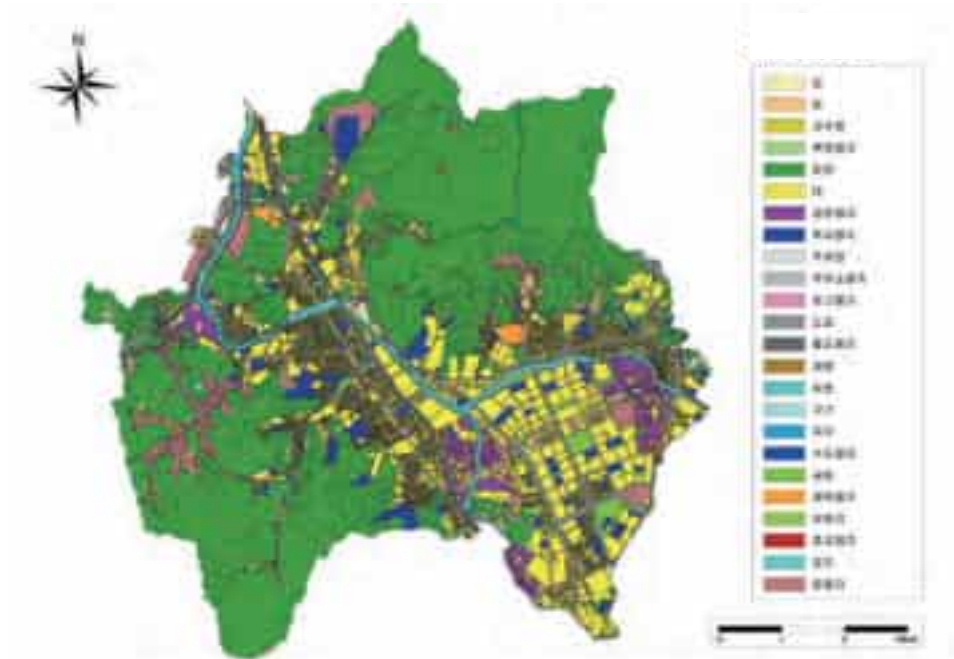
1. 안양의 지목별 토지이용

1) 도시 전체의 지목 현황 및 변화 추이

안양시 토지는 전체적으로 안양시 북측의 관악산·삼성산과 남서측의 수리산 주변을 중심으로 임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안양시 중앙을 관통하는 안양천과 학의천 주변의 평야 지대에 대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임야’가 안양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49.9%(29.2km²)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지 20.5%(11.96km²), 도로 10.3%(6.0km²)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전과 답은 각각 1.5%(0.9km²), 0.8%(0.46km²)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하천·구거·공원 등이 17.1%(9.98km²)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 지목 현황을 각 지목별 면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양이 도시화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전·답·임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지·도로 등 개발 용도로 활용된 토지의 면적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안양시 내 도시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전, 답, 임야는 각각 0.99km²에서 0.9km², 0.51km²에서 0.46km², 29.37km²에서 29.2km²로 면적이 감소하였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1.92km²에서 11.96km²로, 5.86km²에서 6km²로 증가하였다.



지목 현황도

〈표 1〉 최근 5년간(2018~2022) 안양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km²%)

연도	합계		전		답		임야		대		도로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18	58.46	100.0	0.99	1.7	0.51	0.9	29.37	50.2	11.92	20.4	5.86	10.0	9.81	16.8
2019	58.47	100.0	0.96	1.7	0.51	0.9	29.33	50.2	11.91	20.4	5.90	10.1	9.86	16.9
2020	58.47	100.0	0.95	1.6	0.50	0.9	29.32	50.1	11.92	20.4	5.90	10.1	9.88	16.9
2021	58.48	100.0	0.92	1.6	0.47	0.8	29.23	50.0	11.93	20.4	6.01	10.3	9.92	17.0
2022	58.50	100.0	0.90	1.5	0.46	0.8	29.20	49.9	11.96	20.5	6.00	10.3	9.98	17.1

출처: 안양시, 『2023년 안양통계연보』, 2024.

기간을 확장하여 약 40년(1982~2022)의 기간을 두고 살펴보면 그 변화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전, 답, 임야는 1982년과 2022년에 각각 4.15km²에서 0.9km², 6.7km²에서 0.46km², 33.05km²에서 29.2km²로 감소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답이 6km²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대지의 경우 6.97km²에서 11.96km²로 약 5km² 이상 큰 폭으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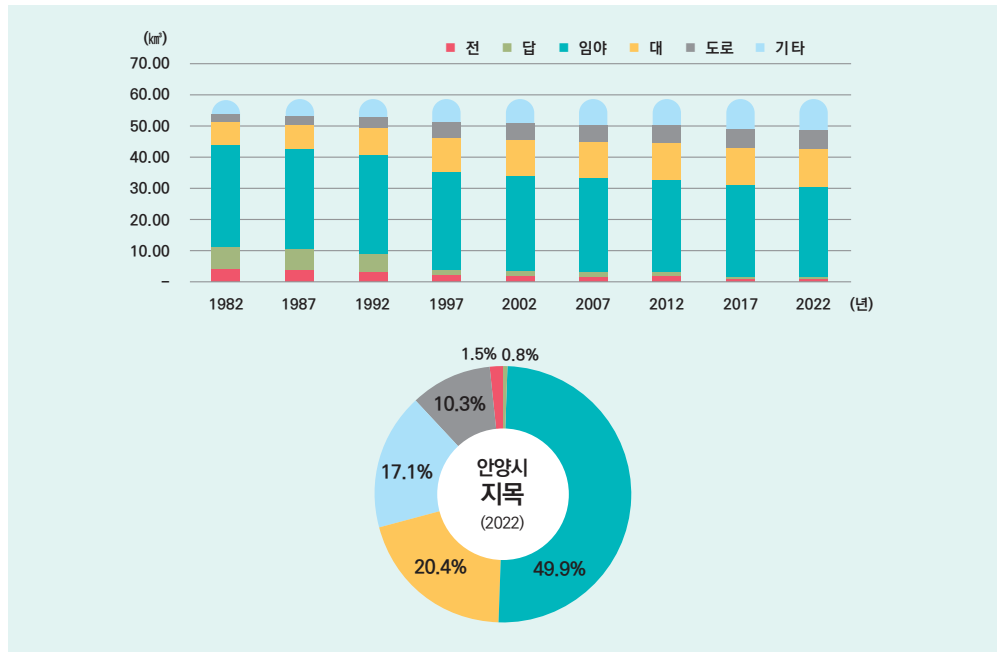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1989년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 동안구 평촌 일대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토지가 주택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2〉 안양시 지목별 토지이용의 변화 추이

(단위: km²·%)

연도	합계		전		답		임야		대		도로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82	58.33	100.0	4.15	7.1	6.70	11.5	33.05	56.7	6.97	11.9	2.67	4.6	4.80	8.2
1987	58.48	100.0	3.65	6.2	6.07	10.4	32.91	56.3	7.64	13.1	2.88	4.9	5.33	9.1
1992	58.48	100.0	3.08	5.3	5.23	8.9	32.52	55.6	8.59	14.7	3.40	5.8	5.66	9.7
1997	58.51	100.0	2.28	3.9	1.51	2.6	31.41	53.7	11.12	19.0	4.81	8.2	7.38	12.6
2002	58.52	100.0	1.96	3.4	1.35	2.3	30.69	52.5	11.39	19.5	5.31	9.1	7.81	13.4
2007	58.47	100.0	1.80	3.1	1.25	2.1	30.15	51.6	11.51	19.7	5.41	9.3	8.35	14.3
2012	58.46	100.0	1.72	2.9	1.17	2.0	29.85	51.1	11.51	19.7	5.58	9.5	8.63	14.8
2017	58.50	100.0	1.01	1.7	0.51	0.9	29.45	50.3	11.94	20.4	5.87	10.0	9.71	16.6
2022	58.50	100.0	0.90	1.5	0.46	0.8	29.20	49.9	11.96	20.5	6.00	10.3	9.98	17.1

출처: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각 해당연도.



안양시 지목 현황 및 변화 추이(1982~2022)²



시기별 지형도를 통해 본 안양시 토지이용의 변화 모습³⁾(좌부터 1970년·1980년·1990년)

2) 법정동별 지목 구성

만안구의 전체 면적(36.56km²)이 동안구(21.94km²)보다 약 15km² 더 넓은데, 만안구는 임야(21.83km², 59.7%)의 비중이 높고, 동안구는 대지(6.65km², 30.3%)의 비중이 높다.

법정동별 지목 구성을 살펴보면 만안구의 3개동(안양동·석수동·박달동)은 모두 임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안구의 4개동(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에서는 비산동의 경우 임야의 비중이 높으나, 관양동·평촌동·호계동은 대지의 비중이 더 높다.

2022년 안양시 법정동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km²·%)

구분	합계		전		답		임야		대		도로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만안구	36.56	100.0	0.62	1.7	0.25	0.7	21.83	59.7	5.31	14.5	2.79	7.6	5.76	15.8
안양동	15.35	100.0	0.22	1.4	0.05	0.3	8.65	56.4	3.20	20.9	1.33	8.7	1.90	12.4
석수동	13.33	100.0	0.28	2.1	0.10	0.7	8.64	64.8	1.38	10.3	1.00	7.5	1.93	14.5
박달동	7.88	100.0	0.12	1.6	0.10	1.3	4.54	57.6	0.73	9.2	0.46	5.8	1.93	24.5
동안구	21.94	100.0	0.28	1.3	0.22	1.0	7.37	33.6	6.65	30.3	3.21	14.6	4.22	19.2
비산동	8.79	100.0	0.09	1.1	0.10	1.1	5.43	61.8	1.57	17.9	0.64	7.3	0.96	10.9
관양동	5.85	100.0	0.12	2.0	0.08	1.4	1.56	26.7	1.71	29.3	1.03	17.6	1.35	23.1
평촌동	2.10	100.0	0.01	0.3	0.00	0.1	0.01	0.3	0.92	44.0	0.47	22.4	0.69	33.0
호계동	5.21	100.0	0.06	1.1	0.04	0.7	0.37	7.1	2.45	47.0	1.08	20.6	1.21	23.3
합계	58.00	100.0	0.90	1.5	0.46	0.8	29.20	49.9	11.96	20.4	6.00	10.3	9.98	17.1

출처: 안양시, 『2023년 통계연보』, 2024.

2. 안양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1) 도시 전체의 용도지역 현황 및 변화 추이

우리나라 도시·군 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 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로,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상업시설·공장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이다.

안양시는 용도지역 분류상 전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 기준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 전체 면적 58.5km² 중 녹지지역은 37.9km²(64.8%), 주거지역은 15.2km²(25.9%), 공업지역은 3.2km²(5.5%), 상업지역은 2.2km²(3.8%)로 녹지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안양시 북측의 관악산과 삼성산, 남측의 수리산 등 풍부한 산림환경을 보유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18~2022) 용도지역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면 2018~2021년까지는 면적이 동일하고 2022년 녹지지역만 전년에 비해 일부(2만m²) 증가한 것으로 보아 최근 안양시 전체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화 정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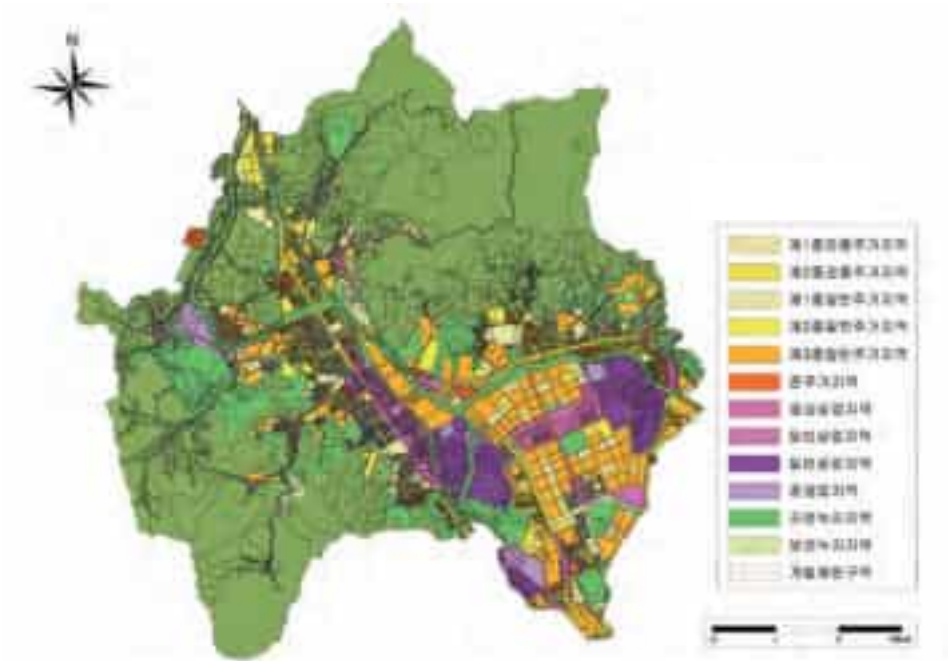
〈표 4〉 최근 5년간(2018~2022) 안양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km²%)

연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18	58.48	100.0	15.15	25.9	2.21	3.8	3.23	5.5	37.89	64.8
2019	58.48	100.0	15.15	25.9	2.21	3.8	3.23	5.5	37.89	64.8
2020	58.48	100.0	15.15	25.9	2.21	3.8	3.23	5.5	37.89	64.8
2021	58.48	100.0	15.15	25.9	2.21	3.8	3.23	5.5	37.89	64.8
2022	58.50	100.0	15.15	25.9	2.21	3.8	3.23	5.5	37.91	64.8

출처: 안양시, 『2023년 통계연보』, 2024.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년간 안양시 용도지역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97년에 용도지역 면적이 이전 연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이는 안양 도시계획 구역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인데, 당초 안양(57.63km²), 군포(20.70km²), 의왕(53.43km²) 세 지역이 합하여 도시계획구역(131.76km²)으로 설정되었던 것에서 1997년 7월, 안양시를 분리하



용도 현황도⁴

여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경계와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총 면적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후 안양시의 면적은 인접한 군포시·광명시와 시市 간 경계조정에 따라 경미하게 변경되어 왔으며, 그 결과 2022년 현재 안양시의 총 면적은 58.5km²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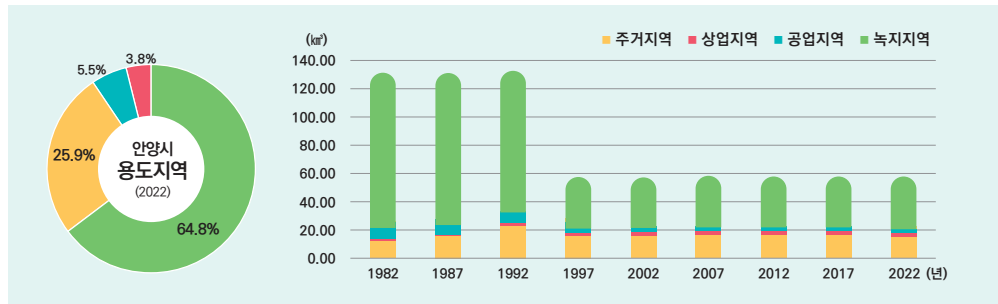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안양시의 용도지역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15~16km², 상업지역 2km², 공업지역 3km², 녹지지역 36~38km²로 비교적 일정한 구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5〉 연도별 안양시 용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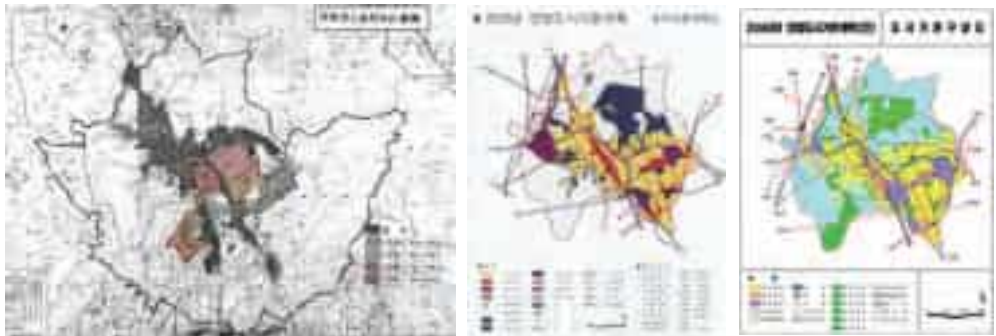
(단위: km²·%)

연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82	131.55	100.0	12.64	9.6	0.86	0.7	8.23	6.3	109.81	83.5	도시계획구역 기준(군포, 의왕 포함)
1987	131.55	100.0	15.90	12.1	0.87	0.7	7.03	5.3	107.75	81.9	
1992	132.95	100.0	23.31	17.5	1.93	1.5	7.39	5.6	100.32	75.5	
1997	57.63	100.0	15.95	27.7	1.91	3.3	3.23	5.6	36.54	63.4	
2002	57.77	100.0	16.22	28.1	2.12	3.7	3.23	5.6	36.21	62.7	
2007	58.52	100.0	16.72	28.6	2.12	3.6	3.23	5.5	36.45	62.3	
2012	58.46	100.0	16.75	28.7	2.13	3.6	3.23	5.5	36.35	62.2	
2017	58.46	100.0	16.75	28.7	2.13	3.6	3.23	5.5	36.35	62.2	
2022	58.50	100.0	15.15	25.9	2.21	3.8	3.23	5.5	37.91	64.8	

출처: 안양시, 「2023년 안양통계연보」, 2024.



안양시 용도지역 현황 및 변화 추이(1982~2022)⁵⁾



안양 도시계획구역의 변화(좌부터 2001년·2020년·2040년)

2) 용도지역별 세부 구성 및 특성

안양시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면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로 나누어지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주거지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비하여 일반주거지역의 비중이 월등히 높는데, 그중에서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5258㎡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상업지역에서는 중심상업지역(658㎡)보다는 일반상업지역(1554㎡)이 2배 이상 많고,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867㎡)보다는 일반공업지역(2363㎡)이 2배 이상 많다.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37633㎡)이 보전녹지지역(247㎡)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2022년 안양시 용도지역 현황

(단위: ㎡·%)

	구분	면적	비율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142	0.2
	제1종 일반주거지역	4,272	7.3
	제2종 일반주거지역	4,827	8.3
	제3종 일반주거지역	5,258	9.0
	준주거지역	649	1.1
	소계	15,148	25.9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658	1.1
	일반상업지역	1,554	2.7
	소계	2,211	3.8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363	4.0
	준공업지역	867	1.5
	소계	3,230	5.5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47	0.4
	자연녹지지역	37,633	64.3
	소계	37,910	64.8
합계		58,499	100.0

출처: 안양시, 『2023년 안양통계연보』, 2024.

(1) 주거지역

일반적으로 거주지의 발달은 간선도로, 철도와 교외전철을 따라서 외연적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안양시는 철도와 간선도로가 도시 중심부를 횡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 및 개발도 전철이나 철도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외곽지대로 확산되면서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철 주변이나 양호한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지역으로의 대규모 주택개발이나 아파트단지 등의 건설로 거주지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평촌지역에 건설된 대규모 주택단지는 서울 대도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양의 기존 도시구조와 연계되는 신시가지로 조성된 것으로 높은 주택밀도를 보이고 있다.

주거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보면 대로변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통이 편리한 구시가지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던 주거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평촌지구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거주지가 급속하게 확대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주거지역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동안구를 중심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고, 이 지역은 대체로 20층 내외의 공동주택이 입지해 있다.

안양시의 주요 주거지역(만안구 석수동 일대)





안양시의 주요 주거지역(동안구 부림동 일대)

(2) 상업지역

안양시는 주거지역의 분화와 함께 상업지역의 분화현상이 나타나는데, 1973년 시로 승격할 당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합하여 3개의 시장이 있었고, 1979년에는 석수시장과 중앙시장상가 및 비산시장에 이어 1980년도에는 관악시장·명학시장·현대종합상가가 개장하였으며, 1983년 이후 본백화점·벽산쇼핑센터 같은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섰다.

1990년 전까지 상업지역은 중앙대교가 위치한 안양동 지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평촌지구가 설립된 이후 1995년에는 범계역 부근과 귀인동·호계동 부근의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발달하였다. 신시가지인 평촌지구의 범계역 부근에는 뉴코아백화점, 김스클럽, 김스아울렛, 한양프라자 등이 들어섰다.

최근에는 기존 상업시설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되면서 범계역 주변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롯데백화점이 들어섰고, 안양역에는 엔터식스가 들어서는 등 기존 상업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안양시의 주요 상업지역(만안구 안양1번가(좌), 동안구 시민대로 일대)

(3) 공업지역

안양은 1970년 이전부터 공업의 집중이 현저한 지역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도시이다. 또한 서울의 공업기능이 주변지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1970년 이후 급속하게 공업지역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공업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공장의 입지가 공업용수 취득이 용이한 안양천변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나, 점차 공업용수의 필요뿐만 아니라 넓은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가가 낮으며 원료나 제품의 이송이 용이한 경부선변이나 경수산업도로와 가까운 곳(비산1동, 안양7동, 관양2동⁶)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양시는 주로 공업기능이 탁월한 지역이었으나 점차 그 기능이 약해지면서 안양시의 발달한 제조업과 대학, 연구소,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을 기반으로 업무기능과 서비스업 등의 첨단산업 기능이 증가하고 있다. 안양시에 첨단산업이 발달한 이유는 서울



안양시의 주요 공업지역(만안구 명학역 주변(좌)과 동안구 일대)

과 인접한 교통상의 강점, 평촌신도시 입주로 인한 양호한 주거환경, 관악산·수리산 등에 둘러싸인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기존의 제조업 기반시설과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고, 안양시 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시의 노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녹지지역

안양시의 녹지지역 현황을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 면적률 및 1명당 녹지면적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안양시에는 관악산·삼성산·수리산에 각각 삼림욕장이 있으며, 도시숲의 시설물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2022년 말 기준 안양시에는 도립공원 1개소(수리산도립공원, 2009.7.16.지정)와 어린이공원(93개소)·소공원(20개소)·근린공원(18개소)·역사공원(1개소)·문화공원(4개소)·수변공원(7개소)·체육공원(3개소) 등 도시공원이 총 146개소 지정되어 있다.

2022년 말 기준 녹지지역(37.9km²)에서 개발제한구역은 78.6%(29.8km²)에 이른다.



안양시의 주요 녹지지역(만안구 안양예술공원(좌)과 동안구 평촌중앙공원)

참고문헌

1. 안양시, 『안양도시기본계획(안)』, 1983.
2. 안양시,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05.
3. 안양시,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17.
4. 안양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5. 안양시, 『제50회 2023 안양시 통계연보』, 2024.
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008.
7.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8.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9. 국립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

註

- 1 안양시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의 유형과 변화는 토지를 필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지목'과 특정 지역의 용도와 개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82년부터 발간된 『안양통계연보』(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참고하여 토지이용의 유형별 현황과 변화 추이를 기술하였다.
- 2 안양시, 『통계연보』, 각 해당연도.
- 3 국토정보플랫폼 공간정보(1:50,000 지형도) 참조 및 재구성.
- 4 안양시, 『2023년 안양통계연보』, 2024.
- 5 위의 책.
- 6 관양2동은 2024년 1월 1일(시조례 제3562호) 행정동 명칭이 인덕원동으로 변경되었다.

2장

교통망과 생활환경



김종혁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1. 전근대시기 안양시의 교통망

안양시의 이름은 안양리에서 유래한다.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 금천현(衿川縣) 방리조(坊里條)에 보면 현내면(縣內面) 안에 박산리(博山里), 상평리(上坪里)와 함께 안양리(安養里)가 관아에서 10리 떨어져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안양이라는 시 이름은 금천현 소속의 땅에서 유래했지만, 지금 안양시의 영역은 조선시대 금천현뿐 아니라 과천현(果川縣) 땅도 포함되었다. 과천현 소속이었던 곳이 오히려 금천현보다 많다. 만안구 안양동과 동안구 전역이 옛 과천현 땅이었고, 만안구 석수동과 박달동이 금천현에 속했다.

이에 안양시를 지나는 조선시대의 도로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천현과 과천현 두 군현의 지리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군현 내 도로망을 가장 잘 알려주는 지리지는 『여지도서』(1759)이다. 안양시 관련 도로망은 금천현 도로조(道路條)에 나온다. 우선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관아에서 동쪽으로 삼성산(三聖山)까지 산로(山路)로 10리이다. 관아에서 서쪽으로 인천부와의 경계인 중림천(重林川)까지 소로(小路)로 15리이다. 관아에서 남쪽으로 과천현과의 경계인 안양교(安養橋)까지 대로(大路)로 10리이다. 관아에서 북쪽으로 노량진(露梁津)까지 대로로 20리이다. 관아에서 서북쪽으로 방학호(放鶴湖)까지 소로로 20리이다. 관아에서 양화진(楊花津)까지 대로로 25리이다.

금천현은 도로에 산로, 소로, 대로 등의 등급을 부여하였다. 이 가운데 두 개의 대로가 보이는데, 관아에서 남쪽 방향으로 안양교까지 10리 길과 북쪽 방향으로 노량진까지 20리 길이다. 고산자(孤山子)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지지』 「정리고」에서 이 길을 ‘남지수원별칠대

로南至水原別七大路'로 명명하고 기존의 9대로 체계를 10대로 체계로 확대한다.

남지수원별칠대로²

경도-노량진(10리, 남애유행궁왈 용양봉저정)-문성동(15리)-시흥³(5리, 경30리, 분기, 동과천30리 북양화도급서강진병25리)-안양행궁(10리, 재만안교지남)-사근평행궁(20리, 자과천이래합우차)-수원행궁(20리)-건릉(20리, 경100리)

京都-露梁津(十里, 南崖有行宮日龍驤鳳翥亭)-文星洞(十五里)-始興(五里, 京三十里, 分岐, 東果川三十里, 北楊花渡及西江津並二十五里)-安養行宮(十里, 在萬安橋之南)-肆觀坪行宮(二十里, 自果川而來合于此)-水原行宮(二十里)-健陵(二十里, 京一百里)

김정호의 이 수원로는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이 『도로고道路考』(1770)에서 소개한 '자경성유노량진저별사근천일로自京城由鷺梁津抵伐沙斤川一路'⁴를 계승한 노선이다. 노량진은 오늘날 한강대교이고, 남쪽 하안에 있다는 용양봉저정이 지금도 남아 있다.⁵ 문성동은 오늘날 금천구 독산동에 문성초등학교·문성골길 등의 이름이 남아 있어 그 일대로 추정할 뿐,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다. 당시 시흥 치소는 금천구 시흥5동 일대인데, 시흥5동 주민센터 북쪽 길 건너 은행나무 고목과 「시흥현령 선정비」가 옛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안양행궁 역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 다만 앞의 『대동지지』 기사에 '만안교 남쪽에 있다'고 부기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대동지지』 시흥현 교량조橋梁條에 만안교의 위치는 '현의 남쪽 10리 지점 안양천에 놓여 있으며[萬安橋: 在南十里安養川]', 『경기지』(1842)와 『경기읍지』(1871) 시흥현에는 안양교가 '현의 남쪽 10리 지점, 과천현과의 경계에 있다[安養橋: 縣南十里 果川界]'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안양교가 현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으니 만안교를 지칭하고, 과천현과의 경계에 있다 하니 안양행궁은 결국 시흥현이 아니라 과천현 땅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근에서 조선시대 시흥현과 과천현의 경계는 삼성천이다.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삼성천은 안양예술공원 앞을 지나 삼막천과 합류하는데, 이 합류점 위에 있는 만안삼성교가 옛 만안교가 있던 자리이고,⁶ 곧 두 현의 경계이다. 한편 안양행궁은 그 이름으로 보아 '안양'에 소재했을 터인데, 1890년대에 제작된 지형도에 보면 '안양촌'이 있고, 그 동쪽에 '임곡' 마을이 있다. 안양촌과 임곡의 위치는 1910년대에 제작된 지형도에서도 똑같은 배치를 보인다.



1890년대 안양촌과 안양행궁



1910년대 안양리와 안양행궁

임곡은 현재 비산동 임곡로 주변의 마을이고, 안양촌은 곧 1910년대 지형도의 안양리이며, 중심 취락은 안양역 서편에 있었다. 결국 안양리를 기준하여 남북으로 뻗은 도로가 곧 수원로이고, 오늘날 안양역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만안로'가 이를 계승한 도로이다. 안양행궁은 안양역 앞쪽(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이다.

사근평행궁은 현 의왕시청 별관(고천동 272-2, 구 고촌동사무소)으로 비정된다. 입구에 이곳이 행궁터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다. 사근천은 안양천 본류를 일컫는 이명 중의 하나이고, 사근평(肆觀坪)은 이 일대의 충적지를 일컫는 것 같다. 『도로고』에는 사근천점이라는 지명도 보이므로 취락명이기도 했을 것이다. 사근평행궁을 지난 수원로는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으로 진입한다. 이 밖에 인덕원에서 사근평까지 동래로의 본선, 그리고 시흥에서 분기하여 안산까지 이어지는 수원로의 지선인 안산로가 안양시의 외곽 경계 지역에서 극히 일부 구간 안양시를 관통하고 있다.

이상 조선시대 안양시의 주요 도로망을 간단히 정리하면, 조선시대 안양시를 경유하는 도로 중에는 수원로가 가장 중요했고, 이 수원로는 석수역부터 석수IC까지 경수대로(1번 국도)로, 이후 명학역까지 만안로, 그리고 이후 호계삼거리에서 경수대로를 다시 만날 때까지 엘에스로로 계승되었다.



옛 만안교 자리(만안삼성교)⁷



1910년대 지형도 기반 조선시대 안양의 도로망



현대 지도 기반 조선시대 안양의 도로망



1910년대 + 현대 지도 기반 조선시대 안양의 도로망

2. 일제시기 안양시의 교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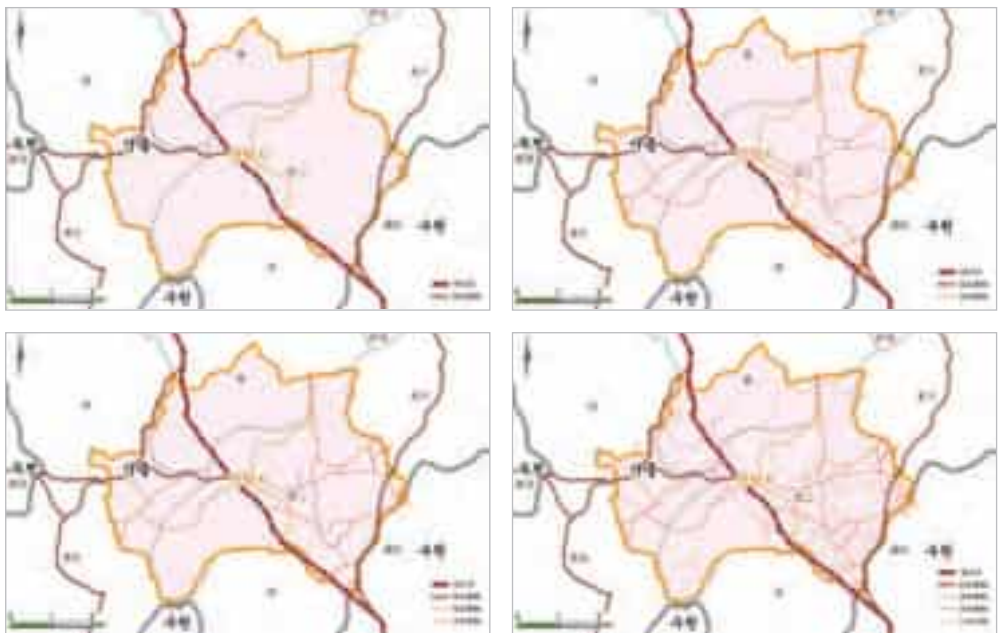
일제시기에 안양시는 시흥군 서이면, 동면, 서면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후일 서이면은 전체가 안양시가 되지만, 동면과 서면은 극히 일부 지역만이 안양시로 편입된다. 동면의 일부 지역이 오늘날 석수1·2동과 충훈동이고, 서면의 일부 지역이 박달동이며, 나머지 안양시 지역은 모두 서이면 소속이었다. 서이면은 1941년 안양면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안양리를 포함하는 안양면은 1949년 안양읍으로 승격하였다. 1973년 시로 승격할 때 안양시의 중심지 역시 안양읍 안양리였다. 이에 일제시기의 안양시 도로망 역시 안양리를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통감부 시절 일제가 조선에 대해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 중의 하나가 도로 정비이다. 말은 ‘신작로’ 건설이지만, 실체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기보다는 기존 도로의 노폭을 넓히고, 노면을 평탄화하고, 굽은 길은 직선화하는 도로 정비에 더 가깝다. 이보다는 도로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체계화했다는 사실이 중요

하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도로관리법의 일환으로 ‘도로규칙’을 반포하고, 1911년부터 1917년까지 제1기, 1938년까지 제2기 치도사업을 시행한다.

도로규칙은 도로를 1등(노폭 7.3m), 2등(5.5m), 3등(3.6m), 등외도로 등 4등급으로 나누는데,⁸ 서울-부산, 서울-목포, 서울-원산, 서울-의주 등이 1등도로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해주, 서울-오리진 등이 2등도로로 개수된다. 여기서 자세히 기술할 수 없지만, 일제시기의 신작로는 19세기 후반 『대동지지』에 기술된 간선도로망 노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서울-부산선은 두 개의 경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남-광주-곤지암-이천-장호원으로 이어지는 2등도로로 오늘날 3번 국도로 계승되었고, 다른 하나는 서울-안양-수원-오산-서정리-평택으로 이어지는 1등도로로 경부철도 및 경부고속도로와 거의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1등도로가 조선시대의 수원로-제주로(해남로)를 계승한 것으로 1910년대부터 당대 최고차 도로가 안양을 관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⁹

일제시기 안양시의 도로망은 1910년대 「1:50,000 지형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지도에는 1·2등 도로가 범례에 있지만, 차하 등급의 도로는 달로(達路), 연로(聯路), 간로(間路), 소로(小路)로 분류되어 있다. 달로가 3등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 지형도에 나타난 안양시의 도로망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일제시기 안양시의 주요 교통망



1910년 지형도(좌) 및 현대 지도(우)에 기반한 일제시기 안양시의 주요 교통망

일제시기에 안양시의 중심도로는 역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시를 관통하는 1등도로이다. 이 도로는 조선시대의 수원로이고, 일제시기에 서울-부산선으로 불렸던 길이다. 앞에서 언급한 만안로-엘에스도가 이 1등도로인데, 관악역 1번 출구 쪽 도로·이전해 온 만안교·안양교(안양천)·안양역 바로 앞길·안양초등학교·호정타워오피스텔, 명학역 1번 출구쪽 도로(이상 만안로), 호계교·유통단지사거리·호계사거리(이상 엘에스도)로 이어진다. 호계사거리부터 수원 쪽으로는 경수대로가 옛 1등도로이다. 만안로는 일제시기 1등도로의 노퍽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지만, 엘에스도와 경수대로는 197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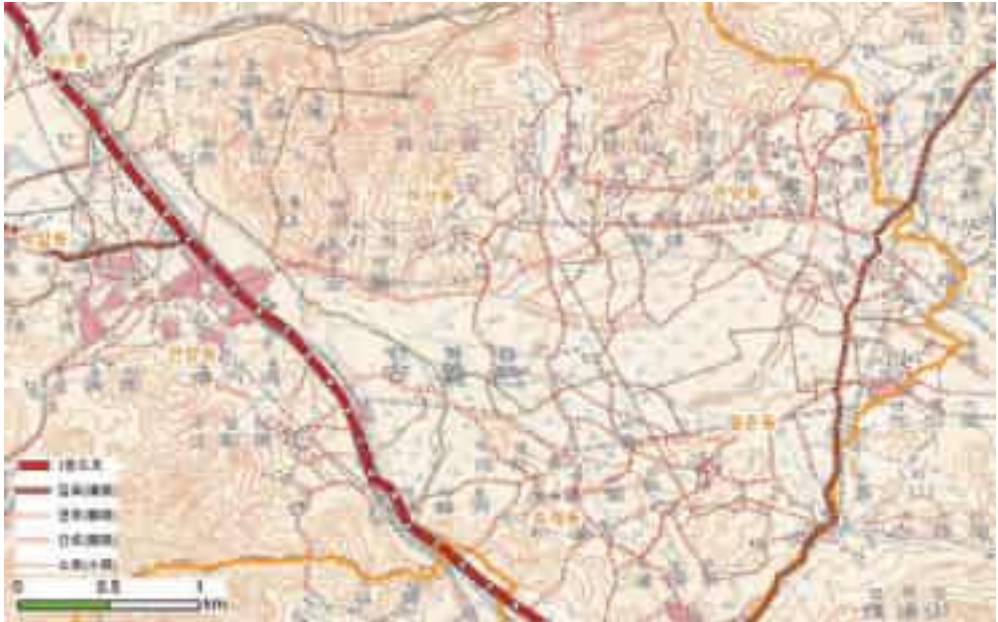
만안로는 관악역 부근에서 왕복 2차선 길이다. 이 정도가 일제시기 1등도로 그리고 조선시대 대로의 노퍽이었다.¹⁰ 일제시기의 1등도로가 옛 노퍽을 그대로 유지한 곳은 흔치 않은데, 대체로 197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노퍽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안로가 옛 노선을 유지한 것은 안양천 건너편에 시흥대로와 경수대로라는 새로운 ‘대로’가 놓였기 때문이다. 즉, 새 길을 건설하는 데 기존 길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



일제시기에 심은 가로수(호계동 1032 엘에스도, 2012)



안양 호계동 옛 1번 국도(1981)



일제시기의 도로망(1950년대 지도 재구성)

선을 선택한 것이다. 만안로는 옛길의 노퍽 경관이 살아남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일제는 도로 정비 시 가로수를 심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정자목과는 다른 서양에서 도입된 새로운 가로 경관이다. 이는 「1:50,000 지형도」의 범례에도 표시되어 있다. 호계동 엘에스로 일부 구간에서는 옛 1등도로에 당대에 식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로수를 볼 수 있다. 지금은 도로가 더욱 확장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2010년대까지 아름드리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속성수에 속하는 플라타너스는 일제 때 가로수로 심은 대표적 수종의 하나이다. 관악역 부근의 만안로와 만안교, 호계동의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다른 시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안양시가 보존할 만한 옛길 경관이다.

일제시기 군 단위 지역 간 교류를 담당한 것은 달로(達路)급 도로였다. 과천에서 안양을 거쳐 수원으로 넘어가는 길과 안양역 앞에서 박달동을 거쳐 인천 및 안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달로이다. 첫 번째 달로는 과천 남태령을 넘어 인덕원·평촌·갈산동을 경유하는데, 조선시대의 제주로이며 오늘날 47번 국도(안양시 구간, 흥안대로)이다.

연로, 간로, 소로는 대체로 지역 내 도로망을 구성한다. 연로 역시 안양리가 중심이 되는데, 서쪽으로는 박달동을 이어 주고, 동쪽으로는 비산동·관악동 및 호계동·평촌동

을 연결한다. 비산동-관양동을 잇는 연로가 오늘날 57번 지방도이다. 이 밖에 호계동에서 범계역을 지나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의 계곡을 올라 서울대학교로 넘어가는 연로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시가지와 아파트 단지 내로 편입되어 산길을 제외하면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비산동·관양동·호계동에 연로와 연로를 이어 주는 간로가 있었지만, 극히 일부 구간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연로가 오늘날 동과 동을 잇는 주요 도로였다면, 마을과 마을은 소로가 연결해 주었다. 소로망은 크게 평촌동과 그 주변 그리고 안양동 일대에 조밀하게 분포하였다. 이들 소로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구간이 많지만, 두 지역 모두 시가지로 편입되면서 사라진 길도 많다. 다만, 1950년대까지는 연로와 소로가 여전히 지역 내 도로로 그리고 마을길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3. 철도시대의 개막

안양시 중앙부로는 1등도로와 나란하게 경부선 철도도 지난다. 1901년 8월 21일 경부철도 북부 기공식을 영등포에서 거행하고, 첫번째 공사 구간으로 영등포-명학동 간 공사에 착수한다.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약 2개월 후인 10월 10일 영등포-명학동 구간 공사가 준공된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가 완공, 영업을 개시할 때 오늘날 안양시 영역에는 안양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오늘날 안양역과 같다. 개통 당시 서울 방향으로 안양역 다음 역은 영등포역이었는데, 1908년 시흥역이 추가되었다. 2008년 금천구청역으로 이름이 바뀐 역이다. 군포역은 1905년 개업 당시 군포장역이었다가 1936년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경부선 철도는 1944년까지 복선화가 완료되고, 해방 후에는 복복선 및 3복선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경부선 철도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이 선로들을 이용한다.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 처음 지하철(시청앞역-청량리역)이 생기던 날 서울-인천 및 서울-수원 간 수도권 전철 1호선도 개통되는데, 이후 안양역은 경부철도와 전철이 같이 정차하는 역이 되었다. 수도권 전철 수원선은 2005년 천안, 2008년 신창까지 연장되었다. 이제 안양역에서 3000원 정도만 내면 1시간 30분 내외로 아산역까지 갈 수 있다.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전용 선로가 안양시 서쪽 광명역IC 부근에서 일부 구간 안양시를 통과한다. 서쪽 박달동 시 경계 바로 밖에 광명역이 있어 안양시민이 KTX를

리에 있고,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에 있는 현 시청은 두 역 어디든 10분 내외의 도보 거리에 있다. 1974년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청사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이전하고, 과천선이 개통된 1994년 무렵 신청사 이전 계획 및 착공 후 1996년 이전한 두 상황이 대체로 일치한다. 시청은 시의 행정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일정한 규모의 행정타운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그 주변으로 취락과 상업지구가 발달하면서 시의 중심지로 기능하기 마련이다. 특히 지방 도시에서 시·군청의 입지는 관내에 끼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1910년대 안양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양시의 중심지는 산업사회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1970년대까지 경부선 선로 연변을 중심으로 남쪽 명학역까지 확산되었고, 고도산업사회로 접어드는 1990년대에는 과천선 선로 연변으로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취락과 행정 및 상업 기능이 평촌동 일대로 넘어갔다.

4. 산업화시대 이후 안양시의 교통망 확산과 도시화 전개

한국은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꾸준하게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모를 시도, 1970년대 초기 형태의 산업사회에 진입한다. 이후 1970년대 후반에는 국가기간산업의 축이 점차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동해 갔으며, 수출 100억 달러 시대도 맞이한다. 그리고 안양은 이를 주도한 핵심 지역 안에서 그에 걸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낸다.

1970년대 산업화의 핵심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인천, 인천-수원, 수원-서울로 이어지는 삼각지대는 이를 이끌어 간 전국 최대의 공업지역이었다.

이른바 경인·경수·수인공업지대이다. 그리고 이 삼각망을 형성하고 지탱해 준 것이 경인·경부·수인선 등의 철도망과 경인·경부 고속도로, 그리고 경인·경수·수인로(46번·1번·42번 국도)등의 국도 도로망이다. 이 가운데 1번 국도가 안양시를 관통하는데 이 1번 국도는 1970년대 새로 건설된 것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놓인, 곧 만안로가 본래의 1번 국도, 조선의 수원로, 일제시기에 1등도로로 정비된 서울-부산선이다.

1970년대까지 만안로는 현재의 1번 국도와 대등한 기능을 수행했지만, 시가지의 확산 방향이 안양동의 남쪽(명학역 방향)에서 철로 건너편 동쪽 비산동-호계동 쪽으로 이전하면서 안양시 중심도로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점차 만안로에서 현 1번 국도로 옮겨 갔



1950년대 안양역 부근의 시가지와 1번 국도



1970년대 안양역 부근의 시가지와 1번 국도

다.¹² 명학역 남쪽에 작은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지 발달과 확산이 그 동쪽의 넓은 평지, 이른바 평촌들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안양시에서 1번 국도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로)-석수역(이하 경수대로)-안양육교삼거리-삼막삼거리-신촌교(이상 석수동)-예술공원사거리(안양동)-대림대사거리-비산사거리-비산교(이상 비산동)-부흥로삼거리-범계사거리-방축사거리-신기사거리-호계사거리-호계삼거리-포도원사거리(의왕시 경계, 이상 호계동)로 이어지는데, 북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와 성산대교를 지나 고양-파주-판문점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지대고개-수원-천안-세종-전주-광주-목포까지 연결되어 있다. 비산동 구릉지 사면 하단부에서 일부 구간은 기존의 소로를 이용하였지만, 그 밖의 비산동과 호계동에서의 신 1번 국도 노선은 안양천과 학의천이 만든 충적지 위 평지에 새로 건설한 도로이다.

도시화는 간선도로의 건설을 수반한다. 역으로 간선도로의 건설이 곧 도시화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만큼 새로운 도로의 건설(정비·확대·확산)은 도시 발달사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도로가 건설된다는 것은 그 도로가 경유하는 주변 지역에 산업시설과 상업중심지 그리고 주택단지가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 중이거나 곧 건



새로 건설된 1번 국도(1974)

설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로와 시가지의 발달, 즉 도시화는 마치 닭과 계란의 관계처럼 무엇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관계인 것이다.

공업화와 경수로(시흥대로=경수대로=1번 국도) 덕분에 안양읍은 1973년 7월 1일 안양시가 되었다. 이때까지 경기도에 시는 인천과 수원 그리고 의정부 세 곳뿐이었고, 같은 날 성남과 부천 또한 시로 승격하였다. 1970년대 한국에서 경인지대(京仁地帶)의 부천시와 경수지대(京水地帶)의 안양시는 초기 산업도시의 대표 격이었고, 1980년대 후반까지 서울 외곽에는 2차 산업에 기반한 위성도시가 우후죽순 생겨났다.¹³

1970년대 안양시의 시가지 발달을 주도한 곳은 여전히 기존의 중심지였던 안양동, 그중에서도 안양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이 지역 안에서는 새로운 직교형 도로망이 건설되었고, 안양역 앞(서쪽)의 간선도로 역시 여전히 국도로 기능하고 있었다. 안양역 동쪽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길이 국도로 정비되어 있다. 이 지형도에는 두 노선이 갈라지는 석수I.C 부근, 그리고 두 노선이 다시 만나는 호계현대홈타운(2차) 부근에 1번 국도를 표시하고 있다. 아래 두 지도는 애초 안양역 서편의 길이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간선도로로 기능해 오다가 해방 후에 1번 국도의 자격까지 얻었으나, 1970년대에 동편에 새로 건설된 길에 1번 국도의 지위를 이양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때까지 만안교가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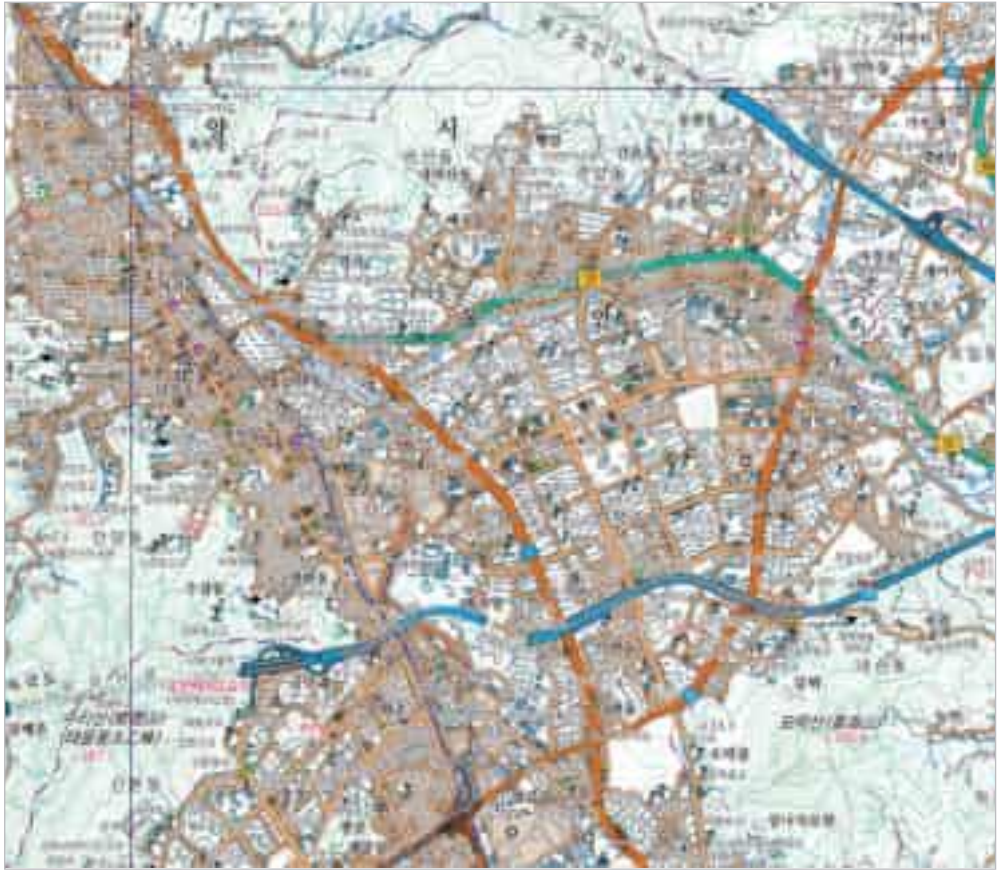
만안로(2024, 카카오맵)



안양로(2024, 카카오맵)



경수대로(1번 국도, 2024, 카카오맵)



2020년대의 안양의 도로 경관(2023년 수정·촬영·조사, 2024년 인쇄)

도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까지 안양시 경관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안양역 앞, 즉 안양1번지 일대의 시가지 형성 및 도로망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안양의 시가지는 두 중심 도로를 따라 확대되어 나간다. 만안구청을 지나 금정역에 이르기까지의 도로 연변 지역이 일찍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가지 및 주거지로 개발되었으며, 주변 산지 사면으로도 확장되었다. 이러한 안양 시가지의 확장은 1980~1990년대 평촌 개발로 절정을 맞는다.

서울시 동북부의 상계동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중반 이었고, 이후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한 200만 호 건설을 내세우며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에 제1기 5대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하천 연안의 충적지 위에 건설

된 공통점을 지니는데, 안양천과 학의천이 흘러 내려오다가 만나는 합수점 상류 지역이 평촌신도시에 해당한다.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충적지는 토지보상에 유리하고, 이미 지반이 평평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을 위한 지반 공사나 도로·상하수도·전기 등의 기반 시설 구축에도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의 신도시는 이러한 하천 연안의 충적지 위에 건설되고 있다.

충적지는 전근대시기에도 도로 입지로 선호되었는데, 비록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복이 거의 없어 도보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평촌신도시를 건설할 무렵 한국의 토목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고, 도시 계획에 대한 경험치도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 이에 1번 국도(경수대로)-57번 시도(관악대로)-46번 국도(홍안대로)로 둘러싸인 삼각지대의 평평한 평촌들 위에 펼쳐진 직교형 가로망은 신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삼각지대의 중심점에 안양시청이 자리잡고 있으며, 중앙부를 동서 방향으로 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이 과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안양은 시로 승격한 이후 시가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1973년 시 승격 당시 11만 1075명이던 안양의 인구는 1980년 25만 3541명으로 늘었다. 7년 만에 인구가 약 2.3배 증가한 것인데, 같은 기간 이촌향도 현상으로 전국 9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인천 포함)의 인구 증가량이 1.5배에 불과하므로 안양의 인구 증가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¹⁴ 1980년 경기도에서 안양시는 인천시(108만 4000명)와 수원시(31만 명), 그리고 성남시(37만 7000명)와 시흥군(28만 9000명)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다.

안양시의 인구는 평촌신도시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1995년 이후 정체·감소·증가를 반복하다가 2010년에 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5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안양시 홈페이지에 2024년 8월 1일 현재 인구는 54만 8005명(남 27만 324명, 여 27만 7681명)이고, 성비는 97.4로 여자의 비율이 높다.

인구밀도는 9367명/km²이며, 세대수는 23만 511세대이다. 인구수는 전통적으로 만안구 지역에 더 많았으나, 평촌신도시가 개발되고 주민이 입주하는 1990년대 이후에는 동안구의 인구가 더 많다. 면적은 만안구가 약 36.6km²로 약 62.6%를 차지하는 반면, 동안구는 21.9km²로 인구밀도의 차는 더 심하다.

2000년대 이후 만안구의 인구밀도는 대략 6500~7500명/km² 사이였고, 동안구는 이보다 약 두 배가 되는 1만 5000~1만 6000명/km² 수준이었다. 성비 역시 대비되는 현상이 지속되는데, 2000년 이후 만안구가 100~102 사이에서 남초 현상을 보이는 반면,

동안구는 96~100 사이에서 여초 현상을 유지한다.

결국 인구의 지역별 분포와 성비 역시 상대적으로 제3차 산업 및 서비스업이 발달한 동안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안양시의 도로망 분포는 이러한 생활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문헌>

- 金正浩, 『程里考』, 大東地志 卷1, 1864(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未詳, 『京畿誌』, 1842(서울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지리지총서 영인본 경기도편 1).
未詳, 『京畿邑誌』, 1871(서울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지리지총서 영인본 경기도편 1).
『輿地圖書』,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9.

<논저>

- 류명환, 『여암 신경준과 역주 도로고』, 도서출판 역사문화, 2014.
김종혁, 「조선후기의 대로」, 『역사비평』 69, 역사문제연구소, 2004, 359~383쪽.

<지형도>

- 1890년대: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성지문화사 영인본, 1996.
 - 과천, 1895년경 목측, 1911년 인쇄·발행
 - 광주, 1895년경 목측, 1911년 인쇄·발행
- 1910년대: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경인문화사 영인본, 1998.
 - 군포장, 1917년 측도, 1919년 인쇄·발행
 - 광주, 1915년 측도, 1919년 인쇄·발행
- 1950년대: 1:50,000 지형도, 삼능문화사.
 - 군포장, 1957년 인쇄·발행
 - 광주, 1956년 인쇄·발행
- 1970년대: 1:50,000 지형도, 국립지리원.
 - 안양, 1976년 편집, 1976년 인쇄
 - 수원, 1974년 편집, 1976년 인쇄
- 2000년대: 1:50,000 지형도
 - 안양, 2011년 편집, 2023년 수정(촬영·조사), 2024년 인쇄

<웹사이트>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ngoanyang.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mn/mainPage.do>)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book/list.do>)

- 1 『여지도서輿地圖書』,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9.
- 2 김정호, 「정리고程里考」, 『대동지지大東地志』 권1, 1864(아세아문화사 영인본).
- 3 시흥이 곧 금천이다. 1795년 금천현이 시흥현으로 이름을 바꾼다. 오늘날 광명시와 서울시 금천·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일대를 관할하였다.
- 4 류명환, 『여암 신경준과 역주 도로고』, 도서출판 역사문화, 2014.
- 5 정조가 수원 행차 시 주로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주정소라 불리기도 하였다(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32길 14-7(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6 현재 석수동 679번지에 있는 만안교(경기도 유형문화유산, 1973.7.10. 지정)는 1980년 국도 확장 때 옮겨 온 것이다.
- 7 카카오맵(map.kakao.com).
- 8 '도로규칙'에 1등도로는 경성과 도청 소재지 및 주요 군사 지역·항구·철도기항지를 연결하는 도로, 2등도로는 도청 소재지와 부·군청 소재지 및 관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 3등도로는 부·군청 소재지 간 도로와 관내의 주요 지점을 잇는 도로로 명시되어 있다. 일제시기 전 기간에 걸쳐 전체 도로망에서 1·2등 도로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 9 2차 차도사업이 끝난 1938년 시점에 경기도만 보면, 1등도로는 서울-개성(-의주), 서울-포천-운전(-원산), 서울-수원-오산-평택(-부산), 수원-김량-이천-장호원, 서울-인천 간의 5개의 노선, 2등도로는 서울-의정부-동두천-전곡-연천-삭령(-평양), 서울-마석우-가평(-춘천), 서울-송파-하남-경안-곤지암-이천-여주(-강릉)간의 3개 노선이 있었다. 이들 도로는 오늘날 모두 고속도로(고속국도) 및 일반국도가 되어 여전히 경기도의 주요 도로로 기능하고 있다.
- 10 김종혁, 「조선후기의 대로」, 『역사비평』69, 역사문제연구소, 2004, 370~373쪽.
- 11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ngoanyang.or.kr>)
- 12 1938년 제정된 「조선도로령」에 의해 처음 국도 노선이 지정된 이래, 1962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1966년까지 현재 노선의 뼈대를 세운 후 1971년 8월 31일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대통령령 5771호)을 제정 오늘날과 같은 국도 체계가 시작되었다. 이때 1번 국도의 기점은 목포이고 종점은 북한의 신의주이며, 경유지로 '시흥군 안양읍'이 기재되어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13 1981년 광명·동두천·송탄, 1986년 구리·과천·안산, 1989년 오산·의왕·하남·군포·시흥이 시가 되었다.
- 14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중단 없이 증가하는 곳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뿐이다. 이때부터 경기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를 기록 중이다. 최근에도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곳이 화성시였고, 그다음이 용인시였다. 전국의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이들 도시의 연인구증가율은 1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3장

안양의 진산과 안산

- 관악산, 삼성산과 수리산 -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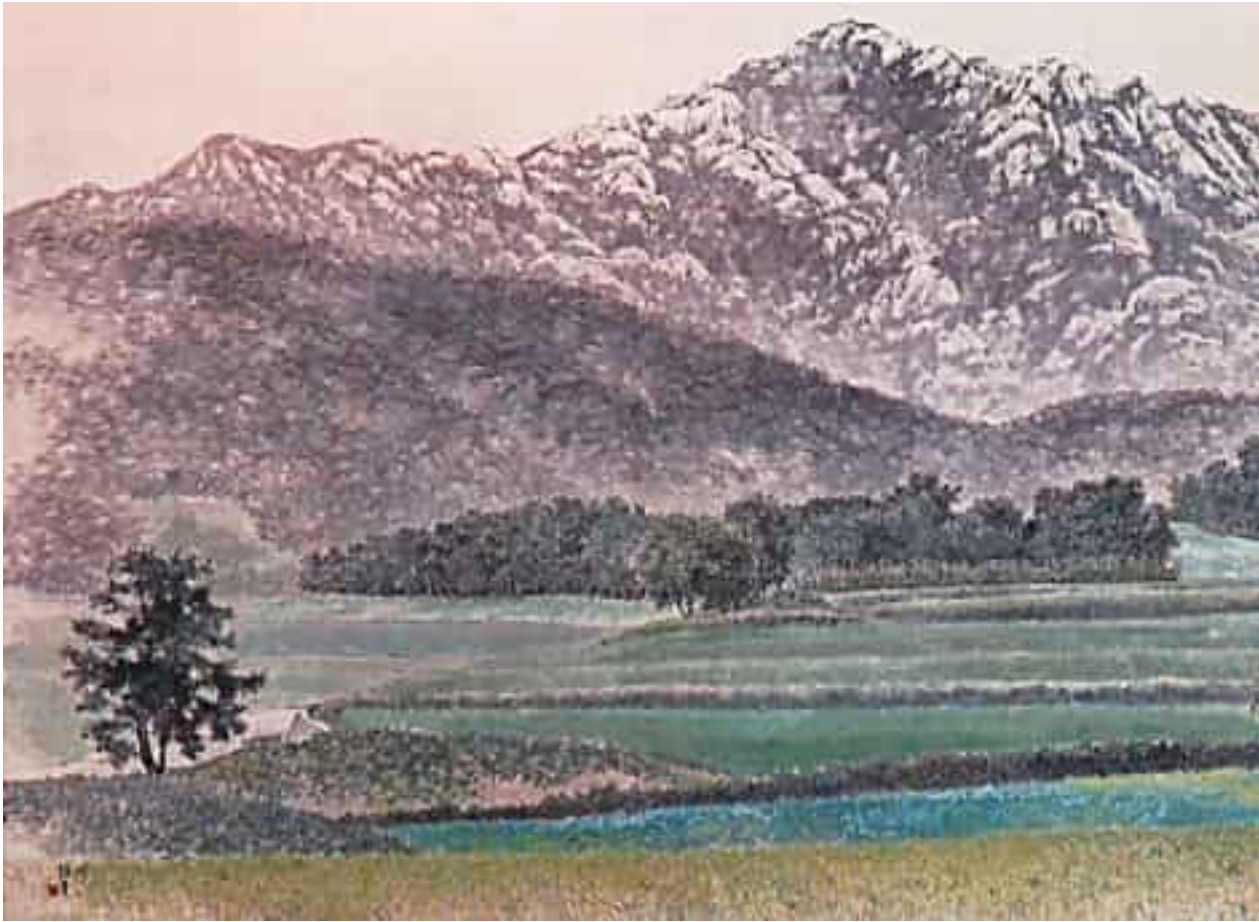


1. 한 고을을 안위하는 진산과 안산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토면적은 1004만 1000ha이고, 그중 산림면적은 629만 8000ha에 달한다. 도시 개발 등으로 국토면적에서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해 왔지만, 여전히 약 62.7%에 달한다.¹ 한 고을을 공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산의 형세를 빼 놓을 수 없는 이유도 산악 국가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고을을 공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진산(鎭山), 안산(案山)이 있다. 이것은 특정 산의 이름이 아니라 풍수지리(風水地理)상의 개념이다. 풍수지리는 동양의 전통 지리사상이지만, 그 과학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인테리어처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여전히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안양시의 형세를 이야기할 때, 이곳의 진산과 안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들 용어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에 앞서 이러한 개념은 명당의 혈(穴) 전후에 위치한 두 개의 산과 좌우에 위치한 두 개의 산줄기를 의미하는 사신사(四神砂)와 관련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신사의 사신이란 현무(玄武)·주작(朱雀)·청룡(靑龍)·백호(白虎)를 의미하는데, 혈의 뒤에 위치한 산은 현무, 그 앞에 위치한 산이 주작, 그 좌우를 호위하는 산줄기가 청룡과 백호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신사의 기운이 모인 혈이 명당을 이룬다고 이해된다. 이와 같이 사신사 개념을 통해서 한 고을에서 진산과 안산이 지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진산은 사전적으로 “도읍지나 각 고을에서 그곳을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제사하던 산.”² 또는 “온 나라 및 국도와 각 고을을 뒤에서 진호하는 큰 산.”³을 의미한



관악산(오용길, 1995)

다. 그러나 옛 풍수지리서에서 진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는 별로 없다고 한다.⁴ 다만, 옛 문헌이나 읍지邑誌 등의 지지류를 보면, 진산이 한 고을을 공간적으로 인식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329개 군현 중에 약 76.6%인 252개 군현에 대해 그 고을의 진산을 명시하였다.⁵ 이 기록에서는 안양시가 속했던 과천현果川縣의 진산을 관악산冠岳山, 금천현衿川縣의 진산을 삼성산三聖山으로, 그 인근 안산군安山郡의 진산을 취암鷲岩, 즉 오늘날의 수리산修理山 수암봉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전적 정의에 나타나듯이, 진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산主山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산은 사전적으로 “도읍, 집터, 무덤 따위의 뒤쪽에 있는



산.” 또는 “풍수지리에서 뗏자리나 집터 따위의 운수 기운이 매였다는 산.”⁶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나타난 “운수 기운이 매였다”는 소위 명당의 판단 근거가 되는 혈과 관련된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주산에 관한 논쟁도 종종 일어났다. 한 예로, 『세조실록』 1464년(세조 10) 9월 7일자에는 풍수학 훈도(風水學訓導) 최연원(崔演元) 등이 최양선(崔楊善)을 반박하여 상언(上言)하며 “…… 『명산보감(明山寶鑑)』에 이르기를, ‘급히 뾰족한 봉을 일으켜 현무를 정하니, 문득 이것이 참 용(眞龍)이면 주산이다.’라고 하였으며, 『감룡경(撼龍經)』에 이르기를, ‘또한 높은 봉이 있으면 이는 현무이니, 현무가 떨어지는 곳에 사신이 모이는 것이다.’고 하였으며 ……”⁷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 기사에서는 혈의 뒤에 있는 높은 봉우리로서 현무가 되는 것을 주산이라고 보았다. 즉, 한 고을의 주산이란 단지 그것의 크고 높

음보다 혈의 위치와 더 관련된다.

옛 문헌 기록에서 진산과 주산이 서로 다른 산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풍수적인 사신사의 의미에서는 주산으로, 한 고을을 진호하는 산이라고 할 때에는 진산으로 기술되는 경향이다. 즉, 주산은 명당을 진호한다고 하여 진산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이다.⁸ 또한 두 개념은 비보풍수(진산)와 명당풍수(주산)와의 관련성에서 사용되고, 비보풍수에 기반한 진산 개념의 사용이 우세하다가 후대로 올수록 명당풍수에 기반한 주산 개념의 사용이 우세해졌다고 보기도 한다.⁹ 일제강점기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혈의 뒤에 높게 솟은 산을 주산 또는 후산(後山)이라 칭하고, 마을이나 묘지에도 이러한 산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경우에는 그 마을을 진호한다고 하여 진산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진산이란 음택(陰宅), 즉 죽은 자의 집인 무덤에 대응하는 산 자의 주택지나 도성(都城) 또는 읍촌(邑村)의 터(基地)를 의미하는 양기(陽基)의 뒤에 위치한다. 무라야마 지준은 집단양기는 대체로 산을 뒤로 두고 평지에 그 터를 택하여 있다고 보았는데, 진산이란 이러한 집단양기를 진호하는 산이라고 보았다.¹⁰ 그의 주장은 진산과 주산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옛 군현에서 진산은 읍치의 치소(治所), 즉 해당 지역의 관아 뒤쪽에 위치하는데, 조선시대 관아의 중심시설인 동헌이나 객사가 남향을 한 경우가 많기에 진산이 그 북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도 총 110개의 고을 중 진산이나 주산 등을 명시한 고을이 81개소가 나타나고, 그중 진산이 읍치의 북쪽에 위치한 고을이 49.4%에 달하였다고 한다.¹¹ 고을 관아의 북쪽 또는 뒤쪽에 위치한 산을 진산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주산이나 진산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과 관련되고, 조선 중기까지 사용되던 비보풍수 기반의 진산 개념이 조선 후기에 들어 명당풍수 기반의 주산 개념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¹²

한편, 안산은 사전적으로는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밭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¹³ 또는 “풍수지리에서 가택이나 묘택이 있는 혈 맞은편의 낮고 작은 산.”¹⁴으로 정의된다.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안산이 남산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수구(水口)를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들판과 산의 모양, 흙의 빛깔과 물을 차례로 보고 마지막으로 조산(朝山)을 보라고 하였는데,¹⁵ 여기서 조산은 명당 바로 앞의 산인 안산 너머로 보이는 산을 말한다.

1973년에 와서야 시로 승격하며 하나의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갖춘 안양시의 진산과 안산이 어디인지 옛 문헌들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곳의 진산과 안산이 어

디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대에 와서 안양시의 풍수지리를 언급한 내용에서도 진산과 안산에 대한 내용은 제각각이다. 한 예로, 어떤 책자에서는 수리산을 안양시의 진산이라고 하고,¹⁶ 다른 책자에서는 수리산을 안양시와 군포시의 주산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풍수지리상 입지로 안양시는 백운산을 주산으로 수리산·청계산·관악산이 사신사를 이룬다고 하였다.¹⁷ 인터넷상에서는 안양시의 진산을 관악산이라고도 하고 삼성산이라고도 한다. 또 수리산이라고도 하고 모락산(慕洛山)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들이 혼재한 실정하기에 이곳의 진산과 안산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진다.

다만, 우리가 안양시의 진산과 안산을 다루고자 할 때 인식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이와 같은 풍수지리적인 관계가 고정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산과 안산은 한 고을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계속된 개발 과정을 거치며 본래의 지형이 변화해 온 도시 지역에서 그 혈을 찾고, 다시 그것을 토대로 진산과 안산을 설정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되물음도 생긴다. 안양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풍수지리적인 측면보다는 안양시라는 지역이 걸어온 역사 속에서 안양시를 안위하는 산들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안양시를 품고 있는 네 개의 산

안양시의 진산과 안산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곳의 주요 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 지역의 형세(形勢)를 다룰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산수(山水)인데, 하늘에서 안양시를 보면, 학의천이 흘러내려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산세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양천에 합류하는 삼막천, 삼성천 및 수암천이 발원하는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산세가 형성되어 지역을 호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좀 더 정확히는 북동과 남서 방향에 높은 산들이 위치하는데, 북동쪽에 관악산, 북쪽에 삼성산, 남서쪽에 수리산이다. 안양시는 이들 세 개의 산 및 의왕시의 모락산 사이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삼성산과 수리산 사이에는 원시가지인 만안구가 자리 잡고, 삼성산과 관악산 국기봉 남측 및 모락산 사이에는 평촌신도시가 속한 동안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삼성산, 수리산과 모락산을 사이에 두고 국도 1호선이 지난다.



관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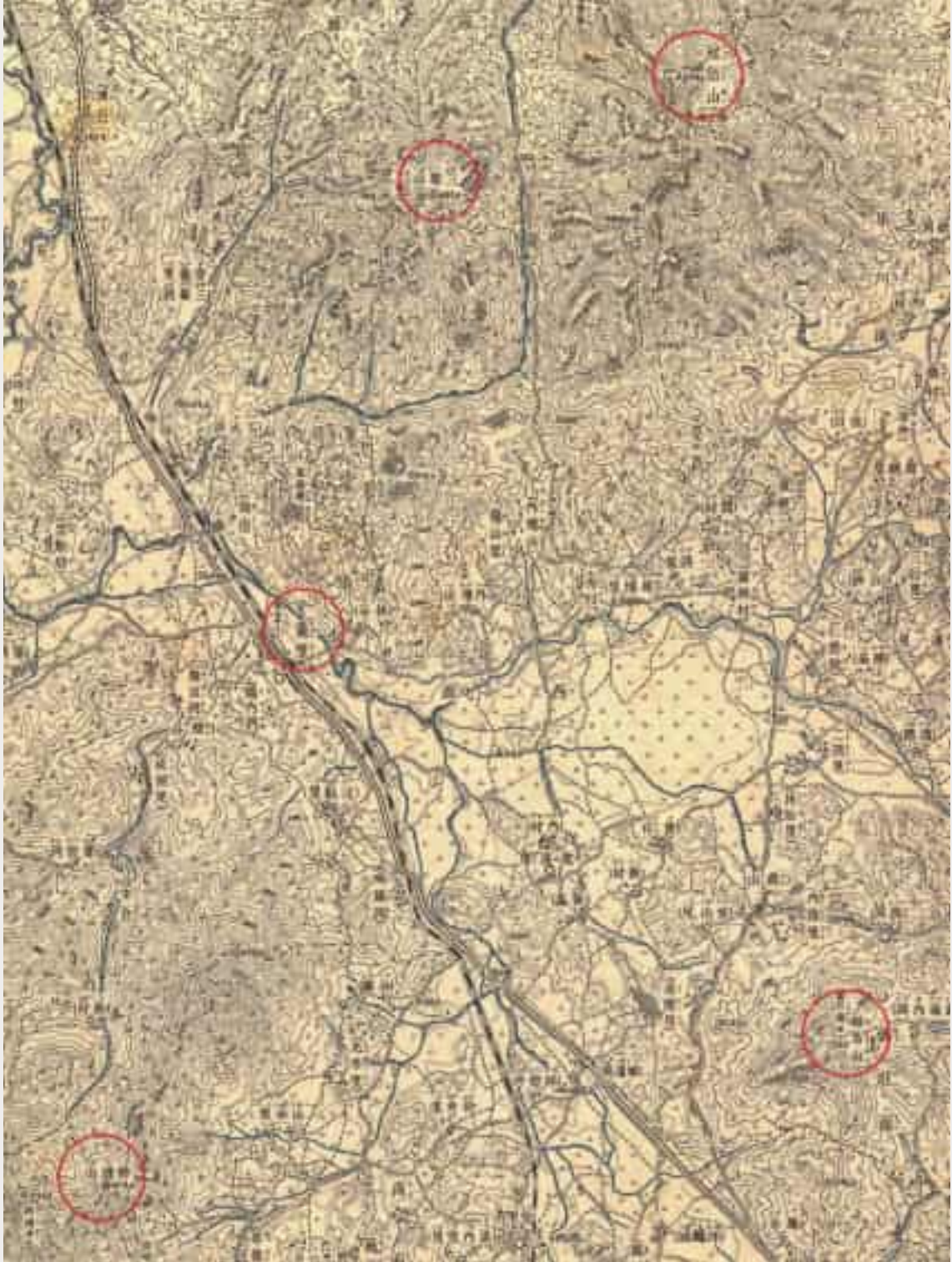
삼성산



수리산



모락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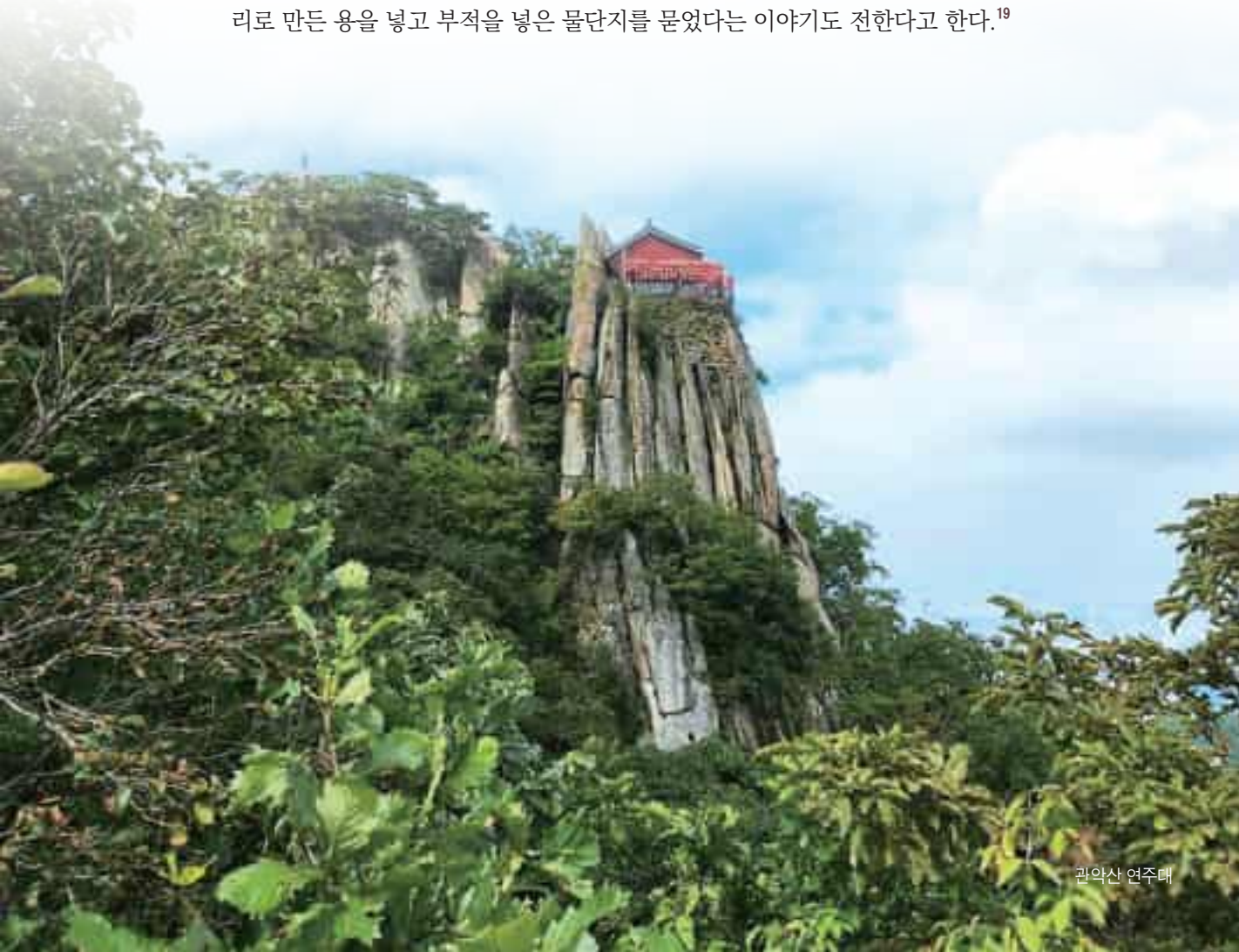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1:50,000 군포장 지도」(1919)에 나타난 안양시의 주요 산과 안양리 위치

1) 옛 과천현의 진산이었던 관악산

네 개의 산 중 가장 높은 산은 해발 632.2m의 관악산이다. 관악산은 북한산·남한산 등과 함께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예로부터 가평의 화악산^{華岳山}, 파주의 감악산^{紺岳山}, 포천의 운악산^{雲岳山}, 개성의 송악산^{松岳山}과 함께 경기오악^{京畿五岳}으로 불리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정상부인 연주대의 봉우리 모양이 마치 갓^冠처럼 생겼다 하여 갓피 또는 관악이라 하였다고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등 옛 지지류에 서는 관악산을 과천현의 진산이라고 하였다.¹⁸ 옛 과천현 관아는 현 과천시 관문동에 위치한 경기도유형문화유산 온온사^{穩穩舍} 일대로 추정되는데, 그 뒤쪽 북서 방향에 관악산이 위치한다. 서울 도성과의 관계에서 보면, 관악산은 서울의 조산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관악산은 화기^{火氣}가 강하기 때문에, 남대문 앞에 연못을 파고 광화문 좌우에 관악산을 바라보는 해태상을 두어 화기를 막고자 하였고, 관악산 정상부에도 우물을 파서 구리로 만든 용을 넣고 부적을 넣은 물단지를 묻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고 한다.¹⁹



현재 관악산은 경기도 안양시와 과천시, 서울시 관악구의 경계를 이룬다. 안양시에는 관악산의 남쪽 및 남서쪽 사면이 주로 속한다. 관악산은 시민들에게 안양시를 상징하는 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예로,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양시 경관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자랑하고 싶은 자연경관자원 중 산의 경우에 관악산이 26.5%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고, 이어서 수리산 16.3%, 삼성산 5.1% 등이었다.²⁰ 현재 안양시에서는 동안구 비산동의 안양종합운동장을 지나 관악산산림욕장, 관악산 국기봉과 국사봉을 거쳐 연주대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많이 이용된다. 이 밖에도 관양동 등 다양한 방향에 등산 코스가 잘 정비되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

2) 옛 금천현의 진산이었던 삼성산

관악산 줄기를 따라서 서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다시 봉긋이 솟은 해발 480.9m 높이의 산이 보이는데, 바로 삼성산이다. 삼성산은 안양시와 서울시 관악구의 경계를 이룬다. 안양시청 뒤편 북북서 방향에 위치하며, 관악산의 한 줄기로 인식되어 그 존재가 대내외적으로 관악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옛 문헌에서는 삼성산과 관악산을 별개의 산으로 적은 사례가 적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금천현」 ‘산천山川’조에서는 “현 동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²¹라고 하여 삼성산을 금천현의 진산이라고 하였고, 『동국여지』에서도 삼성산을 금천현의 진산이라고 하였다.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시흥현始興縣 기록에서도 삼성산이 읍치 동쪽 10리에 있고, 과천의 관악과 돌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²² 이들 기록으로써 삼성산과 관악산이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산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양시 토박이들도 두 산은 별개의 산으로 인식하였는데, 삼막사 동쪽편 계곡을 기준으로 그 동쪽은 관악산, 그 서쪽은 삼성산이 되고, 이것이 안양시와 과천시의 경계가 된다고 보았다.²³

현재 안양시 관내에서 삼성산을 오르는 등산로는 만안구 석수동의 경인교육대학을 지나 삼막사로 이어지는 등산로나 안양예술공원에서 삼성천의 물줄기를 따라 형성된 계곡들을 지나며 이어지는 등산로가 즐겨 이용된다. 삼성산은 그 유래에 불교적인 색채가 짙고, 안양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안양사가 있었던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만큼이나, 골골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안양시의 주요 문화유산이 집중 분포하는 곳이다. 국가유산 보물 1건,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5건, 경기도 기념물 1건, 경기도 민속문화유산 1건, 경



삼성산 안양예술공원 내 전망대

기도 문화유산자료 1건 등이 그것이다. 또한 안양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자 관광지인 안양예술공원, 안양박물관 및 김중업건축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3) 한강 서쪽 산들의 조종산인 수리산

안양시의 남서 방향에 위치한 수리산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연인산도립공원에 이어 2009년 7월 16일 경기도의 3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관악산과 함께 외부에도 널리 알려진 산이다. 수리산에서는 수암봉·슬기봉·태을봉·관모봉 등의 봉우리가 안양시와 군포시·안산시의 경계를 이루고, 주봉인 태을봉은 삼성산보다 약간 더 높은 해발 489.2m이다. 수리산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전한다. 첫째, 산의 바위가 마치 ‘독수리’와 비슷하여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둘째,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한 ‘수리사(修理寺)’로 인해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셋째, 조선시대에 어느 왕손이 수도하여 수리산(修李山)이라고 했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²⁴ 수리산은 달리 ‘견불산(見佛山)’으로도 불리었는데, 이 명칭도 삼성산의 경우처럼 불교적인 색채가 짙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옛 안산군의 진산을 ‘취암’이라 하였는데, 현재의 수암봉에 해당한다. 한편, 『홍재전서 弘齋全書』 제57권의 ‘원침 園寢을 옮긴 사실’에 대한 기사에서는 수원 등지의 산에 대해 논하면서, 광교산 光敎山이 한강 남쪽 여러 산의 조종산 祖宗山²⁵이 되고, 수리악 修理嶽이 한강 서쪽의 안인산 安仁山과 금부산 金富山 등 여러 산의 조종산이 된다고 하였다.²⁶ 여기서 수리악은 수리산을 말하는데, 그만큼 수리산이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한 산으로 인식되었음을 알려준다.

수리산 골골에도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유산이 산재한다. 특히 골 입구는 좁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좋고, 골 안쪽은 상대적으로 넓어서 농사지며 생활을 영위할 만한 곳이었다는 병목안 일대가 그렇다. 그 골짜기 안쪽, 문동바위부터 시작되는 담배촌에는 수리산성지가 위치한다. 담배촌은 조선 후기에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곳이다. 이곳에는 김대건 신부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신부 서품을 받은 최양업 崔良業의 부친인 최경환 崔京煥과 관련된다. 최경환은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한국 천주교 성인 103위 중 1인으로, 1837년 7월에 병목안 담배촌에 정착하였고, 당시 그와 함께 이주한 천주교인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담배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곳이 담배촌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²⁷ 안양시에서 수리산에 오를 때에는 수리산성지 방향에서 태을봉·슬기봉·수암봉을 오르거나 명학동의 성결대학교 뒤편에서 관모봉을 오르는 등산로가 즐겨 이용된다. 태을봉과 관모봉에서는 만안구와 동안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관악산·삼성산·모락산 등 안양시를 둘러싼 산들도 한눈에 들어온다.

4) 한남정맥의 지맥을 잇는 모락산

모락산은 행정구역상으로 안양시에 속한 산이 아니며, 안양시 남쪽의 의왕시 내손동과 오전동 경계에 위치한다. 모락산 북쪽 방향에 평촌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데, 평촌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모락산 산세의 일부가 동안구 호계동으로 이어졌다. 모락산은 해발 385.8m로서 안양시를 둘러싼 네 개의 산 중에서 가장 낮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개 산들과 마찬가지로 한남정맥에 속하며, 용인시의 광교산과 의왕시의 백운산을 거쳐 수리산을 지나는 한남정맥의 지맥이 백운산 서북 방향의 모락산으로 이어진다.

고지도상에서 모락산은 대체로 갈산 葛山으로 표시되어 있다. 모락산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게 반감을 가지고 매일 이

산에 올라서 옛 중국의 수도 낙양을 사모하며 지냈다고 하는 데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하고, 죽어서라도 고향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아들이 어머니의 묘를 이곳 산정에 썼다고 하였던 데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이때는 사모한다[慕]는 뜻의 한자를 사용한다. 모락산이 몰압산沒壓山 또는 몰악산沒惡山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때 왜병이 주민들을 이 산의 동굴에 가두고 몰살시켰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혹은 이 산이 한국전쟁의 격전지였기에 많은 병사가 죽고 철모가 떨어졌다고 하여 모자[帽]를 뜻하는 한자를 사용하여 모락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²⁸

3.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으로 본 안양시의 진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안양시는 옛 과천현과 금천현에 속했던 곳으로, 1973년에 시로 승격하였다. 그전까지는 한 고을의 읍치였던 적이 없기에 이곳의 진산과 안산이 어디인지 옛 문헌들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 때문인지 안양시의 산을 다룬 글들을 보면, 관악산·수리산·삼성산·모락산을 주산 혹은 진산으로 적은 경우도 확인된다. 이처럼 안양시의 주산 내지 진산에 대한 각양각설이 나타나는데, 서로 다른 시각에서 안양시와 이곳을 수호하는 산들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안양이라는 지역이 걸어온 역사적인 맥락과 인접 지역과 맺는 관계적 위치, 도시 공간 등을 고려하면서 이곳의 진산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1) 역사 속에서 찾는 안양시의 본향

동리 지명으로서 ‘안양’은 조선 후기 영조 대에 이미 사용되었고, 이 지명은 옛 안양



사(安養寺)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한다. 안양사는 안양시립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이 위치한 옛 유유산업 부지 발굴을 통해서 그 위치가 확인되었다. 안양사지(安養寺址)는 그 자체로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에는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安養 中初寺址 幢竿支柱)’와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安養中初寺址 三層石塔)’ 등의 유적과 유물이 있다.

안양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우선 『고려사절요』의 1217년 기사에는 “흥왕사(興王寺)·홍원사(弘圓寺)·경복사(景福寺)·왕륜사(王輪寺)·안양사·수리사(修理寺) 등의 중으로서 종군한 자들이 최충헌(崔忠獻)을 죽이려고 꾀하여, 거짓으로 달아나는 체하고 ……”²⁹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안양사가 여러 사찰과 모의하여 최충헌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을 알려주는 데, 이로써 당시에 안양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사찰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徐居正)이 1478년 편찬한 『동문선(東文選)』에 실린 「금주 안양사탑중신기(衿州安養寺塔重新記)」에서는 안양사의 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은종사(慈恩宗師) 임공(林公)이 이승인(李崇仁)에게 와서 “안양사의 탑은 태조가 세운 옛것입니다. 이미 퇴락하였으므로 문하시중(文하시중)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 최공(崔公, 최영)이 지금의 주지 혜겸(惠謙) 대사와 더불어 개수하여 새롭게 하였습니다.”고 하였고, 혜겸이 안양사 유래에 대해 “제가 이 절에 머문 지가 몇 해 되었습니다. 절의 유래를 조사하여 보니 예전에 태조께서 장차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하려고 나가는 길에 여기를 지나다 바라보니 산위에 구름이 다섯 가지 빛으로 채색을 이루었으므로 기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였더니 과연 한 늙은 중이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능정(能正)이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말해 보니 태조의 뜻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 절을 짓게 된 유래입니다.”³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를 지닌 안양사에서 안양세계(安養世界) 또는 안양정토(安養淨土)라는 이상향을 뜻하는 ‘안양’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는 것이다. 옛 문헌을 보면, ‘안양’이라는 지명은 18세기에는 과천현과 금천현 관내에 모두 존재하였고, 안양리의 존재는 각종 지





안양사지

지류나 문서류에서 확인된다. 한 예로 『호구총수戶口總數』를 보면, 과천현 하서면 안양리와 금천현 현내면 안양리가 존재하였다. 이를 현재의 행정구역과 비교하면, 과천현 하서면 안양리는 만안구 안양1동·안양2동·안양4동·안양5동·안양6동·안양7동·안양8동에 해당하고,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는 만안구 석수1동·석수2동 및 충훈동에 해당한다. 즉, 옛 안양리가 현 안양시의 모태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행정동 관내를 중심으로 안양의 진산을 찾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안양시의 진산으로서 삼성산의 의의

안양시의 진산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사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우선 『고려사절요』에 나타난 ‘안양산安養山’에 대한 기록이다. 즉, 그해 “12월에 최이崔怡가 …… 안양산의 잣나무를 옮기어 집의 후원에 심었다. 안양산은 강도江都에서 여러 날 걸리는 거리인데 문객인 장군 박승분朴承賁 등으로 감독하게 하였다. 때는 추위가 한창이어서, 일꾼들 가운데 얼어 죽는 자도 있어 연로에 있는 군현郡縣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그 소요를 피하였다.”³¹⁾는 것이다. 안양산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안산군 기사에도 나타나는데, 안산군 ‘불우佛宇’ 조에는 수월암水月庵이라는 사찰

이 안양산에 있다고 하였다.³² 수월암이 안양산에 있다는 기사는 『동국여지』의 안산군 ‘사찰寺刹’ 조³³ 등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안산군 기록에 나타난 안양산과 『고려사절요』의 안양산이 같은 산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문헌들은 안양산이 안산군 관내에 있다고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안양산은 어딜까? 안양산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안정복安鼎福이 1778년 완성한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찾을 수 있다. 『동사강목』에서는 『고려사절요』에 나타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며 “겨울철에 안양산(지금의 금천현 동쪽 10리에 있는데, 이름을 삼성산이라 한다)에서 잣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집 원림園林에 심기도 하였다.”³⁴고 하였다. 즉, 『고려사절요』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나타난 안양산은 삼성산을 말하고, 삼성산의 본래 명칭이 안양산이라는 것이다.

안양이라는 지명의 유래처럼 삼성산도 불교적인 유래를 지니는데,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설로 전한다. 그중 하나는 신라 문무왕 때, 세 고승(원효대사·의상대사·운필거사)이 암자를 짓고 수도정진한 데서 유래한 삼막사가 있고, 그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삼성산이라고 하였다는 설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읍지들에 전하는 기록에서 유래한 설인데, 고려 말에 나옹화상·무학대사 및 인도 승려 지공이 이곳에서 수도하였기 때문에 삼성산이라고 하였다는 설이다. 마지막 하나는 불교에서 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을 삼성이라고 하는데, 삼성산에 있던 많은 사찰로 인해 불교적 색채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설이다.³⁵ 이처럼 삼성산의 유래는 안양이라는 지명이 불교의 이상향과 관련된다는 점과도 맥이 닿는다.

안양산 외에 안양교安養橋도 과거 안양리의 범위를 알려준다. 채제공은 「안양교행安養橋行」이라는 시에서 “너는 고려시대의 오래된 유물로서 성조에서 수선도 장식도 하지 않아 사백 년 동안 내버려져 매몰된 채 혹은 급류에 휩쓸려 온데간데없고 …… 갠 하늘 어딘가에서 무지개다리가 내려오니 …… 숫돌 같은 어뢰가 성상을 편안케 하매 만안교라는 좋은 이름을 내려 받고는 ……”³⁶이라고 적었다. 즉, 안양교가 유실된 것을 새롭게 홍예교虹蜺橋로 건설하고 만안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안교는 안양천 방향에 있던 것을 1970년대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만안교가 건설(1795)되기 전에 편찬된 『여지도서』의 금천현 지도에 표시된 안양교의 위치와 1872년 시흥지도에 표시된 만안교의 위치가 유사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872년 시흥지도에는 만안교 외에도 다시 안양교도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읍지류에서는 안양교 위치에 만안교가 표시되어 있기도 한다.

안양시와 관련한 역사적 기록에 등장하는 안양사, 안양산, 안양리 및 안양교 등의 장소는 옛 금천현과 과천현에 속했다. 다만, 우리가 현 안양시의 본향에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그중에서도 안양사와 안양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안양사와 안양산의 위치는 현재의 석수동에 해당하고, 석수동은 옛 금천현 안양리에 속했다. 과천현 안양리가 치소와 멀리 떨어진 데 비해서 금천현 안양리는 치소에 가까이 있었기에 행정적으로 더 중요한 입지를 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지도를 보면, 안양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현재의 안양1동에 행정관서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것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옛 금천현 안양리가 속했던 석수동 일대에 크게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된다. 이곳은 배산과 임수라는 조건, 일조와 관련한 방위라는 조건 그리고 충훈부 쪽으로 적지 않은 농지가 분포하는 등 마을의 입지 측면에서도 적합한 곳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시대 석실분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기념물 석수동석실분(石水洞石室墳)이 이곳에 있다는 점도 오랜 옛날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실을 토대로 할 때, 금천현의 안양리를 안양시의 본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³⁷

삼막사



따라서 안양시의 진산을 찾는 여정에서 삼성산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산은 비보풍수적인 개념의 용어이다. 즉, 해당 지역을 진호하는 형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삼성산은 안양시의 본향인 옛 금천현 안양리뿐만 아니라 옛 과천현 안양리 일대까지 진호하는 형세이다. 진산 또는 주산이 풍수지리적으로 안정한 형국을 갖추려면 그 방향이 앞면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삼성산은 방향에서도 옛 안양리와 안양천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금천현의 진산을 삼성산이라고 기록한 경우가 많지만, 『여지도서』와 『시흥군읍지 始興郡邑誌』 등에서는 읍치의 바로 뒤에 위치한 검지산 黔芝山, 즉 오늘날의 호암산 虎巖山을 금천현 내지 시흥군의 진산이라고 하여 삼성산과 구별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⁸ 이와 같은 역사적 기록과 맥락, 인접 지역과 맺는 관계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양사가 위치했던 옛 안양산, 즉 오늘날의 삼성산을 안양시의 진산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진산은 한 고을을 진호하는 산이다. 한 고을을 지켜주는 산이기에 그 고을 사람들에게 진산은 경외와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삼성산도 그러했을까? 안양시에 전하는 공동체신앙을 살펴보면, 삼성산이 지닌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삼성산 아래 석수동에서는 예로부터 산신제를 지내왔다.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에 산신제를 지내는 양당 兩堂 체제이다. 주민들을 두 당을 통칭하여 도당 都堂이라고도 하는데, 경기도 일대에서 도당은 마을의 으뜸신을 모신 당으로 인식된다. 또한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의 병환이 심하였을 때 종묘·사직·소격전 및 근교의 여러 산천에 기도하게 하였는데, 이때 삼성산도 기도처가 되었다.³⁹ 이처럼 삼성산은 안양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산으로 인식되었기에 한 고을의 진산으로서 문화적인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4. 진산과 안산, 그 상대적이고 현재적인 의미

안양시의 진산을 삼성산으로 삼는다면, 삼성산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 되는 혈의 뒤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혈의 앞에 안산이 위치해야 할 것이다. 필자로서는 그러한 명당이 되는 혈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현재 전하는 안양시의 지명유래에서도 안산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혈이 삼막천과 삼성천이 만나는 지점쯤에 있다면, 안산은 석수동과 충훈동 경계에 있는 석수산-와룡산-꽃메산으로 이어진 산세나 세 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삼성산에서 바라보이는 옛 안양리 일대에서 널리 알려진



「대동여지도」의 안양지역. 금주산(현 호암산)이 시흥현의 진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관악산이 과천현의 진산으로, 수리산이 안산군의 진산으로 표시되어 있다. 금주산 아래, 안양 지명 위에 보이는 산이 삼성산이고, 인덕원 아래 갈산이 현 모락산이다.

‘조리혈’을 명당이 되는 혈이라고 본다면, 안산은 달라질 수 있다. 생김새가 쌀을 이는 조리와 같다는 조리혈은 그 이름처럼 재물을 모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혈로 알려져 있는데, 옛 안양리의 영역에 속하는 충훈부,⁴⁰ 즉 현재의 충훈동이 조리혈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충훈부에는 궁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⁴¹ 충훈부의 조리혈이 삼성산을 현무로 삼는 명당의 혈인지 현재로서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작에 해당하는 안산은 충훈부 앞 안양천 너머에 위치할 것이다. 그런데 풍수지리적인 개념인 진산이나 주산, 안산 등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당 내지 그 혈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이다. 그에 따라서 한 고을뿐만 아니라 한 동리 안에서도 진산과 안산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훈동은 와룡산을 주산으로 하고, 안양천 반대편의 삼봉산을 안산으로 한다.⁴²

이처럼 한 지역에서 진산 내지 주산·안산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안양시 전역을 이해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안양시의 진산이나 주산을 언급한 글들을 보면 삼성산뿐만 아니라 관악산·수리산·모락산이 모두 등장하는데, 그 이유도 명

당 혹은 그 혈에 해당하는 장소를 어느 곳으로 삼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사례에서는 모락산을 주산으로 보았다. 모락산을 주산으로 본 것은 현재의 안양시청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안양시청과 그 주변은 평촌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달안이 내지 달안동이라고 불리었는데, 현재도 달안동이라는 행정동명으로 남아 있다. 안양 지역에서는 ‘안양은 금소반이요, 달안동은 오씨의 천년 도읍지’라는 도참설 관련 속신어가 전한다. 이 말은 안양을 금소반과 같은 귀한 땅으로 보고, 그중에서도 달안동을 오씨가 미래의 도읍지로 터를 잡을 만한 땅으로 본 것이다.⁴³ 모락산을 안양시의 주산으로 본 사례에서는 만약 관악산을 주산으로 삼았다면, 치소 격인 안양시청이 학의천 남쪽이 아닌 북쪽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광교산과 백운산으로 이어진 모락산이 안양시의 주산이 되어 남에서 북으로 전진하며 학의천과 만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안양시청을 비롯한 건물들이 북향을 하여야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지만, 남향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주산을 향해 건물이 배치되었다고 하였다.⁴⁴ 이와 마찬가지로 수리산을 안양시의 진산으로 본 사례⁴⁵는 치소 격인 옛 서이면사무소나 시흥군청·안양시청이 있던 위치, 즉 안양1번가 쪽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례처럼 모락산이나 수리산을 진산 또는 주산으로 삼는다면, 안양천과 학의천 북쪽에 안산이 위치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안양’이라는 지명의 유래와 이 지명을 사용한 안양리를 역사적 연원에 두고, 삼성산을 안양시의 진산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풍수지리나 치소로서 시청 등의 위치보다는 안양시라는 지역의 본향이 위치한 삼성산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상징성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빠르게 발전해 온 현대의 도시에서 풍수지리적인 명당이나 혈이 영향을 미치는 개념일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 명당이나 혈을 찾아서 진산이나 주산 등을 밝히는 것이 유의미한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한 지역이 걸어온 역사적인 변화를 이해하면서, 명당풍수와 같은 풍수지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진산 내지 주산과 안산을 밝히기보다는 경관적인 측면에서 각 산이 지닌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원시가지가 위치한 만안구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삼성산과 수리산의 연봉들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고, 평촌신도시가 자리한 동안구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삼성산뿐만 아니라 관악산과 수리산·모락산, 더 나아가 백운산 등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양시는 옛 금천현과 과천현을 모태로 하여 시흥군 안양읍 시기를 거쳐 1973년에 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평촌신도

시 개발을 거치며 지형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재는 평촌신도시 개발 시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개발되고 인구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 개발과 인구 성장으로 변화한 지금 옛 풍수지리에 항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도시의 공간 및 경관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서 이 지역이 걸어온 역사적 변화를 고려하며, 진산 내지 주산·안산 개념에 담긴 거주공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본적·환경적·문화적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계승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 1 산림통계시스템(<https://kfss.forest.go.kr>).
- 2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4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2, 224~225쪽.
- 5 김상태, 「전통지리사상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읍성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22쪽 〈표 2-1〉 재분석.
- 6 표준국어대사전.
- 7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7일 정사. “풍수학 훈도 최연원이 최양선을 반박하는 상언을 올리다”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 8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2, 58쪽.
- 9 권선정, 『풍수 진산·주산의 정상화와 타자화: 조선시대 군·현 읍치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28권 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6.
- 10 村山智順, 『朝鮮の風水民間信仰 第二部』, 조선총독부, 1931, 13:174쪽.
- 11 김상태, 「전통지리사상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읍성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9쪽 재인용.
- 12 권선정, 「조선후기 고지도를 통해 본 전통도시 읍치의 공간구성」, 『문화역사지리』 32권 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20.
- 13 표준국어대사전.
-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5 “先看水口次看野勢次看山形次看土色次看水理次看朝山”. 『택리지』 『복거총론 卜居總論』 ‘지리’.
- 16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609~610쪽.
- 17 안양문화원 만안구마을지편찬위원회, 『만안의 기억: 안양을 다시 읽다』, 안양문화원, 2012, 45쪽.
- 18 “鎮山曰冠嶽”. 『세종실록』 『지리지』, 경기 광주목 과천현: “冠嶽山在縣西五里鎮山”.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경기 과천현.
- 19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731쪽.
- 20 안양시, 『안양시 경관계획』, 2016, 39쪽.
- 21 “三聖山在縣東十里鎮山”.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경기 금천현.
- 22 “三聖山東十里與果川冠岳連紆石”. 『대동지지』 권2, 경기 시흥.
- 23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증보판)』, 새안양회, 2012, 235쪽.
- 24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역사와 문화 백문백답』, 2010, 108~112쪽.
- 25 풍수지리에서는 각 산을 부모, 조부·중시조·시조와 같이 인식하며 주산(主山)·조산(祖山)·중산(宗山)·태조산(太祖山) 등으로 칭하는데, 조중산이라는 용어는 조산과 중산을 통칭하거나 태조산을 의미하여 사용되었다. 주산의 위쪽에 있으며 주산의 주산 격이 되는 산이라 할 수 있다.
- 26 『홍재전서』 제57권 잡저(雜著) 4, ‘원침을 옮긴 사실(遷園事實)’ 기유년.
- 27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증보판)』, 새안양회, 2012, 159쪽.
- 28 의왕시, 『의왕의 전통과 문화』, 1993, 123~124쪽.
- 29 『고려사절요』 제15권, 고종 안효대왕(高宗安孝大王) 2 정축 4년(1217)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30 『동문선』 제76권, 「금주안양사탑중신기」 (한국고전종합DB).
- 31 『고려사절요』 제16권, 고종 안효대왕(高宗安孝大王) 3 계묘 30년(1243) (한국고전종합DB).
- 3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안산군(한국고전종합DB).
- 33 『동국여지』 제2권, 경기 좌도(左道) 안산군(한국고전종합DB).
- 34 “嘗於冬月取安養山在今紇川縣東十里名三聖山栢樹植其家園.” 『동사강목』 제10하 갑진년 고종 31 (한국고전종합DB).
- 3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 2008, 427~428쪽.
- 36 『번암집(巖集)』 제18권, 『안양교행』 (한국고전종합DB).
- 37 기존 논의에서도 안양시의 부리가 금천현에 있다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후대에 들어 안양시의 성장에 따른 인구 및 면적, 시청의 위치 등을 고려한다면 과천현을 안양시의 근원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안양시, 1992, 634쪽).
- 38 “黔芝山東在邑後縣之鎮山冠嶽之西支”(『여지도서』, 경기도 금천현); “黔芝山本都鎮山冠岳西支”(『시흥군읍지』, ‘산천명승(山川名勝)').
- 39 『세종실록』, 세종 7년 을사(1425) 윤7월 24일(신유). “임금이 병환이 심하자 대신들이 종묘 사직과 산천에 기도하다” (한국고전종합DB).
- 40 충훈부는 충훈동(구 석수3동)에 해당한다. 본래 충훈부란 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보던 관청이었다. 그 충훈부가 관리하던 둔토(屯土)가 현 충훈동 일대에 있었기에 이곳을 충훈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4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 2008, 300쪽.
- 42 이진영, 「풍수지리적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기도 안양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85쪽.
- 4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 2008, 301쪽.
- 44 안양시청과 주변의 명당들(2011.9.25), 서경풍수지리학회, 다음카페(<https://cafe.daum.net/allme1>).
- 45 [자료] 수리산과 모락산의 역사,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ngoanyang.or.kr>).

4장

안양의 젓줄 안양천



권보형 안양천상태이야기관 주무관



1. 안양을 품고 천년을 흘러온 생명의 하천, 안양천

안양은 북쪽으로는 관악산과 삼성산이, 동쪽으로는 청계산과 백운산이, 서쪽으로는 수리산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분지 형태의 도시이다. 지형적으로는 북고남저, 서고동저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안양천이 흐른다. 안양천은 안양이라는 도시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안양 땅을 품고 천년 이상을 유유히 흐르면서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온 생명의 하천이다. 그래서인지 안양시민들의 삶과 정서의 중심에는 안양천이 있다.

안양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토박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물과 아주 친숙하게 살아왔다는 말을 많이 했다. 안양 사람이라면 안양천에서의 추억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추억에 젖고는 했다. 안양시는 도심 주변,

안양천(안양2동 일대)



타 시와의 경계 지역에 산이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양천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지형을 가졌다. 그래서 계곡의 흔적이 많고 지류 하천도 많이 발달했다.

안양8동에서 나고 자랐다는 진○○씨(65세)는 “성문고와 신성고가 있는 안양6동과 8동의 경우,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안양아트센터 바로 옆에도 수리산 계곡이 있었고, 신성고 인근 마을을 소곡마을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소곡마을에도 소곡천이 흘렀다”고 기억하고 있다.

안양천은 안양시의 도심 중앙을 관통하여 흐르는데,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만안구와 동안구를 안양천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갈라놓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도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도시 곳곳에서 흘러 안양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양시는 그야말로 진정한 물의 도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1) 안양천 유역과 발원지

안양천은 한강의 제1지류 하천으로, 한강의 지류 가운데 중랑천 다음으로 규모가 큰 하천이다. 안양천의 유역면적은 한강 유역 전체 면적의 1.1%로서 282.26km²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전체의 65.6%를, 서울시가 34.5%를 차지하고 있다. 하천 연장은 34.71km이며, 유역 내 인구는 안양천살리기 사업 초기에 350만 명으로 추산하였으나 2024년 현재 인구 구성을 보면 5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군포시·과천시·안양시·시흥시·부천시·광명시를 거쳐 서울시 금천구·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강서구·양천구 등을 지나 한강에 이르는 큰 물줄기이다. 경기도 7개, 서울시 7개 등 총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안양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유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안양천의 발원지와 관련해서는 청계산과 백운산 두 곳에 대한 발원지 설이 유력하게 등장한다. 하천의 발원지는 보통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한 곳”을 말하며, 하구의 기준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곳을 말한다.

서울시가 발행한 『서울의 하천』 안양천 편에 따르면,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청계산 서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오는 왕곡천 및 오전천과 합류한 후 다시 북서쪽으로 흘러 군포시를 통과한다”고 소개하고 있다.¹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에서는 “안양천은 의왕시 백운산 자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를 경유, 안양시 도심을 중앙으로 관류하여 광명, 서울시를 거쳐 한강에



안양천 유역 생태지도(구로구청 제공)

유입되는 하천”으로 소개하고 있다.² 그리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홈페이지에는 안양천의 발원지가 의왕시 지지대고개라고 명시하고 있다.³

이에 대해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주도했던 권순일 전 동안구청장으로부터 배경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양천살리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청계사천 이수봉 서쪽 부근 발원지와 백운산 자락 발원지 답사 및 실측을 진행했다고 한다. 실측자료와 옛 기록을 찾아 검토 비교해서 의왕시 백운산 자락 지지대고개 주변 야산에서 시작된 물줄기를 안양천의 발원지로 정리하였다는 설명이었다.

즉 안양천은 의왕시 백운산 자락 지지대고개 부근의 야산에서 발원해 왕곡천 및 오전

천과 합류해 흐르다가 군포시 당정천 및 산본천을 만나고, 이어서 호계천과 합류한 후 쌍개울에서 학의천과 합류한다. 이후 수리산에서 발원한 수암천과 합류하고 다시 삼성산에서 발원한 삼성천과 만나 시흥시 목감천과 합류한다. 서울특별시의 경계를 넘으면,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관악구와 영등포구를 통과하는 도림천과 합류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2) 안양천 지명 유래

기록에 의하면 ‘안양천’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795년(정조 19)에 간행된 『호구총수』⁴로 확인된다. 이때부터 시작하면 안양천은 적어도 200년 이상 사용해 온 이름이며 안양시의 지명이 고려 태조 왕건이 증진한 ‘안양사’라는 사찰에서 유래한 것처럼 안양천도 같은 맥락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안양천이라는 이름 이전에는 ‘갈천’·‘대천’·‘기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안양원도심을 중심으로 뒤로는 수암천이 지나고 앞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기 때문에 안양천을 앞개울이라 하고 수암천을 뒷개울이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⁵

『신증동국여지승람』⁶ 금천현 편에는 “대천大川이 현의 서쪽 4리에 있으며, 과천현의 관악산과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양천현의 철곶포⁷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여 안양천을 ‘대천’이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책 과천현 편에는 “현의 남쪽 14리에 인덕원천이 있고 현의 서쪽 19리에 학고개천이 있다”고 하여 안양천의 상류를 인덕원천, 중류를 학고개천으로 각각 부르고 있었다. 현재의 지명으로 보면, 인덕원천은 갈현천, 학고개천은 학의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⁸

조선 후기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 과천현 편에는 “안양천安陽川이 현의 서쪽 20리에 있는데 사근천과 인덕원천이 금천에서 합류하여 흘러간다”는 기록이 있다. 특이한 점은 이때는 안양천의 안양 한자를 ‘별양陽’자로 쓰고 있다.

이 밖에도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에는 안양천을 ‘기탄岐灘’으로 표기하고 있다. 기탄은 ‘갈래 여울’이라는 뜻으로 안양천이 지류가 많아 여러 물줄기가 흩어져 있다가 만나면서 흐르는 하천이라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또한 안양천은 ‘갈천葛川’으로 불리기도 했다는데, 유래를 찾아보니 하천에 칩이 많아서 갈천으로 부르기도 했고, 춘궁기에 칩을 씻어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안양시 향토사학자 이승언은 『안양시 지명유래집』에서 “안양천은 본래 석수동 소재



1970년대 안양천(안양2동, 박달동 부근)

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유원지를 거쳐 안양대교에서 합류하는 하천을 지칭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 구 안양천의 이름을 삼성천으로 바꾸고 의왕에서 발원해 안양을 거쳐 한강에 이르는 물줄기를 통칭하여 안양천으로 이름지었다”고 기록하였다.⁹

3) 안양천의 수계와 지류 하천

안양천의 수계는 본류의 상류로부터 왕곡천·오전천·당정천·산본천·호계천·학의천·수암천·삼성천·목감천·도림천 등 10개의 지류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구간에는 서울시와 경계에 있는 삼성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를 흐르고 있는 목감천, 관악산에서 발원한 도림천이 있다.

안양시 안양천 구간에 있는 법정 하천으로는 상류로부터 갈현천·학의천·삼성천·수암천·삼막천이 있고, 소하천으로 삼봉천이 있다. 안양천 본류 구간은 안양대교 주변 안양철교를 기점으로 상류는 지방하천이고, 하류는 국가하천으로 분류돼 관리하고 있다. 안양시 안양천 지류 하천을 상류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갈현천은 관악산 자락에서 발원해 관양동과 인덕원 방향으로 흘러 학의천으로 유입된다. 갈현천은 물길이 짧고 유량이 적어서 안양천살리기 하천복원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와 빗물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정비해 놓아서 학의천을 걷다 보면, 갈현천에서 학의천으로 유입되는 구간이 있다. 현재 인덕원동 주민센터 옆, 복개되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복개되기 이전에

학의천



는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이곳으로 물길이 이어져 안양천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과천시식정보타운이 조성되는 등 주변 개발로 인해서 갈현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학의천은 백운산 북쪽에서 발원해 서쪽으로 흘러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안양천의 제1지류다. 안양천 지류 가운데 유역면적이 넓고 유량도 풍부하면서 하도도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안양천살리기 사업 최초의 자연형하천복원 구간이었다. 학의천은 평촌신도시가 건설되고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천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도가 무척 높다. 도심에서는 보기 드물게 흙길이 조성되어 있고 아름다운 돌다리 와 왕버드나무 그늘 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학의천 오솔길은 2006년에 걷고 싶은 하천길로 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뽑히기도 했다.

삼성산 기슭에서 발원한 삼성천은 관악수목원과 안양예술공원 계곡을 따라 흐르다가 안양대교에서 안양천에 유입된다. 삼성천이 흐르는 안양예술공원 계곡은 원래 물이 맑고 유량이 풍부해서 일제강점기부터 풀장(야외수영장)이 있던 곳이다. 1960~1970년대에는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다. 주변 포도밭과 아름다운 계곡을 즐기기 위해 여름이면 안양역에 임시열차가 생길 정도로 인기 있는 피서지였다. 1977년 대홍수로 삼성천 계곡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비사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후, 생활 속의 친근한 예술을 표방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안양유원지는 안양예술공원으로 거듭났다. 삼성천 상류에는 안양예술공원과 함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이 있다. 희귀한 나무와 식물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비밀의 화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최근에는 안양시와 협의를 통해 일년에 2~3차례 개방하고 있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 여름에 삼성천에 가면 물속 자갈 사이에서 손바닥만한 모래무지가 다니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안양역사박물관을 이전하고 김중업박물관까지 문을 열면서 삼성산 및 안양예술공원과 연결된 삼성천 자락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안양시의 대표 관광지이면서 안양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곳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삼성산에서 발원한 안양천 지류 하천으로 삼성천 이외에도 삼막천이 있다. 삼성산과 호암산 중간 능선에서 발원해 삼막사에 이어 경인교육대학교 앞을 지나 삼성천으로 합류,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하천이다. 경인교대 부지는 원래 집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사용하는 돌을 캐내는 채석장이 있던 석산이었다. 학교 건축 진행 당시, 삼막천으로 회색



삼성천 내 안양예술공원



수암천 자락에 있는 병목안시민공원

빛 물이 흘러 내려와 안양이 발각 뒤집히기도 했는데, 주민들은 채석장으로 사용할 당시 발파제 화약 잔여물이 하천으로 유입된 거라며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곳의 수질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했으나 수질오염 문제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계곡이 이어지는 삼막천은 하천복원 이후 특히 여름철에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다.

삼성산과 마주하고 있는 안양시의 주산인 수리산에서 발원해 병목안 마을을 흘러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안양천 지류 하천이 수암천이다. 산지에 위치해 있어 급류하천으로 분류되지만, 상류에는 물이 많은데 중간에 물길이 끊어진 것처럼 거의 보이지 않다가 안양천과 합류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물이 흐르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수암천 상류는 물이 맑고 깨끗해서 다양한 물속 곤충을 관찰하고 희귀식물을 볼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수암천 상류 수리산은 우리나라에서 변산바람꽃이 서식하는 최북단 자생지로도 알려져 있어서 이른 봄이면 꽃을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드는 인파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안양천 지천 가운데 수암천 상류야말로 가장 다양한 식생을 볼 수 있는 귀한 곳인

데, 주변에 아파트와 빌라 등이 과하게 들어서면서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이 외에 수리산 자락에서 발원해 박달동 군부대 계곡 쪽으로 형성된 삼봉천은 소하천으로 분류돼 관리하고 있다. 삼봉천은 안양천살리기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안양천명소화 사업을 통해 2012~2017년에 삼봉천 자연형하천복원 공사를 진행하였다. 흐르는 물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하천이 복원되면서 식생이 살아나고 있으며, 삼봉천과 안양천이 합류되는 하천 주변은 물총새를 비롯해서, 뽕뽕도요·깎작도요 등 다양한 물새 종류가 관찰되고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도 계속 관찰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

2. 협치가 낳은 기적, 회복된 안양천

안양천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며 여울과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고 하얀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떡을 감고 놀던 정다운 하천이었다.¹⁰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안양천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장이 들어서면서 안양시는 산업도시로 주목을 받았지만 안양천은 점점 하천의 기능을 잃어갔다. 공단이 형성되면서 인구 증가 현상도 두드러져 1973년 안양시 시 승격 당시 인구가 11만 명이었는데, 1990년대 초에는 65만 명까지 늘면서 경기도에서 수원과 성남·부천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¹¹가 되었다.

맑고 깨끗한 물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은 일찍이 물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표적이 되었고, 금성방직과 동일방직 등 방직공장을 시작으로 제약과 음향 등 다양한 제조업 공장이 들어섰다. 여기에 삼덕제지·한국제지 등 제지공장까지 들어서면서 안양천 주변 개발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인구는 팽창하는데 이에 따르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임시 방편으로 하천에 도로와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안양천의 오염은 극심해졌다.

산업도시로서의 발전만을 위해 달려오던 상황에 제동을 건 것은 ‘자연’이었다. 1977년 7월에 안양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안양천이 범람했는데, 안양천 주변에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공장과 가옥 등으로 인해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계기로 1978년 안양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이 현재 안양천의 모습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원래 안양천은 1910년의 모습을 보면 상당한 굴곡이 있는 사행하천이었다고 하는



만안초등학교 부근 홍수 피해 현장(1977)

데, 산업화로 하천 주변 토지이용이 증대되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작은 물줄기들은 대거 복개하고 큰 물줄기만 살려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하천 정비는 하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천 호안을 시멘트로 메워 직강 하천을 만드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1978년 하천 정비 이후에도 오염된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고 본래 하천의 기능은 살릴 수가 없었다. 특히 공장이 밀집해 있던 군포시 산본천과 안양 공단 부근 안양천의 오염이 심각했는데, 이러한 안양천 상류 구간의 오염은 하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수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시대적인 흐름이 경제성장기에서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다 보니 도시하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여기에 맑은 안양천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던 안양시민들의 친수 욕구가 더해지면서 안양천을 통해 삶의 질이 높은 살고 싶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양시의 미래전략으로 안양천살리기라는 과업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안양천살리기 사업은 민관협력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안양천을 살리는 이념 하나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낸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로 평



폭우로 파괴된 안양3동 주택가



폭우로 침수된 만안초등학교



교각이 내려 앉은 안양대교



도로가 파괴된 안양2동 상공회의소 앞



안양천 정화 활동(이정범 제공, 1984·1995)

가된다. 관 차원에서는 안양천 유역 기초단체장 중심으로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가 발족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민에서는 안양천 유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과 관의 협력체계가 갖춰졌다. 여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평촌에 터를 잡으면서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안양천살리기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이렇듯 안양천살리기를 통해 안양시는 협치의 기적을 일찌감치 경험할 수 있었다.

1) 시민 참여로 이뤄낸 안양천살리기 사업

1999년 8월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이 구성되었고, 2000~2001년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안양천살리기’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해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안양시 안양천 전 구간에 대한 역사와 자연환경 및 인문 사회환경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안양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양천을 조성하고 안양천을 통한 안양의 역사와 문화, 친수공간을 복원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세제사용 줄이기, 수질오염 감시 활동부터 안양천 정화 활동은 물론이고 안양천변에 갯버들과 조팝나무 등을 심거나 다슬기 방류 등 직접적인 참여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시민들의 지원에 발맞춰 시는 수질개선 사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 이렇듯 안양천살리기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협력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천살리기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

는 것이다.

기록상으로 볼 때, 1980년대 말 기준 안양천 BOD¹² 수치는 평균 200ppm이 넘었다. 현재 안양천의 BOD 수치가 평균 1ppm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200배 이상 오염된 수질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안양천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는 수질개선이었고 개선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량 확보도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생태복원을 통한 생명력 넘치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안양천살리기의 최종목표였다.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근본적으로 부족한 하천유지용수로 지하철 4호선에서 발생하는 용출수와 하수를 고도처리한 재이용수를 활용해 안양천의 수량을 확보하고 풍부한 물을 흐르게 하여 안양천 생태복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안양천살리기에 이은 안양천 명소화 사업부터 고도화 사업까지

안양천살리기 사업은 1999년 시작해 10년 사업으로 계획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도 여전히 완결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 완결이라는 말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자연에 인간이 개입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유량을 확보해서 최대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했지만, 인위적으로 조성한 자연은 계속 인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천화된 안양천을 그 옛날 “가재 잡고 떡감고 놀던 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안양천은 안양시민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보전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어 오고 있다. 그래서 안양천살리기 사업 이후에도 안양천 명소화 사업, 제2의 안양천살리기, 안양천 고도화 사업까지 꾸준히 안양천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1년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 후 학의천과 안양천 본류 구간은 2001년 시작해서 2006년 자연형하천복원 사업이 완공되었고, 이어서 삼성천도 2006~2008년 완공되었다. 수암천은 2008년 착공하였으나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2013년 완공되었다. 삼봉천의 경우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통한 소하천살리기 일환으로 2012~2017년 자연형하천복원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삼막천은 2014~2017년 공사를 진행하였다.

안양천살리기에 이어 진행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은 안양천과 학의천 일원에서 추진되었다. 하천 기능이 회복되면서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인기를 얻었고, 이에 따른 요구에 부응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공간·건축·랜드·



100대 한국의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학의천의 가을

경관조명·시설물 등 5개 부분에 걸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시설물이 안양천에 설치되었다.

2015년에는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더좋은 안양천가꾸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2의 안양천살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학의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안양천 쌍개울 우수흐름 개선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때 쌍개울 수변무대와 박달1교 등 교량 하부에 쉼터 등을 조성하였다.

2022년부터는 자연형 하천으로 회복된 안양천에서 시민들과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안양천을 소통하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의미로 안양천 고도화 사업을 시작했다.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8개 자치단체(서울 구로구·양천구·영등포구·금천구, 경기도 광명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가 안양천 고도화에 동의했으며, 안양천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천의 가치를 높이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자원 등 특성에 맞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양천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자치단체마다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지방정원을 만들고, 이를 연결해서 궁극적으로는 안양천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고, 2029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2025년 안양천 지방정원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안양천은 시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



도가 높은 하천인 만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면 안양천이 옛날을 추억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안양천

안양천이 살아나면서 안양천에는 다양한 생물이 돌아오면서 건강한 하천생태계가 조성되었다. 특히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지표종으로 삼았던 생물들을 안양천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에는 참게가 돌아왔고, 2003년에는 버들치가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승어가 보일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었다. 2004년부터는 물총새가 보이기 시작했고, 여름 철새였던 물총새를 지금은 안양천에서 4계절 내내 관찰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원앙이 월동을 위해 안양천을 찾고 있다.

안양천의 생태변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양시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안양천에 살고 있는 생물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식물은 갈대와 물억새 등 91과 391종이 조사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귀화식물이 19과 60종, 생태계교란식물이 단풍잎돼지풀 등 6종이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식물은 벼과 식물로 40여 종 가까이 관찰되고 있다. 식물 분포상으로 특이종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수암천과 삼성천·삼막천의 경우 상류지역이 산림형 하천이므로 다른 조사하천에 비해 자연수종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어류는 2017년에 11과 34종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후로 서식하는 종류가 단순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2024년에는 4과 12종이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종류는 잉어로 안양천 전 구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붕어·피라미·돌고기가 우점 및 아우점종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조사 결과, 상류에는 버들치가 주로 출현하였고 중하류에서는 피라미·잉어·붕어·참붕어 등이 많았으며 생태계 교란종인 배스가 안양천 본류 구간에서 관찰되었다.

양서·파충류는 2013년 22종이 조사되었으나, 2024년에는 양서류 3과 5종, 파충류 3과 4종으로 9종이 관찰되었다. 양서류 가운데는 큰산개구리(구 북방산개구리)가 가장 많이 보이고, 이어서 옴개구리·참개구리·두꺼비·청개구리 등이 관찰되었다. 파충류 가운데는 도롱뇽·유혈목이·누룩뱀·줄장지뱀 등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꽁이 출현 제보는 있었으나, 모니터링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천 생태계에서 수질 평가 기준이 되는 저서성무척추동물¹⁴의 경우, 2013년에는 47과 97종이 조사되었다. 2024년 조사에서는 23과 28종이 조사되었는데, 하루살이목·파



안양천에서 만난 다양한 생물(호랑나비, 큰산개구리, 도롱뇽, 버들치)

리목·날도래목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서곤충 이외에 곤충은 각종 나비목과 메뚜기목·사마귀목·잠자리목·노린재목 등 258종이 관찰되었다. 이는 나방류가 제외된 수치로 나비목에서 나방류를 포함하면 400여 종 이상은 족히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조류는 2013년에는 무려 65종의 새가 관찰되었으나, 2024년에는 45종이 조사되었다. 조류가 다양하게 관찰된다는 것은 생태계가 그만큼 안정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안양천의 경우 점점 조류 관찰 종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관리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 밖에 너구리·청설모·다람쥐·족제비 등 12종의 포유류가 관찰되었다.

4) 안양천 회복으로 누리는 생태적 서비스, 보호 방안 마련해야

안양천이 살아나면서 안양시와 안양시민이 누리는 생태적 서비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회복된 하천 생태계 덕분에 시민들은 도심 속에서 사계절



안양천의 물억새

내내 자연을 접하고 다양한 생물을 만나면서 힐링과 여유를 갖는다. 학의천에 흙길을 살리고 왕버드나무를 베어내지 않은 덕분에 시민들은 물억새가 자라난 아름다운 하천 길에서 산책을 즐기고 걷다가 지치면 자연쉼터가 만들어진 아름답드리 왕버드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안양시 안양천 구간 둔치에는 6개의 인공습지가 있다. 상류 구간부터 동안습지, 학운습지, 비산습지, 대우습지, 화창습지, 연현습지 등이다. 습지가 있어서 물속·물가·주변 등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그와 연관된 생물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습지를 생물다양성의 보고라고 하며, 이는 생태계를 배우는 소중한 교육 공간이 되고 있다. 안양천을 걷다 보면 습지 주변에서 생태교육이 진행되는 모습을 자주 관찰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창습지와 연현습지에는 겨울이 되면 철새 수백마리가 찾아와 겨울을 보내고 간다. 특히 석수하수처리장 방류구는 물 반 철새 반의 모습으로 마치 철새들의 대중목욕탕 같은 느낌이다. 이들 가운데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어서 유난히 눈에 띄는 새가 있는데, 천연기념물인 원앙이다. 원앙은 2007년부터 안양천에서 겨울을 보내는데, 2019년부터 개체 수가 늘기 시작해 2021년에는 500여 마리가 넘게 왔다. 점차 개체수가 줄어



안양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조류 흰목물떼새·원앙·참매·겨울철새

서 2023년에는 300여 마리가 관찰되었다. 이 밖에도 안양천에는 참매·말뚝가리·황조롱이·새호리기 등 맹금류도 자주 관찰되고, 멸종위기 2급인 흰목물떼새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안양천이 회복되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도 살 만한 곳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이제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단위 하천 센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안양천살리기가 성공을 거두면서 안양천을 살려낸 이야기를 좋은 사례로 남기고 안양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성 확보를 위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하천 중심 유역 단위 방문자센터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하 이야기관)은 시민들에게 안양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하천의 매력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시민들에게 하천 환경 보전 및 활동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표로 설립하였다.

이야기관 건립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센터 건립을 제안한 것이 계기였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가 유치 의사를 밝혔으나, 제안서 검토 결과 안양시로 유치가 확정되었다. 2008년 공모를 통해 설계를 완료하고 3년의 공사를 거쳐 2012년 10월 31일 개관하였으며, 10년 만인 2022년 리모델링을 통해 체험시설을 보완하였다.

명칭은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이 공모작으로 선정되었으나 안양천의 역사와 생태 환경에 대한 전시를 통해 유역 주민들과 안양천 이야기를 나누는 체험 공간이면서 교육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의미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으로 확정하였다.

규모는 연면적 1499.65㎡로, 지상 1·2층 전시관과 옥상정원, 3D입체영상관, 야외 정원 및 조류관찰대를 갖추었다. 안양천의 역사와 이야기, 안양천의 생물 등의 전시와 체험시설을 통해 안양천을 이해하고 생태를 배우는 교육 공간이면서 체험놀이터이다. 지역의 환경과 안양천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면서 환경 보호와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년 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연간 9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14개의 정규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시관에서는 주변에 있는 안양천·화창습지 등을 활용한 대상별·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계절별 생태체험 교육이 진행되고, 찾아가는 교육은 교육 현장의 환경을 활용해 가장 최적의 생태교육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 만족도가 무척 높은 편이다.

2016년부터는 경기도로부터 안양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면서 지역의 단체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그룹과 연계한 교육, 교육청 연수 교육, 교과 연계 교육 등 특별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주체가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되면서 2023년에는 안양시 제1호 안양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았다. 지역센터로서 안양 환경 관련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의 환경단체와 함께 수달모니터링, 안양천 생태계교란식물 공동 제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안양천을 찾는 원앙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안양천 원앙학교를 운영하고 경기도 내 환경센터와 네트워크하는 등 함께하는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이야기관 부지는 ‘똥골’이라고 불리던 동네에 분노처리장이 있던 곳이었다. 소외된 지역이었기에 개발이 더디고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었고 이야기관이 들어설 수 있었다. 2024년에 기후변화교육센터인 안양그린마루가 바로 옆에 조성되었고, 생태힐링공원 조성계획도 있다. 계획이 실현된다면 안양천과 연계된 안양시 환경종합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안양시 환경을 이해하는 환경복합 공간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 인프라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안양시의 미래 비전, ‘지속가능한 안양천 가꾸기’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서 그야말로 자연 다큐 한 편을 감상할 수 있었다. 까치가 울어대는 소리가 너무 요란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참매가 까치 사냥에 성공한 것이었다. 주위에서 여러 마리의 까치가 울어대는데도 참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냥감을 먹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5분 정도 까치를 쫓아 먹던 참매는 배가 어느 정도 찻는지 먹는 동작을 멈추더니 지붕 모서리 윗쪽에 앉아서 사방을 한 바퀴 둘러봤다. 그러더니 이내 사냥한 까치를 두 발로 움켜쥐고는 와룡산 쪽으로 휙 날아가는 것이었다. 포스가 넘치는 참매를 직접 눈으로 관찰한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이렇게 사냥해서 먹는 모습까지 보니 정말 자연인이 된 것 같은 벅참이 있었다. 겨우 형태만 알아볼 정도의 휴대폰 사진만 남아서 많이 아쉽긴 했지만, 학생들을 교육할 때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안양천이 이런 곳이라는 생각에 한동안 어깨가 으쓱여졌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 다큐를 감상할 수 있다니 …….

올봄에는 이야기관 정원에 있는 나무에 새집을 걸어 두었더니 일주일 만에 박새가 날아와 등지를 틀었다. 보름 후 12개의 알을 낳았고 20여 일 지나자 새끼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다양한 생태교육 현장

부화해 부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였다. 한 달 후에는 한 마리의 낙오나 실패 없이 12마리 모두 성장해 날아갔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새끼를 키워 독립시키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다.

2024년 안양천에는 유난히 생태계교란식물이 창궐했다. 다양한 그룹과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의외로 참여 활동을 좋아하고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언가를 함께하는 기쁨이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배운 시간이었다.

하루하루가 날마다 감동일 수는 없지만, 안양천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안양천은 정말 안양시의 특별한 자원이다. 하천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알게 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안양천과 함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또 다른 미래들이 지금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안양천을 가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안양시의 미래 비전은 안양천에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양천이 자손만대 이어져서 안양천과 함께 건강한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안양시,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요약본)』, 2001, 253쪽.
2. 안양시, 『안양시정백서』, 2008~2024.
3. 안양시,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2005~2024.
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내고향서울 3 서울의 하천』, 2000, 445쪽.
5. 하천복원연구회, 『하천복원사례집』, 청문각, 2007, 227쪽.
6. 사진자료: 안양시청 및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제공.

註

-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내고향서울 3-서울의 하천』, 2000, 321쪽.
- 2 안양시,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요약본)』, 2001.
- 3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안양천생태이야기관.
- 4 1989년(정조 13) 전국의 지역별 호구를 정리한 문서로, 1395년(태조 4)부터 19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와 1789년 한성부를 비롯한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도·강원도·충청도·황해도·전라도·평안도·경상도·함경도 순으로 기록하였다.
-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내고향서울 3-서울의 하천』, 2000, 322쪽.
- 6 조선 전기 문신인 이행·윤은보 등이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하여 1530년(중종 25)에 편찬한 지리서로, 지리·역사·문화·경제·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 7 현재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안양천 합수구 일원으로 철관포로도 불렸다.
- 8 다만 학교개천의 위치를 비정함에 있어 『2008 안양시사』에서는 현재 의왕시 학의동에서 성남시 운중동으로 넘어가는 '하오개'로 상정하여 당시 원문 표기의 오류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 이외에 『과천군읍지』에서도 학교개천은 과천읍 서쪽 19리로 표기하였으며, 수록된 지도 또한 군포천(현 안양천)의 서쪽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교개천은 현 갈현천이 아닌 현재 산본천 또는 당정천에 해당하며, 인덕원천이 현재의 학의천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때의 학교개는 명학동과 관련한 지명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인근에 '학교개'라는 지명으로 정확하게 사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에 지명과 관련한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9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 1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4, 2008, 446쪽.
- 11 2024년 현재 안양시 인구는 55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 순위 11위이다.
- 12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즉 물속에 녹아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한다. 수질 오염도를 측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며, 수치가 작을수록 깨끗한 수질이다.
- 13 안양시,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각 연도(2005~2024).
- 14 생활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속에서 사는 무척추동물물을 총칭하는 말. 수서곤충이 대표적이어서 보통 수서곤충으로 총칭되기도 한다.

5장

옛 1번국도 만안로



최승빈 용산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구본태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1. 안양의 주변 환경과 교통

길은 사람이나 동물이 오고 가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소통과 교환의 통로이다. 작게는 오솔길 또는 샛길부터 시작하며 문화적 어감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길의 중요성은 단순한 사람과 화물을 옮기는 역할에서부터 각종 정보가 오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며, 도시 공간을 구획하거나, 이어주기도 하면서 도시의 짜임새와 생김새를 결정짓기도 한다.¹

안양을 통과하는 국도1호선, 다시 말해 옛 안양1번국도인 만안로는 역사적으로 1795년 조선 22대 국왕 정조가 조성한 만안교와 함께 정조의 능행길²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그리고 23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안로는 시대와 공간을 연결하여 안양의 역사적 환경과 변화에 따른 흔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안양의 주변 환경과 교통을 살펴보면 안양은 서울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 중상류에 발달된 도시이다. 안양시 북동부와 남서부 지역은 산지가, 남동부 지역은 평야가 펼쳐져

안양시가지 전경(이정범 제공, 1968)





안양시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있다. 북동부에는 관악산·삼성산이 솟아 있어 서울·과천과 경계를 이루며, 남서부는 수암봉·슬기봉 등의 산지가 시흥·안산·군포와의 경계를 따라 솟아 있다. 안양의 지형은 안양천 주변으로 발달한 하천퇴적 지형과 관악산·수리산 등의 산지 지형이 뚜렷하게 대비된다.³

안양의 주변 환경을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생산·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울에 인접해 있고, 서해안의 중심도시인 인천과 대규모 공단이 위치한 수원 사이에 있으며, 서울의 위성도시인 광명·시흥·군포·의왕·과천과 인접해 있다. 일찍이 경부선이 관통했기에 근대 이후 대규모 소비 지역과 물류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촌락에서 공업도시로 급속히 성장하였다.⁴

안양은 주변 환경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하천 주변에 놓인 도로 및 철도를 따라 대상형(帶狀型, 띠모양)으로 도시가 발달하였다. 특히 안양의 교통은 현재 만안로 주변으로 경부선 철도와 경수산업도로 등이 나란히 뻗어 있으며 내부 교통보다 외부 교통이 통상적으로 활발했던 점이 특징적이다. 안양천을 따라 뻗은 정조의 화성 능행로와 경부선 철도, 그리고 현재 1번 국도인 경수산업도로까지 육로·철도·차도가 1980년대까지 안양을

서북-동남 방향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놓이고 확장되었으며, 안양천 동쪽의 달안평야가 평촌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 안양 내외로 뻗는 교통망이 다각화되었다.

2. 만안로의 역사적 변천

1) '통금천현대로通衿川縣大路', 시흥로(18세기)

조선시대 도로는 넓지 않았고, 도로의 발달은 정체되었다. 전근대 중앙집권체제에서 도로는 명령의 전달·지방의 보고·공물이나 진상의 수송 등의 기능에 국한되었으며, 모든 간선도로는 서울로 향했다. 육로는 소규모 화물 운반과 인마人馬 이동에 활용되었고, 주로 통신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보는 육로로, 화물은 바다와 강을 통해 이동했다.⁵

조선시대 한양의 도로에 대한 규정은 성종 16년(1485)에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工典 교로조橋路條의 시행으로 확정되었다. 도성 내 도로 폭에 대해 “대로의 너비는 56척, 중로는 16척, 소로는 11척으로 한다. 또 도로 양쪽에 도랑을 두는데, 그 너비는 각각 2척이다”라고 노폭路幅과 수구水溝에 대해 규정하였다. 오늘날의 단위로 너비를 환산하면 17.5m, 5m, 3.4m, 62.5cm 정도이다.⁶ 17세기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에서도 도성 안의 길을 “대로·중로·소로로 구분하고, 각 너비를 36보·18보·9보로 하며, 길 양쪽에는 대로는 2보, 소로는 1보 너비의 도랑을 파야 한다”라고 하였다. 외방 읍성 안의 길의 너비는 대로 18보·중로 9보·소로 6보로 전해졌으나, 현실적으로 도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도로 폭과 포장 상태 등은 고을 사정에 따라 달랐다.⁷

1724~1776년까지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해동지도」에는 고지도 중 드물게 도로명이 표기되어 있어 조선 후기 안양의 도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금천현에 속한 안양 지역은 석수동·충훈동·박달동으로, 석수동과 충훈동은 금천현 현내면 안양리로, 박달동은 서면 박달리로 편재되어 있었다. 「해동지도」 금천현 지도에서는 안양교통수원대로安養橋通水原大路라는 도로가 삼성산 남쪽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나가는 붉은색 실선으로 표기되어 있다. 통수원대로는 ‘수원으로 통하는 대로’라는 의미로,⁸ 길의 목적지가 수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해동지도」 과천현 지도에서 도로는 대로와 중로로 구분하여 금천현 지도보다 안양 주변 도로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⁹ 지도에서 확인되는 대로는 총 4개로, 통금천현대로



해동지도 과천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만안교

通衿川縣大路와 광주사근천통삼남대로廣州沙斤川通三南大路, 통경도대로通京都大路, 통광주판교대로通廣州板橋大路이다. 이 중에 가장 서쪽에 동글게 휘어지게 표현된 통금천현대로는 ‘금천현으로 통하는 대로’라는 뜻으로 현재 만안로와 거의 동일하다.¹⁰ 광주사근천통삼남대로의 통삼남대로는 ‘삼남으로 통하는 대로’라는 의미로, 한양-동작진-호현(현 남태평)-과천 읍치를 지나 남쪽으로 통하는 최단 코스이자, 한양 남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도로였으며 도로 중간에는 갈산주막葛山酒幕도 보인다.¹¹ 18세기 「해동지도」에 표기된 도로의 명칭처럼 당시 지도에는 길의 목적지와 중요도가 함께 병기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거동을 위해 길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왕을 비롯한 관료, 군사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넓히는 정비 공사가 이루어졌다. 국왕의 거동은 많은 인원을 동반했기에 길의 일정한 너비가 필요했다. 임금의 타던 수레인 대가(大駕)가 지날 때는 좌우로 6첩의 시위가 서야 했고, 계다가 밤 거동에는 도로 좌우로 횃불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성 밖 도로는 대부분 25척이 기준이었으나, 공사 등의 민폐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도로를 넓게 닦지 않았다.¹²

1795년(정조 19) 정조의 현릉원 원행 시 만들어진 시흥로는 왕의 거동으로 생긴 최초



한어행렬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의 신작로로 보기도 한다.¹³ 정조의 능행로는 김정호의 『대동지지』(1864)에서는 10대로 중 7대로(수원별로)로 나와 있다. 7대로는 창덕궁부터 수원까지 거리가 100리였으며, ‘승례문-노량진-문성동-시흥-안양행궁-사근평행궁-지지대고개-노송지대-수원행궁-건릉’까지 이어지는 길이다.¹⁴

정조는 율행을 준비하며 혜경궁을 안전하게 가게 가교(駕橋)로 태워 모시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경기감사 서용보에게 험준한 남태령고개가 있는 과천로보다 편안한 길을 만들도록 했다.¹⁵ 이윽고 시흥로 개설 공사에 착수하며 금천현을 시흥현으로 개명하고 1번 국도의 모태가 된 시흥로를 만들었다. 공사 과정에서 도로 주변 소나무를 베는 일이 많았다는 기록으로 볼 때 「해동지도」에서 확인된 통금천현대로를 어가 행차를 위해 대로로 확장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1795년 혜경궁을 모신 행차에서는 안양천에 비용 문제로 목교를 설치하고 통과하였으나 이후 경기감사 서유방에게 명하여 홍예석교인 만안교를 축조하게 하여 영구히 이용하고자 하였다.¹⁶

2) 1등도로(1911~1938)

안양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1905년 개통된 경부선 철도 부설이다. 철도를 따라 기차역이 생기면서 안양천 서쪽 지역에 역을 중심으로 상권과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경부선 철도는 조선시대 시흥로와 나란히 놓였기에 서울과 수원 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안양역은 서울-부산 간의 여객 및 화물 수송을 분담하면서 역 주변으로

서서히 인구가 증가했고, 도로와 철도를 따라 시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다.¹⁷

대한제국을 합병한 일제는 식민 지배 체제 구축을 위해 도로의 개수를 서둘렀다.¹⁸ 1906년 조선통감부 시기부터 이미 「도로개수계획」을 세웠고, 1911년 「도로규칙」을 공포하면서 도로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1917년까지 전국적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확충하였다.¹⁹ 1915년에는 「도로규칙」(조선총독부령 제111호)을 개정했는데, 1등도로는 4간(7.2m), 2등도로는 2간(3.6m), 3등도로는 2간 이하로 노폭이 조정되었다.²⁰ 1910년대부터 부설된 근대 신작로는 단순히 도보 통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차·자동차 등의 통행이 중심이었기에, 거리보다는 높은 고개나 험한 도로를 피해서 개설되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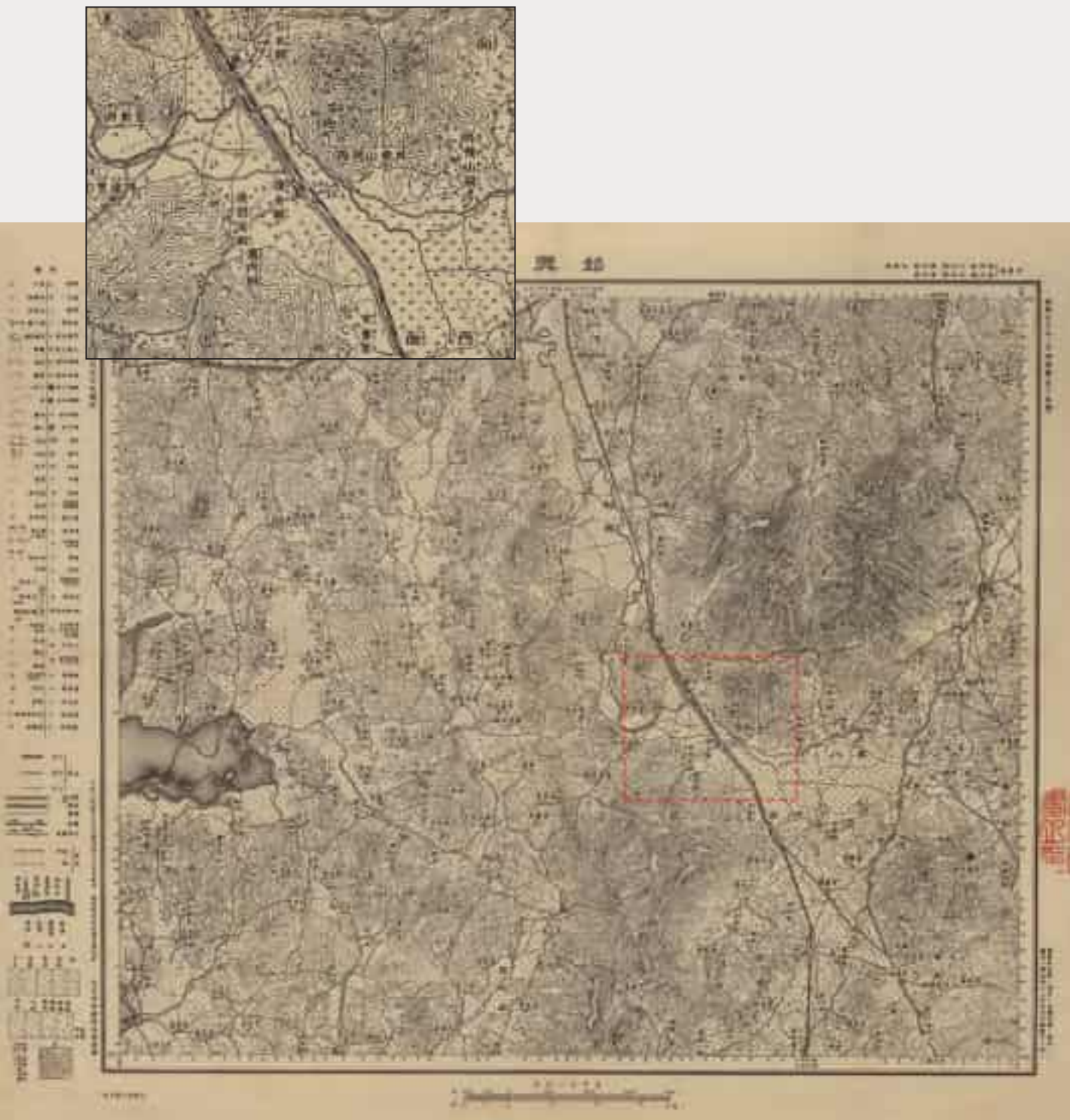
1907년 촬영된 안양역 정차(국립민속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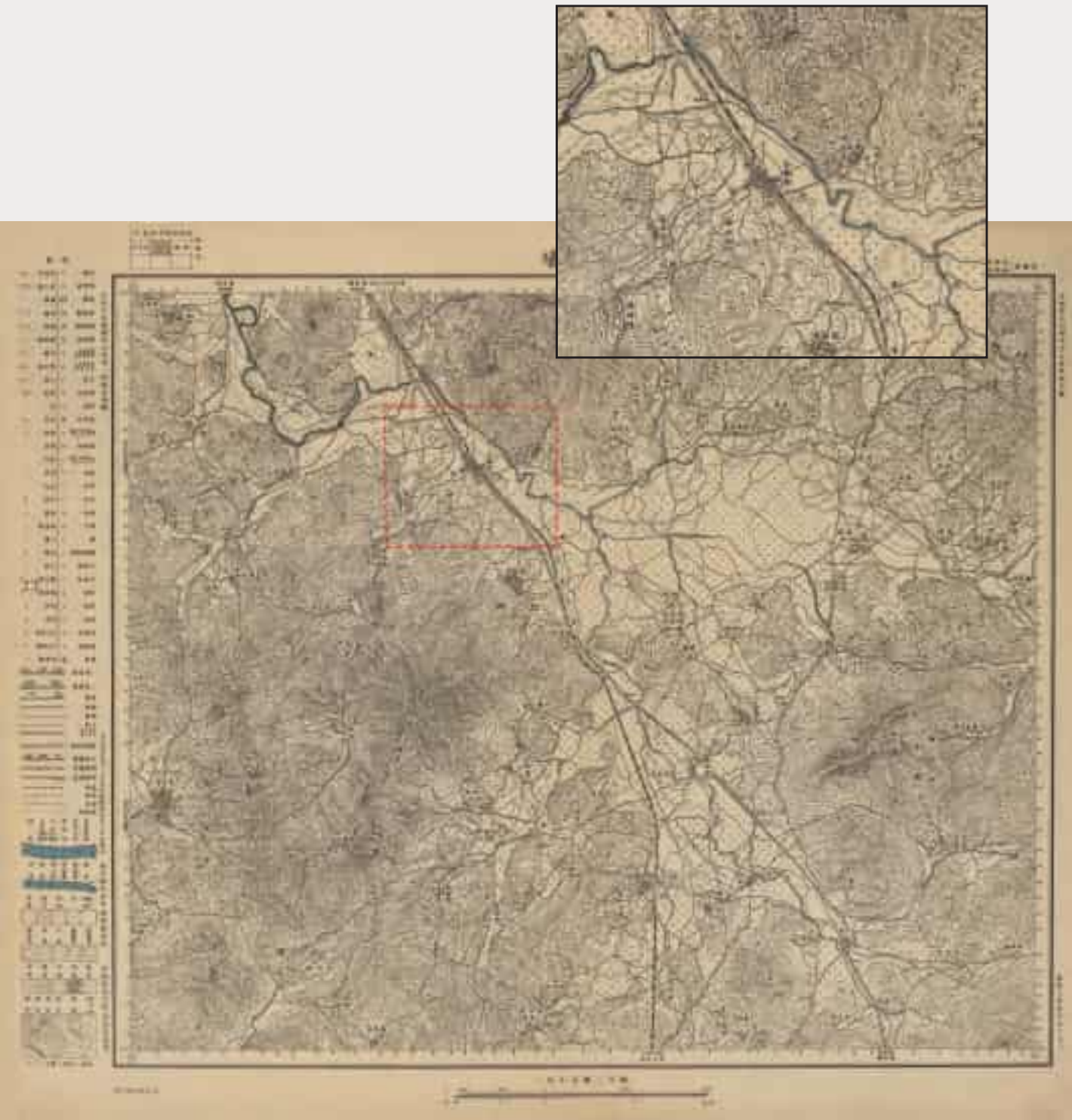
〈표 1〉 1911년 「도로규칙」

등급	내용	노폭	관리 주체
1등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성으로부터 각 도청 소재지, 각 사단사령부·여단사령부·요새사령부·진수부·요항부 소재지, 주요 개항장 또는 주요 정거장에 달하는 도로 군사상 중요한 도로 경제상 특히 중요한 도로 	4간(7.2m) 이상	총독
2등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청 상호 간 및 도청과 관내 부·군청 소재지 사이 도청 소재지로부터 도내 중요지점, 향진 또는 철도 정거장에 달하는 도로 도내 또는 인접 도내의 중요지점 향진·정거장 상호를 연결하는 도로 	3간(5.4m) 이상	총독
3등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군·도청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부·군·도청과 관내 중요지점·향진·정거장을 연결하는 도로 부·군·도내 또는 인접 부·군·도내 중요지점, 향진·정거장을 연결하는 도로 	4m 이상	도지사
등외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이외의 도로 	-	

출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목편』, 2010, 241쪽.

조선총독부에서 1910년 시흥 지도에서는 지도 중앙 부분에 남북방향으로 1905년 부설된 경부선 철도가 확인되며, 범례에는 대로·중로·소로가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다. 안양 지역에 국한해서 살펴보자면 경부선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대로로 표시되어 있고,





1910년·1918년 안양역 주변 교통망



안양역 앞을 통과하는 일본군 제20사단(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공)

기차역 서쪽으로 발사동(撥舍洞), 후두미동(後頭尾洞)과 박달리(博達里) 방향으로 뻗는 중로도 확인된다. 지도로 볼 때 1910년 당시 역 주변 시가지 형성은 아직 미미했다.

1918년의 군포장 지도에서는 1910년 측도된 시흥 지도보다 길의 구분이 세분화되었다. 1911년 제정된 「도로규칙」의 1등도로, 2등도로의 등급과 노폭에 대한 구분이 지도 범례에 나와 있다. 「도로규칙」의 1등도로 너비 기준은 4간 이상(1911년), 4간(1915년)이었으나, 지도의 안양 지역 1등도로는 길에 2줄로 표기한 2간 이상(二間以上)으로 표기되어 「도로규칙」의 너비 기준과는 차이가 있었다. 군포장 지도 범례에서 안양 지역 1등도로의 너비가 2간 이상, 1간 이상, 1간 이하로 세분된 것으로 보아 1등도로의 노폭은 「도로규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실제 도로 구간마다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1등도로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지경성경시흥(至京城經始興)’, ‘지목포경수원(至木浦經水原)’으로 1급도로의 경과지와 종점을 각각 표기하였다.

1924년 제20사단 추계연습 사진엽서에는 일본군 여러 명이 말을 타고 안양역을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제20사단은 제19사단과 함께 1916년부터 한국에 상주했던 사단으로, 제20사단은 용산기지에 사령부를 두고 경성과 증북부 지방을 담당했었고, 보



군포장 부근 일본군 제20사단(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공)

병 제79연대도 용산에 배치된 부대였다.²² 또 다른 제20사단 추계연습 사진엽서에서는 군포장 부근에서 훈련하는 포병·통신병의 모습도 확인된다.²³ 용산에 배치되었던 일본군이 안양역과 군포장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 사진으로 보아 당시 안양 지역 1등도로가 지닌 군사적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안양역 1등도로 주변으로 있었던 초가집과 기와집이 분포한 1920년대 역 주변 도로 경관도 확인된다.

1930년대 안양 지역 1등도로 주변에 거주한 구술자에 의해 작성된 안양역 앞 지도를 살펴보면, 각종 잡화점·포목점·음식점·술집·이발소·주재소·금융조합·신사 등의 존재가 확인된다. 안양역 부근은 1914년부터 시흥군 서이면에 속하였는데, 원래 호계리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1917년 안양역 주변으로 옮겨졌으며, 일제강점기 안양 경제를 주도했던 화신상회·삼광정미소·양조장 모두 1등도로와 경부선 철도를 따라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었다. 당시 안양의 가장 변화가는 1등도로(현 만안로) 주변이었다.²⁴

이는 민속학자 송석하가 1930년대 안양역 주변을 조사하여 남긴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카드에는 “원판 14, 미륵당 전경彌勒堂 全景, 소화9년(1934) 2월 20일 어안양역전於安養驛前”이라고 기록하여 촬영 시기와 장소를 밝혔는데,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사진의 큰 나무 뒤로 보이는 건물이 미륵당으로 보인다. 미륵당의 미륵불은 과거 안양역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을 역 앞으로 옮겨 둔 것이라 전한다. 이용구(1926년생)의 구술에 따르면, “1930년대 초반에 안양에 처음 생긴 노무라병원이 미륵당 뒤에 있었으며, 1930년대 중반 미륵당 옆에는 안양에 처음 세워진 목조 2층 기와집 건물(신영조네 술집)이 있었다”고 한다.²⁵ 당시 안양역 주변은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술집도 꽤 많았



안양역 앞 미륵당과 인근 거리 풍경(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다고 하는데, 대흥관·국일관 같은 유명한 집만 간판을 걸었고, 시시한 술집들은 ○○네 술집이라 부르며 간판이 따로 없었다.²⁶ 송석하 조사 사진에서도 ‘안양음○점安養飲○店’, ‘술’이라 적힌 간판과 우측 기와집 문의 입구에 ‘미○○○성각彌○○○誠閣’ 문구가 확인된다.

3) 국도 3호선 경성목포선(1938~1961)

조선총독부는 1911년 「조선도로규칙」을 제정한 이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여 1938년 「조선도로령」을 공포하고, 「조선도로령시행규칙」을 잇따라 발표했다.²⁷ 193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도로령」의 주요 변화는 기존 1~3등도로의 등급을 폐지하고 이를 국도·지방도·부도·읍면도로 조정하며, 국도는 조선총독, 지방도는 도지사, 부도는 부윤, 읍면도는 읍면장이 도로의 유지 및 수선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²⁸ 대체로 종전의 1등도로 전체 및 2등도로의 일부가 국도로, 2등·3등 도로 일부가 지방도로 이행되었다. 이에 따라 안양을 지나던 1등도로는 국도로 변경되었고, 1938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고시 제 956호에 의해 경성부부터 목포부까지 연결된 경성목포선(노선번호 3)으로 변경되었다.²⁹

일제강점기 소설가 채만식의 「집」(1941)은 안양에서 물난리를 겪은 사연이 자세히 묘사된 자전적 단편소설로 분류되는데,³⁰ 소설 중 안양역 앞 풍경에 대해 묘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안양이라면 서울과는 지척이요, 여름 한철은 풀로, 가을 한철은 포도 기타 과실로 이름은 자자했으나, 또 차로는 늘 지나다니고 하면서도 일찍이 한번도 와 본 적이 없고, 그제 바루 초행이었다. …… 역전은 시가지라곤 하지만 말뿐이지 생각했던 이보다 지극 한산하고 단조한 곳이었다. 외거리 행길이 좌우로 뻗치고 거기에 가서 촌스런 잡화점과 고무신 가게와 음식점과 이발소와 그리고 주재소니 우편소니 버스 정류장이니 운송점 등속이 움푹땀 백허 있을 따름이었다.³¹

채만식이 소설에서 언급한 역전 앞 ‘외거리 행길’은 1938년 조선총독부고시에 의한 국도 경성목포선이다. 소설 속 주인공이 받은 안양의 첫인상은 ‘차로로 늘 지나다니면서도 와 본 적이 없는’ 곳이자 ‘한산하고 단조한 곳’이었으나, 역으로 기차역과 더불어 주재소·우편소·버스정류장·음식점·잡화점 등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진 모습이기

朝鮮總督府告示第956號
國道第九百五十六號
京成線全線
昭和十三年十一月一日

站名	距離	備考
一 京成線		
二 京成線		
三 京成線		
四 京成線		
五 京成線		
六 京成線		
七 京成線		

조선총독부고시 제956호의 국도(국립중앙도서관 제공)

도 했다. 소설가 채만식이 바라본 안양의 촌스런 잡화점·음식점·이발소·운송점은 구술자료로 복원해 볼 때 화신상회·대성상회, 정운석네설령탕·경민옥, 오태환·함기용네 이발소, 마르보시(대한통운)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4) 1급국도 제1호(1963~1970), 일반국도 제1호(1971~1974)

해방 후 대한민국의 「도로법」(법률 제871호)은 1961년 제정되었고, 기존 「조선도로령」은 폐지되었다. 개정된 「도로법」에서는 도로 기준을 다시 1급국도·2급국도·특별시도·지방도·군도로 분류하였다. 이후 「도로법」 제4차 개정(법률 제2232호)인 1970년에는 1급국도와 2급국도를 일반국도로 통합하고, 일반국도의 상위도로인 고속국도를 새로 규정하여, 국도는 다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구분되었다.³² 「1급국도와 2급국도의 노선지정」에 따라 시흥군 안양읍을 지나는 1급도로는 제1호 서울목포선의 경과지였으며,³³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따라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선의 주요 경과지였다.³⁴ 1938년부터 국도 경성목포선(노선번호 3)이었던 안양읍을 관통하던 도로는 1963년부터는 1급국도 목포-신의주선 제1호에 해당했으며, 1971년부터 일반국도 제1호(국도1호선) 목포-신의주선으로 변경되었다.

안양역 앞 도로가 1급국도 제1호에서 일반국도 제1호로 변하는 사이 안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49년 안양면은 안양읍으로 승격되었고, 1940~1950년대에 이미 섬유·면직·제지 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도시의 기반이 갖추어졌다. 1932년 조선직물주식회사가 신축된 이래 1941년 유한산업 안양공장, 1945년 안양직물공장·조선견직주식회사·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 등이, 1940년대 후반에 제일방직·조선중앙고무공장·남해산업공사·금성방직 등 많은 공장이 안양에 들어섰고 인구가 더욱 급증했다. 6·25전쟁 이후 1950년대에도 태평방직·고려석면·한국제지주식회사 등의 공장이 안양에 지어졌다. 1960년대 기계·금속·화학 등의 공업이 더욱 가세하여 안양은 경인지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가 되었다. 1973년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공업 위성도시로서의 위상은 강화되었고,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었다.



1960년대 안양읍내 지형도

〈표 2〉 해방 이후 안양시 인구 변화

(단위: 명)

연도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
인구	20,085	22,301	31,290	54,287	90,505	124,848

출처: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6, 2008, 38쪽.

1960년대에는 포도밭 등의 농지로 쓰였던 남부동, 냉천동 방향으로 시가지가 보다 확장되었고 도시 내부 도로망이 갖추어졌다. 기존 경부선철도와 1급국도(제1호) 외에도, 1급국도 남쪽으로 읍내를 관통하는 도로(구 중앙로, 현 안양로)가 1953년부터 개설되며³⁵ 도시의 중심축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1968년부터 1969년까지 미군부대 83보급대대에서 복무한 닐 미살로프(Neil

Mishalov)의 사진을 통해³⁶ 1960년대 후반 1급국도(제1호) 주변 경관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서울 방향 1급국도가 차선 구분 없이 포장된 왕복 2차선 도로였음이 육안으로 확인되며 사람과 차량이 함께 1급국도를 이용했다. 다른 1급국도 사진(안양역 앞)에서는 버스터미널이 보이고, 도로 주변으로는 식당·다방 등이 보인다.

1970년대 초 안양에 대해 박옥희(여, 1931년생, 1971년부터 한국제지 근무)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³⁷

그때는 안양읍이고 안양시가 아니었지. 지하철도 없었고 공장이 많았죠. …… 구도로라고 안양역에서 저쪽으로 있고, 지금 안양대교처럼 이렇게 큰길이 없었어요. 큰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차가 안 다니고 포장도 안 했어.

구술에 따른 1970년대 초 안양역을 지나는 구도로는 현재 만안로이고, 비포장된 큰 길은 현재 안양우체국 사거리가 있는 안양로이다. 1972년 시흥군의 조사³⁸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요 교통목 3곳(금성방직 옆 사거리·안양유원지 입구·안양역전 삼거리)을 선정하여 07~19시까지 교통량을 파악하였는데, 여전히 미군 83병기대대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었기에 읍내 도로에서 군용차량이 자주 목격되는 한편, 안양로(금성방직 옆 사거리)와 만안로(안양유원지·안양역전)의 교통량 차이가 크게 두드러진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초반 안양읍의 주요 교통 중심축은 여전히 만안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1972년 안양읍내 도로별 교통량 조사

(1972.5.5 기준, 단위: 대)

조사위치	승용차	화물차	군용차	합계	비고
금성방직 옆 사거리	2,197	531	235	2,963	
안양유원지 입구	5,396	2,663	358	8,417	승용차 수치에 버스 포함
안양역전 삼거리	6,141	2,660	279	9,080	



서울 방향 1급국도(닐 미살로프 촬영, 국가기록원 제공)



화단극장 앞 삼거리(닐 미살로프 촬영, 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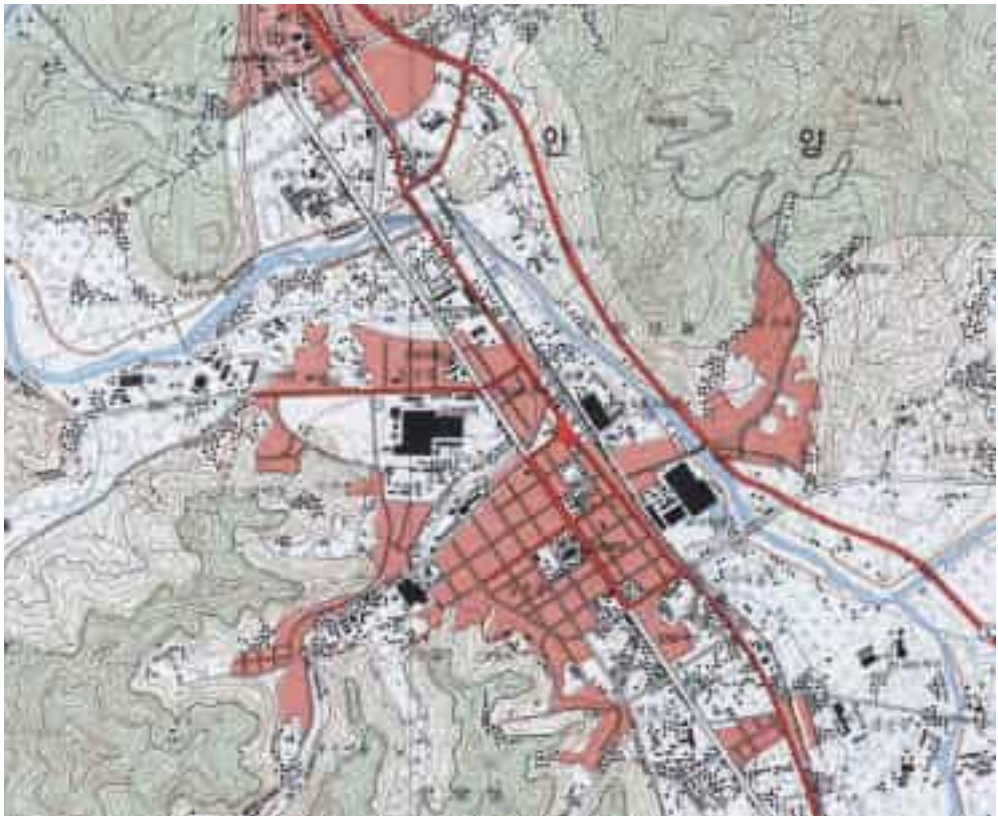
안양역 로터리(닐 미살로프 촬영, 국가기록원 제공)



비포장된 서안양우체국 앞 중앙로(닐 미살로프 촬영, 국가기록원 제공)

5) 구도로 만안로(1975~)

1973년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된 후, 12개 동의 행정구역이 갖추어졌다. 안양역을 중심으로 한 시내 도로망은 더욱 조밀해졌고 시내 교통문제 해결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공사도 1970~1980년대에 활발히 시행되었다. 1974년도 안양역 일대 지도에는 붉은색 포장도로와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비포장도로가 구분되어 있어 안양시내 도로 상황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존의 도로 이외에 시내를 우회하여 군포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수산업도로가 새로 개설되었는데,³⁹ 기존의 1번국도(현 만안로)와 경수산업도로는 전 구간이 포장되어 있고 중앙로는 포장 공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과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은 전부 비포장 상태인 것이 확인된다.⁴⁰ 경수산업도로 및 중앙로 개통은 1번국도로 일원화되어 있던 도시 내부 발전의 축이 분리됨과 동시에 1번



1976년 안양역 일대 교통망 상황

국도의 기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⁴¹ 또한 경수산업도로의 개통으로 비산동·호계동 일대의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경수 간 전철 개통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북쪽으로는 서울 시흥동과 남쪽으로는 군포시 금정동과 시가지가 맞닿게 되었다.⁴²

경수산업도로의 건설로 1번국도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 명칭도 달라졌다. 1974년 도로 현황에서 국도 8.87km와 고속화도로 10.1km 길이가 확인되는데, 1975년도에 도로 총연장은 112.14km로 동일한 반면, 고속화도로가 사라지고 국도 현황이 10.1km 길이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1974년 고속화도로였던 10.1km 길이의 경수산업도로가 1975년경 국도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1974년 1번국도의 8.87km 길이만큼 1975년 도시계획도에 반영된 수치(70.78km → 79.65km)로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⁴³ 이처럼 1번국도 구간이 경수산업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국도를 지칭하는 명칭은 ‘구국도’, ‘구도로’, ‘만안로’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⁴⁴

1970년대 도로 현황은 중앙차선이 도색된 것 외에는 1960년대 도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만안로는 별도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선이기에 많은 차량이 다니기에는 여전히 비좁은 너비였고, 실제로 1974년 경수 간 국도에서 앞선 ‘자전차’를 추월하려던 버스가 반대 방향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⁴⁵ 도로는 험하지 않고 포장되어 있었기에 1970년대부터는 서울에서부터 안양을 경유하거나 종착지로 주행하는 자전거 대회가 종종 열리기도 했다.⁴⁶ 만안로는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교통수단이 이용하는 도로였다.

안양시 자동차 현황은 1973년 총 594대, 1977년 1272대, 1981년에는 4797대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⁴⁷ 차량을 이용하는 도로의 수요는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급증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에서도 1970년대부터 각종 토목·건설·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공사가 활발히 실시되었고, 197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에 의해서도 도로포장·하수도 시설·보도 블록 등의 도로 사업이 적극 지원되었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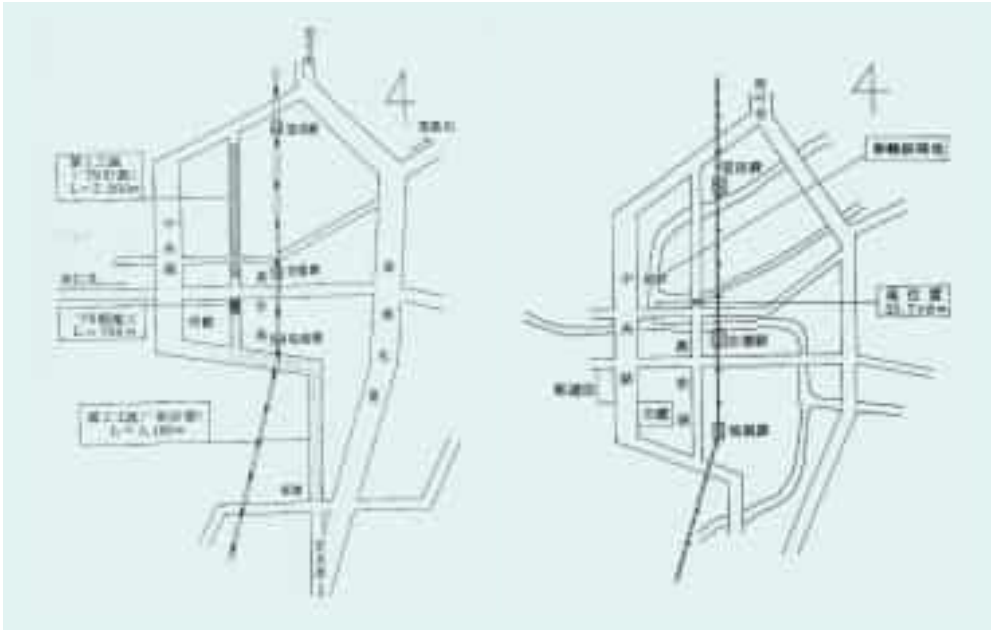
만안로도 혼잡한 시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 확장·포장 공사 등이 구간별로 계획되어 시행되었다. 1978년 만안로 700m 구간에 대한 일부 공사를 마쳤고, 1979년 관악역부터 안양역까지 2050m, 1981년 안양주유소부터 군포까지 2197m에 대해서도 확장 및 정비 공사가 실시되어 도로 환경이 점차 개선되었다. 공사 전 노폭이 8~10m였던 너비가 20m로 정비되었고, 보도 및 경계석 설치·하수도 정비·도로 포장·교량 확장·가로수 식재 등의 공사가 함께 이루어졌다.⁴⁹ 한편 도로 교폭의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길이 31.1m, 너비 8m의 만안교는 북쪽으로 200m 떨어진 삼막천으로 이전하



1970년대 만안로(안양1동)



1970년대 만안로(안양2동)



만안로 확장 공구 위치도(좌)와 만안교 이전 위치도(안양시, 『선진안양의 발자취』, 1990, 593-5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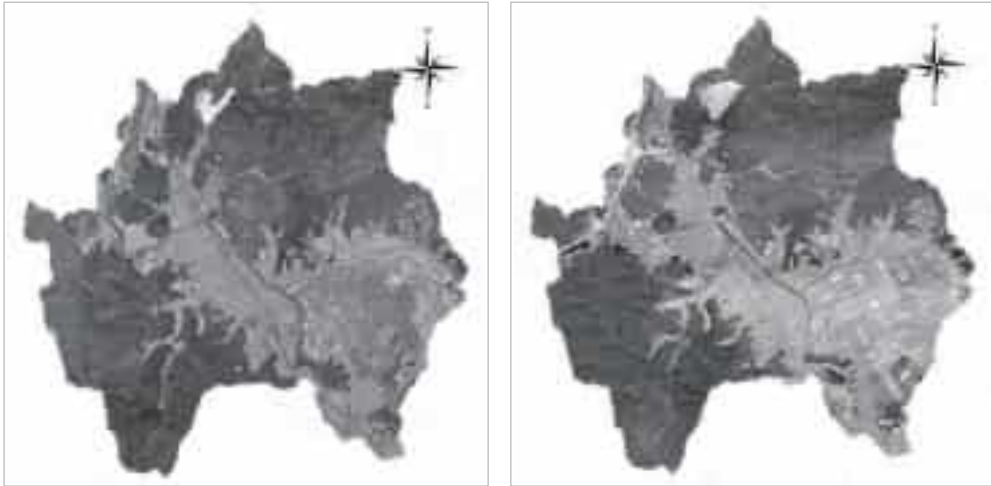
관악역 앞 만안로 확장공사(1976)



1970년대 중앙로 포장공사



경수산업도로 포장공사(1976)



1980년대·1990년대 안양시 위성지도

였다.⁵⁰ 1981년 옛 1번국도 준공 사진에서는 4차선의 도로와 도시 미관을 위한 가로수 그리고 보행로 등이 갖추어져 오늘날 도로와 가까워진 모습이다.

1980년대 안양의 다른 도로들 역시 본격적인 도로 공사가 실시되었다. 경수로는 기존 20m 너비의 4차선 도로였던 노퍽을 50m(8차선)까지 구간별로 확장하는 연차별 계획이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시행됐고,⁵¹ 14~22m 너비였던 흥안로 역시 너비 50m를 목표로 확장 및 포장 공사가 시행되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의 너비에 따라 40m 이상을 광로, 25~40m는 대로, 12~25m는 중로, 12m 미만은 소로로 규정하였다.⁵²

경수로와 흥안로처럼 안양시의 발달과 함께 도시의 축을 새로 담당하는 도로가 더욱 확장되고 새로운 도로들이 개통되는 한편, 만안로는 1980년대 이후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중로(20m) 규모에 머물렀다.

1980년대부터 안양시는 다른 위성도시처럼 서울시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주 기능의 위성도시로 성장했다. 경수산업도로·관악로·47번국도 등을 따라 안양천 동안의 달안평야는 시가지로 변했고, 1990년대에는 평촌신도시가 건설되며 안양 분지는 계획도시로 변모했다. 평촌시가지는 남북·동서 방향으로 도로가 교차로 놓이면서 바둑판식 도로망이 구축됐다. 1993년 지하철 4호선의 연장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국가 및 공공 기관들이 동안구로 이전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⁵³ 근대 이후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던 기존 도시 발



경부철도와 나란히 조성된 만안로(1988)

달과 다르게 평촌신도시는 자동차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한 대표적 사례였다.⁵⁴

이에 따라 안양의 도로망은 광역 도로 체계와 간선 도로 체계가 갖추어졌다.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경수대로, 서울에서 과천·안산을 잇는 국도 47호선 흥안대로, 성남·판교에서 광명·인천을 연결하는 시도 박달로와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관악대로 등 주변 지역과 안양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 갖추어졌다. 안양역을 중심으로는 안양로(구 중앙로)와 만안로가, 평촌신도시는 남북 방향의 평촌대로와 관평로, 동서 방향으로 시민대로와 신기대로·귀인로가 안양시 내부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⁵⁵

3. 만안로의 흔적

만안로의 흔적은 18세기 이후 현재까지 안양의 역사와 함께한다. 1795년 정조의 만안교 개설과 함께 시작된 신작로^{新作路}, 즉 시흥로는 18세기 「해동지도」의 ‘통금천현대로’에서 18세기 후기에는 정조의 화성원행에 의한 시흥로의 명칭으로 존재한다. 그리

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까지 1등도로·국도 3호선·1급국도·일반국도처럼 도로 기준이 매번 바뀌며 명칭과 기능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47년 시흥군청이 영등포에서 안양으로 이전되고 1949년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며 안양은 행정과 경제·산업 등 각 분야의 중심지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안양의 중심도로는 만안로에서 중앙로를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된다. 이후 안양시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1973년 안양시로 승격되며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과 서비스의 발전은 동시에 만안로의 기능적 쇠퇴를 동반하였다.

이와 함께 안양의 시내·외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안양을 우회하는 경수산업도로 개통(1976년 11월 21일)에 따라 1번 국도를 넘겨주었으며, 이후 1990년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더 넓고 곧은 도로들이 개설됨에 따라 만안로는 점차 흔적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만안로는 오랜기간 동안 안양을 대표하는 도로로서 그 등급을 유지해 가며, 안양의 증추적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안양시가 오늘날 번듯한 주요 도시로 성장하기 까지 역사의 굴곡을 버텨 내며 여전히 안양로와 함께 구도심을 대표하는 간선도로로 기능하고 있다. 개발로 인해 너무 빠르게 변해 가는 도시경관 속에서 이전한 만안교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는 안양역 앞 버스터미널 위치, 구도로를 향한 남부시장 정문, 안양6동에 있는 ‘구도로 식당’의 이름같이 멸실되지 않고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흔적이 아직도 도로 주변 곳곳에 남아있다. 이는 만안로가 현재의 우리에게 과거의 향수와 흔적에 머무르지 않고 안양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길로서 역할을 담당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심의 부적격 시설 위치도



안양역 앞 만안로와 안6동의 구도로 식당

-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내고향서울 6-서울의 길』, 2009, 21~22쪽.
- 2 현재 만안로는 석수2동 석수주유소부터 안양6동 명학대교에 이르는 4.9km 길이의 도로를 말한다
- 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9~10쪽.
- 4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7쪽.
- 5 정연식, 『조선시대의 도로에 관하여』, 『한국사론』 41·42, 1999, 542~544쪽.
- 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내고향서울 6-서울의 길』, 2009, 63쪽.
- 7 정연식, 『조선시대의 도로에 관하여』, 『한국사론』 41·42, 1999, 546~553쪽.
- 8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6, 2008, 13~14쪽.
- 9 대로, 중로 등의 도로 구분은 도로의 폭이 아닌 이용자의 수나 중요도에 따른 것이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6, 2008, 10쪽).
- 10 한편 통금천현대로 동쪽으로 있는 수유현(水諭峴, 무너미고개)을 넘는 이름 없는 도로는 안남미(비산3동)에서 현재 서울대학교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6, 2008, 11쪽).
- 1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6, 2008, 10~11쪽.
- 1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내고향서울 6-서울의 길』, 2009, 93쪽.
- 13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답사기 7-한양의 길을 걷다』, 2023.
- 14 안양문화원 만안구마을지편찬위원회, 『만안의 기억: 안양을 다시 읽다』, 2012, 79쪽.
- 15 한편 야사에서는 과천을 거쳐 인덕원으로 가는 도중에 천우물점을 거치는데, 이곳에 노론 우두머리로서 장한세자의 죽음에 참여한 김상로의 형 김약로의 무덤이 있어 정조가 과천로로 가기 싫어 했기 때문에 새길을 낸 것이라고도 전한다.
- 16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답사기 7-한양의 길을 걷다』, 322쪽; 안양문화원 만안구마을지편찬위원회, 『만안의 기억: 안양을 다시 읽다』, 2012, 80~81쪽.
- 17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80쪽.
- 18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목편』, 2010, 240쪽.
- 19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79쪽.
- 20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목편』, 2010, 242·244쪽; 건설교통부, 『2003 도로백서』, 2003, 61~63쪽.
- 2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6, 2008, 34쪽.
- 22 용산구청,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2018, 107·111쪽.
- 23 추가적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추가 사진엽서 자료에서는 군포장에서 활동한 통신대의 훈련활동 전경과 군포장 부근의 각전연대장 모습도 확인된다.
- 24 구술자 최갑환(남, 1924년생, 이동리 출생)과 이상윤(남, 1926년생, 안양동 102번지 출생)에 의해 작성된 1930년대 안양역 주변 약도의 경우 '만안로'라고 표기된 것은 구술조사 시점 당시의 도로 명칭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25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앞의 책, 166~168쪽.
- 2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6, 2008, 13쪽.
- 27 『조선총독부관보』 제3362호, 1938. 4. 4.; 제3418호, 1938. 6. 10.
- 28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목편』, 2010, 275~276쪽.
- 29 『조선총독부고시』 제956호(1938)에 따른 경성목포선의 주요 경유지에서는 "경성부내일부경성부산선중용京城府內一部京城釜山線重用, 수원水源, 천안天安 ……"으로 안양이란 지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으나 경성과 수원 사이 경부선이 부설되어 있었고, 1914년 군포장 지도에서 안양을 지나는 1등도로의 목적지가 경성과 목포였기 때문에 기존 안양의 1등도로도 이에 속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술되는 제보자의 1940년경 안양역 주변 구술에서도 기존 안양역 앞 도로를 국도라고 언급되어 있다.
- 30 방민호, 『채만식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적 현실 대응 양상』,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75쪽.
- 3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 2008, 5쪽.

- 32 국토교통부, 『2022 도로업무편람』, 2022, 23~24쪽.
- 33 대통령령 각령 제1191호(1963. 2. 5) 『1급국도와 2급국도의 노선 지정』.
- 34 대통령령 제5771호(1971. 8. 31) 『일반국도노선지정령』.
- 35 안양문화원 만안구마을지편찬위원회, 『만안의 기억: 안양을 다시 읽다』, 2012, 79쪽
- 36 안양시, 시승격 30주년 기념 '닐 미살로프' 특별사진전 도록 『60년대 우리안양의 옛모습』, 2005.
- 37 안양박물관, 『굴뚝도시 안양의 기억』, 2017, 57-59쪽.
- 38 시흥군, 『안양도시계획재정비 기본조사자료』, 1972, 154~155-180~181·190~191쪽.
- 39 1967년 착공된 경수 고속화도로는 1차로 서울~안양유원지까지, 2차로 나머지 구간이 준공됨에 따라 1973년 11월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다. 경수 고속화도로가 준공됨에 따라 서울~수원 간 운행시간은 15분 이상 단축되었다(『고속화도로 경수 간 15분 이상 단축』, 『동아일보』, 1973년 11월 23일).
- 4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6, 2008, 38~39쪽.
- 41 김진균·권영상, 「신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공간의 구조적 이분화에 대한 연구: 안양시와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계획계』 18권 9호, 2002, 71쪽.
- 4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81쪽.
- 43 안양시, 『선진안양의 발자취』 1990, 103-197쪽.
- 44 「승객과 안내양 시비 찾아 같은 구간 시내·외 버스 요금 달라」, 『경인일보』, 1974년 10월 11일; 「도로변 정돈 한창 안양시는 92%」, 『경인일보』, 1976년 7월 29일; 「수마로부터 승객 60여명 구한 어느 교교생의 기지」, 『조선일보』, 1977년 7월 16일.
- 45 「버스끼리 정면충돌 안양서 자전차 앞서려다 20명 중경상」, 『경인일보』 1974년 4월 8일.
- 46 『동아일보』, 1973년 3월 17일·1973년 4월 11일·1976년 5월 1일.
- 47 안양시, 『안양도시기본계획(안)』, 1983, 66쪽.
- 48 변원신(1933년생)에 의하면 1970년대 도로 개설·도로 넓히기 사업 시 새마을운동의 적극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기계로 공사하지 않던 시절이라 사람의 손으로 비벼서는 도로포장을 못하지만 레미콘공장이 있어 콘크리트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
- 49 안양시, 『선진안양의 발자취』, 1990, 591-592-660-696-750쪽; 「만안로 폭 20m 확장 안양시 2억 원 투입 교량보수도」, 『경인일보』, 1979년 9월 7일.
- 50 안양시, 『선진안양의 발자취』, 1990, 594-661쪽; 「호심어린 만안교 옮겨진다」, 『경향신문』, 1979년 4월 14일.
- 51 안양시, 『선진안양의 발자취』, 1990, 877-939-941-1170-1289쪽.
- 52 신정철 외 4인, 『안양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체계 연구』, 한국토지공사, 1997, 67쪽.
- 5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82쪽.
- 5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6, 2008, 43-44쪽.
- 55 안양시, 『2018 시정백서』, 2018, 511쪽.
- 56 『경향신문』, 1989년 1월 16일, 13면 기사. 1980년대 후반 안양시는 인구 50만 명에 유동 인구가 10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 최대의 위성도시로 그림을 살펴보면 남북으로 경수산업도로가 있고 좌측으로 안양천 그리고 1905년에 개통된 경부철도, 그리고 만안로와 중앙로가 있다. 중앙로에는 1942년 들어선 가족위생연구소를 비롯하여 안양읍 시절에 위치한 다수의 공공기관과 시청이 자리하고 있다. 신문기사의 요지는 “안양 중앙로의 부적격 시설의 조속한 이전”으로 조선 후기 만안로에서 경부철도의 개설, 이후 근현대를 거치며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의 역할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도로에서 이전되어야 하는 부적격 시설의 표현에서 도로가 지닌 역사성과 시대적 환경 변화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03 역사환경

제1장 국가유산

제2장 지역유산

제3장 기록유산

제4장 안양의 전통사찰

제5장 전통사찰의 사원배치와 건축 특성

제6장 삼성기유첩을 통해 본 19세기 초 삼성산 유람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이래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라 정의하였다. 이후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개념을 확장하여 등록문화유산과 함께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예비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지속 보호·관리를 위한 포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장 국가유산



박희은 안양시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라 정의하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 체제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하여 명칭과 분류체계가 동일하고, ‘문화재’라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자산, 재화적 성격이 강하여 자연물·사람을 표현하기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1990년대 후반 비지정문화재를 포괄하기 위해 쓰인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문화재 용어와 혼용되면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197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유산 개념이 도입·보편화되고,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해인사 장경판전·종묘가 첫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등재가 확대되면서 이에 걸맞는 국제기준과의 정합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서는 과거 유물 재화 개념의 ‘문화재(文化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이라는 용어로 개념을 확장하고, 개별 유산의 형태와 속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되, 2개 이상의 유산(문화·무형·자연)을 통칭할 때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유산 체제’를 만들었다.

〈표 1〉 국가유산 체제 변화 개요

문화재 체제			국가유산 체제 (2024.5.17 시행)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 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사적지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기념물	무형문화재 (전통공연, 기술, 지식 등)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명승, 천연기념물 등			

출처: 국가유산청

〈표 2〉 국가유산 체계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등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 시도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시도	**등록문화유산	—
포괄적 관리	**향토·지역(문화·무형·자연)유산, 미래유산, 역사문화자원, 예비문화유산 등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체제 도입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에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으며,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 ②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계리의 정체성 및 국민생

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 ③ 자연유산: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 ④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그 아래에 유형별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이 제·개정되었다. 또한, 「문화유산법」에서 규정된 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로 분리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유산 체제의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며, 구체적으로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50년 미만의 유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 지정한 향토유산도 포함된다. 향토유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으로, 국가유산 체제 이전부터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었다. 안양시는 1985년 11월 「안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재보호법」 및 「건축조물법」에 의거한 문화재 및 건조물 중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등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자 하였다. 이 조례는 2017년 「문화재보호법」의 지정구분(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을 반영하여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개정되었고, 2018년 7월 자유공원 지식묘·염불사 부도군·안양사 부도·삼막사 삼귀자·삼막사 감로정 석조가 일괄 지정되었으며, 2019년 관양동 청동기 유적·안양일소리, 2022년 안양만안담교놀이, 2023년 수리산산신제가 지정되어 총 9건의 향토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및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 변경 및 신설,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의 지정 건수 증가에 따른 관리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한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는 조선 후기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국가유산이 있는 현장을 사진이나 도면 등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16년 8월부터 조선총독부 산하 고적조사위원회에서 국가유산 현장을 조사하여 『등록원고』를 작성하였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1917년 위원회(제1회 위원회 결의 분분)를 통해 국가유산의 지정과 명칭 등이 정해졌다. 이 위원회를 통해 안양지역의 중초사지 당간지주·중초사지 삼층석탑·중초사지 마애종이 보물 제6호·보물 제7호·보물 제8호로 수록되었는데, 여기서 중초사지 마애종은 현재의 석수동 마애종을 말한다. 1918년 2월 4일 경기도장관이 총무국장에게 보낸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의 문서’를 보면 안양사 귀부, 안양사 석등도 발견된다. 1925년 12월 8일 중초사지 당간지주 및 삼층석탑의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 의뢰와 관련하여 1926년 희신된 지적도면을 통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선총독부 문서를 통해 중초사지 일대의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시의 국가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조사는 안양 평촌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명지대학교에서 평촌지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지석묘 13기, 타제석기산포지 1개소, 선현묘역, 주막지, 기념비 등의 유적을 확인하였으며, 1990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석묘 13기와 타제석기산포지를 발굴조사하여 백제시대 주거지도 확인하였다.

평촌지구 조사 이후 1997년 단국대학교에 의해 문화유산 분포 현황과 삼성산 일원의 불교유적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관양동 청동기 유적 발굴조사,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구 유유산업부지 발굴조사 등을 통해 안양의 역사적 중요성과 기원을 확인하였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1963년 1월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1971년 2월 제정된 「경기도 지방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1973년 7월 만안교를 시작으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재자료 등이 지정되어 왔다. 이 중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은 국가유산청의 재검토에 따라 1998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재지정되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던 삼막사 동종과 삼막사 대웅전은 대웅전의 화재로 소실되어 1991년 4월 지정 해제되었다.

국가유산 체제에 따라 현재 안양시의 관내 국가유산은 <표 3>과 같다.

〈표 3〉 안양시 국가유산

구분			명칭	지정일	소재지	
국가 지정 유산	문화 유산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1963.1.21.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경국대전 권3	2007.7.13.	동안구	
도지정 유산	문화 유산	유형 문화유산	만안교	1973.7.10.	만안구 석수동 679(하천)	
			석수동 마애종	1980.6.2.	만안구 석수동 산32	
			안양사 귀부	1980.6.2.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번길 103(석수동)	
			삼막사 마애삼존불	1980.6.2.	만안구 삼막로 480(석수동)	
			삼막사 삼층석탑	1983.9.19.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삼막사 사적비	1985.6.28.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류영수양관연명지도	1994.10.29.	동안구	
		민속 문화유산	건륭59년5월3일 군호제가문서	1994.10.29.	동안구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1998.1.12.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목우자수십결	2010.9.8.	만안구	
			안양 망해암 석조여래입상	2022.5.27.	만안구 임곡로 245(안양동)	
			기념물	안양시 비산동 도요지	1991.4.12.	동안구 비산동 산3-1
				석수동 석실분	1991.4.12.	만안구 석수동 236-9
				안양사지	2023.4.26.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삼막사 남녀근석	1983.9.19.	만안구 삼막로 480(석수동)	
			문화유산 자료	삼막사 명부전	1985.6.28.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구서이면사무소	2001.1.22.	만안구 장내로 143번길 8(안양동)
향토 유산	문화유산	자유공원 지석묘	2018.7.16.	동안구 평촌대로 76(호계동) 평촌자유공원 내		
		염불사 부도군	2018.7.16.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번길 150(석수동)		
		안양사 부도	2018.7.16.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번길 103(석수동)		
		삼막사 삼귀자	2018.7.16.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삼막사 감로정 석조	2018.7.16.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관양동 청동기 유적	2019.11.1.	동안구 관양동 1793-2		
	무형유산	안양 일소리	2019.12.9.	보유단체: 안양소리보존회		
		안양만안답교놀이	2022.8.9.	보유단체: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		
		수리산산신제	2023.6.23.	보유단체: 수리산산신제보존회		

1. 국가지정유산

1)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安養 中初寺址 幢竿支柱

당간지주는 일반적으로 사찰의 입구에 세워져 사찰의 경계와 사찰의 행사, 의식 등을 알리는 시설물이다. 당간지주는 사찰의 깃발幢을 건 깃대幢竿를 세우기 위해 지탱하는 2개의 기둥支柱으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안양박물관 정문 입구 쪽에 위치해 있다.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6.123m×7.592m 규모의 사각형方形 석축 기단 위에 85cm 간격을 두고 동·서로 마주 보고 있다. 당간지주 사이에 당간을 받치는 간대석竿臺石이 있고, 간대석 중앙에 2단의 둥근모로 만든 원좌圓座가 있다. 지주 바깥쪽으로 지주를 지지하는 장방형의 지대석이 놓여져 있다. 2000년에 기울어진 동쪽 지주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주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단부와 토층이 조사되었는데, 대·소형의 잡석과 흙을 혼합하여 견고하고 단단하게 기초를 다졌고, 동쪽 지주의 토층에서만 백자편이 출토되어 조선시대에 보수된 적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지주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동쪽 지주는 약 3.5m, 서쪽지주는 3.7m 높이며,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위에는 안쪽으로 세로로 길게 깎아 만든 간구杆溝와 중간·아래에 원형 모양으로 관통시킨 간공杆孔이 있다. 상부 간구는 안쪽 면에서 바깥면을 따라 각진 모서리를 깎아 만든 모죽임을 하였고, 동쪽 지주의 경우 안쪽 일부가 훼손된 흔적이 있다.¹ 간구·간공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주를 세울 당시 상부 간구는 위에서 아래로 지주를 고정하는 도구가 사용되며, 중·하부 간구는 지주 측면에서 고정 도구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서쪽 당간지주에는 6행 123자로 구성된 해서체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을 통해 이곳이 중초사이며² 당간지주는 826년(홍덕왕 1) 8월 6일 채석하여 827년(홍덕왕 2) 2월 30일 완공하였음을 알 수 있어 만든 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당간지주이다. 또한, 당시 건립 책임자는 황룡사의 항창화상이었으며, 황룡사의 승려가 공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 불교계의 중심 사찰이자 왕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황룡사의 승려들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변방인 안양 지역까지 파견되어 직접 공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이 사찰이 신라 왕실이나 중앙정부와 일정한 관계가 있었으며, 황룡사와 연계되어 있는 교종 계열의 사찰로 건립되어 한강 이남의 중요 사찰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서쪽 당간지주 명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간대석이 단출하고 지주에 문양이 없어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의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조형적 양식 가공은 통일신라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당간지주 장식적 가공 사례와 비교하여 고식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경국대전經國大典 권3

『경국대전』은 최항崔恒·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으로 세조 때 편찬에 착수해서 몇 차례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 완성하여 반포한 조선조의 통치체제統治體制의 대강을 규정한 기본법전이다.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전 체제에 따라 6개의 전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전의 첫머리에는 육조六曹에 소속되어 있는 속아문屬衙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어서 각 조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들이 항목별로 기술되어 있다.

『경국대전』은 처음 찬집纂集이 시작된 이래 4차의 편찬과 수정을 거쳐 1485년 을사



경국대전

대전乙巳大典으로 완성을 보았으며, 이후부터는 수정과 증보를 가하지 않고 영세불변(永世不變)의 법전으로 준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전(現傳)하는 『경국대전』은 판본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을사대전을 모태로 한 것이다.

안양에 소재한 『경국대전』은 1470년(성종 1) 11월에 인반(印頒)하고 1471년 신묘(성종 2) 정월부터 준행된 신묘대전(辛卯大典)을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印出)한 권3의 예전(禮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현존하는 『경국대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법제사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 『경국대전』은 전체 34.7cm × 22cm의 크기이며, 1권 1책 5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도지정유산

1) 만안교萬安橋

만안교는 현재 위치에서 약 460m 떨어진 안양교 사거리 교차지점에 세워진 다리였으나,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1980년 8월 국도 확장사업에 따라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으며 다리 아래로 삼막천이 흐르고 있다.

만안교는 조선 정조가 현릉원을 참배하러 갈 때 행렬의 편의를 위하여 1795년(정조 19)에 건립한 다리이다. 정조는 1776년 즉위 후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부 읍치가 있는 용복면 화산으로 이장하고 능을 참배하기 위한 능행차를 11년간 12차에 걸쳐 행해졌다. 즉위 초에는 궁궐인 창덕궁에서 노량진-과천-인덕원을 거쳐 가는 과천로였으나, 다리가 많고 남태



만안교비

령고개가 험하여 시흥-안양(안양천)을 거치는 금천로로 바꾸었다. 원래는 행차 시 나무로 다리를 만들고, 행차가 끝난 후 다리를 철거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행차 때마다 놓았다 헐었다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평상시에도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조의 명으로 영구적인 돌다리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만안교이다.

하천 바닥은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 장마 시 하천의 물살로 교량의 지대석 하부와 주변이 파이지 않도록 크고 작은 박석이 깔려 있다. 홍예(虹霓)를 세우기 위해 편 선단석은 사각형의 석재로 쌓았는데, 하천 상류인 북쪽 방향은 전면으로 각이 돌출된 오각형 형태로 놓아 다리가 받는 수압을 분산시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다. 수문은 7개이며 11개의 홍예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반원형으로 결구하였고, 홍예 이외의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돌을 끼워 마감하였다. 다리 윗면(노면)은 가운데와 다리의 가장자리 부분



1970년대 만안교



이전한 현재의 만안교

에는 세로로 장대석을 놓고, 그 사이에 장대석을 2열 가로로 가지런히 놓았다. 이 중에는 이미 사용되던 건물 부재의 일부도 발견되어 만안교 축조 시 화강암 자연석과 함께 당시 사용되지 않던 옛 건물지의 돌 부재를 함께 사용하였음을 알려준다.³ 만안교는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사용되었고 그때 난간을 설치했던 사각형 홈이 남아 있는데, 홈 일부에는 내부에 절단된 철재가 남아 있어 만안교에 홈을 파고 철재를 끼워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⁴

만안교 옆에는 서유방이 글을 짓고 조운형이 쓴 만안교비가 있고, 한식 매패지붕의 보호각이 세워져 있다. 바닥에는 2장의 지대석을 깔고 하나의 돌로 만든 귀부 위에 비신과 팔작지붕 형태의 가첨석이 올려져 있다. 만안교비 앞면에는 ‘만안교’라는 글자가 예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행서로 공사에 따른 내용을, 양 측면에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만안교비의 내용을 통해 경기도 관찰사 서유방이 왕명을 받아 3개월 만에 준공하였으며, 정조가 ‘만안교’라는 이름을 내렸는데 정조의 애민정신과 치세 의식을 읽을 수 있다. 또한, 1824년 간행된 채제공의 『변암집』 「안양교행(安養橋行)」에서 “비로소 만안교라는 좋은 이름을 하사하시니 비문에 큰 글자를 새겨 붉은색으로 채웠다”라고 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안교는 정조의 능행차를 위한 사업 중 하나였지만, 국왕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공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만안교는 정조의 애민정신과 통치철학, 당대 건축기술을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흥예석교라 일컬어진다.

2) 석수동 마애종石水洞磨崖鐘

석수동 마애종은 삼성산 줄기 끝자락 암벽에 범종과 종을 매달기 위한 종각, 종을 치고 있는 인물상이 음각과 양각을 이용하여 부조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고르게 다듬은 바위 면에 좌우 2개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의 상부에는 양 끝에 치미(雉尾)와 같은 날개 장식과 중앙에 불꽃같이 삼각 형상을 이룬 화염형(火焰形)의 장식이 되어 있는 보(樑)가 걸쳐져 있다. 보의 중앙에서 4단으로 내려온 쇠사슬에 범종이 걸려 있고, 종을 매달기 위한 고리 부분인 용뉴(龍鈕)는 굴곡을 이루며 입을 크게 벌려 범종의 가장 윗부분인 천판(天板)에 연결되어 있다. 음통은 용뉴의 목 높이와 유사한 높이로 목 뒤에 붙어 있다. 종신(鐘身)의 외형은 상부가 좁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형태이다. 범종의 위와 아래에 띠를 두른 상대(上帶)와 하대(下帶)가 표현되어 있고, 상대 밑에는 연꽃봉오리 모



석수동 마애종

양의 돌기인 연뢰^{蓮雷}와 이를 감싸고 있는 네모난 테인 연곽이 2개소가 있다. 연곽 밑 중앙에는 원형으로 타종 부위를 만들고 그 주위에 12엽의 연화문을 돌린 당좌^{撞座}가 있는데, 좌우로 당좌가 반만 묘사되었으며, 중앙의 당좌 오른쪽에 희미하게 원형으로 조각된 당좌가 있어 4개의 당좌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왼쪽 기둥에 붙어 승려가 당목^{撞木}의 잘록한 자루 앞쪽과 중간 부분을 잡고 종을 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석수동 마애종은 용뉴의 입을 천판 위에 붙이고 있는 점, 상대 아래 표현된 굽은 연뢰 표현, 종신 1/3 정도에 자리 잡은 당좌의 위치 등이 통일신라 범종의 양식을 충실히 따랐으나, 종신이 아래의 종구^{鐘口} 쪽으로 가면서 점차 벌어지는 형태, 당좌가 4개로 늘어난 점 등은 고려 범종의 양식을 띠고 있어 11세기 전·중반쯤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석수동 마애종은 종을 치는 모습을 담고 있어 ‘마에타종상^{磨崖打鐘像}’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마에타종상으로, 범종의 소리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의미를 영원히 울리고 있다.

3) 안양사 귀부安養寺龜趺



안양사 귀부

안양사 귀부는 안양사 대웅전 앞에 있으며, 비문을 새긴 비신(碑身)과 용의 형상을 조각한 머릿돌인 이수(螭首)는 결실되고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대인 귀부(龜趺)만 남아 있다. 옆에 세워진 안양사 부도(浮屠)와 한

쌍으로 스님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에 활용된 귀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귀부의 원위치를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시흥군 삼성산의 사적 조사서」에도 현재와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큰 대형이기에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⁵

귀부는 여러 매의 장대석을 결구하여 지대석을 마련한 후 그 위에 300×218cm, 높이 100cm인 괴임대와 귀부가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있다. 귀부의 머리인 귀두(龜頭)는 몸쪽으로 바짝 움츠려 전방을 응시하고 있고, 눈·코 등이 표현되어 있다. 입은 굳게 다물고 있으며, 입 좌우로 갈퀴형 문양이 있고, 턱 아래쪽은 수염이 내려와 목줄기에 맞닿아 있다. 귀부의 등은 육각형 모양의 2중 귀갑문(龜甲文)이 조각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비신을 세우는 장방형의 비좌(碑座)가 있다. 비좌의 앞뒷면에는 별다른 문양이 없으나, 좌우 측면을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구름무늬(雲文)를 조각하였으며, 뒷면에는 연꽃잎이 아래로 향한 24엽의 복련(覆蓮)이 장식되어 있다. 비좌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상부에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다. 귀부의 앞발은 4조(爪), 뒷발은 2조(爪)로 비늘이 시문되어 있고 모두 앞을 향해 있다. 꼬리는 좌측으로 뻗어 있고, 낮게 양각하여 평면적으로 처리하였다.

안양사 귀부의 세부적인 문양, 귀두의 형상 등 전체적인 조각 기법과 양식 등이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1060년, 보물),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1085년, 국보) 등과 유사성이 있으며, 특히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탑비(1111년, 보물)와 강한 친연성을 보여 12세기 전반경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삼막사 마애삼존불三幕寺磨崖三尊佛



삼막사 마애삼존불

삼막사 마애삼존불은 삼막사 경내에서 남동쪽으로 약 250m 떨어진 칠보전七寶殿에 모셔져 있다. 마애삼존불 아래의 명문을 통해 1763년(영조 39) 화주승 오심과 시주자 서세준에 의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칠보전 좌우측에 전각을 처음 세울 때 새긴 초장 명문과 다시 지을 때 새긴 중창 명문이 있어 1764년(영조 40)에 칠성각七星閣으로 지어졌고, 1881년(고종 18)에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막사 마애삼존불은 산의 능선에 형성된 암벽을 깎아 감실龕室을 만들고 중앙에는 본존불인 치성광여래와 좌우에 협시보살인 일광보살, 월광보살을 양각으로 새겼다. 치성광여래는 머리는 소발이며 상면에 낮은 육계를 두었고, 중앙에는 반달형의 계주를 표현하였다. 상호는 사각형에 가까우며 이마에는 백호가 표시되어 있고, 눈·코·입·볼 등을 양감 있게 표현하였다. 귀가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아 있고 양손은 가지런히 내려 복부 앞쪽에 모아 엄지를 맞댄 후 나머지 네 손가락은 깎지를 끼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둥근 보주를 받치고 있다. 하반신은 오른발을 올려 반가부좌를 취하고 있고, 가장 바깥에 대의를 걸치고 가슴을 가린 승각기 아래에 매듭이 표현되어 있다. 협시보살은 머리에 삼삼관을 쓰고 있으며 양손은 가슴에 모아 합장인을 취하고 있고 오른발을 올린 반가부좌를 하고 있다. 하단에는 연화문으로 대좌를 마련하였는데, 오른쪽 보살은 연잎에 가까운 연화문이, 왼쪽 보살은 단판 8엽의 연화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치성광여래는 북극성을 부처님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무병장수와 자손 번창을 상징한다. 사찰에 칠성각을 별도로 지어 치성광여래와 칠성신 등을 모시는 것은 불교가 민간신앙을 수용하여 융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삼막사 마애삼존불은 인접한 삼막사 남녘근석과 함께 조선 후기 민중신앙과 깊이 관련된 중요한 유산이다. 또한, 치성광삼존불

도상이 조선 후기 탕화에서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나, 조각상으로 조성된 예는 드물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

5) 삼막사 삼층석탑三幕寺三層石塔



삼막사 삼층석탑

삼막사 삼층석탑은 삼막사 내 육관음전과 천불전 뒤에 조성된 높은 축대 위에 자리하고 있다. 보통 탑은 법당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접근하기 어려운 축대 위에 있어서 세워진 자리가 본래 자리인지 불분명하다.

자연암반 위에 석재 4매를 결구하여 지대석을 만들었으며, 그 위에 이중기단이 마련되었다. 아래 하층기단은 석재 4매로 결구하였고 상면에 경사를 이루도록 만든 석재 2매로 갑석을 만들었다. 상층기단은 하대갑석 상면에 면석괴임을 마련하여 올렸는데, 면석은 석재 4매로 구성하였으며 가운데에 안기둥인 탕주(撐柱)가 모각되어 있고, 석재의 측면을 조금씩 돌출시켜 모서리기둥인 우주(隅柱)

가 되도록 하였다. 상대갑석은 1매의 석재를 치석하여 마련하였고, 상면은 약하게 경사를 이루도록 하였다. 탑신부는 몸돌인 탑신석(塔身石)과 지붕돌인 옥개석(屋蓋石)이 각기 1개의 돌로 만들어 올려졌다. 탑신석에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고, 옥개석 하부에 3단의 옥개받침과 상부에 탑신괴임이 있다. 상륜부는 파손되어 1979년에 새로 조성한 것이다.

삼막사 삼층석탑은 간략한 기단부 제작법, 옥개석의 둔중함과 옥개받침 수의 감소 등으로 볼 때 고려 후기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1232년(고종 19) 용인 처인성 전투에서 승려 김윤후가 원의 장수 살리타를 화살로 쏘아 사살하고 크게 이긴 것을 기념하여 이 탑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석탑의 원위치가 현재와 같은 위치라면 고려시대 성행했던 산천비보사상에 의해 조성된 탑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삼막사 사적비三幕寺事蹟碑



삼막사 사적비

삼막사 사적비는 천불전에서 월암당으로 올라가는 길의 언덕 위에 있다. 사적비는 사찰이나 서원·사당·성곽 등의 역사를 기록한 비석으로, 삼막사 사적비는 삼막사의 창건과 그 이후 연혁을 기록한 비석이다.

비석은 화강암을 사각형으로 깎아 만든 받침돌인 대석臺石에 비문을 새긴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한옥의 팔작지붕과 같은 지붕돌인 개석蓋石을 올렸다. 전체 높이는 253cm이며, 비신 4면 모두 음각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서쪽 면을 정면으로 하여 좌측으로 이어지고, 우측 면은 마모가 심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비문은 크게 비문, 시주자명, 연화질, 간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명을 통해 관악산 지류인 삼성산에 삼막사가 있고, 절의 좌측에 향로봉, 우측에 노적봉이 있으며, 불공에 쓰는 곡식을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하여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시주자는 100여 명이 조금 넘는데, 재가신도와 승려로 구분할 수 있고, 재가신도 중 관직이 있는 사람은 이름 앞에 관직명을 새겼다. 간기를 통해 1707년(숙종 33) 음력 8월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7) 류영수양관연명지도留營首陽館延命地圖

류영수양관연명지도는 오음 윤두수(尹斗壽, 1533~1601)가 1571년(선조 4)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했던 당시 해주읍성의 수양관과 풍경, 관찰사의 행렬 등을 10년 뒤인 1581년(선조 14)에 그린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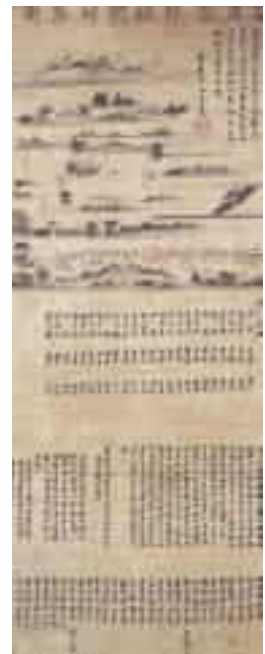
그림 맨 위쪽에 ‘류영수양관연명지도留營首陽館延命之圖’라는 표제가 전서체로 적혀 있으며, 글씨는 윤두수의 아우인 윤근수(尹根壽, 1537~1616)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제 아래에는 해주읍성의 수양관과 관아의 전경, 관찰사의 행렬 등을 수묵담채로 그렸고, 그림 아래에는 당시 수행했던 아전 24명의 이름·관직·본관 등이 적혀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16세기 관료사회에서 유행한 계회도契會圖의 구성 방식을 따른 것이다.

오른쪽 상단에는 윤두수가 그림을 완성한 후 쓴 7언시 56자가 있고, 끝에는 오음이란 향로 모양의 인장과 연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화풍은 당시와 후대 양식이 공존한다. 안개에 싸여 지붕만을 강조한 관아 장면, 진산인 용수산의 원산을 처리한 묘사 방식 등에서 16세기 후반기 화풍을 확인할 수 있으나, 맨 아래 선으로 그려진 언덕·관아 등지에서 있는 나무와 가로로 넓은 미점米點으로 처리한 나뭇잎 등은 후대 화풍으로 보여진다.

류영수양관연명지도는 수양관 연청에 계속 소장되어 전해졌으며 윤두수의 6대손인 윤득화(尹得和, 1688~1759)가 황해도관찰사로 임명되자 그림의 유래와 사실을 기록하고 윤두수의 사례에 따라 배행한 29명의 영사를 기록하였다. 또한 1768년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한 윤득양, 1803년 이곳을 지나던 8대손 윤정렬, 1814년 8대손 윤옥렬, 9대손 윤치겸 등이 그림과 글씨를 보고 감격해 지은 시문이 있어 회화적·자료적 가치가 크다.



류영수양관연명지도



8) 건륭59년5월3일군호재가문서乾隆59年5月3日軍號裁可文書



건륭59년5월3일군호재가문서

건륭59년5월3일군호재가문서는 1794년(정조 18) 5월 3일 병조에서 야간 순찰에 사용할 군호軍號를 당시 5세였던 동궁東宮 시절의 순조에게 재가裁可 받은 희귀한 문서이다.

군호는 병사들이 야간 순찰에 사용한 일종의 암호로 조선시대에는 매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입직한 병조의 참의參議나 참지參知가 3자 이내의 군호를 만들어 밀봉하고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은 다음에 병조를 거쳐 병사들이 밤에 근무하는 경수소警守所로 내려보내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부재중이면 세자에게 재가를 받게 되어 있다.

1794년 5월 3일 병조에 입직하던 병조시랑 윤장렬이 '장양長養'이

란 두 글자를 써서 세자에게 보고하고, 세자가 그 옆에 '태평太平'이란 글자와 함께 '가'자를 써서 재가하였다. 병조 관인이 총 7군데 날인되어 있다.

윤장렬은 태평이란 글자를 써준 세자의 마음과 글씨를 보관하기 위해 문서를 집으로 가져와 후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족자를 만들어 보관하였고, 아들인 윤치영(尹致永, 1764~1816)이 군호재가문서의 내용과 집에 보관하게 된 경위, 태평에 담긴 뜻을 기록하여 남겼다. 그 후 윤치영의 아들 윤만선(尹萬善)이 1821년(순조 21) 6월에 군호재가문서와 윤치영의 글을 발견하여 글을 그대로 옮겨 적고 다시 족자로 꾸몄다는 발문跋文이 아래에 첨부되어 있다.

9)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安養中初寺址三層石塔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은 안양박물관 정문 옆에 위치하며,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 지주와 인접해 있다. 원래는 현재 위치에서 약 60m 떨어진 지점에 붕괴되어 있던 것을 옛 유유산업 생산동 건물(현 안양박물관)을 건축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지대석은 여러 개의 장대석을 결구하여 조성하였다. 그 위에 단층 기단을 두고 2매의 돌로 갑석을 올렸는데, 갑석 아랫면에는 낮게 단을 가공하여 부연을 마련하였고 윗면에는 탑신괴임을 두었다. 탑신괴임 위에는 기단부나 옥개석의 너비에 비하여 좁은 탑신석이 올려져 있는데, 1층만 남아 있고 양 모서리에 우주를 모각하였다. 옥개석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양 끝에서 살짝 들리는 형태를 하고 있다. 옥개받침은 1·2층은 4단이고, 3층은 3단으로 축소되어 있다.

단층기단이면서 면석이나 갑석 부연 등이 간략화되고 세장한 탑신석에 비해 둔중한 형태의 옥개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성행한 석탑 양식을 보여준다.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1957년 추정·2024년)

10)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목우자수심결

『목우자수심결』은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의 선禪 이론서로, 선종과 교종의 대립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밝히려 지어졌다. 주요 내용은 선을 수행하는 입문자에게 필요한 수행의 요체 ‘마음닦음’을 간추려 제시하였으며, 「수심결」 외에 지눌의 다른 저술인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이 합철되어 있다.

본문 말미에는 원간본(原刊本)과 중간본(重刊本)의 간행일자와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 1305년 7월 간행된 판본을 바탕으로 1400년 8월 지리산 덕기암에서 중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목우자수심결』의 인쇄 상태는 좋지 않아 같은 판에서 나중에 인쇄한 후인본(後印本)으로 추정되지만, 전본이 희귀한 판본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1) 안양 망해암 석조여래입상(安養望海庵石造如來立像)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은 안양 망해암 용화전에 모셔져 있는 고려 전기의 불상으로 머리에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보개가 얹혀 있다. 현재의 용화전은 1952년에 건립된 건축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석조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암반 위에 전각이 지어져 석조여래입상의 하단이 마루에 가려져 있다. 칠이 칠해져 있던 것을 2017년 보존처리공사를 통해 제거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은 머리에 원형의 보개(寶蓋)를 쓰고 있으며, 하반신에는 군의(裙衣)를 착용하고 그 위로 통견식(通肩式)의 대의(大衣)를 입고 있다. 왼손은 가슴 쪽까지 들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손을 바깥쪽으로 들고 있고,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 몸에 밀착시

키고 옷자락을 잡으려는 듯 손가락을 구부려 표현하였다. 군의 자락 밑으로 다소 각이 진 양발이 보이고, 발밑으로는 너비 약 1.5m 정도의 대좌가 있고 선각의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뒷면은 아무런 장식 없이 평평하게 처리되어 있다. 보개는 하단의 ‘성화15년4월일조성(成化十五年四月日造成)’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1479년(성종 10)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불상은 전체적인 형식과 도상으로 볼 때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조성 이후 보개가 유행하자 불상의 상서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조선 전기에 새로 제작되어 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 망해암 석조여래입상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은 불상을 안치하는 대좌(臺座)에서 머리끝까지 하나의 암석을 조각하여 조성되어 있다. 약 3.5m에 달하는 크기, 설법인의 여래입상이라는 도상, 봉안된 전각이 용화전이라는 것 등을 통해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은 용화세계에 하생한 미륵여래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려 전기의 미륵신앙의 특징과 조선 전기의 불교 인식을 이해하는 데 역사적·미술사적 가치가 있고 융성했던 안양 지역의 불교문화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다.

12) 안양시 비산동 도요지(安養市飛山洞陶窯址)

안양시 비산동 도요지는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한 서울대 안양수목원 내에 있으며 정문에서 통과해 약 1.7km 지점의 무너미고개와 불성사 갈림길 주변에 위치한다. 고려 시대 청자와 백자를 만들던 곳으로, 현재는 도요지 흔적만 남아 있다.



비산동 도요지(위)와 출토 자기편

비산동 도요지는 1987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현지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구릉지 야산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자기편이 수습되었는데, 11~12세기의 조질청자와 연질계백자, 13~14세기의 청자류와 경질백자류 등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 철

채자기편과 흑유도기편이 함께 발견되었고, 가마용구로는 도침과 유리화된 마사토질의 가마벽이 발견되었다. 용기는 대접과 접시, 훈주, 사발류가 주를 이루며 작은 종지류와 바라기 등도 발견되었다. 대접의 경우에는 원저내각이 많이 나타나며 문양은 음각과 상감문이 있고, 굽은 평저굽·안굽·낮은 다리굽·저굽·죽절굽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약의 상태는 시유가 고른 것과 덜된 것, 순녹색과 옅은 녹색 또는 번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색깔이 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전라북도 부안, 전라남도 강진 가마가 관공서에 공급하던 고급 청자를 구웠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 출토된 자기류의 재질, 고급 자기를 굽던 갑발 등의 용구가 수습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일반 서민을 위한 자기를 구웠던 곳으로 보인다. 안양 비산동 도요지는 서울 근교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려 전·후기 청자요지이며, 국내 유일의 고려 후기 백자 가

마터이다. 또한 백자 가마터는 용인 서리요지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것이며, 고려 후기 백자의 양상과 조선백자의 성립과정을 밝힐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청자의 쇠퇴와 발생 과정을 보여주는 요지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13) 석수동 석실분 石水洞石室墳

석수동 석실분은 삼성산의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뺀어내려 온 해발 약 300m 구릉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다. 지대는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의 정상부를 향해 남북으로 조성되어 있다. 내부는 화강암을 깎아 할석(割石)을 이용해 동·서·북벽의 면을 맞추어 축조하였는데, 동·서벽은 5~6단으로, 북벽은 크고 작은 돌을 6~7단으로 쌓았다. 남벽은 길이 1.8m, 높이 1m의 대판석 1매로 축조하였고, 외부는 흙으로 보강되어 있어 남벽을 이용하여 추가로 매장을 하던 돌방무덤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석실 위를 덮는 개석은 3매의 커다란 화강암 판석을 사용하였다.



석수동 석실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굴되어 석실분의 정확한 구조와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석실분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에 신라가 축성한 호암산성이 위치해 있고, 삼성산이 내려다보이는 안양천 충적지에 신라의 대규모 취락인 독산동 유적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4) 안양사지 安養寺址

안양사지는 현재 안양박물관 및 김중업박물관이 위치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로 103번길 4 일원이다. 안양사지는 안양사가 있던 터로 안양사는 안양시의 지명이 유래된 사찰 이름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증초사지’라 불



안양사지 전경

리었던 이곳에 안양사가 선대 유구 위에 중창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한 사찰로 사찰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 발굴조사로 확인된 가람배치 등을 통해 경기도 서남부 지역의 대표적 사찰로서 불교사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문화권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인정받아 2023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안양사의 창건에 대해 고려 후기 유학자 이승인의 「금주안양사탑중신기(衿州安養寺塔重新記)」에 따르면, 안양사는 고려 태조 왕건의 발원으로 고승 능정(能正)에 의해 창건하였다고 한다. 또한, 왕건에 의해 칠층전탑이 건립되고 고려 후기에는 중앙귀족 및 왕실의 대폭적 지원으로 칠층전탑 중수 등 가람을 크게 일신하였다.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서 서울 서남부 및 안양·광명·시흥·과천 등을 포괄하는 금천현의 대표적 사찰로 기록되며 지역의 대찰로서 기능하였으나, 송유역불의 사회적 흐름과 도로체계의 변화 등으로 17세기 이후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안양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고려시대 층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안양사가 과거 사역에 중복하여 개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안양사지의 가람배치는 중문-탑-금당-강당이 동일한 중심축을 이루고 금당과 강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의 회랑이 배치된 9~10세기의 전형적인 가람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안양사지 내 중초사지 당간지주를 건립한 주체가 황룡사 승려들이라는 점, 남북 축선을 강조하는 배치에 좌·우측으로 넓어지는 경향, 정면 9칸 측면 4칸에 달하는 강당지의 규모와 강당 중앙부에 위치한 방형의 석조 구조물 등이 경주 황룡사지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로 볼 때 안양사는 교종계 대표 사찰인 황룡사와 관련 있는 교종계 사찰로 고려시대 대찰로서 기능하였고, 조선시대 사세가 약화되었지만 임금이나 지역 유력인사와 그 수행원들을 수용할 정도의 사역은 유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안양(安養)’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아미타불이 사는 이상향으로서, ‘지극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뜻한다. 지역의 거대사찰이었던 안양사로 인해 이 일대의 지명이나 주요시설에는 안양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다. 사지가 위치한 석수동 일대는 금천현 현내면 안양리, 지금의 안양동은 과천현 하서면 안양리로 불렸으며, 1941년 안양면, 1963년 안양읍을 거쳐 1973년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안양시의 동안구도 ‘동쪽 안양’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고, 안양천(安養川)·안양교(安養橋) 등도 안양사에서 비롯되어 안양사지는 안양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15) 삼막사 남녀근석三幕寺男女根石



삼막사 남녀근석

삼막사 남녀근석은 삼막사 경내에서 남동쪽으로 약 250m에 떨어져 칠보전과 가까이 있다. 남녀의 생식기를 각각 남근(男根)·여근(女根)이라고 하고, 이를 닮은 바위를 남근석(男根石)·여근석(女根石)이라고 부른다. 자연적으로 남근·여근 모양이기도 하고 일부러 그런 모양이 되게 만들기도 하는데, 삼막사 남녀근석은 밑에서부터 높이 솟아오른 바위 위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남녀근석을 만지면 순조롭게 출산을 하게 되고, 가문의 번성과 무병장수를 빌면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종종 남근에 동전이 붙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렇게 하면 아들을 얻는다는 이야기에 따른 것이다.

선사시대부터 남근과 여근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어 숭배해 왔으며, 삼막사 남녀근석은 신라 원효대사가 삼막사를 창건하기 전부터 숭배 대상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바로 옆에는 삼막사 마애삼존불을 대상으로 하는 칠성신앙과 함께 불교가 다산과 아들 출산을 기원하는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공존해 왔음을 보여준다.

16) 삼막사 명부전三幕寺冥府殿

삼막사 명부전은 삼막사의 망해루와 범종각 사이에 남향하여 세워져 있고, 조선 말기 서화가인 지석영(池錫永, 1855~1935)이 쓴 명왕전(冥王殿)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명부전은

1880년(고종 17)에 당시 주지 의민스님이 화주가 되어 창건한 후 1975년에 주지 지환스님이 수리하였다고 한다.

삼막사 명부전은 장대석을 쌓은 기단 위에 자연 초석을 두고 지어진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그러나 측면에 공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내부에 충량(衝樑) 부재를



삼막사 명부전

설치한 점 등을 바탕으로 원래에는 팔작지붕으로 건립되었으나 19세기 말 재료 수급 등의 문제로 구조가 간결해지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중수하는 과정에서 맞배지붕으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⁶ 건물 정면의 창호는 빗살문이고, 그 외 3면의 건물 외벽은 아래에 큼지막한 돌과 위에는 반원형의 파도문으로 장식한 화방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포는 주심포로 기둥 상부에 1출목 2익공 포를 놓았고, 정면 주심포 사이에는 화반을 두었으며, 귀포 상부에는 용두를 조각하였다.

건물 내부에는 고주가 없는 5량가 형식이며, 지붕가구를 구성하는 보는 대보와 종보·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측면의 기둥 상부 창방으로부터 중앙의 대들보 쪽으로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보를 걸쳤다. 이 건물은 내부 좌우에서 각각 용의 형상을 취한 보를 대들보 쪽으로 걸쳐 용이 서로 마주 보는 듯한 모습을 취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 후기 건립된 소규모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축 기법으로, 화재나 풍우로부터 건물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불단에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 주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지장보살을 협시하는 도명존자, 무독귀왕이 모셔져 있다. 다시 그 좌우로 지옥에서 죄를 심판하는 열명의 왕과 재판관을 보조하는 판관·녹사 등이 각각 나뉘어 배치되어 있고, 문 앞에는 2구의 인왕상이 봉안되어 있다. 시왕상 아래 목서가 있어 1756년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 구서이면사무소 舊西二面事務所

구서이면사무소는 안양1번가 내에 위치해 있다. 서이면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관청으로 현재 본관 1채와 관리동 1채가 있고 경계로 담장이 둘러져 있다.



구 서이면사무소

서이면은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양의 대부분이 속한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면으로, ‘서’라는 글자가 2개가 있어 서이면이 되었다. 행정관청인 서이면사무소는 당시 과천군 하서면사무소가 있던 호계리(현 호계동)에 세워졌으나, 1917년 7월 6일 안양역 부근인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서이면사무소는 1941년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안양면사무소로 쓰였고, 1949년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면서 읍청사의 신축에 따라 개인에게 매각되어 의원·음식점으로 사용되며 일부 창호 부분과 내부 바닥 등이 변형되었다. 이후 2000년에 서이면의 역사성과 전통 한옥으로서의 건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지역 원로들에 의해 복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건물 매입과 간담회 등을 거쳐 2001년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다. 복원 당시 지역 원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본채 건물은 근무실·면장실·서고·숙직실 등으로 분리되었으며, 재래식 화장실과 목욕탕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부속건물로 농기구 및 씨앗 종자를 보관하는 약 15평의 창고와 누에고치 수매와 회의실을 겸한 40평 정도의 건물이 있었고, 마당에는 우물과 돌로 만든 세수용구가 있었다고 한다. 원로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도리·대량·종량·연목 일부 등의 부재와 초석 등을 일부 재사

용하여 복원공사를 하였으며, 2003년 일제의 수탈과 안양 지역 독립 운동을 주제로 한 전시관으로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복원된 본채는 ‘ㄱ’자 형태의 곱은자집이며, 전체면적은 101.91㎡(약 31평)이다. 약 20cm 높이의 화강석 외별대 기단 위에 화강석 각초석을 두었고, 주칸은 대체로 약 2,480mm로 간격이 일정하다. 1고주 5량가의 팔작지붕이며, 종도리는 판대공을 사용하였다. 상인방과 장혀 사이에 소로를 장식한 소로수장집이며 상인방과 중인방을 겸용하여 여단이 창문을 끼웠다. 처마는 흘처마로 되어 있고, 처마 높이는 지반으로부터 2.77m, 건물 최고 높이는 5.14m이다. 건물은 현재 도로쪽으로 출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래 건물 배면의 미단이 양판문을 주출입구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건물 배면에 양판문이 달린 여칸을 포함해 두 칸 규모의 퇴를 구성하였는데, 온돌이 있는 방을 평주를 써서 실을 나누고 마루 두 칸에만 고주를 세워 퇴칸을 만들어 내 현관을 구성한 것이 한옥의 전형성을 따르면서도 당시 공간에 대한 근대적 사고가 반영된 사례로서 건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⁷ 서이면사무소의 안양리 이전은 안양리가 서이면의 중심지로 급성장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구서이면사무소는 이후 이 일대가 지역의 행정·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1990년대 최대로 번성했던 안양일번가와 함께하며 안양 성장의 기억체로 자리하고 있다.

3. 향토유산

1) 자유공원 지석묘

자유공원 지석묘는 평촌신도시 개발을 위한 발굴조사 중 평촌·귀인·신촌·갈산마을 일대에서 발견된 13기의 지석묘 중 크기가 크고 보존상태가 좋은 5기를 현재 위치한 갈산동 자유공원 내에 이전·복원한 것이다.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돌을 꺾어 만들었다고 해서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구조에 따라서 탁자식(북방



자유공원 지석묘

식), 기반식(남방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으로 나뉘는데, 조사된 지석묘군은 모두 개석식 지석묘로 땅 밑에 무덤방을 만들고 위에 권돌과 덮개돌을 올렸다. 무덤방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으나, 덮개석 주변과 무덤방 인근에서 출토된 유적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2) 염불사 부도군



석종형 부도

염불사 부도군은 염불사 경내에 위치하며, 석종형 부도 3기와 마애부도 2기가 있다.

석종형 부도는 종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염불사 주변에 있던 3기를 현재 염불전 왼쪽 뒤편에 옮겨와 한곳에 모아둔 것이다. 부도 탑신에는 세로로 길게 음각하여 쓴 당호가 있어 부도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데, 왼쪽부터 순서대로 도일당부도(道日堂浮屠), 인봉당부도(印峯堂浮屠), 서영당부도(西影堂浮屠)이다.



여산송씨 마애부도

도일당부도는 1861년(철종 12)에 세워진 것으로 지대석이 결실되었고, 탑신 가운데가 가로 방향으로 파손되어 다시 붙여 놓은 상태이다. 탑신의 모양은 가운데가 살짝 볼록하며, 탑신 상부와 연봉형 보주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인봉당부도는 1816년(순조 16)에 세워졌다. 방형의 지대석을 갖추고 있으며



현진당 마애부도

원주형의 탑신과 연봉형 보주가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있다. 서영당부도는 1810년(순조 10)에 세워진 것으로, 방형의 지대석이 마련되어 있고 원주형의 탑신 위에 연봉형 보주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마애부도는 암벽에 새긴 부도로 염불사 동남쪽 선방 부근 뒤편 암벽에 있으며, 현진당 마애부도와 여산송씨 마애부도가 있다.

현진당 마애부도는 1783년(정조 7)에 만들어진 것으로, 암벽 좌측

하단부에 부조되어 있다. 바위면을 매끄럽게 한 뒤 대좌를 만들고 그 위에 상부를 둥글게 처리한 비신형 마애부도이다. 비신 중앙에는 감실을 만들었고 안쪽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형상으로 치석되어 있다. 여산송씨 마애부도는 1890년(고종 27)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진당 마애부도와 인접한 암벽 상단부에 부조되어 있다. 바위 면에 얇은 탐신을 새겼으며, 그 위에 보주를 표현하였다. 중앙에는 방형의 감실을 만들었고 감실 주변에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3) 안양사 부도



안양사 부도

안양사 부도는 안양사 대웅전 앞에 귀부와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다. 원래 법당 앞 골짜기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옮겨 놓은 것이라 하며, 부도의 원위치는 알 수 없다. 하대석과 상대석, 옥개석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전형적인 팔각원당형 부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대석은 평면 팔각형 2단으로 상면에 단판 16엽의 복련문을 장식하고 모서리의 연화문은 끝단을 돌출시켜 마치 귀꽃처럼 표현하였다. 하대석 상부에는 각형 2단의 중대석괴임을 마련하였는데, 하대석의 너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좁은 중대석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석은 현재 뒤집어진 상태로 올려져 있다. 상대석의 하부와 상대에는 팔각형의 2단 괴임이 있고, 16엽의 연잎형 연화문 사이에 간엽(間葉)이 조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하부에 각형 3단의 받침을 마련하였다. 상부 낙수면은 완만하게 치석하였고, 낙수면 합각부에는 삼각 형태로 보족하게 돌출시켜 내림마루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마루 끝의 처마 면에는 합각부를 중심으로 좌우대칭되는 음각선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 정상부는 1단으로 상륜받침을 마련하였고, 그 위에 화문이 장식된 복발석(覆鉢石)이 있다. 복발석 상면에 원형 홈이 있어 찰주(擦柱)를 세워 여러 부재들이 결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태나 치석 수법을 볼 때 고려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안양사 귀부와 연관된 승려의 승탑으로 추정된다.

4) 삼막사 삼귀자



삼막사 삼귀자

삼막사 삼귀자는 삼막사 마애삼존불(칠성각)로 올라가는 등산로 좌측 암벽에 음각되어 있다. 시·서·화 삼절三絶로 알려진 지운영(池雲英, 1852~1935)이 1912년 삼막사에 백련암을 짓고 은거할 당시 새긴 필적이며 주변에는 백련암지가 함께 있다.

삼막사 삼귀자는 암벽에 장방형의 액을 구획하고 그 안에 서체가 다른 ‘귀龜’자를 가로로 크게 새긴 것이다. 오른쪽의 ‘귀’자는 직선을 많이 활용하여 정자에 가깝게 새겼다. 가운데와 왼쪽의 ‘귀’자는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글자는 초서에 가까운 서체를 보이고 왼쪽 글자는 기하학적인 선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삼귀자 오른쪽과 왼쪽에 ‘관음몽수장수영자觀音夢授長壽靈字’와 ‘불기2947년경신중양 불제자지운영경서佛紀二千九百四十七年庚申重陽佛弟子池雲英敬書’라고 쓰인 명문이 있어 1920년 지운영이 꿈에 관음보살을 본 후 이 글자를 새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귀자 서편 암벽에 사각형을 구획하여 시주자 명단을 새겨 놓았다.

5) 삼막사 감로정 석조

삼막사 감로정 석조는 삼막사 삼층석탑이 세워진 축대 아래에 있다. 석조 앞에는 ‘감로정甘露井’이라고 음각된 표석이 있는데, 감로는 ‘감미로운 이슬’이라는 뜻으로 부처님

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감로정 석조는 거북이 모양인 귀부형 석조이다. 물을 담는 수조와 뚜껑인 덮개석이 각각 별개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장대석 1매와 원통형 석재 4매 위에 수조가 올려져 있다. 수조 전면에는 목을 움츠린 머리가 표현되어 있고 측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1837년(헌종 3)대 시주 건명 김창령 외 여러 시주자에



삼막사 감로정 석조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정조 때 김창령이라는 사람이 탄생할 때 그의 등에 8자가 있다고 하여 돌거북을 만들어 시주한 것이라는 전설도 전하고 있다. 덮개석은 3매의 판석으로 상면에 귀갑문을 표현하였으며, 1979년 이지환 주지 스님이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감로정 석조 옆에는 원통형의 석조가 있는데, 한자와 한글이 섞인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삼막사를 중창한 이지환 스님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6) 관양동 청동기 유적

관양동 청동기 유적은 과천시로 가는 인덕원 사거리 좌측 언덕에 위치한다. 2002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구제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된 집자리 유적 8기 중 상태가 좋은 3호와 4호 주거지 2기를 인접한 이곳에 이전·복원하였고, 보호각이 세워져 있다.

3호와 4호 주거지는 장방형으로 벽면은 수직으로 파졌다. 무시설식 화덕자리·기둥구멍·저장구덩이가 확인되었고, 토기의 아가리 부분에 사선을 연속하여 새기고 조금 아래쪽에 돌아가며 구멍을 뚫은 구순각목공렬문토기(口脣刻目孔列文土器, 골아가리구멍무늬토기) 편片 등이 발견되었다. 내부 퇴적토상에 목탄과 소토가 포함된 층이 확인되어 폐기 이후 재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관양동 청동기 유적은 발굴 당시 안양 지역의 최초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이자 경기 지방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었으며, 선사시대 안양



관양동 청동기 유적 출토유물

지역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2019년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22년 관양동 청동기 유적과 인접한 곳에서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구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 이중환호(二重環濠, 환상열 형태의 주혈군(柱穴群, 기둥자리), 고상건물로 추정되는 방형 주혈 등이 발견되었다. 주거지 내부 구조와 출토 유물이 관양동 청동기 유적과 유사하여 이 일대에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7) 안양일소리(안양소리보존회, 대표: 안희진)

안양일소리는 안양 지역에서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로 채석장 일소리, 논농사 소리, 집짓는 소리, 집안일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과 1993년 당시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인 이소라 등에 의해 안양 토박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안양의 향토민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논농사요(모심는 소리, 논맴 소리), 채석노동요(채석요, 대꼬질, 목도소리, 집터다짐소리), 장례의식요(운상소리, 회다지, 봉분 달고), 그 외 활쏘기, 베틀노래, 내 복장 치고, 사촌성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안양 출생으로 이명옥·이창배·안비취·임정란 등으로부터 소리를 사사한 안희진이 1990년 초중반에 안양 토박이 소리꾼인 하기성·이해문·장석봉 등을 통해 안양 지역의 소리를 배우고 자료를 수



안양일소리

집·정리하여 전승한 것을 2019년 ‘안양일소리’로 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채석장 일소리는 석수동 산11-1번지 일대(현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뒤쪽 산)에서 불리던 채석장 종사자의 노동요이다. 석산에서 돌을 캐는 과정과 캐낸 돌을 옮기는 과정, 옮겨진 돌을 용도에 따라 다듬어 축대석·주춧돌 등으로 쓰여지는 과정을 엮어 채석요-대꼬질소리-목도소리-지경맞이-고사소리(지경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논농사 소리는 가래질·모찌기·모심기 등의 논농사 과정에서 불리던 노동요로, 느린 방아타령·꽃방아타령·양산도·방아타령 등이 있다. 논농사 소리는 전통적 토박이 소리의 지역적 특징을 알 수 있는 긴요한 소리로 안양 일소리의 논농사소리는 한강 이북 경기 서부 지역의 논농사 소리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면서 안양 지역의 독자적인 소리의 갈래와 선율적인 지역 유형이 발현되고 있다.⁸

8) 안양만안담교놀이(안양만안교담교놀이보존회, 대표: 민향숙)

담교踏橋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다리(橋)를 밟고(踏) 노는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밟는 행위는 놀이적 또는 신앙적 행위로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적 정신을 함양하면서 한 해의 풍년 기원과 재난을 일소하고 탈 없이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소망은 물론 구조물인 다리(橋)와 사람의 다리(脚)의 발음이 같아 다리를 밟으면 다릿병이 생기지 않거나 낮게 하려는 민간 신앙심이 담겨 있다.⁹



다리밟기는 정월 세시풍속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그중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많이 행해졌다. 안양에서의 답교놀이는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鄕土娛樂』(1941) 등을 통해 정월 세시풍속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87년 안양문화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호계지역과 만안교지역에서 답교놀이가 성행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식민 착취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점차 없어지면서 1920~1930년대에 사라졌음이 밝혀졌다.

실태조사와 원로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호계지역 답교놀이와 만안교지역 답교놀이를 만안교를 중심으로 복원한 것이 만안답교놀이이다. 1988년 제3회 만안문화제에서 처음으로 재현되었고, 1989년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만안문화제, 정월세시행사에서 재현되다가 50여 명이 넘는 참여 인원의 동원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1992년 제7회 만안문화제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다 2013년 안양문화원이 ‘안양대보름 축제’를 주최하면서 다시 만안답교놀이가 재현되기 시작하였고, 보존을 위해 안양문화원 산하단체인 ‘주부민속단’, ‘풍류시대’, ‘안양농악단’ 3개의 단체가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를 창립하였다. 안양만안답교놀이는 1987년 복원된 내용을 바탕으로 놀이 장소인 만안교의 상황에 맞춰 길놀이-다리밟기-무동놀이-선소리꾼놀이-대동놀이 순으로 진행된다. 안양만안답교놀이에는 ‘기세배’, ‘다님절’ 등 안양에서 행해졌던 민속문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중 만안답교놀이패와 호계답교놀이패가 만나 형기(만안기)에게 아우기(호계기)가 기를 숙여 절을 하는 기세배는 다른 지역 답교놀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적 연희로 만안답교놀이와 호계답교놀이가 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가 만들어 낸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⁰

9) 수리산산신제(수리산산신제보존회, 대표: 한상윤)

산신제는 산신에게 올리는 제의로 그 역사는 고대사회 제천의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형학적으로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산에는 신령이 있고 초능력적인 영험력을 발휘한다고 믿어 산을 숭배해 왔다. 안양에서의 수리산과 관련 있는 마을신앙 조사 자료는 현재 확인된 것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같은 행정구역이었던 군포시에서 수리산산신제가 전승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안양에서도 수리산을 마을신앙의 구심점으로 모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안양 내에서 석수동 쌍산신제, 수촌마을 도당제, 비산동 매봉산 동고제,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 등이 매년 행해지고 있고, 예전에는 석수동 쌍산신제, 수촌



수리산산신제

마을 도당제에서 무당굿을 하였다는 기록¹¹⁾이 있다.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수리산산신제는 수리산산신제보존회에서 단절된 전통 문화에 대한 맥과 정신을 잇고 국민안전과 안양시의 발전,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수리산을 진산으로 매년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제일로 하여 올리는 제의이다. 제의는 유교식 제례를 시작으로 무교식 제재인 굿거리가 행해지는데, 굿거리는 경기굿의 구조와 흐름에 따라 부정청배-가망청배-산신거리-불사거리-가망·말명·대신거리-장군거리-별상거리-신장거리-대감거리-창부거리-계면거리-뒷전거리 순으로 진행된다. 산신을 모시는 산신거리는 산거리라고도 부르며, 산의 모양을 상징하는 산종이를 들고 사방을 다니면서 신을 청하고 공수를 내린다. 그리고 산신제가 끝날 무렵에 마을곳의 베풀인 노나뻬이로 제를 올린 음식을 나눠 먹는다. 수리산산신제는 공동체 의례로서 대동성과 경기굿의 연행, 전승 단체의 전승 노력 등에서 지역 민속문화로 보전 및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2023년 조건부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국가지정편』, 1989.
경기도·경기도문화재연구원, 『경기도문화재총람-도지정편 1』, 2017.
김지석·박경식, 『안양의 역사와 문화』, 안양문화원, 199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보고서>

- 경기대학교, 『안양시 석수동 채석노동요 조사연구용역보고서』, 안양시, 2019.
경기도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지정문화 정기조사보고서-유형문화재』, 2021.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구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가치와 활성화 방안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안양시, 2023.
(주)한국건축안전센터, 『삼막사 명부전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 안양시, 2023.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삼성산을 중심으로 한 안양 지역 불교유적 학술연구 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2021.
(재)서경문화재연구원,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22.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안양만안담교놀이 가치 발굴 및 기록화 사업 학술조사보고서』, 안양시, 2024.
한강문화재연구원,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종합정비계획』, 안양시, 2020.
한국문화유산연구소, 『안양 석수동 마애종 학술조사보고서』, 안양시, 2019.

<논문>

-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註

- 1 동쪽 지주 내면 윗부분에 끌구멍이 세 군데 남아 있는데, 이것은 광복 이후 인근의 석공들이 반출하려고 했던 흔적이라고 추정되고 있다(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국가지정편』, 1989, 62쪽).
- 2 명문에 새겨진 '중초中初'에 대해서 명문이 순수한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 표현법을 반영한 변격 한문이라는 점, 신라시대의 사찰 내부 시설물 명문에 해당 사찰의 이름이 기록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찰 이름이 아니라 우리말의 '-에'와 '처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 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436쪽.
- 4 1935년 경수 간 도로포장 시 만안교를 포장하며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80년 만안교 이전 당시 포장 제거 사진과 난간 철거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437쪽).
- 5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삼성산을 중심으로 한 안양 지역 불교유적 학술연구 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2021, 60쪽.
- 6 (주)한국건축안전센터, 『삼막사 명부전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 안양시, 2023.
- 7 백유정, 「구서이면사무소의 도시건축적 시선-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의의와 가치-」, 『구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가치와 활성화 방안』, 2023, 37쪽.
- 8 경기대학교, 『안양시 석수동 채석노동요 조사연구용역보고서』, 안양시, 2019, 57쪽.
- 9 양종승, 「안양 만안담교놀이」, 『안양항토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안양문화원, 2021, 13쪽.
- 10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안양만안담교놀이 가치 발굴 및 기록화 사업 학술조사보고서』, 안양시, 2024, 52쪽.
- 11 김지석·박경식, 『안양의 역사와 문화』, 안양문화원, 1998, 255쪽.

2장 지역유산



박희은 안양시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1. 관방유적

1) 영랑성永郎城

영랑성(만안구 석수동 산 10-1 일대)은 삼성산의 삼막사와 상불암 사이에 있는 해발 458m 국기봉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시에 부분적으로 조사되었고, 안양시의 유일한 관방關防유적으로 금천구 호암산성과 더불어 삼성산의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발간) 금천현 고적조에 “삼성산에 석축으로 쌓은 영랑성의 둘레는 3750척에 중앙에 대정이라는 우물이 있다[永郎城 石築在三聖山周三千七百五十尺中有一池名大井]”고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년 발간) 금천





영랑성 북벽

현 성지조에도 “삼성산 옛터에 석성이 있으며 언제 쌓았는지 알 수 없고 둘레는 1750척에 중앙에 대정이라 부르는 우물이 있다[三聖山有石城舊址不知何代所築周回一千七百五十尺中有一池名大井]”는 기록과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있다. 또한, 『해동지도海東地圖』(1750년대 초 발간) 금천현에는 고적 영랑성의 설명과 함께 삼성산의 고성古城으로 표시하였으며, 1908년 육당 최남선이 지

은 「경부철도가」 8절에는 “관악산 개인경을 우러러보고 영랑성 묵은 터 바라보면서 잠시 동안 시흥역을 거쳐 가지고 날개 있어 나는 듯 안양 이르러”라는 구절이 있어 이때까 지도 영랑성의 존재가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영랑성은 서벽과 북벽 일부에서 성벽의 면석과 뒤채움 석재의 흔적이 확인되나, 바위로 되어 있는 삼성산의 지형에 따라 자연암벽과 암반을 이용하여 석재로 연결하거나 골짜기를 채우는 방식으로 산성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물은 확인할 수 없었고, 수습된 유물로 산성의 축조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려시대 기와편이 보이고 성벽의 축조 방식이 몽고 침략기에 축조된 입보立保형 산성과 유사하여 고려시대 후기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분묘유적

1) 비산동 석실분(1호·2호)

비산동 석실분은 고려시대 석실분으로 2기가 있다. 1호 석실분(동안구 비산동 488-109)은 비산정수장(비산포일통합정수장 예정) 북서쪽 울타리 끝부분에서 서쪽으로 약 4km 거리에 있고, 2호 석실분(비산동 488-114)은 비산동삼성래미안 아파트 내 안양양궁장 쪽에 위치한다.

1호 석실분은 자연암반을 두껍돌로 삼고 그 암반 밑을 굴착해서 석실을 마련한 특이



비산동 석실분 1호·2호

한 구조이다. 장축 방향은 북서 43°이며 규모는 동서 길이 120cm, 남북 너비 94cm, 높이 140cm이다. 동벽은 자연암반이 2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서벽은 할석을 이용하여 엇갈림식으로 쌓고 석재 사이의 틈을 잔돌과 점토로 채워 넣어 견고하게 만들었다. 북벽은 벽면의 중양을 이루는 자연암반 밑으로 석재를 쌓아 동벽과 서벽의 벽선과 맞추었다. 남벽은 자연암반 위에 쌓았으나 일부만 남아 있고, 석실의 바닥은 자연암반 위에 점토 다짐을 하였다. 발견될 당시 이미 도굴되어 수습된 유물은 없다.

2호 석실분은 구릉의 경사면을 이용해서 풍화암반층을 ‘L’자형으로 파고 만든 수혈식 석실분이다. 장축 방향은 정남북이며 규모는 동서 170cm, 남북 220cm, 높이 150cm이다. 동벽은 5~6단으로 쌓았고 북벽과 연결된 부분에는 뚜껑돌이 걸쳐 있다. 서벽은 동벽처럼 5~6단이고 아래쪽의 석재보다 위쪽의 석재가 대체로 크고, 북벽은 석재 틈 사이에 작은 할석과 점토를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남벽의 동쪽에는 무덤 내부로 통하는 폭 100cm, 높이 150cm의 장방형 연도(羨道)가 설치되어 있다. 조사 당시 북벽과 동벽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고 석실 내부에 낙엽과 흙이 덮여 있어 이미 도굴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석수동 석실분(1호·2호)

안양사 뒤쪽의 삼성산 줄기에 있는 고려시대 석실분이다. 1호 석실분(만안구 석수동 산 11-2)은 안양사 천불전에서 북쪽으로 약 50m 올라간 지점에 위치하고, 2호 석실분(석수동 236-10)은 1호 석실분의 서쪽 약 200m 거리에 있다.



석수동 2호 석실분 개석

1호 석실분은 풍화암반층을 ‘L’자형으로 파고 축조한 장방형의 석실분이다. 장축 방향은 북서 30°이며, 규모는 동서 150cm, 남북 340cm, 높이 150cm이다. 동·서·북벽은 화강암으로 쌓았고, 남벽은 1개의 판석(板石)으로 만들었다. 이미 도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 과정에서 고려시대 청자편과 벼루편이 수습되었다

2호 석실분은 위치가 구릉의 정상부에 가깝게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경기도 기념물인 석수동 석실분이나 비산동 석실분과 공통점이 있다. 장축은 동서 방향이며, 규모는 길이 137cm, 폭 75cm, 높이 70cm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석실은 네 벽에 잘 다듬은 두꺼운 판석형 화강암을 1개씩 활용해서 직사각형으로 마련하였다. 조사 당시 바닥에 암갈색 부식토가 많이 쌓여 있었고 발견된 유물은 없다.

2호 석실분은 위치가 구릉의 정상부에



석수동 1호 석실분

3) 박서신도비

박서신도비(만안구 석수동 산 168-1)는 화창로 도로 중간지점 석축 위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신도비(神道碑)는 종2품 이상의 관리를 지낸 인물의 묘 근처 길가에 세우는 석비로, 묘는 산의 정상부 북쪽 90여m 지점에 있다.

박서(朴遜, 1602~1653)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상지(尙之), 호는 현계(玄溪)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병조좌랑 박효남(朴孝男)의 아들로 1630년(인조 8)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이 되었고, 이어 호조좌랑과 병조 좌랑을 거쳐 성균관 좨주와 홍문관 교리를 지냈다. 1643년(인조 21)에 황해도 관찰사로 피폐한 지역의 백성을 돌고루 보살핀 명관으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왕의 신임을 얻어 좌승지를 거쳐



박서신도비

1647년 병조 참판에 임명되고 소현세자가 심양에 있었을 때 시강원보덕(侍講院輔德)을 맡았다. 1648년 도승지와 사헌부 대사헌을 거쳐 한성 좌윤, 경주 부윤을 지냈으며, 인조 승하 후 1650년(효종 1)에 공조 판서를 거쳐 1653년 병조 판서로 재직 중 병을 얻어 52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신도비의 비좌는 장방형으로 측면에는 안상과 용무늬가 새겨져 있고 윗면에는 복련문이 장식되어 있다. 비신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전액은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쓰고, 본문은 해서체 음각에 조석윤(趙錫胤, 1605~1654)이 글을 짓고,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글씨를 썼다. 내용은 조석윤이 비문을 쓰게 된 연유와 박서의 출사와 역임한 관직, 제수받게 된 연유와 그의 치적이 연대순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박서가 갑자기 사망하자 현종이 특별히 관서로 하여금 관재(棺材)와 상장(喪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가침석은 우진각으로 낙수면의 기왓골 장식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3. 불교유적

1) 망월암 삼층석탑



망월암 삼층석탑

망월암 삼층석탑(만안구 예술공원로245번길 150-2)은 원래 사역 앞쪽에 있는 느티나무 근처에 있었는데, 현재는 망월암 극락전 앞에 세워져 있다. 상하 2층 기단과 1층 탑신석과 옥개석, 2층 옥개석만 남아 있는데, 삼층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 전체 높이는 176cm이다. 하층기단은 1매의 판석으로 각 면마다 안상문(眼象文)에 고사리문을 양각한 형태의 문양이 3구씩 장식되어 있다. 그 위로 면석에 비하여 좁게 튀어나오도록 한 하대갑석을 올렸다. 상층기단 면석은 각 면에서 면석에 비해 좁게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상대갑석 아랫면에는 낮은 각형 1단의 받침 위에 곡선형의 부연을 두었고, 윗면에는 각형 3단의 탑신괴임을 만들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는데, 탑신석에도 면석에 비해 우주가 좁게 모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아랫면에 3단의 옥개받침과 윗면에는 각형 1단의 탑신괴임이 마련되어 있고, 낙수면의 경사가 짧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추녀 끝 전각에 이르러 둔중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이 석탑은 기단부를 동일석으로 마련하여 간략화된 결구 수법을 보이고 있고, 치석 수법이 비교적 정연하고, 전체적으로 비례가 잘 어울리고 있다. 따라서 정연한 소규모의 석탑이 성행한 고려 중기나 그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보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만안구 예술공원로131번길 11)은 보장사 무량수전 내부에 모셔져 있다. 원래 보장사에 조성된 불상이 아니라 보장사의 중창주인 우상 스님이 충청도 지역에서 모셔온 것이라 전해지며, 불상에 복장물(腹藏物)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 연대와 봉안 사찰은 알 수 없다.

불상은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형으로 이마 중간에 백호가 표현되어 있고, 눈은 살짝 뜨고 있으며, 콧날은 오뎅하게 표현되었다. 인중은 두툼하게 표현되었고, 입은 아랫입술의 양 끝을 살짝 치켜올려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었다. 수인(手印)은 아미타구품인 중에 중품하생(中品下生)을 취하고 있는데, 이 수인은 10악(惡)을 저지르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자하게 덕행을 쌓은 사람이 태어나는 극락세계를 의미한다. 법의는 통견이며 옷주름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오른쪽 어깨에는 별도의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고, 가슴 아래쪽에는 내의(內衣)가 연화문처럼 표현되었고 그 아



보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래에 띠를 돌렸다. 다리는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법의 자락이 무릎까지 길게 내려뜨려 있고 두 다리 가운데 아래쪽으로 위에서 내려온 옷자락이 몰려 있다. 이와 같은 상호와 옷주름 표현 기법은 17~18세기경에 조성된 불상들의 형식과 양식이며, 이 시기에 불사가 크게 성행하여 목조불상이 많이 조성되었다.

3) 불성사 대웅전 소조여래좌상



불성사 대웅전 소조여래좌상

불성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불상은 소조여래좌상(동안구 예술공원로 496)으로, 개금되어 있다. 머리는 나발로 표현되었으며, 정수리 부분에는 낮고 작은 육계가 있고, 중앙에는 계주가 표현되었다.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형으로 이마의 중앙에는 작은 백호가 표현되었고, 눈은 수평으로 길게 뜨고 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나, 입 좌우로 약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두 귀는 머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게 표현했으며, 목에는 삼도가 있다. 법의는 통견이고 두 어깨

에서 다리 쪽으로 길게 흘러내린 옷주름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가슴 아래쪽의 내의가 연화문처럼 표현되었고, 아래 띠가 돌려져 있다. 양손은 양쪽 무릎에 각각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밑으로 법의자락이 흘러내려 자연스럽게 파상문을 이루고 있다.

불상의 하부에는 작은 사각형 복장공이 있는데, 2008년 이전에 복장물(腹藏物)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한다. 근엄한 상호와 옷주름 처리 기법 등을 보아 17~18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불성사 각원선사마애부도

불성사 각원선사마애부도(동안구 예술공원로 496) 불성사 요사채 북서쪽 암벽에 새겨 만든 부도이다. 방향은 정서향이고, 높이 7m, 너비 5m의 암벽 하단부에 80cm×105cm 크



불성사 각원선사마애부도

기로 얇은 감실을 조성하였다. 그 안에 석종형 부도를 모방하여 양각하였고, 석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사각형 감실을 조성한 후 그 안쪽 아랫면에 지름 7.5cm, 깊이 4cm의 원형 사리공(圓形舍利孔)을 시공하였다. 사리공 안에 정골사리(頂骨舍利)와 같은 유골(遺骨)이나 수습된 별도의 사리가 안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실의 주변에 “비구 각원선 병진8월일 比丘 覺圓禪 丙辰八月日” 명문이 새겨져 있어 병진년 8월에 조성한 각원선사에 대한 부도임을 알 수 있으나, 각원선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 조성시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애부도가 조선 후기에 많이 조성되었고, 석종형 부도를 모방한 마애부도 양식으로는 초기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어 병진년에 해당하는 1796년(정조 20)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5) 반월암 백운당부도·명성당부도

백운당과 명성당의 부도(만안구 삼막로 494)는 반월암 경내에 나란히 세워져 있다. 왼쪽에 세워져 있는 백운당부도의 높이는 150cm이다. 지대석은 1매의 석재로 상단을 좁게



반월암 백운당부도·명성당부도

치석하여 2단으로 마련하였다. 탑신은 전체적으로 사각형 석주인데, 하부는 좁고 상부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다가 옥개석과 맞닿는 부위에서 좁아지는 특이한 형태로 치석되었다. 탑신석 앞면에는 “백운당 대선사 밀양장씨□□탑 白雲堂大禪師 密陽張氏 □□塔” 명문이 음각되어 있

어 주인공이 백운당 대선사임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우진각 지붕형의 가침석으로 마련되었고, 전체적인 치석 수법으로 보아 조선 말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명성당부도의 높이는 113cm이다. 지대석은 낮은 사각형이고 탑신석은 종 모양의 석종형 부도로 앞면에 “명성당대사지탑明淸堂大師之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이 부도의 주인공이 명성당임을 알 수 있다. 탑신석 위에는 낮은 보주를 돌출시켜 마무리하였다. 투박한 치석 수법과 생략에 가까운 보주의 마련 등으로 보아 조선 말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6) 반월암 서영당마애부도

반월암 서영당마애부도(만안구 삼막로 494)는 반월암에서 삼성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약 50m 오른 지점의 오른쪽 암벽에 조성되어 있다. 방향은 북서향으로 전체적으로 얇은 감실을 파고 상단에는 7엽의 화문형을 장식하고, 하단에 24cm×28cm 크기의 깊이 17cm 정도인 장방형 사리공舍利孔을 조성하였다. 사리공 상부에 “서영당 대선사 추씨□□西影堂 大禪師 秋氏□□” 새겨져 있어 서영당 대선사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은 남아 있지 않지만, 마애부도가 일반적으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경까지 조성된 점과 서영당마애부도가 위패형으로 비교적 정연한 조성 수법을 보이고 있어 19세기 전반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월암 서영당마애부도

4. 유교유적

1) 호계서원지

서원은 선현을 추모하여 제를 올리고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설교육기관이다. 호계서원(虎溪書院)은 독암(獨庵) 조종경(趙宗敬, 1495~1535)과 창강(滄江) 조속(趙淾, 1595~1668)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1681년(숙종 7)에 동안구 호계동에 세워진 안양 최초의 사립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호계서원지(동안구 호계동 176-4)는 나지막한 야산 지역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기와편·주춧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고, 현재 호계근린공원의 매봉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조종경은 1520년(중종 15)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注書)·부수찬·정언(正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1526년(중종 21)에 이조정랑에 취임하고 이후 장령·사간·전한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531년 사שמ시정(司贍寺正)으로 재직하던 중 김안로의 탄핵으로 파직되어 과



호계서원지

천현에 머물며 학문에만 전념하였으며, 『독암유고(獨庵遺稿)』를 남겼다.

조속은 조종경의 증손자로 조선 중기의 서화가이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으나 훈명과 관직을 사양하고 1627년(인조 5) 덕산 현감에 임명된 이후 장령, 진선(進善)을 역임하고 상의원정(尙衣院正)에 이르렀다. 시서화 삼절(詩書畫三絶)로 일컬어지는데, 특히 까치나 수금(水禽) 등을 소재로 한 수묵화조화에서 한국적 화풍을 이룩하여 조선 중기 이 분야의 대표적인 화가로 꼽힌다. 그림뿐 아니라 글씨에도 관심을 보여 진적(眞蹟)과 금석문(金石文)의 수집 활동을 시작한 이 방면의 선구자로도 꼽힌다. 호계서원 외에 광주(廣州)의 수곡서원(秀谷書院), 서천의 건암서원(建巖書院), 김제의 백석사(白石祠)에도 제향되었으며 저서로 『창강일기(滄江日記)』가 있다.

1864년(고종 1)에 시행된 서원 철폐령에 의해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하게 됨에 따라 호계서원 역시 철폐당하였으며, 두 사람의 위패는 서원터에 묻었다고 한다.

2) 송정명 영세불망비

인덕원사거리에서 인덕원교 방향으로 약 350m 내려온 흥안대로변에 위치한다. 원래 위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인덕원 부근 야산에 있던 것을 1945년 광복 직후 인덕원사거리에 있던 이태응 영세불망비가 외롭다고 하여 옮겨 세웠다가 1984년 흥안대로 확장으로 현재 위치(동안구 관양동 1563)로 옮겨졌다.

송정명(宋正明, 1670~1718)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자화(子和), 호는 지와(止窩), 본관은 여산이다. 1699년(숙종 25)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703년 과천현감으로 부임하였으나, 1703년 동작진 방화사건을 모면하려고 했던 죄로 파직되었다. 그러나 사서로 복직되었으며 이후 이조좌랑·이조정랑·부응교 등을 두루 역임하였

고, 경상도관찰사·충청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1718년 개성유수로 있을 때 사망하였다.

송정명 영세불망비는 화강암으로 만든 비좌 위에 비신과 이수를 올렸다. 비신의 전면에는 비명과 후면에는 건립 연도가 음각되어 있어 1704년 과천현감을 역임한 송정명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세워진 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정명 영세불망비

3) 풍양조씨 정려

풍양조씨 정려(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는 나무 현판을 걸어두는 형태로 세운 정문으로 원래는 관양동에 세워져 있었으나 현재 현판만 남아 안양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크기는 가로 216cm, 세로 46cm이며, 소나무로 만든 나무판에 붉은 칠을 하고 명문을 음각하였다.

정려(旌閭)는 효자·충신·열녀를 기리기 위해 그들이 살던 마을 입구에 세우는 정문(旌門)으로, 예조와 의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행하는 가장 높은 명예의 표



풍양조씨 정려

창이다. 풍양 조씨(豐壤趙氏, 1737~1798)는 1798년(정조 23) 황해도 관찰사인 남편 이의준(李義駿, 1737~1798)이 감영의 화재로 순직하자 의연하게 장례를 치르고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7일간 식음을 전폐한 후 숨을 거두었는데, 『정조실록』에 좌의정 이병모(李秉模, 1742~1806)가 풍양 조씨의 품행을 아뢰자 정조가 칭찬하며 정려의 특전을 베풀도록 전교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 이태응 영세불망비



이태응 영세불망비

인덕원사거리에서 인덕원교 방향으로 약 350m 내려온 흥안대로변에 위치한다(동안구 관양동 1563). 원래는 인덕원사거리에 있었으나, 1984년 흥안대로 확장으로 송정명 영세불망비와 같이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이태응(李泰應, 1812~?)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성로(聖魯), 본관은 전주다. 1861(철종 12) 식년시에 합격하여 선공감 부봉사를 거쳐 1866년(고종 3) 과천 현감으로 부임하였으며, 이후 황해도 송화현감·경기도 광주판관·충청도 임천군수·승정원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이태응 영세불망비는 지대석과 비신·가첨석을 갖추고 있는데, 가첨석은 홍수로 없어진 것을 2000년 즈음에 마련하여 올려 놓았다. 비문은 해서체로 전면에는 비명과 후면에는 건립연도가 음

각되어 있어 1869년 과천현감을 지낸 이태응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임을 알 수 있다.

이태응 영세불망비는 마을의 흥망을 좌우하는 영험한 현감비로 알려져 있다. 인접한 두 마을 중 한 마을에서 관리하면 그 마을은 흥하지만 다른 마을에서는 액운이 와서 마을을 망하게 한다고 하여 서로 자기 마을에 세우기 위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홍수로 하천에 묻혔을 때 인근에 가장 부유하던 마을이 점차 영세한 마을로 기울어져 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을에서는 묻혔던 현감비를 찾아 다시 세우고 매년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올렸고, 마을이 다시 흥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때는 마을 간에 현감비를 옮겨가는 등 분쟁으로 수원 노송지대에 버렸다가 마을에 불길한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자 다시 찾아와 인덕원사거리에서 세우게 된 것이라고 한다. 영험한 현감비로 매년 10월 인덕원현감비석제를 지내고 있다.

5. 유적지

1) 인덕원지

원院은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곳이다. 인덕원仁德院은 과천과 수원, 성남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조선시대에는 전국 6대로大路의 하나로 삼남 지방을 오가는 주요 길목이었다. 한양과 가까워 환관들이 내려와 거처하며 덕을 베풀었다는 의미에서 ‘인덕仁德’이라 하였고, 원院이 생긴 후부터 ‘인덕원’이 되었다고 전한다.



인덕원지 표석

1457년(세조 3) 9월 세조가 인덕원을 지나갔다는 기록, 1597년 4월 3일 충무공 이순신이 인덕원에서 쉬고 간 기록이 있어 일찍이 주요 교통로의 원으로써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역참驛站이 증가함에 따라 원이 없어지고 1699년 과천 유생 허오가 편찬한 『과천현신수읍지』에는 인덕

원 터로 적혀 있어 이때 이미 원이 없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1646년(인조 24) 4월 3일 『비변사등록』에 과천 이남에 별도의 파발을 세운다는 내용과 아울러 1657년(효종 8) 『비변사등록』에 신설 인덕원참의 말 한 필이 부실하다는 문제를 보고한 기록이 있어 원은 없어졌으나, 이름만은 남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후기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을 참배하기 위해 지나간 능행로로 중요성을 계속 유지하였다. 인덕원지(동안구 인덕원동 1488-39)는 현재에도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덕원 옛터 주변에 인덕원지 표석과 인덕원 옛길 터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원의 자취를 알려 주고 있다.

2) 안양행궁지



안양행궁지

행궁(行宮)이란 왕이 거동할 때 머무르던 별궁을 말한다. 안양행궁은 정조가 현릉원으로의 원행을 위해 설치한 건물로, 안양주필소라고도 한다. 정조가 능행길을 시흥로로 바꾸고 만안교가 축조된 1795년경에 안양행궁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행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행정례』 「도로교량(道路橋梁)에 염불교(念佛橋), 만안교(萬安橋), 안양참발소전로(安養站撥所前路) 등 시흥로 노정의 주요 지점 중 안양참발소, 즉 안양행궁이 염불교로부터 1리 거리에 있었고, 『증보문헌비고』, 『대동지지』에서 만안교 남쪽에 행궁이 있고, 『일성록』을 통해 시흥행궁과 5400보, 14리의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조실록』의 부록인 「정조대왕행장」의 1789년(정조 13) 8월 기록에 “안양참(安養站)에 발사(撥舍)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있어 안양행궁의 건립 시기와 화성의 원침 배알에 따라 기존의 통신 교통로상에 설치된 공무용 역참을 왕이 쉬었다 갈 수 있게끔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성록』의 1795년(정조 19) 4월 16일 기록을 보면 화성까지의 서발(西撥)은 20리에서 15리 간격으로 참을 두고, 경참·시흥·신촌참·과천·안양참·광주·사근참·화성 관문참은 오발소로 화성을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안양참의 성격이 단순히 임시로 쉬는 참의 성격을 넘어 정조의 화성 원행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다른 참과는 구별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양참이 주필소로 그 격과 위상을 갖춘 시기는 시흥로의 원행길을 닦고 관아를 수리

한 1794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또한, 1795년 9월 만안교가 축조되며 안양참은 왕이 쉬어가는 주필소로 확실한 역할을 지니게 되었다. 이때 7년마다 대청과 방에 필요한 설치물, 채화등매 2좌, 연화방석 1립, 만화안식 2좌 등을 다시 장만하여 갖추도록 하고, 10년마다 도배에 저유지 10권 11장, 후백지 17권 등을 교체하도록 하였다. 또 경기감영에서 포우, 마제문석 10장 반관 반의 반장, 백문석 15장 등을 준비하게 하는 등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800년 정조의 승하 후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이 기록되다가 1868년 3월 16일 고종의 명에 의하여 시흥현 관아 건물 중수를 위해 헐리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큰 집이 있었다고 하여 대궐터라고 불리었다가 건물들이 들어서며 이 일대가 안양1번가 상권을 이루었다. 안양행궁지는 현재 만안구 안양동 674-67 일원이다.

6. 기타 유적

1) 수리산 성지

수리산 성지(만안구 병목안로 394)는 병목안 삼거리에서 수리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의 담배촌이란 곳에 있다. 담배촌은 1837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의 아버지인 최경환과 천주교인들이 천주교 박해를 피하여 이곳에 정착하고 담배를 경작해서 생계를 이었다는 데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최경환(崔京煥, 1805~1839)은 충청남도 홍주 다래골의 새터(현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에서 태어났으며, 천주교 집안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리를 배우고 입교하였다. 내포의 사도로 불리는 이존창(李存昌, 1759~1801)의 후손인 이성례(李聖禮)와 결혼하여 1820년대 서울의 공덕리로 이사하여 살았으며, 박해의 위험이 있자 강원도 금성·경기도 부평을 거쳐 이곳 수리산 산골에 정착하여 교우촌을 이루면서 신앙생활과 전교에 전념하였다. 1836년(현종 2)에는 아들 최양업이 모방(Maubant) 신부의 천거로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에서 유학하였다. 1839년(현종 5) 교우촌 마을의 전교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기해박해(己亥迫害)로 7월 31일 체포되어 배교하라는 온갖 고문과 회유에도 끝까지 견디다가 9월 12일 옥중에서 순교하였다. 이성례도 1840년 1월 31일 다른 교우와 함께 처형되었다.

1925년 7월 5일 교황 성 비오 10세에 의해 복자위(福者位)에 오르게 되면서 수리산에



수리산 성지

문헌 무덤을 알아내 1930년 5월 최경환 시신을 수습하여 경성교회(현 명동성당)에 이장하였다가 1967년에 절두산 순교 기념관으로 옮겨 모셨다. 그 후 장내동 성당 정원진 신부가 재임 당시 수리산에 순교기념비를 세워 성지 조성이 시작되었고,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을 위해 방한 중이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984년 5월 6일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천주교인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정비하고 성지화하여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참배하는 성지가 되었고, 최경환이 묻혔던 곳에 묘가 있음을 나타내는 봉분을 만들어 놓고 순교를 기념하는 묘비를 세웠으며, 묘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예수님의 고행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웠다. 앞 도로변에는 '천주교 수리산 성지'라는 돌비석과 '수리산 순례자 성당' 건물, '수리산 성지 고택 성당' 건물이 있다.

수리산 성지는 수리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담고 있는 담배촌과 순교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2003년 안양8경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에는 역사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다. 2021년에는 안양9경으로 재지정되었다.

2) 연자방아 윗돌

호계동 연자방아는 안말어린이공원 내에 복원 설치된 연자방아이다. 안말어린이공원은 함평이씨 집성촌의 방앗간으로 운영하던 터로, 당시 사용되던 연자방아 윗돌이 공원에 남아 있어 2018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 설치하였다(동안구 호계동 918-28).



호계동 연자방아 윗돌

연자방아는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데 쓰는 도구로, 연자매라고도

한다. 둥글고 평평한 돌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워, 소나 말의 힘으로 끌어서 곡식을 가루로 만들도록 고안되었다. 아랫돌과 윗돌이 적당히 물리도록 조정하여 돌판 위에 찢고자 하는 곡식을 넣고 소나 말의 힘으로 둥근 돌을 굴려 껍질을 벗겨낸다. 보통 한 사람이 소나 말의 고삐를 잡고 앞에서 몰고, 다른 사람이 그 뒤를 따르며 넉가래로 곡식을 뒤집어 곡식을 가루로 만들었다.

안양문화원에서 발간한 『안양집성촌자료집(安養集姓村資料集)』에 따르면, 함평 이씨 함성군파 23세손 이유민이 1777년경 호계동 안말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고, 그 후손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에도 현재 호계초등학교 입구 서쪽 안골에 연자방아로 도정을 하다가 원동기식 방앗간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1973년 안양시 승격 이후, 안말의 논과 밭이 없어지면서 방앗간 터도 사라지고 안말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지만, 공원 모퉁이 흙 속에서 연자매(윗돌)가 발견되어 사라져 버린 고정나무와 아랫돌을 복원, 결합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연자방아는 호계2동 안말사람들의 과거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은 마을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7. 비지정 자연유산

1) 느티나무(경기도 보호수)

품 격 도나무(경기-안양-1)
지정일 1982. 10. 15.
소재지 만안구 석수동 689
소유자 안양시



석수동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석수삼막소공원 내에 위치한다.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느티나무(학명 : Zelkova serrata Makino)로 높이는 20m, 가슴높이 나무 둘레는 5.41m로 수령은 540년이다. 수관이 넓고 수형이 조화를 이루며 마을 풍치상 대단히 아름다운 수형을 이루고 있어 보호·관리하기 위해 1982년 10월 15일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이 느티나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 직후 어느 미군이 느티나무의 가지를 땔감으로 쓰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신성한 나무라고 말렸으나 땔감으로 써 그날 밤 부대에 원인 모를 불이 나 이를 서낭할아버지의 노여움을 산 탓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으며, 1980년 여름 사람들이 나무 밑에 모여 있을 때 강한 바람과 함께 굵은 나무 줄기가 부러졌으나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진다. 이야기처럼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서낭할아버지 나무라고 부르며 매년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제를 올리는데, 삼막골 성황제, 삼막골 쌍신제라고 부른다.

삼막골 성황제는 우물에 먼저 제를 올리고 마을의 수호신인 서낭할아버지나무, 서낭할머니나무에게 복을 비는 마을제례로 2019년 우물이 매몰될 위기에 처하자 서낭 할머니나무가 있는 곳으로 우물을 복원하였다.

2) 보리수나무(경기도 보호수)

품 격 도나무(경기-안양-2)
지정일 1982. 10. 15.
소재지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번길 150
소유자 염불사

보리수나무는 전통사찰 염불사 대웅전 앞에 위치한다. 보리수나무과에 속하는 보리수나무(학명 : *Elaeagnus umbellata* Thunberg)로 높이는 64m, 가슴높이 나무둘레는 2.37m로 수령은 640년이다. 수관이 좋고 희귀수종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1982년 10월 15일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보리수는 불가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성취한 신성한 나무로 고려 말 이곳에서 수도하던 고승이 사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재하였다고 전해진다. 1988년에 기상피해로 수관 4m 지점에 손상이 생겨 외과수술을 받았았다고 한다.



염불사 보리수나무

3) 관양동 느티나무(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품 격 아름다운 나무-1
지정일 2023. 2. 24.
소재지 동안구 관양동 1377
소유자 안양시



관양동 느티나무

향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이곳에 정착하였고, 이때 심은 나무라 한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생각하여 이 나무를 대상으로 제례를 지내는데, 수촌마을 도당제라고 부른다.

수촌마을 도당제는 수촌마을 수촌번영회에서 매년 음력 10월 2일에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마을제례이다. 관악산 줄기인 마을 뒷산에 있는 옷당(당집), 아랫당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와 이 느티나무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에 올린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마을의 수호목이자 정자목으로 수목정자나무로 불리었으며, 옛날에는 마을의 청년들이 입대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무에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나무 보호를 위해 2021년 줄당김, 지지대 설치 등을 하였고, 마을의 성황나무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 2월 아름다운 나무 1호로 지정되었다.

관양동 느티나무는 수목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한다. 2023년 6월 기준 높이는 14m, 가슴 높이 나무둘레는 4m이다. 수령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선 중기에 삼남지방의 김해 김씨 금녕군파(金寧君派) 유생이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악산이 접한 서북쪽 언덕이 완만하고 남

4) 신촌동 느티나무(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품 격 아름다운 나무-2
지정일 2023. 2. 24.
소재지 동안구 신촌동 1067-6
소유자 안양시

신촌동 느티나무는 2023년 6월 기준 높이는 18.5m, 가슴높이 나무둘레는 2.85m이고, 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정된다. 원래 수목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1996년에 안양시에서 대대적인 치료를 실시하여 수목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한다.

평촌신도시 조성에도 현재의 위치에서 굳건히 자리하며 마을 정자목으로 사랑받은 나무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 2월 아름다운 나무 2호로 지정되었다.



신촌동 느티나무

5) 석수동 향나무



석수동 향나무

서낭 할머니나무(향나무)는 서낭 할아버지나무(느티나무)에서 삼막1교 쪽으로 약 145m 떨어진 지점(만안구 석수동 680-8)에 위치한다. 원래 마을 위쪽에 위치했었는데, 1977년 대홍수 때 나무 뿌리째 뽑혀 이곳까지 떠내려 온 것을 현재 위치에 심었다. 홍수가 끝나고 마을 주민들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 큰 곳을 하였으나 결국 고사하고 말았고, 이후 할머니나무를 기리는 의미로 옆에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6) 석수동 회화나무

삼성산경로당 북쪽 주택가 앞 도로변(만안구 석수동 211-4)에 위치한다. 높이는 15m, 나무둘레는 2m이다.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안내판에 따르면 1650년대에 마을 주민이 심어 가꾸어 왔고 마을 정자목으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이다.



석수동 회화나무

참고문헌

〈단행본〉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양시, 2001.

안양문화원, 『안양집성촌자료집』, 200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웹페이지〉

국가유산 지식이음(<https://portal.nrich.go.kr>)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3장 기록유산



허흥범 과천시 추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기록유산은 다른 유형의 문화유산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기록유산은 훼손되거나 소멸될 위기에 처한 기록물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유네스코(UNESCO)가 선정한 가치 있고 귀중한 기록유산을 말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을 설립하였다. 이 사업은 기록유산 보존에 대한 위협과 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아울러 2024년 새로 정의된 우리나라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뉜다. 이 중 문화유산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 등의 국가지정과 시도유형문화유산·시도기념물·시도문화민속유산등 시도지정유산 그리고 국가등록문화유산과 시도등록문화유산 등 등록유산으로 나뉘어진다.

기록유산은 유한한 인간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대만 작가 샤리진夏立君은 『시간의 압력』(2021) 태사공太史公 장에서 “사람은 역사적 동물이다. 자신을 역사 안에 놓는 것은 인류의 유서 깊은 정신적 요구였다”고 말한 바 있다. 언어를 통해 생각하는 인간은 기억을 넘어 영원히 남기고자 할 때 기록을 남긴다. 그런 점에서 기록은 역사적 인간이라는 종種의 고유한 특성이다. 기록(畵)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은 주로 뒷날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거나 적은 글을 말한다. 지역사에서 말하는 기록유산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그 발자취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자료이다. 여기에서는 안양 지역의 금석문, 문서와 시문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김동주 등, 『시흥금석총람始興金石總覽』,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 안양시, 『안양금석문安養金石文』, 안양문화원, 1995.
- 최병준, 「제3편 금석문으로 보는 안양」, 『안양시사』 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140~191쪽.
- 공근식, 「제4편 시문으로 보는 안양」, 『안양시사』 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194~243쪽.
- 허홍범, 「제5편 문서로 보는 안양」, 『안양시사』 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246~294쪽.

여기에서는 금석문, 문서(산문)와 시문을 살펴되 자료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시대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간략한 해제를 붙이고,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안양 지역의 지역성과 안양 사람의 활동을 잘 보여주는 기록유산을 선별하여 지면의 허용범위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석문

기록은 생물학적 수명의 한계를 넘어 전승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더구나 금석문金石文은 기록 가운데에서도 철 등의 금속성 재료나 돌에 새긴 글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금석金石은 길금정석吉金貞石의 준말이다. 금석문은 대체로 오래 보존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을 뿐만 아니라, 당대적 인식과 역사적 사건 현장을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료적 분류에서 대체로 1차사료에 해당한다. 금석문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중요한 몇 점의 금석문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명安養中初寺址幢竿支柱銘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중초사지 삼층석탑, 안양사 및 안양사칠층탑비와 더불어 안양安養을 상징하는 기록물의 첫머리에 해당한다. 안양은 안양세계安養世界의 준말로,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淨土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 인간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 억 불토佛土를 지난 곳에 있다 한다.

(1) 원문

寶曆二年歲次丙午八月朔六辛丑日 中初寺東方僧岳一石分二柱 同月廿八日二徒作初 奄九月一日此處至 丁未年二月卅日了成之 節州統 皇龍寺 恒昌和上 上和上 眞行法師 貞坐 義說法師 上坐 年嵩法師 史師二 妙凡法師則永法師 典都唯乃二 昌樂法師法智法師 徒上二 智生法師眞方法師 作上 秀南法師.

(2) 해석문

보력(寶曆) 2년(826) 병오 8월 6일 신축일에 중초사(中初寺) 동쪽 승악(僧岳)에서 돌 하나가 두 기둥으로 나뉘었다. 같은 달 28일에 두 무리가 일을 시작하여, 9월 1일에 이곳에 이르렀고, 정미년(827) 2월 30일 완성하였다.

당시 절주통(節州統)은 황룡사의 향창화상(恒昌和上), 상화상(上和上)은 진행법사, 정좌(貞坐)는 의열법사, 상좌(上坐)는 연승법사, 사사(史師)는 둘인데 묘범법사와 칙영법사, 전도유내(典都唯乃)는 둘인데 창악법사와 법지법사, 도상(徒上)은 둘인데 지생법사와 진방법사, 작상(作上)은 수남법사이다.¹

2) 안양사칠층탑비(安養寺七層塔碑) 명문

안양사칠층탑비에 새겨진 글귀로 1131년(고려 인종 9)에 세워졌다. 김부식(金富弼, 1075~1151)이 짓고, 각자(刻者)는 미상이며, 이원부(李元符)가 썼다. 해서로 된 글자 한 자의 크기는 1.5cm로, 모두 6행 56자의 비 잔편 탁본이 전하고 있다.

안양사칠층탑비는 7층전탑과 관련한 비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12세기 초 안양사에 머물던 동주(東州, 고려시대 철원의 옛 지명)의 이천(伊川) 고씨 출신의 법상종의 보조국사와 관련된 탑비로 파악하는 주장²도 있으므로 좀 더 검토를 요한다. 이 비문 이외에도 정영호 선생이 수습한 안양사비편 2점이 전한다.

이 비문의 서체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유형원(柳馨遠)이 편찬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서 “자획이 매우 단정하고 엄밀하며 굳세고 예스럽다(字劃極端嚴勁古)”고 평하였다. 이는 12세기 이원부가 초당(初唐)의 서예가 우세남(虞世南, 558~638)의 서풍을 따랐음을 반증하며, 아울러 우세남보다 굳건한 글씨체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원문

李元符奉宣書(이하 원문 결락)

吾從成佛已來種種因緣³

矛盾論議紛然使學者亡

以爲終華嚴如實亦具四

姓高氏東州伊川人也父

至東始小終大覺而語之⁴



「안양사칠층탑비」 탁본
(이우李愔 편, 『대동금석서』, 경성제국대학 편/영인, 1932, 65쪽)

(2) 해석문

이원부⁵가 삼가 선지(宣旨, 임금의 명령)를 받들어 쓰다. (이하 원문 결락)

내가 성불한 이래로 가지가지 인연(因緣)과 (결락)

모순(矛盾)되어 논의(論議)가 분분하게 일어나

학자들로 하여금 (결락)

마침내 화엄(華嚴)이 여실(如實)해지게 되었다. (결락)

성(姓)은 고(高)이니, 동주(東州)의 이천인(伊川人)이다. (결락)

동쪽에 이르러 처음에는 미미했으나 마침내 크게 깨달았는데, (결락)

3) 만안교비萬安橋碑 명문

1795년(정조 19) 10월 세워진 만안교비는 서유방(徐有防)이 비문을 지었고, 조운형(曹允亨)이 글씨를 썼으며, 유한지(兪漢芝)가 예서(隸書) 대자로 앞면을 썼다. 유한지는 이 비문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의 화홍문 현판도 썼다. 그는 고법을 바탕으로 필법을 배우고, 고대 금석문 연구를 통해 전서와 예서에 뛰어났다. 비는 만안구 석수2동 270-8에 위치한다.

정조는 해마다 사도세자의 능을 성묘하려고 안양천을 지나 화성으로 가는데, 다른 하천들은 다리가 있었으나 안양천에만 다리가 없어 행차 시에만 임시로 나무로 된 다리를 놓았다고 한다. 당시 경기도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이 새로 다리를 놓기로 하여 3개월 만에 석교(石橋)를 완공하였으며, 길이는 15장이고 폭은 3장이며 갑문은 5개였다.

정조는 공사 과정을 지켜보며 공사가 끝나고 감독과 공장^{工匠}에게 상을 내리고, 다리의 명칭을 만안교^{萬安橋}라고 짓고, 이 일을 기념하고자 만안교비^{萬安橋碑}를 세웠다. 비의 뒷면은 「만안교비송^{萬安橋碑頌} 병서^{并序}」로 뒷부분에는 찬^撰·서^書와 건립연대를 쓰고, 공사 참여 책임자의 명단을 적었다. 감독^{監董} 1인, 오위장 3인, 영비^{營裨}·영교^{營校}·영리^{營吏} 각 1인과 각수^{刻手} 책임자 이삼흥, 석수^{石手} 책임자 최귀득·박복돌, 홍예^{虹霓} 책임자 최흥서, 야장^{冶匠} 책임자 정일성 등이다. 이렇게 공사 책임자의 명단까지 실명^{實名}으로 제시하여 정조시대 기록 문화의 특성까지 엿볼 수 있다. 비의 앞뒷면 번역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안교^{萬安橋}

만안교비송^{萬安橋碑頌} 병서^{并序}(并序, 서문을 겸함)

남충현^(南充縣, 과천)의 치소^{治所} 남쪽 20리에 안양천^{安養川}이 있는데, 바로 화성^{華城}으로 가는 연로^{輦路}이다. 우리 성상께서 해마다 원침^{園寢}을 배알할 때마다 이 하천을 건넌다. 올봄에도 자전^{慈殿}의 수레를 모시고 이 하천을 건넜으니, 이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다.

행행^{行幸}하는 곳에는 하천이 있기 마련이고 하천마다 다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들 다리는 나무로 놓았다가 왕의 수레가 지난 뒤에는 바로 철거하였다. 따라서 얼음이 풀릴 때나 장마가 질 때에는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였다.

전^前 도신^{道臣} 서용보^{徐龍輔}⁶가 이 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로써 대체하려 하였으나 미처 이루지 못하다가, 미천한 신이 명을 받고 부임하여 맹추에 이 일을 착수하여 3개월 만에 준공하니, 길이는 15장이요, 폭은 4장이며, 높이는 3장이고, 갑문^{閘門}, 수문^{水門}이 다섯 개이다. 성상께서 이 일을 아시고는 감독한 사람과 공장^{工匠}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리고, 특별히 ‘만안^{萬安}’이란 이름까지 내리셨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왕자가 다리로 편안히 건너게 된 것은 한나라의 장안교^{長安橋}에서 비롯하였지만 자전을 모시고 다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도강^{徒杠}과 여량^{輿梁}은 성주^{成周} 때에 이루어졌으나 역시 돌로 대체하여 만세에 전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이 다리는 다행히 화성으로 가는 연로에 있으니, 성상의 수레는 1년에 한 번, 자전의 수레는 10년에 한 번씩 육룡^{六龍}에 멩어를 메이고 팔란^{八鑾}을 울리면서 편안히 지나갔다가 편안히 오기를 만년토록 한결같이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편의가 만백성에게까지 미쳐 원근의 행리^{行李}가 튼튼한 다리를 건너므로 옷을 걷어 올리거나 험한 길로 돌아갈 걱정이 없게 되어 만년토록 성은^{聖恩}을 입고 자덕^{慈德}을 기리게 되었으니, 어찌 참으로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리를 처음 놓기 시작하였을 때, 하천가에서 돌을 채벌하였는데 과연 거기에서 돌이 나와 경비를 반감할 수 있었다. 마치 신이 도운 것 같았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신은 배수 계수拜手稽首하고 그 일을 기록한 다음 송頌을 지어 붙인다. 송은 다음과 같다.

王行于園 왕께서 원침에 행행하심이
一度一歲 해마다 한 번이니
天臨虹橋 왕께서 이 다리 건너시기를
歲以萬計 만년토록 하옵소서
與福偕至 복록과 함께 이르니
其下有川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時奉慈駕 때때로 자전을 모시니
萬安萬年 만년토록 만안하소서
恩及萬姓 은혜가 백성에 미치니
坦履齊歡 마음 놓고 건너며 기뻐하리라
於千於萬 천년토록 만년토록
安如砥磐 반석같이 편안하소서

정헌대부正憲大夫 지중추부사 겸 경기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수원부유수 개성부유수
강화부유수 광주부유수 도순찰사 규장각검교직제학知中樞府事兼京畿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水原府留守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廣州府留守都巡察使奎章閣檢校直提學 신臣 서유방徐有防은 삼가 짓다.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 신 조유행曹允亨은 삼가 쓰다.

학신學臣 유한지俞漢芝는 전면前面을 삼가 쓰다.

감동監董 첨사僉使 김천보金天寶
오위장五衛將 장정張挺
오위장 김대연金大衍
오위장 김원섭金元燮
영비營裨 가선嘉善 서협수徐浹修
영교營校 가선嘉善 서의린徐毅麟

영리營吏 이효석李孝錫

각수변수刻手邊首 이삼흥李三興

석수변수石手邊首 최귀득崔貴得, 박복돌朴福淳

홍예변수虹霓邊首 최흥서崔興瑞

야장변수冶匠邊首 정일성鄭一成

금상(今上, 정조) 19년(1795) 9월 일에 세우다.

4) 삼막사 감로정 석조三幕寺甘露井石漕 명문

삼막사 감로정 석조는 삼막사 경내 삼층석탑 아래에 위치한 귀부형 석조로 목을 바짝 움츠린 평판적인 모습의 귀두龜頭가 표현되어 있는 1837년 제작된 조선 후기 불교문화 유산이다. 덮개는 거북등을 육각형으로 표현한 3조각의 넓은 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통형 석조는 비교적 근래에 조성된 것으로 높이는 50cm 정도이다. 감로수는 깨끗하고 시원하며 맛이 좋은 물을 비유하는 말이지만, 본래는 불교에서 도리천에 있는 달콤하고 신령스러운 액체를 말하는데 한 방울만 마셔도 온갖 괴로움이 사라지고, 오래 살며, 죽은 이는 부활한다고 한다. 그래서 감로수는 불사의 약으로 불리며, 부처님의 교법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인다.

(1) 원문

道光十七年丁酉十月 水臼大施主 乾命金昌靈 坤命人金氏 長子金壽萬 乾命金中得 乾命安□云 乾命安有靈 尙富辛卯生崔氏 尙富乙巳生金氏 尙富戊戌生趙氏 引勸女正化 石手元光得 化主僧善暎

(2) 해석문

도광道光 17년(1837, 현종 3) 정유 10월 수구水臼 대시주大施主 건명乾命 김창령金昌靈, 곤명인坤命人 김씨金氏, 장자長子 김수만金壽萬, 건명 김중득金中得, 건명 안□운安□云, 건명 안유령安有靈, 상부尙富 신묘생辛卯生 최씨崔氏, 상부 을사생乙巳生 김씨金氏, 상부 무술생戊戌生 조씨趙氏, 인권녀引勸女 정화正化, 석수石手 원광득元光得, 화주승化主僧 선영善暎

5) 안양 삼막사 삼귀자三龜字 명문

삼귀자 명문은 삼막사 백련지 오른쪽 바위벽을 반듯하게 다듬어 거북 귀龜자 세 자를 음각으로 새기고, 그 오른쪽에 사연을 적고, 왼쪽에는 날짜와 작자를 새겼다. 명문은 세로 110cm, 가로 215cm이다.

“관음보살이 꿈에 장수를 상징하는 신령스런 문자를 주어 불기 2947년(1920) 경신 중앙(9월 9일)에 불제자 지운영이 공경히 쓰다[觀音夢授長壽靈字, 佛紀 二千九百四十七年 庚申重陽 佛弟子 池雲英 敬書].”

삼귀자 귀龜자는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세 도상 모두 위에서 선을 따라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마지막에 거북의 꼬리 부분에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삼귀자 오른쪽 바위에는 삼귀자의 시주자 명단을 적은 각석이 있다.

“삼귀자를 석각한 시주: 광명안 이정숙, 병진생 박씨 광명상, 대각심 김동숙, 무진생 이씨 광명공[三龜字 石刻施主: 光明眼 李貞淑, 丙辰生 朴氏 光明相, 大覺心 金東淑, 戊辰生 李氏 光明功].”

지운영(池雲英, 1852~1935)은 1911년 삼막사 내에 백련암白蓮庵이란 암자를 짓고 시서화로 자오自娛하며 지내다 1920년 꿈에 관음보살이 내려준 신령스런 문자를 본 후 삼귀자를 새긴 것이다. 명문은 글자 획의 굵기가 거의 일정한 것으로 보아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글자를 도안한 후 조각도구를 사용하여 새긴 것으로 보인다.

거북 도상은 각각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글자를 한 번에 이어서 쓰는 연면자로 도안된 것이다.⁷ 왼쪽의 거북 도상은 거북의 등을 표현한 것으로, 머리를 각지게 표현하고 이어서 네 개의 발을 먼저 그린 후 좌우를 지그재그로 오가다 중앙을 관통하여 꼬리에서 마무리된다. 거북의 배를 형상화한 가운데 거북 도상은 머리에서 중앙을 관통하여 내리긋고 왼쪽 위로 배의 외곽 둘레를 그은 후, 위 왼발 → 아래 왼발 → 위 오른발 → 아래 오른발 순으로 그리고 꼬리를 표현하였다. 네 발을 제외한 배 부분 13개 공간에는 각기 하나씩 점을 찍었다. 왼쪽의 거북 도상이 삼각의 각이 진 도상인 데 비해, 가운데 도상은 원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준다. 그리고 맨 오른쪽 거북 도상은 거북의 옆면을 그린 것으로 머리 → 등 → 네 발 → 꼬리 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거북 도상에 대한 분석과 그 배경에 대해 이지원(2021)은 무巫·불佛·도道 삼교의 통합적 요소로 설명한 바 있는데, 삼귀자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거북을 신성시하는 무교적 거북신앙, 관음상 등을 그린 지운영의 불교적 성향, 도교의 부적을 결합한 예술품으로 이해한 바 있다.



삼귀자 명문



삼귀자 명문 탁본



삼귀자 왼쪽 거북 도상



삼귀자 가운데 거북 도상



삼귀자 오른쪽 거북 도상

아울러 필자는 이 삼귀자 도상이 붓이 아닌 작도⁸된 도상⁹이라는 점은 근대적 디자인으로 보아도 좋을 듯 싶다. 아울러 다음 비교 표에서 보듯이 하도¹⁰와의 관련성 그리고 흔히 우보¹¹로 표현하는 보강답두¹² 도상과의 정밀한 비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지운영이 꿈에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장수를 상징하는 신령한 거북 문자를 받았음을 형상화한 삼귀자 명문의 사상적 기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삼귀자의 세 글자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삼귀자의 비교

구분	왼쪽 거북 도상	가운데 거북 도상	오른쪽 거북 도상	비고
형태	거북의 등	거북의 배	거북의 옆모습	
점의 개수	6개 (좌 3, 우 3 상하 배열)	13개 (각 13)	8개 ⁹ (좌 4, 우 4)	27개 점
하도 관련 상징	수(水), 북쪽	쇠(金), 서쪽	나무(木), 남쪽	상징성
보강답두步罡踏斗 와의 비교	태을진인보강도 太乙真人步罡圖	태을진인반괘강도 太乙真人反卦罡圖	옥녀과강도 玉女過罡圖	형태적 유사성

6) 안양풀 준공비

1932년 8월 근대식 수영장인 안양풀(pool, 수영장)을 준공하면서 일본인 경기도지사 마쓰모토 마코토(松本誠, 1931.9.23~1934.11.4 재임)가 해서체로 쓴 준공비이다. 안양예술공원(구 안양유원지) 중간의 예술공원교에서 상류쪽으로 안양풀 준공비는 삼성천 계곡 바닷의 물막이둑 중간에 있다. 계곡을 막아 길이 60m, 너비 20m, 깊이 0.8~1.6m 규모의 둑을 조성하여 수영장을 만든 것이다. 안양풀장은 2000평 면적으로 공사비 3000원을 들여 면장 등 지역 유지들이 1932년 8월 준공한 근대식 수영장이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경기도가 시행하던 사방(砂防) 공사가 한창이었으므로, 시흥군 서이면의 의뢰로 이곳의 인부를 동원하여 7월 10일부터 풀장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경성을 중심으로 경치 좋은 곳은 많지만 수영장을 할 만한 곳은 별로 없고, 인천은 거리가 멀고 한강은 수음(樹蔭, 나무 그늘)이 없었으나, 안양은 곳곳에 녹음이 무성하고 임간학교의 피서지로 유명하고 가을에는 관풍(觀楓, 단풍놀이)과 습률(拾栗, 밤줍기)의 승지로 이름있는 곳¹⁰이라고 지적하였다. 종합하면, 안양에 풀장을 조성한 것은 “일반 사회의 희망에 순응”하여 “경성 근교의 하동(河童)들을 기쁘게 만들 일”로 받아들여졌다. 풀장 개설 이래 성수기에는 매일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 한다.

수영장의 개장과 함께 총독부 철도국에서는 관악역과 안양역 사이 부근 선로에 가정거장(假停車場, 임시정거장)을 설치¹¹하여 탐방객에게 풀장 왕래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임시정거장에 정차하는 열차는 경성역 오전 7시 15분발, 8시 40분발, 12시 20분발 등 3편이며, 복귀 열차는 경성역에 오후 4시 15분 착, 오후 6시 33분 착 등 2편의 열차가 운행되었다. 안양풀장은 처음에는 서이면사무소 소관이었으나, 안양풀보존회가 조직되면서 관리되었다.¹²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안양풀 준공비



안양풀 준공비의 제작연대와 글쓴이

安養プール, 昭和七年八月 竣工, 松本誠 書

안양풀, 소화 7년(1932년) 8월 준공, 마쓰모토 마코토 씀.

2. 시문

1) 안양사에서 능정 승통의 진영에 참배하다安養寺 禮能淨僧統影¹³

行化當年值國初 교화를 시행하던 그 당시는 국초이니

累朝崇尚信非虛 누조에서 숭상함 진실로 헛되지 않았네

大師自新羅 來朝太祖 卽蒙見重 遂主張教門公事 至太平興國二年 追諡都僧統 仍差使正輔元和殿學士崔亮, 副使朝散大夫前廣平侍郎宋兢等 □持誥牒 往安養寺 備禮宣賜 其詞則□政殿學士知制誥前□□侍郎金贊行

대사가 신라로부터 태조에게 내조하여 태조의 예우를 입어 드디어 교문공사를 주관하였다. 태평흥국 2년(977, 경종 2)에 이르러 도승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이어 정보 원화전학사 최량, 부사 조산대부 전 광평시랑 송경 등을 파견하여 고첩을 가지고 안양사에 가서 예를 갖추어 선사하였다. 그 내용은 □정전학사 지제고 전 □□시랑 김지행이 지었다.

松堂況有遺文在 송당에 더구나 승통의 유문이 남아 있으니
師道方知卷復舒 대사의 도 굽혔다 다시 펴질 줄 바야흐로 알겠어라

予於祖堂 探得涅槃經論三十餘卷等 先所未行章疏數部 故有此句

내가 조사당에서 『열반경론』 30여 권을 찾아내었는데, 장소 몇 부는 이보다 앞서 유행하지 않았던 바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을 쓴 것이다.

출전: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권1

2) 과천 관학산의 동쪽, 수리산의 서쪽 만안교 앞에 살 집을 마련하다[居卜果川鶴鶴之東 修理之西 萬安橋前]¹⁴

이 시의 저자 이복현李復鉉¹⁵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관료이자 시인이다. 그는 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한 인물이다. 조선 후기 시단詩壇의 명가로 꼽히는 그는 전주 이씨로 인조의 친동생 능원대군(綾原大君, 1598~1656)의 5대손이다. 그의 「석견 노인의 60세 자서전」에 따르면, 꿈속에서 벼루를 보고 연礪을 파자破字하여 석견石見이란 호를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20대 이후 거의 50년 동안 중앙부서의 공직과 능관, 지방관을 두루 역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관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이 시는 그가 65세 때인 1831년 만안교 앞에 새집을 짓고 지은 시이다. 다음 자하 신위의 시(石見於萬安橋草堂 送余設饅頭)에서 보듯이 만안교 앞에 마련한 ‘만안교초당’은 친구들의 교유의 장이었으며, 긴 관직생활 가운데 다소 여유로운 산수를 읊고 있다.

特地開茆宇 돌연 초가집이 생겨나니
看山岸葛巾 산을 바라보려 갈건을 젖히네
徘徊一顧影 서성대며 그림자를 돌아보니
磊落百年身 의기양양한 백년의 몸이로다
雙樹直新路 두 나무는 곧장 새 길에 닿아 있고
數家遠近隣 몇 집은 본래 가까운 이웃이네
靑靑陵上麥 언덕 위의 보리는 푸르고 푸른데
宛宛甕中春 동이 속의 술이 찰랑거리네

3) 석견이 만안교초당에서 나를 보내며 만두를 대접하기에[石見於萬安橋草堂 送余設饅頭]¹⁷

이 시는 석견 이복현이 자하 신위¹⁸를 전별하며 만안교초당에서 만두를 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위는 관악산 북쪽에 살았으며, 이복현의 시집 『석견루시초』에 서문을 쓰기도 할 정도로 교유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이 시는 1832년 11월 초순 경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신위는 10월 26일에 행도승지로 낙점되었다가, 11월 1일 평신진첩사로 제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를 통해 평신진첩사로 떠나는 신위를 위해 이복현이 자신의 만안교초당에서 전별연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신위는 시의 각주에서 제3구와 4구는 박제가의 시구를 인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畫橋森木寄三椽 그림 같은 만안교 울창한 나무에 초가가 기대섰고
 豁達長風俯大川 활달한 장풍은 대천(안양천)을 굽어보는데
 送客山廚更鬧熱 손님 보내며 초당 부엌은 다시 시끌시끌
 饅頭一百大於拳 주먹보다 더 큰 만두 일백 개를 빻었네.

石見倅金陵時，貞蕤有詩曰，鬧熱官廚上客延，饅頭一百大於拳.

수령 석견 이복현이 한양에 있을 때 정유(박제가)가 지은 시에 “관아 부엌 시끌시끌 상객을 맞이하며, 주먹보다 더 큰 만두 일백 개를 빻었네[鬧熱官廚上客延，饅頭一百大於拳].”라고 하였다.

출전: 신위,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 권20

4) 가군을 모시고 삼막사에 올랐는데, 종제(김명희)와 김계량, 함성중¹⁹이 함께하였다. 이때 설암과 나운 두 승려 또한 예기치 않고 왔는데 모두 근일의 명숙들이다[陪家君 上三藐寺 仲弟及金季良·咸聖中偕之 時雪庵·懶雲二釋亦不期而至 皆近日名宿也]²⁰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독창적인 추사체와 금석학 연구로 19세기 전반 ‘완당바람’을 일으킨 인물이다. 본관은 경주, 자는 원춘(元春), 호는 추사(秋史)·완당(阮堂) 등이다. 1809년 생부 김노경을 따라 연행(燕行)을 통해 완원, 옹방강 두 스승으로부터 새로운 고증학을 조선 금석학에 적용하였다. 1819년(순조 19) 문과에 급제한 후 병조 참판, 성균관 대사성 등의 벼슬을 지냈다. 1840년 55세 때 제주로 유배되어 8년 3개월 후 해배되었다가 얼마 후 2차 북청 유배를 다녀온 후 1852년 10월 9일 과천의 과지초당에 도착하여 만 4년간을 살다 71세로 일기를 마쳤다. 저서에 『완당척독(阮堂尺牘)』, 『담연재시고(覃堯齋詩藁)』, 『완당집』이 있고, 이를 한데 모아 엮은 『완당선생전집』이 있다.

이 시는 김정희가 1834~1836년경 아버지를 모시고 삼막사 산행을 한 일을 그리고 있다. 동생 산천(山泉) 김명희(金命喜), 김계량, 함진승 등이 이 산행에 동행했음을 알 수 있다.

招提一宿喜歡緣 산사에 하룻밤 묵으니 흐뭇한 인연이요
 雙袖天風慾界仙 두 소매에 바람이니 옥계의 신선이로다
 靑白蓮交呈氣象 청련 백련 어우러져 자태를 뽐내고
 百千海攝現澄圓 백해 천해 남김없이 맑게 드러나네
 往來方便飛雲屐 방편²¹에 왕래하며 구름신 날리고
 撥轉機鋒淪月泉 기봉²²을 굴리며 달샘에 씻누나
 紅日樓前如鼓大 누각 앞의 붉은 해 북과 같이 크니
 無量壽相是中邊 한량 없는 수상이 바로 여기로다

출전: 김정희, 『완당전집阮堂全集』 권9

5) 경부철도가(경부철도노래)

전근대시기 물자 유통의 고속도로는 배를 이용한 수로와 해로였다. 그러나 전근대 땅길과 물길은 18세기 상품경제의 발달과 함께 근대적 단초를 보여주었다. 20세기 초 물

길은 더 이상 변화를 이어가지 못했고, 땅길에서는 철도가 근대적 변화를 주도하였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화석연료를 사용한 증기기관차의 등장은 경관의 변화와 함께 시공에 대한 인식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제물포 간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근대의 시작을 알렸다. 19세기 말 등장한 증기기관차를 떠받치는 철로는 근대 문명의 레일이라고 하겠다. 1906년 경부철도 ‘용희호(隆熙號)’는 평균 40km의 속력으로 서울과 부산을 11시간 만에 주파하였다. 철도는 이제 근대 문명의 상징이 되었다.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 1908년에 지은 「경부철도가」는 67절로 된 장편 기행체의 창가로, 원제목은 「경부털도노래」이다.

육당 최남선이 경부철도의 개통으로 대표되는 20세기 초반 근대문화의 충격을 수용하여 쓴 것이다. 경부선이 기적을 울리며 출발하는 남대문역에서부터 종착역인 부산까지 연변의 여러 역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그에 곁들여 그 풍물·인정·사실들을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²³ 여기에서 묘사된 안양 부분은 시흥역을 지나며 관악산의 경치와 영랑성터를 언급한 후 “날개 있어 나는 듯 안양 이르러”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남대문역에서 출발하여 수원역까지 1~9절만 수록하였다.

경부철도가[경부털도노래]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 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 /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늪은이와 쭉은이 섞여 앉았고 / 우리 내외 외국인 같이 났으나
내외친소 다같이 익혀 지내니 / 조그마한 탄 세상 절로 이뤘네

관왕묘²⁴와 연화봉²⁵ 둘러보는 중 / 어느 덧에 용산역 다다랐도다
새로 이룬 저자는 모두 일본 집 / 이천여 명 일인이 여기 산다네²⁶

서관(西關)가는 경의선 예서 갈려서 / 일산 수색 지나서 내려간다오
옆에 보는 푸른 물 용산나루니 / 경상 강원 옷물배 띄는 곳일세

독서당讀書堂의 폐廢한 터²⁷ 조상하면서 / 강에 빗긴 쇠다리²⁸ 건너나오니
노량진역 지나서 계서부터는 / 한성漢城 지경地境 다하고 과천땅이다

호호양양 흐르는 한강물소리 / 아직까지 귀속에 쳐져있거늘
어느 틈에 영등포 이르러서는 / 인천차와 부산차²⁹ 서로 갈리네

예서부터 인천이 오십여 리니 / 오류 소사 부평역 지나간다네
이 마음에 틈을 타 다시 갈 차로 / 이번에는 직로로 부산 가려네

관악산의 개인³⁰ 경 우러러보고 / 영랑성³¹의 묵은 터 바라보면서
잠시동안 시흥역 거쳐 가지고 / 날개 있어 나는 듯 안양 이르러³²

실과 같은 안양내 옆에 끼고서 / 다다르니 수원역 여기로구나
이전에는 유수도留守道 지금 관찰부觀察府 / 경기도의 관찰사 있는 곳이라
(이하 생략)

3. 산문

1) 금주 안양사탑 중신기衿州安養寺塔重新記

이승인李崇仁³³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것은 한漢의 축법란竺法蘭³⁴으로부터 시작되어 드디어 온 천하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우리 동방에는 아도阿道³⁵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실로 신라 때이다. 불교는 그 설이 장대하며 성대하고 또 화복禍福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모두 불교에 귀의하였다. 비록 영명英明한 임금과 충의忠義한 신하라도 왕왕 사찰을 크게 건립하여 불교를 확대하였다. 이는 국가를 위해서 복리福利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또한 군자君子의 마음 씀이 후한 것이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개국한 초기에 불자佛者 중에 부처가 돕는다는 설로써 간여하는 자

가 있었는데 그의 말을 자못 채용하여 탑묘(塔廟)를 많이 세웠다. 지금 금주(衿州) 안양사(安養寺)의 탑(塔)과 같은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자은종사(慈恩宗師) 양가도승통(兩街都僧統) 임공(林公)이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안양사의 탑은 성조(聖祖, 태조)께서 옛적에 세운 것으로 이미 무너졌었는데 문하시중(門下侍中)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 최공(崔公, 최영)이 지금의 주지(住持)인 대사(大師) 혜겸(惠謙)과 더불어 중수하여 새롭게 하였습니다. 혜겸은 저의 문도(門徒)인데 저를 통하여 선생에게 기문(記文)을 구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혜겸이 말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튿날 혜겸이 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제가 이 절에 주지가 된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절의 역사를 살펴보니 옛적에 태조께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 자를 정벌하려 할 적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산꼭대기에 오색구름이 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과연 늙은 중이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중의 이름은 능정(能正)이었는데, 더불어 말해 보니 뜻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 절을 건립하게 된 연유입니다. 절의 남쪽에 탑이 있는데 벽돌을 포개 7층으로 쌓고 기와로 덮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의 1층에는 회랑(廻廊) 12칸을 빙 둘러는데 벽마다 부처와 보살, 사람과 하늘의 상을 그렸고, 밖에는 난간을 세워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은 다른 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노출되어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이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슬프게 여겨 진실로 다시 세우고자 한 것이 오래였으나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신유년(1381, 우왕 7) 가을 7월에 시중(侍中) 최공을 뵈고 이 일을 고하였더니, 공이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 한번은 일찍이 탑 아래에서 유숙하면서 성조께서 처음으로 이 절을 경영하여 지은 일을 우러러 생각하고 나 스스로 맹세하기를, 「신이 후일 진실로 영달하고도 이 탑을 새로 세우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신령이 내려다보실 것이다」 하였다. 이제 지위가 관료들의 위에 있으니 영달했다고 할 수 있겠다. 내 마땅히 나의 맹서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즉시 양광도안렴사(楊廣道按廉使)에게 이첩(移牒)하여 군조(軍租)를 감액하여 그 경비를 제공하고 장정들을 징집하여 그 공역을 맡겼습니다. 저도 저의 재산을 다 내고 시주의 희사를 모아 쌀·콩·돈·베 약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놓고 있는 자 약간을 청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날은 이 해 8월 모일이고, 완성한 날은 9월 모일이고, 낙성한 날은 10월 겨울 모일입니다. 이날 전하께서 내시 박원계(朴元桂)를 보내어 향(香)을 내리고 승려 1천 명으로써 성대하게 불사(佛事)를 거행하여 사리 12개와 불아(佛牙) 1개를 탑 속에 안치하였

는데, 시주한 사부대중이 무려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거기에 단청을 그린 것은 임술년(1382, 우왕 8) 봄 3월이고, 거기에 상을 그린 것은 계해년(1383, 우왕 9) 가을 8월이었습니다. 탑 안의 사방 벽에는, 동에는 약사회藥師會, 남에는 석가열반회釋迦涅槃會, 서에는 미타극락회彌陀極樂會, 북에는 금경신중회金經神衆會의 상像을 그렸고, 회랑 12칸에는 벽마다 상 하나씩을 그렸는데, 이른바 십이행년불十二行年佛이란 것입니다. 무릇 장정 400명 남짓, 쌀 595석, 콩 200석, 베 1155필이 소용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큰 공역이었는데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시중 최공의 서원誓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공은 오직 국가의 복리를 구한 것일 뿐입니다. 어찌 사사로이 일신만을 위하여졌습니까. 이러한 훌륭한 일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기를 도모하려면 문사文辭에 의탁하지 않고는 방도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기술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나는 아직 불교에 들어가 볼 틈이 없었던 자이니, 어찌 감히 말할 것이 있겠는가. 비록 그러나 나는 역사의 기록을 맡은 관원인지라 무릇 새로 지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적는 것이 직분이다. 더구나 이 탑에서 성조와 현상賢相의 마음 씀이 후함을 볼 수 있는 데 있어서이겠는가. 이를 적을 따름이다.

출전: 『도은선생문집陶隱先生文集』 권4

2) 관악사 고동로 발冠岳寺古銅鑪跋

조경趙綱³⁶

병진년(1616, 광해군 8) 여름에 대루자大樓子가 관악산의 불성사佛聖寺에 잠시 머물렀으니, 절의 승려인 대승사大乘師를 알았고 대승사가 내가 기이하고 고풍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루는 나를 인도하여 불전佛殿에 들어가 절 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뒤져서 물건 하나를 찾았는데, 그 용도는 불전佛前의 향로이다. 그 길이는 약 몇 척尺인데 중간 윗부분은 모양이 요고腰鼓³⁷와 같고, 그 둘레는 약 몇 위圍인데 둘러싸서 그 꼭대기가 솔의 귀와 같고, 귀 위에 볼록하게 1촌寸의 동銅으로 또 둘러싸서 세워 놓았으니 바로 향로의 입이고, 그 안은 겨우 재 1두斗가 들어간다. 중간 아랫부분은 윗부분의 밑바닥을 받들고 아랫부분의 시작이 되는데, 그 교차하는 지점에 삼굴술三屈術³⁸로 점점 줄었는데 차이병鷗夷柄³⁹과 같은 모양이 1지咫 1촌寸이었다. 받침대는 그 끝에 둘러싸서 굽

했는데 모양은 얹어놓은 동이와 같고 그 둘레는 위의 귀에 비해서 조금 좁기 때문에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었다. 대체로 그 모양이 이와 같다.

그 문자와 그 바탕은 요고 부분에 네 글자의 범자^{梵字}를 새겼는데 모두 은을 사용하여 메웠다. 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은으로써 둘러싸 새긴 것이 두 겹이고, 또 두 글자가 맞닿지 않는 곳에는 구름을 새기면서 역시 은을 사용하였다. 삼굴술 부분에는 구름을 새기기도 하고 연잎을 새기기도 하여 차이병과 같은 부분까지 이르렀고, 그 끝부분에 또 용사^{龍蛇}와 같은 모양을 더 새겨서 얹어놓은 동이와 같은 위에 이르기까지 구불구불 서려 있는데 모두 은을 사용하였으니, 매우 공교로움을 볼 수 있다.

또 얹어놓은 동이 부분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새겨 놓은 글자는 향로를 주조할 때 공을 쏟은 사람의 이름과 지위와 성이니, 그 자획이 또렷하여 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 사람이 오늘날처럼 후세에 알려진 인물인지 알지 못하겠으니, 이 향로가 오래된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다.

이에 대승사에게 묻기를, “아! 이 향로여. 어느 시대에 주조되었으며 어떤 사람이 전하였으며 이곳에 있는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백 년이 되지 않았다면 필시 한 세대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니, 대승사가 대답하기를, “어찌 백 년뿐이겠습니까” 하고, 향로 밑바닥에 새겨진 연대를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고려의 지정^{至正} 연간이었다. 아, 매우 기이한 일이다.

후세에 전하여진 물건으로 이 향로보다 오래된 것이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그러나 모두 나라에서 보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거워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람들에게 무용하였기 때문이니, 종고^{鍾鼓}·대려^{大呂}·규벽^{奎璧}⁴⁰과 같은 것이 바로 보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만 명이 끌어야 하는 구정^{九鼎}⁴¹ 같은 것과 단단히 하나의 돌이 된 석고^{石鼓}⁴²와 같은 것이 바로 무거운 데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향로는 그렇지 않으니, 보배로는 국보가 되지 못하고 무겁기로는 구정만 같지 못하고 단단하기로는 석고만 같지 못하다. 그 무게는 한 사람이 들 수 있고 크기는 전대 하나에 넣을 수 있으며 동^銅은 깨뜨려 재물을 삼을 수 있고 그 금은 취하여 이익을 삼을 수 있다.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몇 년이나 있었는데 도적의 재물이 되지도 않고 불에 타 없어지지도 않고 완전히 마치 어제 주조한 것과 같으니, 그 누가 전하였으며 그 누가 지킨 것인가. 더구나 지난 임진년(1592, 선조 25)에 왜구가 독기를 품어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쳐 우리의 집을 불 지르고 우리의 보물을 파내어 갔는데, 사찰^{寺刹}과 가람^{伽藍} 또한 이러한 화를 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용상^{龍像}의 금과 탑묘^{塔廟}의 소장품과 단청^{丹青}

의 장식을 칼로 깎아내고 손톱으로 움켜내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오직 이 향로만은 빠뜨려 두었던 말인가. 아니면 부도(浮屠)가 죽음으로 보전한 것이 소내한(蘇內翰)이 이른바 오직 보살판(菩薩版)에서 가려낸 것과 같은 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승사가 바로 그 사람인가.

대승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 향로는 본래 이 절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이를 판 한 촌부(村夫)가 있어서 드디어 절의 승려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더욱더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절에서 항상 소장한 것도 아니고 승도(僧徒)가 항상 소유한 것도 아니고 촌부에게 갔으니, 그렇다면 그 전하여 지키면서 애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야흐로 촌부가 이를 얻으매 절에서 흠치지 않았으니 길에서 우연히 얻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흠쳤다면 어찌 그 금을 이롭게 여기고 그 동에 욕심내어 때려 부수어서 그 자취를 없애지 않았을 줄 보장하겠으며, 만일 길에서 우연히 얻었다면 또 어찌 그 금을 이롭게 여기고 그 동을 욕심내어 때려 부수어서 그 용도에 맞추어 만들지 않았을 줄 보장하겠습니까. 가령 이 두 가지 우환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촌부가 대장장이에게 팔지도 않고 이익을 노리는 자에게 팔지도 않고 도읍의 골동을 좋아하는 부자들에게 팔지도 않고 곧 깊은 산속 자취가 끊긴 인간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찰에 팔았으니, 이는 누가 시킨 것입니까. 혹 귀신이 가호하여 이 향로를 보전하고 또 촌부의 마음을 일깨워 이 향로가 있어서는 안 될 곳을 멀리하여 있을 만한 곳에 되돌려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아! 200년 전에 향로가 만들어져서 명산의 한 사찰에 소장되는 데 불과하지만 산의 능곡(陵谷)의 변천과 사찰의 흥폐(興廢)와 존망(存亡)이 200년 동안 몇 차례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향로만이 홀로 이를 벗어났으니 첫 번째 다행이고, 임진년에 왜구가 불 지르고 찾아 내어감을 면하였으니 두 번째 다행이고, 대장장이에게 부서지거나 이익을 노리는 자의 소유가 되지 않았으니 세 번째 다행이고, 촌부로 하여금 이 절을 찾아내어 마침내 마땅한 곳을 얻게 하였으니 네 번째 다행이다. 다행함은 한 번만으로도 확고하니 어찌 두 번을 기필하겠으며, 다행히 두 번에 이르더라도 어찌 세 번 네 번에 이름을 기필하겠는가. 기이할 따름이다. 내가 듣건대, 부도는 환술을 잘 부린다고 한다. 이 또한 부도의 물건이니, 내가 알 수 없을 뿐이다.

만력(萬曆) 병진년(1616, 광해군 8) 여름 5월에 대루산인(大樓山人)은 발문을 쓰다.

출전: 『용주유고(龍洲遺稿)』 권12

3) 과천 호계농장 잡기果川虎溪農庄雜記

조속趙洙⁴³

증조고 전한典翰⁴⁴은 증종 때에 집의執義로서 사간司諫 야천冶川 박소朴紹⁴⁵와 함께 김안로金安老가 다시 출사하는 것을 힘껏 막다가 도리어 공격을 받아 박공은 영남의 합천陝川으로 돌아가고, 조고는 과천 호계虎溪의 별장으로 돌아간 다음, 작은 집을 짓고 그 집을 ‘독암獨庵’이라 편액하고는 세상일을 잊고 술과 시로 스스로 즐기면서 파기된 채 일생을 마쳤다. 지금 『독암집』 1첩帖이 세상에 간행되었는데, 호계의 일을 읊조린 것이 매우 상세하다.

집은 과천의 관문官門에서 15, 16리 떨어진 서면西面 호계리에 있는데, 동남쪽으로는 청계산淸溪山을 바라보고 앞쪽으로는 큰길에 임해 있다. 독암정獨庵亭은 집 뒤의 작은 언덕에 있는데, 언덕 위에서는 서쪽으로는 안양평安養坪과 금천衿川의 경계를 바라보고, 서남쪽으로는 수리산修理山·명악암明岳巖·장항項 등지를 바라보며, 안쪽에는 조고 이정李正의 분산墳山이 있고, 또 몇 섬지기의 논밭이 있으나 자손이 경외京外에 흩어져 살아서 대대로 그곳에 거처하지 못하였다.

경술년(1610, 광해군 2)에 수원水原의 남종으로 하여금 김신창金新昌의 여종 덕이德伊와 남종 돌복扈 등을 구해 들이고 초막을 짓터 동편으로 언덕 두 개 너머 조금 깊은 곳에 지어 옛터를 수호하게 하였다. 그러나 임자년(1612, 광해군 4) 이후로 우리 집은 더욱 생계에 뜻이 없어서 착실하게 수호할 수 없었다. 삼촌 숙모 정랑택正郎宅의 사위 김무주金茂朱가 서울로부터 이곳에 와서 6, 7년 살다가 을묘년(1615, 광해군 7) 봄에 죽산竹山으로 이주한 뒤로는 다만 늙은 여종 경비敬非와 남종 애손愛孫, 그리고 덕이와 돌복 등으로 하여금 나란히 초막을 지어 엄연히 촌락을 이루게 하였다.

내가 갑술년(1634, 인조 12) 가을 임피臨陂로 부임할 때에 들렀더니 이면천李沔川 어른이 본가로부터 병을 피하여 덕이의 집으로 와서 우거하다가 그 곁에 그대로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와 더불어 안온히 대화하고 이어 걸어서 뒤 언덕에 올라가 옛터를 두루 살펴보았다.

이번 행차에 내려오니 때는 신묘년(1651, 효종 2)으로 천안天安에 부임할 때이다. 또 유숙하면서 옛터를 우러러 배알하였다. 가정嘉靖 경인년(1530, 중종 25)은 지금까지 갑자甲子가 두 번 돌았는데 집터와 정자 터는 완연히 그대로 있다. 그러나 밤나무 언덕과 수련 연

뭇은 모두 이웃 사람이 땔나무 하고 나물 캐는 곳이 되었고, 정자 터의 왼쪽 기슭은 민참사閔僉事가 장사 지낸 곳이 되었고, 노비가 살던 곳은 이 면천의 마을이 되었고, 돌북과 덜쇠[鋸金]는 비록 옛 거처를 떠나지는 않았으나 이 면천 집의 협호夾戶⁴⁶처럼 되었다. 백년의 선조 사업은 자손이 왕래하며 바라보고 사모하는 곳인데 지금에 이르러 황폐하게 되고 말았으니, 불초의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신묘년(1651) 봄에 환성(歡城, 天安)의 여관에서 써서 아이들에게 보이다.

출전: 『창강선생집滄江先生集』 권1

4) 관악산을 유람한 일에 대한 기문[遊冠岳山記]

채제공 蔡濟恭

내 일찍이 듣건대, 미수眉叟⁴⁷ 허 선생許先生이 83세에 관악산 연주대戀主臺에 올랐는데 걸음이 나는 듯하여 사람들이 신선처럼 우러러보았다고 한다. 관악산은 경기의 신령한 산이며 선현先賢이 일찍이 노닐던 곳이다. 한번 그 위에 올라서 마음과 눈을 장대하게 하고 선현의 큰 덕행을 흠모하는 마음⁴⁸을 붙이고자 하여 마음속에 잊지 않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나 세속 일에 얽매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병오년(1786, 정조 10) 봄에 노량露梁의 강가에 우거하였는데, 관악산의 푸른 모습이 거의 조망에 들어오는 듯하여 마음이 춤추듯 움직여 막을 길이 없었다.

4월 13일 남쪽 이웃 이광국李廣國 숙현叔賢과 약속하여 말을 타고 출발하였는데, 따르는 아이들 또한 4, 5인이었다. 10여 리쯤 가서 자하동紫霞洞에 들어가서 한 칸 정자 위에서 쉬었으니, 정자는 곧 신씨申氏의 별장이다. 산골짜기에서 시냇물이 흘러오는데 숲과 나무들이 덮고 있어서 아득히 그 근원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물이 정자 아래 이르러 돌과 마주쳐 나는 것은 물거품이 되고 고인 것은 푸른 소韶를 이루었다가 마침내 출렁거리며 흘러 나가서 동구를 감싸 돌아 멀리 가니 마치 명주를 펼쳐 놓은 듯하였다. 언덕 위에는 진달래가 한창 피어서 바람이 불면 그윽한 향기가 때로 물을 건너 풍겨 왔으니, 채 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상쾌하게 먼 산의 정취가 느껴졌다. 정자를 경유하여 또 10여 리를 가니, 길이 험준하여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부터 타고 왔던 말과 마부를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칩녕쿨을 뚫고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사람이 헤매어 절이 있는 곳을 잃어버렸다. 동서를 분별할 수

없고 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길에는 나무꾼이 없어 물어볼 수도 없으니, 따르는 자들이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홀연히 보니 숙현이 나는 듯 빠른 걸음으로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에 올라가 좌우를 바라보더니 잠깐 사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괴이하게 여기는 한편 나무라기도 하였다. 조금 있다가 보니, 흰 장삼을 입은 4, 5명이 어디서 부터인지 빠르게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따라온 자들이 모두 환호하며 말하기를, “중이 온다” 하였다. 아마도 숙현이 멀리 가서 절을 찾아내고는 먼저 몸소 가서 우리 일행이 여기 있다는 것을 승도에게 알린 것 같았다. 이에 승려의 인도를 받아 대략 4, 5리쯤 가서 절에 당도하였는데, 절의 이름은 불성사佛性寺였다. 이 절은 삼면이 산봉우리로 둘러 있는데 앞면만 막힘이 없이 훤히 트여 있었다. 문을 열어 놓으면 앉으나 누우나 천 리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해 뜨기 전에 아침밥을 재촉해 먹고 이른바 연주대라는 곳을 찾아가기로 하여 건장한 중 약간 명을 선별해서 좌우에서 인도하게 하였다. 중이 나에게 말하기를, “연주대는 이곳에서 10여 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길이 몹시 험하여 나무꾼이나 중들도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력이 감당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천하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 뿐이다. 마음은 장수이고 기는 졸도이니, 장수가 간다면 졸도가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마침내 절 뒤의 매우 높은 산꼭대기를 넘어가며 길이 끊어지기도 하고 벼랑이 매달려 있는 듯한 곳도 만났는데, 그 아래가 천 길이나 되었다. 몸을 돌려 석벽에 붙이고 손으로 번갈아 늙은 나무의 뾰뾰한 뿌리를 잡고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현기증이 날까 두려워서 감히 밑을 내려다보지도 못했다. 혹 산등성이를 완전히 막고 있는 큰 돌을 만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면 그다지 날카롭지 않은 속이 파인 바위를 골라 엉덩이를 붙이고 양손으로 바위 양쪽을 짚고 버티면서 느릿느릿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바지가 걸려 찢겼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몇 차례나 한 뒤에야 비로소 연주대 아래에 도착하였는데, 해는 벌써 정오였다.

고개를 들어 우리보다 먼저 연주대에 올라와 노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만 길이나 되는 정상에 서 있었다. 그들이 몸을 굽혀 아래를 굽어보는 것이 흔들흔들하여 마치 떨어질 것 같았다. 바라보니 모발이 모두 송연하여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따라온 자로 하여금 큰 목소리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라고 외치게 하였다. 나 또한 심력을 다하여 곱사등이처럼 등을 구부리고 기어올라 마침내 연주대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 평평하게 펼쳐진 바위가 있는데 수십 명이 앉을 만하였는데, 그 바위의 이름이 차일암遮日巖이었다. 옛

적에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왕위를 회피하여 관악산에 와서 거주할 때, 이따금 이 연주대에 올라 대궐을 바라보았는데 햇볕이 뜨거워 오래 머무르기 어려웠으므로 작은 장막을 치고 앉았다. 바위 모퉁이에 꽤 오목하게 파 놓은 구멍 4개가 있는데 아마 장막을 고정시키는 기둥을 세웠던 곳 같다. 그 구멍이 지금까지 완연히 남아 있다. 이 대를 연주대라고 하고 이 바위를 차일암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연주대는 구름과 하늘 사이에 높이 솟아 있는데, 내 몸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천하의 만물이 감히 이와 더불어 높음을 견줄 수 없고 사방에 보이는 산봉우리들은 녹록하여 비교할 것도 없었다. 오직 서쪽 편에 쌓인 기운만은 한없이 높고 아득하여 하늘과 바다가 서로 이어져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보면 바다이고 바다라고 보면 하늘이었으니, 하늘과 바다를 누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한양의 성과 궁궐이 밥상을 대한 듯 한눈에 들어왔는데 한 무더기 소나무와 회나무가 빙 둘러 뻗뻗하게 늘어서 있는 것이 오래된 경복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녕대군이 서성이고 돌아보며 그리워했던 일은 비록 백대의 뒤이지만 그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내가 돌에 기대어 낭랑히 읊기를, “산에는 개암나무가 있고 습지에는 감초가 있네.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서방의 미인이로다. 저 미인이여! 서방의 미인이로다[山有榛 隰有苓 云誰之思 西方美人 彼美人兮 西方之人兮]”⁴⁹ 하니, 숙현이 말하기를, “그 노랫소리에 생각이 있습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임금을 연모하는 것은 사람의 떳떳한 본성이니, 진실로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내 나이 67세이니, 미옹(眉翁, 허목)의 그 당시 연세에 비하면 16세나 적은데 미옹은 걸음걸이가 나는 듯했고 나는 힘이 다하고 숨이 차서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습니다. 도학과 문장이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같지 않은 것은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으나 근력이 옛사람만 못한 것은 어찌 이처럼 현격하단 말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도움을 힘입어 내가 만약 83세에 이른다면 비록 들것에 실려서라도 반드시 거둬 이 연주대에 올라 고인의 발자취를 이을 것이니, 그대는 이를 기억해 두십시오” 하니, 숙현이 말하기를, “그때 저도 따라오겠습니다” 하였다. 숙현의 나이 65세였으므로 함께 크게 웃고 말았다. 이날 불성암佛性菴으로 돌아와 유숙하고 그 이튿날 노량의 우거寓居로 돌아왔다.

유람에 따라간 자는 이숙현 및 생질 이유상李儒尙, 족제族弟 서공絞恭, 아들 홍원弘遠, 종질 홍진弘進, 척손戚孫 이관기李寬基, 하인 김상겸金相謙이다.

출전: 『번암집樊巖集』 권35

5) 관양음사육란첩 서문冠陽吟社浴蘭帖序



관양음사육란첩(복사본)

관양음사육란첩 2중



관양음사육란첩 서문 첫 면

관양음사육란첩 서문 2면

이 자료는 비산3동의 세거 가문인 전주류씨의 소장본⁵⁰으로, 일제강점기 전통적인 식자층들의 시회詩會를 살필 수 있다. 『관양음사육란첩冠陽吟社浴蘭帖』은 1925년 간행된 25장으로 된 시회 시집으로, 철필등사본이다. 시집은 정만조의 서문에 이어 회원록 명단 그리고 시 본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5년 4월 30일에 서문을 쓴 무정茂亨 정만조(鄭萬朝, 1858~1936)는 관양冠陽, 즉 관악산 남쪽 동네와의 인연을 강조하였다. 회원은 40여 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보면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12명·일동리 5명·비산리 4명·이동리 3명, 과천면 하리 1명·초계리 1명, 남면 산본리 3명·당리 4명·부곡리 1명, 수원군 의왕면 오전리 3명·왕곡리 1명·학의리 3명·포일리 1명·내손리 1명이다. 회원의 생년은 1849년(을유생, 77세)에서 1886년(병술생, 40세)이다. 거주분포는 현재의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

을 포괄하여 당시 시흥군 서이면 지역이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회원의 생년은 40세부터 77세까지로 40여 년의 연배 차이를 망라되어 있다. 회원 중에는 하리下里, 즉 오늘날 남태령 아래에 위치한 한내[寒溪]에 살았던 우산愚山 신종묵(愼宗默, 1856~1949)⁵¹도 포함되어 있다. 이어 시집은 절구絶句의 시를 수록한 후 작자를 호로 기록하였다. 이 시회시집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冠陽吟社序

結社之名倡于陶令公之白蓮 而白文公於香山 亦用其例古之人 莫不有朋友 亦必有結社矣. 而獨二社之見稱何也. 以人不以社也. 陶公值國類運賦歸田廬 亦無所寄懷乃投跡於白蓮也. 白公名位俱高 而脫身朋黨 退居于香山 爲社而托其意 皆未必斷斷於結社也.

靑冠之南 山水之勝處 而距京師不遠嚮也. 宦于京者罷則輒歸故 士大夫第宅園林相望焉. 自滄桑後 闕闕家化爲漁樵株守崗陂 矢志自靖 而時以往來 徵逐譚藝賦詩 以宣壹鬱不平之氣 遂結一社以冠陽命名追陶白二公故事 而是社又有多焉. 古之二社人不滿十而今則不翅倍蓰矣. 古之社皆龍鍾老朽放浪詩酒 或方外禪衲之徒 而今則 皆古家世族讀書劬行之士 賴二公而傳 今則人皆可以爲陶爲白⁵² 豈古二社之所及者哉.

余亦冠陽人有先墓焉, 有丙舍焉. 汨沒風塵老而 不能去視社中人 若壤蟲之望黃鵠而幸諸公 謂余有文字性則同囑之序社事 余歎諸公之爲是 社也. 豈斷斷於社事者 又何足張皇乎. 爲序也. 姑寥寥數語書之社券 一爲附尾之榮 一爲同鄉同志之證云爾.

乙巳端陽前五日 茂亭鄭萬朝

관양음사 서문

결사結社의 이름은 도령공(陶令公, 도연명, 365~427)의 백련白蓮에서 비롯되었고, 백문공(白文公, 백거이, 772~846)이 향산香山에서 또한 옛사람의 예를 따라 써서 붕우朋友가 없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결사(結社, 시회)가 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시사詩社가 칭송받고 다른 이의 시회는 그렇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도공陶公은 국가의 명운이 무너지는 때를 당하여 전원으로 돌아간다는 시[歸去來辭]를 짓고, 또한 소회를 쓸 데가 없어서 이에 백련결사白蓮結社⁵³에 적극 참여하였다. 백공白公은 명성과 지위가 높았으나 봉당朋黨을 떠나 향산香산에 물러나 살며 결사를 위해 그 뜻을 받들어 도 반드시 결사에 확고하지는 않았다.

청관(靑冠, 청계산과 관악산)의 남쪽은 경치 좋은 곳[勝景]이고,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서울에서 관직에 있던 자가 파罷하면 곧 귀향하므로 사대부의 제택第宅과 원림園林이

서로 마주 본다. 창상(滄桑, 덧없이 변천하는 세태)으로 인하여 별열가(閼閼家)가 어초(漁樵, 어부와 나무꾼)가 되어 강피(崗陴, 언덕 전원)의 그루터기를 지키며 뜻을 잃고 스스로 편안하고 고요하게 된다. 오갈 때 서로 부르고 따르며 문예를 이야기하고 시를 지어 울적한 심회를 풀고자, 드디어 결사를 만들어 도연명과 백거이 두 사람의 고사(故事)를 따라 ‘관양(冠陽)’이라 이름 짓고, 이 시사(詩社)를 자주 열었다. 옛날에 두 결사는 열 명을 넘지 않았으나 지금은 몇 배나 더 많고, 옛날의 결사는 늙고 병들어 시주(詩酒)로 방랑하고 혹 방외(方外)의 선승(禪僧)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고가세족(古家世族)으로 독서에 힘쓰는 선비들이 두 공(公, 도연명과 백거이)을 의지하고 현재를 스승 삼으면 모두가 도공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어찌 옛 두 시사에 미치지 못하겠는가?

나 또한 관양인(冠陽人)으로 (여기에) 선묘(先墓)가 있고, 병사(丙舍, 산소 곁 齋室)가 있다. 세상에 사에 골몰하여 빠져 늙었으나 시사(詩社) 사람을 마치 벌레(壤蟲)가 고니(黃鵠)를 바라보듯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다행히 여러 사람들이 내가 글 짓는 재주가 있으므로⁵⁴ 함께 시사의 서문 짓는 일을 부탁하였다. 내가 여러분이 이 시사를 만든 것을 감탄하니, 어찌 시사의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 장황하게 떠벌릴 필요가 있겠는가? 서문을 지음에 임시로 몇 마디 말을 시사책에 썼으니, 말미에 붙이는 영광이 하나요, 고향 동지라는 증거가 그 하나이다.

을사년(1905) 단오(端午) 전 5일, 무정 정만조

註

- 1 원문/번역문은 「중초사 당간석주기(中初寺 幢竿石柱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 2 안양사칠층전탑과 안양사지에 대해서는 김지석, 「안양사 칠층전탑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엄기표, 「안양 중초사지와 안양사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26, 동악미술사학회, 2019;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36, 2021, 81쪽; 임동민, 「석수동 214번지의 역사,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중초사지 당간지주, 안양사지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149, 한국사학회, 2023, 10~48쪽 참조.
- 3 이 부분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2 방편품(方便品)의 일부로, 부처가 사리불(舍利弗)에게 언급한 것이다. “사리불이여! 내가 성불한 이래로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種種譬喻)로 널리 연설(演說)하여 가르침을 펼치고(宣敎) (이와 같은) 무수한 방편(無數方便)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온갖 탐착에서 벗어나게 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고 하면 여래는 방편(波羅蜜)과 지견(知見)을 모두 다 이미 구족하였기 때문이니라.” (계환(戒環) 요해(要解))
- 4 허흥식 외, 『한국고서전문』, 중세 상, 아세아문화사, 1984.
- 5 이원부(李元符)는 고려 인종(仁宗) 때의 서예가로, 가문이나 성장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다. 구양순의 서체를 따르던 시류에 구애받지 않고, 우세남(虞世南)의 서체를 따랐고 해서(楷書)에 능하여 당대에 명필로 꼽혔다. 「안양사 칠층탑비」 이외에 가야산 반야사의 「원경왕사비」가 전한다.
- 6 서용보(1757~1824)의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여중(汝中), 호는 심재(心齋),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1774년(영조 50) 생원시에 합격, 이해(李海) 중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예조와 이조의 판서, 삼정승을 지냈으며 정조와 정순(正宣)후의 신임이 두터웠다.

- 7 이지원,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과 삼성산 삼막사 삼귀자 석각」, 『경기학광장』 11, 경기문화재단, 2021, 84~90쪽.
- 8 보강답두는 도교 용어로, 도사가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낼 때 두속과강(宥獸烹)의 상(象)이나 구궁팔괘도(九宮八卦圖)에 따라 땅을 걸으며 신령과 성두(聖斗)를 소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복과 역막이 등의 역할을 하는데, 이 동작을 흔히 '우보'라 한다. 강(罡)은 북두칠성의 손잡이를, 두(斗)는 북두칠성을 가리킨다. 이 보강답두는 고대 대우(大禹)가 창안했다고 하는데,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이 특별한 걸음걸이로 하늘과 땅의 신을 소통하고 힘을 얻었다 한다.
- 9 삼귀자 오른쪽 거북 도상의 보이는 점은 4개로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4점이 지적된 바 있다(이지원,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과 삼성산 삼막사 삼귀자 석각」, 『경기학광장』, 경기문화재단, 2021, 87쪽 참조).
- 10 「안양 석수동에 수영장을 신설」, 『동아일보』 1932년 7월 21일.
- 11 임시정(1880~1969)의 '안양풀장역'으로 당시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 680~83번지(현 만안로 354 일대, 경남아너스빌 106동 일)로 운영기간은 1935년 8월 11일부터 1969년 8월 17일까지였으며, 8~9월 중에만 운영되다 폐역되었다. 폐역 이후 1974년 경부선 서울~수원 구간에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역 부지 인근에 관악역이 들어섰다. 그 이전에는 시흥역(현 권선구청역)과 안양역 사이에 다른 역은 없었다.
- 12 이수우, 「일본인 도지사의 휘호로 새겨진 '안양풀장安養 풀' 바위글씨(1932년)」, 민족문제연구소(<http://www.minjok.or.kr>), 2024.4.24; 김해진, 「빛바랜 바위에 일본어 …… 아무도 모르게 누워 있었다」, 『안전일보』 2025년 2월 27일.
- 13 이 시를 지은 의천(義天, 1055~1101)은 천태종을 개창한 고려의 고승이다. 이름은 후휴, 호는 우세(祐世), 시호는 대각국사(大覺國師)이다. 아버지는 고려 문종이며, 어머니는 인예왕후 이씨이다. 저서로는 『신편제종교장종목新編諸宗教藏總錄』, 『대각국사문집』, 『석원사람釋苑詞林』 등이 있다.
- 14 과천 ~ 마련하다: 이복현이 65세 때인 1831년(순조 31)에 경기도 과천과 안양 사이에 새집을 짓고 지은 시이다. 현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으로 추정된다. 관학산(鶴鶴山)은 광명시에 있는 구름산과 수리산 사이에 있는 가학산을 가리키는 듯하다. 만안교는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돌다리로, 정조가 1795년(정조 19)에 현릉원(顯陵園)을 참배하기 위해 건립하였다(이복현 저음, 조창록·이성민·김채식·이상아 옮김, 『석견루시초石見樓詩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295쪽 각주 59 참조). 그러나 관학(鶴鶴)은 일반적으로 두루미·학·황새 등으로 번역되는데, 관학산은 광명시 가학산이 아니라, 비슷한 음차를 활용하여 관악산(冠岳山)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15 이복현은 문신, 시인. 본관은 전주, 자는 건심(健心), 호는 석견루(石見樓)이다. 1786년 참봉을 시작으로 비인현감·고성군수·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시를 많이 남겼고, 담박하고 탈속적인 시풍으로 이만수(李晩秀)·서영보(徐榮輔)·신위(申緯)·김조순(金祖淳)·김정희(金正禧) 등 당시의 문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복현의 시는 성당(盛唐)의 시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개성이 뚜렷하고 독창성이 있으며, 한문(韓文) 담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불교적 취향을 드러낸 것이 많아 사상적 배경을 읽을 수 있다. 저서로는 『석견루시초石見樓詩鈔』가 있으며, 시·산문 360편이 수록되어 있다.
- 16 안대희, 『석견루 이복현의 시 세계』, 『석견루시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해제 1~30쪽 참조.
- 17 신위의 문집은 연대순으로 잘 편집되어 있는데, 시집의 편차로 보아 1832년 11월 초순경에 지은 것이다.
- 18 신위(1769~1845)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한수(漢叟), 호는 자하(紫霞)·경수당(馨修堂)이다. 시서화(詩書畵)에 두루 뛰어나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저자와 절친하여 함께 문학과 예술에 대하여 토론하기도 하였다. 강화 유수를 지내다 탄핵을 당하여 물러나 시흥 자하산에 은거하였고, 뒤에 도승지, 이조참판, 병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경수당전고馨修堂全藁』, 『본여록(本於錄)』, 『신자하시집(申紫霞詩集)』이 있다.
- 19 함진승(咸鎭嵩, 1773~?)의 자는 성중(聖中), 호는 판항(盤香), 양근사람, 여항인으로 『금강유기(金剛遊記)』를 지었다. 함성중에 대해서는 김정희, 「패수의 배 안에서 판항의 선면에 제하다(泝水舟中題盤香扇面)」, 『완당선생전집』 권10: 「함성중에 주다(與咸聖中)」, 『완당선생전집』 권4: 강민형, 「19세기 여항인의 금강산유기 연구-함진승의 『금강유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84집, 한국한문학회, 2022 참조.
- 20 이 시와 관련하여 생부 김도경의 시가 그의 문집인 『유당유고(酉堂遺稿)』 권1, 61ab면에 수록되어 있다. 시집의 편차로 보아, 1834~1836년 사이로 추정된다. 김도경의 시 제목은 다음과 같다. 「삼막사의 경치가 빼어남을 들은 지 또한 이미 오래이다. 아직 여산(廬山)과 인연을 맺지 못하였는데, 우연히 두 아이 및 계량·성종과 함께 편여(徧輿)로 산에 올랐다. 설암과 나운 또한 근래의 명승인데 기약치 않고 만났으니 또한 좋은 인연이라 하였다(聞三遊之勝亦已久矣。尙未廬山結緣。偶與二兒及季良·聖中以徧輿上山。雪庵·懶雲亦近日名宿。不期而會殆亦有勝因云)。 여기서 김도경이 타고 올라간 편여는 널빤지로 바닥을 만들고 사방을 대나무로 둘러쳐 만든 가마로 일명 죽여(竹輿)라 한다.
- 21 방편(方便)은 방편가문(方便假門)의 뜻이다. 이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그 기류(基流)·성(性)·근(根)·류(類)·성(性)에 알맞도록 방법을 써서 선도(善導)하는 교문(敎門)을 말한다.
- 22 기봉(機鋒)의 기는 쇠뇌화살의 어금니로 시위에 거는 것이고, 봉은 화살촉이니 일촉즉발(觸即發)로 한번 당기기만 하면 붙잡을 수 없는 형세를 말한다. 선어(禪語)의 계발이 그와 같이 신속함을 비유한 불교의 용어이다.
- 23 허홍범, 「평택의 명문을 찾아서1」, 『소사벌』 28, 평택문화원, 2015, 85~86쪽 참조.
- 24 여기에서 관왕묘는 동관왕묘가 아니라 당시 송례문 근처에 있던 남관왕묘를 말한다. 1979년 동작구 사당동으로 이전하였다.
- 25 연화봉은 용산구 청파동의 다른 이름.
- 26 이천여 명 일인이 여기 산다네: 동부이촌동을 말한다.
- 27 독서당의 폐한 터: 현재의 청암자이아파트 인근 '독서당 터' 비석이 있는 자리.
- 28 쇠다리는 한강철교를 말한다.
- 29 인천차와 부산차: 경인선과 경부선.
- 30 개인: 표준어는 '개'이지만, 7·5조의 음율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 적었다.
- 31 영랑성永郎城은 안양에 있는 삼성산의 산성.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천현」 고적古跡조에 의하면, “석축이며 삼성산에 있다. 굴레가 3750척이고, 성 안에 못 하나가 있는데 대정大井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 32 안양 이르러: 다음 역인 군포역은 군포장역으로 1905년 개업했으나 빠져 있다. 그다음 의왕역은 1944년 개업하였다.
 - 33 이승인(1349~1392)의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이다.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제학을 거쳐 동지춘추관사를 지냈으나 만년에는 친원파와 친명파의 모함을 받아 여러 차례 옥사獄事를 겪었다.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고려실록高麗實錄』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도은집』이 있다.
 - 34 축법란은 한 명제明帝 10년(67) 낙양에 불교를 처음 전한 인도 중부의 승려이다. 중문中文 불경佛經의 효시인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을 번역하였다.
 - 35 아도화상은 삼국시대 경상북도 일원에서 활동한 승려, 법명은 아도我道·아두阿頭.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아도본비我道本碑」에 의하면, 240~248년[위統 정시 연간]에 고구려 사람인 어머니 고도령高道寧과 고구려에 사신으로 왔던 조위인曹魏人 아골마아我竭摩 사에서 태어났다.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는 서축(西竺, 인도) 사람이라고도 하고, 오랫에서 온 사람이라고도 하였다.
 - 36 조경(1586~1669)의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주봉柱峯이다. 대제학, 이조 판서 등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하였고, 숙종 때에 이르러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저서에 『용주집』이 있다.
 - 37 요고는 허리가 잘록하고 좌우에 가죽을 붙여 만든 악기인 장구이다.
 - 38 삼굴술에서 굴술은 창문·병풍·찬장 등의 손잡이인데, 여기서는 개다리 모양의 다리 세 개로 향로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한 것인 듯하다.
 - 39 치이병은 술을 담는 가죽으로 만든 자루를 말한다.
 - 40 종고는 예악에 사용하는 종과 북이고, 대러는 주몽 종묘의 큰 종이고, 규벽은 옛날 제왕과 제후가 제사를 지내거나 다른 나라에 사신 갈 때 사용한 일종의 옥홀玉笏로 모두 한 나라의 보물이다.
 - 41 구정은 하룻 우왕禹王 때 구주九州를 상징하여 주조한 술으로, 하룻은殷·주周 삼대에 국권을 상징하는 보물이었다. 크고 무겁기로 이름난 물건이다.
 - 42 석고는 북 모양의 돌 열 개에 주周 선왕宣王이 기산岐山에서 사냥한 일을 기려서 노래한 내용을 새긴 것이라는 전설이 있는 돌로, 오늘날에도 서예의 매우 중요한 전범으로 꼽힌다.
 - 43 조속(1595~1668)의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희은希溫·경은景溫, 호는 창강滄江·창주滄醜·취주醜醜·취옹醜翁·취병醜病이다. 덕산현감, 상의원정 등을 지냈다. 시서화詩書畫 삼절三絶로 일컬어졌으며, 그림은 매梅·죽竹·산수와 더불어 수목, 화조花鳥를 잘 그렸다. 특히 까치나 수금水禽 등을 소재로 한 수목 화조회에서 한국적 화풍을 이룩하여 조선 중기 이 분야의 대표적 화가로 꼽힌다. 저서에 『창강일기滄江日記』가 있으며, 대표적 그림으로 「노수서적도老樹棲鶻圖」, 「매도梅圖」, 「매작도梅鶻圖」 등이 있다.
 - 44 증조고曾祖考 전한典翰은 조종경(趙宗敬, 1495~1535)을 말한다. 본관은 풍양, 자는 자신字愼, 호는 독암獨庵이다. 이조 정랑에 천거되었으나 당대의 권신 김안로의 반대로 좌절되었다가, 1526년 지평을 거쳐 비로소 취임하였다. 1531년 사삼시정司臚寺正으로 재직하던 중 심정沈貞의 당여黨與라는 김안로의 탄핵으로 파직되어 과천에 물러나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다. 저서에 『독암유고獨庵遺稿』가 있다.
 - 45 박소(1493~1534)의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언주彦胄, 호는 아천治川,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조광조 등 신진사류와 함께 왕도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후에 사간이 되었으나 김안로 등 훈구파의 탄핵으로 사성司成에 좌천되었다가 파면되어 경상도 함천에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였다.
 - 46 협호는 본채와 떨어져 있어 딸 살림을 하게 되어 있는 집이다.
 - 47 미수는 허목(許穆, 1595~1682)의 호이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이다. 이조판서와 우의정 등을 지냈다. 경서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특히 예학禮學에 밝았다. 그림·글씨·문장에 모두 능하였는데, 글씨는 특히 전서에 뛰어난 동방의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작품으로는 삼척의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와 시흥의 「영상이원익비嶺相李元翼碑」 등이 전하고, 저서에 『동사東事』, 『경설經說』, 「미수기인廬裏記言」 등이 있다.
 - 48 선현의 …… 마음 : 「시경詩經」 「소아小雅 거화車輦」에, “높은 산처럼 우러르고 큰 길처럼 따라 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라는 구절에서 온 말이다.
 - 49 산에는 …… 미인이로다: 『시경』 「패풍鄜風 간혜簡兮」에 나오는 말이다. 주자는 “서방의 미인은 서주西周的 훌륭한 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현자賢者가 나쁜 세상의 하국下國에서 태어나 주나라가 성할 때의 훌륭한 왕을 그리워하여 지은 것이다” 하였다. 여기서는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을 비유하였다.
 - 50 자료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서는 허흥범, 「3. 사회詩學 자료의 의미」, 『제2장 비산3동 전주 류씨가』, 『안양시사』 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289~291쪽 참고.
 - 51 신종묵은 한말에서 일제시기까지 문인이자 교육자로 교역의숙을 운영하며 과천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문인을 많이 배출한 인물이다.
 - 52 술이台臺: 사림, 사뢰다.
 - 53 도연명은 심양尋陽 삼은三隱의 주속지周續之와 유유인劉遵民과 어울리면서 동진의 고승 혜원(慧遠, 334~416)의 백련결사에 자주 참여하였다. 혜원은 속성俗姓이 가뽏 백련사라는 염불결사를 창설하여 중국 정토종의 개조가 되었다.
 - 54 글 짓는 재주가 있으므로: 원문의 ‘문자성文字性’은 본래 ‘문자에 소질이 있다’는 의미이지만, ‘글 짓는 재주가 있어서’로 번역하였다.

4장

안양의 전통사찰



정성권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1. 안양의 전통사찰

전통사찰이란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전통사찰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전통사찰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전통사찰법」에 근거하여 선정된 전국의 전통사찰은 2024년 5월 기준 982개소이며, 이 중 안양의 전통사찰은 4개소가 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법」 제4조에 기술된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크게 4가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등이다.

안양의 전통사찰은 망해암, 삼막사, 안양사, 염불사가 있다(가나다순). 현재 망해암·삼막사·염불사는 조계종 소속의 사찰이고, 안양사는 태고종 소속의 사찰이다. 안양에 있는 전통사찰의 특징은 전통사찰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안양의 전통사찰은 안양시라는 공간 내에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변화하는 불교의 역사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적·시대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안양의 전통사찰은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료가 되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다

는 점에서 역사적 위상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안양시에는 지정된 전통사찰 외에 조선시대의 불교유산이 남아 있는 불성사와 반월암, 망월암, 상불암 등이 현존하고 있어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2. 망해암

1) 망해암의 연혁

망해암望海庵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이며,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임곡로 245(안양동 55-14)이다. 망해암은 관악산 서쪽에 위치한 삼성산 권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장소는 해발 296m인 비봉산의 서쪽 능선에 해당한다.

망해암은 1943년 간행한 『봉은사본말사지奉恩寺本末寺誌』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대 원효대사가 창건하였으며 남쪽으로 견불산을 마주하고 서쪽으로 인천 바다를 바라본다고 하였으나, 창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망해암과 관련된 기록은 조선 후기 간행된 『여지도서』, 『일성록』, 『가람고』, 『범우고』, 『사찰고』 등에 사찰의 위치나 소재지 등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조선 영조대 간행된 『여지도서』 경기도 과천 사찰조에는 “망해암이 금천현의 서쪽 20리 관악산 남쪽 기슭에 있다望海庵在衿川縣西二十里冠岳山南麓”라는 기록이 있다. 1786년(정조 10) 윤7월 12일의 『일성록』 기록에는 “망해암에 승려가 11명, 삼막사에 승려가 42명이 있다望海菴僧十一名 三幕寺僧四十二名”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여지도서』와 『일성록』의 기록에는 망해암이 금천현 소속이었으나, 신경준(1712~1781)이 간행한 『가람고』와 1799년(정조 23)에 간행된 『범우고』에는 망해암의 소속이 과천으로 되어 있다.

망해암과 관련된 전설은 조난된 조운선과 관련된 전설이 『봉은사본말사지』와 1984년 간행된 『용주사본말지』 등에 남아 있다. 전설의 내용은 망해암에 조선 성종대에 조성한 미륵석불이 있는데, 인조대에 인천 팔미도에서 표류하던 조운선이 이 석불의 인도를 받아 구호되었고, 그 후부터 관청에서 봄과 가을에 불공을 올리고 매달 백미 1석씩을 하사하더니 1894년에 폐지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찰 증건에 대한 내용도 전해지는데, 1803년 흥대비(혜경궁 홍씨)가 암자를 증건하였으며, 1863년 승려 대련이 망해암을 증창하였다고 한다. 1863년 사찰 증창에 대한 기록은 1939년 용화전을 증수할 때

발견된 상량문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망해암은 1922년 화재가 발생하였고 1925년과 1939년에 다시 중창과 중건이 이루어졌다.¹ 망해암의 건축물은 6·25전쟁으로 인해 전부 소실되었으며 전쟁 이후 유청봉 스님에 의해 재건되었다. 1970년대 이후 용화전, 천불전(지장전), 삼성각 등과 요사채, 화장실 등이 신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²

2) 망해암의 문화유산

(1) 망해암 석조여래입상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은 용화전 내에 봉안되어 있으며, 2022년 5월 27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석불은 머리 위에 원형의 보개를 착용하였으며 무릎 아래는 마루 밑에 묻혀 있다. 석불의 크기는 약 3.5m이며 남서 40도의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다. 석불의 머리는 마모되었으나 나발을 갖추고 있으며, 머리 위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큼직한 육계가 있다. 상호는 양 볼의 살이 오른 사실적인 얼굴이다. 양 귀는 크게 만들었으며 귓불을 길게 내려뜨리고 있다. 법의는 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통견 형태의 대의를 착용하였으며, 가슴부터 복부까지 굽은 U자형 옷주름이 조밀하게 표현되었다. 왼손 밑으로는 사선의 옷주름이 오른쪽 다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 하체의 옷주름은 다리 사이에서 Y자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불상의 후면은 평면으로 거칠게 다듬었다. 왼손은 가슴 앞으로 올려 엄지와 검지를 맞대었으며, 오른손은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렸다. 현재 불상의 무릎 아래는 법당 마루 밑에 들어가 있으며 불상 앞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어 불상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안양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의 보개 하단에는 ‘성화15년4월일조성 成化十五年四月日造成’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은 호분이 두껍게 칠해져 있었기에 양식분석이 어려웠으나 불상이 착용하고 있는 보개 명문에 의거하여 1479년(성종 10)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³ 2017년 11월에는 불상 표면에 칠해진 호분이 박락되며 균열이 발생하게 되자 칠 제거와 함께 보존처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보존처리를 통해 불상의 온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양식분석을 통해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의 조성시기를 고려 전기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⁴

안양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은 망해암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이다. 망해암 석불은 안양 망해암이 늦어도 고려 전기에 창건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불상의 보개 명문을 통



망해암 석조여래입상



석조여래입상 보개 하단
'성화15년4월일조성(成化十五年四月日造成)' 명문

해 1479년경 망해암에 비교적 큰 불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망해암은 고려 전기 준수하게 조성된 석불입상과 조선시대 왕실의 후원이 있었다는 내용 등을 통해 보았을 때 이미 고려 전기부터 국가적 후원을 받았던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망해암 석조여래좌상

망해암 석조여래좌상은 석조여래입상과 함께 용화전 내에 있다. 망해암 석조여래좌상은 석불입상의 향우측 벽면에 단을 조성한 후 봉안하였는데 석불좌상은 47×86×20cm(가로·세로·두께) 크기의 장방형 화강암 석재를 다듬은 후 석불 전면에 불상을 돈을 새김한 부조상이다. 석불좌상의 전체 높이는 75cm이며, 불상의 머리에는 나발이 표현되었다. 상호는 사각형에 가까운데, 양 볼은 굴곡 없이 처리하여 평면적인 인상을 준다. 양 귀는 짧게 표현하였으며 목에는 삼도三道를 표현하였다. 불상의 법의는 목 부분의 옷자락 형태를 통해 보았을 때 일반적인 통견 형태의 대의가 아니라 저고리 형태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불상의 옷주름은 전체적으로 소략하게 표현하였다. 오른손은 손가



망해암 석조여래입상과 석조여래좌상



망해암 석조여래좌상

락을 모두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복부 중앙에 올려놓았다. 하체는 가부좌를 틀었는데 불상이 조각된 석재의 크기로 인해 무릎 부분은 생략하였다. 안양 망해암 석조여래좌상은 저고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며 옷주름이 소략한 점과 조선 후기에 여러 차례 사찰이 중건된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볼 수 있다.

3. 삼막사

1) 삼막사의 연혁

삼막사三幕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이며,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241-54)이다. 삼막사는 삼성산의 서쪽 8부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 삼막사 창건에 관해서는 원효 및 의상, 윤필潤筆과 관련이 있는 전승이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조선사찰사료』나 『봉은사본말지』에 전한다. 삼막사는 원효와 의상 등이 일막一幕·이막二幕·삼막三幕 등의 암자를 짓고 이 산에서 수도하였다고 하며, 이 세 암자 중 현재 삼막사만이 현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⁵ 삼막사 창건과 관련된 전승의 내용은 삼막사가 삼국시대 말기나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삼막사에는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와 관련된 유적이거나 유물은 전하고 있지 않으며 여말선초기에 건립된



삼막사 망해루와 명부전



삼막사 천불전

것으로 추정되는 삼층석탑이 현재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이다.

실학자 유형원이 1656년 펴낸 『동국여지지』에는 삼막사의 창건을 지공과 나옹, 무학과 연결시키고 있다. 『동국여지지』 금천현 衿川縣 조에는 삼막사가 “삼성산에 있으며 고려 말에 서역의 승 지공指空 및 명승名僧 나옹과 무학이 함께 삼성산을 유람하고 삼막사를 창건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삼막사는 고려 후기 나옹 혜근慧勤이 이 절에 머물며 수도했고, 원元에서 지공 선현禪顯이 혜근을 찾아오자, 선풍이 크게 일어났으며 왕사인 무학 자초自超가 삼막사에서 국운의 융성을 기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태종의 명으로 증건했으며, 이후에도 태종의 지시로 대대적인 증창이 있었다.⁶

삼막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세가 기울었다. 이후 숙종·영조·고종을 거치면서 사찰의 곳곳에 불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규모가 있는 사격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범종을 조성하였으며, 사적비를 세우고 마애삼존불 및 칠성각 등을 건립하는 등 활발한 불사가 진행되었다. 조선 후기 삼막사는 1763년(영조 39)에 조성된 삼막사 마애삼존불을 통해 보았을 때 칠성신앙이 중심을 이루었던 사찰로 존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막사는 1895년과 1896년에 사찰을 방문한 외국인 선교사가 남긴 승려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⁷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삼막사는 창건 이래 현재까지 법등이 끊이지 않은 사찰임을 알 수 있다.

2) 삼막사의 문화유산

안양 삼막사에는 현재 5건의 경기도 지정유산이 있다. 삼막사 마애삼존불, 삼막사 삼층석탑, 삼막사 사적비 등은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삼막사 명부전은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삼막사 남녀근석은 경기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삼막사 삼귀자와 삼막사 감로정 석조는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1) 삼막사 마애삼존불

삼막사 마애삼존불은 삼막사 중심 사역에서 남쪽으로 약 250m 떨어진 칠성각 안에 있다. 마애삼존불은 암벽을 얇게 파서 감실을 조성한 후 세 구의 불상을 조성하였다. 본존상의 높이는 150cm이며, 양협시상의 높이는 93cm이다. 본존상은 두 손에 보주를 들고 있으며, 양협시보살상은 합장을



삼막사 마애삼존불

하고 있다. 불상의 아래쪽에는 “건륭28년계미8월일화주오십乾隆二十八年癸未八月日化主悟心수시주서세준首施主徐世俊”이라는 명문이 있어 1763년(영조 39)에 승려 오십이 발원하고 서세준이 시주하여 조성한 불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칠성각의 북쪽 암벽에는 중건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1881년(고종 18) ‘칠성전’을 중건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삼막사 마애삼존불좌상은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기년명 마애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삼막사 삼층석탑



삼막사 삼층석탑



삼막사 삼층석탑 근경

삼막사 삼층석탑은 여말선초기에 조성된 석탑으로 알려져 있으며, 천불전 뒤편 석축 위의 바위 상면에 건립되어 있다. 삼막사 삼층석탑은 비교적 소형이나 평면 방형의 이중기단을 갖춘 삼층석탑이다. 석탑의 크기가 소형인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이 석탑은 법당 앞에 건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가 본래의 위치일 가능성이 있다. 석탑이 세워진 위치를 통해 보았을 때 삼막사 삼층석탑은 산천비보^{山川裨補} 사상과 관련되어 건립된 석탑으로 보인다. 이 석탑은 규모가 축소된 채 여말선초기까지 통일신라 정형기 석탑의 양식적 특징이 계승된 석탑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미가 있는 석탑이다.

(3) 삼막사 사적비

삼막사 사적비는 비좌·비신·지붕돌을 갖춘 4면비이며, 비의 전체 높이는 253cm이다. 이 비는 사적비로 알려져 있으나 “불량을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돌에 새긴다^[佛糧施主之名刊銘于石]”라는 기록이 있으며, 삼막사와 관련된 역사 기록 등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삼막사에 곡식을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긴 불량비^{佛糧碑}라 할 수 있다. 이 비는 “강희46년 정해^{康熙四十六年丁亥}”라는 명문이 있어 1707년(숙종 33)에 건립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삼막사 사적비

(4) 삼막사 명부전



삼막사 명부전



삼막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명부冥府의 10대 명왕을 모신 곳이다. 삼막사 명부전의 현판은 명왕전冥王殿으로 되어 있는데 장대석을 이용하여 기단을 조성한 후 그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건물을 조성하였다. 이 건물은 1880년(고종 17)에 당시 주지 의민義旻 스님이 주도하여 건립하였다. 삼막사 명부전은 소규모 불전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19세기 사찰 건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물이다.

(5) 삼막사 남녀근석

삼막사 남녀근석은 칠성각의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기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연형상의 바위가 남자와 여자의 성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예부터



삼막사 남녀근석



삼막사 여근석

민간신앙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삼막사 남녘근석은 아들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 처였으며, 다산과 풍요·무병장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민속문화유산이다.

(6) 삼막사 삼귀자



삼막사 삼귀자 원경



삼막사 삼귀자

사적비의 남쪽에는 백련암지로 불리는 석축과 건물지가 남아 있는데 종두법의 시행자였던 지석영의 형인 지운영이 은거하였던 곳이라 한다. 삼막사 삼귀자는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북향한 암벽의 전면에 214×105cm크기의 장방형 액을 개설한 후 자경 90cm의 크기로 ‘귀龜’자를 음각했다. ‘귀’자는 서쪽으로부터 정자, 초서, 상형문자의 차례로 음각되어 있다. 각자의 말미에는 “불기2947년경신중양佛紀二千九百四十七年庚申重陽 불제자지운영경서佛弟子池雲英敬書”란 명문이 있고, 각자의 서두에는 “관음몽수장수령자觀音夢授長壽靈字”란 명문이 있다. 이를 통해 1920년에 지운영이 꿈에 관음보살을 본 후에 이 글씨를 새겼음을 알 수 있다.

(7) 삼막사 감로정 석조

삼막사 감로정 석조는 삼막사 삼층석탑이 있는 천불전 측면의 석축 앞에 있다. 이 석조는 귀부형으로 목을 바짝 움츠린 모습의 거북머리가 표현되어 있다. 명문에 “도광17년정유道光十七年丁酉”라 기록된 점으로 보아 1837년(헌종 3)에 조성된 조선 후기의 불교 유산이다.



삼막사 감로정 석조 정면



삼막사 감로정 석조 측면

4. 안양사

1) 안양사의 연혁

안양사(安養寺)는 태고종 소속의 사찰이며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번길 103(석수동 242-3)이다. 원래의 안양사는 현재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이 있는 장소이며, 지금의 안양사는 6·25전쟁 이후 승탑과 탑비가 남아 있는 삼성산 안쪽에 재창건한 사찰이다.

안양박물관 입구에는 보물로 지정된 ‘안양 증초사지 당간지주’가 있다. 당간지주에는 명문이 남아 있어 당간지주가 827년(홍덕왕 2)에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 불교가 성행한 8세기 중후반에서 9세기 전반기에는 당간(幢竿)과 당간지주를 건립하는 것이 사찰 가람 상에서 꼭 필요한 조형물로 인식되었다. 당간과 당간지주는 일반적으로 사찰 입구에 세워지며, 한가운데 당간을 세워 당(幢)이라는 긴 깃발을 걸었다. 사찰에서 당간을 세워 그 꼭대기에 당을 거는 것은 사찰과 불법에 대한 수호의 의미와 함께 신성한 사찰 공간에 대한 경계의 의미 등이 내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⁸

통일신라시대 존재하였던 안양박물관 일대의 사찰은 당간지주의 명문을 통해 ‘증초사(中初寺)’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성과에서 ‘증초’는 사찰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말의 ‘~에’와 ‘처음’을 나타내는 변격 한문의 표현임이 연구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안양박물관 일대에 창건된 사찰의 사명은 본래부터 안양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⁹

안양사의 연혁은 2009~2011년 사이에 실시한 발굴조사 성과와 문헌자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안양사의 창건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되는 유물 중 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8세기경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⁰ 이후 안양사는 당간지주의 명문에서 알 수 있듯이 827년경 사찰의 중수가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안양사는 신라말기의 혼란기에 쇠락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쇠락한 안양사는 태조 왕건에 의해 대형 전탑이 새롭게 건립될 정도의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진행되었다. 태조 왕건에 의해 중창된 안양사는 발굴결과 중문-전탑-금당-강당-승방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남측과 좌우측에 회랑이 위치한 가람임이 확인되었다.¹¹ 태조 왕건에 의한 안양사 중창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사 삼성산에 있다. 절 남쪽에 고려 태조가 세운 7층 벽돌 탑이 있다. (중략) 이승인李崇仁이 지은 『중신기重新記』에, (중략) 문하시중 철원부원군 최공과 지금 주지 대사 혜겸이 중수하여 새롭게 하였다. (중략) 이튿날 겸이 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겸이 이 절에 머문 지가 몇 해째입니다. 절 역사를 상고하니, 옛적에 태조께서 조공하지 않는 자를 정벌할 참인데, 여기를 지나다가 산꼭대기에 구름이 오체를 이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습니다. 과연 높은 중을 구름 밑에서 만났는데, 이름은 능정能正이었습니다. 더불어 말해 보니 뜻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 절이 건립하게 된 연유입니다. 절 남쪽에 있는 탑은 벽돌로 7층을 쌓았고 기와로 덮었습니다.'¹²

안양사는 왕건이 대대적으로 중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중창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위의 사료 중 “옛적에 태조께서 조공하지 않는 자를 정벌할 참인데” 구절을 바탕으로 안양사의 창건시기를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른 후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지 않았던 호족들을 다시 규합하는 922년경부터 호족들의 귀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925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한 연구도 있다.¹³ 태조 왕건은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봉업사를 중창하고 하남 교산동에 대형 건물지를 924년경에 건립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조 왕건에 의한 안양사의 중창은 922~925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안양사는 고려 중기에 국사가 머물 정도의 대가람으로 확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의 안양사 경내에는 비신이 없는 탑비가 있는데 이 탑비 부근에서 출토된 비편의 경우 1131년에 건립된 보조국사비로 파악되고 있다. 보조국사비의 주인공은 1117년(예종

12) 정월에 왕사로 책봉된 덕연(德緣)이나 예종 초기에 왕사로 책봉된 덕창(德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양사는 보조국사가 활동하는 12세기 무렵 유력한 법상종 사찰로서 기능하였다.¹⁴ 고려 후기의 안양사는 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태정4년(泰定四年, 1327년)’ 명 기와와 「금주안양사탑중신기」를 통하여 1327년(충숙왕 14)과 1381년(우왕 7) 각기 사찰의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수도 한양에서 가까이 있던 안양사는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지만 사찰로서 중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태종 때에는 국왕의 휴양 혹은 지방관들의 전별 장소로 이용되었고,¹⁵ 세종 말년에는 왕실에서 후원하여 안양사를 크게 중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신료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다.¹⁶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안양사를 금천현의 사찰 중 첫 번째에 거론하면서 고려 태조가 건립한 7층 전탑을 특기하고 「금주안양사탑중신기」의 내용을 전재하였지만, 17세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에서는 이미 그 7층 전탑도 퇴락하여 유허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18세기의 『여지도서』에서는 사찰 자체가 폐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안양사의 문화유산

(1)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안양박물관과 김중업 건축박물관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당간지주는 두 개의 석재 지주 사이에 철이나 돌, 나무 등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

으로 만든 장대 형태의 당간을 세우고 그 끝에 세로로 긴 깃발 형태의 당을 달아두는 데 사용한다. 증초사지 당간지주에는 해서체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당간지주의 조성시기와 건립 과정에 대한 내력을 알 수 있다. 당간지주 건립에는 황룡사 승려가 파견되었음이 명문을 통해 파악된다. 명문에 의하면 당간지주는 826년부터 작업하기 시작하여 827년 완공되었다. 당간지주의 조성에는 절주통^{節州統}인 황룡사 항창^{恒昌} 화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증초사는 당간지주의 완공이 827년임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를 전후한 시점에 사찰의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안양사 전탑



안양사 전탑 복원도



발굴조사 출토 안양사 전탑

안양사 전탑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태조 왕건에 의해 건립된 탑임을 알 수 있다. 안양사 전탑은 2009~2011년 사이에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전탑이 건립된 정확한 위치와 도괴된 형태로 매몰되었던 전탑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안양사 전탑은 매몰된 형태로 출토되었기에 구체적인 양식이나 외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남아 있는 문헌기록과 발굴조사 결과 등을 통해 보았을 때 1층 탑신부는 안동 신세동 칠층전탑이 연상되고, 1층 옥개부 이상의 탑신부는 안동 동부동 오층전탑이나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등과 친연성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사 전탑은 옥개받침의 일부를 뾰족하게 돌출되도록 장식하기 위해 삼각형으로 돌출된

벽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양은 중국 전탑에서는 일반적이었지만 우리나라 전탑에서는 보기 드문 조영 기법이었다. 안양사 전탑의 구성에 참여한 장인들은 중국 전탑의 조영 기법이나 양식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3) 안양 증초사지 삼층석탑



안양 증초사지 당간지주와 삼층석탑 전경



안양 증초사지 삼층석탑

안양 증초사지 삼층석탑은 안양 증초사지 당간지주에서 동북쪽으로 약 60m 떨어진 곳에 넘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1960년 유유산업이 들어서며 현재의 위치인 당간지주 옆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안양 증초사지 삼층석탑은 1998년에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석탑은 지대석 위에 기단 받침을 조성한 후 단층의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삼층의 탑신부를 조성하였다. 현재 1층 탑신부만 남아 있으며 2층 및 3층 탑신부와 상륜부는 결실되어 있다. 안양 증초사지 삼층석탑은 고려 중기의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4) 석수동 마애종

안양 석수동 마애종은 석수동 산32번지에 있다. 이곳은 남쪽으로 뻗은 삼성산 줄기의 끝자락에 해당하며, 암벽의 남쪽 방향에 승려가 종 치는 나무 도구인 당목(撞木)을 들고 종을 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마애종은 암벽에 새긴 종이라는 뜻이다. 종 윗면에는 목을 구부려 종을 잡고 있는 용 한 마리가 쇠사슬에 엮여 종 걸이에 걸리게 했고, 그 옆



석수동 마애종 탁본



석수동 마애종

에는 우리나라 종에만 보이는 음통音筒이 있다. 종 몸통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에는 종 치는 곳인 당좌撞座를 연꽃 문양으로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종과 종 치는 승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석수동 마애종의 조성시기는 종의 양식적 특징을 고려했을 때 11세기경으로 추정된다.¹⁸ 석수동 마애종은 통일신라시대 창건되어 고려시대 크게 중창된 안양사와 현재의 안양사를 연결하는 도로 사이에 조성된 점으로 미루어 고려시대 안양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안양사 귀부



안양사 귀부 정면



안양사 귀부 측면

현재의 안양사 대웅전 앞에는 탑비의 받침이었던 귀부와 승탑 부재가 있다. 탑비는

스님이 입적한 후 스님의 유골이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한 쌍으로 조성된다. 승탑과 탑비는 고승 개인의 행적을 추모하는 기념물적인 성격도 있었지만 산문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표상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였다.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승탑이 왕사나 국사를 역임하거나 그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았던 고승들의 묘탑으로 당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승려에 대한 기념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¹⁹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안양사 귀부는 입을 굳게 다물고 머리를 바짝 움츠리고 있으며 귀부의 발은 비교적 길고 힘차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귀부는 1060년 건립된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1085년 건립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비와 유사하며, 특히 1111년 건립된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탑비의 귀부와 강한 친연성이 있다. 안양사 귀부는 12세기 전반경에 입적한 고승의 탑비에 사용되었던 귀부로 추정되는데,²⁰ 근래의 연구성과에서는 1131년에 건립된 보조국사비로 파악하고 있다.²¹

(6) 안양사 승탑

안양사 승탑은 안양사 귀부와 함께 대웅전 앞에 놓여져 있다. 안양사 승탑은 일부 부재가 유실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승탑의 부재는 지붕돌 한 개와 받침돌 두 개가 남아 있다. 지붕돌과 아래의 받침돌은 평면 팔각의 형태를 하고 있어 본래의 승탑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승탑 모양인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지붕돌 아래에 놓여 있는 승탑 부재는 승탑 받침돌의 윗부분으로 현재 뒤집어져 있는 상태이다. 승탑의 주인공은 보조국사로 추증된 인물로 파악되며, 이 인물로는 1117년 정월에 왕사로 책봉된 덕연이나 예종 초기에 왕사로 책봉된 덕창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양사 승탑 전경



안양사 승탑 세부

5. 염불사

1) 염불사의 연혁

염불사(念佛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이며,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번길 150(석수동 241-52 등)이다. 염불사는 염불암(念佛庵)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옛 기록에도 염불암으로 기록되어 있다. 염불사는 삼성산의 남쪽 사면 8부 능선에 위치한 사찰이다. 염불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삼막사와 마찬가지로 원효·의상·윤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며 고려 태조 왕건이 관악산 인근에 7층 전탑을 세우면서 창건한 사찰이라는 전승도 전한다.²² 현재 염불사와 관련된 기록은 대부분 조선시대 것이며, 사찰에 전하는 유물 역시 조선시대의 것만 전하고 있다. 염불사는 1407년(태종 7) 한양의 백호에 해당하는 관악산의 산천기맥을 누르기 위해 태종의 명으로 몇몇 절을 중창할 때 이 절도 함께 중창되었다는 전승을²³ 통해 보았을 때 조선시대 창건된 사찰로 여겨진다.



염불사 부도 전경

염불암이 기록된 고서는 『여지도서』와 『범우고』가 있다. 조선 영조 연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염불암: 재삼성산在三聖山”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1799년에 편찬된 『범우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다. 염불암은 근대기에도 중창되었는데 1856년(철종 7) 도인스님이 화주가 되어 칠성각을 건립하였으며, 1904년(고종 41)에는 호남보정湖南普正스님이 사찰을 중창하였고, 1927년에는 주지 김성념 스님과 거사 박정신이 사찰을 증수하였다. 1930년에는 세심루를 신축하였고 1932년에는 산신각을 증수하였다. 1941년에는 대웅전과 칠성각을 증수하였다. 이와 같이 염불암은 조선 말기와 근대기에도 지속적인 사찰의 중창과 증수가 있었다. 6·25전쟁을 겪으며 쇠락하였던 염불암은 성공기 석性空奇石 스님이 1956년 대웅전과 삼성각을 증수하고 요사를 신축하였다.²⁴ 이와 같이 염불암은 창건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법등을 유지하고 있는 사찰이다.

2) 염불사의 문화유산

염불사에는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부도군이 있다. 부도군은 조선시대 후기의 부도군으로 석종형 부도 3기와 마애부도 2기로 이루어졌다.

(1) 서영당부도

염불암 나한전 서쪽에는 3기의 부도(승탑)가 있다. 서영당부도西影堂浮屠는 3기의 부도 중 향 우측의 부도로 대좌와 탑신을 구비한 석종형 부도이다. 전체 높이는 153cm이며, 전면에 장방형 액을 마련한 후 ‘신사서영당지홍信士西影堂知弘 가경15년경오嘉慶十五年庚午 도화주신사대신都化主信士大信’이란 명문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연봉형의 보주가 탑신과 하나의 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도는 전면의 명문으로 보아, 1810년(순조 10)에 대신大信의 발원으로 건립된 서영당지홍西影堂知弘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서영당부도

(2) 인봉당부도

나한전 서쪽에 있는 3기의 부도 중 중앙에 있는 부도이다. 인봉당부도(印峯堂浮屠)는 원래 선방 아래쪽 건물지에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부도를 옮겨 온 것이다. 부도의 높이는 143cm이며, 탑신 전면에 32×70cm의 장방형 액을 마련한 후 '가경21년병자7월일(嘉慶二十一年丙子七月日) 청신사인봉당대심탑(淸信士印峯堂大心塔) 도화주자손석명찰(都化主子孫釋明察)'이란 명문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연봉형의 보주가 탑신과 함께 하나의 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도는 전면의 명문으로 보아, 1816년(순조 16)에 명찰(明察)의 발원으로 건립된 인봉당대심(印峯堂大心)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인봉당부도

(3) 도일당부도

나한전 서쪽에 있는 3기의 부도 중 좌측에 있는 부도이다. 도일당부도(道一堂浮屠)는 석종형 부도로서 대석은 결실된 상태이다. 부도는 상·하 2개의 석재로 만들어졌다. 부도의 전면에는 62×30cm의 액을 만들고, 그 속에 세로로 '운수거사도일(월)당명심탑(雲秀居士道日(月)堂明心塔)'이 음각되어 있다. 석종 상부에는 첨형보주를 두었다. 총고는 167cm이다.



도일당부도

(4) 현진당마애부도

현진당마애부도(現眞堂磨崖浮屠)는 염불암 동남쪽에 위치한 선방(禪房)의 뒤쪽 암벽에 있다. 암



현진당마애부도 전경



현진당마애부도

벽은 높이 6m, 너비 3m 규모이며, 마애부도는 암벽 하단부에 조성되었다. 마애부도는 60×50cm 크기의 감실을 개설하고, 감실의 주변에는 ‘건륭48년10월일乾隆四十八年十月日 거사 법흥현진당居士法洪現眞堂’의 명문이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이 부도는 마애부도라는 특이한 형식과 함께 명문으로 보아 1783년(정조 7)에 조성된 현진당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5) 여산송씨마애부도

여산송씨마애부도礪山宋氏磨崖浮屠는 현진당마애부도와 인접한 암벽 상단부에 만들어졌다. 마애부도는 50×40cm 크기의 얇은 장방형의 감실을 조성한 후 감실 상면에 보주를 새기고 감실 주변에는 ‘광서16년경인光緒十六年庚寅 곤명3월일坤命三月日 갑진생甲辰生 여산



여산송씨마애부도 전경



여산송씨마애부도

송씨불도(礪山宋氏佛道)의 명문을 음각하였다. 명문으로 보아 1890년(고종 27)에 조성된 부도임을 알 수 있다.

6. 그 외 주요사찰

1) 불성사

안양예술공원의 서울대 안양수목원에서 동북쪽의 관악산 등산로를 따라 약 2.5km 올라 관악산 정상부 능선에 위치한 불성사(佛性寺)는 태고종 사찰로 『과천읍지』에는 “불성사재현서15리관악산서록佛聖寺在縣西十五里冠岳山西麓”이라 기록되어 있다. 현재 불성사에는 『불성사약력(佛性寺略歷)』(1937)이 전하고 있으며, 이 책에 의하면 불성사는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나 현존하는 유물은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각원대사(覺圓大師)가 중창불사를 하고 1590년(선조 23)에 청허대사(淸虛大師), 즉 서산대사가 주석하여 다시 중창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사찰의 오랜 역사를 짐작하게 해 준다.

또한 사찰 주변의 각원선사 부도와 「만력18년(萬曆十八年) 명(銘)의 각자가 현존하고 있어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불성사약력』과 유적을 토대로 볼 때 불성사는 늦어도 임란 이전, 즉 조선시대 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각종 기록을 참고할 때 1590년경에는 많은 승려가 기거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사찰로 존속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사세를 유지하다가 1937년 청운대사(靑雲大師)의 중창 이후 사찰의 면모를 갖추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성사 마애부도

(1) 불성사 마애부도

불성사 요사채에서 북서쪽으로 80m 정도 떨어진 암벽에 부조되어 있으며 높이가 7m, 너비 5m의 암벽 하단부에 80×105cm 크기의 얇은 감실을 조성하고 마애부도를 양각했다. 부도의 형상은 장방형의 탑신에 연봉형의 보주를 놓은 형상

이며, 크기는 93×53cm이다.

중앙에는 25×28cm 크기의 감실을 조상하였는데, 하단에는 지름 7.5cm, 깊이 4cm의 원형사리공을 굴착하였다. 감실의 주변에는 “비구 각원선사 병진8월일比丘 覺圓禪師 丙辰八月日”의 명문이 자경 6cm의 크기로 음각되어 있다.

이 부도는 마에부도라는 특이한 형식과 함께 명문으로 보아 1796년(정조 20) 병진년 8월에 조성된 각원선사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2) 불성사 각자석



불성사 각자석

각자석刻字石은 불성사 요사채 마당 끝에 있는 ‘불성사증창불사공덕비’를 받치는 석축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크기는 152×62cm로서 바위면에 “만력18년조萬曆十八年造”의 명문을 자경 22cm의 크기로 음각했다. 만력 18년은 1590년(선조 23)으로 『불성사약력』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청허대사(서산대사)의 증창사실과 합치하는 유물로 보이며, 1590년에 불성사

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석으로 생각된다.

2) 반월암

반월암半月庵은 삼막사에서 삼성산중계소로 향하는 등산로를 따라 우측으로 약 1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태고종 사찰로 문헌에는 소개된 바 없지만, 사찰 측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려 말에 나옹화상懶翁和尚이 일막사一幕寺를 증창하려고 먼저 지은 절이 반월암이라고 한다. 이후 반월암에 관한 사력은 알 수 없지만, 사찰의 전면에 남아 있는 석축과 사찰 내에 있는 조선 후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기의 석조부도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법등을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찰 내에 건립된 공덕비와 추모비를 통해 볼 때 1939년 5월 20일 그간 폐허화된 반월암을 김일뢰金日雷 스님이 증창한 이래, 그의 딸이었던 박약동朴若童 스님이 유지를 이어 법등을 잇고, 현재의 주지 안수인 스님에

이르고 있다. 사찰의 명칭은 주변의 환경이 나무와 숲이 우거져 낮 12시에 해를 보고 밤 12시에야 달을 보는데, 각기 반씩만 볼 수 있어 반월암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 백운당부도비



백운당부도비

백운당대선사부도(白雲堂大禪師浮屠)는 대석과 탑신 및 옥개석을 구비하고 있다. 대석은 장방형의 석재 상면에 높직한 각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탑신은 높이 80cm의 규모로 역사다리꼴의 형태인데, 전면에 ‘백운당대선사 밀양장씨 □□탑(白雲堂大禪師密陽張氏 □□塔)’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부도의 주인공을 알 수 있으며 옥개석은 팔작지붕에 전체 높이는 150cm이다.

(2) 명성당부도비



명성당부도비

명성당대선사부도(明惺堂大禪師浮屠)는 백운당부도비와 함께 세워져 있으며, 석종형 부도이다. 낮은 장방형의 기단 위에 건립되었으며 높이 103cm, 지름 56cm 크기의 탑신 전면으로 자경 6cm의 크기의 부도명이 음각되어 있다. 탑신의 정상으로 낮은 보주가 돌출되어 있고, 부도의 전체 높이는 113cm이다.

(3) 서영당부도비

부도비는 삼막사에서 반월암을 향해 오르다 약 50m 지점 우측 암벽에 조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얇은 감실을 파고 상단에는 7엽의 화문형(花紋形)을, 하단에는 장방형의 사



서영당부도비

리공을 조성하였다. 화문의 하단에는 ‘서영당 대선사 추씨□□西影堂 大禪師 秋氏□□’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사리공은 24×28cm의 크기로, 깊이는 17cm인데 안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망월암

삼막사 동쪽에 위치한 사찰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기록된 망월사望日寺를 망월암望月庵으로 보기도 한다. 사찰 내에 현존하는 유물을 통하여 볼 때 망월암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찰 내에 건립된 석탑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망월암에 대한 조선시대의 기록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법당 내에 봉안된 주존불이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창건 이후 지속적으로 법등을 이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1) 망월암 석탑



망월암 석탑

석탑의 하층기단은 1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면에는 3구씩의 안상眼象이 조식되어 있다. 안상은 7엽의 팔호문 내에 고사리문을 양각한 형태이며 매우 선명하다. 면석과 일석一石으로 구성된 갑석의 상면에는 각호각형角弧角形의 3단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상층기단 역시 1매의 석재로 구성되었고, 각 면에는 양쪽 우주隅柱가 정연히 모각되었다. 상층기단 갑석은 1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면에는 낮은 각형 1단의 받침 위에 팔호형의 부연副椽을 두었고, 상면에는 각형 3단

의 탑신괴임대를 조출하고 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일석으로 탑신석에는 양 우주
가 정연히 모각되었다. 그리고 옥개석의 하면에는 각형 3단의 옥개받침과 낙수홈이 표
현되었고, 상면에는 각형 1단의 탑신괴임대가 조출되어 있다.

낙수면의 경사가 짧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轉角에 이르러 둔중한 반전返轉을 보
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탑신의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짜임과 조립된 수법 및 각부의 양
식으로 보아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높이는 176cm이다.

4) 상불암

상불암上佛庵은 삼막사 남동쪽에 위치한 영랑성永郎城 정상부에서 등산로를 따라 남쪽
으로 약 250m 정도 내려오면 위치한다. 태고종 사찰로서 삼성산 높은 봉우리에 있어
상불암이라 칭한다. 1914년 홍선관, 지선녀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대웅전 내에 자연
석굴이 있어 오래전부터 기도처로 이용되어 왔던 곳이다. 사찰 뒤편에는 이 절의 창건주
인 홍선관과 지선녀의 불망비가 서 있다.



상불암 석굴

- 1 이철교 편, 『서울 및 근교사찰지: 제4편 관악산의 사찰』, 『다보多寶』 13, 대한불교진흥원, 1995, 27~29쪽.
- 2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152쪽.
- 3 정성권,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편년과 양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4, 불교미술사학회, 2017, 189~190쪽.
- 4 황이연, 「안양 망해암 석조여래입상 연구-명문과 양식의 편년 불일치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56, 한국문화사학회, 2021, 108~109쪽.
- 5 황인규, 「관악산의 불교와 관악사(사)」, 『한국불교학』 69, 한국불교학회, 2014, 311쪽.
- 6 고영성, 「국가 비보사상과 한양 비보사찰」, 『동아시아불교문화』 48,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21, 285쪽.
- 7 장진엽, 「내한 선교사 피서지 관악산 삼막사의 공간적 의미 탐색」, 『서울학연구』 94,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24, 18~29쪽.
- 8 엄기표, 『한국의 당간과 당간지주』, 학연문화사, 2004, 56~67쪽.
- 9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검토」,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65~81쪽.
- 10 최태선, 「안양사지 출토 기와의 특징과 성격」, 『안양사지 출토瓦 특별전』, 안양역사관, 2013, 74~79쪽.
- 11 한울문화재연구원, 『안양사지』, 2013, 331쪽.
- 1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금천현 불우조.
- 13 정성권, 「고려 대조 왕건을 보는 또 다른 시각: 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동양학』 6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157~159쪽.
- 14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검토」,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78~81쪽.
- 15 『태종실록』, 6년 3월 2일·11년 9월 12일·17년 윤5월 4일·17년 윤5월 22일 기사 참조.
- 16 『세종실록』, 30년 7월 21일; 『문종실록』, 즉위년 10월 19일 기사 참조.
- 17 엄기표, 「안양 중초사지와 안양사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양미술사학』 26, 동양미술사학회, 2019, 54~55쪽.
- 18 최응천, 「안양 석수동 마애타종상의 조형과 편년」, 『강좌미술사』 3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50~56쪽.
- 19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17~18쪽.
- 20 엄기표, 「안양 중초사지와 안양사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양미술사학』 26, 동양미술사학회, 2019, 64쪽.
- 21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검토」,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78~81쪽.
- 22 고영성, 「국가 비보사상과 한양 비보사찰」, 『동아시아불교문화』 48,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21, 283쪽.
- 23 위의 책, 283쪽.
- 24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146쪽.

5장

전통사찰의 사원 배치와 건축 특성



김왕직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안양시 관내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네 곳 있다. 안양사·삼막사·망해암·염불사인데, 이 외에도 등록된 사찰로는 보장사·용화사·만장사·운증정사·불암사·금강선원·삼성사·칠불사·관조사·백운사·불성사·보덕사·관음사·행복선원·수리사·안흥사·서광사·한국마하시선원·도광사·보현정사·장안사·정방사·약사사·백련사·천인암·청수사 등으로 매우 많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지정된 전통사찰에 한하여 건축적인 특징과 배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찰은 창건 이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어 나간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인 고찰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현황을 충실히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안양사의 경우는 현재의 안양사가 있고,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안양사는 다른 곳에 위치한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증초사지가 있었는데, 그 위에 고려시대 안양사가 창건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안양사를 중심으로 서술했지만 고려시대 안양사를 안양사지로 기술하였고, 고려시대 안양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수동 마애종과 그 이전 신라시대 층위인 증초사지를 부가하여 서술하였다.

1. 안양사와 안양사지

1) 안양사

현재의 안양사는 안양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700m 거리에 있다.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안양사는 모두 현재의 안양사지를 가리키는 것이며, 현존 안양사는 6·25전쟁 이후 새로 지은 것이다. 안양사지와 안양사 사이에는 ‘석수동 마애종’이 있으며, 안양사지 선대 유구층에는 증초사지가 있다. 현재 안양사는 만안구 예술공원로131번길 103(석수동

242-3)에 위치하고 있다. 안양사는 동북쪽의 삼성산(三聖山)을 주산으로 하고 있으며, 삼성산 서남쪽 줄기 끝에 위치한다. 삼성산은 관악산과 같은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의 관악구·동작구·금천구와 안양시에 걸쳐 있는 산이다. 안양사가 위치한 석수동은 조선시대 금천현에 속해 있던 곳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삼성산은 금천현의 진산으로 현 동쪽 10리에 있다”고 하였다.¹

안양사는 태고종 소속의 사찰로 대인(大仁)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6·25 이후에 새로 지은 것이다. 이 내용은 심검당 남쪽 봉우리에 1984년에 건립한 창견주 대인스님의 승탑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비구니대인사비(比丘尼大仁師碑)」에 따르면, “대웅전·명부전·천불전·미륵상·삼성각·심검당을 창립하였다”고 하였다. 묘사채는 목록에 없으나 가장 먼저 명부전을 짓고 이어서 명부전 옆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창립 때부터 명부전을 중심으로 한 하단 영역과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상단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건물 사이에도 14년의 시차가 있다. 명부전은 1952년에 건립하였으며, 대웅전은 1966년에 지었다. 묘사채를 1962년에 지었으니 하단 영역을 먼저 조성하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상단 영역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단 영역은 묘사채와 명부전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배치의 특성을 논하기 어렵다. 상단 영역은 1966년에 대웅전을 먼저 짓고, 1968년에 천불전, 1976년 미륵불 조성, 1980년에 심검당과 삼성각, 1985년 범종각을 지었다. 2000년대 초반 대웅전을 새로 짓고 축대를 조성하였으며, 삼성각을 헐고 그 자리에 산신각을 지었다. 나한전을 새로 지었으며 천불전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상단 대웅전 영역의 건물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심검당, 북쪽으로 미륵입불을 중심 축선상에 배치하였고 대웅전 앞 서쪽에는 범종각, 미륵입불 앞 동서에는 산신각과 나한전을 배치하였다. 심검당은 스님들의 선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개는 대웅전의 좌측 또는 우측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안양사는 협곡으로 폭이 좁고 단차가 있어서 대웅전 아래에 선방을 배치한 특수한 사례이다. 선방이 불전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록 앞쪽이지만 낮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륵불과 나한전, 산신각 영역은 ‘ㄷ’자 배치를 보여주지만 주불전을 고려한다면 일직선 축선 배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안양사 요사채

(1) 요사채

안양사 하단 영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1962년 지은 건물로 요사채와 종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 평면은 비대칭 ‘ㄷ’자형으로 뒤쪽에는 덧달아 낸 건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본채는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초익공형식(初翼工形式)의 소로수장(小櫺修粧) 집이며 부연(附椽)이 있는 겹처마집이다. 지붕은 팔작이며 옥색의 일체형 스페니스(Spanish) 기와를 올렸다. 뼈대를 제외하고 벽체와 창호 등은 모두 현대식으로 바뀌었다.

(2) 명부전

요사채 동쪽에 바로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다. 전면에 4단의 계단이 있어서 요사채보다 높게 조성되었다. 상량목서에 ‘세존응화2979년임진4월10일입주상량(世尊應化二九七九年壬辰四月十日立柱上梁)’이라는 문구가 있어 1952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외별대 장대석 기단 위에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공포(拱包, 貢包)는 초익공형식이며, 처마는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다. 지붕은 맞배이고 좌우에 풍판(風板)이 있다. 단청은 금단청으로 기둥 상부에 주의초(柱衣草)도 있다. 주간에는 봉황 모양의 안초



안양사 명부전

공按草工이 각각 2개씩 놓였으며,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했다. 전면 3칸에는 각각 3짝의 세살분합문細箭分閤門을 달았고 상부에는 만살광창滿箭廣(光)窓이 있다. 출입문 안쪽에는 1972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양사기安養寺記」가 걸려 있다.² 비구니 스님인 대인스님의 창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 심검당

심검당尋劍堂은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대개 스님들의 수행 처인 선실이나 강원으로 이용된다. 안양사 심검당은 선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요사채에서 동북쪽으로 70m 정도의 거리에 있고 상원 불전 영역의 맨 앞에 배치되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3단의 장대석 계단형 기단 위에 원기둥을 사용하여 지었으며 초석礎石은 고복형敲腹形이다. 가운데 3칸은 강당 형식으로 불상을 모셨으며, 좌우 각각 1칸은 온돌방이다. 공포栱包는 연화형의 초익공식이고, 보樑머리와 주간에는 봉황머리의 안초공을 사용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하였으며, 전후 중앙 3칸은 4짝 교살청판분합交箭廳板分閤으로 하였고 좌우 협칸과 양 측면은 3짝 여닫이 교살분합으로 하였다. 이 건물은 1980년 6월 25일에 신축한 것이다.

(4) 대웅전

현재의 대웅전은 구 대웅전을 헐고 2004년 새로 지었으며, 심검당 북쪽에 위치하는데 축대를 쌓고 단을 높여 지었다.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대웅전의 규모는 현재와 동일한 정면 3칸, 측면 2칸이었으나, 익공식 건물로 1966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웅전은 가구식架構式 기단 위에 연화형 초석을 놓고 원기등을 세워 지었으며, 공포는 다포형식多包形式으로 2출목의 5포식이다. 기둥머리에는 전면은 용두로 안초공을 하였고, 후면은 용꼬리로 안초공을 하였다. 각 칸에는 2개씩은 간포가 놓였고 초제공과 이제공에는 연화를 화려하게 새겼다. 삼익공 아래에는 연봉을 새겼으며 보머리에는 봉황을 새겨 붙였다. 첨차檐遮, 添差는 교두형으로 장식은 없으며, 처마는 겹처마이고 팔작지붕이다. 용마루 양쪽에는 용두를 올려 장식했다. 전면 3칸에는 4짝 꽃살문을 달았고 위에는 교살광창이 있다. 출입은 좌우 측면의 외짝 꽃살문을 이용한다. 가구는 2평주 5량가이며 단청은 금단청이다. 불단은 가구식 목조수미단으로 하였고, 수미단은 좌우 측면까지 연장되었다. 청판의 조각이 매우 화려하다. 부처 위에는 3층 아좌자형 단집이 극히 화려하여 보궁은 좌우 측면까지 연결되어 있다. 전면 축대는 원래 2단의 화계식이었고 견치석 쌓기로 되어 있었으나, 한 단으로 하여 대웅전 앞마당을 넓혔다.



안양사 대웅전 및 내부 단집

(5) 범종각

대웅전 앞 남서쪽 20m에 위치한다. 범종에 ‘불기2529을축10월10일佛紀二五二九乙丑十月十日’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1985년에 주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범종각도 이때쯤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단은 원래 견치석 쌓기였으나 2004년 대웅전 전면 축대를 수리하면서 범종각의 기단도 장대석 기단으로 바꾸었다. 건물은 정면·측면 모두 단칸으로 정방형 평면이며, 초석은 연화형 위에 고복형을 새긴 장주초석이고 원기둥을 사용했다. 공포는 다포형식이지만 출목이 없으며 제공은 연화를 초각하여 화려하다. 지붕은 겹처마 사모지붕이며, 네 벽면은 홍살로 막았다. 창방昌枋, 昌防 아래에는 초엽이 있고 단청은 금단청이다. 내부에서는 덕량德樑을 사용하였고 덕량 위에 정井자형의 외기를 설치하여 서까래를 걸었으며, 서까래 아래에는 빗장장을 설치하였다. 범종은 기둥을 세우고 보를 걸친 별도의 가구 시설에 걸었다.

(6) 산신각

산신각은 2004년 대웅전과 함께 새로 지었다. 대웅전 북쪽 축대 위 동쪽에 있으며, 남향하고 있다. 원래 이 자리에는 1980년에 시멘트로 지은 맞배지붕의 정면 1칸, 측면 1칸의 삼성각이 있었다. 현 산신각은 원기둥을 사용했고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이며 장대석 기단 위에 원형초석을 사용했다. 공포는 초익공형식인데 익공의 모양이 연화두형으로 사례가 없는 형식이다. 보머리도 삼분두로 하여 침차를 포함해 고식기법을 사용했다. 처마는 전면은 겹처마이고 후면은 홑처마이며, 맞배 기와지붕으로 풍판은 없다.

(7) 나한전

기존의 천불전은 철거하고 자리를 옮겨 나한전을 산신각과 대칭으로 서쪽에 두어 산신각을 바라보고 동향으로 배치했다. 2012년 39.6㎡ 규모로 지었으며, 2017년에 단청했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며 자연석 외별대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으로 놓고 원기둥을 사용해 지었다. 공포는 1출목의 이익공형식二翼工形式인데 초제공初提拱은 양서형의 제공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익공 상하에는 연화와 연봉을 새겨 화려하게 장식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지붕은 맞배이고 좌우에 풍판이 있다. 전면 3칸에는

두 짝 여단이 교살청판분합문을 달았다.

(8) 안심당

방형 연못을 끼고 ‘ㄱ’자형의 블록건물이 있던 것을 규모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여 한식 목조로 2015년 개축하였다. 당호는 편안한 마음으로 쉰다는 의미로 안심당(安心堂)이라고 하였다. 외별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사용해 민도리집으로 지었으며, 가구는 3량가이고 홀처마이며 지붕은 막새가 있는 한식기와를 올렸다. 남쪽에 있는 온돌도 방형에서 원형으로 바꿨다.

(9) 미륵불

안양사 가장 북쪽에 세워진 20m 높이의 미륵입불로 시주자 명판에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 1976년에 조성된 것이다. 팔각의 높은 기단 위에 팔각의 가구식 대좌를 놓고 불상을 올렸는데, 대좌 청판석에는 역사상을 새겼다.

(10) 귀부와 부도(승탑)

귀부와 부도(승탑)는 대웅전 앞에 있으며, 귀부는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부도는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귀부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하지만, 원위치 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신과 이수는 결실된 상태이지만 비신 받침인 귀부는 잘 남아 있다. 고려시대 여느 부도와 같이 고부조로 하지는 않았으나 규모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귀치와 서기가 있고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모습은 한국인의 해학적 조형 철학이 그대로 배어 있다. 등에는 육각형의 등 무늬가 선명하며 비신 받침에는 비운문이 새겨 있다. 귀부 발에는 비늘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귀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귀부의 크기로 볼 때 비신의 규모가 짐작된다. 이 귀부는 원래부터 현재 위치는 아니고 절 뒷산의 거북골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 귀부의 전체적인 조각 수법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도는 현 불전 앞 골짜기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한다. 탑신석과 기단 중대석은 소실되었고, 기단석과 옥개석이 남아 있다. 기단석과 옥개석은 팔각이며,



안양사 귀부와 부도

기단석에는 복련이 새겨 있고 지붕돌은 기와 꼴이 선명하다. 그러나 귀꽃 장식이 화려하지 않고 지붕물매도 완만하게 표현되어 고려시대 일반적인 부도와는 다르다. 기단석과 옥개석 사이에는 고부조로 복련을 새긴 돌이 끼워져 있는데 조각기법으로 보아 같은 부도 부재는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조각 수법으로 미루어 고려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 현재 안양사지라고 부르는 유유산업 부지의 안양사가 고려 초에 건립된 것이므로 시기적으로는 마애석종과 함께 안양사지와 연관된 유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도는 원래 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수습한 것이라면, 귀부 역시 이 언저리에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현재 안양사 자리는 고려시대 안양사의 부도전 영역일 가능성도 있다.

2) 안양사지

현재 안양사의 중심 영역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 70m 거리의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석수동 214)에 안양사지가 있다. 안양사지는 통일신라 중초사지 위에 창건된 것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강당지와 승방지·동회랑지 등 건물지 8동이 확인되었고, 강당지 아래에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가 존재하는 사실도 확인하였다.⁴ 통일신라기 유적으로는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남아 있다. 중초사지 사역은 고려시대 안양사 유구 보호를 위해 조사하지 못하였다. 고려시대 안양사지는 근현대기에 유유산업이 들어오면서 훼손되었으나 그래도 일부분이지만 중심 영역의 건물이 확인되었다. 실제 사역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 이

후 유유산업 건물을 활용하여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 전시관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2023년에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안양이라는 지명이 안양사로부터 생겨난 것이므로 안양시를 상징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극락을 안양(安養) 또는 안락(安樂)이라고도 부르는데, 서방정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도인들의 방위개념이 개입된 이름이다. 고대 인도인들은 동쪽에 서서 앞쪽을 과거 뒤쪽을 미래라고 하였는데, 극락은 내세에 왕생할 세계이므로 서방에 있어야 했던 것이다. 경주 불국사의 극락전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이름이 안양문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양사는 고려 태조 때 창건되었는데 이는 고려 말 이송인이 쓴 「금주안양사탑중신기(衿州安養寺塔重新記)」⁵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태조는 국가 안위를 목적으로 여러 곳에 탑과 절을 세웠는데 안양사도 그중 하나이다. “태조가 정복을 위해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산 위에 구름이 다섯 가지 빛으로 채색을 이룬 것을 기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니 과연 한 늙은 중이 구름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름은 능정(能正)이라고 하였는데 뜻이 맞아 절을 세우게 되었다. 절의 남쪽에는 탑이 있으니 벽돌로 7층으로 쌓고 기와를 덮었으며 맨 아래층에는 빙 둘러서 12칸의 회랑을 만들고 벽마다 불·보살·천인상을 그렸으며 밖에 난간을 만들어 출입을 제한하게 하였다. 그 크고 화려한 규모가 다른 절에는 없었던 것이다”⁶ 이후 1381년(우왕 7)경에 탑을 중수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금주안양사탑중신기」에 자세히 실려 있다. “…… 최영은 어렸을 때 이곳에서 하루 유숙한 것이 인연이 되어 혜겸(惠謙)스님과 함께 탑을 중수하였는데 군납미(軍納米)와 장정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낙성식에는 임금이 내시 박원계(朴元桂)를 보내어 향(香)을 내리고 도승 1천 명으로써 성대하게 불사를 거행하여 사리 열두 개와 부처님 치아 한 개를 탑속에 안치하는 의식을 마쳤다.”⁷

이로 미루어 안양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고려 말까지 왕실의 지원 아래 비보사찰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내용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실려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안양사 옛터’라고 기록되어 있고, 『범우고(梵宇攷)』에서는 ‘지금은 폐사되었다’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안양사는 16세기 후반경에는 폐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발굴 결과 안양사지에서는 중문지, 전탑지, 금당지, 강당지, 승방지, 동서 회랑지가 확인되었다.⁸ 중문은 잡석지정으로 보면 정면 3칸과 측면 2칸으로 보이지만,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고려한다면 정면은 5칸이 되어야 한다. 중층 누문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전탑지에서는 규모와 기초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형태와 문양의 전軀, 塼들이 출토되어 전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정도이다.

금당은 사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기초인 잡석지정이 확인되었고, 초석과 기단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강당의 규모는 정면 9칸, 측면 4칸으로 확인되었으며, 내부 중앙에는 장대석으로 만든 설법단이 있다. 초석의 배열로 미루어 전후퇴 평면의 2고주 7량가 정도로 추정된다. 평면 모습으로는 황룡사 강당지와 유사한 정도이다.

강당지 동쪽에는 승방지가 연결해 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규모인데, 전후퇴 평면이며 간살의 크기는 강당보다는 작다. 발굴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서쪽에도 대칭으로 같은 규모의 승방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당과 양쪽 승방지가 거의 붙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좌우 승방은 강당과 함께 귀방[耳房] 구조의 평면을 이루어 있다. 양주 회암사지 강당과 유사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승방지는 강당 북쪽에 바로 연결해 있다. 초석 일부와 장대석 기단이 확인되었다. 노출된 초석으로 확인하면 정면 12칸, 측면 1칸의 건물로 추정된다. 승방지 측면이 단칸이고 강당과 매우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승방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남쪽과 좌우에서는 일부 회랑지가 발굴되었다. 측면은 1칸으로 단랑으로 구성된 회랑임을 알 수 있다. 유물로는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후기에 이르는 도자기와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안양사[安養寺] 명문기와와 벽돌편, 전탑에 사용했던 연봉, 귀면문 막새 등이 출토되어 화려한 치장의 7층 전탑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 고려 전 시기에 걸쳐 매우 흥성했던 사찰임을 알 수 있었다. 확인된 건물지로 보면 안양사는 가운데 전탑 1기를 두고 남쪽에 중문, 북쪽으로 금당과 강당·승방이 일직선 중심 축선에 배치된 1탑식 가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옆에는 본 사역에서 수습된 3층 석탑 1기가 남아 있는데,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탑이 무너진 이후 또는 중수하면서 탑의 배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안양사지는 발굴된 건물지 초석을 노출하여 정비하였고 역사공원으로 개방하고 있다.



안양사지 강당지와 동승방지



안양사지 중문지와 회랑지

3) 석수동 마애종

석수동 마애종은 안양사지 강당지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160m 거리의 석수동 산32번지에 위치해 있다. 암벽면에 범종과 범종을 치고 있는 승려를 부조 형태로 조각한 유적이다. 마애불 유적은 전국 곳곳에 많지만, 범종을 새긴 마애종 유적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종과 같이 용뉴龍鈕를 쇠사슬이 걸고 있는 모습과 음통音筒 조각이 사실적이며 상대와 연곽 및 연뢰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3개의 당좌撞座가 표현된 것은 특징적인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헤아린다면 4개의 당좌를 새긴 것이다. 또 원형의 자방 주위로 12엽의 복판으로 보이는 연판문을 새겼다. 당좌가 4개인 것과 8엽이 아닌 12엽으로 연판문을 새긴 것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므로 마애종은 고려시대에 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종신에는 비천상이나 주악상을 새기기 마련인데 마애종에는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전체적인 조각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고려시대 중에서도 이른 시기인 11세기 전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⁹



석수동 마애종 전경과 부조



마애종을 새긴 암반은 모암에서 약간 돌출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마애불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상부와 좌우 양쪽으로 암반을 치석하여 배수로를 설치했으며 전면에는 목조 보호각이 만들어져 있다. 목조 보호각은 두주초석 위에 4개의 원기둥을 세우고 초익공 형식으로 했다. 흠쳐마이며, 우진각 형태의 기와지붕을 얹었다.

4)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중초사지는 안양사지 아래에 있는 통일신라 후기의 유구층이다. 통일신라 중초사는 발굴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지상으로 노출된 이 시기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이다. 당간지주는 안양사지 초입인 중문지 서쪽에 있으며, 위치는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석수동 214)에 해당한다.

당간지주는 당龕을 걸었던 당간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개 두 개의 돌기둥을 세워 만든다.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에는 명문이 새겨 있어서 826년(신라 흥덕왕 원년) 8월 6일 채석하여 827년 2월 30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간지주가 이렇게 건립연대가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지대석과 원공



안양 증초사지 당간지주

명확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¹⁰ 두 지주의 간격은 85cm이고, 높이는 약 3.8m이다.¹¹ 소실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단석은 별도로 없으며, 지주 양쪽에 지대석 2매가 남아 있고 지주 사이에는 849×1881mm 크기의 간대가 있다. 간대 중앙에는 당간을 꽂았던 직경 330mm 정도의 원공이 있으며, 원공 외곽은 위로 도드라지게 했다. 양쪽 지주에는 대칭으로 위쪽에는 간구가 세로로 길게 파여 있고, 그 아래에는 각각 두 개씩은 간공이 뚫려 있다. 서측 지주 뒷면에는 명문이 새겨 있다.

2. 삼막사

1) 배치

삼막사는 관악산의 한 줄기인 삼성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320m 떨어진 서쪽 높은 능선에 위치한다. 능선의 경사가 서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도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은 서향으로 배치되었다. 주소지로는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78(석수동 241-54)에 해당한다. 경인교육대학 우측도로를 타고 서북쪽으로 오르다가 삼막천을 건너면 이곳부터가 삼막사 입구이다. 이곳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3km 오르면 삼막사가 나타나는데 서북 모서리 초입에는 일주문이 있다. 여기서 북쪽의 한 갈래는 반월암으로 통하는 길이다. 일주문은 근래에 지은 것으로 일주문부터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좌측은 계단을 통해 망해루에 이르는 보행로이고 우측은 남쪽의 천불전에 이르는 차도이다. 원래는 일주문으로 통하는 계단이 주 출입구였을 것이다.

망해루가 맨 앞에 있고 망해루를 통해 오르면 대웅전의 자리에 현재 육관음전이 있고 그 좌우에는 명부전과 요사채가 배치되었다. 망해루는 1398년 무학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부전과 대웅전도 조선 후기의 건물이므로, 지금과 같은 산지중정형 山地中庭形 배치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망해루는 막혀 있지 않은 누문 형식으로 누각 아래를 통해서 대웅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중정형에서는 좌우에 선당과 승당이 오기 마련인데 삼막사는 우측에 불전인 명부전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처음부터 불전이었는지는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망해루 북쪽에는 범종각이 있는데, 이것은 1993년에 건립한 것으로 원래 범종은 망해루에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정형 중심영역 동남쪽 언덕 아래에는 천불전이 있는데, 1998년에 건립된 것



일주문에서 망해루로 통하는 계단



삼막사 중심 사역

으로 원래 사역을 구성하는 건물은 아니었다.

천불전 뒤쪽 암반 위에는 3층석탑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1837년 만들어진 물을 담 아두는 감로정甘露井이라는 석조가 있다. 따라서 이 주변에 수각이나 요사채 관련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감로정 옆에는 석등 지대석으로 추정되는 석조유물이 있으며, 대웅전 옆에는 하인방下引防 구멍이 치석된 제법 큰 초석 유물이 여러 개 있다. 중요 불전에 사용되었던 초석으로 추정되는데, 원위치를 알 수 없어서 어떤 건물에 사용되었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석탑과 석조·초석들이 망해루와 대웅전·명부전과 함께 조선시대 삼막사 중심영역을 구성하는 주요한 유적들임을 알 수 있다. 남 쪽으로 별도 영역에 등곡대 석굴과 칠보전 마애삼존불이 있었다. 그리고 근대기에 원효 굴 아래에 백련암과 삼귀자가 조성되었다. 현재는 백련암 서쪽 아래단에 주차장과 한식 화장실이 건축되었다.

2) 건축물의 특성

(1) 일주문

사찰 입구인 망해루 계단 아래에 2013년 세웠으며 다포多包 형식의 맞배형 일주문이다. 외별대 화강석 기단을 만들었으나 도로 면과 높이가 같고 바닥에 화강석 판석을 깔았다. 좌우 초석은 원형 화강석 초석으로 운두가 높고 궁궐에서 주로 사용 하였던 모습이다. 기둥은 원기둥이며 굽은 창방과 평방을 정井자 형태로 짜올렸는데 네 귀에는 원형 보조기둥을 세웠다. 보조기둥의 초석은 사다리형 팔각 장주초석을 사용했다. 앞뒤 평방 위에는 각각 주두柱料, 柱頭를 3개씩 놓고 공포栱包를 올렸다. 공포는 내3출목 외2출목으로 첨차는 교두형이며, 살미는 초제공과 이제공은 앙서형으로 하고 그 위에 삼익공과 운공을 두었다. 내출목 사이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였고 지붕은 겹처마이며 맞배지붕이고 풍판이 있다. 기와는 한식 점토기와를 사용하였고 막새가 있다. 단청은 금단청이며 주의초가 있다. 일주문 바



일주문 배면의 불이문 현판



삼막사 일주문

깎쪽에는 ‘삼성산삼막사三聖山三幕寺’라는 편액을 걸었고, 안쪽에는 ‘불이문不二門’이라고 새긴 현판을 걸었다. 편액은 모두 모판형이며 복판과 테두리는 모두 먹으로 칠하였고 금씨는 금색이다. 편액으로 보아 일주문과 불이문이 역할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망해루

망해루는 1398년(태조 7)에 무학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서 쪽으로 바다가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는 벽이 없는 누각이었으나 1976년 벽을 막아 실室로 바꾸었다. 건물도 목서에 따르면 ‘불기2519년음5월20일佛紀二五一九年陰五月二十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973년에 중건된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² 그러나 서쪽 면의 평주와 고주열에는 장주초석이 남아 있어서 중건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건물은 2003년에 새로 지은 것인데, 서쪽의 장주초석은 그대로 활용하고 동쪽의 평주와 고주초석은 모두 팔각초석으로 바꾸었다. 상부의 목재와 마감도 모두 새로 교체하여 옛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남아 있는 장주초석으로 미루어 초창 때는 산지중정형 배치로 망해루는 누문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막사 망해루

현재 중정 마당에서는 단층으로 보이고 서쪽 외부에서는 중층 누각으로 보인다. 하층 천장이면서 상층 바닥인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하고 외별대 기단을 만들었다. 건물은 2고주 5량가의 정면 5칸, 측면 3칸의 전후퇴집이다. 초석은 내부 평주열과 고주열은 사다리형 팔각초석이며, 외부 누각 부분은 옛 장주초석을 그대로 활용했다. 기둥은 굵은 원기둥이며 공포는 1출목이 있는 이익공형식으로 익공의 모습은 양서형의 제공을 사용했으며 양서 위에는 화려하게 연화를 새겼다. 출목첨차도 양서형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간에는 화반을 배치했는데 주심첨차도 화반 모습과 같이었다는 것이 특이하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맞배지붕이고 막새를 사용했다. 좌우 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했다. 전면 5칸에는 모두



망해루 전면

두짝 여닫이 교살청판분합문을 달았고 각 칸마다 디딤석을 놓았다. 양 측면은 머름이 있는 판벽으로 처리했으며, 서쪽 배면은 상층은 머름이 있고 머름 위에 두짝 세살창을 달았다. 하층은 토벽으로 막았는데, 중앙 칸에만 판문을 설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초창 때의 모습으로 누문으로 하고 사물四物을 거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3) 명부전

명부전은 중생의 죄를 심판하는 시왕과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모셔진 전각이다. 이러한 전각을 시왕전, 지장전이라고도 부른다. 삼막사 명부전은 1880년 주지 의민스님이 증건한 것이며, 1975년 주지 이지환 스님이 수리하였다. 전각에는 명왕전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으며 1985년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다. 명부전은 망해루 향 좌측에 놓여 남향하고 있다. 세별대 장대석 기단 위에 상면만 다듬은 자연석 초석을 놓고 세웠는데, 기단

명부전 공포



중앙에서는 장대석 계단이 있다.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했으며 공포는 1출목 익공형식으로 초익공과 이익공은 양서형의 제공형식이며 제공 위와 아래에 연화를 화려하게 조각했다. 공포 가장 위에는 외출목 장혀와 직교하여 연화형 운공을 사용했다. 첨차는 연화형이며, 대주두와 소주두를 사용했다. 창방은 모서리를 많이 굴린 방형이며 세장한 느낌이다. 주간에는 화반을 놓았는데 화반 중앙에는 소로를 두어 주심 장혀(장여)를 받도록 했다. 배면에서는 동자주형 화반을 사용하여 전면과 달리 했다. 측면도 외출목과 장혀가 있으며 공포의 구성은 전면과 같으며 주간에는 배면과 같이 동자주형 화반을 사용했다.

가구는 내부는 2평주 5량가이지만 양측면은 3평주 5량가이다. 측면 가구법이 특별한 것은 외출목상에 맞보를 걸고 맞보 아래에 장혀를 두어 공포가 받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주심상에는 춤이 높은 인방재를 사용하여 주심첨차와 동자주화반이 받치도록 했고 그 아래에는 창방이 있다. 주심이 아닌 출목에 보를 건 것은 다른 건물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성법이다. 정면과 배면은 열금단청(금모로단청)이며 좌우측면은 굿기단청이다. 전면 3칸에는 각각 디딤석을 두었으며 기둥 사이에는 4짝 여닫이 교살청판분합을 달았다. 좌우 측면과 배면의 벽은 용지판 없이 벽 전체를 자연석 화방벽으로 했는데 화방벽은 창방 아래까지 설치했다. 좌우 화방벽은 상부를 와편장식으로 했다. 처마는 전면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인데 배면은 홑처마이다. 지붕은 좌우에 풍판이 있으며 맞배이고 막새기와를 사용했다.

(4) 육관음전

육관음전은 1990년 대웅전이 화재로 소실되어 그 자리에 1992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원래 대웅전과 대웅전 안에 있었던 동종은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화재로 소실되어 1991년 지정해제되었다. 원래 대웅전도 팔각석주를 사용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맞배 건물이었는데 새로 지은 육관음전도 규모와 모양을 같이 했다. 다만 모든 부재는 새로 교체된 것이며, 기단은 원래 장대석 기단이었으나 가구식 기단으로 바뀌었다.

기단은 꽤 높는데 하단에 이중으로 지대석을 놓고 동자주를 세웠으며 동자주 사이에는 청판석을 끼웠다. 청판석은 3매를 연결한 것인데 방형의 궁판을 새겼다. 청판석 위에는 갑석을 덮었으며 이중으로 눈썹을 두고 쇠시리 처리를 했다. 갑석 위에는 돌난간을 설치했는데 원형의 동자주석을 세우고 동자주석 사이에는 2개씩 하엽석을 두어 돌난간

를 받치도록 했다. 동자주석 머리에는 연봉을 새겼다.

육관음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2고주 5량가인데, 기둥은 모두 이전과 같이 팔각석주를 사용했다. 석주의 직경이 커서 매우 묵직한 느낌이다. 화강석 외별대 기단을 사용했고 초석은 복련이 새겨진 화강석 원형초석이다. 기둥 머리에는 창방을 걸고 창방 위에 평방을 놓고 공포를 올렸다. 공포는 다포형식으로 칸마다 각각 간포를 하나씩 배치했다. 공포는 외2출목이며 초제공과 이제공은 앙서형이고 익공은 연화형으로 했다. 첨차는 교두형인데 다른 건물에 비해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지붕은 겹처마이며 풍판이 있는 맞배지붕으로 기와는 막새가 있는 청기와를 올려 화려하게 했다. 전면 3칸에는 모두 4짝 여닫이 만살청판분합을 달았으며, 좌우 측면 전면에는 외짝 여닫이 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청은 금단청인데 평방은 머리초 없이 금문으로 모두 채운 것이 특징적이며, 풍판을

석간주가 아닌 뇌록색으로 칠했다는 것과 박공을 머리초가 있는 모로단청으로 했다는 것은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단청 형식이다. 좌우 측면 종보 이상은 굿기단



육관음전과 공포



청으로 했다. 원래 대웅전은 창건 당시부터 있던 것이며 무학대사가 석조기둥으로 중창하였다고 한다. 또 대웅전과 관련된 두 개의 중수기가 있는데 이를 통해 1896년에 응월대사, 1922년에 주지 심계화가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대웅전 내에 있었던 동종은 1625년 주조된 것이었는데 화재로 소실되고 일부 파편이 망해루에 보관되어 있다.¹³

(5) 천불전

1998년 새로 지은 불전으로, 삼막사 요사채 동남쪽에 위치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지만 삼막사에서는 가장 넓고 웅장한 불전이다. 기단은 4별대의 장대석 기단이지만 맨 아랫단과 윗단을 약간 밖으로 돌출시켰고, 윗단은 장대석을 춤이 낮고 긴 것을 사용하여 마치 가구식 기단처럼 보인다. 기단 전면 중앙에는 한 칸 폭으로 우석이 있는 장대석 계단을 설치했다. 초석은 초반이 있는 원형초석을 사용했는데 운두가 높다. 초석 사이에는



천불전과 내부



장대석 판석으로 고택이석을 사용했고 각 칸마다 디딤돌을 놓았다.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했으며, 공포는 각 칸마다 간포가 2개씩 놓인 외2출목 다포형식이며 처마는 겹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으로 동기와를 올렸다.

가구는 2평주 5량가로 좌우 측면에서는 중앙에 층량을 걸었다. 살미는 초제공과 이제공, 삼익공과 사운공으로 구성되는데, 제공은 양서형으로 춤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익공은 둔탁한 구름모양이며 운공은 봉황머리 모양으로 했다. 첨차는 하단을 사절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청은 금단청인데 평방은 머리초 없이 모두 금문으로 했으며, 살미도 당초가 아닌 싸리문으로 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면은 3칸 모두 4짝 교살의 여단이 청판분합문을 달았으며 좌우 측면 전면에는 외작 교살청판문을 달아 출입하도록 했다. 전면 3칸에는 모두 광창을 두었으며, 나머지 좌우와 배면은 회벽으로 하였다. 내부에는 삼불을 모셨는데, 중앙은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이다. 삼불 배면과 좌우 측면에는 여러 단의 불단을 두고 천불을 모셨다. 삼불 위에는 보궁형 단집이 설치되었다. 내부 천장은 종보 높이에서는 우물천장으로 했고 퇴칸 쪽은 빗반자로 했다.

(6) 요사채

기존 요사채를 철거하고 1996년 새로 지었으나, 2022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망해루 동남쪽에 위치하며 서향하고 있다. 정면은 5칸이며 측면은 중앙칸 2칸에 전후퇴가 있는 4칸 건물이다. 남쪽 퇴칸에는 날개채를 한 칸 전면으로 돌출시켜 날개가 짧은 ‘ㄱ’자형 평면이다. 기단은 3벌대 장대석 기단인데 갑석을 약간 밖으로 돌출시켰다. 초석은 원형의 화강석 초석으로 장식이 없으며, 운두만으로 구성되었고 높다. 기둥은 외부 평주는 원기둥이고 내부 고주는 방주이다. 공포는 이익공으로 보이지만 초익공 형식이다. 기둥머리 사갈에서 장혀형의 창방을 걸고 이와 직교하여 초익공을 설치했다. 기둥 위에는 주두를 두고 주두 위에서 보와 장혀 및 도리를 걸었는데, 이익공은 외부에서만 보머리에 붙인 것이다. 창방과 장혀 사이에는 소로를 배치한 소로수장집이다. 처마는 부연이 없는 홑처마 팔작지붕이며 기와는 동기와를 얹었다. 단청은 모로단청이다.

(7) 삼층석탑

이 석탑은 1232년 김윤후가 몽고 장군 살리타이[撒禮塔]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라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석탑 양식으로 미루어 고려 후기로 추정되므로 시기는 비슷할 수 있으나 창건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석탑의 위치는 천불전 배면 언덕의 자연 암반 위에 있다. 일반적인 불탑이라면 대웅전과 망해루 사이 중정 마당에 있어야 하지만 대웅전 뒤쪽 암반 위에 세웠다는 것은 일반적인 탑의 성격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보사찰의 경우 탑의 위치가 불전 영역과 관계없이 물가나 높은 곳에 세우는 경향으로 미루어 본다면 삼막사의 삼층석탑도 비보석탑 성격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삼막사사적기」에 삼막사가 비보사찰로 건립되었다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¹⁴

석탑은 1983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상륜부와 3층 탑신은 1979년 이지환 주지스님이 새로 보충하여 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탑은 이중 기단 위에 3층석탑으로 조성되었는데, 전체 높이가 2.4m 정도로 작은 탑에 속한다. 암반 위에 4개의 지대석을 놓고 기단석을 올렸는데 하층기단은 높이가 낮으며 4개의 돌로 만들었다. 그 위에 기단 갑석은 2매의 판석을 올려 만들었다. 상층 기단 면석은 판석 4개를 세워 만들었으며 중앙과 양측면에 탕주를 조각하였다. 상층기단 갑석은 단일 판석으로 만들었다. 1층부터 3층까지의

삼막사 삼층석탑





감로정



석등대석

탑신석은 모두 단일석으로 만들었고 약하게 탱주가 새겨 있다. 그러나 2층 탑신은 확실하지 않으며 제짝이 아닐 수도 있다. 1~3층의 옥개석은 모두 단일석이고 3단의 옥개받침으로 일정하다.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 옥개석이 두꺼운 신라석탑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8) 월암당과 연지

월암당은 망해루에서 100m 지점에 위치하며 2000년에 새로 지었다. 지금의 월암당 자리는 지석영의 형인 지운영이 은거했던 곳이다. 1910년대부터 은거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1977년에 대홍수로 유실되어 터만 남아 있던 것을 2000년에 새로 지었다. 동국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한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 월암月庵 정대선사正大禪師가 사용했으며, 정대선사는 2003년 11월 18일 이곳에서 열반하였다.

월암당은 낮은 가구식기단 위에 지었는데 가구식기단의 탱주석과 면석은 별석이 아니라 새김한 것이다. 초석은 원형초석이며 방형의 초반이 있다. 운두가 외만한 곡선을 이루며 운두만 있는 비교적 높은 초석이다. 규모는 정면은 4칸이고 측면 3칸인데 정칸 2칸에 전퇴가 있는 형식이며, 남쪽 퇴칸에는 반 칸을 앞쪽으로 달아내 전체적으로 약한 ‘ㄱ’자형 평면을 이룬다. 기둥은 원기둥이며 공포는 초식공 형식으로 창방과 장혀 사이에는 소로가 일정 간격으로 놓인 소로수장집이다. 굴도리를 사용했으며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기와는 동기와를 사용했다. 선당 남쪽으로는 원형의 작은 연지가 있는데 지운영이 은거할 당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새로 수리하였다. 등곡대석굴이 있는 사면에서 흐르는 물을 모았다가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선당 배면에는 등곡대로 오르는 길목에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산신을 암반에 새긴 마애산신각이 있다.

(9) 등곡대석굴



등곡대석굴

망해루에서 남남동으로 116m 위치의 암반 위에 있다. 백련암 배면 암반에 해당하며 석굴과 백련암 사이에는 누각이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장주초석이 남아 있다. 석굴로 오르면 초입의 암반에 ‘등곡대(燈谷臺)’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서 계단을 오르면 남향하여 석굴이 있다. 자연스럽게 조성된 두 암반 사이에 석굴을 꾸몄는데 암반 사이에 이맷돌을 건너질러 지붕을 덮고 그 안에 석불을 모셨다. 현재는 석굴 위에 목조 보호각을 조성하여 놓았다. 2017년에 조성한 보호각은 짧게 기둥을 세워 맞배지붕을 씌웠는데 사방 단칸이다. 기둥 위에 평방을 올리고 주두를 놓고 앞뒤로 보를 걸었으며 평방 위에는 장혀와 굴도리가 맞닿아 있다. 지붕은 전면은 겹처마이고 배면은 홑처마이며, 박공만 있는 맞배지붕으로 막새가 있는 기와를 올렸다. 전면에는 ‘원효굴(元曉窟)’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10) 사적비

백련암 남쪽 언덕 위에 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비문에 관악산 산줄기가 연결된 삼성산 아래에 있는 삼막사의 좌측 향로봉(香爐峰)에 있다고 하였다.

조성연대는 1707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주자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이 비문에 따르면 삼막사는 원효대사가 7세기에 터를 잡아 띠집을 지어 수도하는 곳으로, 창건한 이후 도선국사가 고쳐 지어 관음사라고 하였으며, 고려 말기에는 지공선사와 나옹선사가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방향의 대석



사적비

위에 비신을 세웠으며 옥개석은 팔지지붕 모양으로 장식이 거의 없고 소박한 비석이다.

(11) 삼귀자

명문을 통해 지운영이 백련암에 은거할 당시 새긴 것이다.

북향한 암벽을 214×105cm 크기의 장방형으로 파고 들어가 각자 면을 다듬은 다음 귀龜자를 정자, 초서, 상형 글씨체로 각각 새겼다.

각자 서두와 말미의 기록으로 미루어 지운영이 백련암에 은거할 때 꿈에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장수를 뜻하는 의미에서 1920년에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삼귀자(위), 마애산신각(아래)

(12) 칠보전과 마애삼존불

망해루에서 남쪽으로 266m 거리에 위치하여 삼막사 본 사역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삼막사 마애삼존불은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 바위 절벽을 다듬은 다음 중앙에 치성광여래,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새겼다. 치성광여래는 북극성을 상징하는 부처님으로 무병장수와 자손 번창을 상징한다. 원래 민속신앙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칠성신은 불전 뒤쪽에 칠성각을 지어 탕화로 모시는 것이 보통이다. 칠성신을 모신 전각을 보통 칠성각이라고 하는데 삼막사는 칠보전七寶殿이라는 편액을 붙여 놓았다. 그러나 바위 벽면에는 “1763년(영조 39)에 승려 오심梧心이 서세준徐世俊의 시주에 의해 마애불을 조성하고 이듬해 칠성전을 지었다”는 각자와 “1881년(고종 18)에 칠성각을 고쳐 지었다”는 명문이 남아 있어서, 원래 명칭은 다른 전각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칠성신을 불화가 아닌 마애불로 조성한 것은 매우 드



삼막사 칠보전



삼막사 마애삼존불

문 일이다.

마애삼존불의 보호각 겸 불전 역할을 하는 건물이 마애불 위에 지어져 있다. 편액이 칠보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호각을 칠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칠보전은 암반의 경사에 따라 두 단의 계단식으로 지어졌는데, 암반 쪽 배면은 맞배지붕이고 전면은 우진각지붕이다. 전면 평주 2개만 장주초석을

사용했으며 다른 기둥들은 암반에 직접 세웠다. 정면 1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전면에는 소맷돌이 있는 돌계단을 두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했으며 공포는 익공형식인데 기둥머리에서 창방과 초익공이 직교하여 결구되었다. 기둥 위에는 주두를 놓고 장혀와 도리를 걸었는데 모서리에서는 장혀 뺄목을 운공으로 하였으며 구간에서는 정면에 3개, 측면에 2개씩의 운공을 두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단청은 금단

청이다. 창방과 도리 계풍에는 별화를 그렸으며 서까래 계풍에는 고사리문을 그린 것이 특징적이다. 전면에는 2짝 여단이 판문을 달았고, 벽은 판벽으로 했다. 현재의 칠보전은 1939년에 중수가 있었고, 2019년에 지붕 수리가 있었다. 2020년에는 주변에 박석을 깔았으며 난간을 교체하고 계단 등 주변 정비 공사가 있었다.

(13) 남녀근석

칠보전 서북쪽 가까이에 위치하며 경기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연암반의 모양이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교와 관계없는 민간신앙 유적으로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바위를 만지면 자식을 낳고 무병장수한다고 하여 4월 초파일과 7월 칠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선사시대부터 다산과 풍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성기숭배 사상은 동양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었다. 경주의 여근곡 신앙이나 해신당에 남근을 모시는 것 등도 같은 맥락의 민간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3. 망해암

1) 배치

망해암은 용주사의 말사로 비봉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1km 정도의 관악산 남쪽 줄기에 위치한다. 주소지로는 만안구 임곡로 245이며, 경수대로 대림사거리에서 동쪽으로 들어서 임곡중학교에 이르면 여기서부터는 산길을 타고 오른다. 현재 남아 있는 사적비에 따르면 망해암은 655년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인연을 갖고 유지되어 왔다. 1803년(순조 3)에는 흥 대비(洪大妃)가 재물을 내 중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흥 대비는 혜경궁 홍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남편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달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1863년(철종 14) 대련(大蓮) 주지스님이 중창하였고, 1922년 화재로 전소된 것을 1926년에 법당과 요사채를 중건했다. 1939년에는 용화전을 중건하고 1940년에는 대방을 중수하였으나 6·25전쟁으로 또다시 전소했다. 전후 1952년에 용화전을 가장 먼저 복원하였으며, 이후 1979년 범종각, 1987년 오층석탑, 1996년

관음전과 삼성각, 2004년 종무소, 2010년에 천불전과 지장전 등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용화전과 천불전 사이 암반에는 샘물이 있다.

원효대사의 창건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 및 기록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으나,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는 용화전 안에 모셔진 석조여래입상이 있다. 고려시대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륵불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부터는 사찰이 존속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풍량을 만난 선원들이 미륵불의 중생구원의 자비를 받은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찰이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형국이 매우 작고 바위 암반에 기대어 있어서 용화전을 중심으로 한 작은 암자 정도의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원의 배치를 논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6·25 이후 중건하면서 천불전과 종무소가 마당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배치되고 서북쪽으로 용화전과 삼성각이 위치하게 되었다. 암반 아래에 용화전 하나만 있던 사찰의 모습에서 중심이 천불전으로 옮겨 가고 가운데 마당을 갖춘 모습으로 변화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터가 워낙 작고 험지여서 사찰의 배치형국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건축물의 특성

(1) 용화전



용화전 석조여래입상

망해암에서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중심불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망해암은 1922년 화재로 모든 건물이 소실되어 다시 지었는데 6·25로 또다시 폐허가 되어 이후 중건하였다. 용화전은 1952년에 지은 것으로 가장 빨리 복구한 건물 중 하나이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외벌대 화강석 장대석 기단 위에 반구형의 원형초석을 놓고 건물을 지었다. 기둥은 원기둥이며 공포는 이익공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익공(翼工)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데 초익공은 양서형이며 연화가 조각되어 있다. 초익공은 창방과 직교하는데 창방의 폭은 장혀와 같으며 춤은 일반적인 창방에 비해 높다. 기둥머리 위에는 대주두를 놓고 이익공과 주심첨차가 직교하여 만나게



오층석탑과 용화전

했다. 일반적인 익공형식에서는 창방과 장혀 사이가 가깝고 소로 정도를 받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화반 높이로 주심첨차를 사용했다. 주간에는 화반을 두었는데 주심첨차와 모양과 크기가 같다. 화반에도 보 방향으로 제공^{提拱}, 諸貢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며, 제공 위에는 장혀와 직교하여 주심과 같이 봉황머리 모양의 운공^{雲空}을 두었다. 마치 간포와 같은 느낌으로 매우 특징적인 공포형식이다. 주심에서도 이익공과 주심첨차가 교차되는 부분에 소주두를 두고 그 위에 운공과 장혀를 직교하여 만나게 했다. 그 위에 도리와 보를 같은 높이로 걸었다. 도리는 굴도리이며 보통 굴도리보다 직경이 큰 편이다. 정간 좌우 평주머리에는 용머리 모양의 운공을 설치했다. 정면에서는 좌우 창방과 장혀 뿔목을 보 방향과 같이 양서형의 제공 모양으로 조각했다. 측면과 배면은 익공 없이 기둥이 보 밑까지 올라가 높고 민도리형식으로 처리하였다. 정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처마는 정면과 양 측면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며 배면은 홑처마이다. 지붕은 팔작으로 막새기와를 이었다. 정면은 교살 여닫이 청판분합을 달았는데 교살 바깥쪽에 판재로

조각하여 불인 꽃살창으로 장식하였다. 측면 전면 칸에는 외짝 여닫이를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청은 금단청이며, 측면과 배면의 회벽에는 불화를 그렸다.

불전 내에는 석조여래입상과 좌상을 각각 한 존씩 모셨다. 머리 위에는 둥근 갓을 쓰고 있으며, 전체 높이는 240cm 정도인데 하단은 마루 밑에 묻혀 있다. 머리와 갓은 흑칠, 상호와 신체 부위에는 분칠이 되어 있었으나 근래에 벗겨서 석질이 드러나도록 했다. 법의는 통견으로 두껍게 처리하여 신체가 드러나지 않으며 수인은 왼손은 가슴 앞으로 올려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내장하였으며 오른손은 오른쪽 다리로 내려 외장하였다. 석불은 미륵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각의 내용으로 미루어 조성연대는 고려시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¹⁵ 미륵불에 의해 정화되고 새로운 불국토의 용화세계를 상징하여 용화전이라고 한 것이다. 미륵불을 모신 전각을 미륵전이라고도 한다. 미륵불은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미래의 부처를 말하며, 자씨존이라고도 한다. 미륵석불입상이 있어서 용화전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미륵입상 동쪽으로 작은 석조여래좌상이 있는데 머리는 먹으로 칠해져 있다. 전체적으로 머리와 팔다리 등의 비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화전 전면의 축대 아래에는 2층 평슬래브 콘크리트 건물이 있으며 승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화전 전면 석축을 정비하기 전에는 3층 건물이었으나, 정비 후 용화전보다 높지 않도록 한 층을 철거하여 2층이 되었다.

(2) 삼성각

삼성각은 용화전의 서북쪽으로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불교에서 민간신앙을 흡수하면서 지어진 건물 중 하나인 삼성각은 산신과 칠성, 독성을 함께 모신 전각을 가리킨다. 삼성각은 대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불전의 배면인 머리 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망해암의 삼성각은 1996년에 지은 것이며, 같은 시기에 제작된 탕화가 봉안되어 있다. 경사지를 이용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기단이 매우 높으며 화강석 판석을 붙여 마감하였다. 다만 최상층 갑석 한 단만 장대석을 사용했고 밖으로 약간 돌출시켜 처리했다.

초석은 운두가 높고 외만한 원형초석을 사용했으며 기둥은 원기둥이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3량가이고 공포는 1출목 익공형식이다. 창방과 직교하는 초익공은 앙서형이며 연화가 조각되었다. 이익공은 쇠서형[牛舌形]이고 하단에 연봉이 조각되었다. 주심첨차와 출목첨차가 연화두형이라는 것이 특징이며, 대주두와 소주두를 사용하였고 승어턱 보머리에 도리는 굴도리이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지붕은 양쪽에 풍판이 있는 맞



망해암 삼성각과 공포

배지붕이고 막새를 사용하였다. 단청은 금단청이다. 전면 3칸에는 교살 두 짝 여닫이 청 판문을 달았으며 좌우 측면과 배면의 상부 회벽에는 불화를 그렸다.

(3) 천불전과 지장전

천불전과 지장전은 2010년에 관음전과 범종각, 승당을 헐고 그 자리에 지은 것이다. 1층은 콘크리트 라멘(Rahmen) 구조의 평슬래브 건물로, 지장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배면으로 갈수록 바위 암반이 있어서 층고를 낮게 처리하였다. 콘크리트 보가 양 측면에서는 뿔목으로 빠져나와 창방 및 평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



망해암 천불전과 지장전

며, 목조와 같이 모로단청하였다. 정면 중앙간에 2짝 여닫이 빗살문을 달아 출입하고 있으며 양쪽 협간에는 중방 상부에 2짝 여닫이 창을 달았다. 창호는 모두 목조로 했으며, 벽은 중방 하부는 전벽돌이고 상부는 회벽으로 마감했다.

정면 양쪽에서는 증상으로 모여 오르는 돌계단을 두어 2층 천불전으로 오르도록 했다. 천불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며 다포형식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 바닥은 판석으로 마감했으며, 초석은 운두가 높은 화강석 원형초석이고 기둥은 원기둥이다. 기둥머리에서는 창방과 평방을 걸었고 주칸의 규모는 5칸이 동일하다. 평방 위에 주두를 놓고 공포를 짜 올렸는데 주간에 간포가 하나씩 있는 다포형식이다. 공포형식은 외2출목의 5포형식이며, 초제공과 이제공은 양서형이고 삼익공과 사운공이 있다. 운공은 장혀와 십자로 결구되어 도리를 받치고 있다. 정칸 좌우 기둥머리에는 용머리로 조각한 안초공이 있다. 첨차는 교두형으로 사용했으며, 포벽에는 불화를 그렸다. 공포형식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 양쪽에는 풍판이 있으며 처마는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고 지붕형식은 맞배이며 막새기와를 사용했다. 단청은 계풍(界風)에 연화를 그린 금단청이며 평방에는 직휘(直暉)가 없다.

원래 천불전 자리에 있던 관음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건물이었으나 규모가 작았고 1996년 건립한 것이었다. 관음전 동쪽에 있던 범종각은 1979년에 지은 것으로

단칸 건물로 모임지붕집이었다. 관음전과 범종각 아랫단에는 ‘ㄱ’자형의 2동의 민가형 요사채가 있었으나 천불전을 지으면서 같이 철거되었다.

(4) 종무소

종무소는 마당에서는 단층으로 보이지만 전면에 경사를 이용하여 2층의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 따라서 종무소 전체는 3층이며 1~2층은 콘크리트 구조이고 3층은 한식목구조이다. 종무소는 2008년 지었으며 1~2층은 콘크리트 라멘구조의 평슬래브 건물이다. 벽체는 붉은 벽돌로 마감하였다. 슬래브 사방으로는 돌난간을 두르고 그 안에 외별대 기단을 설치하여 목조로 3층을 지었다. 3층은 정면 8칸, 측면 2칸이며 서쪽 2칸은 북쪽으로 2칸의 날개를 돌출시킨 ‘ㄱ’자 평면이다.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기둥머리의 창방은 방형으로 인방형이며 창방 위에는 소로를 두고 장혀와 도리를 받도록 한 소로수장집이다. 창방 뿔목은 주간에서는 운공형으로 조각했으나 모서리에서는 직절했다. 처마는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며, 팔작지붕으로 막새기와를 사용했다. 정면 각 칸에는 2짝 여닫이 청판세살문을 달았으며 안쪽에는 미닫이 영창이 있다. 단청은 하지 않았으며, 서까래와 부연^{附椽} 말구를 흰색으로 칠했다.



망해암 종무소

(5) 오층석탑과 석등

석탑과 석등은 삼성각과 용화전 사이에 있으며, 1987년에 조성한 것이다. 오층석탑은 4.4m 높이며, 4매의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한 단 놓고 통돌로 기단석을 놓았다. 기단은 단층이며 기단 갑석은 방형 통돌로 옥개 부분은 사선으로 처리했다. 각층 탑신과 옥개석은 단일석으로 올렸는데 탑신석은 사방에 우주와 하방 및 상방을 새김하였다. 옥개석은 두껍고 추녀가 살짝 들려 올라간 모습으로 조각했으며 층급받침은 없다. 상륜 부분은 노반에 보주를 올린 정도로 간략하다. 석등은 2m로 규모가 작으며 간주석에 팔각 통돌 화사석을 올린 정도의 석재상에서 기성으로 만들어 파는 정도의 보편적인 것이다.

4. 염불사

1) 배치

염불사는 926년 고려 태조가 능정(能正)스님이 수행하던 곳에 창건하여 안흥사(安興寺)라고 불렀다.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삼성산의 여러 사찰 이름 중에 안흥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1757년 발간된 『여지도서』와 1799년 간행된 『범우고』에는 모두 염불암이라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염불사는 고려 때 창건하여 조선 전기까지는 안흥사라고 불렀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염불암이라고 명명했음을 알 수 있다.¹⁶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후의 변화과정은 1928년 건립한 ‘관악삼성산 염불암사적비’와 2003년 건립한 ‘염불암중창불사공덕비’를 통해 개략을 알 수 있다.

염불사는 삼성산에서 남서쪽으로 약 925m 거리의 능선에 위치한다. 주소는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번길 150이며, 삼막사 남쪽 675m 거리이다. 사찰은 능선을 타고 있으며, 대웅전 뒤로는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 절경을 이룬다. 사찰은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약간 틀어진 남향으로 배치하였으며, 대웅전 앞에도 높은 축대가 있어서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축대의 축조연대도 조선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본적인 골격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웅전에 오르는 계단 초입 하단에는 1993년 건립한 만휴당이라는 요사채가 있는데 승당을 겸하고 있다. 계단을 오르면 대웅전이 중심에 있고 대웅전 앞마당 서쪽 모서리에는 범종각이 있다. 대웅전과 나란히 서쪽에는 염불



염불사 전경

전이 있으며, 동쪽에는 관음입상을 중심으로 한 노천 불단이 마련되어 있다. 대웅전 뒤 쪽으로는 염불전과의 사이에 나한전이 있으며, 나한전 뒤로는 바위 절벽이다. 절벽을 계단식으로 3단의 터를 만들어 아랫단에는 산신각과 독성각을 배치했고, 중간 단에는 영산전과 미륵입불, 최상단에는 칠성각을 배치했다. 민속신앙의 대상이었던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을 모두 갖춘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염불사는 좁은 능선을 태운 터에 불전 뒤로는 절벽과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을 구성하지는 못하고 대웅전을 중심으로 종축으로 건물을 배치한 종축식 사원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에 세운 세심루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없는 상태이다. 대웅전 앞에 세심루가 있었다면 불전과 누樓가 남북으로 배치되고 좌우에 승당과 선당이 있는 중정형 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으나, 좌우에 여유 폭이 없는 능선이어서 종축식 배치가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2) 건축물의 특성

(1) 대웅전

지금의 대웅전은 1998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그 이전의 중심 불전은 대웅전 서북 모서리 쪽에 연결해 있는 지금의 나한전이였다. 따라서 1941년과 1956년의 대웅전 중수 기록은 지금의 나한전을 가리킨다. 대웅전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대웅전은 나한전으로 용도를 바꾼 것이다. 지금의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높은 가구식 기단 위에 세웠다. 기단도 1998년 새로 만든 것이며, 기단 사방에는 돌난간이 설치되었다. 기단 중앙에는 통돌로 만든 우석隅石이 있으며, 우석 앞 지대석에는 사자상을 조각해 세웠다. 그리고 계단 양쪽에는 방형의 석등을 배치했다. 기단 전면 좌우에도 장대석 계단을 설치했으며, 바닥은 판석으로 마감했다. 초석은 운두가 높은 고복형 원형초석으로 기둥도 원기둥이다. 하방 아래는 화강석 판석으로 고택이를 하였고, 전면 5칸에는 모두 디딤돌을 두었다. 기둥머리에서는 창방과 평방을 걸었으며, 평방 위에는 주두를 놓고 공포를 올렸다. 기둥머리에서는 창방과 평방을 감싸는 안초공을 두었는데, 정간 좌우는 용머리 모양이고 다른 부분은 당초형이다. 공포는 외3출목으로 7포집이며, 초제공과 이제공·삼제공·사익공·오운공으로 구성되었다. 제공은 양서형으로 일반적인 당초문양을 그렸다. 첨차는 교두형이며 대소첨차를 두었다. 정간에는 4짝 빗살청판분합을 달았고 좌우



염불사 대웅전 전경과 내부

협칸과 퇴칸에는 2짝 빗살청판분합을 달았다. 측면 전면칸에는 외짝출입문을 달았다. 나머지 측벽과 후벽은 회벽으로 하였고, 중방 상부에는 불화를 그렸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지붕은 팔각으로 막새기와를 사용했고 용마루 양쪽에는 용두를 올렸다. 가구는 정칸은 후면에 고주가 있는 1고주 5량가지지만, 나머지는 2평주 5량가지다.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후고주 사이에는 불단을 설치하고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삼존불을 모셨다.

(2) 나한전

대웅전 서북 모서리 방향에 연결해 있으며 원래 대웅전 역할을 했던 불전이다. 초창 연대는 알 수 없으며, 1941년 증수가 있었고 또 6·25전쟁으로 퇴락한 것을 1956년 기석奇石스님이 다시 증진하였다. 염불사에서 가장 오래된 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초석은 초반이 별도로 없는 반구형의 원형초석이며, 기둥은 돌기둥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전면은 팔각석주로 평방 아래까지 올라가 있으며 나머지 기둥은 중방까지만 올렸는데 동쪽 전면 고주는 팔각이고 나머지는 방형석주이다. 기둥머리에서는 석주 양쪽에 창방을 걸었고 창방 아래에 광창이 있으며, 광창 아래에는 문상방과 문지방 좌우 벽선이 문얼굴 역할을 하여 중앙은 4짝 좌우 협칸에는 2짝의 빗살청판분합을 달았다. 좌우 측면 전면 칸에는 외짝 빗살출입문을 달았다. 전면 3칸에는 모두 장대석 디딤돌을 놓았다. 평방 위에는 주두를 놓고 공포를 올렸는데 각 칸마다 간포는 2조씩 놓았다. 살미는 초제공과 운공으로 구성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공은 당초형으로 춤이 높으며 초제공과 주심첨차가 교차하는 곳에는 소주두를 두고 보를 걸었다. 주심에서는 보머리에 운공을 별도로 붙였으며 간포에서는 장혀와 도리와 교차하는 운공을 두었다. 출목은 없으며 주심첨차 한 단 사용되었고, 주심첨차도 파련형이다. 전면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며, 배면은 홑처마이다. 지붕은 맞배로 막새가 있는 기와를 올렸으며, 좌우에는 풍판이 있다. 그런데 풍판이 전후면 평주열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간에만 설치한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이다. 좌우와 배면은 중방 이하에서는 자연석 화방벽으로 하였고, 노랑색으로 단청하였다. 중방 이상은 회벽으로 하고 벽화를 그렸다. 가구는 중앙은 후고주가 있는 1고주 5량가지고 양 측면은 2고주 5량가지다. 후고주는 중앙까지는 팔각석주를 사용했고 석간주 가칠을 했다. 천장은 종보 상부는 우물천장이고, 퇴칸은 빗천장으로 했고 당초를 그렸다. 후불벽에는 석가여래삼존상을 모시고 좌우 불단에는 소조 오백나한을 봉안했다.



염불사 나한전 내부

(3) 산신각

대웅전 뒤 절벽을 계단을 타고 오르면 대웅전 동쪽으로 산신각이 있다. 사방 단칸 건물인데, 기단은 별도로 없으며 나한전과 같이 반구형 초석 위에 팔각석주를 세워 건물을 지었다. 1932년 중수기록이 있으며, 양식으로는 나한전과 유사성이 있다. 전면은 기둥머리에 창방을 걸었는데 역시 돌이다. 돌기둥 위에 다시 동자주를 세우고 목조 창방과 장혀, 굴도리를 다시 걸었다. 공포는 초익공형식으로 익공의 모양은 당초를 새긴 물익공형식이다. 창방과 장혀 사이에는 소로를 끼운 소로수장집이다. 전면은 겹처마이며 배면은 홑처마이고, 지붕은 맞배이며 좌우에 풍판이 있다. 기와는 동기와를 올렸으며, 막새와 망와가 있다. 전면은 2짝 여닫이 분합문을 달았고 우측 전면에는 외짝 여닫이가 있어서



산신각 전경과 산신탕화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측벽과 배면벽은 벽돌형 화강석을 쌓아 완성했다. 후불벽에는 호랑이가 감싸고 있는 바위 위에 산신이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탕화가 있다. 팔각 기둥과 창방석에는 근현대기 주로 서울 성북구·종로구에 사는 시주자 명단이 새겨 있다. 초창 때의 시주자 명단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산신각 서남 모서리에는 간주석이 높은 방형 석등 1기가 있다.

(4) 독성각

산신각에서 동쪽으로 좁은 통로를 타고 오르면 독성각이 있다. 건물 전면은 매우 좁은 통행로 정도의 공간만 확보되어 있다. 기단은 별도로 없으며, 자연암반 위에 초석 없



이 기둥을 바로 세웠다. 기둥은 팔각석 주로 문상방 바로 위까지 올라가 있다. 문지방과 기둥머리 창방도 석재이다. 기둥 위에는 다시 목조로 동자주를 세우고 광창을 설치했는데 문하방을 석재 창방 위에 올렸으며, 동자주 머리에

염불사 독성각 전경과 독성탱화



서는 목조 창방을 다시 보내고 소로를 끼워 장혀와 굴도리를 받도록 했다. 공포는 물익 공형식이며 처마는 겹처마이고 지붕은 맞배이다. 좌우에 풍판이 있으며, 망와와 막새가 있는 동기와의를 올렸다. 규모는 매우 작은 사방 단칸인데, 격식을 높이기 위해 공포는 익 공식을 사용했고 겹처마로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전면에는 4짝 세살청판분합문을 달았는데 접이문 형식이다. 우측 전면에는 외작 유리판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불벽에는 1981년 제작된 독성명화를 모셨다. 팔각오층석탑도 같은 해에 만들었다. 독성각 동쪽 바위 위에는 1928년에 건립한 ‘관악삼성산염불암사적비’가 있다.

(5) 영산전

산신각과 독성각을 돌아 나와 다시 한 단을 오르면 미륵입상과 영산전이 동서로 나란히 있다. 규모는 사방 단칸이며, 원형 초석 위에 팔각석주를 사용해 지었다. 지금은 바닥에 판석을 깔아 초석은 문혀 보이지 않는다. 기둥 위에는 평방을 건너지르고 주두를 놓고 공포를 올렸다. 출목이 없는 다포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포는 각각 2개씩 두었다. 살미는 앙서형 제공과 운공으로 매우 단순한데, 연화를 새겨 화려하게 치장했다. 첨차는 파련형으로 춤이 높으며 장혀와 굴도리를 받치고 있다. 첨차와 첨차 사이는 판재로 불벽을 처리하였다. 처마는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며, 지붕은 모임지붕으로 막새를 사용



염불사 영산전과 공포

하지 않았으며, 향아리로 절병통節瓶桶을 올렸다. 간단하더라도 다포형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경향을 보인 건물이다. 전면 벽에는 돌로 지대석을 두고 문지방을 올렸으며 중앙에 2짝 빗살청판여단이문을 달았고, 좌우는 판벽으로 마감했다. 서쪽 측벽과 후면 벽은 벽돌형 화강석을 쌓아 화방벽처럼 마감했으며, 동쪽벽은 중방 이하는 돌로 화방벽을 쌓았고, 중방 위에는 2짝 여단이 빗살창을 달았으며 좌우는 판벽으로 마감했다. 단청은 금단청이며, 포벽에는 연화를 그렸다.

(6) 칠성각

1856년(철종 7)에 도인道印 스님이 화주가 되어 건립하였다.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이며, 터가 협소하여 동향으로 배치하였다. 원형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팔각석주인데 문얼굴까지이고 그 위에는 목재 동자주를 올려 가구했다.

동자주 머리에서는 창방과 직교하여 익공을 결구한 익공식 건물이다. 익공과 창방 위에는 주두를 놓고 보를 걸었는데 출목은 없으며 익공은 쇠서형으로 끝은 제공과 닮아 있다. 주간에서는 창방 위에 7개의 소로를 두고 하나 걸러 한 칸마다 봉황머리 모양의 운공을 걸었다. 운공은 장혀와 굴도리를 감싸고 있다. 전면 지붕은 겹처마이며 지붕은 맞배로 동기와를 올렸다.



염불사 칠성각과 공포



칠성각 공포

가구는 3량가이고, 좌우에 풍판이 있다. 전면 벽에는 남쪽 칸에는 2짝 빗살청판분합을 달았으며, 좌우는 판벽으로 처리했다. 문 위에는 광창이 있다. 북쪽 칸은 회벽으로 하고, 상부에는 불화를 그렸다. 남쪽 벽에는 2짝 청판세살문을 달았는데, 공간이 협소하여 열기 어렵다.

단청은 모로단청인데, 계풍에는 소나무와 매화를 그렸다. 나한전·산신각·칠성각·독성각이 거의 같은 양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증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만휴당

사찰에는 축대를 이용하여 종무소가 있고, 여기서 한 단을 올라 대웅전을 오르는 계단 초입에는 동쪽으로 1993년에 지은 만휴당이라는 건물이 있다. 1층은 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래브 건물로 요사채로 사용하고 있다. 슬래브 상부에는 콘크리트 계자난간을 사방에 두르고 목조 승당을 지었다.

정면 3칸, 측면 3칸 건물인데, 기둥은 콘크리트이며 나머지 가구는 목조로 했다. 공포는 직절익공형식이며 창방과 장혀 사이에 소로가 있는 소로수장집이다. 도리는 굴도리이며 겹처마 팔작지붕의 동기와집이다.

염불사 만휴당



(8) 염불전

대웅전 서쪽에 있는 염불전은 대웅전과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2002년경 새로 신축한 건물로 추정된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전후퇴 평면구성이다. 두벌대 장대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사용했으며 기둥은 원기둥이다. 기둥머리에 창방과 평방을 걸고 주두를 놓은 다음 공포를 올렸다. 각 칸에 간포는 각각 3조씩 배치하였으며 외1출목이 있는 5포식 다포형식의 공포이다. 기둥머리에서는 창방과 평방을 감싸는 파련형 안초공을 두었으며, 살미는 초제공과 이익공·삼운공으로 구성되었다. 초제공은 양서형으로 제공 위에는 연화를 화려하게 조각하였고, 익공 아래에는 연봉을 새겨 장식했다. 운공은 봉황머리로 조각했고, 첨차는 교두형이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인데 막새가 있는 한식기외를 올렸다. 풍판은 없으며, 이중박공을 걸었다. 단청은 금단청이며, 전면 3칸에는



4짝 여닫이 빗살청판분합을 달았는데 접이문 방식이다. 측면의 전면 칸에는 외짝 여닫이를 달아 출입한다. 측벽은 회벽이며, 가구는 2고주 5량가로 평방 상부는 불화를 그렸다.

염불사 염불전과 공포



(9) 범종각

범종각은 염불전과 같이 2002년경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방 3칸의 정방형 평면이며, 자연석 초석 위에 원기둥을 사용해 지었다. 정칸은 넓으며, 좌우 협칸은 정칸의 반 정도 폭이다. 창방과 평방이 있고, 평방 위에 공포를 올렸는데 정칸에는 간포가 하나 있는 다포형식 공포이다. 기둥머리에는 당초형 안초공이 있으며, 공포는 외1출목의 3포 형식으로 살미는 초제공과 이익공·삼운공으로 구성되었다. 제공과 익공의 모습은 염불전과 같이 연화와 연봉을 새겨 장식했다. 첨차는 교두형으로 염불전과 같은 장인이 동시에 지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지붕은 모임지붕으로 막새가 있는 한식기외를 이었다. 기둥 사이에는 낙양을 장식했다. 범종은 대들보 사이에 멩에보를 건너질러 걸었다.



염불사 범종각과 기구





염불사 부도

(10) 부도

사역 서쪽 계곡 쪽에는 3기의 부도(승탑)가 있다. 모두 석종형인데, 일반적인 석종 모양과 달리 배가 부르지 않다. 향 좌측 1기는 지대석이 없으며, 나머지 2기는 지대석을 놓고 석종을 올렸다. 석종 위에는 연봉을 올렸으며, 아무런 장식이 없이 단순하다. 전면 제액 부분은 약간 음각으로 면을 다듬어 각자를 했다. 각자에 따르면 향 좌측부터 도일당 승탑, 인봉당 승탑(1816년), 서영당 승탑(1810년)임을 알 수 있다.

5. 안양 전통사찰의 배치 및 건축 특성

안양시 관내 전통사찰의 배치 특성은 고려시대 안양사지를 제외하고는 산지사찰이라는 특성이 있다. 중초사지에 세워진 고려시대 안양사는 발굴을 통해 중문·전탑·금당·강당·승방이 중심축선상에 배치되고, 사방에 회랑이 둘러쳐진 1탑식 평지가람이었다. 이러한 배치는 고려시대 평지 가람의 보편적인 형식으로, 안양사도 규모가 큰 당시 사찰건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중심사역의 건물 외에 주변 건물은 확

인하지 못했으나 석수동 마애종을 비롯하여 암자를 거느린 매우 큰 사찰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안양사지 아래에는 이전 시기의 중초사지가 있으나 안양사지를 손상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찰 초입에 세워지는 당간지주 영역만 발굴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안양사지에는 근대기에 공장이 들어오고 주변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전모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현재의 안양사는 고려시대 안양사를 계승하지 못했다. 안양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6·25전쟁 이후 새로 지었다.

안양사는 협곡에 위치하여 좁고 긴 배치를 보여주며, 터가 넓지 않아 상하단 영역으로 구분하여 불전을 배치했다. 하단 영역은 명부전을 중심으로 하고 상단 영역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다. 하단 영역은 명부전과 요사채가 나란히 배치되었으며, 상단 영역은 대웅전을 위에 짓고 남쪽에 심검당, 좌우에는 범종각과 미륵입불을 배치했다. 보통은 심검당이 좌우에 오기 마련인데 협곡이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대웅전보다 큰 심검당을 낮은 남쪽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보통의 배치방식을 탈피한 것인데 지형조건이 배치에 영향을 준 것이다. 대웅전은 원래 이익공 형식으로 초라하였으나, 2004년 새로 지으면서 다포형식의 보편적인 조선 후기 금당 양식으로 바뀌었다. 격식을 높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여건과 크게 관련이 있다. 안양사는 건립연대가 명료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당간지주가 있으며, 또 마애종이라는 유일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다.

삼막사는 삼성산 정상부에 능선을 따라 서향으로 배치한 사찰이다. 조선시대 창건된 삼막사는 지금은 일주문과 천불전 등이 새로 건립되어 배치 모습이 바뀌었지만, 조선시대에는 망해루라는 누문을 정면에 두고 맞은편에 대웅전, 좌우에는 명부전과 요사채를 배치한 산지중정형 사찰이었다. 산지중정형은 규모가 작은 산지사찰의 전형적인 배치방식이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대웅전 좌우에 선당과 승당이 배치되는 것에 반해, 삼막사는 한쪽에 명부전이라는 불전이 배치되었다는 점이 다른 특징이다. 1990년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되었고, 이후 1992년 중건하면서 육관음전으로 바뀌었다. 중심불전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안양의 사찰들이 서해를 바라보면서 바다신앙과 극락신앙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막사는 또 암반지형을 잘 활용하여 원효굴을 만들었으며, 칠성각에는 칠성불을 마애불로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석수동 마애종과 같이 매우 드문 일이다.

망해암은 암반 사이에 샘물이 흐르는 터를 골라 용화전이라는 불전을 짓고 석조 미륵불을 모신 것에서 출발하였다. 한 동의 불전과 작은 요사채 정도로 구성된 매우 작은 암



염불사 미륵불

위에 건립된 사찰로,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다. 대웅전과 나란히 염불전과 관음입상을 좌우에 배치하고, 대웅전 뒤쪽으로는 절벽에 겨우 터를 마련하여 산신각·독성각·칠성각을 배치했다. 민속신앙 대상의 세 불전을 모두 갖춘 사찰은 매우 드물다. 염불사는 대웅전에 요사채를 갖춘 작은 암자로 시작하였으며, 암반이 주는 신비로움과 자연의 경외감을 간직한 곳으로 민속신을 모두 모신 민속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양의 전통사찰은 관악산 줄기에 배치되었으며, 험산과 바위 절벽을 이용하여 매우 특이한 산지사찰의 모습을 보여준다. 서향이 일반적으로 서해의 용신앙과 미륵신앙, 민속신앙과 결합하는 강한 특성을 보인다. 후대에 불전이 증축되면서 보편적인 산지증정형의 모습을 갖추기도 하지만, 불전의 배치는 여전히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안양 지역의 지역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혜경궁 홍씨를 중심으로 왕실의 후원을 받는 사찰이었다. 6·25 이후에는 관음전과 삼성각, 천불전과 지장전 등 많은 불전이 증축되었다. 용화전 하나만 있던 사찰에서 천불전을 중심으로 남쪽에 요사채, 동서에 용화전과 삼성각이 위치하는 증정형 사찰로 바뀌었다. 용화전은 익공식 불전으로 보통은 부속 불전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소박하게 증축되었다. 경사지이고 터가 좁아 대부분은 하층에 선당과 승당을 두고 상층에 불전을 두는 경사지의 건축적 특징을 보여준다. 망해암 역시 서해를 바라보고 있어 미륵신앙의 본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염불사는 염불암으로 불리던 작은 암자였다. 깎아지른 바위 절벽

참고문헌

- 『범우고梵宇攷』, 1799.
- 『여지도서輿地圖書』, 경기도.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10, 금천현 불우조.
- 안양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안양시청, 2021.
- 안양시, 『안양사지 발굴조사보고서』,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 안양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9.
- 안양시, 『경기도문화재자료 실측조사보고서-삼막사 명부전』, 2010.
- 황인규, 「관악산의 불교와 관악사-전근대 관악산 불교의 복원 試攷와 자료집성」, 『한국불교학』 제69집, 2014.

註

- 1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삼성산.
- 2 안양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107~108쪽.
- 3 안양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109~110쪽.
- 4 안양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9, 95쪽.
- 5 이승인, 『동문선』 제76권, 기記 '14. 금주안양사탑중신기'.
- 6 “昔太祖將征不庭。行過此。望山頭雲成五采。異之。使人往視。果得老浮屠雲下。名能正。與之言稱旨。此寺之所由立也。寺之南有塔。累磚七層。蓋以瓦。最下一層。環以周廡十又二間。……”
- 7 “歲月風雨。幾至頽壞。謙朝夕目觀而心傷之。誠欲重新者久。而力不足也。歲辛酉秋七月。謁侍中崔公告以此。公曰。吾之少也。一嘗寓宿塔下。仰思聖祖經營之始。私自誓曰。臣他日苟達矣。所不新此塔者。有如在天之靈。及今位冠群僚。可謂達矣。吾當不辜吾誓矣。即移蹠榻廣道按廉使。減軍租供其費。徵丁夫執其役。謙也須囊褚之繼。隨檀越之喜。得米豆泉布凡若干。耳請游手如謙者若干起工。是年八月某甲子也。斷手九月某甲子也。落成冬十月某甲子也。是日。殿下遣內侍朴元桂降香。以道侶一千。大作佛事。安舍利十二并佛牙一塔中訖”
- 8 안양시, 『안양사지 발굴조사보고서』,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303~313쪽.
- 9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21, 56~63쪽.
- 10 「중초사당간지주명中初寺幢竿支柱銘」. “寶曆二年歲次丙午 八月朔六辛丑日 中初寺東方昇岳 一石分二得 同月廿八日 二徒作初 庵九月一日 此處至 丁未年二月卅日了成之 節州統 皇龍寺恒昌和上 上和上 眞行法師 貞坐 義說法師 上坐 年嵩法師 史師二 妙凡法師 則永法師 典都唯乃二 昌樂法師 法智法師 徒上二 智生法師 眞方法師 作上 秀南法師.”
- 11 안양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9, 98쪽.
- 12 안양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118~119쪽.
- 13 안양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127~132쪽.
- 14 안양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120~121쪽.
- 15 안양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153쪽.
- 16 안양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145~146쪽.

6장

『삼성기유첩』을 통해 본 19세기 초 삼성산 유람



정재은 안양박물관 선임학예연구사



1. 머리말

안양박물관은 안양시를 대표하는 공립박물관으로서,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안양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다양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박물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유물 구입은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안양의 역사 기록 유지, 교육적 가치 제공, 연구적 기여, 소장품의 다양화 및 확장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 계승을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양박물관은 매년 진행되는 유물 구입 사업을 통해 안양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연구자들에게는 기초 자료를, 관람객들에게는 역사적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안양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학술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4년의 유물 구입은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¹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2024년 2월 28일(수) 열린 제31회 칸옥션 경매에 참여하여 조선시대 유람기인 『삼성기유첩(三聖記遊帖)』을 낙찰받은 사례가 있다. 이 유물은 조선시대 안양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조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박물관 소장품의 가치를 한층 높이며, 안양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과 확산이라는 사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안양박물관은 『삼성기유첩』에 그려진 조선시대 안양의 모습과 현재의 풍경을 비교 분석하고 현장 답사를 실시함으로써, 2025년 기획특별전을 앞두고 프리뷰(preview) 전시를 빠르게 선보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박물관의 기능 확장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은 안양박물관이 새롭게 소장하게 된 『삼성기유첩』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안양

의 대표적 명승지인 삼성산 유람의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유람 문화, 지역 인식 그리고 경관 표현 방식을 살펴보고, 안양 지역 문화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삼성산의 역사적 배경

『삼성기유첩』은 19세기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삼성산을 유람하며 그곳에서 만난 자연과 풍경을 그림과 시로 기록한 서화첩이다. 이 서화첩은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 삼성산과 그 주변 지역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조선 후기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삼성산의 상징적 가치를 드러낸다. 삼성산은 관악산 서쪽 줄기에 해당하는 산으로, 관악산의 한 봉우리로 알려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금천현의 진산은 삼성산이고, 과천현의 진산은 관악산이라 전해진다. 삼성산과 관악산의 산계山界는 삼막사 동쪽 계곡을 기준으로 동쪽이 관악산, 서쪽이 삼성산으로 구



〈그림 1〉 「천하지도天下地圖」(조선시대, 42.0×37.5cm, 안양박물관 소장)

분된다. 이 경계는 조선시대에는 과천현과 금천현의 경계를 나타내었으며, 현재는 과천시와 안양시의 경계로 이어진다(그림 1).

삼성산의 ‘삼성三聖’은 원효元曉, 의상義湘, 윤필尹弼 등 세 고승이 삼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관악산 불교를 전파하면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삼성산이라는 명칭은 이 세 고승을 지칭하



『도은집陶隱集』(고려 후기, 31.5×2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고려 초 태조 왕건은 삼성산에 머물고 있던 능정能正을 만나 삼성산 인근에 안양사를 창건하였고, 여말선초에는 3화상三和尚으로 불리는 세 명의 고승 중 한 명인 나옹懶翁과 그의 문도가 이곳에서 불교를 전파한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다. 특히, 고려 말에는 유가종瑜伽宗의 고승인 종림과 그의 제자 혜겸이 최영의 후원 아래 안양사 탑을 증수한 사실이 「금주안양사탑중신기 衿州安養寺塔重新記」에서 전해지고 있다.²

조선시대 관악산은 많은 유생들의 유람 장소이자 원찰이었다. 그들은 관악산에 올라 시문을 남겼다. 이러한 유생들의 원찰은 불교식 제의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왕실·사대부들의 원당·분암 등과 같이 조선 중기 이후까지 유행하였다.³

현재 안양사 터에는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신라 흥덕왕 2년(827)에 조성된 ‘중초사지당간지주中初寺址幢竿支柱’, ‘안양석수동마애종安養石水洞磨崖鐘’, ‘안양사귀부安養寺龜趺’, ‘안양사승탑安養寺僧塔’ 등 국가유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산들은 삼성산 일대가 단순히 자연경관을 넘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임을 잘 보여준다.

삼성산 일대에는 삼막사·반월암·망월암·망해암·지장사·보장사·안양사·염불암·불성사 등 여러 사찰들이 자리하고 있으며⁴, 이들 사찰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안양의 불교적 전통을 지켜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2).

특히 이곳은 산악 신앙과 바위 신앙, 자연숭배 신앙이 불교와 결합된 독특한 종교적 유산들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석수동마애종은 범종의 타종 장면을 조각적으로 표현한



〈그림 2〉 시흥현지도(1872년, 35.8×25.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일한 마애종으로, 불교의 상징과 자비의 사상을 돌에 새긴 작품이다. 학계에서는 명칭도 마애타종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타당한 주장과 함께 이는 우리나라에서 벽면에 조각된 마애종으로서는 유일무이한 예시로 평가된다.⁵ 또한 마애부도, 마애불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애상들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 마애상은 자연숭배 신앙이 불교에 수용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유산으로,⁶ 삼성산의 종교적·문화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 이로 인해 삼성산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서 깊은 종교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임을 증명한다.



삼성산의 마애상(좌로부터 석수동마애종,⁷ 염불사 현진당 마애부도,⁸ 삼막사마애삼존불⁹)

삼성산의 주산인 관악산은 예로부터 경기5악 중 하나로, 개성의 송악산松岳山, 파주의 감악산紺岳山, 포천의 운악산雲岳山, 가평의 화악산華岳山과 함께 중요한 산으로 꼽혔다.¹⁰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산천조山川條’에 의하면, 관악산은 빼어난 봉우리와 바위가 많은 산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연주대 혹은 연주봉이며 삼성산과 호압산이 주변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 관악산과 삼성산에 대한 기록은 지리서뿐만 아니라 문인들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명산 유람에서 삼성산은 절경을 자랑하는 명산으로 언급되었다. 관악산 명승은 조선시대 성호 이익(李瀾, 1681~1763), 변암 채제공(蔡濟恭, 1720~1799) 등이 유람기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시문과 기행문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유람 시기와 대상 인물, 경치를 그린 그림 및 그 경관을 노래한 시가 함께 수록된 작품은 드물다.

이와 같은 역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삼성기유첩』은 삼성산을 유람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잘 보여준다. 당시 삼성산은 불교의 중심지이자 고승들이 활동한 중요한 장소였으며, 그곳의 경치와 역사적 가치는 유람을 택한 이유로 충분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삼성기유첩』은 당시 화가와 문인들에게 삼성산이 지닌 깊은 의미와 매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고자 한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삼성기유첩』의 제작 배경과 관련 인물 고찰

『삼성기유첩』은 19세기 초 다섯 명의 문인들이 삼성산을 유람하며 시문과 그림으로 기록을 남긴 서화첩으로, 당시 안양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삼성산의 종교적·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작품은 1826년 봄, 이들이 관악산의 명소인 남자하동·동자하동·북자하동을 방문하고, 염불암·삼막사·망월암·불성사 등에서 11점의 관악 실경을 그린 기록물이다. 특히 한강 동작진의 풍경도 포함하여 도성과 관악산을 잇는 여정을 완성하였다. 『삼성기유첩』은 현재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이 위치한 안양예술공원 일대 남자하동을 중심으로 한 삼성산과 관악산 일부를 다루고 있어, 당시 안양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각적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삼성기유첩』의 제작 배경을 살펴보면, 1826년(순조 26) 3월 26일 한양에 사는 벗들을 불러 삼성산을 유람한 후, 2년 후인 1828년(순조 28) 이를 서화첩으로 완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서화첩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에 걸쳐 있는



〈그림 3〉 『삼성기유첩三聖記遊帖』(1828년, 34.5×40.6×3cm, 안양박물관 소장)

관악산과 삼성산의 실경을 담은 11 폭의 산수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주요 부분은 산수화 11점, 이 경관을 감상하고 지은 시문 42수, 묵매도 1점 그리고 서문과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¹²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1점의 산수화 중 7점이 현재 안양 지역과 현존하는 사찰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문인들의 지역 인식과 경관 선호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 화첩의 표지에는 ‘삼성기三聖記’라는 제목이 적혀 있으며, 첩을 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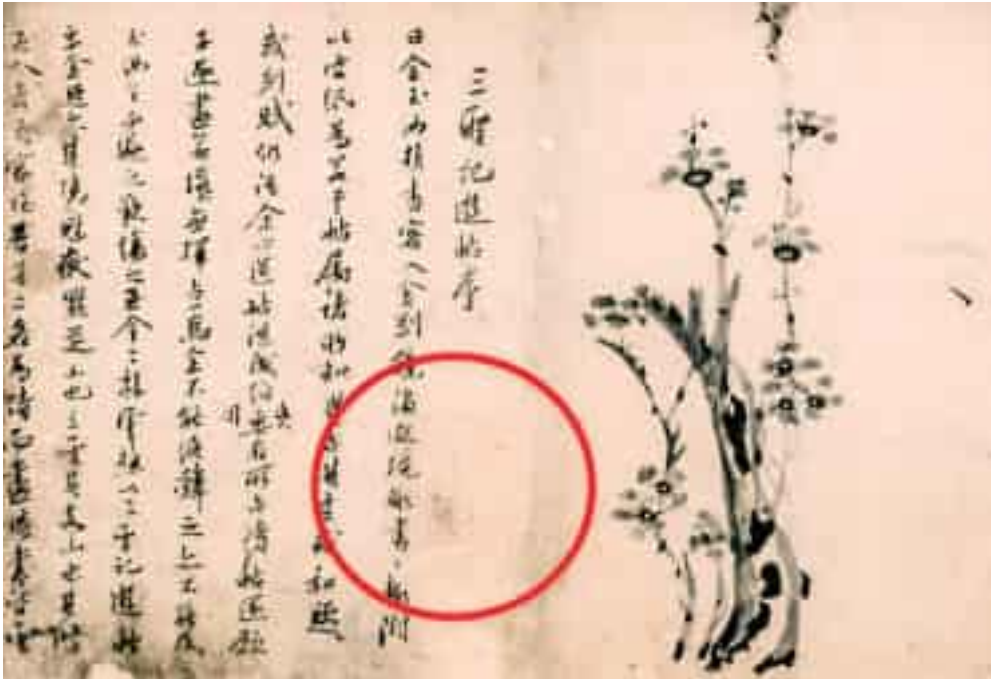
치면 오른쪽에는 수묵으로 그린 매화 그림이, 왼쪽에는 ‘삼성기유첩서三聖記遊帖序’라는 제목과 함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서문에 대한 해석은 처음 이 화첩이 칸옥션(KAN AUCTION)에 출품되었을 당시 해당 화첩에 대한 도록의 설명이 규장각에 소장된 『삼명시초三溟詩草』 권수에 있는 ‘동해강준흠백원부저東海姜浚欽百源父著’라는 기록을 근거로, 동해객東海客을 삼명三溟 강준흠(姜浚欽, 1768~1833)으로 추정하곤 하였다.¹³ 이러한 이유로 경매 당시 전시도록에는 『삼성기유첩』의 서문을 강준흠이 작성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삼성기유첩』이 안양박물관으로 수증된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서문을 쓴 인물은 강준흠이 아닌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문학가인 조종진(趙琮鎭, 1767~1845)임을 밝혔다.¹⁴ 조종진은 『동해공유고東海公遺稿』를 남긴 인물로, 그의 문학적 업적과 작품은 당시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강준흠은 『삼성기유첩』에 등장하는 자하동紫霞洞을 여러 차례 유람하였으며, 자신이 저술한 『삼명시집』에서 이 화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¹⁵ 그는 이 화첩의 시와 그림·글씨를 모두 칭송하며, 왕유王維와 이백李白과 같은 이름난 시인과 화가에 비견할 만하다고 극찬하였다. 이 화첩은 단순히 하나의 시화첩에 그

치지 않고, 시·서예·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당시 문인과 화가들의 문화적 정취를 담은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삼성기유첩』은 단순히 예술적 가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문학적·역사적 가치가 총체적으로 반영된 작품이다. 조종진이 저술한 「삼성기유첩서(三聖記遊帖序)」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제작 과정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협업이 수반되었으며, 이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 예술 창작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¹⁶ 『삼성기유첩』의 주된 제작자는 박운초(朴雲樵)로, 그는 삼성산 유람 중 경험한 자연을 바탕으로 그림과 글씨를 직접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네 명의 문인들과 함께 유람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이 지은 시를 통해 작품 전체를 구성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참여한 문인 중 두 명이 조종진의 조카였다는 사실이다.

박운초는 예술적 표현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시·서·화를 아우르는 종합 예술의 경지를 이뤄 냈다. 조종진은 『삼성기유첩』 서문에서 운초의 글씨에서는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서체가 드러나며, 그림에서는 겸재(謙齋) 정선(鄭愼)의 독특한 기법을 수용하였다고 언급한다. 특히 먹의 농도와 질감을 섬세하게 조절함으로써 선명도와 분위기, 질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냈다. 또한 그의 시는 박지수의 아버지인 건재(健齋) 박종민(朴宗民)의 시풍에 비견될 만큼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지녔으며, 시서화를 조화롭게 융합한 작품 세계는 그 예술적 가치를 한층 높여 준다. 이러한 융합은 단순한 장르 간 결합을 넘어, 서로 다른 예술적 역량이 하나의 작품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삼성기유첩』은 예술과 문학이 결합된 대표적인 예로, 시대적 가치와 미학적 깊이를 함께 구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당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 예술 창작에 끼친 실질적인 영향을 반영하며, 운초의 예술 세계의 총체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조종진의 문집인 『동해공유고』에 「삼성기유첩서」가 실려 있는데, 그 문집 마지막에 실린 「동해옹병미희제(東海翁並尾戲題)」에서 「제박운초지수첩(題朴雲樵志壽帖)」이라는 표현을 통해 운초가 박지수(林志壽, 1795~1847)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서문에 언급된 주된 제작자 운초의 본명이 박지수임이 밝혀졌다.¹⁷

박지수는 본관이 반남(潘南)으로, 서문에서 언급했던 박종민(朴宗民, 1763~1830)이 그의 부친이다. 박종민은 전라남도 나주 출생으로 생원시에 급제하여 조경묘(肇慶廟)의 참봉(參奉), 장수 현감(長水縣監), 면천 군수(沔川郡守), 대구 판관(大丘判官) 등을 거쳐 순조 14년(1814) 울산 도호부사(蔚山都護府使)로 임명되었다가 순조 16년(1816) 전라도에서 능주 목사(綾州牧使)를 지



〈그림 4〉 『삼성기유첩 서문』의 '기오정장寄傲亭藏' 장서인(22.8×32.8cm, 안양박물관 소장)

냈다. 강준흠의 『삼명시집』에 건옹 鶯翁에게 지은 시가 다수 남아 있어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반남 박씨 족보를 보면 박지수는 그의 외아들이며 자는 속도 叔道이고, 호가 운초 雲樵이다. 『승정원일기』에 1843년 12월 13일 가감역 假監役에 제수되고 1844년 1월 30일 군자봉사 軍資奉事, 1845년 1월 8일 군자직장 軍資直長, 1846년 7월 11일 군자주부 軍資主簿를 지낸 이력이 보인다.¹⁸ 『삼성기유첩』 서문 제목 아래에는 '기오정장寄傲亭藏'이라는 장서인 藏書印이 찍혀 있다(그림 4).

여기서 기오정 寄傲亭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에 위치한 정자로,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정자의 현판이 이광사의 친필로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삼성기유첩』 서문에서 조종진이 “글씨는 원교 이광사의 소신이라 하겠고 ……”라고 언급한 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박지수가 『삼성기유첩』에 쓴 글씨와 이광사의 서체 사이에 실질적인 영향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기오정의 현판이 이광사의 친필로 전해진다는 사실은 박지수가 이광사의 서체를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참조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당시 문인들 사이의 예술적 교류와 서예 전통의 계승 양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술사적 증거로도 볼 수 있다.

기오정은 반남 박씨 가문의 박세해(朴世楷, 1615~1698)가 현종 10년(1699)에 건립한 정자이다. 박세해는 조선 후기 소론계 주요 인물로서,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8촌 형이자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6촌 형으로 당대 지식인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삼성기유첩』에 참여한 박종민이 이 박세해의 6세손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계도는 『삼성기유첩』의 제작 배경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한다.

박종민의 별서別墅는 우파초당(牛陂草堂)이라 불렀는데, ‘우파’는 우와피(牛臥皮)로 현재의 보라매공원 남쪽에 위치했던 마을을 지칭한다. 『삼성기유첩』의 주된 제작자인 박지수 역시 우파에 묻힌 기록이 확인되어, 그가 이 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¹⁹ 이는 박지수와 박종민 사이의 지역적 연관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박지수의 거주지가 관악산과 삼성산 인근이었다는 점에서 『삼성기유첩』의 제작 동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오정장’이라는 장서인과 관련 인물들 간의 복합적 관계는 『삼성기유첩』의 제작 배경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기오정 현판의 글씨가 이광사의 작품으로 전해진다는 점과 박씨 가문 내 여러 인물들의 관계망은 조선 후기 문인들 사이의 예술적 교류와 그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사회적·지리적 연관성은 『삼성기유첩』이 단순한 개인 작품이 아닌, 당대 문인들의 교류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서화첩에 등장하는 인물 구성을 분석해 보면, 시에 서명된 초헌(蕉軒·학파(鶴坡·청하(靑霞·서호(西湖) 등의 호와 함께 박지수·이재신(李在臣·조운학(趙雲鶴·조운룡(趙雲龍·이규대(李圭大) 등의 실명이 확인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종진이 서문에서 언급한 ‘자신의 조카 두 명’이 유럽에 동행했다는 기록이 조운학과 조운룡임이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이 중 조운학은 조종진의 동생인 조병진의 아들로 확인된다. 조운학의 호가 ‘청하’임은 그가 벗에게 준 시에 ‘청하학질(靑霞鶴侄)’이라고 서명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문인들의 호칭 방식과 친족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참여 인물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규대(1778~?)는 본관이 정읍이며 자는 여유(汝有)로, 감목관을 역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신(1790~?)은 용인 이씨 가문 출신으로 자는 경문(景文)이며, 1827년 증광사에서 을과 1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으나 다른 관직 이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이재신은 박지수의 누나와 혼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되어, 박지수의 매형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박지수와 조운학을 제외한 다른 인물



〈그림 5〉 박운초 일행의 삼성산유람 이동경로

들의 호와 이름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자료는 미발견 상태이다.²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삼성기유첩』의 내용 전개는 조종진의 서문으로 시작하여, 운초가 초헌, 학파, 청하, 서호 등 네 명의 벗들과 삼성산 일대를 유람하며 체험한 감흥을 담은 그림 11폭과 이에 상응하는 시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그림에는 장소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림 사이에는 일행이 지은 시가 운율에 맞춰 배치되어 있다.

일행의 여정은 체계적인 경로로 진행되었다. 남자하동 입구에서 출발한 그들은 고려시대 안양사 터(현 안양박물관·김중업건축박물관 부지)를 시작으로 삼성천을 따라 염불암, 삼막사, 망월암, 불성사 순으로 이동하였다. 삼막사에서는 낙조를 감상하며 하루를 보냈으며, 다음 날은 망월암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그다음 날 불성사로 이동하여 또 하룻밤을 보낸 뒤, 동자하로 하산하였다. 이후 한양을 경유하여 동작강을 지나 다시 북자하로 들어가 폭포를 감상하고, 여기담에서 여정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상세한 여정 기록은 19세기 초 문인들의 자연 향유 방식과 당시 명승지의 공간적 인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그림 5).

4. 『삼성기유첩』의 구성과 문화사적 가치

『삼성기유첩』은 조선시대 안양 삼성산 일대의 명승지를 유람하며 제작된 화첩으로, 회화 작품과 문학 작품이 결합된 복합적 문화유산이다. 이 화첩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각 명승지마다 동일한 운韻을 사용하여 다섯 명의 문인들이 창작한 시가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동일 장소에 대한 다양한 시적 해석과 감상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삼성기유첩』의 구성은 명승지 순례의 여정을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남자하南紫霞, 염불암念佛庵, 삼막사三幕寺, 망해루낙조望海樓落照, 망월암望月庵, 불성사佛聖寺, 불성전룩망해佛聖前麓望海, 동자하東紫霞, 동작강銅雀江, 북자하北紫霞, 여기담女妓潭이다. 이러한 순차적 구성은 단순한 장소의 나열이 아닌, 삼성산 일대 명승지의 지리적·문화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화첩에 묘사된 대부분의 사찰과 장소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어, 『삼성기유첩』이 단순한 역사적 자료를 넘어서,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문화적 교량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각 명승지는 그림과 시를 통해 표현되었는데, 그림은 시각적 재현으로, 시는 문학적 승화라는 이중적 접근이 구현되었다. 무엇보다도 시를 지은 다섯 명의 문인들이 동일한 운을 활용하면서도 각자의 독특한 시적 감성과 표현 방식을 드러낸 점은 이 화첩의 문화사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적 다양성은 동일 장소에 대한 다층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조선시대 문인들의 예술적 소통 방식과 자연 인식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산수유람의 풍조는 18세기부터 조선 사대부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들은 유람을 통해 체득한 감상을 기행문으로 남겼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자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를 제작하였다. 19세기 문인들은 이러한 기행문과 실경산수화를 하나의 화첩에 담은 시서화 합벽첩詩書畵合壁帖 형태로 감상하며 문인 간 교유의 매개체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화가를 동반해 유람하거나, 유람 후 화가에게 그림을 의뢰하여 자신의 감흥과 명승지의 경관을 화폭에 담게 함으로써 ‘와유지자臥遊之資’, 즉 누워서 유람하는 자료로 삼았다.²¹

『삼성기유첩』은 이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실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종합적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까지도 실존하는 명승지들과의 연계성은 이 화첩이 과



〈그림 6〉 『삼성기유첩』 「남자하(南紫霞)」(22.9×32.6cm, 안양박물관 소장)

거와 현재의 문화적 연속성을 증명하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강화한다. 따라서 『삼성기유첩』은 미술사·문학사·문화사·지역사 연구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며, 이러한 복합적 가치는 이 화첩이 단일 학문 분야를 초월하는 융합적 연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첩에서 유람의 중심이 되는 자하동(紫霞洞)은 관악산 정상의 연주대(戀主臺) 아래 동서남북 네 곳의 계곡을 일컫는다. 『삼성기유첩』의 첫 번째 장면인 남자하동(南紫霞洞) 도상은 삼성산 능선 아래 고려시대 안양사 터에서 시작되는 지역을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은 현재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이 위치한 지점부터 삼성천이 흐르는 안양예술공원 전경을 포괄하며, 그림 우측 상단에는 「남자하」라는 제명이 세로로 기재되어 있다(그림 6).

주목할 점은 좌측 하단에 현존하는 중초사지당간지주(보물)로 추정되는 기둥 2개가 스케치되어 있으며, 그 위쪽으로 2기의 탑이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당간지주 인근에는 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유산)만이 남아 있어, 이 그림은 적어도 19세기 초까지는 당시 탑 2기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 2기의 탑이 같은 사찰 내에 함께 배치된 쌍탑 가람 배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



〈그림 7〉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중초사지 매수 건-지적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로 판단된다.²² 안양사지는 고려 사찰의 건축 특징인 다원 가람의 원형이 시작되고 있는 사찰로, 중문-탑-금당-강당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회랑이 돌아가는 중심 사역과 3층 석탑, 석수동 마애종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원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다원 가람 구조는 안양사지의 사역이 단일 영역이 아닌 복합적 구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하며,²³ 『삼성기유첩』의 첫 번째 그림인 남자하동은 이러한 사역 구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한다. 2008~2014년 안양사지 발굴조사²⁴에서 안양박물관 건물 1층 카페 부근에서 전탑지와 함께 관련 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전탑과 삼층석탑에 관한 가장 초기의 공식 기록은 1916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古蹟調査委員會의 안양사지에 위치한 석조물 조사 자료이다. 1925년 12월 8일 작성된 지적도에는 ‘당간지주’, ‘삼층석탑’, 전탑지’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나, 전탑지는 ‘탑지塔址’로만 기재되어 있다(그림 7).

「남자하」는 원근법을 활용하여 안양예술공원 전체를 조망하는 공간감을 구현함으로써, 현재 위치가 불분명한 탑의 원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해당 그림은 수목에 둘러싸인 민가들과 그 위로는 현존하는 ‘석수동 마애종’(경기도 유

형문화유산)이 새겨진 기암절벽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C자형 삼성천과 삼성산의 뾰족한 산세들이 어울린 풍경을 넓게 부감해 포착했다. 사선 구도로 전경을 담는 화면 운영은 단원 김홍도를, 바위산 수묵 선묘나 미점*點의 J자형 소나무와 솔밭 묘사는 겸재 정선을 따른 편이다. 18세기 영조와 정조 시절 완성된 진경산수 화법이 느슨해진 경향이 보인다.²⁵ 『삼성기유첩』은 단순한 회화적 가치를 넘어 문화유산 연구에 있어 실증적 자료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박지수 일행은 남자하동을 시작점으로 삼성산 남쪽자락 중턱에 위치한 염불암으로 이동하였다. 염불암은 고려 태조 19년(926)에 창건되었으며, 조선 태종 7년(1407)에 중창되었다. 사료에 따르면 19세기에 번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내에 진입하면 수많은 괴암들이 병풍을 두른 형태로 전개되어 있으며, 이러한 괴암들 사이의 제한된 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8).

이러한 염불암의 경관은 『삼성기유첩』의 두 번째 그림인 「염불암」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해당 그림은 V자형 구도로 근경의 산세를 구성하고, 그 사이에 암산을 배경으로 축대 위에 3칸 규모의 법당 한 채가 위치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수직절리의 선묘



〈그림 8〉 『삼성기유첩』 「염불암念佛庵」(23.0×33.0cm, 안양박물관 소장)

표현은 겸재 정선의 금강산 암준법巖皴法인 ‘수직준법’과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돌출된 바위 절벽을 따라 J자형으로 구현된 농묵의 솔밭 표현 역시 정선식 진경산수화법眞景山水畫法의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²⁶ 「염불암」의 경관을 주제로 한 시는 학파·운초·청하·서호 순으로 총 4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은 박지수(운초)가 작성한 시이다.

「염불암」

古寺穿雲去	낡은 절 구름 뚫고 가노라니
山高望更新	산은 높아 볼수록 다시 새롭네.
空簷聳鳥語	빈 처마에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浮世轉泡輪	뜬 세상 물거품의 바퀴가 굴러가네.
石氣常含冷	바위는 늘 찬 기운을 머금었는데
風襟乍露眞	바람의 옷깃에 참됨이 바로 드러나네.
畫詩移妙境	그림과 시로 묘한 땅을 옮겨놓았으니
好是峰頭人	좋구나, 고갯마루에 서 있는 사람이여. ²⁷

염불암에서 시작된 산행은 삼성산 정상을 향하는 과정에서 삼막사로 이어진다. 서쪽 자락을 따라 형성된 이 길은 울창한 숲을 지나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로 안내한다. 박지수 일행은 삼막사에서 하루를 머물며 전통사찰의 정적인 환경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특히 망해루에서 관찰한 일몰 장면은 장엄하면서도 따뜻한 정서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풍경 속에서 2점의 작품이 완성되었다. 해당 그림들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순간의 감흥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삼막사의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결과였다(그림 9).

삼막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이 전해지며, 이후 수도권 지역 불교의 흐름을 연결하는 중요한 중심지로 기능해 왔다. 고려시대와 조선 후기를 거치며 사찰은 여러 차례 중창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교 미술과 건축 양식, 조형물들이 축적되었다. 삼막사 경내에 현존하는 유산들은 단순한 유물을 넘어, 시대의 신앙과 미적 감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에도 삼막사는 살아 있는 신앙과 문화의 공간으로 존속하고 있다. 도심과의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고요함이 감돌아, 불교 의례뿐 아니라 예술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서 현대인의 정서적 안식처가 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과거 망해루에 오르면 서해까지 시야가 트였다고 한다. 망해루에서 바라보는 광활한 경관은 그 자체로 명상적 경험



〈그림 9〉 『삼성기유첩』 「삼막사三幕寺」 (23.0×33.1cm, 안양박물관 소장)

을 제공하며, 운초(박지수)는 이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파도를 표현한 그림과 시 4수를 남겼다. 글씨체는 유려한 행 이는 삼막사에서 경험한 단순한 시각적 인상을 넘어 예술적 창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삼막사」

爲訪高僧跡	고승이 사는 곳을 찾아가느라
行行礪路長	가고 또 가니 개울길이 길구나.
空傳無上道	무상의 길이라 부질없이 말하는데
何處說經場	불경을 외는 곳은 그 어디인가?
海闊群山出	바다 넓어 못 산들이 나타나는데
心空衆寶香	마음이 비어 여러 범보가 향긋하다.
林鍾起落落	숲의 종소리가 잔잔히 일어나는데
雲樹正蒼蒼	구름 낀 숲이 정히 새파랗구나.

「망해루낙조」

百尺飛樓出化城 백 척 높은 누각이 절에 솟았는데
斜陽欲盡水雲晴 석양이 지려 할 때 물과 구름 맑구나.
俄然俯視人間黑 이윽고 내려다보니 인간세상 검검해도
來曉應從海底明 내일 아침 바다 밑에서부터 환해지리라.²⁸

문인들은 삼막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망월암에 도착한다. ‘망월암’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달을 감상하는 데 적합한 아름다운 정취를 담고 있는 듯하다. 박운초는 다섯 번째 그림의 소재로 이 망월암을 선택하였다(그림 10).

그림에는 병풍처럼 펼쳐진 수직절리의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고, 왼쪽에는 좁은 협로峽路가 나 있으며, 그 옆으로는 돌무더기 사이에 자리한 석탑과 전각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에도 석탑의 부재와 전각의 배치가 그림과 유사한 위치에 존재해, 운초의 세밀한 관찰력과 사실적 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박운초는 이 망월암의 전경을 시문詩文을 통해 자세히 묘사하며, 풍경 속에 깃든 정서와 공간의 분위기를 함께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림 10〉 『삼성기유첩』 「망월암望月庵」(23.0×33.2cm, 안양박물관 소장)

「망월암」

峽路將窮又小菴
翛然林壑此冠南
山回百轉蒼屏合
樹老千年碧落參
衆理圓通鑑水月
上方清淨坐伽藍
更尋佛聖阿那在
樵客闍梨伴兩三

산속 좁은 길이 끝나려 할 때 다시 작은 암자 나오니
시원한 숲속 골짜기 여기는 관악의 남쪽이라.
산은 백 번 굽이 돌아 푸른 병풍 합쳐지고
나무는 천년 늙어 푸른 하늘까지 뻗어 있네.
특 트인 여러 이치는 물에 달이 비추는 듯
청정한 높은 절간이라 가람에 앉아 있노라.
다시 불성암을 찾으려 하니 어느 곳에 있는가,
나무꾼과 스님 두셋 짝을 지어 가는구나.²⁹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그림에서는 망월암 시문에 언급된 「불성사」의 전경과 「불성전 록망해」가 묘사되어 있다. 불성사는 삼성산에서 동쪽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간 후 다시 험한 산길을 올라야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는 안양예술공원에서



〈그림 11〉 『삼성기유첩』 「불성사佛聖寺」(22.9×33.1cm, 안양박물관 소장)

서울대학교 수목원 방면으로 가는 길 중간에 불성사로 향하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운초는 삼성산 동쪽 정산 부근에 위치한 불성사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보인다(그림 11).

그의 시문에는 불성사에서 바라본 서해와 멀리 떠 있는 배의 그림자가 언급되어 이 장소가 지닌 경관적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림 속에는 봉원루^{奉原樓}와 대웅전 두 건물이 중앙에 그려져 있으며, 현재의 실경과 비교해 보면 일부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운초가 눈앞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회화적 구성과 표현의 미감을 우선시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론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불성전룩망해」에서 표현된 섬과 파도의 묘사는 삼막사의 「망해루낙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시문에서 붉은 노을과 저녁 풍경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서는 해^日를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다. 이는 단순한 생략이 아닌, 운초의 회화적 절제와 그의 독특한 미의식을 반영한 예술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삼성기유첩』에 포함된 11점의 그림과 그와 관련된 시문은 여기까지가 안양 지역과 관련된 실경산수화이다(그림 12).



〈그림 12〉 『삼성기유첩』 「불성전룩망해佛聖前麓望海」(23.0×33.0cm, 안양박물관 소장)

「불성전록망해」

孤僧迎客亂山東	고승이 첩첩 산 동쪽에서 객을 맞으니
佛宇禪房處處同	불사의 선방이 곳곳마다 한결같구나.
清磬一聲檀越拜	맑은 풍경소리에 공양하고 절하니
無非無是則空空	옳음도 그름도 없으니 모두가 공이라.
登高憑晚眺	높은 곳에 올라 저녁 풍경 조망하니
直欲御風飛	바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듯하네.
天際島烟出	하늘 끝에 안개 낀 섬이 나타나는데
潮頭帆影稀	조수 머리에 배 그림자 희미하구나.
蓬瀛方可到	신선의 땅도 이제 찾아가겠지만
雲水更依微	구름과 물이 더욱 가물가물하구나.
出洞猶餘興	동구를 나서도 남은 흥이 있어
明霞濕我衣	환한 노을이 나의 옷을 적셔주네.

박지수 일행은 안양 지역 산사의 풍광을 즐긴 후 과천 방향으로 이동하여 동자하의 경관을 그림과 시로 기록하였다. 여덟 번째 그림인 「동자하」를 살펴보면, 그림 왼편에는 관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이 과천향교로 추정되는 기와 건물을 지나고 있다. 「동자하」에 기록된 시편에서는 저녁 햇살과 노을이 언급되고 있어, 일행이 해가 저물기 직전에 이곳에 도착하여 삼성산 유람의 주요 여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3).

「동자하」

纔下古寺洞	넓은 절 골짜기로 내려오자
林東晚景斜	숲 동쪽에 저녁 햇살 기우네.
兩邊垂翠壁	양쪽에 푸른 절벽이 드리웠는데
一道穿紅花	길 하나 붉은 꽃을 뚫고 가네.
數里盤陀石	너럭바위 몇 리에 이어지는 개울은
尋常浣女紗	아낙이 빨아놓은 비단 몇 길 걸린 듯.
名區誰管領	이름난 땅은 그 누가 차지하였는가
空壑鎖煙霞	빈 골짜기에 노을과 안개 가뉘 두었네. ³⁰



〈그림 13〉 『삼성기유첩』 「동자하(東紫霞)」(22.9×33.0cm, 안양박물관 소장)

아홉 번째 그림인 ‘동작강’은 한강 하류 남쪽 구간에 위치한 현재의 국립현충원 일대를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은 삼성산 유람 과정에서 한양으로 이동하는 길에 제작되었으며, 서호의 시문에는 산을 유람한 후 배를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다.³¹ 그림과 시문은 여정의 한 장면을 통해 당시 문인들의 경험과 감정을 전달한다(그림 14).

화면 왼편에는 동작강을 건너는 배들과 나루터가 보이며, 언덕 위에는 ‘이수정(二水亭)’으로 추정되는 정자가 묘사되어 있다. 맞은편 강 하류에는 ‘동작진(銅雀津)’을 관리하는 건물도 확인된다. 이수정은 당시 유람객들의 휴식처로, 그림에서 여유와 감상적 정서를 강조하는 시각적 요소로 기능한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실경산수화의 특징을 보여주며, 실제 장소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인간의 활동과 정서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실경산수화와 시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다음은 동작강을 보고 박운초가 지은 시문이다.

「동작강」

吾輩招携共壯年

손잡고 가는 우리들 모두 장년의 나이라

看山餘興又乘船
 林花散作蒼厓雨
 渚柳暝生黑石烟
 好是真襟渾似水
 飄然風御欲登仙
 賓朋盡是東南美
 合把茲遊盛事傳

산을 보고 흥이 남아 다시 배에 올랐네.
 숲속의 꽃은 푸른 벼랑의 비에 흩어지는데
 가의 버들은 검은 바위 안개에 어둑하네.
 구나, 참된 회포가 모두 강물과 같으니
 초연히 바람을 타고 우화등선할 것 같네.
 벗들은 모두 동남방의 아름다운 이들이라
 이 유람을 합쳐서 성대한 일을 전하리라.

일행의 마지막 유람지는 북자하동이었다. 열 번째 그림의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에는 ‘북자하’라는 제명이 적혀 있다(그림 15).

북자하동은 현재의 서울대학교 서쪽 계곡으로 추정된다. 화면의 왼쪽 아래에는 민가로 보이는 여러 채의 가옥이 묘사되어 있다. 북자하동은 조선 중기 문신인 윤두수(尹斗壽, 1533~1601)와 손자인 윤신지(尹新之, 1582~1657)가 이곳에 초가를 짓고 거주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러한 문인적 배경 위에 자연 경관의 미학이 더해져 유서 깊은 공간으로 형성



〈그림 14〉 『삼성기유첩』 「동작강銅雀江」(23.0×33.2cm, 안양박물관 소장)



〈그림 15〉 『삼성기유첩』 「북자하北紫霞」(22.9×33.2cm, 안양박물관 소장)

되었다. 이후 17세기 말에는 평산 신씨 가문의 신여석申汝哲·신여철申汝哲 형제가 이곳에 각각 이로당二老堂과 일간정一間亭을 경영하면서, 북자하동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자연과 교유하는 유람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19세기 전후로는 신여석의 후손인 신위申緯가 자하산장紫霞山莊을 물려받음으로써, 북자하동은 문인들의 정서적 공간이자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실경산수화와 시문 속에서 이 지역이 자연경관과 문인문화가 결합된 복합적 의미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³² 운초가 쓴 「북자하」 시문을 살펴보면, 비가 개인 뒤에 다시 북자하로 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삼성산 유람을 즐기고 마지막으로 북자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³³

『삼성기유첩』의 열한 번째 장소이자 마지막 그림에는 「여계담女妓潭」이라는 제명이 상단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위치에 적혀 있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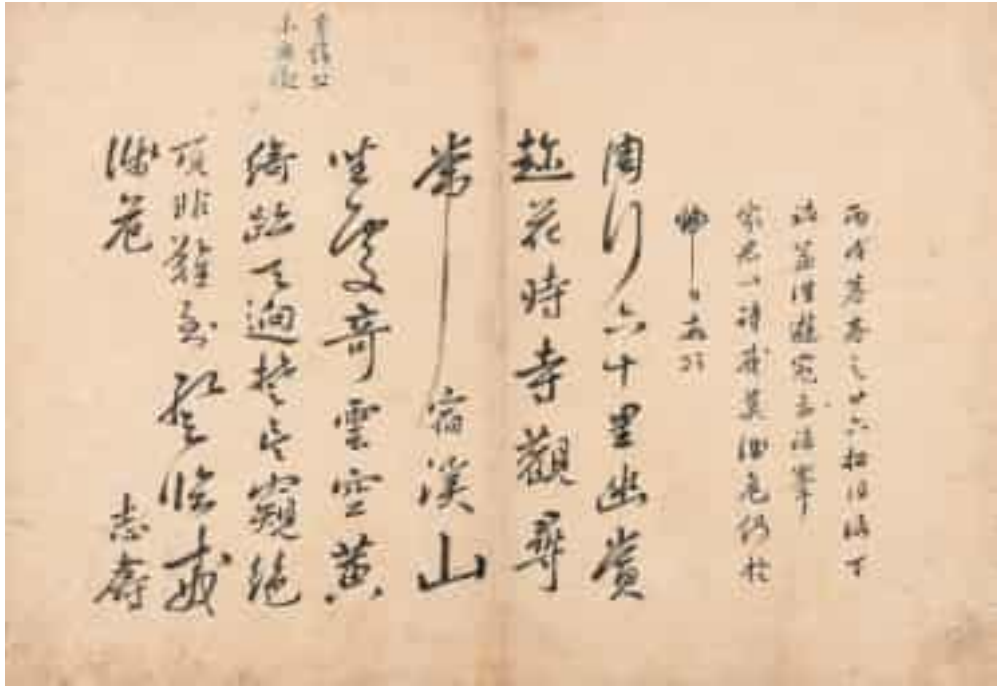
이 장소는 ‘여계담女笄潭’이라는 명칭으로도 문헌에 등장하나, 운초 일행의 시문은 해당 화첩에 수록되지 않았다. 대신 조선 후기 문신 서영보(徐榮輔, 1759~1816)의 문집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제3책에 수록된 「유자하동기遊紫霞洞記」에서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에



〈그림 16〉 『삼성기유첩』 「여기담女妓潭」(22.9×33.4cm, 안양박물관 소장)

대한 상세한 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서영보의 기록에 따르면, 국사봉으로부터 연장되는 산맥은 수계를 따라 흘러내리며 풍과 같이 해당 지역을 에워싸고 있다. 산길을 따라 정자를 지나 서쪽으로 100여 보 정도 더 가면 지형의 변화가 중단되며, 그 지점은 평탄하고 넓적하여 수백 평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이 지역에는 철쭉과 밤나무가 주된 수종으로 자생하고 있으며, 정원 서편의 절벽 아래로는 여계담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줄기 하나가 돌아 흐르다가 자하동의 개울과 합류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여계담 역시 절경으로 이름났다고 덧붙이며, 그 모든 곳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음을 아쉬워했다.³⁴ 여계담은 여인의 머리 장식인 ‘계笄’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물줄기의 가늘고 단아한 모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이 장소는 현재 관악산 호수공원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삼성기유첩』의 그림과 시문을 살펴보았다. 현재 화첩의 구성에서 그림은 전반적인 서사 흐름에 부합하는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나, 시문의 배열은 다소 이탈된 부분이 관찰된다. 특히 「동작진」과 「북자하」 사이에 위치한 시문은 유람을 떠난 날씨가 명기되어 있고,³⁵ 먼길 떠나는 자식을 걱정하는 부친 박종민의 정이 담겨 있어,³⁶ 시기적 맥



〈그림 17〉『삼성기유첩』「관악산유람冠岳山遊覽」(22.9×32.9cm, 안양박물관 소장)

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치에 조정의 여지가 있다(그림 17).

관악산과 삼성산은 예부터 여러 문인들이 유람하며 그 경관을 노래한 시문이나 기록을 담은 기행문이 적지 않다. 그러나 『삼성기유첩』처럼 문인이 그림과 글씨를 함께 남긴 사례는 매우 드물며, 관악산과 삼성산 일대의 옛 모습을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 화첩은 19세기 문인 유람문화의 실제 양상과 미감 그리고 정서적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5. 『삼성기유첩』의 활용방안

『삼성기유첩』은 조선 후기 삼성산 유람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린 귀중한 유산으로, 현재 안양박물관에 소장된 지역의 대표적인 유산 중 하나이다. 유물은 단순한 역사적 자료를 넘어, 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삼성기유첩』은 19세기 초 삼성산의 자연경관과 유람 문화를 생생하게 담아 낸 귀중한 유물로, 이를 중심으로 기획된 전시는 과거와 현재의 안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물에 묘사된 역사적 장소와 현재 안양의 경관을 대비적으로 제시하거나, 첨단 인터랙티브(interactive) 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깊은 몰입감과 역사적 통찰을 선사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안양박물관은 이러한 다층적 접근을 바탕으로 『삼성기유첩』을 핵심 콘텐츠로 한 특별기획전 <삼성기유첩: 그림으로 걷는 안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적 맥락을 재발견하고, 시민들에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요로운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그림 18).

교육적으로도 이 유물은 큰 가치가 있다. 유람기 속 인물, 풍경, 자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과 시민이 조선 후기 문화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안양 지역의 초·중등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실제 풍경을 따라 걷는 역사 체험 활동이나 유물의 문구를 활용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체험도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이다.

『삼성기유첩』은 학술적 측면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유산으로, 그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입 당시 이 유물은 경매 낙찰 당시의 원형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본격적인 학술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과제로 그림과 시문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지류(紙類) 상태에 대한 전문적 점검을 통한 적합한 보존처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유물에 기록된 인물 정보와 지명 관련 기술은 조선 후기 지역 인식 체계와 문화사적 맥락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료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기유첩』의 서문에 드러난 유람과 화첩 제작 과정은 당대 문화적 교류와 공동체 의식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수의 인물이 협업하여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조선 후기 예술적 공동체의 특성을 조명하며, 사회·문화적 네트워크가 창작 활동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조종진이 화첩에 자신의 독창적 글과 시를 더한 양상은 개인의 예술적 표현과 집단적 협업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이처럼 『삼성기유첩』 연구는 단순한 고문헌 해독의 차원을 넘어 미술사학적 조명, 문학적 분석, 지역사적 맥락화, 사회사적 해석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문화유산 연구의 모범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각적 연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2025년 5월 23일 개최한 『2025

안양박물관학술연구사업』에서는 역사학, 미술사, 고전 시문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삼성기유첩』을 중심 주제로 한 심도 있는 학술 대회에 참여하였다. 이 공동 연구의 성과는 추후 권위 있는 학술 전문서로 출간되어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더불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고해상도 디지털 아카이브와 전문적 해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접근성이 높은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19).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삼성기유첩』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선진적 문화유산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삼성기유첩』의 유물 구입 비용은 안양박물관의 기존 유물 구입 금액에 비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물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다. 안양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의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학계 전문가들과 안양시 의회의 지원, 지역의 주요 인사들의 관심과 무엇보다 최대호 시장의 빠른 결단이 더해져 이 유물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 모든 요소가 협력하여 안양박물관은 『삼성기유첩』을 소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 문화유산의 보호와 확산, 나아가 안양의 역사적 가치를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처럼 『삼성기유첩』은 단순한 고문서나 그림이 아니라, 과거의 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사람들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안양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 인식은 더 넓고 깊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유물의 구입은 단순히 공립박물관 중요 유산의 확보를 넘어 지역사 연구와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향후 이 유물은 『삼성기유첩』을 중심으로 한 전시·교육·연구 등에서 안양박물관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18〉 2025 안양박물관 특별기획전
〈삼성기유첩: 그림으로 걷는 안양〉



〈그림 19〉 2025 안양박물관 특별기획전 〈삼성기유첩: 그림으로 걷는 안양〉 실감영상실



CHINESE

莫語於寐二十於赫茲林空此實而
山山云情莫居心樹走于千雲浩
水理園並福小月正光清中
主身何難性計在柱為國製計也三

1 안양박물관 학술연구 사업(2019~2025년)

연번	시행연도	연구내용	성과물
1	2019	2019년 안양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사업	보고서, 탁본, 촬영, 실측
2	2020	안양사지를 중심으로 한 왕실발원 사찰 학술연구	보고서, 탁본, 촬영, 실측
3	2021	삼성산을 중심으로 한 안양 지역 불교유적	보고서, 탁본, 촬영, 실측
4	2023	안양의 근현대사 생활문화 학술연구	보고서, 촬영, 구술채록
5	2025	19세기 회화의 눈으로 본 안양	보고서, 학술대회

2 『도은집陶隱集』 4권, 「금주안양사탑중신기」.

3 안양박물관, 2021년 안양박물관 학술조사 연구사업, 「삼성산을 중심으로 한 안양 지역 불교유적」, 2021, 37쪽.

4 안양박물관, 2021년 안양박물관 학술조사 연구사업, 「삼성산을 중심으로 한 안양 지역 불교유적」, 2021, 33쪽 <표 1>에서 '금천현'만 부분 발췌함.

연번	문헌기록(간행연도)	사찰명(금천현)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경기 과천현 불우: 권10 경기 금천현 불우(1530)	안양사, 도안사, 안흥사, 삼막사, 망월사, 성주사, 사자암
2	『동국여지지』 권2 경기 좌도 광 주진 과천현 사찰: 경기 좌도 수원진 금천현 사찰(1656)	안양사, 삼막사, 도안사, 안흥사, 망월사(망월사), 성주사, 사자암
3	신경준(1712~1781), 『가람고』, 경기 과천: 금천	호암사, 망월사, 삼막사, 염불암, 성주암
4	『여지도서』 상 경기도 과천 사찰: 금천 사찰(1757~1765)	호암사, 망월사, 삼막사, 염불암, 성주암
5	『법우고』 경기도 과천: 금천(1799)	안양사, 안흥사, 삼막사, 망월사, 성주사, 사자암, 호암사, 염불암, 도안사(폐사)
6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태고사본』 봉은사 말사 시흥군(1942)	자운암, 호암사, 망월암, 성주암, 관음사, 연주암, 삼막사, 망해암, 불성사, 염불암
7	이철교, 『서울 및 근교 사찰지(원제: 봉은본말사지, 1880~1965) 해제』, 『다보』 통권 13호, 대한불교진흥원, 1995, 5~46쪽.	삼막사, 연주암, 화장사, 염불암, 망해암, 망월암, 자운암, 불성사, 성주암, 호암사, 약수암, 관음사, 사자암, 용화사

5 최응천, 「안양 석수동 마애타종상의 조형과 편년」, 『강좌미술사』 34, 2010, 57쪽; 안양시, 「안양 석수동 마애타종상의 현상과 편년」, 『안양 석수동 마애종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9.

6 엄기표, 「조선 후기 마애부도에 대한 연구」, 『문화사학』 27, 2009, 967쪽.

7 석수동마애종: 고려시대,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8 염불사 현진당 마애부도: 1783년, 안양시 향토유산 제2호.

9 삼막사 마애삼존불: 1763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10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1988, 1339쪽.

11 유형원, 『동국여지지』, '산천' 조在縣西五里 鎭山 峯巒嶺峯 氣勢聳拔 乃漢都之望也 山頂日靈珠臺 有巖如堂宇環 其下殆千仞 攀緣而上 愕然神動 其上可坐數十人 北顧京城 西望渤海 眞絕境也; 곽항지, 「삼막사三幕寺 마애삼존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5쪽.

12 『삼성기유척三聖記遊帖』은 총 30면으로, 그림 11점과 시문 42수, 서문과 발문이 각각 1편으로 되어 있다.

	구분(화제)	비고(면)	글(편)	그림(점)	시(수)
	서문	2	1	-	-
	남자하	2	-	1	5
	염불암	2	-	1	4
	삼막사	2	-	1	4
	망해루낙조	3	-	1	4
	망월암	2	-	1	4
	불성사	2	-	1	4
	불성전록망해	2	-	1	4
	동자하	2	-	1	4
	동적강	2	-	1	4
	관악산유람	3	-	-	4
	복자하	2	-	1	1
	여기담	1	-	1	-
	발문	3	1	-	-
	총계	30(면)	2(편)	11(점)	42(수)

- 13 KAN AUCTION, 「칸옥션 제31회 미술품경매 도록」, 2024.2.28., 104~117쪽; 이태호, 「(상)관악산 자하동 사생화들」, 『월간 민화』, 2024. 3, 115~116쪽.
- 14 이종묵, 『삼성기유첩과 운초 박지수』, 『2025 안양박물관 학술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박물관, 2025.
- 15 강준흥, 『제삼성기유첩후題三聖記遊卷後』, 『삼명시집』 7집(四下皆泉石, 中支鷓鴣峯, 卷中窮態勢, 舊日枉探尋, 寺將山作頂, 樓用海爲襟, 忽疑身化雲, 棲宿于中林, 遂與諸君子, 相隨澗之澗, 朴生眞韻士, 豪素妙經心, 誰將摩詰畫, 去博天姥吟.)
- 16 조종진, 『삼성기유첩서三聖記遊帖序』, 『동해공유고東海公遺稿』(“日金玉汝(啓溫), 携畫客入金剛鏡浦, 逐境輒畫, 畫輒附以空紙爲若干帖, 屬諸所知量, 占其空, 或和題, 或別賦, 仍題余日, 送帖洪成伯[洪周], 要有所占, 待帖還, 願子逐畫並填, 無擇占焉. 余不能終辭之, 亦不能及玉汝生而遂之, 歎傷之至今. 至今杳雲樵, 以三聖記遊帖, 要余題之, 其境冠嶽黔芝山也, 三聖其枝山也. 其偕五人者, 吾家侄孫其二, 各爲詩, 而畫與書皆雲樵爲也. 時余病翼社門中, 開帖視之, 翛然若坐在高山大海上, 便欲寄愁天上, 埋憂地下, 若仲長統然, 直與觀濤而靈然, 無甚間焉. 嗟乎, 詩畫書三工其一者蓋難焉. 近來論人才, 輒數吾友玉汝, 玉汝於書畫則並未也. 恨不令玉汝見茲帖, 必自歎畫客贅疣也, 字書齒足也. 又恨余四入金剛, 時不果偕雲齋老友, 率阿樵來, 恣遊關東海山, 爲詩爲畫爲書, 成得三絕大全也. 余於茲帖, 不能以汚佛頭爲嫌, 繫以數語. 書可謂圓嶠之素臣, 畫可謂謙齋之別墨, 詩可謂齋齋詞伯之後殿. 如家侄輩, 何足謂張吾軍也. 東海客於戊子陽復月, 書季夏所作”).
- 17 이종묵, 『『삼성기유첩』과 운초 박지수』, 『2025 안양박물관 학술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박물관, 2025.
- 18 이종묵, 『『삼성기유첩』과 운초 박지수』, 『2025 안양박물관 학술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박물관, 2025.
- 19 위의 책
- 20 이태호, 「(상)관악산 자하동 사생화들」, 『월간 민화』, 2024. 3, 115쪽; 이종묵, 『『삼성기유첩』과 운초 박지수』, 『2025 안양박물관 학술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박물관, 2025, 각주 19-20(조종진, 『별부회제소년(別賦聊戲諸少年)』 「화아옹배기유운和阿龍龜紀遊韻」, 『송한석아룡유해산送漢石阿龍遊海山』, 『동해공유고』 책6-7-8).
- 21 이태호, 「조선 후기 시서화 합벽첩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3호, 한국미술사학회, 2006; 박정혜, 「실경산수화와 외유지자 개념」, 『동양미술사학논집』 제17집, 동양미술사학회, 2015;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들배개, 2007, 173쪽; 최지은, 「19세기 조선 유당 김하종의 실경산수화 연구 《해산도첩海山圖帖》과 《풍악권楓嶽卷》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22쪽.
- 22 엄기표, 「안양 중초사지와 안양사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양미술사학』 제26호, 2019, 60쪽.
- 23 오세덕, 「고려 태조 왕건 사찰의 가람배치와 건축 특징」, 『문화사학』 제58호, 2022, 52쪽.
- 24 안양시·한울문화재단연구원, 「안양사지」, 『발굴조사보고』 39, 2013.
- 25 이태호, 「조선 후기 시서화 합벽첩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3호, 한국미술사학회, 2006.
- 26 이태호, 「(하)안양 삼성산의 산사山寺 그림들」, 『월간 민화』, 2024. 4, 152쪽.
- 27 이종묵, 『『삼성기유첩』과 운초 박지수』, 『2025 안양박물관 학술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박물관, 2025, 11쪽(각주 29). 상단에 「또한 합작이지만 결어가 조금 성글다亦合作而結語砂疎」는 평이 붙어 있다.
- 28 시문(『삼막사』, 『망해루박초』)은 『2025 안양박물관 학술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에서 발표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이종묵 선생의 해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29 시문은 KAN AUCTION, 「칸옥션 제31회 미술품경매 도록」, 2024, 108쪽; 『2025 안양박물관 학술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에서 발표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이종묵 선생의 해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30 이종묵, 『『삼성기유첩』과 운초 박지수』, 『2025 안양박물관 학술연구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박물관, 2025.
- 31 KAN AUCTION, 「칸옥션 제31회 미술품경매 도록」, 2024.2.28., 110쪽. “…… 纔過山來又喚船 ……”
- 32 이종묵, 「관악산 자하동의 인문경관과 자하 선위」, 『인문논총』 80권 3호, 2023, 183~213쪽.
- 33 KAN AUCTION, 「칸옥션 제31회 미술품경매 도록」, 2024.2.28., 110쪽, “雨後 復入北紫霞看瀑 纔迴南洞遊 纔迴南洞遊 幸有宗生畫 無勞步履尋 屋溜起曉夜 露瀑爽幽襟 晴日陪杖屨 斜徑入雲林 餘花間妃葉 江峯復碧澗 水流猶也情 巖奇自古心 石間重磨墨 濡毫聊一吟.”
- 34 서영보, 「유자하동기」, 『죽석관유집』 제3책. “…… 山支自國士峯 逸出隨水行. 環周如屏障. 過亭西百餘步而止. 嘉木叢蔓蒙絡. 披拂上. 正平夷曠可數百畝以爲園. 其樹多躑躅. 其葉多栗. 水一派自女笄潭而下者. 抵園西壁逸出. 與紫霞溪合流. ……”
- 35 유림은 1826년 3월 26일(양력 5월 6일) 봄에 출발하였고, 2년 뒤인 1828년 삼성산 유림기가 책으로 완성되었다.
- 36 『삼성기유첩』, “丙戌暮春之十六, 招同洛河諸益, 往遊冠岳諸峯, 家君以詩戒莫涉危, 仍於歸日敬次.”

집필(가나다순)

구본태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권보형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무관
김왕직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종혁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박희은	안양시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서현정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이사
이규송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정성권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정재은	안양박물관 선임학예연구사
정재형	화성시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최순규	야생동물어류연구보전센터 연구원
최승빈	용산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허홍범	추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현진오	(주)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연구소장

기획총괄

김지석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구본태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편집

김지석, 박소영

교정·교열

성명선, 이윤진, 박희은

안양시사 01 **지리와 환경**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10-2
ISBN 979-11-94861-09-6 (세트)

안양시사

THE HISTORY OF ANYANG CITY

(주) 9·0·1·9896-11-626 NBS
2011.9.14.6.11.97.6



0.9896
정/8 10.00